

수능특강

국어영역
문 학

교과서 기본 개념을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5년간 시행된 모의 평가와 수능을 철저히 분석하여 대표적인 작품을 선별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항으로 개념 적용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실전 학습 1회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경성도 땅에 ㉠한 사람이 있으니, 대대 부자가 일 년 추수가 만석에 지나니, 그 사람의 무량대복을 가히 알지라. 일생 가산이 풍비하여 그럴 것이 없으되, 이웃 사람이 송덕 아니하는 이 없더라.

그중 일가에 한 ㉡패안무도한 늙이 있어 불분동서하고 유리표박하여 다니리니, 일일은 홀연 이르러 구박 하여 왔.

“너희는 종이 잘사는구나. 너 잘사는 것이 도시 조상 전래지물이니, 우리 서로 같은 고조의 자손으로 너 만 홀로 잘 먹고 잘 입어 부족한 것 없이 지내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오, 이제 그 재물을 반 나누어 주면 무사하리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너를 살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종야토록 광언망설을 무수히 하며 심지어 불을 놓으려 하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거동을 보고 그놈의 뭉클 심사를 헤아리며 차마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가만히 주인 부자를 권하여 왔.

“그놈을 그저 두지 말고 관가를 정하거나 감영에 의송하거나 하여 다시 이런 일 없게 함이 가하노라.”

그 부자 이 말을 듣고 웃어 여겨 왔.

“이놈은 좀처럼 속이지 못한지라, 서울에 올라가 형조를 정하여 후환을 없이하리라.”

하고, 그놈을 이끌고 한가치로 서울로 올라오니라,

이 부자는 본래 ‘하방’에 있어 좀처럼 글자도 읽으며 상시 박달하여 구변도 있으며 주재님은 문자도 쓰더니, 이러한 일을 당하매 ‘득송’은 단단히 하리라 하고 분하여 절충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놈을 형주정배 하 면 다시 풀책 못 하게 하리라 하고 경성에 올라와

“소인은 경성도 아무 고을서 사들더니, 천행 구제하옵더니, 소인의 일가 중 한 늙이 있어 로 불쌍히 여겨 다시 집도 지어 주며 전답도 사 하여 농사도 아니 하우고 온갖 노름하기와 술

3부 실전 학습

교과서 개념 학습과 적용 학습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갈래별로 다양한 작품과 실전 문제를 실었습니다. 총 2회 분량을 제시하여 실전 감각을 익히고 ‘문학’ 과목 학습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작품으로 이해하기 ① 예시 답안

문항 9~10쪽

01 ㉠
02 ㉡
03 ㉢: 기라기 ㉣: 열 십자

■ 김소월, '길'

해제 ㉠ 이 작품은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야 하는 나그네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사회의 타락을 배반하고 일제 강점기에 있던 민초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4행 5언 율격을 변주하여 진행되는 화자의 비애를 표현하고 있으며, 대화체로 진행되는 일두, 방랑성을 상실한 '길'이라는 공간적 배경, 감성 이입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 등을 통해 삶의 뿌리를 잃은 화자의 절망과 허무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갈릴갈릴 한가운데에서 어디로도 나가지 못

적 의미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2 ㉡ '오늘은 /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에서 화자는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으로의 목격자 없이 방황하는 고단한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관념 속에서 인생의 길을 탐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적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갈망과도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01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길'의 의미가 나그네의 여정임을 주목할 때, '기라기' 주는 소리를 들으며 '어제도' 밤을 지새웠다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으로 인한 화자의 외로운 자처와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상으로 올라갈까 / 등로 갈까'는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목격자가 없는 나그네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04 '장주 객상'을 '차'라고 배 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은, 차나 배, 그리고 차, 수, 배는 각각의 화자와 화자의 의도를 배반하고 있다.

정답과 해설

학습한 내용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자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작품 해제, 주제를 제시한 후, 구성이나 전체 줄거리로 전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정답이 정답인 이유'와 '오답이 오답인 이유'까지 모두 설명하여 깊이 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

인공지능 푸리봇 문제|제|검|색

EBS 사이트와 EBS 고교강의 APP 하단의 AI 학습도우미 푸리봇을 통해 문항코드를 검색하면 푸리봇이 해당 문제의 해설과 해설 강의를 찾아 줍니다. 사진 촬영으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문제별 문항코드 확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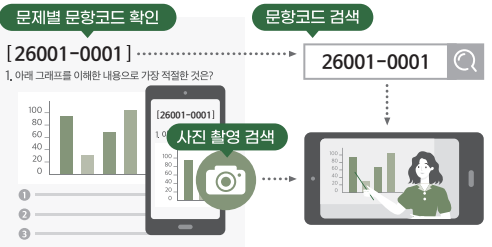
문항코드 검색

[26001-0001]

1. 아래 그래프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6001-0001

사진 촬영 검색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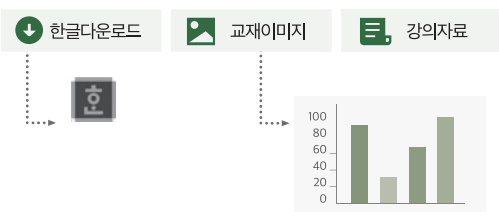
EBS 교사지원센터 교재 관련 자료|제|공

교재의 문항 한글(HWP) 파일과 교재이미지, 강의자료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한글다운로드

교재이미지

강의자료



- 교사지원센터(teacher.ebsi.co.kr)에서 '교사인증' 이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교사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교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차례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길(김소월)	009
2강 시의 내용 고을사 저 꽃이여 ~(안민영) 피골피골 우는 소리에 ~(오경화)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이규보)	013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징 소리(문순태)	016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임진록(작자 미상)	020
5강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길삼봉연(김민정)	024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울정설(백문보)	029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하나씩의 별(이용악)	032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카인의 후예(황순원 원작, 이상현 각색)	036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고향(현진건)	041

2부

적용 학습

고전 시가

01 원가(신총) / 진중음(이순신)	046
02 만전춘별사(작자 미상) 내 영혼 술에 섞여 ~(김삼현)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작자 미상)	048
03 월곡답가(정훈)	051
04 두류산 양단수를 ~(조식) 요일월 순건곤은 ~(김천택) 대장부 공 이루고 ~(작자 미상)	053
05 눈 맞아 휘어진 대를 ~(원천석) 연못에 비 오는 소리 ~(작자 미상) 임으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이정보)	055
06 면양정가(송순)	058
07 사친가(작자 미상)	063
08 속사미인곡(이진유)	067
09 몽금포 타령(작자 미상) / 어부별곡(이중경)	071
10 유산가(작자 미상) / 백석정별곡(신교)	074
11 성패관천운(김상헌) / 정처관군동(최명길)	078

현대시

01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이상화) 초토의 시 1(구상)	081
02 오월 소식(정지용) / 와사등(김광균)	084
03 연륜(김기림) / 정릉 살면서(박재삼)	087

Contents

04	꽃(이육사) / 누룩(이성부)	090
05	나비와 광장(김규동) / 민들레꽃(이형기)	093
06	그 방을 생각하며(김수영) / 달밤(황동규)	096
07	눈 오는 날에(조지훈) / 유등제(이수익)	099
08	포스터 속의 비둘기(신동집) 대설주의보(최승호)	103
09	그 여름의 끝(이성복) / 그 나무(김명인)	106
10	원시(오세영) / 차심(손택수)	109
11	면면함에 대하여(고재중) 며느리밥풀꽃(송수권)	112

고전 산문

01	포천이문(이현기)	116
02	왕수재취득옹녀설(작자 미상)	120
03	서해무릉기(작자 미상)	125
04	반씨전(작자 미상)	129
05	현몽쌍룡기(작자 미상)	133
06	대관재몽유록(심의)	138
07	금방울전(작자 미상)	142
08	적벽가(작자 미상)	146
09	옹고집전(작자 미상)	150
10	옥단춘전(작자 미상)	154
11	김순부전(이광정)	159

현대 소설

01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박태원)	164
02	인간 문제(강경애)	169
03	치숙(채만식)	173
04	나룻배 이야기(하근찬)	177
05	불신 시대(박경리)	181
06	관부 연락선(이병주)	185
07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박완서)	189
08	해벽(이문구)	193
09	미망(김원일)	197
10	눈이 오면(임철우)	202
11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김소진)	207

극·수필

01	꼭두각시놀음(작자 미상)	212
02	불모지(차범석)	217
03	노비 문서(윤대성)	222
04	역마(김동리 원작, 최금동·김강윤 각색)	226
05	꽃 피는 봄이 오면(류장하)	230
06	호동서락기(김금원)	234
07	해갑와기(김석주)	238
08	산촌 여정(이상)	241

이 책의 차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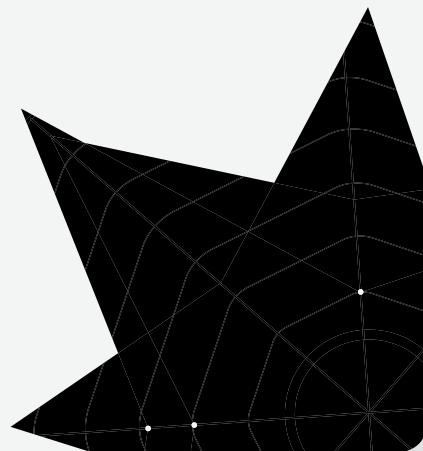
갈래 복합

01 산민(김창협) / 합강정가(작자 미상) 응계설(이첨)	244
02 계녀가(작자 미상) / 상론(정약용)	250
03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이항복) 시(이창동)	256
04 규원가(허난설헌) / 인현왕후전(작자 미상)	261
05 목동가(임유후) / 풍계육가(이정) 고금군자은현론(김시습)	267
06 낙원은 가시덤불에서(한용운) 산에 대하여(신경림) 능양시집 서(박지원)	273
07 박꽃이 피어난 집(이학규) 한데서 울다(공선옥)	278
08 남도 기행(홍성원) / 한 그루 나무처럼(윤대녕)	283
09 참회록(윤동주) / 녹을 닦으며-공초 14(허형만) 선부 자화상(김용준)	288
10 멀치(김기택) / 버팀목에 대하여(박효근) 뿌리가 꽃이다(정호승)	293
11 잘 익은 사과(김혜순)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문태준) 길의 안내자들(김인숙)	298

3부

실전 학습

1회 [01~04] 황새결송(작자 미상)	304
1회 [05~10] 만흥(윤선도) / 장춘정기(기대승)	308
1회 [11~14] 너무 큰 나무(최일남)	314
1회 [15~17]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고정희) 사과밭을 지나며(나희덕)	319
2회 [01~04] 금환기봉(작자 미상)	322
2회 [05~10] 산이 날 에워싸고(박목월) 흐름에 대하여(문정희) 한정록 서(허균)	326
2회 [11~14] 고향(이기영)	330
2회 [15~17] 규수상사곡(작자 미상) 임 그린 상사몽이 ~ (박효관)	335



1부

www.ebsi.co.kr

교과서 개념 학습

1

시의 표현과 형식

④ 형상화

정서나 교훈, 삶의 이치 등과 같이 분명한 형태로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다양한 방법이나 매체를 통해 구체적이고 실감 나게 그려 내는 것을 뜻한다. 문학에 서는 마음이나 윤리적 덕목과 같은 추상적인 대상도 구체적인 형상으로 드러난다.

④ 표현과 형식의 관계

시적 표현이라는 말의 의미는 그 폭이 매우 넓어서 형식의 의미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표현과 형식을 별도의 개념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형식을 표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 독백과 대화

독백은 화자가 자신을 청자로 삼아 하는 말이고, 대화는 청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상징하고 하는 질문, 명령, 부탁, 위로, 격려 등의 말은 형식적으로 대화에 해당한다. ‘-입니다’ 등의 높임말도 자신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는 점에서 표면적으로는 대화 형식에 해당한다.

1 시적 표현

(1) 시적 표현의 개념

-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모든 언어적 표현을 가리킴.
- 비유, 상징, 역설, 반어, 대구, 반복, 설의, 영탄, 도치, 열거, 점층, 우의, 풍자, 병렬 등의 표현 기법이 있음.

(2) 시적 표현의 여러 가지 효과

- 음악적인 리듬이 느껴지게 함.
- 시어의 함축성을 높여 의미를 풍부하게 함.
- 어떤 대상을 감각적으로 연상하게 함.
- 상식적인 생각을 뒤집거나 깨뜨림으로써 지적 충격을 줌.
- 재미를 느끼고 웃게 하거나 반대로 슬픈 감정을 환기하게 함.
- 일상적인 표현에 변화를 가하여 말의 묘미를 느끼게 함.
- 화자의 사고나 감정, 상황 등을 강조하거나 부각함.

2 시의 형식

(1) 시의 형식의 개념과 특성

- 율격, 시행, 연 등의 요소가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이루는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를 가리킴. 크게 고정된 형식과 자유로운 형식으로 구별됨.
- 시의 형식은 문화적으로 형성된 시 고유의 체계와 관습에 기반을 두고 있음.

(2) 시의 형식의 여러 층위

- 갈래: 민요, 시조, 가사, 자유시 등
- 담화 양식: 독백, 대화, 편지, 전화 통화의 형식 등
- 구조: 기승전결, 수미상관, 선경후정, 대칭, 아이러니(반어) 등
- 진술 형태: 정형시, 자유시, 산문시, 이야기시, 극시 등
- 형태: 시행 및 연의 배열 등
- 청자의 존재: 독백, 대화 등
- 시상 전개: 원경-근경, 외부 풍경-내면세계, 과거-현재-미래 등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어제도 하룻밤
나그네 집에
가마귀 가왯가왯 울며 새었소.

오늘은
또 몇 십 리
어디로 갈까.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 곳이 없어 나는 못 가오.

말 마소 내 집도
정주(定州) 관산(郭山)
차(車) 가고 배 가는 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 기러기
열 십자(十字) 복판에 내가 섰소.

갈래갈래 갈린 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

- 김소월, 「길」

*바이: 전혀.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적 표현은 리듬감을 다양하게 형상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특히 시행의 배치와 연 구분 등의 요소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의 주제나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면서 시 전체의 형태를 구성하게 된다. 외적 규율이 전제되어 있는 고전 시가와 달리, 현대시의 리듬은 반복이나 다양한 변주 등을 통해 내적 규범을 창출한다. 이 작품은 호흡의 속도와 길이 등을 조절하는 율격을 기반으로 하고 종결 표현을 다양화하는 등의 요소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단어를 중첩하는 방식으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표현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는 방식도 찾아볼 수 있다.

- ① ‘어제도 V 하룻밤 V 나그네 집에’로 호흡을 조절하는 율격을 통해 시의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군.
- ② 시행의 길이를 각 연마다 다양하게 변주한 것은 내적 규범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는 현대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③ ‘-오’와 ‘-소’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드러낸 것은 전체적인 리듬감 형성에 기여하는 것이겠군.
- ④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에서 의문형 종결 방식을 사용한 것은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는 동시에 시 전체의 율격의 통일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 ⑤ ‘가왁가왁’과 ‘갈래갈래’ 등 동일한 단어를 중첩한 음성 상징어를 사용한 것은, 시적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시적 의미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겠군. |

02

[26001-00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길’은 보통 우리가 평상시에 걸어 다니는 보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비유적으로 인생이나 운명의 행로를 의미하기도 한다. 혹은 인간의 도리나 종교적 진리를 뜻하는 관념적인 단어로도 쓰인다. 이 작품에서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으로서, 일제 강점기의 고단하고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며 고향에는 가지 못하는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표상한다.

- ① ‘어제도’ ‘가마귀 가왈가왈’ 우는 소리를 들으며 밤을 지새운 화자의 처지를 통해, 끝없는 여정에 처한 불안한 심리를 짐작할 수 있겠어.
- ㉡ ‘오늘은 /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에서 화자는 관념 속에서 인생의 길을 탐색하며, 종교적 진리를 향한 갈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③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 하는 화자의 방향은 뚜렷한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의 처지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
- ④ ‘내 집’인 ‘정주 곽산’에 대해 ‘차 가고 배 가는 곳’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화자가 고향에 가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갈 수 없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
- ⑤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에서 드러난 화자의 절망감은, 일제 강점기의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유랑민의 고단함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어.

03

[26001-0003]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시어나 시구를 찾아 쓰시오.

◀ 보기 ▶

이 작품에는 공중에 아무런 길이 없는데도 자유롭게 비상하는 (㉠)의 이미지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 한가운데에 서서 방황하는 화자의 이미지가 서로 대립을 이룬다고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화자는 자신이 있는 공간에서 느끼는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기러기

㉡: 열 십자

☞ 서정시(抒情詩)

서정은 본래 정서를 풀어낸다는 의미를 지닌다. 서정시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주관적으로 표현한 시를 가리킨다. 서사시나 극시, 교술시도 있으나 대부분의 시는 서정시에 해당된다.

☞ 함축적 의미와 지시적 의미

함축적 의미는 지시적 의미와 동떨어진 채 형성되지 않고 오히려 지시적 의미를 바탕으로 형성된다. 따라서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단어의 지시적 의미를 파악한 뒤 다른 시어와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1 시적 화자의 정서

(1) 정서의 개념과 종류

-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을 가리킴. 정서에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됨.
- 희로애락(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이 대표적인 정서에 해당함. 긍정적인 정서로는 사랑, 존경, 예찬, 환희, 동경, 희망, 기대 등이, 부정적인 정서로는 미움, 분노, 공포, 비애, 우수, 절망, 원망 등이 있음.

(2) 정서의 특징

- 서정시는 다른 갈래에 비해 화자의 정서가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갈래이며, 정서는 곧 시의 주제가 되기도 함.
- 한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정서가 공존할 수 있으며, 그중에서 지배적인 정서가 있을 수 있음.
- 화자의 정서는 주로 태도나 어조를 통해 드러남. 태도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화자가 대응하는 방식을 말하고, 어조는 목소리의 결을 가리킴. 어조는 딱딱한/부드러운, 온화한/냉정한, 거만한/겸손한, 직설적/반어적/냉소적/동정적 어조 등이 있으며, 의도나 목적에 따라 감탄/명령/부탁/간청/위로/격려/보고하는 어조 등이 있음.

2 소재

(1) 소재의 개념

시를 창작하는 데 바탕이 되는 모든 사물, 인물, 현상, 경험 등을 뜻함. 개인적 체험, 자연, 사회 현상, 타인의 인생, 공동체의 역사 등 세상의 모든 것이 시의 소재가 됨. 한 작품 안에 있는 다양한 소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을 제재라고도 함.

(2) 소재의 함축적 의미

시에서 쓰이는 주요 소재에 해당되는 시어는 대체로 함축적 의미를 지님. 함축적 의미는 작품 내·외적 맥락에 의해 규정된다는 점에서 지시적 의미와 구별됨. 함축적 의미는 집단적으로 전승되어 공유된 것도 있고, 시인이 개성적으로 창조해 낸 것도 있음.

3 이미지

- 이미지(심상)는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을 가리킴. 시각(색채, 동작 등),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열기, 냉기, 감촉 등) 등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두 감각이 한 표현 안에 공존하는 경우도 있음.
- 이미지는 독자의 내면세계를 자극하고 독자의 정서적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화자와 독자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함.

작품으로 이해하기

정답과 해설 2쪽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고을사 저 꽃이여 반(半)만 여원 저 꽃이여
더도 덜도 말고 매양 그만하여 있어
춘풍에 향기 좇는 나비를 웃고 맞이하노라

- 안민영

- 나** 피끌피끌 우는 소리에 낯잡 깨어 일어나 보니
작은아들 글을 읽고 며늘아기 베 짜는데 어린 손자는 꽃놀이한다
때마침 지어미 술 거르며 맛보라고 하더라

- 오경화

- 다** 비 맞으며 논바닥에 엎드려 김매니
흙투성이 험한 꼴이 어찌 사람 모습이라만
왕손 공자들이 더 이상 얹보지 마오
그대들의 부귀 호사 우리 농부로부터 나오나니

帶雨鋤禾伏畝中
形容醜黑豈人容
王孫公子休輕侮
富貴豪奢出自農

햇곡식은 푸릇푸릇 논밭에서 자라는데
아전들은 벌써부터 조세 거둔다고 성화로세
힘써서 경작하여 나라 부유케 한 건 우리들이거늘
어찌 이리도 극성스레 침탈하는가

新穀青青猶在畝
縣胥官吏已徵租
力耕富國關吾輩
何苦相侵剝及膚

- 이규보, 「농부를 대신하여 읍다」

[26001-0004]

01

〈보기〉의 ㉠~㉣에 해당하는 작품을 (가)~(다) 중에서 있는 대로 골라 빈칸에 써넣으시오.

◀ 보기 ▶

	설명 내용	해당 작품
㉠	시적 청자를 명시하여 그에게 말을 건네는 어조를 취하고 있다.	가
㉡	청각적 심상을 반복적으로 환기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나
㉢	의문형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다

[26001-0005]

02

〈보기〉는 (가)~(다)의 화자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 보기 ▶

시인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화자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이나 사물을 화자로 설정하여 시적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한다. 또한 화자의 정체는 명시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가)에서는 화자가 누구인지 명시적이지 않다. (나)에서는 삼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 중 (㉠)이/가 화자인데, 시인과 화자가 일치하는지는 불분명하다. 한편 (다)는 시인이 고려의 문신임을 고려하면 ‘우리’가 가리키는 바대로 (㉡)을/를 화자로 설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 할아버지 ㉡: 시인

[26001-0006]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한 작품에서 각각의 시어들은 다양한 의미 관계를 맺으며 하나의 맥락 속에서 통합된다. 이때 현실 세계에서 상호 연관되는 소재를 가리키는 시어들이 사전적인 의미를 바탕으로 특정한 관계를 맺기도 하고,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는 말들이 시적 맥락 속에서 단일한 의미로 수렴될 수도 있다. 또한 어떤 시어는 작품 외적 정보에 해당하는 다른 단어와 비교 혹은 대조되면서 의미의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시적 상황과 화자의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는 역할을 한다.

- ① (가)에서 ‘반만 여원’ 꽃은 작품 외적 정보인 ‘완전히 시든 꽃’과 비교될 수 있는데, 모든 꽃은 결국 시든다는 점에서 예찬의 어조 이면에 안타까움의 정서가 엿보이고 있군.
- ② (가)에서 ‘저 꽃’과 ‘나비’는 생태적으로 서로 인접해 있는데, 시적 맥락 속에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자연물이라는 의미 관계를 맺으면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낮잠’과 ‘술’은 사전적 의미로는 서로 다른 범주에 있지만, 시적 맥락 속에서는 화자의 평화롭고 한가로운 일상이라는 단일한 의미로 수렴되고 있군.
- ④ (다)에서 ‘흙투성이 험한 꼴’과 ‘부귀 호사’는 현실 세계에서 상반된 의미를 지니는데, 시적 맥락 속에서도 하층민과 지배층의 삶을 각각 표상하면서 대립적인 의미 관계를 맺고 있군.
- ⑤ (다)에서 ‘햇곡식’과 ‘조세’는 제도적으로 인접해 있는 관계인데, 이를 바탕으로 시적 맥락 속에서 농민들이 느끼는 노동의 보람이라는 단일한 의미로 수렴되고 있군.

3

소설의 서술상 특징

1 소설에서의 서술

사건의 내용을 언어로 나타내는 행위와 그 결과를 뜻하며, 크게 이야기의 구성과 이야기의 전달로 나뉜다. 전자는 사건과 사건의 선후 관계나 인과 관계를 짜는 방법이고, 후자는 시점과 거리,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 문체 등에 대한 전략적 선택과 관련됨.

2 서술상의 특징을 구현하는 요소들

(1) 시점

이야기 속의 인물 및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와 이야기 전달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됨.

이야기 전달 방법 서술자의 위치	인물 및 사건의 내면적 분석	인물 및 사건의 외부적 관찰
서술자가 작중 인물인 경우	주인공이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 → (1인칭) 주인공 시점	주인공의 주변 인물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경우 → 1인칭 관찰자 시점
서술자가 작중 인물이 아닌 경우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의 전지적 존재로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하거나 인물 및 사건을 논평하는 경우 →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	서술자가 이야기 외부의 관찰자로서 시선에 포착되는 장면이나 겉으로 드러난 인물의 말에 국한하여 서술하는 경우 → 3인칭 관찰자 시점

(2) 사건과 인물 제시 방식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을 드러내는 서술 방식은 말하기(telling)와 보여 주기(showing)로 구별됨. 전자는 서술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사건, 인물의 성격, 상황을 직접 설명·해설·요약·논평하는 방법이고, 후자는 서술자가 인물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를 묘사하거나 사건을 제시하는 방법임.

(3) 문체

작가가 언어를 구사하는 개성적인 방식을 가리킴. 구어와 문어, 관념적인 단어와 구체적인 단어, 수식어가 많은 문장과 수식어가 적은 문장, 긴 문장과 짧은 문장, 부드러운 표현과 딱딱한 표현, 직설적 표현과 함축적 표현, 표준어와 방언 중 어떤 것이 주로 구사되는지 등에 의해 결정됨.

(4) 태도와 어조

특정 인물이나 작중 현실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이 반영적·풍자적·냉소적·비판적·동정적·호의적·해학적 태도 등과 이를 반영한 어조로 나타남.

⑤ 초점화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각에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그 특정 인물을 초점화자(焦點化者, focalizer)라고 한다. 초점이 되는 화자(話者)가 아니라 초점화가 이루어진 인물이란 뜻이다. 경우에 따라 초점화자를 '초점자', '초점 인물', '초점 화 주체'라고도 한다.

⑥ 서술자의 위치

모든 서사 작품에서 '작품'은 서술자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므로 서술자는 항상 작품의 내부에 위치한다. 서술자가 작품 외부에 위치하는 경우는 없다. 3인칭 소설에서도 서술자는 작품의 외부가 아니라 이야기의 외부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내를 찾아다니느라고 시골에서 벌어 온 돈마저 모두 깨 먹어 버리고, 얼마 안 남은 산동네 사글셋방값마저 찾아 쓴 칠복이는, 방울재에서 나올 때 나눠 가진 굶물인 징 하나만 들고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았다.

칠복이는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떠돌면서도 방울재에서 가지고 나온 징을 마치 그의 딸아이만큼이나 애지중지했으며, 밤에 잠을 잘 때는 그 징을 꼭 베고 잤다. 그런데 그 징을 베고 잘 때마다 이상하게 그 징에서 마치 방울재 할미산 너덜경이 와르르 허물어지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려오기도 하고, 또 어찌 들으면 방울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흐느껴 우는 소리가 아슬하게 들려오곤 했다.

「 그때마다 방울재에 살던 시절이 눈에 선하게 떠올랐다.
[A] 칠복이는 징에서 고향 사람들이 그를 오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 소리를 들은 뒤 딸아이를 업고 꼬박 하루를 걸어 방울재에 닿았다.

[중략 부분 줄거리] 칠복은 수몰된 방울재 사람들이 모여 사는 댐 인근으로 와서 징 울리는 행위를 반복하고 뉘시꾼들의 불만을 산다. 이에 뉘시꾼들을 상대로 매운탕을 팔며 살아가게 된 방울재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기로 한다.

“강촌 영감님, 부탁입니다유. 지발 쫓아내지만 마셔유. 다시는 휘방 치지 않겠구먼유. 이렇게 빌게유.”

칠복이는 우르르 강촌 영감에게로 달라붙어 어갯죽지며 팔을 붙들고 애원을 하다가, 그대로 무릎을 꿇고 비대발팔* 빌었다.

이 모습을 본 봉구와 덕칠이, 강촌 영감까지도 목울대에 모닥불이 타오르면서 시율이 시큰시큰했다.

“안 가겠다면 덕석물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꺼여!”

강촌 영감은 담배 연기를 허공에 토해 내며 결연히 말했다.

“봉구, 덕칠이, 팔만이 나를 내쫓지 말어. 고향에서 내쫓기면 위디로 갈 것인감. 이보게덜 내 사정 좀 봐줘!”

칠복이는 무릎을 꿇은 채 친구들의 아랫도리를 두 팔로 덥석 껴안으며 통사정을 했으나, 방울재 친구들은 도시 말이 없었다.

칠복이는 소리 내어 울고 싶었으나 이를 응등물고 참아 냈다. 강촌 영감의 말마따나 고향이 없어져 버린 판국에 고향 사람들 남아 있을 리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다. 칠복이 자신이 참 알 수 없는 일은 때때로 그의 눈에 방울재와 방울재의 옛사람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가 영락없이 방울재 사람들과 한데 어울려 살고 있는 **[환각]**에 정신을 가늠할 수 없게 된 거였다.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도 거대한 댐도 보이지 않고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만이 눈에 가득 들어오고, 그럴 때는 정월 대보름날 밤 매귀굿을 할 때처럼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경중경중 춤을 추고 싶어져 징을 찾아 들고 나서는 거였다.

그러다가 온몸이 흠뻑 땀에 젖은 채 정신을 차리고 보면, 방울재와 낮익은 사람들은 온데간데없고 호수의 물만이 그를 삼킬 듯 넘실거리고 댐은 더욱 하늘 닿게 높아지는 듯싶었다.

“자네 정신 말짱허니까 허는 소리네만 좋은 얼굴로 헤어지세. 지발 부탁이니 지금 떠나도록 히여.”

강촌 영감이 불멘소리로, 그러나 약간은 사정 조로 말하고 나서 칠복의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일으키려고 했다.

“넌 아침 떠나라 히고 싶네만. 정은 단칼에 자르는 거이 좋은겨.”

칠복이는 아이를 업고 천천히 일어서서 희끄무레한 램프 불빛에 비취 보이는 침울하게 가라앉은 마을 사람들의 얼굴들을 하나하나 가슴속 깊이깊이 새기며 찬찬히 뜯어보았다. 그의 눈에서는 금방 눈물이 소나기처럼 주르륵 쏟아질 것만 같았다.

“핑 서둘러 나가면 광주 나가는 버스를 탈 꺼여!”

강촌 영감이 앞서 술청을 나가며 하는 말이다. 강촌 영감을 따라 칠복이가 고개를 떨구고 나갔고, 뒤이어 봉구와 덕칠이, 팔만이가 차례로 몸을 움직였다.

봉구네 주막에서 나온 그들은 칠복이를 앞세우고 미루나무가 두 줄로 가지런히 비를 맞고 늘어서 있는 자갈길 구신작로를 향해 어둠 속을 걸었다. 그들은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칠복이의 등에 업힌 그의 딸아이 가 캄캄캄 기침을 하자, 바짝 뒤를 따르던 봉구가 잠바를 벗어 덮어씌워 주었다.

빗방울은 점점 굵어졌고 호수를 훑고 온 물에 젖은 가을바람에 으스스 몸이 떨렸다.

이따금씩 고속 도로에서 자동차들이 헤드라이트로 녹녹한 어둠의 이 구석 저 구석을 쿡쿡 쭈서 대며 바람처럼 내달았다. 자동차의 불빛이 길게 어둠을 가를 때마다 칠복이를 앞세우고 걷는 방울재 사람들의 가슴이 마치 총을 맞는 것만큼이나 섬찟섬찟했다.

신작로에 당도해서 조금 기다리자 읍으로 들어가는 헌틸뱅이 버스가 왔으며, 그들은 서둘러 차를 세우고 칠복이를 밀어 넣었다.

“징헌 고향 다시는 오지 말어.”

봉구가 천 원짜리 두 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푹 쑈서 넣어 주며 울먹울먹한 목소리로 말했다.

칠복이가 무슨 말인가 하는 것 같았으나 부르릉 버스가 굴러가는 바람에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버스가 어둠 속에 묻히고 자동차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어서야 말없이 돌아섰다.

한사코 가기 싫다는 칠복이 부녀를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 보낸 그날 밤, 방울재 사람들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후드득후드득 빗방울이 굵어지고 땅껍질 벗겨 가는 소리가 드세어질 무렵, 봉구는 잠결에 어슴푸레하게 들려오는 징 소리에 퍼뜩 놀라 일어나 앉았다.

“아니, 이 밤중에 무슨 징 소리당가?”

그는 마른기침을 토해 내고 빼그덕 방문을 열어, 송곳 하나 박을 틈도 없이 꽉 들어찬 어둠의 여기저기를 쑈서여 보았다. 어둠 속 어디선가 딸을 업은 칠복이가 휘주근하게 비에 젖은 채 바보처럼 벌쭉벌쭉 웃으면서 불쑥 나타날 것만 같았다.

[B] 그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자리에 들어 아내의 툭상스러운 허리를 꼭 껴안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땅껍질을 두드리는 빗방울 소리 사이사이로, 징 소리가 쉬지 않고 큰 황소울음처럼 사납고도 구슬프게 들려왔기 때문에 잠시도 눈을 붙일 수가 없었다. 어쩌면 바람 소리와의도 같은 그 징 소리는 바로 뒤란의 아카시아 숲계에서 가깝게 들린 것 같다가도 다시 댐 쪽으로 어슴푸레 멀어져 가곤 했다.

“바람 소린지, 징 소린지.”

— 문순태, 「징 소리」

*비대발괄: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하면서 간절히 청하여 빌.

[26001-0007]

01

원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면 ‘○’로, 적절하지 않으면 ‘×’로 표시하시오.

- (1) 칠복은 잃어버렸던 징을 되찾느라 그동안 벌었던 돈을 써 버린다. ()
- (2) 강촌 영감은 다른 마을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칠복을 마을에서 내쫓는다. ()
- (3) 봉구는 마을을 떠나게 된 칠복 부녀에게 동정을 표하면서 칠복을 배웅한다. ()

[26001-0008]

02

환각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칠복이 징을 들고 춤을 추게 되는 이유이다.
- ② 타향을 떠돌던 칠복이 고향에 돌아오면서 겪게 된 현상이다.
- ③ 방울재 사람들과의 유대에 대한 칠복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다.
- ④ 방울재 사람들이 칠복을 마을에서 쫓아내기 위해 내세우는 구실이다.
- ⑤ 방울재의 모습을 현재 상태와 다르게 지각하는 칠복의 정신 상태를 보여 준다.

[26001-0009]

03

〈보기〉의 밑줄 친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쓰시오.

◀ 보기 ▶

선생님: 소설에서 말하는 이가 ‘서술자’라면, 사건을 보는 주체는 ‘초점화자(焦點化者)’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인칭 소설에서 이야기 밖의 서술자는 작품 내의 특정 인물을 초점화자로 삼아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독자들이 그 인물의 시각을 통해서 이야기의 상황을 수용하게끔 할 수 있어요. 「징 소리」의 서술자 역시 이야기 밖에 있으면서 경우에 따라 초점화자를 바꾸며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A]와 [B]에서 각각 초점화자인 인물이 누구인지, 각각의 대목에서 독자들이 그 인물의 어떤 심리에 주목하게 될지 설명해 볼까요?

4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1 인물 및 성격

(1) 인물 및 성격의 개념

- 인물은 성격(캐릭터, character)과 서로 혼용되곤 하지만 개념적으로는 차이가 있음. 인물은 이야기에 등장하는 개인들을 가리키고, 성격은 그 인물의 다양한 속성이나 특질의 총체로서 이야기에서 인물이 수행하는 역할을 통해 드러나는 개성을 뜻함. 소설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아님.
- 인물의 성격은 어떤 사건 속에서 보이는 그의 말과 생각, 행동, 그리고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드러남.

(2) 인물의 말과 생각, 행동

- 인물의 말과 생각에는 그의 자연관, 인간관, 처세관 등의 가치관이 담겨 있음. 인물의 말과 생각은 직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간접 인용의 형식으로 제시되기도 함.
- 인물의 행동 또한 그의 가치관을 표상하며 어떤 의도나 상황의 산물임. 행동은 서술자의 말로도 드러나고 인물의 말로도 드러남.

2 사건

(1) 사건의 개념

작품 속에서 발생하고 진행되는 온갖 일들을 가리킴. 대개 한 사건은 다른 사건들과 결합되어 연속적으로 전개됨. 사건은 인물들의 행동을 유발하기도 하고, 인물들의 행동이 곧 사건으로 제시되기도 함.

(2) 사건의 연쇄

-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선후 관계만을 맺기도 하고 인과 관계를 맺기도 함.
- 사건의 인과 관계를 바탕으로 플롯이 만들어지고, 플롯은 일반적으로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의 단계를 거침.

3 배경

(1) 배경의 개념

- 공간적 배경은 사건이 일어나는 곳의 지리적 위치나 구체적인 장소, 시간적 배경은 인물의 행동이 연출되고 사건이 벌어지는 시대, 시기, 계절, 밤/낮 등의 시간을 말함.
- 사회 현실이나 역사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사회적 배경, 작중 인물의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심리적 배경, 어떤 상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상징적 배경도 있음.

(2) 배경의 기능

인물의 행동과 사건에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로서, 작품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작품의 주제 구현에 기여함. 또한 독자가 작품의 생동감을 느끼도록 이끌기도 하며, 배경 자체가 상징적 의미를 지니기도 함.

② 서사(敘事)

서사는 본래 ‘일을 순서대로 행함’, ‘일을 차례대로 펼침.’이라는 의미이다. 서사 문학은 두 가지 이상의 사건이 선후 관계와 인과 관계를 맺고 있다. 서사 문학에는 여러 갈래가 있으며, 소설은 서사 문학의 가장 대표적인 갈래이다.

② 스토리와 플롯

여러 사건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을 ‘스토리(story)’라고 하고, 여러 사건이 인과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플롯(plot, 구성)’이라고 한다. 뒤에 일어난 사건을 먼저 일어난 사건보다 더 앞에 배치할 수도 있으므로, 하나의 스토리도 서로 다른 플롯으로 제시될 수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원익 왈, / “도적이 마음이 교만하여 우리를 업수이여기면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고, 이일을 선봉으로 삼아 고각을 올리며 나아가니, 왜장 평행장이 부장(副將) 종일로 하여금 먼저 싸우라 하니, 종일이 병사를 이끌어 내달아 십여 합을 싸우더니 이일이 패하여 달아나니, 종일이 따라 미치지 못하고 이원익의 진을 치거늘 원익이 대패하여 도망하더니, 문득 한 도사가 원익의 위태함을 보고 소매 안에서 복성화차*를 내어 두르며, 또 백옥 호리병을 공중에서 기울여 피 같은 물을 내어 적진에 뿌리니, 곧바로 도적이 손을 놀리지 못하고 발이 땅에 붙는지라. 이로 인하여 종일이 군사를 다 죽이고 황망히 성안에 들어가 굳이 지키고 나지 아니하는지라. 원익이 패군을 거두어 진을 치고 여러 장수더러 왈,

“종일의 적수를 얻어야 종일을 잡으리라.”

하더니 문득 한 군사가 왈,

“소인의 동리에 한 양반이 있으니 성명은 김응서라. 용맹이 남다르더니, 일일은 큰 범이 담을 넘어와 개를 물고 도로 넘어가거늘, 응서가 몸을 솟아 범의 꼬리를 잡고 털미를 잡아 땅에 부딪쳐 죽이니, 이는 세상에 드문 장사이더이다.”

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 왈,

“네 동리가 어디뇨?” / 대답하여 왈,

“용강(龍岡)이라.”

하거늘, 원익이 즉시 용강에 이르러 김응서를 찾아보고, 종일의 용맹을 이르며 가기를 청하니 응서 왈,

“내 재주도 없을 뿐 아니라 이제 부친 상중(喪中)에 있으니 어찌하리오.” / 원익 왈,

“비록 상중이나 방금 국세 위태하니 백성 된 자가 어찌 사사로운 정을 돌아보리오.”

하며 가기를 간청하니, 응서 할 수 없이 영전(靈前)에 통곡하고 평복을 갈아입고 원익을 좇아 진에 이르니, 원익이 사랑하며 보검을 주어 연습하라 하더니, 하루는 응서 왈,

“소장이 오늘 밤에 평양성을 넘어 들어가 종일을 베어 오리니 장군은 일지병*을 성외에 매복하였다가 소장의 형세를 보아 접응하소서.”

하고 비수를 끼고 성을 넘어 들어가니 순라군이 줄거늘, 응서 자취 없이 군막을 지나 관문에 다다르니, 수문군 십여 인이 큰 칼을 좌우에 세우고 잠이 들었는지라, 응서 칼을 빼어 차례로 베고 문을 넘어가니 관중(關中)에 등축이 휘황하고 인적이 고요한지라, 정히 주저하더니 마침 수청하던 기생이 소피보러 나오다가 응서를 보고 놀라 왈,

“어떤 사람이관대 위태한 곳에 들어왔느냐?” / 응서 왈,

“나는 이원익의 부장(副將)이러니 이제 적장을 죽이고자 하나니, 너도 조선 사람이라, 나라를 위하여 적장의 동정을 자세히 이르라.” / 그 기생 왈,

“종일이 관중에 거처하되 사면에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한지라. 이로써 불우지변을 방지하며, 삼경 전에는 귀로 자며 눈으로 보고 삼경 후에는 눈으로 자며 귀로 듣고 사경이 되면 귀와 눈을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니, 이제 천비 먼저 들어가 저의 잠들을 탐지하여 방울을 숨으로 막고 나오거든 장군이 들어가소서.”

하고 들어가더니 이윽고 나오는지라. 응서 즉시 들어가 보니 종일이 술에 취하고 장창 보검을 좌우 손에 잡고 상에 누워 자거늘, 응서 급히 칼을 들어 종일의 머리를 한 번 찌고 몸을 날려 들보 위에 앉으니, 종일의 머리 떨어지며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며 잡았던 보검으로 들보를 치니, 응서의 군복 자락이 맞아 떨어지며 종일의 머리와 몸이 상 아래 거꾸러지는지라. 응서 내려와 종일의 머리를 들고 나올새, 그 기생이 울며 왈,
“장군이 소첩을 사지(死地)에 두고 가려 하느뇨?”

하며 따라오거늘, 응서 불쌍히 여겨 데리고 나오더니, 장중이 자연 시끄러워 순라군이 일시에 불을 들고 창검을 두르며 고함하니, 응서 기생을 보고 왈,

“네 손을 죽도록 놓지 말라.”

하고 칼을 두르며 나오더니, 성 밑에 다다라서는 왜장 평의지가 칼을 들고 크게 꾸짖으며 왈,

“네 간계(奸計)로 우리 장수를 죽이고 감히 나가고자 하느냐.”

하며 달려들거늘, 응서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 평의지 당하지 못하여 물러가거늘, 응서 바야흐로 성을 넘으려 할새, 비록 용맹하나 기생을 업고 무수한 도적을 대적하매 기력이 기진한지라. 즉시 전대로 기생의 허리를 매어 성을 넘어가고자 하더니, 평수맹이 달려들어 한칼로 기생을 베고 바로 응서를 취하거늘, 응서 대로하여 평수맹을 일 함에 베니 적병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달아나는지라. 응서 도적 수습을 베고 성을 넘어 나오니, 부장 안일봉이 군을 거느려 매복하였다가 응서를 접응하여 진중으로 돌아와 전말을 고하니, 원익이 크게 기뻐하여 응서의 공을 치하하고 종일의 머리를 기에 달아 호령하더라.

— 작자 미상, 『임진록』

*복성화차: 길한 별이 그려진 꽃 비녀.

*일지병: 한 무리의 병사.

[26001-0010]

01

윗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구절의 첫 두 어절과 마지막 두 어절을 찾아 쓰고, 그것이 어떤 인물의 무엇에 대한 평가인지 쓰시오.

◀ 보기 ▶

소설에서 서술자는 인물의 행위나 상황을 묘사하는 가운데 그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곁들이기도 한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당대의 보편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독자가 주인공에게 성원을 보내거나 악인에게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특히 영웅 소설에서는 비유적 표현이나 과장된 표현을 통해 이러한 서술 방식이 구현되는 경우가 많다.

• 해당 구절: 헤이 꼬리/를 ~ 장수 이어/어

• 평가의 내용: _____

[26001-0011]

02

〈보기〉의 밑줄 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사 정보를 뒷글에서 찾아 간략하게 쓰시오.

◀ 보기 ▶

김웅서가 평양성 내부로 쉽게 침투할 수 있었던 것은 왜군들의 방비가 허술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군들의 방비가 허술했다는 것은 왜군의 부장 종일이 신중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라는 사실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침투 과정에서 큰 소동이 있었다면 김웅서가 왜군 장수와 직접 대결하는 장면을 설정하는 것이 어색했을 것이고, 이를 고려하면 왜군들의 방비가 허술했다는 소설적 설정은 작품의 결함이 아니라 서사적 전략의 소산으로 볼 수 있다. 작가층은 김웅서의 평양성 침투 장면보다 왜군 장수와의 대결 장면이 독자의 흥미를 더 크게 유발하리라고 판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26001-0012]

03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임진록」은 한편으로는 역사적 사실에 기대면서도 한편으로는 설화적 상상력에 기반한 초현실적인 장면을 설정하여 임진왜란이 초래한 우리 민족의 비극을 그려 낸 작품이다. 비범한 영웅적 인물의 활약상을 형상화하는 한편, 계층을 초월한 민족적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왜적에 대항하는 민중의 활약을 비장하게 그려 낸다. 이를 통해 전란에 대응하는 지배층의 무능과 왜적의 무자비한 행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정신적 위안을 도모하는 한편 무고하게 희생된 민중들을 애도하고자 하는 의식을 보여 준다.

- ① 왜적에 패하여 도망가는 이원익을 ‘문득 한 도사’가 등장하여 도와주는 장면은, 설화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당대 독자들을 정신적으로 위안하는 효과를 낳겠군.
- ② 김웅서가 ‘사사로운 정’ 때문에 전란의 와중에 은거하고 있다는 설정을 통해, 국가의 안위보다 가문의 법도를 우선시하는 지배층의 무능한 행태를 드러내고 있군.
- ③ 기생이 일부러 ‘방울을 솜으로 막고 나’오겠다고 하며 김웅서가 종일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돕는 데서, 왜적에 대항하는 민중 계층의 활약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종일이 ‘머리 떨어지며 분기를 발하여 일어서’는 초현실적인 장면을 설정함으로써, 비범한 인물을 홀로 처단하는 김웅서의 영웅적 활약을 부각하고 있군.
- ⑤ 김웅서가 탈출하는 과정에서 적군이 ‘한칼로 기생을 베’는 장면을 설정하여, 무고하게 희생된 민중들을 애도하고자 하는 의식을 엿볼 수 있군.

5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1 극의 특성

- 극은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대본으로 삼아 인간의 갈등을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므로 ‘행동의 문학’ 또는 ‘현재화된 인생 표현’으로 불림.
- 극은 배우와 무대, 촬영 기법, 관객 등의 요소를 염두에 두고 구성되고 연행됨.
- 극은 갈등의 예술이라 할 정도로 한 인물의 내면적 갈등이나 인물 간 갈등의 생성, 전개, 해결 또는 해소가 극의 전개에서 중요한 축이 됨.
- 극에서 갈등은 개성적 혹은 전형적 성격을 지니고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주동 인물과 그를 방해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반동 인물 사이에서 주로 일어남. 주동 인물과 반동 인물의 대사와 행동을 통해 갈등이 제시되어야 극적인 효과가 선명하게 드러남.

2 희곡과 시나리오의 구성 요소

(1) 대사

- 등장인물의 말을 가리킴. 대사는 다음과 같이 구별됨.
 - ① 대화: 인물 사이에서 주고받는 말
 - ② 독백: 상대역이 없는 가운데 등장인물이 혼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말
 - ③ 방백: 연극에서 무대 위 다른 인물은 듣지 않는 것으로 약속된 상태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의 의도나 생각을 관객에게 전달하는 말
- 등장인물의 성격과 생활 환경, 신분 등을 드러내고, 플롯을 진전시킴과 동시에 인물 간의 관계를 드러내는 수단이 됨. 무대에서 재현되지 않는 사건도 대사에 의해서 드러날 수 있음.

(2) 행동

- 극에서 등장인물은 대사를 구사함과 동시에 몸을 움직여 상황을 만들고 의사를 표현함. 대사 없이 행동만으로 상황과 정서가 표현되는 경우도 있음.
- 등장인물의 행동과 표정, 어조는 지시문을 통해 알려 줌.

3 희곡과 시나리오의 비교

희곡	시나리오
• 연극의 대본 • 무대에서 연행된다는 조건으로 인해 시간적·공간적으로 제약이 크고, 등장인물의 수도 제한됨. • 한번 고정되면 내용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속됨.	•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의 대본 •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등장인물의 수에서도 제약을 덜 받음. • 촬영 현장에서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있음.

➡ 지시문(지문)

희곡에서 지시문은 행동 지시와 무대 지시로 구분된다. 행동 지시는 등장인물의 동작, 표정, 어조, 위치 등에 관한 지시이고, 무대 지시는 무대 장치의 변화, 소도구의 처리, 음향, 조명 등에 관한 지시이다. 시나리오에서는 지시문이 촬영 현장의 여러 가지 상황이나 촬영 기법, 편집 방식을 드러내기도 한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동인인 정여립이 역모죄로 죽게 되자, 선조는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주모자 길삼봉을 잡기 위해 서인인 정철에게 수사와 재판을 맡긴다. 무수한 동인의 선비들이 죄 없이 죽임을 당하나 길삼봉은 잡히지 않고, 심지어 그가 누구인지, 실존하는지조차 불확실하다. 그러던 중 정철은 처사 최영경을 길삼봉으로 의심해 체포한다.

국청*.

최영경이 자리해 있다. 코리스*들이 최영경을 둘러싼다. ㉠술병을 손에 쥔 정철, 잔뜩 취해 있다.

정철: 길삼봉 상장군의 물골이 형편없이 상했구려. 역시 그대의 역당은 그 뿌리가 깊소이다. 무고(無辜)*를 주청하는 상소가 끝이 없으니 말시오.

최영경: ㉡(호탕히 웃으며) 하하하. 없는 죄를 엮는 일이 여간 쉽지는 않으리다.

정철: 생사 앞에서 그리 담대한 것은 그대의 성품이오 기질이오?

최영경: (옹조리듯) 생사를 잊은 지 이미 수십 년이라.

정철: ㉢(비웃음) 과연 죽림총에 은거하는 현자라는 소릴 들을 만하구려. 이황종의 서찰에 줄줄이 시국에 대한 비분강개의 글이 난무하던데, 그대 또한 그와 뜻을 같이하는가? (서찰을 내보인다.)

최영경: (타령을 읊듯 태평하게) 혹은 옳고 혹은 아니 옳고, 그대들의 쓸개 빠진 당파 싸움에 비분강개하는 마음은 그의 것이 나의 것이나, 벼슬을 물린 것은 나의 도량이 그에 미치지 못함시오.

정철: 죽림에 묻혀 현실 정치가 봉당의 패싸움입네 더러운 오물이네 하고 말하기는 쉬운 법이오.

최영경: ㉣(정색하며) 허면 화려한 복색으로 껌을 출입하며, 사탕발림으로 임금의 귀를 어둡게 하고 당쟁만 일삼는 그대들은 들판의 곡식을 일구는 농부의 땀을 알며, 배끓아 죽어 가는 아이, 병들어도 약 한 번 써 보지 못하는 노복의 처지를 아는가? 아니, 밤마다 피를 토하며 세상 끝날 날을 노래하며 텅구는 백성의 울부짖음에는 왜 대답이 없는가? 두 귀가 멀쩡한데 왜 귀를 쳐막고 있는가?

정철: 뜻만 있으면 무엇 하오? 행함이 없으면 다 헛것인 것을.

최영경: 그대가 헛것을 논하다니 허허. 헛것을 핑계 삼아 선비의 목을 치는 그대가.

(중략)

선조: (화를 내며) 대체 길삼봉이 어떤 자이길래 최영경의 목숨까지 앗아 간단 말시오!

정철: 송구하옵습니다. 최영경이 길삼봉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미력한 인물이온데, 옥사(獄死)에까지 이르렀으니 신을 벌하시옵소서. 다만, 수많은 고변*을 밝히고자 그리한 충정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산해: 최영경을 길삼봉이라 무고(誣告)*한* 이들이 모두 정철 대감의 수하임을 눈여겨보소서. 이 모든 것이 정철의 계략이옵니다.

정철: 천부당하옵니다. 신, 충심으로 ㉤옥사(獄事)를 진행하였을 뿐, 죄 없는 자를 무고한 바 없사옵니다.

이산해: 충심을 다한다는 위관이 어찌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하였겠사옵니까? 정철을 당장 파직하옵소서.

정철: 전하, 신의 사사로운 허물을 들추어 어의를 흐리고자 하는 간계이옵니다.

이산해: 이 ㉥서찰 앞에서도 그런 무례한 말을 한단 말시오?

이산해, 선조에게 서찰을 건넨다. 선조, 펼쳐 들고 보다 안색이 묘연해진다.

이산해: 최영경이 즉 길삼봉이라고 상소하면 벼슬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송강의 필체가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철: 아니옵니다, 전하. 모함입니다.

이산해: 어릴 적 문우였던 제가 어찌 송강의 필체를 모르겠나이까?

정철: 필체를 도색하는 것은 일도 아니옵니다. 일찍이 이산해는 정여립의 서간.

㊤ 정철과 이산해의 눈이 불꽃이 될 듯 부딪친다.

선조: 위관, 그런데 정여립은 동인인가 서인인가?

정철: (머뭇대다) 전 우의정 정언신의 혈족이니 동인이라 할 만합니다.

선조: 최영경은 어떠하오?

정철: (사이) 초야에 은거하는 이가 동서의 구분을 알겠습니까?

선조: 그대를 동인 백정이라 하던데 어찌 생각하오?

정철: 천부당만부당하옵니다. 역모를 막고자 한 소인의 충정을 헤아려 주옵소서.

사이,

선조: 이산해 대감, 그대가 위관을 맡게. (지엄하게) 정철의 관직을 폐하고, 사가에서 위리안치*하게 하라.

또한 최영경을 무고한 이들을 반좌율*로 다스리라.

이산해: 어지를 받들겠나이다.

정철: 전하, 이는 모함입니다. 전하, 전하!

선조, 이산해에게 웃음을 보인다. 이산해, 기쁨에 함께 웃는다.

선조: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위관은 무얼 하는가? 길삼봉이 날뛰고 있지 않은가! 해가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어서 길삼봉을 잡아들여라!

이산해: (놀라) 횃불을 밝혀라. 인두를 달구고, 고변된 자들을 끌고 와 형틀에 묶어라. 길삼봉을 잡으라는 어명이시다.

선조, 여유롭게 웃는다.

— 김민정, 「길삼봉연」

*국청: 조선 시대에, 역적 등의 중죄인을 신문하기 위해 설치하던 임시 관아.

*코려스: 연극에서 극 중 특수한 기능과 효과를 담당하는 역할을 이르는 말.

*무고: 아무런 잘못이나 허물이 없음.

*고변: 반역 행위를 고발함.

*무고한: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해당 기관에 고소하거나 고발한.

*위리안치: 유배된 죄인이 거처하는 집 둘레에 가시로 울타리를 치고 그 안에 가두어 두던 일.

*반좌율: 없는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고발한 사람에게 고발당한 사람이 받은 처벌과 같은 형벌을 가하던 제도.

*해가림: 여기서는 '일식'을 뜻함.

[26001-0013]

01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최영경은 정철이 ㉠을 진행한 이유를 당쟁에서 찾는다.
- ② 정철은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 ③ 이산해는 자신과 정철이 문우였던 사실을 내세워 ㉡에 관한 자기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
- ④ 선조는 ㉡를 본 후 길삼봉과 관련해 진행되어 온 ㉠을 멈추게 한다.
- ⑤ 이산해는 ㉡를 근거로 하여 ㉠의 진행 과정에서 정철이 계략을 꾸몄다고 주장한다.

[26001-0014]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등장인물의 행동을 나타내는 지시문으로, 지시문에 제시된 행동은 위관으로서 정철이 수행한 공적 업무가 훗날 비판받는 원인이 된다.
- ② ㉡: 지시문은 최영경의 성격과 심리를, ‘없는 죄를 엮는 일’이라는 대사는 정철의 행위에 대한 최영경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지시문을 고려할 때, 상대방을 ‘현자라는 소릴 들을 만’한 인물이라고 한 정철의 대사가 반어적 표현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 등장인물의 심리를 나타내는 지시문으로,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최영경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앞선 대사에서 등장인물이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과 연결되는 지시문으로, 등장인물들 간의 고조된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015]

03

다음은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읽고 나눈 학생들의 대화이다. [A],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길삼봉년」의 소재인 기축옥사는 선조 22년에 일어난 정여립의 역모 사건에서 비롯된 일로, 이를 계기로 동인 쪽 선비들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동인과 서인 간의 당쟁이 심화되었다. 극 중 정철과 이산해는 각각 서인과 동인을 대변했던 실존 인물이다. 기축옥사의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죄 없는 선비들이 반란의 주모자인 길삼봉으로 몰려 희생된 반면, 선조는 동인과 서인 간의 갈등으로 정치적 이득을 본 것으로 평가받는다. 정치적 토대가 허약했던 선조는 동인과 서인 간의 갈등 속에 기축옥사의 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함으로써 신하들에 대한 통제력과 왕권을 강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 1: 정철과 최영경의 대사를 보면, 두 인물이 같은 표현을 사용해 서로의 행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 정철은 ‘ [A] ’(이)라는 말로 훌륭한 뜻도 현실에서의 실천이 따르지 않으면 무의미한 것이라는 생각을, 최영경은 ‘ [A] ’(이)라는 말로 상대방의 행위가 근거 없는 정치적 모략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

학생 2: 지시문을 보면 극 중 상황과 등장인물의 심리를 헤아릴 수 있어. ‘ [B] ’(이)라는 지시문은 선조의 태도 변화를 나타내면서 뒤이어 제시되는 이산해의 놀라는 모습과 연결되어, 일련의 사건을 통해 선조의 왕권이 강화된 상황을 암시하고 있어. 그러한 결과에 대해 선조가 느끼는 만족감은 ‘선조, 여유롭게 웃는다.’에서 알 수 있지.

[A]: _____ [B]: _____

➔ 수필

수필(隨筆)은 '붓 가는 대로 쓴 글'이라는 뜻으로, 본래는 어떤 글의 갈래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었다. 문학의 분류에 대한 이론이 발전하면서 서정, 서사, 극을 제외한 나머지 산문적인 글을 대표하는 갈래의 명칭으로 굳어져 쓰이고 있다.

1 교술 문학의 특성

- 깨달음이나 가르침[교(敎)], 설명이나 알림[술(述)]을 목적으로 창작되며, 다른 갈래에 비해 글쓴이의 가치관이 더 분명히 드러남.
-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자기 성찰과 사유가 분명히 드러나고, 작품 속의 '나'는 원칙적으로 글쓴이 자신임.
- 자유로운 형식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가진 문학 갈래로서, 전문적인 작가가 아닌 사람들도 비교적 쉽게 쓸 수 있음. 오늘날 '수필'을 대표적인 교술 문학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음.

2 교술 문학의 구성 요소

(1) 형식

- 교술 문학의 형식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음.
- 과거에는 기(記), 설(說), 논(論) 등 다양한 형식이 있었고, 현재는 일반적인 서술 형식 외에도 일기, 편지, 기행문, 이야기 등의 형식이 차용되기도 함.

(2) 표현과 문체

- 비유, 우의, 상징, 역설, 반어 등의 수사법은 물론이고 설명, 논증, 묘사 등의 기법도 동원하여 글쓴이 자신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함.
- 대화를 삽입하여 소설이나 극의 형식을 취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기도 함.
- 다양한 표현의 자질들은 어휘의 종류, 문장의 길이 등에 의해 형성되는 문체적 특성과 결합하여 작품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형성함.

(3) 주제

- 교술 문학의 내용과 주제는 일상적 경험에서 얻는 주관적인 감상에서부터 인간의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와 성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함.
- 교술 문학의 주제에는 글쓴이의 개성적인 안목을 바탕으로 포착된 인간의 삶에 대한 진실이 함축되어 있음.
- 교술 문학은 다른 갈래에 비해 주제가 더 명시적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음.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윤 상군(尹相君)*이 일찍이 곤강(坤岡) 남쪽에 집터를 마련하였다. 집터 동서쪽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여 그곳에 집을 짓고 ‘밤나무 정자’라는 뜻으로 ‘울정(栗亭)’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지금 또 조금 서쪽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하였다. 성안에 있는 주택에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드문데, 윤 공은 집을 사기만 하면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하였다.

그가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이면 성근 가지가 꽃과 서로 어른거리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 그늘에서 쉴 수 있으며, 가을 [A] 이면 밤이 맛이 들어 내 입에 가득 채울 만하며, 겨울이면 껍질을 모아 내 아궁이에 불을 댈다. 나는 이 때문에 밤나무를 선택한다.”

내가 말했다.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은 같은 기운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으로, 이치상 진실로 필연적인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바에 있어서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러한가? 하늘과 땅 사이에 풀이나 나무가 나는 것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나고 자라고 피고 맺히는 데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이 제각각 다르다. 유독 밤은 만물 중에서 가장 늦게 난다. 나무를 심기가 매우 어렵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자라기만 하면 쉽게 성장하며, 잎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쉽게 녹음을 이루며, 꽃이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쉽게 풍성해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열리지만 열리기만 하면 쉽게 거둘 수 있으니, 대개 사물이 이지러지고 채워지며 빠지고 더해지는 이치를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윤 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 나이 이미 서른이 넘었다. 그러다가 마흔이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 늦었다고 하였으나 윤 공은 벼슬에 나아가 더욱 충실히 하였다. 그러다가 선대 임금께서 먼저 공을 알아보셨는데 크게 쓰이게 되어서는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승진하여 높은 지위에 올라 중책을 담당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나무와 같은 것이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취하는 것이 뒤에는 쉽게 된 것이니, 대개 이 밤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은 점이 있다.

나는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풀과 나무의 뿌리가 흙에 묻혀 있을 때에 그 싹이 깊으면 그 갈라져 올라오는 것이 늦고, 갈라져 올라오면 싹이 트고, 싹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가득 차면 그 물이 조금씩 흘러나오다가 그 흐르는 것이 고이게 되고 고이게 되면 물이 돌아 흐르고, 돌아 흐르면 못이 되어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반드시 빨라지고 멈춘 것은 반드시 먼 곳에 도달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것과 또한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물에 나아가 보더라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이 마른 것으로 나아가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듯이 사물과 나 사이에 차이가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윤 공의 영달은 곧 밤의 성장(生長)이고 밤을 거두어 간직함은 곧 윤 공이 은퇴하는 것이니, 그 성장함에는 세상을 돕는 도가 있으며 그 간직함에는 삶을 수양하는 작용이 있다.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설(說)을 짓는다.

— 백문보, 「울정설」

*윤 상군: 글쓴이의 지인인 윤택을 가리킴. '상군'은 재상을 높여 부르는 말.

7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1 작가 맥락

(1) 자기표현으로서의 문학

- 작가는 불행한 일, 부끄러운 일, 자랑스러운 일, 감격스러운 일 등 어떤 사건을 보거나 겪을 때 소통의 욕구나 치유의 의지 등을 바탕으로 이를 작품으로 형상화함. 따라서 문학 작품은 작가의 체험, 사상, 감정의 표현물로 볼 수 있음.
- 이때 작가의 창작 동기, 전기적 사실, 심리 상태 등이 작품 이해의 주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음. 독자는 ‘누가, 그 사람의 어떤 시기에, 어떤 상황에서, 왜 썼는가?’ 하는 물음을 통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음.

(2) 작가 맥락의 요소

- 작가의 사회적 정체성: 작가의 가정 환경을 포함한 성장 환경, 생애 주기별 역사적 사건, 직업 등의 사회적 경험, 동일 세대의 문화적 기억 등
- 작품의 창작 동기: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게 된 특정한 계기나 상황

2 독자 맥락

(1) 문학의 미적, 인식적, 윤리적 효용

- 독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정서적인 감흥과 미적인 감동을 얻고, 인간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며 윤리적 교훈을 얻기도 함.
- 독자는 때때로 과거의 어느 독자가 경험한 감동과 교훈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작품에 대한 이해와 감상을 도모할 수 있음. 이때 과거의 독자와 현재의 독자는 대화적 관계를 형성함.

(2) 독자 맥락의 요소

- 독자의 개인적 취향: 작품 및 작가에 대한 선호 등
- 독자의 개인적 발달 수준: 경험의 폭과 깊이, 지적 수준, 감수성, 공감 능력 등
- 독자의 사회적 정체성: 독자의 세대적, 성적, 지역적, 계층적 특성 등

➡ 표현론

작가 맥락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을 ‘표현론’이라고 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외재적 관점 중의 하나이다.

➡ 효용론

작품과 독자 맥락의 관계를 중시하는 관점을 ‘효용론’이라고 한다. 문학 작품에 대한 외재적 관점 중의 하나이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떡이랑
나뉘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를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 골짜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혈뱃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혈뱃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충을 안고 뿔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나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이용악, 「하나씩의 별」

* 자무스[佳木斯]: 중국의 송화강 상류에 있는, 러시아와의 국경 가까이에 있는 도시.

* 뿔가: 폴카(polka), 보헤미아 지방의 경쾌한 무곡(舞曲).

[26001-0019]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여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②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있다.
- ③ 가상의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도치된 어순을 사용하여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계절의 순환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26001-0020]

02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30년대에 등단한 이용악은 자신의 가난한 현실을 바탕으로, 일제 강점기의 우리 민족, 특히 간도 유랑민들이 겪었던 비참한 실상에 주목하여 절박한 시대적 상황을 형상화한 시인이다. 이후 그의 해방기 시들은 해방을 맞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소회와 감격을 그리며 한반도의 운명에 대한 고뇌를 담고 있다. 이 작품은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유랑민과, 변환기의 현실 속에서 이향을 결행해야 하는 화자가 공존하는 시적 상황을 통해 화자의 복합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해방의 감격 이후에 잠시나마 지나간 고난의 세월을 잊고 서로 동지애를 나누며 민족의 앞날에 대해 제각기 희망을 품어 보는 장면을 포착하고 있다.

- ①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로 시상을 여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오는 유랑민의 미래가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의 모습은 당대 유랑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겪었을 고단한 삶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③ ‘함경도 사내’인 ‘나’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과는 달리 이향을 하고 있는 화자의 처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는 귀향하는 사람들과 화자가 열차에서 바라보는 조국의 풍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며 감격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혈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 마찬가지로 혈벗은 나’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혼란스러운 시국에 같은 열차를 타고 함께 귀국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동지애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겠군.

[26001-0021]

03

〈보기〉는 윗글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시구를 윗글에서 찾아 쓰시오.

◀ 보기 ▶

선생님: 문학 작품은 다양한 맥락 속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특히 독자 맥락이란, 독자 자신의 입장에서 문학 작품을 감상함으로써 정서적인 감흥과 미적인 감동을 얻고, 인간사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하며 윤리적 교훈을 얻기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작품은 서로 다른 처지에서도 희망을 품고 귀향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잘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특히 저마다 각기 다른 사정 속에서 고향과 미래를 떠올리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으)로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대 독자들은 이 시를 통해 무엇을 느꼈을지 생각해 봅시다. 또한 현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도 서로 다른 각자의 처지에서 미래를 위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과 연결 지어 감상해 봅시다.

8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1 문학사적 맥락

(1) 문학사적 맥락의 개념과 특징

- 문학 작품의 존재 방식을 규정하는 문학 갈래의 존속, 공동체의 정신과 상상력, 풍속과 사회상 등 문학의 역사와 관련된 사실과 배경을 가리킴.
- 한 편의 문학 작품은 일정한 언어문화의 지평 안에서 여러 가지 문학적 관습을 매개로 하여 작가와 독자 사이에서 소통됨. 한 작품은 선행하는 다른 작품들의 영향을 받아 창작되고 동시대의 수많은 다른 작품과 공존하면서 문학사적 맥락을 구성함.
- 독자는 문학사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조망할 수 있음.

(2) 문학사적 맥락의 요소

- 역사적 갈래의 전개 과정: 문학 작품들은 특정한 갈래로 분류되는데, 그 갈래는 역사적으로 생성과 소멸의 과정을 겪게 됨. 각각의 갈래에는 내용, 형식, 표현의 측면에서 다른 갈래와 구별되는 고유의 문학적 관습이 있음.
- 문학사적 영향 관계: 문학 작품은 앞선 시대의 문학 작품이 지닌 내용, 형식, 표현의 영향을 받음. 그 영향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음. 특정한 문학적 요소들은 온전하게 보존되기도 하고 발전적으로 변모되기도 함.
-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시대적 상황: 문학 작품은 그 작품이 창작되고 향유되는 시기의 사회·문화적 상황을 반영하게 되며, 개별적인 역사적 사건과 시대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 산출됨.

⑤ 이론적 갈래와 역사적 갈래

서정, 서사, 극, 교술은 어떤 문학권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론적 갈래'라고 한다. 이에 비해 특정한 역사적 시기에 특정한 문화권에 존속했던 문학양식을 가리켜 '역사적 갈래'라고 한다. 가령 시조는 한국의 문학사에 자리 잡은 역사적 갈래의 명칭이지만, 이론적 갈래로는 주로 서정 갈래에 포함된다.

2 상호 텍스트적 맥락

- 모든 문학 작품은 잠재적으로나 현상적으로나 다른 작품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때 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서 상호 텍스트성이 성립함.
- 패러디된 작품에서와 같이 주어진 작품 안에 다른 작품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는 경우가 상호 텍스트적 맥락의 대표적인 사례임.
- 상호 텍스트성은 직접적인 영향 관계의 유무와 무관하게 독자가 스스로 발견하거나 구성할 수도 있음. 이 경우 각 작품에 담긴 모티프, 이미지, 소재, 주제 등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주목하여 읽음으로써 작품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거나 심화할 수 있음.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S#32. 훈의 방 안

남뜻불에 불이 땡겨진다.
드러나는 사방탁자와 문갑, 그리고 서가에 가득한 책들.
문이 열리며 오작녀가 밥상을 들고 들어온다. 엉거주춤 일어나 상을 받는 훈-.
그의 손이 실수로 오작녀의 손과 겹쳐진다. 놀란 듯 바라보는 오작녀.
훈, 어색하니 상을 받아 놓는다. 그 바람에 그릇의 숭늉이 흔들린다.
나가는 오작녀를 보고.

훈: 저…… 거기 좀 앉으요.

오작녀: ?

조심스레 앉는다.

훈: …… 이제 오작녀도 자기 일을 좀 생각해야 할게요.

오작녀: …….

훈: 남편도 돌아오고.

겨우 말을 내뱉고 시선을 둘 데 없어 남뜻불을 멍하니 바라본다. / 오작녀도 그쪽을 본다.
찍찍 소리를 내며 타고르는 남뜻불. / 오작녀의 눈에 웬지 모를 물기가 부풀어 오른다.

오작녀: …… 제 일은 걱정 마시라우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시요.

훈: …… 아무래도 난 여기를 떠나야 될 것 같소…… 그렇다고 당장 여기를 떠난다는 건 아니요. 무어 농토에 애착이 있어서가 아니라 웬지 지금 떠나고 말면 영원히 고향을 버리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 사람들이 내쫓지 않는 이상 여길 떠나고 싶진 않소…… 처음 오작녀가 여기 와서 살림을 돌봐 줄 때부터 나는 내가 지주요 오작녀는 소작인의 딸이란 걸 생각해 본 적은 없소…… 조금도 의리 관계 같은 것에 얽매여 행동을 자유롭게 못 한다거나 그럴 필요는 없소.

오작녀: 저두 처음부터 선생님이 우리 집 지주라고 해서 와 있는 게 아니야요. …… 그리구 버릇없는 말 같지만 앞으로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 동안만이라도 저더러 나가라는 말씀만은 말아 달라우요.

훈: 아무래도 오작녀를 위해서 좋지 않을게요. 그리구 또 오작녀가 여기 있고 싶어 한대도 오작녀를 데려갈려는…….

오작녀: (뚝바로 보며) 선생님 아무 말씀 마시라우요…… 선생님이 나가라는 말씀만 않으신다면…… 나가라는 말씀만…….

말을 못 맺고 걱정애 못 이겨 튕겨나듯 밖으로 뛰어간다.

훈: (눈을 감는)

[A]

S#33. 과수원

과목 사이로 허둥지둥 달려오는 오작녀. / 어느 나무 기둥에 이마를 부비며 흐느낀다. / 먼 뺨꾸기 소리.

오작녀, 눈을 들어 집 쪽을 본다. / 불이 밝은 훈의 방, 봉창. / 먼 뺨꾸기 소리…….

F.O.

[중략 부분 줄거리] 농민 대회가 열리고 토지 개혁을 단행하기로 결정되어 농민들은 지주들의 집을 차례로 찾아가 재산을 몰수하고, 결국 훈의 집에도 재산 몰수를 위해 찾아온다.

S#101. 마당

훈, 눈을 감는다.

개털: (다시) 우리 민주 혁명에 불평을 품고 매일같이 술로써 소일하는 한편 순진한 청년들을 유혹하여 학당을 발판으로 반동 결사를 조직해 가지구 우리 면 농민 위원당 동무를 살해하게 한 사실 그리고 지주의 권력으로 소작인의 딸이자 남의 유부녀인 여성 동무를 유린한 사실 이런 사실을 보아…….

“여보!” 새된 소리에 모두 놀라 그쪽을 본다. / 오작녀다.

머리는 형클어지고 얼굴은 열에 뜬 오작녀가 곧 쓰러질 듯이 하여 방문을 잡고 나서 있다.

오작녀: 누가 그런 허튼소릴 적었소?

개털: (분노의) 여성 동무 말을 삼가오. 이것은 농민 대회의 결정이오, 우리는 시방 여성 동무를 해방시키러 왔소!

오작녀: 해방이구 뭐구 다 일없소. 돌아들 가시오.

도섭: 아니 데 에미나이가 열병을 앓고 나더니. (개털에게) 동무 용서하시우. 데 에미나이가 앓구 나더니 속이 허해데서 데렘네다. (오작녀에게) 썩 들어가디 못하간!

오작녀: 난 벌써 아버지의 딸이 아니야요.

도섭: 각!

달려들려는 도섭 영감을 제지하는.

개털: 진정하오! 가사 싸움을 할 때가 양이요. 자 그러믄 다시 계속해서…… 이러한 모든 사실로 보아 우리 농민 대회는 지주 박해를 악질 반동 지주로 규정하는 동시에 그의 모든 사유 재산을 몰수하는 데 이의가 없음.

그러고는 훈에게.

개털: 이 집 열쇠를 이리 내오.

훈, 오작녀를 본다.

훈: 오작녀가 말아 있소.

오작녀: (한 발 나서며) 안 돼요! 남의 집 열쇠는 왜 달래는 거야요?

개털: 동무! 이 이상 우리 공작을 방해했다간 어떤 처벌을 당한다는 걸 알고 있소?

오작녀: 이 집은 내 집이야요. 내가 살아 있는 동안은 누구 하나 이 집에 손을 못 대요.

개털: (짐작이 간다는) 내 동무가 이 집에서 여러 해 고된 종살이를 했다는 걸 아오. 그런 사실은 중앙에 보고 하겠소. 오늘 이 공작은 우리에게 맡기오. 다 알아서 처리할게니…….

오작녀: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개털: 모르다니? 뭘 모른단 말이오?

오작녀: 당신네는 아무것도 몰라요!

개털: 아니 도대체…….

오작녀: 우리는 부부가 되시오!

말하고 그녀는 온몸의 맥이 빠지는 듯 눈을 감는다.

훈: (놀라는)

개털 오바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아연해서 웅성거린다.

— 황순원 원작 · 이상현 각색, 『카인의 후예』

[26001-0022]

01

뒷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훈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가 예상치 못했던 오작녀의 발언에 당황한다.
- ② 훈은 오작녀의 남편이 돌아왔다는 사실을 오작녀에게 언급하여 오작녀를 떠나게 하려고 한다.
- ③ 훈은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닥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오작녀에게 그 영향이 미칠까 걱정한다.
- ④ 오작녀는 훈과 부부임을 인정받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를 돌본 것을 보상받기 위해 개털에게 저항한다.
- ⑤ 오작녀는 훈의 집에서 나와야 하는 상황도, 훈이 재산을 빼앗기는 상황도 모두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26001-0023]

02

〈보기〉는 수업의 한 장면이다.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변한 학생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 보기 ▶

선생님: 해방 직후 공산주의 체제였던 북한에서는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는 농민들에게 무상 분배하는 토지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황순원의 소설 『카인의 후예』를 영화화한 이 작품은 북한 토지 개혁이 진행되던 평안도 지역을 배경으로 지주와 농민 위원회 세력이 극단적 갈등 상황으로 치닫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소설과 영화는 주인공 박훈과 그 주변 인물들을 전형성에서 탈피시켜 지주와 농민으로 이분되어 서로를 공격해 온 이념적 대립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던집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나리오 속 인물을 살펴볼까요?

학생 ㄱ: 주인공 박훈은 지주이지만 땅을 지키려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농민 위원회의 결정에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학생 ㄴ: 소작인의 딸 오작녀가 지주 박훈을 적개심을 갖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학생 ㄷ: 도섭은 오작녀의 아버지로서 오작녀가 농민 위원회를 따르지 않는다며 꾸짖습니다.

[26001-0024]

03

[A]는 〈보기〉를 각색한 것이다. 〈보기〉와 비교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전 아무래두 동와요. 선생님께서만 나가라는 말씀 않으신다믄…….”

이것은 오작녀가 벌써부터 벌려 오던 말이었다. 이 말을 훈에게 할 일만 생각해도 절로 가슴이 두근거리지곤 했다. 그것을 이제 훈에게 다 말해 버린 오작녀는 앞이 환히 트이는 느낌이었다. 뻐꾸기 소리가 들려왔다.

오작녀가 고개를 들었다. 큰아기바윗골 쪽이었다. 그러자 오작녀는 가슴속이 무엇으로 가득 해짐을 느꼈다. 큰아기바위의 슬픈 전설보다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행복한 것 같았다.

오작녀는 갑자기 등골이 으스스 떨렸다.

— 황순원, 『카인의 후예』

- ① [A]는 〈보기〉와 같이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기 위해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군.
- ② [A]는 〈보기〉와 같이 인물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감정을 암시하고 있군.
- ③ [A]는 〈보기〉와 달리 내적 갈등이 강조되는 갈래로, 인물의 걱정과 슬픔을 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지시하고 있군.
- ④ [A]는 〈보기〉와 달리 장면을 단위로 구성하는 갈래로, 장면 번호가 매겨져 있고, 장면을 기준으로 공간이 변화하고 있군.
- ⑤ [A]는 〈보기〉와 달리 인물의 내면을 행동과 대사, 표정으로 표현하는 갈래로, 독자로 하여금 인물의 내면 심리를 추론하게 하는 효과가 있군.

● 반영론

문학 작품을 현실 세계의 반영이라 보고, 작품의 내용이 어떤 사회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문학 작품에 접근하는 관점을 '반영론'이라고 한다. 사회·문화적 상황, 역사적 배경 등이 작품의 현실을 구성하는 요소들이다.

● 사회·문화적 맥락과 역사적 맥락의 관계

두 종류의 맥락이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사회·문화적 맥락에 비해 역사적 맥락은 구체적이다. 그래서 종종 사회·문화적 맥락은 드러나더라도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은 숨어 있는 경우가 있다. 가령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김유정의 『봄·봄』에는 전통적인 농촌의 사회·문화적 맥락은 나타나지만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적 맥락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 반대로 역사적 맥락이 드러나는 작품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도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1 사회·문화적 맥락

(1) 사회·문화적 맥락의 개념

- 한 사회에서 같은 문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둘러싼 사회적 제도나 질서, 그들이 지닌 보편적인 정신세계나 태도의 총체적 연관성을 가리킴. 문학 작품에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이 반영됨.
- 독자들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의 주제 의식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삶의 보편성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음.

(2) 사회·문화적 맥락의 요소

- 당대의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 문학 작품은 작가가 살아가는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의 다양한 이념이나 사상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함.
- 당대의 사회 제도, 문화적 관습: 문학 작품은 특정한 시기, 특정한 사회의 사회 제도, 문화적 관습을 반영하기도 하고, 이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제기하기도 함.
-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화자나 인물의 삶의 방식: 작품 속 화자나 인물들은 사회 질서에 대해 대항, 순응, 회피 등의 태도를 보임.

2 역사적 맥락

(1) 역사적 맥락의 개념

- 한 작품을 창작하는 계기가 되거나 그 작품의 배경이 되는 특정한 시기의 역사적 사건을 가리킴.
- 독자는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면서 작품을 읽음으로써 작품에 담긴 주제 의식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역사에 대응하는 인간의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음.

(2) 역사적 맥락의 요소

- 역사적 사건: 왕조 교체, 정치적 분쟁, 식민 통치, 전쟁 등 국가 및 민족 단위의 사건은 물론이고 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회적 사건이 작품의 배경이나 소재가 됨.
- 특정한 역사적 시기의 물질적·정신적 환경: 새로운 문물의 도입이나 생성, 기존 문물의 소멸 등에 따른 물질적·정신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하여 인간 생활의 변화가 작품에 반영됨.

작품으로 이해하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중에서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 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양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 식 바지를 입었다. 그것은 그네들이 흔히 입는, 유지(油紙) 모양으로 번질번질한 암갈색 피륙으로 지은 것이었다. 그리고 발은 감발을 하였는데 짚신을 신었고, 고부가리*로 깎은 머리엔 모자도 쓰지 않았다. 우연히 이따금 기묘한 모양을 꾸미는 것이다. 우리가 자리를 잡은 찻간에는 공교스럽게 세 나라 사람이 다 모였으니, 내 옆에는 중국 사람이 기대었다. 그의 옆에는 일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는 동양 삼국 옷을 한 몸에 담은 보람이 있어 일본말도 곧잘 철철대거거니와 중국말에도 그리 서툴지 않은 모양이었다.

(중략)

노동 숙박소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묻고 나서,

“시방 가면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는지요?” / 라고 그는 매어달리는 듯이 또 재쳤다.

“글쎄요, 무슨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는지요.”

나는 내 대답이 너무 냉랭하고 불친절한 것이 죄송스러웠다. 그러나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 “흥,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려마는,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所出)의 삼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쳐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이의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田野)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야, 무슨 형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밭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①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께서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죽 한 모금도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병 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시었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몸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별이를 찾아 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 몸담아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율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무원기요. 고향이 통 없어졌드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모것도 없드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드마.”

“그러면, 아주 폐동(廢洞)이 되었던 말씀이요?”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드마. 우리 살든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드마. 사람 살든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요?” /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새까래, 뽕뽕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것 같드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요? 백여 호 살든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 “참! 가슴이 터지드마. 가슴이 터져.” /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뚝뚝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든 사람이구마.” /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드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든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 “나와 혼인 말이 있든 여자구마.”

“하—.” /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담쳐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나.” /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비 되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이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덕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궐녀*는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빚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빚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꺾녀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 거기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째 그렇게도 변하는지요? 그 술 많은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드마. 눈은 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든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드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울으셨겠지요?”

“㉔눈물도 안 나오드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열 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찌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다. /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지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㉕나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살이를 듣기에 쓴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한뿔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 현진건, 「고향」

* 고부가리: 머리를 약 15센티미터 길이로 자르는 것을 가리키는 일본말 ‘고부까리’.

* 역둔토: 역토(驛土)와 둔토(屯土)를 아울러 이르는 말. 나라의 경비를 마련할 용도로 농사짓던 땅을 가리킴.

* 사삿집: 개인이 살림하는 집.

* 남부여대(男負女戴): 남자는 지고 여자는 인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신신하다: 마음에 들게 시원스럽다.

* 구주, 대판: 일본의 규슈, 오사카를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

* 주접(住接): 한때 머물러 살.

* 꺾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아닌 여자를 이르는 삼인칭 대명사.

* 유산: 황산. 무색무취의 끈끈한 불휘발성 액체.

[26001-0025]

01

㉔~㉕ 중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원에서 윗글을 탐구하려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

- ㉔ ‘나’의 심리를 분석함으로써 ‘나’가 ‘그’에 대해 보이는 태도가 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해 봐야지.
- ㉕ ‘그’가 들려준 이야기를 직접 인용한 부분과 ‘나’가 그것을 요약정리한 부분을 구별하여 표시하고, 서사 전달의 효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 봐야지.
- ㉔ 일제 강점기에 있었던 ‘노동 숙박소’라는 시설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고, 뜨내기인 ‘그’가 서울에 도착해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도움이 될 만한 곳인지 짐작해 봐야지.
- ㉕ 작품의 배경이 된 시기의 한국, 중국, 일본의 의복 문화에 관한 자료를 찾아 참고함으로써, 옷차림이 묘사된 부분에서 ‘그’의 첫인상이 어떤 느낌으로 제시되는지 깊이 이해해 봐야지.
- ㉔ 오늘날 대중교통의 일반적인 이용 양상과 달리, 차간에서 서로 모르던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함께 술을 마시는 작중 상황이 인물들의 관계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생각해 봐야지.

[26001-0026]

02

다음은 윗글을 읽은 후 **동양 척식 회사**와 관련한 자료를 찾아보고 쓴 감상문의 일부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동양 척식 회사(공식 명칭은 ‘동양 척식 주식회사’이며, 줄여서 ‘동척’이라고도 부름.)는 1908년에 일본이 조선의 경제 독점과 토지·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설립한 국책 회사로서,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에 패전하면서 분을 달을 때까지 주로 토지를 강점, 강매하여 높은 비율의 소작료를 징수하고 많은 양곡을 일본으로 반출하는 일을 하였다고 한다.

나는 이 소설에서 ‘그’가 험난한 인생을 살게 된 이유는 동양 척식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_____ 때문이다. ……

- ① 동양 척식 회사가 일본으로 반출하는 양곡의 운송 임무를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맡겼기
- ② 동양 척식 회사가 역둔토를 강점, 강매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그’의 고향 마을에 닥친 비극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였기
- ③ 동양 척식 회사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는 과정에서 중간 소작인의 착취까지 더해져 ‘그’와 고향 사람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기
- ④ 동양 척식 회사가 조선의 경제를 독점해 가는 과정에서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역둔토의 경작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운영 방식을 택했기
- ⑤ 동양 척식 회사의 설립 이후, ‘그’와 고향 사람들이 사싯집 농토의 농사를 지을 때보다 역둔토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얻게 되었기

[26001-0027]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의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이 소설은 일제 강점기였던 1926년에 ‘그의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훗날 제목이 ‘고향’으로 수정되었다. 이 작품에는 역사의 질곡 속에서 우리 민족이 감내해야 했던 극심한 고통, 즉 향촌 파괴로 인한 삶의 터전 상실, 생존을 위해 선택해야 했던 유이민 생활의 고난, 가족 친지와 이별로 인한 슬픔, 취업난으로 인해 가중되던 생활고 등이 주인공 ‘그’의 애절한 사연을 통해 사실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① ㉠은 생존을 위해 유이민이 되어 서간도에서 고난을 겪고 가족과 이별한 ‘그’의 애절한 사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에서는 자신에게 삶의 터전이 되어 주었던 향촌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현실을 보고도 믿기 힘들었던 ‘그’의 심리를 엿볼 수 있겠군.
- ③ ㉢에서는 ‘그’의 얼굴을 통해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당시 조선 민중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려 한 작가의 의도를 짐작할 수 있겠군.
- ④ ㉣은 취업난으로 인해 생활고가 가중되는 현실 때문에 인간관계가 변질되어 버린 상황이 반영된 것에 해당하겠군.
- ⑤ ㉤에서 ‘나’가 ‘그’에게 연민을 느끼고 공감하는 것은 자신도 일제 강점기라는 역사의 질곡을 함께 경험하고 있는 처지이기 때문이겠군.

2부

www.ebsi.co.kr

적용 학습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질(質) 좋은 것이

가을에 말라 떨어지지 아니하매,
너를 중(重)히 여겨 가겠다 하신 것과는 달리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에여,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 갓
지나가는 물결에 대한 모래로다.
모습이야 바라보지만
세상 모든 것 여혀여 버린 처지(處地)여.

物叱好支栢史
秋察尸不冬爾屋支墮米
汝於多支行齊教因隱
仰嘆隱面矣改衣賜乎隱冬矣也
月羅理影支古理因淵之叱
行尸浪 阿叱沙矣以支如支
貞史沙叱望阿乃
世理都 之叱逸鳥隱第也
(後句亡)

— 신충, 「원가」

나 한바다에 가을바람 불어오는 이 밤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
지금 바로 큰 난리를 겪고 있는 때라네
업적은 많은 사람들이 깎아내리려 하건만
이름은 오히려 온 세상이 알게 되네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 읊으리

水國秋風夜
愀然獨坐危
太平復何日
大亂屬茲時
業是千人貶
名猶四海知
邊憂如可定
應賦去來辭

— 이순신, 「진중음」

* 귀거래사: 중국 진나라 도연명이 관직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갈 때 지은 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생활의 즐거움을 드러냄.

[26001~0028]

01

〈보기〉와 관련지어 (가)를 지은 시인의 표현 의도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는 신라 34대 효성왕 원년에 신충이 지은 향가이다. (가)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진다.

효성왕이 왕이 되기 전 신충과 더불어 궁정 잣나무 아래에서 바둑을 두다가 신충에게 “훗날 내가 만일 그대를 잇는다면,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다.”라고 장담을 하였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효성왕은 공신들에게 상을 내릴 때 신충을 잊어버렸다. 신충이 이 노래를 지어 잣나무에 붙였더니 나무가 갑자기 말라 버렸고, 이 사실을 들은 왕이 신충을 등용하였더니 잣나무가 다시 소생했다고 한다.

- ① ‘질 좋은 잣’을 언급하여 잣나무가 증인이 될 것이라는 왕의 말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 ②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라는 말을 직접 인용하여 자신을 잊지 않겠다던 왕의 다짐을 환기하고 있다.
- ③ ‘낮이 변해 버리신 겨울’과 같이 변화된 분위기를 드러내어 자신에 대한 왕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밝히고 있다.
- ④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이라는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왕에게 버려진 자신의 처지를 제시하고 있다.
- ⑤ ‘지나가는 물결’에 자신을, ‘모래’에 왕을 빗대어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029]

02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바다’, ‘가을바람’, ‘이 밤’은 각각 공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드러내어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군.
- ②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네’는 시적 정황을 묘사하여, 화자의 외로움과 고뇌를 표현하고 있군.
- ③ ‘어느 날에야 이 나라가 다시 태평해질까’는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많은 사람들’의 의도를 의심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군.
- ④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은 먼저 해결해야 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자신보다 국가를 우선시하는 충성심을 부각하고 있군.
- ⑤ ‘도연명의 귀거래사 응당 읊으리’는 도연명이 쓴 작품을 떠올리게 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하고 있군.

[26001-0030]

03

(가)의 세상 모든 것과 (나)의 온 세상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과 괴로움을 강조하고 있다면, (나)의 화자는 ‘온 세상’을 위해 자신이 해 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있다.
- ②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린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면, (나)의 화자는 ‘온 세상’에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가)의 ‘세상 모든 것’이 임과 함께할 수 없게 된 화자가 잃어버린 것 전부를 뜻한다면, (나)의 ‘온 세상’은 남들이 도달할 수 없는 업적을 이룬 화자가 얻게 된 것 전부를 뜻한다.
- ④ (가)의 ‘세상 모든 것’이 화자가 원하던 것이지만 더 이상 꿈꿀 수 없게 된 것이라면, (나)의 ‘온 세상’은 화자가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며 머지않아 가질 수 있는 것에 해당한다.
- ⑤ (가)의 화자가 ‘세상 모든 것’을 여의게 된 것이 임에 대한 화자의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라면, (나)의 화자가 ‘온 세상’에 이름을 알릴 수 있게 된 것은 화자의 업적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얼음 위에 덧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얼음 위에 덧잎 자리 보아 임과 나와 얼어 죽을망정
 정(情) 둔 오늘 밤 더디 새오시라 더디 새오시라

경경(耿耿) 고침상(孤枕上)*에 어느 잠이 오리오
 서창(西窓)을 열어하니 도화(桃花)가 발(發)하도다
 ㉠도화는 시름 없어 소춘풍(笑春風)*하도다 소춘풍하도다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더니
 버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뉘러시니잇가

㉡오리야 오리야 아련 비오리야
 여울은 어디 두고 소(沼)에 자러 오느냐
 소마저 얼면 여울도 좋으니 여울도 좋으니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경경 고침상: 근심에 싸여 있는 외로운 잠자리.

*소춘풍: 봄바람을 희롱함.

*버기더시니: 우기시던 이가. 또는 어가신 이가.

나 내 영혼 술에 섞여 임의 속에 흘러들어
 굽이굽이 창자를 다 찾아다닐망정
 날 잊고 ㉢날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

— 김삼현

다 창밖에 가마솔 때우라는 ㉣장사 이별 나는 구멍도 때우는가
 장사의 대답하는 말이 진시황 한 무제는 천지를 호령하되 위엄으로 못 막고 제갈량의 천하 경영하는
 재주로도 막았다는 말 못 들었고 하물며 서초 패왕의 힘으로도 능히 못 막았으니 이 구멍 때우라는 말이
 아마도 우스워라
 진실로 장사의 말과 같을진대 긴 이별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26001-0031]

01

(가)~(다)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모두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④ (가)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나)는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 ⑤ (가)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며, (다)는 인물의 속성을 나열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6001-0032]

0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심정을 조롱하는 자연물이고, ㉡은 화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연물이다.
- ② ㉠은 화자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자연물이고, ㉢은 화자의 괴로움을 심화하는 사람이다.
- ③ ㉡은 화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자연물이고, ㉣은 화자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 ④ ㉡은 화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자연물이고, ㉣은 화자의 호기심을 해소하는 사람이다.
- ⑤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사람이고, ㉣은 화자의 처지를 환기시켜 주는 사람이다.

[26001-0033]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작품에서는 ‘만남-이별-그리움’의 내용을 모두 담아내기도 하지만, ‘만남-이별-그리움’의 내용 중 특정 내용에 주목하여 임에 대한 사랑의 정을 드러내기도 한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화자는 물리적인 시간이나 공간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거나 추상적인 대상을 사물화하는 발상을 통해 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얼음 위’에서 얼어 죽더라도 ‘오늘 밤’이 ‘더디 새’길 바라는 것은 일정하게 흐르는 물리적인 시간에 변화를 주고 싶다는 발상으로, 임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임과의 이별로 ‘경경 고침상’에서 잠을 이루지 못한 화자가 ‘넋이라도 임을 한데 지내겠다고 여겼’던 것은 육체와 달리 추상적 대상인 ‘넋’은 임과 함께할 수 있다는 발상으로, 임과의 이별로 인한 힘겨움과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화자가 ‘비오리’가 잠을 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으로 ‘소’를 인식하는 것은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물리적 공간을 평소와 다르게 인식하는 발상으로, 이별한 임과의 재회를 원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화자의 ‘영혼’이 ‘술에 섞여 임의 속에’ 들어가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고 싶다는 것은 추상적 대상인 사람의 영혼과 마음을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한 것으로, 자신을 멀리하는 임에 대한 화자의 원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다)에서 화자가 ‘이별 나는 구멍’을 때울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은 이별 상황을 수선할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한 것으로, 임과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사람 이제 사람 이목구비 같건마는

나 혼자 어찌하여 옛사람을 그리는고

㉠이제도 옛사람 계시니 그 내 벗인가 하노라

〈제1수〉

내 양자* 하 험하니 비누 성적* 아니하네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니거든

㉡옛그제 지나간 한 분이 혼자 곱다 하노라

〈제2수〉

청송으로 울을 삼고 백운으로 장 두르고

초옥 삼간에 숨어 계신 저 내 벗님

흥중에 진념이 없으니 그를 사랑하노라

〈제4수〉

벗님 사는 땅을 생각코 바라보니

㉢용추동 밖이오 구름다리 위로다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오노라

〈제5수〉

달이 밝은 제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

사람이 털 괴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어라

〈제6수〉

뫼는 첩첩하고 구름은 잣았으니

㉣고인의 집 땅이 바라도 볼 성 없다

마음만 길 알아 두고 오락가락하노라

〈제7수〉

상산에 채지하러* 부디 냇이 가리런가

쫓을 이 없는데 우리 둘이 가사이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마사이다

〈제9수〉

방장산 기슭에서 신선님네 만나신가

얼핏이 보아든 내 말씀 전하소서

㉤산중에 타시는 청학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

〈제10수〉

— 정훈, 「월곡답가」

*양자: 모습.

*성적: 화장.

*괴운: 사랑하는.

*상산에 채지하러: 상산으로 지초를 뜯으러, 고사 상산사호를 두고 한 말. 상산사호는 중국 진시황 때 난리를 피해 산시성 상산에 들어가서 숨은 네 사람을 이름.

[26001-0034]

01

윗글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는 자연 현상과 인간의 삶이 대조적 시어를 통해 드러나 있다.
- ② <제4수>에는 화자가 느끼는 애상감이 감정 이입을 통해 드러나 있다.
- ③ <제6수>에는 상황에 따른 화자의 행위가 대구의 형식을 통해 드러나 있다.
- ④ <제9수>에는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이 명령적 어조를 통해 드러나 있다.
- ⑤ <제10수>에는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이 설의적 표현을 통해 드러나 있다.

[26001-0035]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상을 향해 친밀감을 표현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 화자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대조되는 태도를 보이는 대상의 면모가 드러나 있다.
- ③ ㉢: 대상과 물리적 거리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④ ㉣: 장애물로 인해 대상을 바라보기 어려운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
- ⑤ ㉤: 자신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 있다.

[26001-0036]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7세기 전기는 대외적으로는 전란이 일어나고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사회 전반에 변화의 기류가 팽배했던 시기였다. 이 시기의 지속적인 내우외환 속에서 중심부에서 밀려난 향촌 사족들은 자신의 포부를 펼치지 못하고, 사대부로서의 위신과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시가를 통해 드러내기도 하였다. 향촌 사족인 정훈은 정계에 진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인물로, 그의 시가에는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대한 인식과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드러나 있다. 「월곡답가」는 작가가 존경하는 인물이 죽은 후 그를 추모하는 마음을 담아 쓴 작품으로, 작가는 대상을 향해 지속적인 애정을 표현하며 대상을 닮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다. 이때 대상은 속세에 초연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대상에 대한 지향은 작가가 자신의 처지에 합당한 현실 대응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내 양자 하 험하’라고 하며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닌다는 것을 통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해 인식하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② ‘초옥 삼간에 숨어’ 있는 이를 ‘내 벗님’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 속세와 단절되어 있는 대상을 자신과 가까이 여김으로써 현실에 대처하는 작가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군.
- ③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며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는 것을 통해,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마음과 대상을 닮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괴리감을 느끼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워하며 ‘사람이 덜 괴운 탓으로 잊힐 적이 적’다는 것을 통해, 대상을 향해 지속적인 애정을 드러내는 작가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⑤ ‘상산에 채지하러’ 가자고 하며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 듣도 보도’ 말자는 것을 통해,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세상과 거리를 두고자 하는 작가의 태도를 짐작할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두류산 양단수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오 나는 엔가 하노라

- 조식

*산영: 산의 그림자.

- 나** 요(堯)일월 순(舜)건곤은 ㉢옛날대로 있건마는
 세상 인사는 어이 저리 달랐는고
 이 몸이 늦게 난 줄을 못내 슬퍼하노라

- 김천택

- 다** 대장부 ㉣공 이루고 물러난 뒤에
 임천에 초당 짓고 만권 서책 옆에 쌓고 천금준마 술질하여 보라매 길들여 두고 노복 시켜 밭 갈리고 절
 대가인 옆에 두고 금준*의 술을 부어 벽오동 거문고 새 줄 얹어 무릎에 얹고 남풍시 화답하여 강구연월*
 에 누웠으니
 보고 듣기 좋음과 마음의 즐거움은 이뿐인가 하노라

- 작자 미상

*금준: 금으로 만든 술통.

*강구연월: 변화한 거리에 달빛이 연기에 은은하게 비치는 모습, 또는 태평한 세상의 평화로운 풍경, 또는 태평한 세월.

[26001-0037]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
- ② (나)는 (다)와 달리 대조의 방식을 통해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모두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를 직접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④ (다)는 (가)와 달리 화자의 행동을 열거하여 특정 공간에 대한 태도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038]

0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화자가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대상이 존재하는 시간이다.
- ② ㉠과 ㉡는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이후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 ③ ㉠은 ㉡와 달리 화자가 시각적인 실제 경험을 통해 충족감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④ ㉡는 ㉠과 달리 화자가 결핍으로 인한 슬픔을 느끼는 시간이다.
- ⑤ ㉡는 ㉠과 달리 화자가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시간이다.

[26001-0039]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고전 시가에서 낙원을 표상하는 시어로 자주 등장하는 것이, 공간으로는 ‘무릉도원’이고 시간으로는 ‘요순시대’이다.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은 도연명이 지은 「도화원기」라는 작품에 근원을 두고 있는데, 이때 ‘무릉’은 어부가 살고 있는 공간의 지명이고, ‘도원’은 양쪽이 도화, 즉 복숭아꽃으로 가득한 물길의 근원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이 길을 따라간 어부는 남녀노소가 자족하며 평화롭게 사는 이상 세계와 마주한다. ‘요순시대’는 요임금과 순임금이 중국을 다스렸던 시대로, 이 시절이 태평성대였음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은 「강구요(康衢謠)」이다. 요임금이 어느 변화한 길거리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는데, 임금의 덕을 높이며 평화롭게 산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강구연월’ 역시 태평성대를 표상하는 시어로 자리 잡았다.

- ① (가)는 화자가 마주한 공간을 ‘무릉’이라고 지칭하는 표현을 통해 눈앞에 펼쳐진 현실 공간을 이상적으로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도화 뜰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산영’이 비치는 모습에서 이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무릉도원’을 연결하여 화자가 있는 공간을 낙원처럼 표현하고 있다.
- ③ (나)는 ‘요’와 ‘순’ 시대의 자연은 여전하지만 ‘세상 인사’가 달라진 현실에 대해 결핍을 느끼며 시대적으로 요순시대가 아닌 상황에 대해 안타까움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다)는 세속적 욕망을 부정하고 ‘천금준마’, ‘보라매’와 더불어 소박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태평성대로 인식하며 임금의 덕을 높이고 있다.
- ⑤ (다)는 화자가 누리는 의식주에 결핍이 없는 상황과 낙원과 같은 충만감을 느끼는 경험에 대한 즐거움을 ‘강구연월’이라는 시어로 표상하고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눈] 맞아 휘어진 대를 뉘라서 굽다던고
 굽을 절이면 눈 속에 푸를쏘냐
 아마도 세한고절(歲寒孤節)*은 너뿐인가 하노라

- 원천석

*세한고절: 추운 계절에도 혼자 지키는 절개.

- 나 연(蓮)못에 [비] 오는 소리 그 무엇이 놀랍관데
 임 보러 가던 꿈이 못 보고 깨듯던고
 앞 위에 구슬만 담겨 눈물 듯듯 하더라

- 작자 미상

- 다 임이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삼사월 ㉡칠녕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칠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 풀어 옹게 감아 얹어지고 틀어
 저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굽이 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晝夜長常) 뒤틀어져 감겨 있어
 동(冬) 선달 바람 [미]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랴

- 이정보

[26001-0040]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말을 주고받는 방식을 사용하여 청자로 인한 애상적 정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현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타인의 발언을 인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 ⑤ (가)는 (나)와 달리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26001-0041]

02

〈보기〉를 참고하여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의 소재로서 자연물은 고유의 생태적 특성에 기반하여 문학적 의미를 생성한다. (다)에 나타나는 자연물의 주요 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물	주요 특성
오리나무	큰키나무로 뿌리가 깊고 바로 서서 높이 자라는데 생명력이 강해 추위에 잘 견디고 수명도 길다.
취	덩굴나무로 줄기가 길게 뻗어 가면서 다른 물체를 감고 올라가는데, 추위에 강해 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고 살아남는다.
납거미	비행접시처럼 생긴 그물을 치고 살며 그물 위로 지나가는 나비 등의 곤충을 촌촌한 하얀 그물로 순식간에 완전히 감싸는 방법으로 사냥한다. 실 감는 속도가 워낙 빨라 한번 걸려든 먹잇감은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러한 자연물의 생태적 특성은 작품 안에서 서로 어우러짐으로써 문학적인 기능을 발휘하며 동시에 문학 작품의 의미를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다.

- ① ‘임’을 곧게 자라고 생명력이 강한 ㉠에 비유하여 기댈 만한 존재로서 ‘임’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화자가 ㉡로 변하고, ㉡에서 다시 ㉢로 변신하는 발상을 통해 ‘임’이 화자로부터 빠져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짐을 부각한다.
- ③ ㉠과 ㉡가 모두 가지고 있는, 추위를 잘 견디는 특성은 두 소재가 ‘동 설달’에도 함께 살아남는 것이 가능함을 말해 준다.
- ④ ㉡와 ㉢는 능동적으로 다른 대상을 ‘감’아서 묶는 기능에 기반하여 강력하고 지속적인 결속을 유지하기 위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 ⑤ ㉢와 ㉣ 사이에서 나타나는 외형적 특성이 ㉡와 ㉠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 기대어 ‘임’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함을 강조한다.

[26001-0042]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의 [눈], [비]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조에서 눈과 비는 기후 현상이라는 본래적 의미에 더하여 주관적 정서의 투영물로서 새로운 의미를 품은 채,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소재로 등장하기도 한다. 이때 눈과 비는 물리적인 상태, 소리나 색채의 유무, 계절적 이미지와 관련하여 기능과 의미의 차원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반면, 두 소재는 본연의 하강적 이미지와 함께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는 차원에서 장애물로 나타나거나 극복하기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 ① (가)에서 ‘눈’은 고체의 물리적 특성을 가진 채, 절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대’를 눌러 ‘휘어’지게 만들므로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눈’은 시각적 차원에서 ‘대’와 색채의 대비를 이룸으로써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 속에서 화자가 ‘대’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군.
- ③ (나)에서 ‘비’는 화자가 잠에 들어 ‘임 보러 가던 꿈’을 꾸다가 빗소리에 의해 깨어나 임을 ‘못 보’게 되었으므로 임과 화자의 만남에 제약을 가하는 소재라 할 수 있군.
- ④ (나)에서 ‘비’는 ‘들뚝’이라는 하강 이미지와 액체라는 물리적 특성에 따라 떨어지는 소리로 감각화되어, 연‘잎 위에 구슬’ 모양으로 흘러서 맺힌 화자의 눈물에 빗대어져 있군.
- ⑤ (다)에서 ‘비’와 ‘눈’은 각각 ‘바람’, ‘서리’와 함께 어우러져 임과 화자가 사랑을 이어 나가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시련이나 고난이 닥치게 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멀리 펼쳐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
 넓은 들판에 무슨 짐작 하느라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였는 듯
 가운데 굽이는 구멍에 든 늙은 용이
 선잠을 갓 깨어 머리를 엮었으니
 너럭바위 위에 송죽(松竹)을 헤치고
 정자를 엮었는데 ㉠구름 탄 청학이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
 옥천산 용천산 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에 울울이 펼친 듯이
 넓거든 길지 말든지 푸르거든 희지 말든지
 쌍룡이 뒤흔는 듯 긴 비단을 펼친 듯
 어디로 가느라고 무슨 일 바빠서
 내닫는 듯 따르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
 물가의 모래밭은 눈같이 펼쳤는데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
 앉았다 날았다 모였다 흩어졌다
 갈대꽃 사이 두고 울면서 따르는가
 넓은 길 바깥이요 긴 하늘 아래에
 두르고 꽃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아닌가 높은 듯 낮은 듯
 끊는 듯 잇는 듯 숨거니 뵈거니
 가거니 머물거니 어지러운 가운데
 이름난 양하여 하늘도 두려워 않고
 우뚝이 섰는 것이 추월산 머리 이루고
 용귀산 봉선산 불대산 어등산
 용진산 금성산이 허공에 벌였느니
 원근의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흰 구름 뿌연 연하(煙霞) 푸른 것은 산람(山嵐)*이라
 수많은 바위 골짜기를 제집으로 삼아 두고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늘로 떠나거니

[A]

[B]

[C]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붉으락 열으락 짙으락

석양과 섞이어 가랑비마저 뿌리네

가마를 급히 타고 술 아래 굵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때에

⑥ 녹양에 우는 피꼬리 교태 겨워하는구나

나무 풀 우거지어 녹음이 짙어진 때

기다란 난간에서 긴 줄을 내어 찢니

물 위의 서늘한 바람은 그칠 줄을 모르는가

⑦ 된서리 낀 후에 산빛이 금수(錦繡)로다

황운(黃雲)은 또 어찌 만경(萬頃)에 펼쳤는가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초목이 다 진 후에 강산이 묻혔거늘

조물주 헌사하여 빙설로 꾸며 내니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눈 아래 벌였구나

천지가 풍성하여 간 데마다 승경(勝景)이로다

인간 세상 떠나와도 내 몸이 설 틈 없다

이것도 보려 하고 저것도 들으려 하고

바람도 쐬려 하고 **달**도 맞으려 하고

밤일랑 언제 줍고 **고기**는 언제 낚고

사립문 뉘 닫으며 진 꽃일랑 뉘 쓸려노

아침 시간 모자라니 저녁이라 싫을쏘냐

오늘이 부족하니 내일이라 넉넉하라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

변거로운 마음에도 **버릴 일이 전혀 없다**

설 사이 없는데 오는 길을 알리라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

부르며 타이며 헐이며 이아며*

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근심이라 있으며 시름이라 붙었으랴

누웠다가 앉았다가 굶혔다가 젖혔다가

웁다가 휘파람 불다가 마음 놓고 노니

천지도 넓디넓고 세월도 한가하다

[D]

태평성대 몰랐는데 이때가 그때로다
 신선이 어떠한가 이 몸이 그로구나
 강산풍월 거느리고 내 백 년을 다 누리면
 악양루* 위의 이백이 살아온들
 호탕한 회포는 이보다 더할쏘냐
 이 몸이 이리함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E]

- 송순, 「면양정가」

* 산람: 산 아지람이.

* 경궁요대: 아름다운 구슬로 장식한 집과 누각. 여기서눈 눈 덮인 산천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 옥해은산: 옥같이 맑은 바다와 은빛의 산. 여기서눈 눈이 내려 산천이 하얗게 변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말임.

* 부르며 타이며 허이며 이아며: 노래를 부르게 하며, 악기를 타고 또 켜게 하며, 악기를 흔들며.

* 악양루: 중국 동정호(洞庭湖)에 있는 누각으로, 당나라 시인 이백이 시를 지으면서 풍류를 즐긴 곳.

[26001-0043]

01

다음은 윗글을 영상으로 제작하기 위해 떠올린 내용이다. 윗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은?

- 화자가 면양정을 떠나 무등산의 사계절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
- 화자가 면양정에서 자신의 벗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즐기는 모습㉡
- 일곱 개의 산 중, 가운데 산에 있는 면양정에 화자가 위치한 모습㉢
- 면양정을 떠난 화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이동하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
- 면양정에 서 있는 화자가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

① ㉠

② ㉡

③ ㉢

④ ㉣

⑤ ㉤

[26001-0044]

02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화자의 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고, ㉤는 화자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② ㉡는 추상적 사물을 구체화하여 드러내는 대상이고, ㉤는 화자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③ ㉡는 이상적 세계의 몽환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대상이고, ㉤는 현실 세계에 몽환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대상이다.
- ④ ㉡는 화자가 위치한 공간의 광활함을 부각하는 대상이고, ㉤는 화자가 위치한 공간의 역동성을 부각하는 대상이다.
- ⑤ ㉡는 화자가 바라보는 사물의 외형적 특징을 비유하는 대상이고, ㉤는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다.

[26001-0045]

03

㉞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기러기 한 소리에 맑은 서리 물들이고
 산빛이 변하여 금수로 꾸몄으니
 곡구암 반타암이 그림 되어 동구에 잠겨 있다
 밝은 달이 떠올라 소나무에 비추거든
 거문고 가로안고 난간에 기대니
 깃옷 입은 손님은 다 나를 찾아와 눈에 가득 보이도다
 세모에 날씨 차고 온 산에 눈 덮이니
 인적은 끊어지고 우는 새도 없는 때에
 언덕과 골짜기는 백옥 궁궐, 경요굴이 되었거늘

- 김득연, 「지수정가」

- ① ㉞와 달리 <보기>는 구체적인 지명들을 언급하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다.
 ② ㉞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가을 들판의 풍요로움을 부각하고, <보기>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겨울 산의 적막함을 전달하고 있다.
 ③ ㉞와 <보기>는 모두 백색의 이미지와 관련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눈으로 덮인 겨울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㉞와 <보기>는 모두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단풍이 물든 가을 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⑤ ㉞와 <보기>는 모두 시간적 배경과 청각적 이미지를 연관 지어 화자가 자신을 찾은 대상들과 함께 풍경을 즐기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046]

04

〈보기〉를 바탕으로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작가는 낙향한 후 제월봉 중턱에 ‘면양정(倅仰亭)’이라는 정자를 짓는데, ‘면양정’에서 ‘면’은 아래를 ‘굽어보다’와 상황을 ‘마주하다’의 의미를, ‘양’은 위를 ‘우러러보다’와 상황을 ‘되돌아보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먼저 「면양정가」는 ‘면’과 ‘양’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양정’ 주변의 풍경을 노래하고 있는데, 이때 주변 풍경을 바라보는 ‘면’과 ‘양’의 시선은 ‘면양정’을 기준으로 구별된다. 한편, ‘면’과 ‘양’은 시간적 개념과 관련지어 이해할 수도 있다. 화자는 자연을 즐기며 삶에 만족감을 느끼는 자신의 삶을 과거 인물들의 삶과 비교하고 있는데,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양’의 시선으로, 현재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피보는 것이므로 ‘면’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① [A]: ‘정자 앞 넓은 들’에 흐르는 물과 ‘물가의 모래밭’을 날고 있는 ‘기러기’는 ‘면’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양정’ 주변 풍경에 해당하겠군.
- ② [B]: ‘넓은 길 바깥’ ‘긴 하늘 아래’ 병풍처럼 펼쳐진 봉우리와 ‘원근의 푸른 절벽’에 벌여 있는 산들은 ‘양’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양정’ 주변 풍경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C]: ‘흰 구름 뿌연 연하’와 ‘산람’이 ‘오르거니 내리거니’ 하며 ‘하늘로 떠나거’나 면양정보다 아래에 있는 ‘광야로 건너’가는 모습은 ‘면’과 ‘양’의 시선을 모두 사용하여 ‘면양정’ 주변의 풍경을 바라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D]: ‘바람’을 쐬고 ‘달’을 맞으며, ‘밤’을 즐기고 ‘고기’를 낚는 생활로 ‘버릴 일이 전혀 없’이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화자의 모습은 ‘양’의 시선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보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⑤ [E]: ‘이때’가 ‘태평성대’라고 평가하고 과거의 인물인 ‘악양루 위의 이백’과 비교하며 자신의 ‘호탕한 회포’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화자의 모습은 ‘면’과 ‘양’의 시선을 모두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살피보는 것에 해당하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월이라 십오 일에 달구경하는 소년들아
 흥풍(凶豊)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 생각하라
 ㉠ 신체발부 사대절*을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 태산같이 높은 덕과 하해같이 깊은 정을
 어이하여 잊으리오 천세 만세 믿었더니
 봉래 방장 영주산에 ㉢ 불로초와 불사약을
 인력(人力)으로 얻을쏜가 슬프다
 수육정이 풍부지하고 자육양이 친부재라*
 ㉣ 공산낙목 한 줍 흙 되어 영원한 이별 되겠구나
 ㉤ 일 년 삼백육십 일에 일일 사친(事親) 십이시라
 서늘한 바람 적막하고 소식이 영영 끊기니
 슬프다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A]

그달을 허송하니 이월이라 한식일에
 천추절*이 적막하다 개자추*의 낮이로다
 원산에 봄이 드니 불탄 풀에 속잎 난다
 후인들이 슬퍼하여 한식을 지었도다
 당우삼대 성제들도 승피백운 하셨도다*
 여산 송백 무릉 춘초(春草)는 만고영웅 일과처*라
 무서산지 퇴일하니* 이영백의 사정(私情)*이오
 태행산 외로운 구름 보니 적인결*의 생각이라
 슬프도다 우리 부모 청명인 줄 모르시나

[B]

그달 그믐 다 지나고 삼월이라 삼진날에
 제비 새끼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호랑나비 분분하여 옛빛을 자랑한다
 기수(沂水)에 목욕하고 무우(舞雩)에 바람 쏘이며
 동쪽 언덕 올라 휘파람 불고 청류 이르러 시 짓는다
 산화(山花)는 붉은 비단이오 세류(細柳)는 푸른 실이로다
 춘가에 농부들은 신춘(新春)을 만났다고
 농구(農具)를 둘러메고 처처(處處)에 왕래하며
 백마금편 소년들은 화류춘풍 흥을 겨워
 쌍을 지어 노닐 적에 산화 작작(灼灼) 난만개라
 슬프도다 세월이여
 애오생지가련(哀吾生之可憐)하니 탄광음지여류(嘆光陰之如流)로다*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답청절*을 모르시나

[C]

그달을 허송하고 사월이라 초파일에
 남풍지훈혜(南風之薰兮)하고 해오민지온혜(解悟民之溫兮)로다*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 앉아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 물에 하도(河圖) 낙서(洛書)* 나왔단 말인가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를 오늘날에 보리로다
 요지일월 순지건곤* 태평성대 이 아닌가
 만사(萬事) 인간 젊은 날에 소년행락 얼마하리
 타기황앵 아이들은 막교지상 우지 마라*
 황금갑옷 떨쳐입고 실버들 속 들어갈 때
 우레같이 소리 질러 겨우 든 잠 깨어 보니
 장안 많은 집 등을 달아 산호만세* 하는구나
 슬프도다 우리 부모 관등절*을 모르시나
 그달을 허송하고 오월이라 단오일에
 해는 늦어 창밖에 있으니 여름 구름은 기봉(奇峯)에 많구나
 산양 자규* 우는구나
 광풍제월* 넓은 곳에 술개 날고 물고기 뛰노는구나
 백구야 날지 마라 너 잡을 내 아니라
 일신이 한가하기로 너와 놀자 찾았노라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 아니 넉넉한가
 일촌간장 맷힌 설움 부모 생각뿐이로다
 옥창(玉窓) 앵두 붉었으니 원정부지이별(怨征夫之離別)*이오
 몽중(夢中) 매화 피었으니 음풍진어영옥(吟風塵於榮辱)*이오
 남린 복사* 보리타작 방방곡곡 농부가로다
 송백양류 긴긴 나무에 높다랗게 그네 매고
 녹의홍상 미인들은 오락가락하는구나
 슬프도다 우리 부모 단오절을 모르시나

[D]

[E]

- 작자 미상, 「사친가」

* 신체발부 사대절: 신체발부는 몸과 머리털과 피부라는 뜻으로 몸 전체를 이르고, 사대절은 '사지' 즉 두 팔과 두 다리를 말함.

* 수육정이 ~ 친부재라: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나 부모께서는 이미 돌아가셨도다.'라는 뜻.

* 천추절: 임금의 탄신일을 경축하던 국경일.

* 개지추: 중국 춘추 시대 진나라의 충신. 한식을 두고 개지추가 죽은 날이라 이름.

* 당우삼대 ~ 하셨도다: 요순과 하·은·주 삼대 훌륭한 임금들도 흰 구름 타고 오르셨도다.

* 일과처: 한 번 지나간 곳.

* 무서산지 퇴일하니: 서산으로 해가 넘어감을 쓸쓸히 여기니.

* 이영백의 사정: 이영백의 사사로운 정. 이영백은 중국 진(晉)나라 사람으로 지극한 효성으로 이름이 높았음.

* 적인결: 중국 당나라의 명신. 뛰어난 행정력과 공명정대함으로 나라의 기틀을 유지함.

- *애오생지 ~ 여류로다: '내 인생이 가련함을 슬퍼하고, 세월이 흐르는 물과 같음을 탄식한다.'라는 뜻임.
- *답청절: 삼진날의 별칭. 들에 나가 파랗게 난 풀을 밟는 풍습이 있음.
- *남풍지 ~ 온혜로다: '남풍이 따스하고 향기로워 우리 백성들의 노여움을 풀어 주도다.'라는 뜻. 순임금이 노래한 남풍시를 묘사한 말임.
- *하도 낙서: 하도는 황하에서 용마가 지고 나왔다는 신다섯 점의 그림을, 낙서는 낙수에서 신귀의 등에 있었다고 하는 마흔다섯 점의 글씨를 이름.
- *경성가: 경사(慶事)의 노래. 경성은 태평성대에 나타난다는 길성(吉星)을 뜻함.
- *요지일월 순지간곤: 요임금이 다스리던 때의 해와 달이요, 순임금이 다스리던 때의 하늘과 땅. 태평성대를 이룸.
- *타기황앵 ~ 우지 마라: 차용된 한시 원문은 '피꼬리를 쫓아 버리세요 / 가지 위에서 울지 못하게 하세요'라는 뜻임.
- *산호만세: 임금이 산과 같이 장수하기를 바라며 부르는 만세.
- *관등절: 석가모니 탄생일인 음력 4월 초파일. 지붕 위 간두에 식구 수대로 초롱을 달고 관등놀이를 하며 관등연을 베풀.
- *산양 자규: 산 양지 녀의 소쩍새.
- *광풍제월: 맑은 날씨에 부는 바람과 활짝 갠 날 밤에 뜨는 달.
- *원정부지이별: 싸움터에 나가는 지아비와의 이별을 원망함.
- *음풍진어영옥: 영광과 욕됨을 노래함. *남린 복사: 남북의 이웃집들.

[26001-0047]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월’, ‘이월’, ‘삼월’ 등과 같은 시간 표지를 활용하여 내용을 구분하고 있다.
- ② ‘소년’, ‘후인’, ‘아이’ 등을 청자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가르치고 있다.
- ③ ‘대보름’, ‘한식일’, ‘답청절’ 등과 같은 절기나 명절과 관련지어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 ④ ‘슬프(도)다 우리 부모 ~ 모르시나’와 같은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그달을 허송하니(고)’, ‘그달 그름 다 지나고’와 같은 문장을 사용해 시간의 경과를 표현하고 있다.

[26001-0048]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을 의미하며, 자식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효를 실천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은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빗댄 것으로, 자식으로서 응당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은 현실 세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으로,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자식에게 어려운 일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의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함축하고 있다.
- ⑤ ㉤은 부모님을 그리워하고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야 하는 순간들을 의미하며, 자식으로서 항상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26001-0049]

03

[C]와 [D]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C]가 삼월 삼짇날에 사람들이 하는 놀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D]는 사월 초파일에 도성에서 벌어지는 국가 행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② [C]가 농사일이 바빠 봄이 온 것을 잊고 살아가는 아쉬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D]는 상서로운 징조가 나타난 것에 대한 기대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③ [C]가 새봄을 맞은 자연의 변화와 사람들의 흥겨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D]는 태평성대를 이룬 임금과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④ [C]가 답청절을 맞아 자연을 즐기러 뿔뿔이 흩어지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D]는 관등절을 맞아 함께 모여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에 맞추고 있다.
- ⑤ [C]가 삼월을 맞은 제비 새끼와 호랑나비의 분주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D]는 사월을 맞은 아이들이 정성가를 부르며 즐겁게 놀러 다니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26001-0050]

04

<보기>를 참고하여 [A]~[E]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사친가」의 ‘사친(思親)’은 ‘아버이를 그리워하며 생각한다’라는 의미이다. 「사친가」는 ‘항상 부모를 떠올리고 정성스럽게 섬기며 효를 실천하라’라는 핵심 주제를 작품 전체에 드러내면서도, 계절의 변화에 따른 자연의 모습, 명절의 놀이나 절기 행사, 당시 사람들의 풍속이나 농촌의 생활상 등을 제시하고 있다. ‘효’라는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일 년을 지내며 만나게 되는 다양한 상황과 분위기에 대한 화자의 감상을 자유롭게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 ① [A]와 [E]에서 화자는 ‘부모 봉양 생각하라’나 ‘부모 생각뿐이로다’와 같이 효를 실천하는 태도를 언급하여, ‘사친’이라는 핵심 주제를 드러내고 있군.
- ② [B]와 [D]에서 화자는 ‘개자추’, ‘이영백’, ‘적인걸’, ‘요’, ‘순’ 등 중국 고사 속 인물들을 언급하여, 충효나 태평성대와 같이 당대인들이 중시했던 가치를 표현하고 있군.
- ③ [C]와 [E]에서 화자는 ‘춘가에 농부들은 ~ 농구를 돌려메고’, ‘남린 복사 보리타작 ~ 농부가로다’와 같이 당시 농촌의 생활상을 언급하여, 각 계절이나 시기에 맞추어 살아가는 농민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④ [B]와 [D]에서 화자는 ‘원산에 봄이 드니 ~ 한식을 지냈도다’, ‘만사 인간 ~ 우지 마라’와 같이 적당한 때를 놓쳐 버린 상황을 언급하여, 마음의 여유가 없어 짧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군.
- ⑤ [A]와 [E]에서 화자는 ‘정월이라 십오 일에 ~ 흥풍도 보려니와’, ‘송백양류 긴긴 나무에 ~ 오락가락하는구나’와 같이 풍속이나 놀이를 언급하며,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지내시는 부모님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삼 년을 임을 떠나 해도(海島)에 유배되니
 내 언제 무심하여 임에게 득죄했나
 임이 언제 박정(薄情)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못 여자로다
 유한(幽閑)한 이내 몸을 선음(善淫)한다 이르로세*

(중략)

① 추운 겨울 깊어지고 육지는 못 통(通)하니
 양식도 핍절(乏絶)커늘 반찬이야 의논하며
 염장*을 못 먹거든 어육(魚肉)이야 바랄쏘냐
 섬 안 수십 리에 일년초가 희한하다
 조석(朝夕) 밥도 못 익힐 제 방이 답기 생각할까
 설날 큰 명절에 솟국*에 떡을 쑤어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올랐으니
 어와 이 몰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
 춘풍 도리화(春風桃李花)야 못 본다고 상관하랴
 가을이 다하도록 국화를 못 보거든
 낙모가절(落帽佳節)*에 쫓겨난 신하를 누가 우시며
 굴원이 여기 온들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꼬*
 여름 석 달 다 지내고 괴로움 실컷 겪으니
 찌는 더위도 그지없고 습한 기운도 더욱 심하다
 파리 떼와 모기떼는 백 가지로 쏘아 제치고
 뱀과 전갈, 지네는 네 벽에 마구 기어다니니
 어떤 일도 흥겨운 모양 없고 백악(百惡)만 구비(具備)하다
 사람 상하게 하고 물건에 해 끼칠 것 세상에 많기도 많구나
 밤중에 잠이 없어 이불 두르고 일어나 앉아
 신세를 한탄하고 평생을 생각하니
 외로운 이내 몸이 자손도 없는 게요
 습한 바다에서 병이 든들 구호할 이 뉘 있으며
 반계(盤溪)에 있는 내 집 비어 있는들 누가 지킬꼬
 하사받은 천 권의 책 고각(高閣)에 묵혀 있으니
 좀벌레 다 먹은들 그 누구라서 포쇄*하며
 ㉠ 뜰 안에 가득한 꽃을 베어 버린들 누가 금할꼬
 천하에 죄 없는 이 나밖에 또 있을까

[A]

주 문왕이 기산 다스릴 제 어진 정치를 베푸시면
 가련한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러니
 천지간 홀로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시운(時運)이 불행하여 천 리에 떠나시니
 ㉮ 내 신세 외로운 줄 임이 모르실까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로되
 근본을 생각하면 임 위한 정성일세
 ㉞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곱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結草)하기 생각하나
 광주리의 ㉡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맑은 새벽 혼자 누워 백두음(白頭吟)*을 슬피 읊고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長門賦)*를 어이 사리
 마름과 연(蓮)으로 ㉢ 옷을 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 지어
 상자 안에 두어신들 늘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碧海)를 밟아 건너
 옥루(玉樓)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셔
 일당우불(一堂吁拂)에 수답(酬答)이 여향(如響)하니*
 앞에서 귀신을 묻던 가태부(賈太傅) 이러한가*
 어촌의 먼 닭 소리에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임 옥음(玉音)은 귓가에 완연(宛然)하고
 우리 임 어로향(御爐香)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㉟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선음한다 이르로세: 음란한 짓을 잘한다고 이르는구나. 굴원의 「이소」에서 비롯한 표현으로 소인배가 군자를 모함함을 뜻함.

* 염장: 소금으로 간을 한 음식.

* 솟국: 고기를 넣지 않고 끓인 국.

* 낙모가절: 중국 진나라 때 인물인 맹가가 중앙절(음력 9월 9일에 국화주에 취해 모자가 떨어진 것도 몰랐는데 함께 있던 사람이 이를 조롱하는 글을 써 보이니 그 글에 화답하는 멋진 글을 지었다는 고사에서 유래한 표현.

* 굴원이 ~ 먹을꼬: 굴원의 「초사」에 '저녁에는 가을 국화 떨어진 꽃잎 주워서 먹네'라는 구절에서 비롯한 표현.

* 포쇄: 젓거나 축축한 것을 바람에 쏘고 별에 바람.

* 백두음: 중국 한 무제 때 문인인 사마상여가 첩을 들이려 하자 그의 아내 탁문군이 원망의 마음을 담아 써 보낸 시로, 이 시를 읽은 사마상여는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첩을 들이지 않았다고 함.

* 장문부: 중국 한 무제의 비인 진 황후가 사마상여에게 황금을 주고 이 글을 짓게 해 황제의 총애를 회복했다고 함.

* 일당우불에 ~ 여향하니: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임.

* 앞에서 ~ 이러한가: 모함을 받아 변방에 좌천되었던 가태부를 효문제가 불러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 귀신에 대해 논했던 일을 말함.

[26001-0051]

01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부정적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 ②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참담한 생활상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장소의 이동을 제시하여 그에 따른 경관의 다양한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 ④ 유사한 상황을 나열하여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지난날의 과오에 대한 반성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052]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과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
- ② ㉡: 자신이 본래 살던 집의 현재 상황을 짐작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 ③ ㉢: 자신에게 무심한 임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고 있다.
- ④ ㉣: 입을 향한 자신의 진심을 임이 헤아려 줄 것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입을 다시 모시고 싶은 자신의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26001-0053]

0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입을 원망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다.
- ② ㉠과 ㉡는 모두 입과 재회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화자의 체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③ ㉠은 입과 헤어진 처지에 놓인 화자 자신을, ㉡는 입을 향한 화자의 애정을 나타낸다.
- ④ ㉠은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는 결핍의 상황에서 비롯된 화자의 슬픔을 드러낸다.
- ⑤ ㉠은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긍정적 상황을, ㉡는 화자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려는 노력을 나타낸다.

[26001-0054]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인 「속사미인곡」은 작가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드러내고, 유배의 이유를 헤아리면서 지난 일에 대해 반성하거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전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하고 있다. 임, 즉 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점도 유배 가사의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유배지에서 경험한 고난과 시련이 자세히 서술되는 점, 연군의 감정이 임금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임금에 대한 믿음, 더 나아가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임을 밝히려는 작가의 적극적 태도로까지 확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속사미인곡」은 전대와 달라진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평가된다.

- ① 설날 밥상을 ‘숫국에 떡’,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으로 묘사하며 ‘이 물골은 태어나 처음 보네’라고 한 것은, 유배지의 시련을 자세히 서술한 것으로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어진 정치’가 펼쳐지게 되면 ‘이내 몸이 반드시 먼저 들’ 것이라고 한 것은, 작가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인물임을 적극적으로 밝히고자 한 말로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③ ‘망령되도 내 죄’이나 ‘근본을 생각하면 임 위한 정성’이라고 한 것은,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되 그 동기를 밝혀 지난 일을 해명하고자 한 말로 전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셨기에 ‘옥음은 깃가에 완연하’다고 한 것은, 임금을 모시던 옛일을 기억하면서 임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말로 전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라고 한 것은, 자신을 유배의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믿음을 드러낸 말로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특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장산꽃 마루에 북소리 나더니
금일도 상봉에 임 만나 보겠네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임 만나 보겠네

갈 길은 멀고요 행선은 더디니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

바람새* 좋다고 돛 달지 말고요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소레*

(중략)

㉠바다에 흰 돛은 쌍쌍이 조으나
외로운 사랑엔 눈물만 겨워라
에헤요 에헤요 에헤야 눈물만 겨워라

몽금포 백사장 해당화 불고요
푸른 솔가지엔 두루미 앉았네

장산꽃 마루에 새 소식 들리니
원포귀범에 정든 임 오셨네

무정한 우리 임 말없이 가더니
봉죽을 받고서* 돌아를 오셨네

㉡임 실러 갈 적엔 반돛을 달고요
임 신고 올 적엔 온 돛을 단다네

거친 물결에 출렁이면서
북소리 울리며 떠들어 온다네

가는 임 아속타 속태우지 말고요
갔다가 올 때가 더 반갑답니다

— 작자 미상, 「몽금포 타령」

*바람새: 바람이 부는 형세.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소레: 몽금포, 개암포 들렀다 가세요.

*봉죽을 받고서: 고기를 가득 잡아 만선이 된 것을 황해도에서는 '봉죽을 받았다'라고 표현함. '봉죽'은 배에 다는 대나무 깃대를 뜻함.

나 처음에 못 생각하여 시서를 일삼도다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라도다
 물외의 풍월강산이 내 분인가 하노라

〈제2수〉

이런들 뉘 옳다 하며 저러한들 뉘 외다 하료
 ㉠ 옳거나 외거나 나도 내 일 모르노라
 세상이 시비를 마라 어부 무삼 그르리

〈제3수〉

㉡ 경륜을 내 알디냐 제세할 이 없을러냐
 태평시세는 얼마나 멀었는고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 뵈 데 없어라

〈제4수〉

창산은 높고 높고 유수는 길고 길고
 ㉢ 산고수장(山高水長)하니 그 아니 좋을쏘냐
 산수 간 일한인(一閑人)되어 허물 없이 사노라

〈제6수〉

- 이종경, 「어부별곡」

01

[26001-0055]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포구를 배경으로 한 「몽금포 타령」에는 포구의 공간적 특징이 감각적으로 나타나 있으며, 떠났던 배가 포구로 돌아올 때의 활기찬 분위기가 드러나 있다. 이때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어귀로, 별도의 제한된 구역이 아니라 바다를 통해 다른 곳과 연결되어 있는 출입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작품에는 배가 떠날 때 포구를 거친다는 점에서 포구가 이별의 정서가 드러나는 공간이자 재회를 소망하는 공간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 ①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난다는 것을 통해 활력 있는 공간으로서 포구의 특징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바람새 좋다고 돛 달지 말’라는 것을 통해 포구가 이별로 인한 원망이 표출되는 장소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 가’라는 것을 통해 제한되지 않은 공간으로서 포구의 특징이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몽금포 백사장’과 ‘솔가지’의 모습을 통해 포구의 풍경이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장산곶 마루에 새 소식 들’렸다는 것을 통해 포구가 떠난 이와 재회와 관련된 공간으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26001-0056]

0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뜻이 있는 모습을 자신의 상황과 동일하다고 여기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② ㉡: 입을 태우러 가는 배와 입을 태우고 오는 배에 차이가 있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다.
- ③ ㉢: 세상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정해 주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 자신이 앞으로 수행해야 하는 임무에 대한 의무감이 드러나 있다.
- ⑤ ㉤: 자연물의 속성을 인간의 삶과 대비하여 교훈을 주고자 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26001-0057]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생계를 위해 고기를 잡는 어부를 진어옹 또는 실어옹이라고 하고 강호 생활을 영위하는 어부를 가어옹이라고 하는데, (가)에는 생업을 위해 바다로 나가는 어부의 모습이 드러나며, (나)에는 소일 거리로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가)는 몽금포를 배경으로 한 황해도 민요로, 실제 어부들의 생활과 어항의 정경이 일상의 언어로 묘사되어 있다. 작품에는 배가 출항하고 어부가 고기를 잡아 돌아오는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 어촌 사람들이 겪는 삶의 고민과 배의 순조로운 운항을 기원하는 마음이 진솔하게 담겨 있다. (나)는 사대부가 쓴 시조로, 자연과 벗하며 강호 생활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는 작가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작가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불의를 겪은 자신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면서도, 자신을 어부의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자연에서의 생활을 통해 고뇌를 극복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① (가)에서 ‘행선’이 더디니 ‘성황님 조른다’는 것에는 배 운항이 원활하도록 적절한 날씨를 기원하는 상황이 드러나 있군.
- ② (나)에서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 뵈 데 없’다는 것에는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회적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드러나 있군.
- ③ (나)에서 ‘산수 간 일한인되어 허물 없이’ 산다는 것에는 자연 속에서 살아가며 참된 즐거움을 얻고 있는 작가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④ (가)에서 ‘봉죽을 받고서 돌아’왔다는 것에는 만전을 이루고 돌아오는 진어옹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 (나)에서 ‘세상이 시비를 마라 어부 무삼 그르리’라는 것에는 속세를 떠나 살아가는 가어옹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⑤ (가)에서 ‘가는 임 야속타 속’태운다는 것에는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임으로 인한 걱정이 드러나 있고, (나)에서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란다는 것에는 자연에 머물면서도 속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데 따른 고뇌가 드러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화란 춘성(花爛春城)하고 만화방창(萬化方暢)이라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
 죽장망혜(竹杖芒鞋) 단표자(單瓢子)로 천리 강산 들어가니
 만산 홍록(滿山紅綠)들은 일년일도(一年一度) 다시 피어
 춘색(春色)을 자랑노라 색색이 붉었는데
 창송취죽(蒼松翠竹)은 창창울울(蒼蒼鬱鬱)한데 기화요초(琪花瑤草) 난만(爛漫) 중에
 꽃 속에 잠든 나비 자취 없이 날아든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점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가절(三春佳節)이 좋을시고 **도화** 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 애산춘(漁舟逐水愛山春)*이라더니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한데 황산곡리 당춘절(黃山谷裏當春節)*에
 연명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 지어
 거지 중천 높이 떠서 두 날개 활짝 펴고
 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 천리 강산 머나먼 길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은 첩첩 태산은 주춤 기암은 층층 장송은 낙산
 에이 구부러져 광풍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절벽상에 폭포수는 팔팔 수정렴(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르륵 저 골 물이 살살
 열의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저
 넉출지고 방울저 저 건너 병풍석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흘러지니
 소부(巢父) 허유(許由)* 문답하던 기산(箕山) 영수(潁水)가 예 아니냐

- 작자 미상, 「유산가」

* 어주축수 애산춘: 당나라 시인 왕유가 지은 「도원행」의 한 구절로, '고깃배가 물결 따라 오르내리며 산에 물든 봄빛을 사랑하네.'라는 뜻임.

* 양류세지 사사록한데 황산곡리 당춘절: 버드나무 가는 가지가 실처럼 늘어져 푸르는데 황산곡 속에 봄철을 만남.

* 연명오류: 무릉도원에 대한 이야기인 「도화원기(桃花源記)」를 쓴 진(晉)나라의 문인 도연명이 집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를 심은 것을 가리킴.

* 소부 허유: 고대 중국 요임금 때 기산 영수에서 은거하던 이들의 이름. 허유는 요임금이 천하를 주겠다고 하자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며 강물에 귀를 씻었고, 소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귀 씻은 물을 소에게 먹일 수 없다고 하였음.

나 붉은 난간에 기대앉아 원근을 바라보니
 옥계산 밝은 달은 은촉이 되어 있고
 석봉의 가는 구름 취장이 되었구나
 사탄*의 노랫소리 고기 낚는 늙은이오
 화평에 피리 소리 소 먹이는 아이로다
 지담*에 뗏는 배는 일엽(一葉)이 가볍고
 물결에 비친 다리 반공(半空)에 무지개로다
 백암*에 섰는 단풍 금병(金屏)을 둘러 있고
 취벽의 늙은 술은 사시에 푸르렀다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萬壑)이 한 빛일 때
 청려장 손에 들고 돌길로 돌아가니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둔덕 위의 버들가지 냇가에 푸르렀다
 일홍을 못 이기어 낙대를 비껴들고
 이끼 낀 돌에 앉아 벽담을 굽어보니
 은린옥척은 경면(鏡面)에 뛰노는고
 낙싯줄에 오른 고기 난간 위에 올려 두고
 비늘을 굽어내어 넓은 돌에 회 쳐 놓고
 연잎에 빗은 술을 아이에게 지게 하여
 표주박에 가득 부어 반취하여 누웠으니
 공명을 다 잊으니 부귀인들 부러우라
 홍진의 벗님네야 이 생애 웃지 마오
 일신이 한가하여 고요하게 거니니
 화평한 풍미를 누가 아니 부러워하리
 삼척오동 거문고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유수 고산을 줄줄이 희롱하며
 맑은 노래 불러내어 묘한 곡조를 화답하니
 공중에 뗏는 소리 신선이 노니는 듯
 삼신산 어디인가 무릉도원 여기로다
 살구꽃과 복숭아꽃은 양 기슭에 피어 있고
 낙하*와 외로운 따오기는 조모(朝暮)에 제비하다*
 소쇄*한 정자 속의 매학으로 벼를 삼아
 연하(煙霞)의 병이 들어 백 년을 지내오니
 있으나 없으나 세사(世事)도 나 몰라라

- 신교, 「백석정별곡」

* 사탄: 모래사장가의 여울, 또는 모래가 깔린 여울.
 * 백암: 흰 바위.
 * 제비하다: 나란히 날다.

* 지담: 향기로운 풀이 피어 있는 맑은 연못.
 * 낙하: 낮게 드리운 저녁노을.
 * 소재: 맑고 시원한 모양.

[26001-0058]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상승과 하강의 이미지를 교차하여 화자의 정서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모두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며 자연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종결 표현을 통해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를 통해 자연 경물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26001-0059]

02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노랫소리’와 ‘피리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머무는 곳의 평화로움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 ② 물결에 비치는 ‘무지개’를 다리에 빗대고 흰 바위 위의 ‘단풍’을 금칠을 한 병풍에 빗대어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③ ‘석양이 고개에 걸’리는 시간과 ‘돌길’, ‘둔덕 위’의 공간에서 조화롭게 펼쳐지는 자연의 모습을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다.
- ④ ‘닭싯줄에 오른 고기’와 ‘연잎에 빛은 술’이라는 소재를 활용하여 자연 풍류를 즐기는 여유 있는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연하의 병’과 ‘세사’의 대비를 통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가치를 두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26001-0060]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산수(山水)’는 산과 물로 대유되는 자연을 가리키며, 산수 시가는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작품을 포괄한다. (가)와 (나) 모두 산수를 이상적 공간으로 제시하지만, 그 의미와 기능은 다르게 나타난다. (가)는 조선 후기 도시의 유흥 공간에서 가창된 잡가로, 현실 속에서 동경과 쾌락의 대상으로서의 자연을 추구한다. 반면 (나)는 ‘백석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자연에 묻혀 사는 한가로운 삶을 노래한 은일 가사로, 자연 속에서 거주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낸다.

- ① (가)는 ‘죽장망혜 단표자’의 차림으로 산천의 경치를 즐기며 ‘소부 허유’의 삶의 태도를 따르는 모습을 통해 자연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는군.
- ② (가)는 폭포수를 ‘수정령’에, 흐르는 물결을 ‘은옥’에 비유하여 ‘물’로 대유되는 자연 경물을 이상적인 공간으로 제시하는군.
- ③ (나)는 자연 속에서 ‘화평한 풍미’를 즐기며 ‘거문고’를 타는 삶을 ‘무릉도원’에 빗대어,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는군.
- ④ (가)의 화자는 ‘벗님네’를 부르며 ‘천리 강산’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구경할 것을 제안하고, (나)의 화자는 ‘벗님네’를 부르며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소쇄한 정자’에서 보내는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군.
- ⑤ (가)는 ‘도화’가 만발한 모습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여 화려한 산천의 경치를 즐기고자 하는 화자의 태도를, (나)는 ‘매화’인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를 추구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성공과 실패는 천운에 달려 있으니
 모름지기 의로 돌아가야 한다
 아침과 저녁을 바꿀 수 있을망정
 ㉠윗옷과 아래옷을 거꾸로야 입을쏘냐
 권*은 혹 어진 이도 그르칠 수 있으나
 경*만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
 이치에 밝은 선비에게 말하노니
 급한 때라도 저울질을 삼가라

成敗關天運
 須看義與歸
 雖然反夙暮
 未可倒裳衣
 權或賢猶誤
 經應衆莫違
 寄言明理士
 造次愼衡機

— 김상헌, 「성패관천운」

* 권(權): 권도(權道). 상황이나 경우에 맞게 행동의 기준을 변동할 수 있다는 입장. '권'은 저울이란 뜻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는 목적 달성을 위해 쓴 방편 등을 의미함.

* 경(經): 경도(經道). 도의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할 수 없다는 입장. 여기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 또는 기준 등을 의미함.

나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진실로 원만한 귀결을 지을 수 있다
 ㉡끓는 물도 얼음장도 다 같은 물이요
 ㉢털옷도 삼베옷도 옷 아닌 것 없느니
 일이 어찌다가 때를 따라 다를망정
 속맘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
 그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
 말함도 침묵함도 각기 천기*로세

靜處觀群動
 眞成爛熳歸
 湯氷俱是水
 裘葛莫非衣
 事或隨時別
 心寧與道違
 君能悟斯理
 語默各天機

— 최명길, 「정처관군동」

* 천기(天機): 하늘의 이치. 하늘이 내려 준 성질.

[26001-0061]

01

(가)의 화자와 (나)의 화자의 설득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화자는 상대를 ‘이치에 밝은 선비’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를 추켜올리면서 그의 높은 수준을 인정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② (가)의 화자는 ‘급한 때라도 저울질을 삼가라’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의 급한 심정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자신의 조언도 상대를 위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 ③ (나)의 화자는 서로의 일이 ‘다를망정’ 둘 다 ‘정도와 어긋나’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의 주장 중에 긍정적인 부분을 자신 또한 인정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 ④ (나)의 화자는 ‘그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과 같이 조건을 달며 자신의 주장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상황에서는 상대의 논리가 적절하지 않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⑤ (나)의 화자는 ‘말함도 침묵함도 각기 천기’라고 단정하고 있는데, 이는 한쪽의 주장이 맞고 틀린 것이 아니라 양쪽의 주장 모두 타당한 것일 수 있음을 열어 놓기 위한 것이다.

[26001-0062]

02

(가)의 ㉠, (나)의 ㉡, ㉢을 통해 강조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
①	서로 바꾸어 쓰는 것이 불가능한 것들	서로 달라 보여도 본질은 같은 것들
②	서로 바꾸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들	서로 바꾸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들
③	서로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수 없는 것들
④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준이나 원칙들	언제든 바꿀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들
⑤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하위 개념들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 없는 하위 개념들

[26001-0063]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명분과 대의를 강조하던 김상헌은 오랑캐(청)에게 결코 굴복할 수 없다며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것을 주장했다. 반면 명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던 최명길은 청나라와 화친할 것을 강변했는데, 이로 인해 대의를 앞세운 신하들에게 모욕을 당하기도 했다. 남한산성에 쫓겨 갔을 때, 최명길은 왕명을 받아 강화 문서를 쓰고 있었다. 이를 본 김상헌은 국서를 찢으며 최명길을 비난했다. 이때 최명길은 문서를 주워 모으며 “조정에는 이 문서를 찢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나 같은 자도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했다고 전한다. (가)와 (나)는,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심양의 옥에 볼모로 끌려간 두 사람이 경(經)과 권(權)에 대한 생각을 담아 주고받은 한시이다.

- ① (가)의 ‘성공과 실패는 천운’이라는 구절을 보면,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패배하더라도 명분과 대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나타나 있군.
- ② (가)의 ‘경만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라는 말에는, 청나라에 항복하고 오랑캐에게 복종하는 것을 절대 받아들이 수 없다는 태도가 담겨 있군.
- ③ (가)의 ‘급한 때라도 저울질을 삼가라’라는 표현에는, 남한산성에 쫓겨 갔다고 해서 강화 문서를 쓰며 화친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있군.
- ④ (나)의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구절에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 전체 시국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 담겨 있군.
- ⑤ (나)의 ‘속마미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라는 표현에는, 대의를 앞세운 신하들에게 모욕을 당한 것 또한 시국에 대한 판단 자체가 달라서 일어난 일이라는 화자의 인식이 나타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입술을 다문 하늘아 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앓구나
① 네가 끝었느냐 누가 부르더냐 답답위라 말을 해 다오.

바람은 내 귀에 속삭이며
한 자옥도 섰지 마라 옷자락을 흔들고
종다리는 울타리 너머 아씨같이 구름 뒤에서 반갑다 웃네.

고맙게 잘 자란 보리밭아
간밤 자정이 넘어 내리던 고운 비로
② 너는 삼단 같은 머리를 감았구나 내 머리조차 가뿐하다.

혼자라도 가쁘게나 가자
마른 눈을 안고 도는 착한 도랑이
③ 젖먹이 달래는 노래를 하고 제 혼자 어깨춤만 추고 가네.

나비 제비야 꺾치지 마라
맨드라미 들마꽃에도 인사를 해야지
아주까리기름을 바른 이가 지심매던 그 들이라 다 보고 싶다.

내 손에 호미를 쥐어 다오
살찐 젖가슴과 같은 부드러운 이 흙을
밭목이 시도록 밟아도 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달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 판잣집 유리막지에
아이들 얼굴이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걸려 있다.

내려쪼이던 햇발이 눈부시어 돌아선다.
㉡나도 돌아선다.
울상이 된 그림자 나의 뒤를 따른다.

어느 접어든 골목에서 걸음을 멈춘다.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에
개나리가 망울졌다.

저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미소엔 앞니가 빠져
죄 하나도 없다.

나는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
그림자 웃으며 앞장을 선다.

— 구상, 「초토의 시 1」

[26001-0064]

0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화자가 느끼는 답답함을 드러내기 위해 ‘하늘’과 ‘들’을 향한 의문문을 연달아 제시한 것이다.
- ② ㉡은 ‘보리밭’의 청신한 모습을 시각화하기 위해 의인법을 구사한 것이다.
- ③ ㉢은 ‘도랑’을 모성적(母性的) 존재로 형상화하기 위해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것이다.
- ④ ㉠은 공간의 누추함과 대비되는 ‘아이들 얼굴’의 생동감을 강조하기 위해 직유법을 사용한 것이다.
- ⑤ ㉡은 돌아서는 ‘햇발’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달관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 현재형 어미를 사용한 것이다.

[26001-0065]

02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를, ㉡은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는 존재를 지시한다.
- ② ㉠은 철없는 행동에 빠져 있는 화자 자신을, ㉡은 순진무구한 모습을 한 관찰 대상을 가리킨다.
- ③ ㉠은 화자가 자조의 대상으로 삼는 자기 자신을, ㉡은 화자가 동경하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의미한다.
- ④ ㉠와 ㉡은 모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으로서 작품의 지배적 정서를 제시한다.
- ⑤ ㉠와 ㉡은 모두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한다.

[26001-0066]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우리 민족 공동체가 겪은 근현대사의 크고 작은 고통은, 여러 시인의 현실 인식이 반영된 시 작품들에 그 흔적을 남겼다. (가)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시로, 봄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을 경탄하면서도 국권 상실로 인해 상징적 의미로서의 봄이 올 것이라고는 확신하기 어려웠던 당대 현실에 대한 시인의 인식이 담겨 있다. 한편, (나)의 시인은 6·25 전쟁 직후의 우리 국토를 불에 타 버린 땅, 즉 초토(焦土)로 인식하면서도 곳곳에 잠재된 생명력에 대한 감지를 바탕으로 현실 극복의 의지와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한 자욱도 섰지 마라’와 ‘깎치지 마라’는 우리 민족 공동체가 상실된 국권을 되찾아 상징적 의미로서의 봄을 속히 맞이하기 위해 어겨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시구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져 ‘다리를 절며’ 걷는다는 것은, 봄날 우리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일제 강점으로 인한 암담한 현실 인식이 공존함으로써 빚어진 부조화를 환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가)의 1연에서 던진 질문에 대한 대답에 해당하는 마지막 연의 내용에는, ‘들을 빼앗긴 국권 상실로 인해 상징적 의미로서의 ‘봄조차 빼앗기겠’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울상이 된’ 채 ‘뒤를 따르다’고 했던 그림자가 ‘웃으며 앞장을 선다’고 한 것은, 우리 국토가 초토나 다름없이 된 상황에서도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감지한 것과 관련된 변화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나)의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는 6·25 전쟁의 포화로 불에 타 버린 우리 국토의 모습에 해당하지만, 거기서 피어나려고 망울진 ‘개나리’를 언급한 것은 극복의 의지와 관련된 생명력에 주목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이곳 첫여름이 그림지 아니한가?

어린 나그네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려니,
 나무 밑으로 가나 책상 턱에 이마를 고일 때나,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

모처럼 만에 날아온 소식에 반가운 마음이 울렁거리어
 가여운 글자마다 먼 황해가 남실거리나니.

……나는 갈매기 같은 종선*을 한창 치달리고 있다……

쾌활한 오월 벡타이가 내쳐 난데없는 순풍이 되어,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우에 솟은,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

일본 말과 아라비아 글씨를 가르치려 간
 찌그만 이 페스탈로치야, 피꼬리 같은 선생님이야,
 날마다 밤마다 섬 돌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가 하노니,
 은은히 밀려오는 듯 머물리 우는 ㉠오르간 소리……

- 정지용, 「오월 소식」

*종선: 큰 배에 딸린 작은 배.

나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 있다
내 호올로 어텔 가라는 슬픈 신호냐

긴— 여름 해 황망히 나래를 접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젖어
 찬란한 야경 무성한 잡초인 양 형클어진 채
 사념 병어리 되어 입을 다물다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낮설은 거리의 ㉡아우성 소리
 까닭도 없이 눈물겹고나

$$\frac{\sin \theta}{\cos \theta}$$

$$\log 11 - \log 10 = 0.1$$

$$\log 11 - 1 = 0$$

$$\log 11 = 0 + 1$$

$$2 \log 11 + \log 10$$

$$2 \times 0.1 + 1$$

공허한 군중의 행렬에 섞이어
 내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길—게 늘인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내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기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 있다

— 김광균, 「와사등*」

*와사등: 석탄 가스를 도관에 흐르게 하여 불을 켜는 등.

[26001-0067]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변화하는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26001-0068]

02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소리이다.
- ② ㉡은 화자에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이다.
- ③ ㉠은 ㉡와 달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소리이다.
- ④ ㉡은 ㉠와 달리, 화자가 맞닥뜨린 현실을 견딜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소리이다.
- ⑤ ㉠와 ㉡은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소리이다.

[26001-0069]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20~30년대 모더니즘 시는 감각에 대한 지향성을 강조했다. 점에서, 미학적 언어로 낭만적 경향을 표현하거나 사상성을 앞세운 이전의 시와 구별되었다. 대표적인 시인은 정지용과 김광균으로, 이들은 인간의 감각 기관을 통해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감각적 이미지, 참신한 비유,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감정이나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자신들의 개성을 드러냈다. (가)는 강화도에 교원으로 발령 난 ‘너’를 생각하며 느끼는 감정을 이미지나 이국적 시어로 표현함으로써 정지용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근대 도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시각·촉각 등의 감각을 통해 삭막한 도시에서 현대인이 느끼는 감정을 구체화함으로써 김광균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순풍이 되어’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간다는 것은 상상 속 이미지와 이국적 시어를 통해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은 화자의 정서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늘어선 고층’, ‘신호기’는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로, 도시의 삶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고적한 정서를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가)에서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과 (나)에서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길—게 늘인 그림자’는 감각적 이미지를 강조한 점에서 이전의 시와 구별되는 시인의 개성이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꿈이’ ‘파랑새가 되어 오’거나 ‘섬 둘레가’ ‘풍랑에 씹히는’ 것과 (나)에서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는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표현함으로써 모더니즘적 경향을 구현하고자 한 것이군.
- ⑤ (가)에서 ‘페스타로치’와 ‘피꼬리 같은 선생님’은 강화도에 교원으로 발령 난 이에 대한 정다움과 애정을, (나)에서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는 삭막한 근대 도시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것이군.

[01 ~ 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휘날려 ㉠발아래 깔리는
서른 남은 해야.

구름같이 피려던 뜻은 날로 굳어
한 금 두 금 곱다랗게 감기는 연륜.

갈매기처럼 ㉡꼬리 떨며
산호 핀 바다 바다에 내려앉은 섬으로 가자.

비춧빛 하늘 아래 피는 꽃은 맑기도 하리라.
무너질 적에는 눈빛 파도에 적시우리.

초라한 경력을 육지에 막은 다음
주름 잡히는 연륜마저 ㉢끊어 버리고
나도 또한 불꽃처럼 열렬히 살리라.

— 김기림, 「연륜」

나 솔잎 사이사이
아주 빗질이 잘된 바람이
내 뇌혈관에 새로 닿아 와서는
그동안 허술했던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 ㉣일러 주고 있고...

살 끝에는 온통
금싸라기 햇빛이
내 잘못 살아온 서른여섯 해를
덮어서 쓰다듬어 주고 있고...

그뿐인가,
시름으로 고인
내 간장(肝臟) 안 웅덩이를
세월의 동생 실개천이
말강게 씻어 주며 흐르고 있고...

친구여,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이 ㉠눈물 나게 넘치는 자산(資産)을
혼자 아껴서 곱게 가지리로다.

- 박재삼, 「정릉 살면서」

[26001-0070]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특정한 부사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동일한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화자의 친근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점층적 시상 전개를 통해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화자의 변화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26001-0071]

0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대상의 하강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화자가 느끼는 초라함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대상의 형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화자가 느끼고 있는 불안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③ ㉢: 대상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과거의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대상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대상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드러난 표현으로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6001-0072]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김기림의 「연륜」과 박재삼의 「정릉 살면서」는 화자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특히 두 작품의 화자는 이러한 자신의 인식과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자연물과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 상징적 시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태도와 세계를 드러내는 방식에서는 상이한 특징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꽃이파리’, ‘구름’은 지나온 삶에 대한 화자의 회한을 나타내기 위해 활용한 자연물이고, (나)의 ‘웅덩이’는 화자의 고달팠던 삶의 여정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상징적 시어이군.
- ② (가)의 화자는 ‘서른 남은 해’를 ‘초라한 경력’이라고 언급함으로써, (나)의 화자는 ‘서른여섯 해’를 ‘허술’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라고 표현함으로써 자신이 살아온 삶을 성찰하고 있군.
- ③ (가)는 ‘산호 편 바다’에 있는 ‘섬’이라는 상상 속 자연 공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나)는 ‘바람’, ‘햇빛’, ‘실개천’이라는 실제의 자연물을 통해 삶을 인식하는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군.
- ④ (가)의 화자는 ‘가자’, ‘또한’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타인에게 확장하려는 태도를, (나)의 화자는 ‘사람들이 돌아보지도 않는’, ‘혼자’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내밀한 개인적 소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가)는 ‘비춧빛’, ‘눈빛’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나)는 ‘금싸라기’, ‘말짚게’에 드러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갱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北)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제비 떼 까맣게 날라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 바다 북판 용솟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쓴도라: 툰드라(tundra). 스칸디나비아반도 북부에서부터 시베리아 북부, 알래스카 및 캐나다 북부에 걸쳐 타이가 지대의 북쪽 북극해 연안에 분포하는 넓은 벌판.

나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26001-0073]

01

(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대상을 지칭하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색채어를 사용하여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직유의 방식으로 대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26001-0074]

0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하고,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
- ② ㉠은 화자와 갈등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와 연대하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고, ㉡은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현재를 나타내고, ㉡은 화자의 미래를 짐작하게 한다.
- ⑤ ㉠은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고, ㉡은 화자와 대립되는 대상이다.

[26001-0075]

03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암담한 현실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염원을 담고 있다. (가)는 일제 강점이라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조국 광복을 이루고자 하는 화자의 염원과 의지를 강조하고 있고, (나)는 1980년대 군부 독재하의 불의한 현실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는 민중들이, 연대를 통해 불의한 현실을 이겨 낼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희망적인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 ① (가)의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때’는 인간이 살 수 없는 척박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일제 강점의 현실을 화자가 극한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제비 떼’는 봄을 연상하게 하는 것으로, 그것이 ‘까맣게 날라오길’ 기대하는 것은 화자가 따뜻한 봄과 같은 상황인 조국 광복을 염원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③ (나)의 ‘알맞은 바람’과 ‘살머시 더운’은 누룩이 뜨기 위한 환경을 나타내는 것으로, 억압된 존재인 민중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야 한다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나)의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는 누룩이 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을 나타내는 것으로, 군부 독재하의 불의한 현실 상황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 ⑤ (가)의 ‘새벽’과 (나)의 ‘칼별’은 모두 춥고 혹독한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희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각의 불의한 현실 상황에서 긍정적인 미래 상황을 기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현기증 나는 활주로의

최후의 절정에서 흰나비는
돌진의 방향을 잊어버리고
피 묻은 육체의 파편들을 굶어본다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을 축일
한 모금 샘물도 없는 ㉠허망한 광장에서
어린 나비의 안막을 차단하는 건
투명한 광선의 바다뿐이었기에—

진공의 해안에서처럼 과묵한 묘지 사이사이
숨 가쁜 제트기의 백선과 이동하는 계절 속—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광(磷光)의 조수에 밀려
흰나비는 말없이 이즈러진 날개를 파닥거린다

하얀 미래의 어느 지점에
아름다운 영토는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어느 지표에
화려한 희망은 피고 있는 것일까

신도 기적도 이미
승천하여 버린 지 오랜 유역—
그 어느 마지막 종점을 향하여 흰나비는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여 본다.

— 김규동, 「나비와 광장」

나 찌그만 것이

노랑게 노랑게
전력을 다해 셋노랑게 피어 있다

아무 곳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이슬이슬
한 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바위 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터를 잡고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힘껏 밀어내는 떡잎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열심히 한 댕새

세상에 그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 노랗게만 피는 꽃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

꼭그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서도 짚 수 없다
 아 민들레!
 그래 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한 댕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 있다

— 이형기, 「민들레꽃」

[26001-0076]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직유법을 사용하여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② 동일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③ 감탄사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어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 ④ 의문형 진술을 통해 화자의 반성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26001-0077]

0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나비가, ㉡은 민들레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공간이다.
- ② ㉠은 나비가, ㉡은 민들레가 외부 대상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공간이다.
- ③ ㉠은 나비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공간이고, ㉡은 민들레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나비가 내적 갈등을 겪는 공간이고, ㉡은 민들레가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이다.
- ⑤ ㉠은 나비가 좌절감을 느끼는 공간이고, ㉡은 민들레가 수용적 자세를 드러내는 공간이다.

[26001-0078]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지만 허무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자 노력한다. (가)와 (나)는 모두 의인화된 자연물을 통해 이러한 인간의 존재 의의에 대한 성찰을 이끌어 내고 있다. (가)는 연약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나비의 모습을 통해 현대 문명의 거스를 수 없는 힘에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비극적 처지를 보여 주면서도, 그 힘에 맞서 순수성을 지켜 내려는 의지적 태도를 부각한다. 한편 (나)는 작지만 강인한 모습으로 형상화된 민들레를 통해 환경적 제약과 언젠가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을 보여 주면서, 이러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생을 살아 내는 의지적 태도를 부각한다.

- ① (가)에서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은 ‘아름다운 영토’를 향한 나비의 비행을 지속시킬 것이라는 점에서 현대 문명의 거스를 수 없는 힘을 나타내는군.
- ② (가)에서 ‘신도 기적도 이미 / 승천하여 버린’ 상황에서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는 나비의 모습을 통해, 비극적 상황에서도 순수성을 지켜 내려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는군.
- ③ (나)에서 ‘주어진 한계 그 안’에 핀 민들레는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순간적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환경적 제약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운명을 보여 주는군.
- ④ (나)에서 ‘헛된 꿈’을 꾸는 시간이라고 할지라도 ‘한 땃새를 집짓 영원인 양하고’ 피어 있는 민들레의 모습을 통해, 허무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이즈러진 날개’는 ‘어린 나비’의 훼손된 모습을 드러내어 나비의 연약한 속성을, (나)에서 ‘전력을 다해 섯노랑게 피어 있다’는 표현은 ‘찌그만 것’의 색을 부각하여 민들레의 작지만 강인한 속성을 환기하는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그 방의 벽에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어둠을 지키고 있을 것이다

나는 모든 노래를 ㉠그 방에 함께 남기고 왔을 게다
 그렇듯 이제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메말랐다
 그 방의 벽은 나의 가슴이고 나의 사지일까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는 말이
 헛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지만
 나는 그 노래도 그 전의 노래도 함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
 나는 인제 녹슬은 펜과 뼈와 광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줄 안다
 이 가벼움 혹시나 역사일지도 모르는
 이 가벼움을 나는 나의 재산으로 삼았다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었지만
 나의 입속에는 달콤한 의지의 잔재 대신에
 다시 쓰디쓴 담뱃진 냄새만 되살아났지만

방을 잃고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노래를 잃고 가벼움마저 잃어도

이제 나는 무엇인지 모르게 기쁘고
 나의 가슴은 이유 없이 풍성하다

—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나 누가 와서 나를 부른다면
 내 보여 주리라
 저 얼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을.
 얼은 들판을 걸어가는 한 그림자를.
 지금까지 내 생각해 온 것은 모두 무엇인가.

친구 몇몇 친구 몇몇 그들에게는
 이제 내 것 가운데 그중 외로움이 아닌 길을
 보여 주게 되리.
 오랫동안 네 여머온 고의춤*에 남은 것은 무엇인가.
 두 팔 들고 얼음을 밟으며
 갑자기 ㉠구름 개인 들판을 걸어갈 때
 햇빛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 달빛.

- 황동규, 「달밤」

* 고의춤: 바지의 허리를 접어서 여민 사이.

[26001-0079]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② (가), (나)는 모두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와 연관된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유사한 시구를 변주하여 기억 속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④ (가)는 (나)와 달리 명령형 어미를 통해 가치 실현에 대한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시각적 이미지가 담긴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6001-0080]

0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고, ㉡은 슬픔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담긴 공간이다.
- ② ㉠은 멀리 떠나와 그리워하는 곳이고, ㉡은 다른 사람과의 추억을 곱씹고 있는 곳이다.
- ③ ㉠은 과거 화자가 지향하던 가치를 상징하고, ㉡은 이전과 달라진 화자의 태도를 암시한다.
- ④ ㉠은 화자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을 상징하고, ㉡은 화자가 장애물을 극복한 상황을 상징한다.
- ⑤ ㉠은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던 화자를 상징하고, ㉡은 세속적 가치와 멀어진 화자의 상황을 암시한다.

[26001-0081]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모두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는 시적 화자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다. 「그 방을 생각하며」에는 4·19 혁명의 결실을 회의하며 자책하는 화자가 과거에 갖고 있던 이상에 근거해 현재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는 역사적 주체로서의 자아 정체성을 성찰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달밤」의 화자는 고독했던 과거를 돌아보고 질문을 통해 위기를 직면하며 자신의 가치관과 자아 정체성을 성찰하는데, 이는 실존적 차원에서의 정체성 회의를 보여 준다. 두 화자는 저마다 다른 성찰을 바탕으로 마침내 희망적 태도로 새로운 자아를 모색한다.

- ① (가): 기억 속의 가치를 ‘햇소리처럼 아직도 나의 가슴을 울리고 있’는 것이라고 느끼고 지금은 그것을 모두 망각하였다고 말하는 데에서 과거의 이상에 근거하여 현재 자신의 삶을 비교하며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군.
- ② (가): 자신의 현재를 언급하며 ‘실망의 가벼움을 재산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역사일지도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과거의 불완전한 모습을 배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 나아가려는 모습이군.
- ③ (가):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담긴 ‘낙서를 잃고 기대를 잃고 / 노래를 잃’어도 기쁨을 느끼는 것은 성찰의 과정 후 새로운 자세로 시작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나): 현재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에 대하여 ‘생각해 온 것’, ‘남은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 화자의 모습에서 자신의 가치관과 정체성에 질문을 던지며 회의를 품고 성찰하는 화자의 모습을 볼 수 있군.
- ⑤ (나): 화자가 타인과의 대화를 가정하고 자문자답하며 ‘이제’부터 보여 줄 모습을 그려 보는 것은 정체성 회의의 과정을 거쳐 모색하고 도달하게 된 새로운 자아 정체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검정 수목 두루마기에

흰 동정 달아 입고

창에 기대면

박 년출 상기 남은

기울은 울타리 위로 장독대 위로

새하얀 눈이

나려 쌓인다

홀로 지니던 값진 보람과

빛나는 자랑을 모조리 불사르고

소슬한 바람 속에

낙엽처럼 무념(無念)히 썩어 가면은

이 허망한 시공(時空) 위에

내 외로운 영혼 가까이

㉠ 꽃다발처럼 꽃다발처럼

하이얀 눈발이

나려 쌓인다

마음 이리 고요한 날은

아련히 들려오는

㉡ 서라벌 천년(千年)의 풀피리 소리

비에(悲哀)로 하여 내 혼이 야위기에는

절망이란 오히려

나리는 눈처럼 포근하고나.

〕
[A]
〕

- 조지훈, 「눈 오는 날에」

나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해 저문 강가로 나아가

머나먼 행렬을 이루면서 밝은 연등 불빛 흘러가는

그 조용한 눈물의 제의를

보고 싶다.

㉮나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좋으랴.

세상의 온갖 설움을 품은 몸이 두둥실

물 위에 떠서

㉭한 줍씩 불빛 던지며 어둠을 헤치고 흘러가면

마침내 닿을 그곳이 불귀의 하늘이어도

나는 좋으리.

길가엔

깨끗이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

멀어져 가는 점점의 등불을 바라보며

㉯차마 돌아서지 못하는 발걸음, 섰던 자리에 묶여

두 손 모아 간절히 비나니

부디 저 길이 극락에 이르소서.

유등제를 한번 보고 싶다.

해 저문 강가로 나아가

수천, 수만 개의 연꽃 등불 밤하늘 별빛인 양

물 위에 떠서

아득히 행렬을 이루면서 어둠 속으로 흘러가는

그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를

나는

보고 싶다.

[B]

- 이수익, 「유등제」

[26001-0082]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시간의 흐름을 중심으로 대상의 성질이 변화하는 양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를 통해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어순의 도치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시어를 활용하여 시상의 반전을 이루고 있다.

[26001-0083]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꽃다발’의 형상을 통해 내리는 눈을 아름답게 인식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고요한 날’이라는 배경에 청각적 이미지가 환기되며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 ‘유등제’의 ‘연등’을 따라가는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어둠’을 헤치는 ‘불빛’을 부각하여 일상의 체험 속에서 발견하게 된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차마’라는 시어를 통해 ‘사람들’이 가진 간절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084]

03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화자가 새롭게 지각하게 된 삶의 교훈을 부각하고 있다.
- ② [A]는 [B]와 달리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전환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화자의 의식이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 ④ [A]와 [B]는 모두 화자의 심리가 안정된 상태를 회복해 가는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화자가 소망하고 있는 이상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26001-0085]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조지훈의 「눈 오는 날에」와 이수익의 「유등제」는 모두 고단한 삶을 살아온 화자가 위안을 얻거나 그러한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드러낸 작품이다.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자신들이 실존하는 세계를 고통스러운 것으로 인식하지만,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위안을 찾아내며 고통을 감내하려는 태도를 보인다. 한편 (가)의 화자는 자신의 생활 주변에서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통해, (나)의 화자는 특정한 의식(儀式)을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지만 이는 삶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제거해 주지는 못한다. 또 (가)는 화자 개인에게 드리워진 삶의 고통을 화자의 내밀한 심리에 초점을 맞추어 드러내고 있으며, (나)는 화자 개인뿐만 아니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으로 의식(意識)이 확장되고 있다.

- ① (가)의 ‘새하얀 눈이 / 내려 쌓’이는 생활 주변의 자연 현상과 (나)의 ‘해 저문 강가’에서 벌어지는 ‘유등제’라는 특정한 의식은 모두 화자가 느끼는 삶의 고통을 위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② (가)의 ‘빛나는 자량을 모조리 불사르고’, ‘허망한 시공’과 (나)의 ‘세상의 온갖 설움’은 모두 두 작품의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③ (가)는 ‘내 외로운 영혼’, ‘내 혼’을 통해 화자가 자신의 내밀한 세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반면, (나)는 ‘수천, 수만 개의’ 아득한 ‘행렬’을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화자가 자신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의식이 확장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④ (가)의 ‘눈발’은 언젠가는 내리는 상황이 끝나고 ‘쌓인’ ‘눈’은 녹기 마련이라는 점에서, (나)의 ‘유등’은 ‘불귀의 하늘’에 도달한 후 ‘강가’로 돌아올 수 없다는 점에서 삶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는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절망이란’ ‘눈처럼 포근하’다고 한 표현과 (나)의 ‘눈물 글썽이는 축복의 제의’라는 표현은 모두 모순된 표현을 통해 삶의 고통을 감내해 내려는 태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비둘기는 자꾸만 결눈질을 하고 있다.
 포스터 속에 오래 들어앉아 있으면
 비둘기의 습성(習性)도 웬만치는 변한다.
 비둘기가 노닐던 한때의 지붕마루를
 나는 알고 있는데
 정말이지 알고 있는데
 지금은 비어 버린 ㉠집 통만
 비바람에 털리며 삭고 있을 뿐이다.
 포스터 속에는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
 마셔 볼 공기(空氣)가 없다.
 답답하면 주리도 틀어 보지만
 그저 열없는 일.
 그의 몸을 짓구겨
 누가 찢어 보아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불 속에 던져 살라 보아도
 잿가루 하나 남지 않는다.
 그는 찍어 낸 포스터
 수많은 복사(複寫) 속에
 다친 데 하나 없이 들어앉아 있으니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다.

- 신동집, 「포스터 속의 비둘기」

나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

제설차 한 대 올 리 없는
 깊은 백색의 골짜기를 메우며
 굵은 눈발은 휘몰아치고,
 쪼그마한 솟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길 잃은 등산객들 있을 듯
 외딴 두메 마을 길 끊어 놓을 듯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드는 눈,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쪼그마한 솟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고 있다는 것일까.

길 잃고 굶주리는 산짐승들 있을 듯
눈 더미의 무게로 소나무 가지들이 부러질 듯
다투어 몰려오는 힘찬 눈보라의 군단,
때죽나무와 때 끓이는 외딴집 굴뚝에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과 골짜기에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

— 최승호, 「대설주의보」

[26001-0086]

0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각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인칭 대명사를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색채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직유법을 통해 대상이 환기하는 역동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현재형의 진술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26001-0087]

02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비둘기의 부재를 확인하게 하는 공간이고, ㉡은 굴뚝새의 실재가 밝혀지는 공간이다.
- ② ㉠은 비둘기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공간이고, ㉡은 굴뚝새의 가치가 부정되는 공간이다.
- ③ ㉠은 비둘기에게 불안을 겪게 한 공간이고, ㉡은 굴뚝새에게 안정을 찾게 해 주는 공간이다.
- ④ ㉠은 비둘기가 머무르다가 떠난 공간이고, ㉡은 굴뚝새가 머물러 숨기 위해 찾아든 공간이다.
- ⑤ ㉠은 비둘기에 대한 연대감을 환기하는 공간이고, ㉡은 굴뚝새에 대한 연민을 환기하는 공간이다.

[26001-0088]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에는 모두 자유가 상실된 상황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드러난다. (가)는 현대 문명과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여, 그것이 환기하는 인위성, 획일성에 매몰된 채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나)는 군부 독재와 그 폭력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활용하여 1980년대의 폭압적 시대 상황을 우의적으로 드러내는 한편, 공포 속에서 자유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야만 했던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① (가)에서 인위적 산물인 ‘포스터’에 그려진 ‘수많은 복사’는 모두 똑같은 비둘기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현대 문명의 획일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나)에서 ‘눈보라의 군단’과 ‘백색의 계엄령’은 ‘등산객들’과 ‘외딴 두메 마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존재로 묘사된다는 점에서 군부 독재의 폭력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한때의 지붕마루’는 비둘기가 과거에 자유롭게 노닐던 곳이라는 점에서, (나)에서 ‘깊은 백색의 골짜기’는 골짜기 밖 자유가 억압된 세계와 단절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유가 상실되기 이전의 상황을 환기하는군.
- ④ (가)에서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는 것은 자유를 잃고 현실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처지를, (나)에서 ‘쪼그마한 숲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는 상황은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던 민중의 처지를 보여 주는군.
- ⑤ (가)에서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라는 말에는 삶의 의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자유한 현실에 대한, (나)에서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는 것을 떠올리는 말에는 공포를 조장하여 자유를 억압하던 당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이 투영되어 있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그 여름 나무 백일홍은 무사하였습니다 ㉠한차례 폭풍에도 그 다음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아 쏟아지는 우박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습니다

㉠그 여름 나는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여름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지면 매달리고 타올라 불을 뿜는 나무 백일홍 억센 꽃들이 두어 평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장난처럼 나의 절망은 끝났습니다

— 이성복, 「그 여름의 끝」

나 한 해의 꽃잎을 며칠 만에 활짝 피웠다 지운
벚꽃 가로 따라가다가
㉠미처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칫거리는
늦된 그 나무 발견했지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
시멘트 개울 한 구석으로 비틀린 뿌리 감춰 놓고
앞줄 아름다리 그늘 속에 반쯤 숨어 있었지요.
봄은 그 나무에게만 더디고 더더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는지,
그래도 여느 꽃나무와 다름없이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을 어딘가 안쓰러웠지요.
늦된 나무가 비로소 밝혀드는 ㉡꽃불 성화,
환하게 타오를 것이므로 나도 이미 길이 끝난 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참이나 거기 멈춰 서 있었지요.
산에서 내려 두 달거리나 제자릴 찾지 못해
헤매고 다녔던 저 난만한 봄길 어디,
늦깎이 깨달음 함께 얻으려고 한나절
㉢나도 병든 그 나무 곁에서 서성거렸지요.
이 봄 가기 전 ㉣저 나무도 푸릇한 잎새 매달까요?
무거운 청록으로 여름도 지치고 말면
불타는 소신공양 틈새 가난한 소지*,
저 나무도 가지가지마다 지퍼 올릴 수 있을까요?

— 김명인, 「그 나무」

* 소지: 부정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태워서 공중에 올리는 종이.

[26001-0089]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청자를 호명하여 말을 건넌으로써 친근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③ 직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④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 ⑤ 의인화의 방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090]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관찰하여 알게 된,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낸다.
- ② ㉡: 화자가 백일홍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드러낸다.
- ③ ㉢: 나무의 성장 속도가 벚꽃과 다르게 느리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④ ㉣: 화자가 병든 나무에 대해 친밀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⑤ ㉣: 주어진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

[26001-0091]

03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백일홍’과 ‘늪된 나무’가 보여 주는 희생정신을 의미하고 있다.
- ② ㉠과 ㉡는 ‘백일홍’과 ‘늪된 나무’가 내재하고 있는 상실의 고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백일홍’이 전달하는 즐거움을, ㉡는 ‘늪된 나무’가 조성하는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시련을 이겨 낸 ‘백일홍’이 맺은 결실을, ㉡는 ‘늪된 나무’가 맺을 결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은 ‘백일홍’이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임을, ㉡는 ‘늪된 나무’가 화자에게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임을 의미하고 있다.

[26001-0092]

0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문학 작품에서 화자는 타자를 발견하고 타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삶을 성찰한다. (가)와 (나)는 자연물로 대표되는 타자와의 동일시를 통해 화자의 정서와 삶에 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가)의 화자는 여름 동안 폭풍을 이겨 내고 활짝 꽃을 피운 백일홍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체험을 회상하는 한편,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나)의 화자는 비틀리고 소외된 나무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을 계기로, 방황하느라 남들에 비해 시기가 늦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 ① (가)에서 ‘백일홍 억센 꽃들이’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 ‘나의 절망’이 ‘끝났’다고 한 것에는, 타자에 주목하여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는 화자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나)에서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고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을 발견한 화자는, 나무의 모습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떠올린 것을 계기로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나)에서 ‘이 봄’을 지나 늦된 나무가 ‘여름도 지’칠 때야 ‘가난한 소지’를 ‘지퍼 올릴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화자가 타자와 같이 소외된 처지의 자신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무사’한 ‘나무 백일홍’과, (나)의 ‘벚꽃 가’에서 ‘발견’한 ‘늦된 그 나무’를 통해 화자는 타자와의 심리적 동일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가)의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은 ‘나’는 절망에 굴하지 않고 이를 이겨 냈다는 점에서, (나)의 ‘난만한 봄길 어디’를 ‘헤매고 다녔던’ ‘나’는 남들에 비해 시기가 늦었다는 점에서 자연물인 타자와 자신과의 연관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멀리 있는 것은

아름답다.

㉠무지개나 별이나 벼랑에 피는 꽃이나

멀리 있는 것은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에

아름답다.

사랑하는 사람아,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

내 나이의 이별이란

헤어지는 일이 아니라 단지

떨어지는 일일 뿐이다.

네가 보낸 마지막 편지를 읽기 위해선

이제

㉡돌보기가 필요한 나이,

늙는다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보낸다는

것이다.

머얼리서 바라볼 줄을

안다는 것이다.

- 오세영, 「원시」

나 차심이라는 말 있지

찾잔을 닦지 않아 ㉠물이끼가 끼었나 했더니

차심으로 찾잔을 길들이는 거라 했지

가마 속에서 흙과 유약이 다룰 때 그릇에 잔금이 생겨요

㉡뜨거운 찻물이 금 속을 파고들어 가

그릇 색이 점점 바뀌는 겁니다

차심 박힌 그릇의 금은 병균도 막아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준다고……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리는 차심,

그게 ㉢차의 마음이라는 말처럼 들렸지

「A」

「B」

「C」

「D」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선
 차심만 우려도 차 맛이 난다는데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그런 빗깔을 우릴 수 있다면
 아픈 금 속으로 찻물을 내리면서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

[E]

- 손택수, 「차심」

[26001-0093]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종결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여 시적 여운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상대를 지칭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의 청자를 분명하게 하고 있다.
- ⑤ 속성이 유사한 대상들을 열거하여 속성이 지닌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26001-0094]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가 가까이 두고자 하는 대상이다.
- ② ㉡: 화자의 나이 듦을 인식할 수 있게 한다.
- ③ ㉢: 대상에 대한 화자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 준다.
- ④ ㉤: 대상의 가치를 변화하게 하는 존재이다.
- ⑤ ㉤: 대상을 통해 떠올린 새로운 의미를 나타낸다.

[26001-0095]

03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발견한 대상이 만들어진 과정을 [B]에서 제시하고 있다.
- ② [A]에서 발견한 대상으로 인한 효과를 [C]에서 나열하고 있다.
- ③ [B]와 [C]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D]에 나타나 있다.
- ④ [C]에 제시된 대상에 대한 인식은 [D]에서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고 있다.
- ⑤ [A]~[D]에 제시된 대상에 대한 인식을 [E]에서 화자 자신의 문제에 적용하고 있다.

[26001-0096]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다른 대상과 물리적이거나 심리적인 거리가 발생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은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화자는 그 상황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 이면을 발견하는 역설적인 인식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화자는 삶에 대해 성찰하고, 내적인 성숙을 이끌어 내고 있다.

- ① (가)의 ‘이별’과 (나)의 ‘갈라진 너와 나 사이’는 일반적으로는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멀리 있는 것은 / 아름답다’는 인식은 화자가 ‘이별을 서러워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겠군.
- ③ (가)에서 ‘손에 닿을 수 없는 까닭’이 대상이 아름다운 이유가 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역설적인 인식으로 인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불가마 속의 고통’으로 생긴 잔금인 ‘차심’이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주는 이치는 화자의 역설적 상황 인식을 이끌어 내는군.
- ⑤ (나)에서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에서 ‘차심만 우려도 차 맛’이 나는 이유는 고통의 경험을 내면화해서 성숙해졌기 때문이겠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너 들어 보았니

저 동구밖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 되게는 치고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에서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 보았니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휘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를 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나겠니

- 고재중, 「면면함에 대하여」

나 날씨 보러 뜰에 내려

그 햇빛 너무 좋아 생각나는
산부추, 개망초, 우슬꽃, 만병초, 둥근범꼬리, 씩냉이, 돈나물꽃
이런 꽃들로만 짝 채워진

소군산열도 안마도 지나
물길 백 리 저 송이섬에 갈까

그중에서도 우리 설움
뺏물까지 녹아흘러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
이 세상 끝이 와도 끝내는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꽃
울었니 나를 잉태할 적 입덧 나고
씨었니 눈돌려 흰 쌀밥 한 손갈 들통나
살강 밑에 떨어진 밥알 두 알
혀끝에 감춘 밥알 두 알
몰래몰래 ㉠울음 흠쳐 먹고 그 울음도 지쳐
추스럼 끝에 피는 꽃
며느리밥풀꽃*

햇빛 기진하면은 혀 빼물고
지금도 그 바위섬 그늘에 피었느니라.

— 송수권, 「며느리밥풀꽃」

* **며느리밥풀꽃**: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고된 시집살이에 시달리던 며느리가 배가 고파 밥풀을 몰래 흠쳐 먹었다가 죽은 후 피어났다는 설화가 있는 꽃.

[26001-0097]

01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모두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나)는 모두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사용하여 대상의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부분을 통해 전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하여 시적 배경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에 주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나)는 (가)와 달리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사용하여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26001-0098]

02

㉠과 ㉡을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에 대한 회한의 의미를, ㉡은 ‘몰래몰래’ 눈물 흘리며 견디는 인고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은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를 통해 억압으로 인한 비애의 의미를, ㉡은 ‘햇빛 기진하면은 혀 빼물고’와 연결하여 절망의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은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와 연결하여 인고의 과정 끝에 얻는 결실의 이미지를, ㉡은 ‘나를 잉태할 적 입덧 나고’를 통해 생명력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은 ‘모두 이파리 이파리에 내주어’와 연결하여 타인에 대한 교훈적 의미를, ㉡은 ‘흠쳐 먹고 그 울음도 지쳐’와 연결하여 애련의 정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은 ‘생생한 초록의 광휘’와 연결하여 희망의 의미를, ㉡은 ‘추스림 끝에 피는 꽃’과 연결하여 서러움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26001-0099]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민중의 끈질긴 생명력을 주제로 드러내는 작품이다. (가)는 ‘면면함’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의연한 민중의 삶의 자세를 자연물인 느티나무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이농 현상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농민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고된 시집살이에 핍박받던 며느리가 억울하게 죽어서 핀 ‘머느리밥풀꽃’ 설화를 중심 소재로 하여 가난과 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 가는 민중의 생명력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여기서 등장하는 며느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서러움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민중을 대표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 척박한 농촌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면,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나무의 의연함은 현실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앞들에서 모를 내다 / 허리 펴는 사람들’이 나무를 ‘한참씩이나 쳐다’본다는 것은,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나무의 모습에서 생의 희망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화자가 ‘산부추’부터 ‘돈나물꽃’까지 여러 풀꽃과 이 꽃들로 채워진 여러 섬을 떠올린 것은, 그것들이 지닌 끈질긴 생명력과 연관하여 민중의 삶을 환기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그중에서도 우리 설움 / 뺏물까지 녹아흘러 /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저항하며 희망을 찾아낸 민중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씨엄니 눈돌려’ ‘혀끝에 감춘 밥알 두 알’은 머느리밥풀꽃의 설화를 차용한 것으로, 핍박받는 며느리를 통해 서러움을 딛고 사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정 공이 포천 현감으로 부임하던 날 밤, 조선의 개국 공신 하륜의 귀신이 찾아와 그에게 폐허가 된 자신의 무덤을 돌봐 달라는 부탁을 한다. 정 공이 하 공(하륜)이 부탁한 바를 신속하게 처리하자 하 공이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

정 공이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로 응대하자 하 공이 말했다.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내가 결초보은할 길이 없구려. 허나 사또께서는 저승의 보답을 두터이 받아 수명이 한 등급 연장될 테니 참으로 축하하오.”

정 공이 말했다.

“어르신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 세상이 누차 바뀌어 상전벽해가 되었으나 어르신의 명령은 흠어지지 않았 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죽은 뒤에 이승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내 뉘는 500년을 지탱하게 되어 있는데 이제 300년이 지났으니, 앞으로 200년 뒤까지는 알 수 있을 거요. 그러나 그 200년 뒤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 서글프기 그지없구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모두가 그럴 수 있습니까?”

“낮이 오랫동안 흠어지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타고난 기질이 어두운지 지혜로운지에 달렸소. 제왕이나 재상이라 할지라도 용렬한 그릇이라면 죽는 순간 아무것도 알 수 없고, 하찮은 초목이라 할지라도 빼어난 기운이 모인 것이라면 죽어도 낮이 남게 되오. 사또는 정신이 탁월해서 보통 사람에 비할 바 아니니, 죽은 뒤에도 혼령이 100년은 사라지지 않을 거요.”

“저승에 과연 조물주가 있습니까?”

“저승의 일은 누설할 수 없으니 묻지 말아 주시오.”

“명나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주었으니* 우리나라는 명나라와 함께 환난을 슬퍼하고 함께 망해야 할 의리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오랑캐 청나라가 대업을 찬탈하고 중국에서 황제를 일컫고 있으니, 지금 우리 조정 신하들은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의 죄를 묻고 천하에 대의를 펴고자 하는正大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의 길흉이 어떻겠습니까?”

[A] “길흉은 너무도 알기 쉬우니 물을 것도 없소. 다만 조정 신하들이 큰 절개를 지키고자 존망을 걸고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 변방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이름이 남을 것이요 나라의 명맥이 끊어져도 영예로울 것이니, 내 마땅히 우러러 찬양해 마지않을 것이요. 그러나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맑은 논의의 바탕으로 삼고, 중화를 존중하는 대의를 출세의 계단으로 삼으며, 속으로는 오랑캐를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만 아름다운 명성을 얻는다면 나는 거기서 인정할 만한 점을 찾지 못하겠소.”

[B] “우리나라는 장정들을 굶어모아 군대를 이루면 백만 군사를 넉넉히 갖추고, 여러 고을에 비축된 곡식은 몇 년을 지탱하기에 충분하며, 밤낮으로 훈련하면 정예 군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들이 압록강을 건너고, 강계 밖으로 나가면 우리 군대의 함성이 이르는 곳마다 명나라의 유민(遺民) 누구인들 청나라 군대의 대오에서 이탈하여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 군대를 맞이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삼계*의 군대가 여전히 운남에 있는데 정예 부대에 군량도 충분하니, 만약 이들과 힘을 합해 명나라 황실을 부흥하기로 맹세한다면 어찌 만전지책이 아니겠습니까?”

“사또는 아직도 **탁상공론**을 하고 있소? 천하만사가 천시(天時)와 지리(地利)와 인사(人事)의 제약을 넘지 못하는 법이오. 지금 중화의 운은 차츰 쇠하고 북방의 운은 왕성하니 청나라의 통치가 300년은 지속될 거요. 이게 바로 천시의 어쩔 수 없음이오. 산해관*은 천험의 요새이니 우리나라 오합지졸이 험한 천 리 길을 가는 동안 100번 싸우며 산해관 앞에 이르면 저들은 연(燕), 계(薊)*의 군사들로 요충지를 굳게 지키며 편안하게 쉰 군대로 피로한 군대를 맞이할 것이오. 게다가 영고의 여진족 군사가 우리 군대의 후방을 치면 우리는 앞뒤로 적의 공격을 받아 전군과 후군이 서로 응할 수 없을 거요. 군량을 수송하는 길도 끊어지고 후퇴해 돌아올 길도 가로막히면 수레 한 대라도 귀국할 수 있겠소? 이게 바로 지리의 어쩔 수 없음이오.

둘이켜 보건대 병자년에 저들은 기병 수천으로 우리 영토 깊숙이 들어와 마치 드넓은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넓은 들판에 썩은 풀 같은 신세였지만, 수천 리 우리 땅에 저들을 똑바로 쳐다보는 사람 하나 없더니 마침내 도성까지 침략당해 굴욕적인 강화 조약에 운명을 걸고 말았소. 지금 오랑캐의 부강함은 그때에 비할 바가 아니오. 우리 군대의 진법은 고작해야 장사진*뿐이고, 용렬한 장수와 나약한 병사들은 적을 보면 미리 후퇴할 생각부터 하니 젓먹이를 호랑이 굴로 들여보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소? 또 오삼계는 임금의 은의를 저버리고 나라를 배신한 뒤 스스로 제위를 엿보고 있으니 이런 자와 동맹하는 것은 불가하오.”

┌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화의(和議)를 고수해야 하겠습니까.”
 [C] “우리나라 사람들은 허황된 논의를 좋아하다가 막상 일이 닥치면 겁부터 집어먹소. 좀 전에 하신 말씀
 └ 은 모두 부질없는 생각에 지나지 않소.”

“우리나라의 법이 지극히 훌륭하나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법인지라 지금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고 국정을 좀먹는 것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어르신께서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유한 권세가에 노예가 많아 곳간과 곡식 창고와 동산과 채마밭마다 지키는 자를 두고, 농사와 길쌈과 물 길는 일과 나무하는 일마다 담당하는 종이 있소. 이 여덟 가지 일은 본래 폐단의 근원이 아니나 종 하나가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한 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고, 종 여덟 명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여덟 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오. 그러나 가장이 용렬하고 게으른 종을 도태시키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를 그 자리에 대체하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될 거요. 하물며 나랏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소?”

정 공이 절하여 사례하고 말했다.

“㉠ 지금의 가르침은 참으로 간명하면서도 핵심을 찌른 말씀이라 마음과 몸이 모두 경복(敬服)하게 만듭니다.”

“내가 오랫동안 이승에 머물 수 없으니 이제 작별을 고해야겠소이다. 사또는 몸조심하고 안녕히 계시오.”

— 이현기, 「포천이문」

*명나라는 큰 ~ 만들어 주었으니: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참전하여 조선을 도운 일을 말함.

*오삼계: 명나라 말기에서 청나라 초기의 무신. 명나라 장수로 산해관을 지키다가 청나라에 투항해 평서왕에 봉해졌으며, 만년에 청나라에 반기를 들었지만 병으로 죽음.

*산해관: 만리장성의 동쪽 끝에 있는 관문으로, 예로부터 군사 요충지임.

*연, 계: 중국 하북성 일대. '연'은 북경과 그 북부, '계'는 북경 서남쪽 일대를 일컫는 말.

*장사진: 예전의 병법에서, 한 줄로 길게 벌인 군진(軍陣)의 하나.

[26001-0100]

0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정 공은 하 공과의 대화를 통해 조물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
- ② 하 공은 정 공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정 공에게 저승에서의 벼슬을 높여 주기로 약속한다.
- ③ 정 공은 훌륭한 법을 갖추지 못한 조선의 현실 때문에 국정의 폐단이 생겨난다고 판단한다.
- ④ 하 공은 정 공의 정신이 탁월해 죽은 뒤에 그 님이 자신의 님보다 더 오래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 ⑤ 하 공은 조정 신하들이 전쟁을 벌이다가 죽게 되어도 그것이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26001-0101]

02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학습 활동 」

「포천이문」은 두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주제 의식이 표면화되므로, 의사소통의 흐름에 따라 대화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A]~[C]에 나타난 인물 간 소통의 내용을 차례대로 정리해 보자.

〈학습 활동을 수행한 결과〉

	발화자	청자	소통의 내용
[A]	정 공	하 공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유를 밝히면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구함. ……㉠
[A]	하 공	정 공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상대방의 생각에 동의하는 한편, 대의명분을 구실로 개인의 이익을 꾀하여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이들을 비판함. ……㉡
[B]	정 공	하 공	국내외의 상황에 대한 자신의 분석을 근거로 하여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나라가 불리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침. ……㉢
[B]	하 공	정 공	우리나라의 군대에 대한 상대방의 견해에는 동의하나 천시와 지리가 청나라에 유리한 것을 근거로 들어 상대방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함. ……㉣
[C]	정 공	하 공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여 청나라와의 전쟁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관점을 정립함. ……㉤

① ㉠

② ㉡

③ ㉢

④ ㉣

⑤ ㉤

[26001-0102]

03

㉠의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랏일의 가장 중요한 분야가 잘 관리되어야 나머지 분야도 잘 운영된다.
- ② 분야별로 나랏일을 맡을 사람을 잘 가려 써야 국정의 폐단을 막을 수 있다.
- ③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을 신뢰해야 그들이 자기 직분에 충실하여 나랏일이 잘 돌아가게 된다.
- ④ 나랏일을 맡을 사람들을 많이 뽑을 수 있게 국가 재정이 풍부해야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다.
- ⑤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끼리 경쟁하게 하여 게으른 자는 도태되게 해야 국정 운영이 올바르게 된다.

[26001-0103]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포천이문」은 제목의 뜻이 ‘포천의 기이한 소문’으로, 죽은 이의 혼령과 살아 있는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 비현실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대화를 나누는 두 인물은 모두 당대에 높이 평가되었던 역사상 실존 인물로, 작품에 제시되는 작가의 생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작품에서 두 인물의 대화를 통해 다루고 있는 주된 내용은 북벌론이다.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대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북벌론은 조선 후기 집권 세력이 주도한 것으로, 그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사안을 다룰 때 수반되는 위험을 피하고자 여러 가지 서사 전략을 활용하는데, 초현실적 존재나 현실에서 사라져 다시 만날 수 없는 인물과 같이 현실 세계의 논란에서 자유로운 존재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는 것이 그중 하나이다.

- ① ‘이승과 저승의 길이 달라’ 현실에서 ‘결초보은할 길이 없’는 귀신의 목소리를 통해 북벌론의 허상을 비판하는 것에서, 현실의 민감한 주제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비현실적 존재의 목소리를 빌려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살아 있는 인간과 ‘세상을 떠나신 후’ ‘흠어지지 않’은 ‘영령’ 간에 일어난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에서, ‘포천의 기이한 소문’이라는 뜻의 제목을 작품에 붙인 이유가 비현실적인 작품의 내용 때문임을 알 수 있군.
- ③ 북벌론에 관한 논의가 ‘빠어난 기운이 모’여 ‘넋이 오랫동안 흠어지지 않는’ 인물들의 목소리로 제시되는 것에서, 논의의 주체를 신뢰할 만한 역사상 실존 인물들로 설정함으로써 작가의 견해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천하에 대의를 펴고자 하는 정대한 논의’로 언급되는 북벌론 긍정의 논리와 이를 ‘탁상공론’이라고 반박하는 북벌론 비판의 논리가 함께 제시되는 것에서, 민감한 쟁점을 다룰 때 수반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쟁점과 관련한 양측의 견해를 대등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결말에서 ‘오랫동안 이승에 머물 수 없’는 귀신이 ‘작별을 고’하고 사라지는 것에서, 작가의 견해를 대변하는 인물을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라진 존재로 처리함으로써 정치적 주제를 다룰 때 생길 수 있는 논란을 피하려고 했음을 알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사가 일행에게 말했다.

“하늘엔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이런 뜻밖의 변고를 당해 사흘 동안이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배 안에 있던 한 사람이 말했다.

“이는 필히 해신(海神)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상사는 그 말을 옳게 여겼다. ㉠이에 목욕재계하고 제문을 지어 고한 뒤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다시 두 번 세 번 제사를 지내 보았지만 역시 배는 움직이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일행 중에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상사가 물었다.

“정성을 다해 기도했거늘 이처럼 효력이 없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종단 말인가?”

일행 모두가 입을 다물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 이때 왕수재가 말했다.

“이는 분명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어 함께 갈 수 없으므로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부정한 이를 찾아낸 다음 버려두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를 가로막고 희롱하는 일이 바로 없어질 것입니다.”

상사가 말했다. / “그 사람을 어떻게 알아내서 버리고 간단 말이나?”

수재가 말했다.

“알아낼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옷의 옷깃을 잡고 해신에게 이렇게 고하면 됩니다. ‘영험하신 신의 밝은 계시를 알고자 저희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가도 되는 사람의 옷은 물속에 가라앉혀 보이지 않게 하시고, 갈 수 없는 사람의 옷은 물 위에 띄워 가라앉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영험하신 뜻을 보여 주시면 마땅히 가르침대로 거행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사가 말했다. / “그 말에 묘리가 있구나.”

이에 모든 사람이 수재의 말대로 옷을 벗어 손수 그 옷깃을 잡고 기도한 뒤 옷을 물에 던졌다. ㉡모든 옷이 곧바로 가라앉아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지만, 유독 수재의 옷 하나만이 물 위에 떠 가라앉지 않았다. 부사 이하 모두가 의아하게 여겨 수재의 옷을 향해 돌을 던졌다. 돌이 수재의 옷 위에 있었건만 옷은 끝내 가라앉지 않았다. 일행 모두가 고개를 돌려 왕수재를 계속 쳐다보았다. 상사가 수재에게 말했다.

“네 말대로 옷을 던져 보았는데, 유독 네 옷만이 물 위에 떠서 끝내 가라앉지 않는구나.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수재가 대답했다.

“이는 신이 초래한 일입니다. 제 운명이 그렇다는데,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이번 사행에 따라 오기를 자청했던 건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울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였습니다. 하
[A] 지만 지금 해신이 이처럼 길을 막고 장난을 하니 제가 어찌 감히 억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저는 바다에 빠져 죽겠지만, 사신 일행은 만리 길을 무사히 다녀오셔서 임금의 명을 욕되이 하지 않으
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니 몸을 날려 바다로 뛰어들려 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상사와 일행은 바다로 뛰어들려는 왕수재를 만류한 후 가까운 섬에 내려 주고 떠난다. 섬에 도착한 왕수재는 대숲 사이로 난 길을 따라가다 초가집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던 노인으로부터 음식을 대접받는다.

이윽고 날이 어두워지자 노인은 불을 붙여 등을 켜고 앉더니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했다.

“수재는 잠깐 이 늙은이의 말을 좀 들어 보오. 나는 본래 속세 사람이 아니라 서해 용왕의 아들이라고. 이 섬에 산 지도 벌써 천 년이 넘었소.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를 날이 이제 겨우 몇 년 남았는데, 불행히 [B] 도 이 섬에 사는 삼천 년 묵은 구미호가 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있소. 닛새 동안 일전을 벌였지만, 늙은 내가 구미호에게 대항하는 게 너무 힘들어 수재의 귀신같은 활 솜씨를 좀 빌렸으면 하오. 나를 좀 도와 달라고 수재를 이런 궁벽한 땅에 모셔 오게 했으니, 참으로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그지없소이다.”

수재가 물러나 앉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속세의 천한 사람이고 선생께선 용궁의 귀한 아드님이신데, 어찌 감히 한자리에 나란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원래 아무 재주가 없는 사람이니 어찌 감히 선생의 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노인이 말했다.

“수재가 신궁이라는 건 오래전부터 알고 있거늘, 겹손이 지나치시군요. 모레가 구미호와 싸우기로 한 날이오. 수재께서는 한번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이 늙은이를 위험한 처지에서 구해 주시기 바라오.”

“선생의 말씀이 이러하니 어찌 감히 온 힘을 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활도 없고 화살도 없으니 어찌면 좋겠습니까?”

“튼튼한 활과 독화살을 준비해 놓은 지 이미 오래니, 그 일은 염려 마시오.”

밤이 깊어 피곤해지자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수재는 잠에 푹아떨어져 날이 새는지도 몰랐다.

㉠오후가 되자 종소리, 북소리, 피리 소리가 멀리서부터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소리가 청아한 것이 인간 세계의 음악과는 달랐다. 수재가 노인에게 물었다.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저 음악 소리는 뭘니까?”

노인은 이마를 찌푸리며 대답했다.

“요사스런 구미호의 짓이러오.”

“일개 요물일 뿐인 여우가 어떻게 이런 신선의 음악 소리를 낼 수 있습니까?”

“저 구미호는 변화무쌍한 놈이오. 귀신이 되었다가는 인간이 되고, 바람을 부르고 비를 내리게 하며, 앞에 있는가 싶으면 어느새 뒤에 가 있으니, 실로 천하의 요물이라 할 수 있소. 지금 이리로 오는 게 분명하니 수재도 곧 보게 될 거요.”

조금 있으니 “물렀거라!” 하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왔다. 수재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 부인 한 사람이 임금이 타는 가마 위에 앉아 있었다. 휘장을 활짝 열어젖히고 있어 그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과 달처럼 고운 자태에서 온갖 교태가 피어나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다. ㉡위엄 있는 의장(儀仗)*이며 온갖 물건과 의식이 임금이 출입할 때와 똑같았다. 어여쁘게 단장한 시비들이 앞뒤를 에워쌌고 기치와 창검이 좌우로 뻗뻗이 늘어서 있었는데, 피리 불고 북 치는 이들 모두가 곱게

분을 바른 미녀들이었다. 수재가 노인에게 말했다.

“저게 모두 요망한 여우들입니까?”

“그렇소.”

“그렇다면 빨리 활과 화살을 갖다주세요! 가마 위의 부인을 쏘 죽여야겠으니.”

“안 돼요, 안 돼! 지금 활을 쏘다가는 한 번에 백 발의 화살을 쏜다 한들 한 손으로 막아 낼 테니, 소용없는 일이요.”

“그렇다면 내일 싸움에서 저와 같은 사람 열 명이 있다 한들 화살을 모조리 다 막아 낼 텐데 어쩔 작정이십니까?”

“내일 나하고 한창 싸울 때에는 저 요물도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을 테니, 화살이나 돌이 날아드는 걸 알아차리지 못할 거요. 그 틈을 타서 명치를 쏘다면 성공할 수 있소이다. 내일까지 기다립시다.”

이튿날 과연 요망한 여우가 많은 군졸을 거느리고 와서 싸움을 걸었다. ㉠노인은 수재에게 거듭 부탁을 하고는 싸움을 하러 바다로 나섰는데,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다. 수재는 화살을 메기고 시위를 잔뜩 당겨 부인을 쏘려 했지만, 부인의 얼굴이 너무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는 차마 활을 쏠 수가 없었다. 수재는 이렇게 생각했다.

‘저건 사람이다. 여우가 둔갑을 한다고 어찌 저리될 수 있겠나? 사람이 사람을 쏘 죽여야 되겠는가?’

결국 활을 쏘지 못한 채 시위를 당기고 있던 손을 풀었다. 곧이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갔다.

—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

* 의장: 천자(天子)나 왕공(王公) 등 지위가 높은 사람이 행차할 때에 위엄을 보이기 위하여 격식을 갖추어 세우는 병장기(兵仗器)나 물건.

[26001-0104]

0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사는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해신의 장난 때문이라고 믿었다.
- ② 뱃사람들은 일행 중에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③ 왕수재는 상사의 말을 듣고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내었다.
- ④ 노인은 왕수재에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 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았다.
- ⑤ 부인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은 왕수재로 인해 노인과의 대결을 회피할 수 있었다.

[26001-0105]

0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에서는 모두 자신의 과거 업적을 언급하며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 ② [A]와 [B]에서는 모두 상대방에게 일어날 일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자신의 운명을 이유로 상대방이 겪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상대방이 지닌 능력을 근거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물음의 방식으로, [B]에서는 청유의 방식으로 자신의 선택에 대한 불가피함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있다.

[26001-0106]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배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상사의 절박함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 ② ㉡: 왕수재의 옷이 지닌 특별함을 대조적 상황 제시와 부사어 사용을 통해 부각하고 있다.
- ③ ㉢: 노인과의 대결을 위해 여우가 출현할 조짐이 있다는 점을 다양한 소리를 나열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④ ㉣: 여우를 목격한 왕수재의 놀라움을 여우의 모습과 다른 대상을 비교하는 방식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 ⑤ ㉤: 여우와 싸우고 있는 노인의 비범한 모습을 초현실적인 대상에 비유하며 보여 주고 있다.

[26001-0107]

04

〈보기〉를 참고할 때, 「거타지 설화(㉗)」와 윗글(㉜)을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선생님: 「왕수재취득용녀설」은 고려의 건국 설화인 「거타지 설화」를 서사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작품으로, 「거타지 설화」의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부분적으로 내용을 바꾸거나 추가한 작품입니다. 윗글에 제시된 부분에 해당하는 「거타지 설화」의 서사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타지가 탄 배가 곡도라는 섬에 닿자 풍랑이 크게 일어나 당나라로의 항해를 할 수 없게 됨.



노인이 꿈에 나타나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섬에 남기라고 말함.



섬에 남을 사람을 고르기 위해 선원들은 나뭇조각에 이름을 써서 물에 던지고, 거타지의 이름을 적은 나뭇조각만 물에 가라앉자 어쩔 수 없이 거타지가 섬에 남게 됨.



배가 떠나자, 홀로 남은 거타지에게 한 노인이 나타나 자신이 서쪽 바다의 신(神)이라고 밝히며 자기 자손들을 괴롭히는 중을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함.



활 솜씨가 뛰어난 거타지가 중을 활로 쏘자 중이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음.

- ① ㉗와 ㉜ 모두 섬에 도착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이 드러나는데, ㉗에 제시된 주인공의 영웅적 능력은 ㉜에서도 유지되었군.
- ② ㉗와 ㉜ 모두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 존재는 다른 대상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㉗에서 도움을 청하는 존재를 괴롭히는 대상이 여우라는 점은 ㉜에서도 유지되었군.
- ③ ㉗와 ㉜ 모두 노인의 말을 통해 주인공이 섬에 남겨진 이유가 밝혀지는데, ㉗에서 초월적 인물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이 ㉜에서는 지상에 있는 대리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체되었군.
- ④ ㉗와 ㉜ 모두 주인공이 탄 배가 항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는데, ㉗에서 주인공이 항해하는 목적지는 ㉜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항해를 할 수 없는 원인은 교체되었군.
- ⑤ ㉗와 ㉜ 모두 배를 떠날 사람을 결정하는 방식이 제시되어 있는데, ㉗에서 이름을 적은 사물을 물에 던지는 행위는 ㉜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교체되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력저력 3년이 지났을 때, 유생은 여승으로 변장하고 서해에 배를 띄워 대양(大洋)을 방황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푸른 산들이 첩첩이 물 위에 솟아 있고 천봉만학이 봉우리마다 기이한 어느 곳에 이르렀다. 마침 달빛마저 넓게 비추고 있어 그야말로 경개(景概)가 절승한 곳이었다.

유생이 배에서 내려 점점 깊이 들어가 보니 인가(人家)는 없고 산수 경치가 더욱 맑고 수려하였다. 마음속으로 감탄하고 칭찬하며 10여 리를 더 들어가니 거기에 큰 섬이 있었다. 섬에는 평평하고 넓은 벌판이 펼쳐져 있었고 푸릇푸릇한 경치 사이로 호화로운 인가가 10여 호 자리 잡고 있었다. 게다가 섬 앞으로 15리나 되는 큰 강이 가로막혀 있었으니 깊숙하고 한가한 풍치를 비할 데가 없었다. 이에 유생이 반드시 은인(隱人)이나 도사가 사는 곳이라 생각하여 찾아가 보기로 하였다.

그 섬에 들어가 유생이 흰옷을 단정하게 입고 샓갓을 바로 쓰고 바란을 메고 죽장을 짊고서 양식을 구하니,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이렇게 깊은 곳에 스님이 찾아오는 것도 뜻밖의 일로되 저렇게 아름다운 여승은 더욱 처음이로다.”

이에 유생이 대답하였다.

“소승은 금산사 뒤 암자에 있는 여승이온데, 이곳의 아름다운 산과 바다 같은 강을 구경하려고 여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무어라 부릅니까? 청컨대 가르쳐 주옵소서.”

마을 사람들이 여승의 미모를 부러워하고 감탄하면서 말하였다.

“이곳은 서해무릉이라는 곳ियो. 꽃이 피어서야 봄인 줄 알고 단풍이 들고 나뭇잎이 떨어져야 가을인 줄 알지요.”

이렇게 말하며 다투어 양식을 주는 사람이 많아 바란이 무거워 뭇 수 없을 지경이었다. 유생이 이에 이곳 인심이 순박하고 후덕함을 알고 다시 큰 누각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최 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하느님을 향하여 길게 탄식하며 지냈고, 자나 깨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런데 이날 밤, 비몽사몽 사이에 한 노승이 나타나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의 부처로다. 네 지아비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하여 너희 두 사람을 도와주러 왔노라. 내일 오시(午時)에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이 바로 유생이니, 이제 서로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최 씨가 반가워하며 사례하고자 할 때 문득 ㅁ에서 깨어났다. 최 씨는 한날 꿈속의 헛된 일인 듯 여겨져 몸과 마음이 모두 어지럽고 뒤숭숭한 가운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정오 무렵 계선이 밖으로부터 쫓아 들어오면서 말하였다.

“장지문 밖에 한 여승이 와서 양식을 청하옵는데, 그토록 아리따운 미모와 옥 같은 얼굴 영롱한 풍모를 저는 처음 보았습니다. 청수하고 단아한 자태가 마치 우리 아가씨와 방불하였습니다.”

최 씨가 다 듣고는 어제 꿈속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놀라워하고 있었는데, 계선이 은근히 권하며 말하였다.

“여승은 내당에 들어와도 괜찮으니 아가씨께서 한번 보신들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최 씨가 이곳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蓮步)를 옮김이 없었는데, 이날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에 계선이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계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 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옷을 입은 여승이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연히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샷샷 밑에 옥 같은 얼굴을 한 여승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지아비 유연이었다.

최 씨가 보니 낮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머리를 깎고 중이 되는 부끄러움도 무릅쓰고 허다한 풍상과 천신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었으니, 최 씨의 심정이 오죽하였겠는가?

[중략 부분 줄거리] 유생은 최 씨를 따라갔다가 최 씨를 납치해 간 장군과 우연히 마주치고, 장군은 여승을 수상히 여겨 멀리 내쫓는다.

이때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 나와 원촌(遠村)에 숨어서 오직 깊은 산과 은밀한 곳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부처님이 도우시고 하늘이 가르쳐 주어 물을 따라가다가 바람이 통하는 굴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굴은 밖으로 통하는 구멍이 작았지만 그 안은 몇 사람이 머물 수 있을 만큼 넓었다. 유생이 크게 기뻐하며 여기에 머물러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 온 양식으로 연명하며 었드려 지냈다.

마침 그곳은 장군의 집 뒷산이었다. 유생이 이곳에 머무르며 낮에는 바위 구멍에 숨어 지내다 밤이 되기를 기다려 인적이 끊기는 야삼경에 장원 밖에 와서 두루 살펴보았으나 실로 들어갈 곳이 없었다. 여러 날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책이 없자 유생도 어찌할 바를 몰라 장탄식이 밤낮으로 끊어질 때가 없었다.

이때 최 씨는 식음을 전폐하고 항상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고 슬피 울기를 그치지 못하였는데, 하루는 정 부인이 최 씨를 불러 달래며 말하였다.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사이 제 자식이 오히려 소저를 핍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 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A]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는 일일 것입니다. 이제 택일하여 조만간 혼례를 치를 것이니 모름지기 소저는 고집하지 마십시오.”

최 씨가 다 듣고는 너무 놀라고 치욕스러워 곧바로 맑은 물에 귀를 씻으려 하였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최 씨가 대답하여 말하였다.

“저의 신세가 이러하니 더욱 죽는 것이 마땅하옵니다. 어찌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말을 마치자마자 붉은 치마를 떨치고 일어나 거처로 돌아가니, 정 부인이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

장군은 핍박하여 혼례를 치를 뜻이 다급하여 혼삿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음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신이 초조하여 빨리 죽고자 할 뿐이었다. 그러나 유생의 정성을 생각하니 차마 죽을 수가 없어서 숨죽여 오열하며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부자리에 기대어 잠깐 졸다가 한 꿈을 꾸었는데, 어떤 여승이 앞에 다가와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금산사 부처로다. 네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돕노라. 지금 장원 밖에 유생이 와 있
[B] 으니 바빠 나가 달아날 기약을 정하여라.”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놀라 깨어 보니 잠결에 꾸 한바탕 꿈이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부처님이 꿈에 지시한 것이 헛된 적이 없었으니 어찌 믿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러고는 장원을 향하여 축원을 올리며 말하였다.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유생과 저의 쇠잔한 목숨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때 마침 유생이 담장 안의 동정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가 하늘에 애원하는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하여 여기에 답하여 말하였다.

“낭자가 옛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 주십시오.”

최 씨가 이렇게 답하는 말을 들어 보니, 너무나도 분명한 유생의 목소리였다. 그 신기하고 반가움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으리오.

— 작자 미상, 『서해무릉기』

[26001-0108]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유생은 섬의 마을 사람들로부터 섬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양식을 얻었다.
- ② 계선은 최 씨가 나갈 결심을 하자 여승이 있는 곳으로 최 씨를 안내하였다.
- ③ 최 씨는 오랜만에 만난 유생의 모습이 초췌한 것을 보고 자신을 탓하였다.
- ④ 정 부인은 자신의 말에 대한 최 씨의 반응을 보고 걱정을 내려놓았다.
- ⑤ 최 씨는 하늘에 유생과 자신의 목숨을 구해 달라는 소망을 빌었다.

[26001-0109]

0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상대의 과거 행적을 밝히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의 미래 상황을 암시하며 상대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상대의 정체를 추론하며 자신이 느낀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상대에게 느낀 측은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상대가 저지른 행위를 언급하며 이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상대가 자신의 안위를 돌봐 준 일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상대가 처한 상황을 환기하며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자신이 상대에게 하는 행위의 이유를 밝히며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자신과 상대의 관계를 언급하며 상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가 자신에게 한 일을 언급하며 상대의 태도가 변하길 촉구하고 있다.

[26001-0110]

03

꿈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최 씨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계기이다.
- ② 최 씨가 계선이 하는 말에 따라 행동하게 되는 계기이다.
- ③ 최 씨가 밤낮으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게 되는 계기이다.
- ④ 최 씨가 계선에게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게 되는 계기이다.
- ⑤ 최 씨의 마음이 불안감에서 안도감으로 전환되는 계기이다.

[26001-0111]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서해무릉기」는 남녀 간의 혼사 성취 과정이 중심을 이루는 작품으로, 혼사를 전후로 해서 나타나는 장애를 극복하고 남녀가 다시 결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작품에는 남녀가 인척 관계라는 점과, 혼사를 방해하는 제삼자로 인해 혼사 장애가 나타난다. 이때 주인공은 신부를 찾아다니며 재회를 통해 완전한 혼사라는 애정의 성취를 이루고자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삼자와 대결하며 시련을 겪는다. 주인공의 고난 극복 과정에는 비현실적 조력자가 관여하는데, 이는 주인공의 애정이 성취되는 데 정당성을 부여한다.

- ① 유생이 배를 띄워 대양을 방황하다가 큰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은 납치당한 신부를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신랑의 여정을 보여 주는군.
- ② 최 씨가 금산사 부처의 말을 듣고 만난 여승은 남녀 주인공에게 도움을 주는 비현실적 조력자로서 유생이 애정을 이루는 데 정당성을 부여하는군.
- ③ 유생이 굴에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 온 양식으로 연명하는 것은 주인공이 신부를 납치한 대상과의 대결 구도에서 열세에 놓여 있음을 보여 주는군.
- ④ 장군이 혼례를 치를 뜻이 다급한 상황에서 최 씨가 죽고자 하는 것은 남녀 주인공 간의 애정이 성취되는 데 있어 혼사 장애가 발생했음을 보여 주는군.
- ⑤ 유생이 담장 안을 살피고 있다가 최 씨의 목소리를 들은 후 재회에 대해 언급하며 응답하는 것은 주인공이 완전한 혼사를 이루게 되는 과정과 관련되는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위윤, 위진, 위준 삼 형제는 각각 반 씨, 채 씨, 맹 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만며느리 반 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는 반 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시어머니 양 씨는 반 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다.

채 씨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 양 부인에게 하직하고 맹 씨와 더불어 서로 이별할새, 채 씨 왈,
“이제는 그대도 외로운지라. 반 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리오. 필경은 잔명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빨리 본
부로 돌아가 있음이 가하리로다.”

맹 씨 탄식 대 왈,

“첩도 미상불* 그러하올 줄 아오되, 존고*께서 아직 있으라 하시니 임의로 못 하거니와, 얼마나 오래 견
딜 수 있을꼬.”

하고, 서로 눈물을 뿌려 이별하고 돌아가니라.

차설, 채 씨는 본부에 돌아와 부모 슬하에 배알하고 그간 존후를 묻자오니, 부모와 집안 전체가 대경하여
그 연고를 물으니, 채 씨가 눈물을 머금어 양 씨가 반 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히 내쳐짐을 이르니, 채영 부부
와 부자가 절치부심하여 설분하기를 꾀하더라.

차시에 채 씨의 부친은 좌승상 채영이니,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에 으뜸일러라. 일찍 아들 일곱이
있어 다 입조하여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고 천자가 승상의 부자를 총애하사 은권이 조정에 따를 이 없더라.

차시에 채 승상이 딸의 말을 듣고 대로 왈,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문호에 욕
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오.”

하고,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주달하니, 차시 위 시랑이 경사에 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 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일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이 위윤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돋우어 예부 상서를 시키시니, 위 상서가 천문에 숙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
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 씨의 종형 직금랑 반희가 궐중
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 상서를 보고 예필 후 이르되,

┌ “금일 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과를 고달하되, ‘숙부가 병부 상서
[A] 로 성총을 가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기군망상*한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위윤과 반
└ 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이다.’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니이까.”

상서가 양천 탄 왈,

“이는 간인이 있어 모해함이라. 그러나 어찌 기군이라 하시고, 이제 그저 있지 못하리니 궐하에 대죄하리라.”
희 왈, / “들으니 형이 채가와 불화가 있다 하더라.”

하거늘, 상서가 탄식하고 궐하에 나아가니, 반희가 참연하여 하더라.

상이 상소를 보시고 대로 왈,

┌ “짐이 어찌 사람을 그릇 쓰리오. 위윤은 청렴 강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예라 짐이 수족을 삼았더니,
[B] └ 이제 참언이 여차하니 가장 통해하도다*.”

채영이 주 왈,

“위윤과 반옥은 일대 소인이라. 두렵건데 후환이 있을까 하나이다.”

제신이 다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상고묵묵*이라. 상이 위·반 이 인을 아끼시나 조신 중 일인도 변백* 치 못하는지라, 할 수 없어 위윤은 장사에 원찬하고*, 반옥은 강동에 정배하시고 탄식해 마지아니하더라.

(중략)

화설, 채 씨는 홍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반 씨가 삼 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히 알았더니, 원래 이같이 음일*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빠 처치하소서.”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창두 이십여 인을 보내어 반 씨 모자를 죽이려 할새, 이에 분부 왈,

“너희는 반 씨의 여막에 가 불을 놓고 반 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중상하리라.”

하니, 창두가 저마다 용약하여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 씨는 정히 혼미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일위 부인이 대호 왈,

“미구에 액이 당도하였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

반 씨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또 들으니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가히 먼치 못하리라.”

반 씨 대경하여 급히 홍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홍이 놀라 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바빠 피하사이다.”

하고, 모친을 붙들어 한 뒀을 넘어가 부인을 바위틈에 앉히고 뒀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 왈,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보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 이곳에 있지 못할지니 멀리 가사이다.”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문 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데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하느뇨.”

홍이 대 왈, /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 왈, /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 주며 왈, /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홍의 모자가 받아먹으매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 정히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 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더니, 양 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홍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사례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 “친정이 비록 서로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에 들어가리오.”

홍이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를 찾아 나아가니, 유 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기며 홍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함을 보고 반기는 중, 반 공과 위 상서가 원찬됨이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 작자 미상, 「반씨전」

*미상불: 아닌 게 아니라 과연

*기군망상: 임금을 속임.

*상고묵묵: 서로 돌아보며 아무 말 없이 잠잠함.

*원찬하다: 먼 곳으로 귀양 보내다.

*존고: '시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통해하다: 몹시 이상스러워 놀란다.

*변백: 옳고 그름을 가려 시리를 밝힘.

*음일: 마음껏 음탕하게 놀.

[26001-0112]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 씨는 친절으로 가면서 맹 씨도 시댁을 벗어나 있을 것을 권하였다.
- ② 제신들은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천자에게 아무런 말을 하지 못했다.
- ③ 상은 위윤과 반옥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으나 어쩔 수 없이 유배를 보냈다.
- ④ 채 씨는 위진에게 홍이 여막에서 공부한다는 것을 듣고 반 씨 모자를 해할 계획을 세웠다.
- ⑤ 반 씨는 내키지 않았지만 홍과 함께 친정을 찾아가 유 부인을 만나 서로 마음을 나누었다.

[26001-0113]

02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에서는 모두 인물이 자신이 겪은 일의 결과를 제시하며 그 원인을 짐작하고 있다.
- ② [A]와 [B]에서는 모두 인물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추측하여 공감하고 있다.
- ③ [A]에서는 [B]와 달리 인물이 상대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자신이 들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B]에서는 [A]와 달리 인물이 상대방에 대한 세간의 평판을 기준으로 하여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있다.
- ⑤ [B]에서는 [A]와 달리 인물이 부정적 평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26001-0114]

03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반 씨에게 한 말을 ㉡가 한 번 더 반복하여 반 씨 모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다.
- ② ㉠와 나눈 대화에서 풀리지 않았던 반 씨의 의문이 ㉡를 만나고 난 후에 해소하게 된다.
- ③ 반 씨 모자는 ㉠가 알려 준 문제의 원인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 ④ 반 씨 모자는 ㉠의 도움으로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고 이후 또 다른 조력자인 ㉡를 만나게 된다.
- ⑤ ㉠가 반 씨 모자를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 세계로 이동시킨 결과 ㉡를 만나 서사의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

[26001-0115]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고전 소설의 음모 모티프는 ‘악인의 음모, 선인의 위기, 고난의 극복, 권선징악의 결말’이라는 일정한 서사 구조를 따른다. 「반씨전」은 이러한 음모 모티프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갈등의 중심축이 동서 간의 대립이라는 점이 특징적이다. 집안 내 동서 간의 갈등은 필연적으로 형제간의 대립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가문 간의 갈등으로 확장된다. 이 과정에서 인물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연대하거나 개인적 친분과 권력을 이용해 상대를 위기에 몰아넣는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선인들은 초현실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악인의 계략에서 벗어나고 이후 악인과의 대결에서 승리한다. 이러한 결말은 악인의 변화보다는 권선징악의 실현에 초점을 두어,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바람직한 가치관을 제시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 ① 채 씨와 맹 씨가 ‘반 씨의 참소’를 건넌다고 생각하며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통해 반 씨와 두 동서의 대립 상황을 알 수 있군.
- ② 채 씨가 반 씨의 가족을 위기에 몰아넣기 위해 본부에 돌아가 ‘권세가 일세에 으뜸’인 아버지 채영으로 하여금 상소를 올리게 하는 것은 악인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개인적 친분과 권력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상이 채영의 상소에 대해 ‘조신 중 일인도 변백치 못하’는 상황을 탄식하며 위윤과 반옥을 유배 보내는 것을 통해 권선징악의 실현이라는 주제를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를 알 수 있군.
- ④ 채 씨가 남편인 위진에게 반 씨에 대해 ‘음일한 행사가 낭자하’다고 모해하는 말을 하는 것을 통해 동서 간의 갈등이 형제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위진이 ‘반 씨 모자를 죽이려’고 여막에 불을 질렀으나 결과적으로 흥이 죽지 않고 모친과 함께 ‘외가 반부를 찾아’가 유 부인을 만나게 된 것은 선인이 고난을 극복하는 음모 모티프의 서사 구조를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 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 용홍과 용창을 얻는다. 대원수의 기질을 가진 용홍과 승상의 기품을 가진 용창이 각각 금가락지와 은가락지의 인연과 이어질 것이란 예언을 들은 조 공은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채임과 정혼시킨다. 이후 채임의 부친 정 참정이 계모의 모함만 믿고 채임을 다른 곳에 시집보내려 하자, 채임은 시녀들과 함께 남북을 하고 도망치다가 나쁜 이들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진다. 그 근처를 지나가던 용홍과 용창은 우연히 이들을 구한다.

용홍과 용창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던 두 명의 서동을 불러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물었다.

“우리는 서울로 가던 길인데 너희 등 노비와 주인 세 명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매우 놀라서 구하였다. 너희와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과 의복이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다. 무슨 까닭으로 떠돌아다니느냐? 실상을 속이지 마라. 우리들은 결단코 너희에게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춘앵과 벽란]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몸을 물에서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묻는 것을 들으니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들어 두 공자를 보았다. 풍채가 시원하고 깨끗하며 골격이 비상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별 같은 눈과 누에가 누워 있는 듯한 두 눈썹으로 인간 세상에서 뛰어났다. 반악(潘岳)*의 고움과 위개(衛玠)*의 미려함을 비웃는 듯하였다. 춘앵과 벽란이 크게 마음속 깊이 존경하며 복종하고 두 공자의 선함을 칭찬하였다. 벽란 등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죽은 몸을 건져 내어 살려 주고 근본을 물으며 저 상공이 남녀를 자세히 구별할 줄 알고 하물며 우리 노비와 주인을 살려 내어 다시 살려 준 은혜가 매우 크다. 두 공자의 어진 덕이 눈빛에 나타나니 의연히 성인군자구나.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이 아니니 우리 소저의 슬픈 한을 바르게 고하여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공경히 받들어 사례하며 말하였다.

“천인(賤人)들은 민가의 시비이고 남자는 아닙니다. 우리 소저께서 태평성대에 액경(厄境)*이 남달리 심하여 남자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서 타인을 대하여 근본을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옵니다. 강도의 흉악한 자취가 목전에 급하여 천금 같은 몸을 강물에 던져 속절없이 노비와 주인이 물고기의 배를 채울 뻔했는데, 상공의 자비하고 어진 마음을 만나게 되었고 상공의 살려 주신 은혜는 태산 같습니다. 감히 문사온데 상공의 존귀한 성과 커다란 이름을 알고 난 후에 저희들의 지극한 원통함을 다 고하고자 합니다. 원컨대 귀댁의 시비 항렬에 들어가 은덕을 만분지일이나 갚고자 합니다.”

두 공자는 두 사람의 언사가 민첩하고 재능이 세상을 뒤덮을 충의를 지닌 시비임을 보고 민가의 시비가 식견이 원대함을 계속해서 칭찬하며 말하였다.

“너희들이 주인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가히 기특하다. 우리는 조 상국 자제로 선영(先塋)에 절사(節祀)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들이 서울 사람이면 조 상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벽란 등이 다 듣고 난 후에 이 사람이 자기 소저가 정혼하고 빙폐*를 받은 조 공자 형제라는 사실이 요행스러웠으며 기특하고 다행스럽다고 생각하였으나 소저의 뜻을 몰라 아뢰었다.

“천인이 무식하여 주인의 휘자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소저께 물어서 자세히 아뢰겠습니다.”

그런 후에 선창 안에 들어가 소저께 조 공자와 문답한 일을 일일이 고하였다. 소저가 매우 놀라며 말하였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 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였다. 뜻밖에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은인의 덕이 산과 바다 같으나 차마 근본을 아뢰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향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조 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 준 은혜에 몸소 사례하지 못함을 아뢰어라.”

벽란과 춘앵이 굳이 근본을 이르지 말라는 소저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여 말하였다.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 공자를 만났으나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년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 조 공자가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이에 조 공자의 안전에 나가 말하였다.

“우리 소저께서는 타향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 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희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저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사례치 못함을 아뢰라 하셨습니다.”

조 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일을 처리할까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주저하고 있었다.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말하였다.

“소저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고하지 못하여 이리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나 사실대로 고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더욱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저희의 주인은 정 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 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저가 본택으로 돌아오신 후에 가내에 어질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 참정을 보치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는 소저를 정 참정 부인의 사촌인 박수관의 후실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저가 외가로 가시고자 하나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 공과 더불어 큰 사달을 일으키실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소저께서는 남장으로 바꿔 입고 소저의 고모이신 강가의 이 평장 부인을 찾아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평장 부인이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에서 방황하시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저께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상공께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 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 사람이 살아나니 이 은덕은 분골쇄신하더라도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두 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함은 말할 것도 없고 정 소저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은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그 계모 박 씨가 자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측은하였다. 정 소저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에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용홍 공자의 두 눈에는 가을 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리었다. 용홍이 말하였다.

“소저의 수많은 고초와 슬픈 한이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저를 보호하라.”

이에 둘째 공자와 의논하고 본부의 강정이 여기서 멀지 않은 까닭에 한 대의 교자를 세내어 소저를 태우고 강정에 이르렀다. 여러 명의 노복이 서서 정 소저를 지켰으며 안채에서는 두 명의 시비가 지키고 가늘고 길게 누에고치를 쳐서 길쌈하여 정 소저에게 올렸다.

두 공자는 정 소저의 근본을 모르는 체하고 강정에 잠깐 몸을 숨길 것을 청하였다. 소저는 이 지경에 이르러 몸을 숨길 곳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벽란 등이 자기 근본을 밝히고 믿음직스럽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보호함을 모르고 있었다. 소저는 두 공자가 종내 살 도리를 이끌어 주는 것에 감사해하고 설움을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며 강정에 이르렀다.

두 공자가 종에게 명령하여 깊고 안전한 처소를 치우고 정리하여 소저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아침저녁의 음식을 각별히 조심해서 올리라고 말하였다. 또한 포진(鋪陳)과 병풍과 장막을 정결히 하여 정 소저를 머무르게 하고 집 안팎의 비복에게 엄하게 당부하여 이곳에 소저가 있다는 것을 누설치 말라고 하였다. 춘앵 등에게 당부하여 자신의 처치를 기다리라고 하고 또 소저에게 말을 붙였다.

“소생이 비록 소저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소저의 재앙이 대단합니다. 마침 제게 누추한 집이 있고 종이 안팎으로 많으니 안심하고 화를 피할 곳입니다. 가볍게 몸을 물에 던지지 마십시오. 저의 아버지께서 평생 적선(積善)을 일삼으시니 돌아가 아뢰어 혹시라도 소저께 유익함이 있을까 합니다.”

말을 마치고 형제가 말 머리를 나란히 하여 도성으로 향하면서 다시 소저 보기를 청하지 아니하고 표연히 떠났다. 벽란 등은 탄복하고 기뻐하였으나 소저는 자기 형세가 이 지경까지 미쳐서 외간 남자를 상대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 물에서 건져져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니 심신이 놀라 달아날 것 같았다. 그러나 요행히도 그 남자가 조 공자여서 몸을 절간에 의탁하고 평생을 마치며 조 공자의 은혜를 생각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얼음과 옥같이 깨끗한 마음에 이렇듯이 자신의 운수가 두루 기이하고 괴이함을 슬퍼하며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소저는 깊이 집 안에 있으면서 아침저녁의 음식 걱정이 없고 욕됨이 없었다. 두 명의 시비와 더불어 조생의 의기를 감탄하였으나 두 공자가 자기 근본을 들은 줄은 조금도 알지 못했다.

— 작자 미상, 「현몽쌍룡기」

※반약: 서진(西晉)의 문학가. 어릴 때부터 신동(神童)이라 불렸고, 용모가 준수하였음.

※위개: 진(晉)나라 안읍(安邑)의 사람으로, 뛰어난 외모와 수려한 인품으로 알려짐.

※액경: 모질고 사나운 운수의 고비.

※빙폐: 혼례를 올릴 때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보내는 예물.

[26001-0116]

01

윗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 공자 형제가 정 소저 일행을 구하는 상황은, 하늘이 정해 둔 두 남녀의 연분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군.
- ② 정 소저 일행이 남장을 하고 있었던 것은, 조 공자 형제가 정 소저 일행의 사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군.
- ③ 조 공자 형제가 자신이 조 상국의 자제임을 먼저 밝힌 것은, 정 소저 일행의 경계심을 낮추어 다음 사건으로의 진행을 돕고 있군.
- ④ 정 소저 일행이 정 소저의 과거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정 소저에 대한 조 공자의 신뢰를 높여 두 사람의 인연이 이어지는 데 도움을 주고 있군.
- ⑤ 조 공자 형제가 비복들에게 정 소저가 있다는 것을 누설치 말라고 명령한 것은, 허락도 없이 인연을 만난 것을 감추기 위한 행동으로 부모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군.

[26001-0117]

02

〈보기〉와 윗글의 사건 전개 양상을 바탕으로 작품의 특징을 파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가문 소설은 특정 가문을 중심으로 가문의 성쇠(盛衰)와 인물들의 행적을 그리며, 구성원들을 둘러싼 다양한 갈등을 다룬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장자 승계권을 둘러싼 형제 사이의 갈등, 남녀의 결연 과정과 관련된 혼사 장애 갈등, 부부간의 애정을 파고드는 처첩 간의 갈등,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가문 소설은 대체로 유교적 신분론과 가문의 질서, 기존의 윤리관을 강조하면서 가문의 융성과 화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가문의 일원이 될 여성들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자료로서 교훈적 성격이 부각되기도 했지만, 대중 소설로서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 ① 조 공자와 정 소저의 결연 과정에서 정 참정과 계모로 인한 혼사 장애 갈등과 그 극복 과정을 드러내면서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작품이군.
- ② 장자 승계권을 얻기 위해 용홍과 용창이 서로 갈등하면서 자신을 따르는 시비와 비복들을 규합하는 과정을 보여 주어 흥미와 긴박감을 부각하는 작품이군.
- ③ 계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죽을 고비에 처한 정 소저 일행을 구명하는 상황을 통해 가문의 여인들이 기존의 윤리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한 작품이군.
- ④ 결연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한 조 공자와 정 소저가 부모의 도움으로 애정을 회복하는 과정을 제시하여 가문의 융성과 화합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는 작품이군.
- ⑤ 정체를 감춘 미모의 여인이 등장하여 용홍과 용창의 갈등이 촉발되는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 가문의 위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제시함으로써 대중의 흥미를 끌고 있는 작품이군.

[26001-0118]

03

〈춘앵과 벽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 소저의 시비로, 두 공자의 선함을 알아차리고 자기 주인이 처한 위급한 상황을 고하였다.
- ② 정 소저가 조 상국의 자제와 정혼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자신들을 구한 이가 조 공자 형제임을 다행으로 여겼다.
- ③ 조 공자 형제에게 정 소저의 신분을 털어놓기 전에 먼저 정 소저의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④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에 정 소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동하였다.
- ⑤ 정 소저와 자신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고 정 소저가 위기를 겪게 된 과정을 조 공자 형제에게 전달하였다.

[26001-0119]

04

〈보기〉의 ‘정보의 격차’와 관련지어, 뒷글을 읽은 독자들의 반응을 파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소설 속 인물들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일부러 숨기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거나 속마음을 감추고 상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을 때, 인물 간에 ‘정보의 격차’가 발생한다. ‘정보의 격차’는 소설 속 인물들이 서로를 오해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이유가 된다. 한편 독자들은 감춰진 진실을 소설 속 인물보다 먼저 알게 되는데, 이때 독자들은 이후 사건의 진행에 더 큰 흥미를 가지게 된다. 독자들은 인물이 감추려고 하는 바에 집중하며 인물의 성격을 파악하기도 하고, 인물 간의 정보의 격차가 만들어 내는 이후 사건을 예측하면서 긴장감을 느끼거나, 예상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 때 답답함을 느끼기도 한다. 또한 감춰져 있던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사건 진행에 집중하게 된다.

- ① 정 소저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정혼한 상대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데, 이를 통해 독자들은 정 소저가 집안의 허물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② 춘앵과 벽란은 조 공자 형제에게 진실을 털어놓고 나서 정 소저에게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는데,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독자들은 정 소저의 이후 선택에 대해 답답함을 느낄 수 있다.
- ③ 두 공자는 정 소저의 사정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소저의 사정을 알지 못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독자들은 정 소저가 진실을 알게 되는 과정을 상상하며 새로운 흥미를 느낄 수 있다.
- ④ 정 소저는 자신의 몸을 절간에 의탁할 것이라는 계획을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있는데, 이러한 정보는 앞으로 두 공자와 헤어지는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독자들을 작품에 집중시킨다.
- ⑤ 정 참정은 집안의 어른인 석공 몰래 정 소저를 박수관에게 시집보내려 하는데,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해 고모인 이 평장 부인을 찾아가려 했던 정 소저의 상황이 독자들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로 그날 단기(單騎)로 길을 떠났는데, 다만 첨두노(尖頭奴)* 몇 명만 데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다. 열흘이 채 못 되어 적의 성채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에 번쩍이며 세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내가 기(氣)를 돋우어 입술을 벌리고 한 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적은 용기를 잃었고, 두 번 불었더니 만 명의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났다. 휘파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가리었고, 난새와 봉황이 엇갈리어 날았으며, 바다와 산이 변색하고 천지가 떨리고 흔들렸다. 몇 되지 않은 모든 반적들은 바람에 쓰러지듯이 달아나고 흩어졌다. 적장 김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하며 말했다.

“뜻밖에 문단의 노장 심 공께서 오셨구려!”

나는 노포*를 걸고 개선가를 불렀다.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셨으며, 좌우를 돌아보며,

“옛날에 긴 휘파람으로 오랑캐의 기병을 물리친 일이 있었거늘, 이제 경에게서 그것을 보았노라.”

하고는, 배식사문 경륜일시 진국공신의 호를 내리게 하고, 안동백에 봉했으며, 몇만의 큰 상을 내리시고 김시습을 폐하여 좌선(坐禪)을 삼았다.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더욱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들어오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벼슬한 지 10년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길러 문벌이 빛났으며,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이 넘쳤다. 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내고 보기를 청탁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번이

“신하 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읍하고 사양했다. 조정에는 있는 백집사들은 음풍농월이나 하며 사치가 몸에 배었으므로,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은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었을 뿐이다. 나는 늘 우승상 이규보를 허물하여 대궐에 가서 향소하기를

“이 아무개는 문장이 경솔부박(輕率浮薄)*하며 나약하고 뼈대가 없어, 비록 귀신처럼 날래지만 귀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천자께서 그 아뢰는 것이 옳다 하여 나에게 오거서(五車書)를 내리고 영경연사로 특진을 시키시었다.

벽부의 가운데뜰에는 옥탑이 우뚝 솟아 있는데 깎고 새겨서 만들었다. 높이가 백 층이며 ‘사단’이란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종자가 이것을 가리켜 말했다.

“이 단은 태산처럼 숭고하며 바위나 돌, 나무가 없어 비록 원숭이같이 날랜 것이라도 올라갈 수가 없는데 하물며 사람의 힘이 미치겠습니까?”

서리가 말했다.

“단 위에 옥루가 있는데 조정 안의 재사들이 때로 서로 왕래하며 함께 모여 잔치하며 놀입니다.”

하루는 천자께서 조회를 마치고 나서 문득 두 선녀가 난새와 학이 끄는 수레를 타고 나타나더니, 각자 조문희와 사자연이라고 말하면서 바로 황제가 계신 곳으로 가서 말했다.

“대당 천자이신 두보가 친구 이백을 붙잡아서 [사단]에 모였습니다. 멀리서 생황과 통소 소리를 듣고 탑 위로부터 왔습니다.”

우리 천자가 깊은 궁궐로부터 나와 조용히 손을 맞잡고 활보하며 단을 향해 날아오르기를 구름같이 하였

다. 삼정승과 신하 몇 명이 겨우 중간층에 이르렀으나 다리가 떨려 두려워서 엎드려 한 사람도 시종을 하지 못했다. 내려다보니 한 이서가 문사로 배우의 희롱하는 말을 지어 바지를 치켜들고 억지로 살금살금 걸었지만, 첫 번째 층에도 이르지 못하고 땅에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 보던 사람들이 무릎을 치고 나아가 물었더니 사문 이숙함이었다. 천자께서는 며칠을 머물면서 매우 즐기다가 옥지를 내리고 말씀하셨다.

“내가 이하(李賀)*를 보고 「옥루기(玉樓記)」를 외우게 하고 왕희지가 쓴 글씨를 벽에 걸게 하였노라.”
하시고는 크게 탄식하며 말씀하셨다.

“두 천자는 문장으로 3백 편의 유작이 있고, 따르는 신하와 재자(才子)로는 한유, 유종원, 소식, 황정견 등의 뛰어난 인물들이 있어 짐이 감히 당할 수가 없다. 하물며 짐의 여러 신하 중 한 사람이라도 이들과 같이 재능이 있는 자가 있는가?”

며칠이 지나 낮 시강을 마치고, 천자께서 정색을 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글 하나를 보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림 선생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문이었다.

“심 모는 속세의 허물을 벗지 못하여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께서는

“한때의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두리오!”

하고 대관 선생이라는 호를 내리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나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초목의 산하*를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소. 경의 첩인 옥란은 다시 집안 살림을 맡게 되어 내 명을 기다리게 되었소.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머리를 섬돌에 부딪치고 하직하였는데, 눈물이 옷을 적시었다. 집안 식구를 돌아보아 생각하니 차마 서로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있으니 상국 이색이 등을 쓰다듬으며 협실로 피어 들어서 나를 난초 탕에 목욕시키고는 금 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갈아 놓은 먹물 몇 말을 들어부으며 말했다.

“40여 년을 기다리면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 갑자기 깨니,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올랐고,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

아! 사람이 세상에 나서 궁달*은 팔자소관이니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괴이쩍은 이야기를 드러내어 꿈에 겪었던 일을 적는다.

가정 8년 12월 상한에 심의는 대관재에서 쓰다.

— 심의, 「대관재몽유록」

*첨두노: 붓의 별칭.

*노포: 장대에 매달아 전승(戰勝)을 보도하는 표시.

*경술부박: 경솔하고 천박함.

*이하: 요절한 당나라의 천재 시인

*초목의 산하: 공자가 편찬한 「시경」의 영역을 비유적으로 일컬음으로써 「시경」이 시가의 표본임을 누구나 인정하는 그 권위를 말함.

*궁달: 가난과 부귀.

[26001-0120]

01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김시습이 일으킨 반란을 지략과 용병술로 평정한 일을 계기로 문벌을 이룬다.
- ② ‘나’는 천자의 신임으로 공신이 된 후에도 빈궁한 삶을 이어 가며 청렴함을 유지한다.
- ③ ‘나’는 높은 관리들이 개인적인 만남을 요청하면 바쁜 와중에도 최대한 만나 주려고 노력한다.
- ④ 천자는 다른 신하에 대한 ‘나’의 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나’에게 응분의 보상을 제공한다.
- ⑤ 천자는 ‘나’에게 불쾌함을 느끼고는 한림 선생에게 ‘나’를 탄핵하도록 부추겨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게 한다.

[26001-0121]

02

사단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타국의 옛 인물들과 어울릴 수 있는 환상성을 지니는 공간이다.
- ② 천자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올라가 유흥을 즐기는 공간이다.
- ③ 지체 높은 사대부들마저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한계를 느끼는 공간이다.
- ④ 천자의 요구에 따라 주인공이 문장에 관한 재능을 드러내고 만족하는 공간이다.
- ⑤ 천자가 자신과 두 천자의 처지를 비교하여 부족함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공간이다.

[26001-0122]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몽유록은 현실 세계의 주인공이 꿈을 통해 이계(異界)로 들어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로 되돌아온다는 ‘현실 세계-이계-현실 세계’의 환몽 구조를 취하는 이야기이다. 현실 세계는 이계에 들어가기 이전과 그곳에서 돌아온 이후에 주인공 자신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시·공간이며, 꿈의 세계는 몽유자가 다수의 인물을 만나 환상적인 사건을 체험하는 시·공간이다. 몽유록은 서사 구조상 특유의 문학적 장치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령 꿈속으로 진입할 때와 꿈에서 깨어날 때의 계기나 꿈속 세상과 꿈 밖의 세상을 연결해 주는 증거를 설정해 두는 것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 ① 주인공이 ‘휘파람을 불’어 적병을 물리치고 상상의 동물인 ‘난새와 봉황이’ 나는 광경을 목격하는 이계의 환상 체험이 나타난다.
- ② ‘머리를 섬돌에 부딪치고 하직하’고 난 주인공이 ‘돌아보아 생각’한 ‘집안 식구’는 현실로 되돌아가서 재회하게 될 인물을 가리킨다.
- ③ 주인공이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서 갑자기 잠에서 깨어난 것은 몽유자를 꿈에서 현실로 돌아오게 하는 문학적 장치로 사용된다.
- ④ 꿈을 깬 후 주인공의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오른 것은 이색이 ‘먹물 몇 말을 들어부’은 결과로서 꿈속 세상과 꿈 밖 세상이 연결된 증거에 해당한다.
- ⑤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하는 상황은 주인공이 이계에 서 돌아온 후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현실 세계의 시·공간에 속한다.

[26001-0123]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심익은 문장에 뛰어나고 정치적 포부가 컸으나 사림파의 탄핵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벼슬길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인물이다. 그는 자신이 바라던 문장 중심의 이상 세계를 「대관재몽유록」을 통해 드러내고자 했다. 그러나 그 이상적 공간은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면서도 적대 세력과 동조 세력이 공존하여 시기와 참소를 비롯한 권력의 대립과 암투가 벌어지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심익이 상상 속의 공간조차 불완전한 모습으로 설정한 것은 현실 세계의 부정적인 모습을 작품에 반영함으로써 자신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자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 ① 전쟁에서 승리하여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내린 상을 받은 ‘나’의 모습에는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보상을 받고 싶은 작가의 바람이 담겨 있겠군.
- ② ‘임금의 총애’를 크게 받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나’의 모습은 심익이 현실에서 가졌던 정치적 포부가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이규보의 허물을 지적하며 ‘문장이 경솔부박하며 나약하고 뼈대가 없’는 것을 탄핵의 사유로 삼은 데에서 이상적 공간은 문장 중심의 세계임을 알 수 있겠군.
- ④ 천자가 ‘나’에게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건넌 후 조정을 떠나게 된 ‘나’의 모습은 벼슬길에서 좌절한 작가의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겠군.
- ⑤ ‘초목의 산하를 함부로 침범’함으로써 ‘조물이 공을 꺼리는’ 상황은 적대 세력과 동조 세력이 공존하여 권력의 대립과 암투가 벌어지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룡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 황성에 이르니, 이때 천자가 만조(滿朝)를 거느리시고 성 밖으로 나오셔서 맞으사 환궁하실새 성 안팎의 백성들이 길에 가득하여 만세를 부르며 상하 인민이 기뻐 뛰면서 환성(歡聲)이 원근에 진동하더라.

바로 대전(大殿)에 들어가시니, 이때 황후는 공주를 찾아움을 들으시고 슬픔을 억제치 못하시다가 크게 기뻐하시며 한편 공주를 안으시고 낯을 맞대며 통곡하시며 천자 또한 눈물을 흘리오시매, 공주가 울기를 그치고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행(苦行)을 무수히 겪던 사연이며 ㉠꿈속에 선인(仙人)이 내려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라고 하고, ‘금일 오시(午時)에 이 고을 속에 들어와 그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부황(父皇)과 모후(母后)를 만나리라.’ 하던 말이 귀에 쟁쟁하오며, 또한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재주와 수단을 부리고, 해룡이 요괴 잡던 일의 전말을 낱낱이 고하니 황후가 금령을 어루만지시며 가로시되,

“하늘이 이로써 너 같은 신령스런 물건을 내어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비상하고 기이하여 그런 득도한 요괴를 잡고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간 세상의 몸쓸 짐승을 없이하고 짐으로 하여금 잃었던 공주를 다시 만나 천륜이 온전하게 하니 이는 다 네 덕이요 장해룡의 공이라. 이런 큰 은혜를 무엇으로 갚으리오.” 하시고, 이에 황극전으로 나아가 전좌(殿坐)하사 문무 신하, 종신과 외척, 근시하는 모든 궁녀를 다 모으시고 한편 해룡을 불러들이시니 해룡이 들어와 머리를 조아리며 백배사은하온대, 천자가 보시니 용모가 당당하고 태도가 늠름하여 만고의 영웅 준걸이요 일세의 호걸 장부라. 천자가 한 번 보고 크게 기뻐하여 해룡의 손을 잡으시고 가로시되,

“이제 경의 공을 의논할진대 ㉢태산이 낮고 하해(河海)가 얕은지라, 그 값을 바를 알지 못하노라.”

하시고, 또한 공주의 꿈 이야기를 거론하시며 왈,

“이제 공주의 꿈 이야기를 의논할진대, ㉣경과 공주는 천정배필이라. 경은 모름지기 공주를 더럽다 말고 입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족히 경의 건줄*을 받들 것이니 경은 짐의 뜻을 따르도록 하라.”

하시고, 부마를 삼고자 하실새 바빠 예부에 명하사,

“택일(擇日)하라.” / 하시고, 호부에 조서를 내려 하교하사 한편,

“청화문 밖에 별궁을 지으사 화원을 벌여 대전과 통하게 하여 출입하게 하라.”

하시고, 한편 예부로 하여금, / “혼구(婚具)를 갖추어 차리라.” / 하시니라.

해룡이 천은(天恩)을 입사와 그 은혜에 사례하고 물러 나와 어림군을 관리하며 다스릴새, 군기와 군법을 가르치고 연습하며 밤낮으로 나태한 마음을 먹지 않고 분주히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덧 혼인날이 다다랐는지라.

[중략 부분 줄거리] 부마가 된 해룡은 북흉노가 침범하자 군사를 이끌고 맞서 싸우다가 큰 위기에 처하지만 금령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왕에 봉해진다. 이후 해룡은 어사가 되어 여러 고을을 순찰한다.

이때 어사의 행로(行路)가 서울로 향할새 길이 뇌양현을 지나는지라, 뇌양현에 이르러 객사에 숙소를 정할새, 어사가 관가에 들어가 본관 사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새 자연히 마음과 뜻이 서로 맞아 밤이 깊도록

담화하다가 사또에게 하직하고 돌아가는지라.

어사는 자연히 번뇌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백발노인이 눈앞에 이르러 길게 읊하고 말하되,

“그대 비록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영웅호걸로 명성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위엄을 천하에 떨쳤으되 자기를 낳아 준 부모를 곁에 두고도 찾지 아니하여 평생 죄인이 되고자 하니, 이는 정성이 부족하여 자식의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것이니 ㉠내가 그대를 위해 부끄러워하노라.”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들으매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노인을 붙잡고 다시 묻고자 하다가 깨어나니 ㉡남가일몽(南柯一夢)이라. 매우 이상하여 다시 자지 못하고 관가로 들어가니, 사또가 대청에서 내려와 영접하여 이야기를 나눌새, 어사가 문득 본즉 벽 위에 걸린 족자가 자기 주머니 속의 족자와 같거늘 자세히 보고 크게 의아하여 물어 알,

“족자의 그림이 무슨 내용이옵니까?” / 하니 사또가 슬퍼하며 알,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전란 중에 잃은 지 십팔 년이라. 아들의 생사를 알지 못하여 밤낮으로 괴로워하더니 마침 어떤 이인(異人)이 제 마음을 알고 저 그림을 그려 주기로 걸어 두고 보나이다.”

하거늘, 어사가 이 말을 듣고 즉시 비단 주머니를 열어 족자 하나를 내어 걸거늘, 사또가 보니 두 족자가 작은 차이도 없어 조금도 다름이 없거늘, 사또와 어사가 서로 괴이하게 여기고 이상하게 여겨 의아해하나 뚜렷한 증거가 없어 서로 발설(發說)치 못하고 주저하다가 사또가 어사에게 문 알,

“그 족자는 어디서 났소? ㉢몹시 괴이한 일이 있으니 속이지 말고 자세히 말해 주시오.”

하거늘, 어사 또한 신기하게 여겨 자세히 자초지종을 일일이 다 고한 후에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하여 귀하게 된 말이며 나중에 금령이 갈 때에 족자를 주고 가던 사연을 낱낱이 고하니, 사또가 이 말을 듣고 어린 듯 취한 듯 어찌할 줄 모르고, 또한 목이 메어 가로되,

“나도 금령에 대해 할 말이 있노라.” / 하고, 또 가로되,

“이 족자도 금령이 물어 온 것이요, 금령을 여러 해 보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허물을 벗고 나니 온갖 아름다운 자태를 갖춘, 만고에 드문 절색(絕色)이라.” / 하고, 또 가로되,

“내 아이는 등에 일곱 개의 사마귀가 북두칠성처럼 나 있으니 이것으로 내 아들임을 아노라.”

하니, 어사가 이 말을 듣고 문득 실성통곡하거늘 사또가 또한 통곡함을 마지아니하니 이때 부인이 내달아 어사를 안고 세 사람이 일시에 어우러져 통곡하니 어찌 슬프고 기이하지 아니하리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산천의 초목이 슬퍼하는 듯하더라. 차시에 온 고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뉘 아니 신기하게 여기며 뉘 아니 이상히 여기리오?

어사가 울음을 그치고 끓어 고(告)하여 알,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뵈오니 그 죄 만사무석(萬死無惜)*이오나, 또한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 작자 미상, 「금방울전」

*입사: 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인 태인,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를 함께 이르는 말로 그 둘은 부녀가 지켜야 할 올바른 도리를 잘 지킨 인물들로 유명함.

*건줄: 수건과 빛을 뜻하며, 부인이 남편에게 자신을 겸손하게 이르는 말로 쓰임.

*만사무석: 만 번 죽어도 아깝지 아니함.

[26001-0124]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천자와 황후는 요괴에게 잡혀갔던 공주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
- ② 해룡은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된 후 어림군을 관리하며 국사를 돌보기 시작하였다.
- ③ 천자는 공주가 해룡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다.
- ④ 해룡은 십팔 년 전, 전란의 와중에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
- ⑤ 사또는 어사의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어사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

[26001-0125]

02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의 이전에 발생한 공주와 인물 간의 갈등이 ㉠을 통해 해소된다.
- ② ㉡으로 촉발된 어사의 행위가 계기가 되어 인물 간의 관계가 밝혀진다.
- ③ ㉡에서 백발노인이 어사 앞에 나타난 것은 금령이 하늘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일이다.
- ④ ㉠에 예언된 공주와 어사의 미래가 ㉡을 통해 실현된다.
- ⑤ ㉠과 ㉡을 통해 미래에 만나게 될 인물의 비범한 능력이 암시된다.

[26001-0126]

03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공주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금령의 능력과 업적을 평가한 말이다.
- ② ㉡: 해룡이 세운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그의 공로를 자연물과 비교하여 한 말이다.
- ③ ㉢: 공주가 요괴에게 붙잡혀 있을 때 꾸었던 꿈의 내용을 근거로 해룡과 공주의 관계를 판단하여 한 말이다.
- ④ ㉠: 자신은 알고 있으나 해룡은 모르는 사실을 바탕으로 해룡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낸 말이다.
- ⑤ ㉢: 어사가 지닌 족자의 출처를 모르는 상황에서 서로 똑같은 족자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한 말이다.

[26001-0127]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금방울진」의 해룡과 금령은 전생에 용의 아들과 딸로 부부였는데 원통하게 죽임을 당해 각각 장원 부부의 아들과 신통한 능력을 지닌 금방울로 환생한다. 이 둘이 온갖 시련을 이겨 낸 후 전생의 인연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이 작품의 바탕을 이룬다. 여성인 금령이 문제 해결의 적극적 주체로 등장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에 가깝다. 금령의 영웅적 활약상은 당대 여성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던 여성 독자층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금령의 역할이 결국 남성인 해룡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에 그친다는 점이나 남장을 통해 남들에게 여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조건에서만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 영웅 소설의 여성 주인공들처럼 금령도 여성의 모습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당대 여성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 ①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라고 선인이 말한 것에서, 해룡이 전생에 용의 아들이었음을 알 수 있고, 금령과 맺은 전생의 인연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군.
- ②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재주와 수단을 부리’어 요괴를 잡고 해룡이 ‘금령의 조화로 입신양명하’게 된 것에서, 이 작품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 영웅 소설에 가까움을 알 수 있겠군.
- ③ ‘공주와 시녀를 구해 인간 세상의 몫쓸 짐승을 없이’한 것이 ‘다 네 덕’이라고 황후의 치하를 받은 것에서, 금령의 활약을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싶었던 과거 여성 독자층의 욕망이 투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금령이 물어 온’ 사또의 족자와 ‘금령이 갈 때’ 어사에게 주고 간 족자가 계기가 되어 사또와 어사가 서로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에서, 금령이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허물을 벗고’ 여성으로 변하기 전까지 금령이 ‘신령스런 물건’의 모습을 하고 있는 동안에만 뛰어난 활약을 보인 것에서, 남들에게 여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조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금령의 모습을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과거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야흐로 건안 12년 11월 15일이라. 날은 맑고 파도는 고요하다. ㉠조조는 사기를 진작코자 큰 잔치를 여는데, 술 많이 거르고, 떡 많이 치고, 소 많이 잡고, 돼지 많이 잡고, 개 잡고, 닭 잡아서 군사를 위로한다. 쇠사슬로 묶은 전선(戰船) 강 중앙에 두둥실 띄우고 황금대자 커다란 깃발 앞세우고, 양편 전선 수백 척으로 수채*를 만들고, 천 명의 궁노수 사방에 매복시켰네.

㉡이때 조조의 거동을 보소. 붉은 두루마기에 옥대(玉帶)를 차고, 금관(金冠)을 쓰고, 정중앙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 그의 좌우에 모신 장수 황금 투구 쓰고 비단 갑옷 입고, 창도 메고 칼도 차고 차례로 벌었는데, 동산에 달 오르니 대낮과 한가지인지라.

장강 일대 맑은 강물 흰 비단 펼쳐 놓은 듯, 남병산 고운 봉우리 그림 병풍 두른 듯, 아름답기 그지없다. 동쪽으로는 시상, 서쪽으로는 하구, 남쪽으로는 번성, 북쪽으로는 오림이라.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공황하여 호기가 절로 난다. 조조가 창 빼 들고 좌우 장수에게 하는 말이,

“나는 이 창으로 황건적을 무찔렀고, 여포를 붙잡았다. 원술을 멸했고, 원소를 거두었다. 북쪽으로는 요동까지 쳐들어갔고, 남쪽으로는 유종을 무릎 꿇렸지. 이렇게 천하를 종횡무진으로 뛰어다니는 까닭은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을 저버리지 아니함이라. 사해를 평정했으나 아직 얻지 못한 곳이 강남이니, 백만 장병 거느리고 여러 장군 힘을 입어 강남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왔노라. 강남을 얻으면 따로 좋은 일이 있으니, 강남 교 공의 두 딸은 경국지색이라. 하나는 손책의 처, 다른 하나는 주유의 처가 되어, 내 항상 한탄이라.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二喬女)를 동작대에 데려다가 봄바람 맞으며 늙도록 즐겨 볼까 하노라.” / 남안을 가리키며,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모르느냐. 내 군사 거짓 행복 네 복심(腹心)이 되었으니 하늘이 도움ियो.”

하구를 가리키며, / “유비와 제갈량은 어찌 그리 아둔하여 태산을 흔들려는 개미와 같은가.”

조조가 한참 장담할 제, 난데없이 까마귀가 남쪽 하늘을 향해 까악까악 울며 가니, 조조가 물어,

“어떤 까마귀가 이 밤에 울고 가노?” / 좌우 장수들이 답하기를,

“그 까마귀 달 밝으니 새벽인가 의심하여 나무를 떠나면서 우나이다.”

조조가 크게 웃고 교만한 기운을 잔뜩 내며 노래 지어 부른다.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고. 아침 이슬 같은 삶, 몇 날 남지 않았구나. 달이 밝아 별 드문데,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

좌우의 장군들이 화답하고 한참 서로 즐긴다. 주홍이 무르익을 적에 양주 자사 유복이 나서서 말한다.

“대군의 기세가 상당하고 장사(壯士)가 명을 받들 제, 승상이 지은 노래에 불길한 구석 있사오니 이게 웬 일이요? ‘달이 밝아 별 드문데, 까마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숲을 세 바퀴 돌아도, 의지할 만한 가지 하나 없구나.’라니, 그 말씀은 상서롭지 아니하오.” / 이 말에 조조가 크게 화를 내며 소리 질러,

“내 속의 흥을 네까짓 게 감히 깨느냐!” / 창으로 유복을 찍 찌르니 좌중이 다 놀란다.

[중략 부분 줄거리] 전쟁을 앞둔 조조의 군사들은 각자 돌아가며 고향을 떠나 전쟁터로 끌려온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며 조조를 원망하는 마음을 드러낸다.

옆에 무슨 울음소리 쇠끝같이 되게 나도, 사람은 아니 뵈어 좌중이 의심한다. ㉠이게 어인 변고인가. 한 참을 찾으니, 병거지가 울고 있네. 좌중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누나.

“이게 큰 변괴로다. 저 병거지 잡아다가 강물에 내버려라.”

한 군사가 병거지 집어 들고 끌고 가려 하자, 병거지가 더럭더럭 기를 쓴다.

“이놈들아 내 목는다.”

병거지 젖혀 놓고 자세히 살펴보니 부채고리에 매어 다는 장식품만 한 작은 사람 병거지 끈에 달려 있다.

좌중이 묻기를, / “네가 무엇이나?” / “내사 선봉 장합의 화병(火兵)이제.”

좌중이 크게 웃으며 말한다.

“키는 쥐방울만한 게 말소리는 똑똑하네. 쥐 창자만 한 네 뱃속에는 무슨 설움 들었느냐?”

“내 설움이 참 설움.” / “말해 보아라. 들어나 보자.”

“우리 집에 있을 적에 새끼 까치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꼬랑지에 공작 깃털 꽃고 받침대 놓아두고, 이것저 것 먹이며 온갖 정성 다했제. 근디 급히 잡혀 오느라고 못 가지고 왔기에 밤낮으로 그놈 생각. 아까 울고 가던 까치가 나를 찾아온 내 까치지.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으시니 내 마음 절통하여 어찌 살겠는가.**”

좌중이 크게 웃고 말한다. “실없는 자식이다.” / 이어 군사 하나가 썩 나서며,

“너희는 가까운 것 버리고 먼 곳 일만 생각하네. 집 생각 하지 말고 몸이나 생각해라. 군사가 교만하면 패한다는 말 듣지도 못했는가. 승상님은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라. 정녕 우리는 이 싸움에서 패하고 말 터이니 우리 신세 어찌 되겠는가. 산처럼 쌓인 시체가 까마귀와 솔개에 파 먹혀 끝내 재갈이 날려 마른 나뭇가지에 걸리리. 살과 피는 다 마르고 바람에 바스라져 비에 씻길 제, 남은 뼈라도 챙겨 묻어 줄 이 뉘 있으리.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뺨골. 규방의 아낙네가 낭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 옛사람이 지은 풍월, 우리를 두고 하는 말, 죽는 날도 모를 테니 제사 지내 줄 이 뉘라 서 있을 텐가. 애고애고 설운지고.”

서러운 말들을 한창 하고 슬픈 눈물 도처에 흩뿌릴 제, 현결찬* 풍채의 군사 하나 들어온다. 살기 가득 품은 그놈의 모양새가 이 세상을 꿈인 양 짐작하고 들어온 놈이라. 좌중을 꾸짖으며 일갈한다.

“이 손들이 의젓하지 아니하네. 전쟁에 나온 놈이 고향 생각 어디가 쓰리. …… 천지개벽 이후로 싸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으랴. 한나라의 운 다하니 삼국 싸움 생겼구나. 우리네 이 한목숨, 군사 되어 전쟁터에 나왔으니, 어찌 아내를 그리워하며, 생각한들 무슨 소용 있으랴. 치달리는 말을 타고, 삼척검 둘러메고 물불 아니 가리고 오나라 한나라의 장수를 향해 달려든다. 그들 머리 한칼에 베어 들어 깃발에 매달아 노래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제 대장부 바라는 바, 이 외에 또 무엇이 있으리.”

한 군사가 일어나 대답한다.

“참말로 각자 말에 각자의 뜻 들어 있구나. ㉢군신유의(君臣有義) 생각하니 충신의 아들이나, 까마귀 새벽 울음과 승상의 웃음소리, 참말로 모르겠다. 네 신세가 개가환향할는지, 소가환향할는지.”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장난치고 노는구나.

— 작자 미상, 「적벽가」

* 수채: 물 위에 세운 군대의 진영.

* 현결찬: 매우 풍채가 좋고 의기가 당당한 듯한.

[26001-0128]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조조는 자신의 전선에 앉아 바라보는 주변 풍경으로 인해 호기로운 느낌을 느낄 수 있었다.
- ② 조조는 자신의 군사가 거짓으로 항복한 것을 주유와 노숙이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 ③ 화병은 갑작스럽게 전쟁터에 끌려오는 바람에 자신이 기르던 새를 데리고 올 수 없었다.
- ④ 조조의 군사들은 체구가 왜소하다는 점에서 설움을 토로하려는 화병의 행위를 무시하였다.
- ⑤ 풍채가 좋은 군사는 전쟁에서 이겨 당당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대장부의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26001-0129]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일한 어휘를 반복하고 속성이 유사한 사물들을 나열하며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을 격려하는 조조의 행동을 부각하고 있다.
- ② ㉡: 시간 표지와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조조의 군영에 대한 묘사에서 조조의 외양에 대한 묘사로 서술을 전환하고 있다.
- ③ ㉢: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에 대한 조조 군사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다.
- ④ ㉣: 인용의 방식과 직설적인 감정 표현을 활용하여 조조의 군사가 미래의 일에 대한 판단을 바꾸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⑤ ㉤: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와 발음이 유사한 어휘를 활용하여 조조의 군사가 상대방의 신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26001-0130]

03

노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병이 조조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② 자신의 처지에 대한 조조의 생각을 반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노래의 해석에 대한 조조의 장군과 유복의 관점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 ④ 조조가 장수의 답을 듣고 크게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 ⑤ 전쟁의 승패 예측을 두고 유복이 조조와 갈등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26001-0131]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적벽가」에서는 조조를 부정적 인물로 묘사하고 있는데, 조조가 지닌 부정적 면모는 자신의 부하를 대하는 비인간적인 모습과 전쟁에 참여하는 부하들의 진술을 통해 드러난다. 또한 전쟁을 하는 이유가 대의가 아닌, 조조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통해서도 조조의 부정적 면모가 드러난다. 특히 조조는 기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 한다며 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인륜과 같은 기존의 질서를 무시하는데, 이러한 조조의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무의미한 침략 전쟁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함께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를 바랐던 당대 사람들의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은 조조가 전쟁을 벌이는 표면적인 이유로, 조조가 장수들에게 이를 말하는 것은 전쟁의 정당성이 기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을 드러낸 것에 해당하겠군.
- ②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를 동작대에 데’리고 가겠다는 것은 다른 이들의 부인을 빼앗는다는 점에서 대의와 관련 없는 행동으로, 전쟁의 목적이 조조의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임을 보여 주는군.
- ③ 조조는 자신의 흥을 꺾는 이유로 ‘창으로 유복을 찢 찢르’는데, 이는 자신의 부하를 대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부각하여 조조가 지닌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 것에 해당하겠군.
- ④ 화병은 ‘경망한 승상님’이 ‘글만 지어 읊’을 뿐 자신에게는 관심을 두지 않아 마음이 절통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전쟁의 무의미함을 부각하여 조조가 벌이는 전쟁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것에 해당하겠군.
- ⑤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라며 조조를 비판하는 군사의 말은, 부하들을 돌보지 않은 조조의 모습이 당대 사람들이 염원했던 지도자의 모습과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웅진골 웅당촌에 살고 있는 옹고집은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기로 유명한 수전노였다. 이를 보다 못한 한 도사가 옹고집의 집에 허수아비로 만든 허옹가를 보내고, 허옹가와 진짜 옹고집인 실옹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지며 둘은 사또 앞에 서게 된다.

사또 듣기를 다하매 가로되, / “그 손이 참 옹 좌수라.”

하고, 당상에 올려 앉히고 기생을 불러, / “이 양반께 술 권하여라.”

일색 기생 술을 들고 권주가 화답하되,

“잡수시오, 잡수시오. 이 술 한잔 잡수시오. 이 술은 술이 아니라 한 무제 승로반*에 이슬 받은 것이오니, 쓰나 다나 잡수시오.” / 옹 좌수 흥을 내어 술잔을 받아 들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 그러나 성주 덕택에 흑백을 가려 주옵시니, 은혜 백골난망이로소이다. 잠깐 민의 집에 나오시오. 막걸리 한 잔 대접하오리다.”

“그는 염려 말게. 처치하여 줌세.” / 실옹가 불러 분부하되,

“네가 흥측한 놈으로 음흉한 뜻을 두고 남의 세간 탈취하려 하니, 네 죄상은 마땅히 의율정배*할 것이로되, 고의 안세하니 바빠 어서 물리치라.” / 대곤삼십도*를 맹치하여 엄문 죄목 하되,

“인제도 옹가라 하겠느냐?” / 실옹가 생각하되, 만일 옹가라 하다가는 곤장 밑에 죽을 듯하니,

“예, 옹가 아니오. 처분대로 하옵소서.” / 아전이 호령하여,

“장채 안동하여 저놈을 월경(越境)하리라.”

하니, 별떼 같은 군노 사령 일시에 달려들어 옹가 상투를 잡아 휘휘 돌려 내쫓으니, 실옹가 하릴없이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성통곡하며 하는 말이,

“답답하다, 내 일이야. 꿈이나, 생시나. 어찌해야 옳단 말이나. 차소위락미지액(此所謂落眉之厄)이로다*.”

무지한 고집이 놈 이제는 개과하여 애통하는 말이,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이거니와 당상학발 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고지고. ㉡어여쁜 우리 아내 월하의 인연 맺어 일월로 본증 삼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 년 종사하겠더니, 독수공방 적막한데 임 없이 홀로 누워 전전 반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슬하의 어린 새끼 금옥같이 사랑하여 어를 제 ‘섬마둥둥 내 사랑, 후드득후드득 엄마, 아빠 눈에 암암’ 나 죽겠네. 아마도 꿈인가 생신가. 꿈이거든 깨이거라.”

허옹가 거동 보소. 득송(得訟)하고 돌아올 제 의기양양하는 거동 참으로 제법일다. 얼씨구나 좋을씨고, 손춤 추며 노랫가락 좋을씨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조롱하여 하는 말이,

“허허 흥악한 놈, 하마터면 우리 고운 마누라 빼앗길 뻔하였다.”

하고, 집으로 들어오며 희색이 만안하니, 가중 제인이 득송하였단 말 듣고 잡고 묻는 말이,

“득송하였소?”

“㉢허허, 그리하였네. 그새 편안히 있는가. 세간은 고사하고 하마터면 자네 농칠 뻔하였네. 원님이 명찰

(明察)하여 주시기로 자네 얼굴 다시 보니 이런 좋은 일 또 있을까. 불행 중 다행이로다.”

그렇저렇 날이 저물매 허웅가 실웅가의 아내 데리고 종야 언어 수작하다가 원앙금침 펼쳐 놓고 동침하여 누웠으니, 양인 심사 깊은 정에 좋은 마음 측량없다.

이같이 즐기다가 잠깐 잠을 들어 한 꿈을 얻으니, 하늘에서 허수아비 무수히 떨어져 내리거늘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허웅가 보고 몽사를 이르니, 허웅가 하는 말이,

“그러할시 분명하면 아마도 잉태할 듯하나, 꿈과 같을진대 허수아비 떼 낳을 듯하네. 그리하나 앞으로 닥쳐올 일을 보리라.”

이러구러 10삭이 차매 실웅가 아내 몸이 곤하여 침석에 누워 해태하는데, 진양성중가가조(晉陽城中家家稠)*에 개구리 해산하듯, 도야지 새끼 낳듯 무수히 퍼 낳는데, 하나 둘 셋 넷 부지기수로다. 이렇듯이 해산 하니 보던 바 처음이요, 듣던 바 처음이라, 실웅가 마누라 좋아라고 괴로움을 모르고 길러 내더라.

이같이 즐겨 할 제 실웅가는 하릴없이 세간·처자 빼앗기고 팔자 없는 곤장 맞고 세상에 살아 무엇 하랴. 애고애고, 내 팔자야. 죽장망혜 단표자로 만첩청산 들어가니 산은 높아 천봉이요, 골은 깊어 만학이라. 인 적은 고요하고 수목은 삼렬(森列)한데, 때마침 삼춘(三春)이라. 출림비조(出林飛鳥) 산새들은 쌍거쌍래 날 아들 제, 슬피 우는 저 두견은 나의 심회 자아내어 화충에 눈물 뿌려 점점이 맺어 두고 불여귀(不如歸)를 일 을 삼으니, 슬프다. 이런 공산(空山) 중에 아무리 철석간장이라도 아니 울고 못 하리라. 이렇듯 슬피 울 제 한 곳을 바라보니 층암절벽상에 백발 도사 높이 앉아 청려장을 옆에 끼고 반송 가지를 휘어잡고 노래로 하는 말이,

“후회막급이로다. 하늘이 주신 죄를 수원수구(誰怨誰咎)*하단 말가.”

실웅가 듣기를 다하여, 천방지방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합장 배례하며 공손히 하는 말이,

“㉔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千死)라도 무석(無惜)*이요 만사(萬死)라도 무석이나, 명령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원견지*하온 후는 돌아가도 여 한이 없을까 하나이다. 제발 살려 주옵소서.”

갖은 방법으로 애걸하니 도사 하는 말이,

“천지간에 몸쓸 늙아, 인제도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할까. 불도를 능멸할까. 너 같은 몸쓸 늙은 응당 죽일 것이로되, 정상이 가공하고 너의 처자 불쌍한 고로 방송하나니, 돌아가 개과천선하라.”

하며, 부적을 써 주며 가로되,

“이 부적을 몸에 붙이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인홀불견(因忽不見)* 간데없거늘, 실웅이 재빨리 돌아와서 제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高樓巨閣)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은 옛 놀던 풍경이라. 담장 안에 흥련화는 나를 보고 반기는 듯, 영산홍아 잘 있 더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옛일을 생각하니 각금시이작비(覺今是而昨非)*로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가소롭다 허웅가야, 이제도 네가 웅가라 장담할까?”

하며 들어가니, 마누라 이 거동을 보고 심히 대경실색하여 하는 말이,

“애고애고 좌수님, 저놈 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오니, 이 일을 어찌하리까.”

이러할 즈음에 방에 있던 웅가 간데없고 **깊 한 묶음이 놓여** 있고, 허웅가의 자식들도 문득 허수아비 되니,

가중 제인이 박장대소하더라. / 좌수가 부인 보고 하는 말이,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한 상에 밥도 먹었는가?”

부인이 어처구니없어 묵묵부답하고 방 안에 돌아다니며 허용가의 자식 살펴보니, 이리 보아도 허수아비, 저리 보아도 허수아비 떼가 분명하다. 부인이 일변은 반갑고 일변은 부끄러워하더라.

도승의 술법을 탄복하여, **옹 좌수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여 개과천선하니 그 어짚을 칭찬하더라.**

— 작자 미상, 『옹고집전』

* 한 무제 승로반: 중국의 한 무제가 이슬을 받기 위해 만든 쟁반.

* 대곤삼십도: 큰 곤장으로 삼십 대를 때림.

* 진양성중가가조: 진양성 안에 집이 뽁뽁하게 들어서 있음을 뜻함.

* 무석: 억울하지 않음.

* 인홀불견: 갑자기 사라짐.

* 각금시이작비: 중국 도연명의 「귀거래사」에 나오는 말로, 지금은 옳고 지난날은 그릇되었음을 깨달았다는 뜻.

* 천살: 불길한 별의 이름. 강력한 액운을 말함.

* 의울정배: 법에 따라 귀양을 보냄.

* 차소위락미지역이로다: 이것이 눈앞에 닥친 재앙이구나.

* 수원수구: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함.

* 원견지: 보기를 원함.

[26001-0132]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또는 군노로부터 실용가가 허용가의 세간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 ② 실용가는 군노에 의해 쫓겨나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 ③ 허용가는 송사가 끝난 뒤 실용가를 비웃는 말을 하고 기쁨을 드러냈다.
- ④ 실용가는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인적이 드문 산으로 들어갔다.
- ⑤ 실용가의 아내는 다시 집에 찾아온 실용가를 보고 매우 놀랐다.

[26001-0133]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에게 자칫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상대방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② ㉡: 대상과 함께했던 과거 상황을 환기하고, 대상의 처지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상대방과 재회하게 된 데 따른 소회를 밝히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신의 잘못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밝히며 상대방의 선처를 구하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앞으로 상대방이 겪을 수 있는 일을 예견하고 있다.

[26001-0134]

03

허수아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사가 실옹가의 자식들을 변신시킨 결과로, 실옹가는 이를 보고 아내를 책망하였다.
- ② 실옹가의 아내가 허옹가를 남편으로 오인해 나타난 결과로, 아내는 이를 자식으로 여기고 열심히 길렀다.
- ③ 도사가 실옹가의 아내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해 만든 대상으로, 도사는 실옹가의 아내가 이를 자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 ④ 실옹가가 아내와 화해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실옹가는 이를 보고 아내가 허옹가를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⑤ 실옹가의 아내가 실옹가를 그리워하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아내는 이를 낳고 허옹가가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26001-0135]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옹고집전」은 옹고집이라는 인물을 통해 평민이라도 경제력을 지닌 경우, 지배 계층과 같은 부유한 삶을 누릴 수 있었던 당시 사회의 일면을 드러낸다. 작품에는 당시 민중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는데, 반사회적·반윤리적 인물인 옹고집이 효와 같은 기본 윤리마저 어기는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것은 인물이 비난받아야 할 필연성을 부여함으로써, 징벌을 받는 장면에서 심리적 쾌감을 느끼고자 하는 민중들의 심리가 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옹고집은 신이한 존재의 개입으로 개과천선하고 주위의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는 옹고집과 같은 인물 역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당대의 생각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 ① ‘대곤삼십도를 맹치하여 엄문 죄목 하’자 옹고집이 ‘옹가 아니오.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을 통해 옹고집이 징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자 그동안 자신이 했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도사가 ‘팔십 당년 늙은 모친’과 ‘불도’와 관련해 옹고집이 한 일에 대해 말한 것을 통해 옹고집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형상화되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도사를 만난 뒤 ‘실옹이 재빨리 돌아’온 곳이 ‘고루거각 높은 집’이라는 것을 통해 옹고집이 평민이지만 부유한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군.
- ④ 옹고집이 도사가 준 부적을 붙이고 집에 돌아가자 ‘짚 한 묶음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통해 실제 옹고집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과정에 신이한 존재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군.
- ⑤ ‘옹 죄수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자 ‘그 어쥔을 칭찬하’였다는 것을 통해 옹고집과 같은 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당대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이혈룡과 김진희는 함께 공부하며 우정을 나눈 친구 사이였다. 김진희가 먼저 평양 감사가 되고, 가세가 기운 이혈룡은 유리결식하다 평양 감사가 되었다는 김진희의 소식을 듣고 찾아간다. 그러나 김진희는 이혈룡을 팔시하며 대동강에 던지라고 사공에게 명한다. 이때 옥단춘이 이혈룡의 비범함을 알아보고 이혈룡을 구해 준다. 이혈룡은 자신을 구해 준 옥단춘과 연분을 맺고, 학업에 매진하여 암행어사가 되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돌아온다.

“임아 임아 낭군님아, 이처럼 좋은 얼굴, 어쩌면 그 지경이 되어 왔소?”

이렇게 옥단춘이 말하니, 이혈룡은,

“서울 본집에 올라가 보니, 수십여 명의 권솔이 무슨 까닭인지 가세도 풍부하고 노비와 전답이 흠족하게 지내므로 그 연고를 물었더니, 그대가 재물을 많이 보내어 호의호식으로 지내는 것을 비로소 짐작하고 그대의 은혜가 백골난망인 것을 알았네. 가족들도 모두 자네의 호의를 고맙게 여기고 잘 지냈지만, 그전에 곤궁할 때에 수천 냥 빚을 얻어 썼더니, 그 빚쟁이들이 졸부가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모여들어서 성화 같이 빚 독촉을 하지 않겠나. 양반의 체면으로 갚지 않을 수 없어서 가정 기물을 모조리 팔아도 오히려 부족한지라. ㉠그리하여 과거도 보지 못하였으니, 참으로 그대를 볼 날이 없네. 이런 민망한 소리 하기 싫어서 오지 않으려 하였으나 그러면 배은망덕이 될 듯하여 오기는 하였네. 그러나 안 되는 놈은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고, 도중의 주막에서 자다가 도적에게 노자와 의복을 모두 빼앗기고 거지꼴이 되어서 그대 보기가 무안하여 그리했었네.”

라고 대답하였다. 옥단춘은 말을 받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려면 무슨 일을 안 당하리까. 그런 근심 걱정일랑 아예 마세요. ㉡과거를 못 보신 것은 역시 운수입니다. 다음에 또 보실 수가 있으니 그것도 낙망하실 것 없나이다. 내 집에 서방님 드릴 옷이 없겠어요? 밥이 없겠어요? 그만 일에 장부가 근심하면 큰일을 어찌하시리까.”

하고 위로하니 연연한 정이 측량할 수 없었다.

이튿날 옥단춘은 혈룡에게 뜻밖의 말을 하였다.

“오늘은 평양 감사가 봄놀이로 연광정에서 잔치를 한다는 영이 내렸습니다. ㉢내 아직 기생의 몸으로서 감사의 영을 거역하고 안 나갈 수 없으니 서방님은 잠시 용서하시고 집에 계시면 속히 돌아오겠습니다.”

말을 하고 난 후에 옥단춘은 연광정으로 나갔다. 그 뒤에 이혈룡도 집을 나와서 비밀 수배한 역줄을 단속하고 연광정의 광경을 보려고 내려갔다. 이때 평양 감사 김진희는 도내 각 읍의 수령을 모두 청하여 큰 잔치를 벌였는데, 그 기구가 호화찬란하고 진수성찬의 배반(杯盤)이 낭자하였다. 이때는 춘삼월 호시절이었다. 좌우 산천을 둘러보니 꽃이 피어 온통 꽃산이 되었고 나뭇잎은 피어서 온통 청산으로 변해 있었다. 맑은 강가의 버들가지엔 황금 같은 피꼬리가 날아들고 두견새, 접동새, 온갖 새들은 쌍쌍이 모여드는데,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요지 연못에 소식 전하던 청조새, 만첩청산에 홀로 앉아서 슬피 우는 두견새는 청천명월 깊은 밤에 이리 가며 뻑뻑, 저리 가며 뻑뻑뻑뻑 우는 그 소리가 몹시도 처량했다. 그 소리에 어사또는 심란하였다. 구경하는 사람들도 녹의홍상으로 곱게 입고 오락가락 다니면서 춘흥을 못 이겨 춤도 추고 노래도 따라 하며 놀았다. 이리저리 구경을 다한 어사또는 남루한 의관과는 달리 의기는 양양하였다. 역줄들과 약속한 시각이 다가오자 이혈룡은 그 남루한 행색으로 성큼성큼 연광정 대상(臺上)으로 올라가려

하였다. 그러자 당황한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와서 털미를 잡아 끌어내며,

“㉔이 미친놈아, 이 자리가 어느 안전이라고 함부로 올라가려 하느냐!”

하고 호통을 치며 흑심하게 구박했다. 그러니 어사또는 현 파립 현 의복이 모두 떨어져서 알몸이 보이게 되었다. 이에 화가 치민 이혈룡은 김 감사의 이름을 부르며 큰 소리로,

“㉕네 이놈 김진희야, 나 이혈룡을 모른단 말이냐?”

하고 호통을 쳤다. 이 소리에 옥단춘이 깜짝 놀라 살펴보니 음성은 혈룡 서방의 음성이나 의복이 달랐다. 이 혈룡의 말을 김 감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이혈룡을 잡아들이라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듯하였다. 김 감사의 영을 받은 나졸들이 와르르 달려들어 이혈룡의 풀어진 상투를 휘휘 칭칭 감아쥐고 뺨도 때리고 등도 밀치고 재빠르게 잡아들여 층계 아래에 엎쳐 놓았다.

(중략)

이혈룡이 탄식하면서 하는 말이,

“봉우유신(朋友有信)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 전에 너와 내가 생사를 같이하자고 태산같이 맺은 언약 철석같이 맺었더니, 살리기는 고사하고 죄 없이 죽이기를 일삼으니 무심하고 야속하다. 오류를 박대하면 양화가 자손에게까지 미치리라.”

하였다. 이혈룡이 대동강의 맑은 물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한탄하였다.

“대동강 맑은 물아, 너와 내가 무슨 원수로, 한 번 죽기도 어려운데 두 번이나 죽이려고 이 모양을 시키느냐. 정말로 죽게 되면 가련하고 원통하다.”

이때에 옥단춘이 이혈룡의 손을 부여잡고 만경창과 바라보고 애통해하며,

“원통하고 가련하다. 죄 없는 목숨 천명을 못다 살고 어복중의 원혼 되니, 명천은 감동하사 무죄한 이 인생을 제발 덕분 살려 주소서.”

하고 수없이 통곡하였다. 그때 물에 던지기를 재촉하는 [북소리]가 한 번 울렸다. 옥단춘은 더욱 기가 막혀,

“애고애고 이 일을 어찌할까. 임아 임아 낭군님아. 어찌하면 산단 말ियो?”

하고 울부짖자 이혈룡이 옥단춘을 달래며,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죄 없으면 사느니라. 울지 말고 진정하여라.”

하고 말했다. 이때 북소리가 두 번째 울렸다. 옥단춘이 또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A] “임아 임아 서방님아, 이제는 죽는구려. 살려 주오 살려 주오. 무죄한 이 소첩을 제발 덕분 살려 주오. 맹세코 아무 죄도 없습니다.”

하고 통곡할 때 세 번째 북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사공들은 황급히 재촉하기를,

“어서 물에 들어가쇼. 일시라도 지체하면 우리 목숨이 죽을 테니 어서 들어가쇼.”

하고 성화같이 독촉하였다. 옥단춘이 뉘를 잃고 사공들에게 애걸하며

“여보 사공님들 들어 보소. 당신들도 사람인데 죄 없는 우리 인생을 왜 그리 무고하게 우리를 죽이려 하오. 나만은 자결할 테니 우리 낭군 살려 주소.”

하였다. 그러자 사공들이 대답하기를,

“아무리 야속해도 감사님 명령이 지엄하시니 살릴 묘책이 없소이다. 어서 바빠 조처하쇼.”

하였다. 옥단춘은 단념하고 하는 수 없이 두 눈을 꼭 감고 치마를 걷어 올려서 머리에 쓰고 이를 박박 갈고 벌벌 떨면서,

“애고머니 나 죽는다!”

한마디 지르고는 퐁당 뛰어들려고 하는 순간이었다. 이혈룡이 깜짝 놀라서 옥단춘의 손을 부여잡고 하는 말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

하고 잡아서 옆에 앉히고 저쪽 연광정을 건너다보면서,

“애들, 서리 역졸들아! 어디 갔느냐?”

하고 소리치는데 그 소리 천지를 진동할 듯하였다. 그러자 난데없는 역졸들이 벌떼처럼 내달으며 달과 같은 마패를 일월(日月)같이 치켜들고 우레와 같은 큰 소리를 벽력같이 지르면서,

“암행어사 출두요! 암행어사 출두요!”

— 작자 미상, 「옥단춘전」

[26001-0136]

0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혈룡이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
- ② ㉡: 옥단춘이 이혈룡의 체면을 지켜 주고자 상황의 원인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 ③ ㉢: 옥단춘이 자신의 신분적 한계를 인식하며 이혈룡에게 상황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있다.
- ④ ㉤: 나졸들이 이혈룡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 무시하며 거칠게 대하고 있다.
- ⑤ ㉤: 이혈룡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 친구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6001-0137]

02

세 번 반복되는 **복소리**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혈룡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옥단춘의 변함없는 지조와 절개를 부각한다.
- ② 상하 계층의 뒤바뀐 권력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옥단춘의 승리를 암시한다.
- ③ 감사의 명에 따라 인물의 행동을 재촉하는 것으로 서사의 흐름에 긴장감을 조성한다.
- ④ 옥단춘이 오해를 받는 계기가 되는 것으로 억울한 상황에 놓인 옥단춘의 처지를 상징한다.
- ⑤ 옥단춘의 행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옥단춘이 자신의 삶을 반복적으로 돌아보며 성찰하게 한다.

[26001-0138]

03

〈보기〉와 [A]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저 계집은 무엇인다?”

형리 여짜오되,

“기생 월매 딸이온데, 관정에 포악한 죄로 옥중에 있삽내다.”

“무슨 죄다?”

형리 아뢰되,

“본관 사또 수청으로 불렀더니 수절이 정절이라 수청 아니 들려 하고, 관전에 포악한 춘향이로 소이다.”

어사또 분부하되,

“너만 년이 수절한다고 관정 포악하였으니 살기를 바랄쏘냐? 죽어 마땅하되 내 수청도 거역할 까?”

춘향이 기가 막혀,

“내려오는 관장마다 개개이 명관이로구나. 의사사또 듣조시오. 층암절벽 높은 바위 바람 분들 무너지며, 청송녹죽 푸른 남기 눈이 온들 변하리까? 그런 분부 마옵시고 어서 바빠 죽여 주오.”

하며,

“항단아, 서방님 어디 계신가 보아라. 어젯밤에 옥 문간에 와 계실 제 천만당부 하였더니 어디를 가셨는지, 나 죽는 줄 모르는가?”

어사또 분부하되,

“얼굴 들어 나를 보라.”

하시니, 춘향이 고개 들어 대상을 살펴보니 객적으로 왔던 낭군, 어사또로 뚜렷이 앉았구나. 반 웃음 반 울음에,

“얼씨구나 좋을씨고. 어사 낭군 좋을씨고. 남원 읍내 추절 들어 떨어지게 되었더니, 객사에 봄이 들어 이화 춘풍 날 살린다. 꿈이냐 생시냐, 꿈을 깰까 염려로다.”

- 작자 미상, 「춘향전」

- ① [A]는 〈보기〉와 달리 여성 주인공이 주변 인물들의 재촉으로 곧 죽을 상황에 놓여 있다.
- ② [A]는 〈보기〉와 달리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무죄를 반복적으로 외치며 살려 줄 것을 애원하고 있다.
- ③ 〈보기〉는 [A]와 달리 여성 주인공이 권력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는 태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④ [A]와 〈보기〉는 모두 여성 주인공이 자신의 낭군이 옆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낭군을 그리워하고 있다.
- ⑤ [A]와 〈보기〉는 모두 여성 주인공이 위기의 상황에서도 신분을 감춘 남성 주인공 앞에서 낭군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139]

04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옥단춘전」은 의로운 기생이 곤궁한 선비를 도와 혼인에 이르는 기녀 신분 갈등형 소설이다. 이 작품에서 양반은 자신의 현실적 이득에 따라 신의를 저버릴 수도 있는 비도덕적 존재이지만, 천민인 기생은 고귀한 인간성을 지닌 모습으로 그려진다. 신의를 지키려다 죽을 위기에 처하는 기생의 모습과 친구 사이에 신의를 쉽게 저버리는 양반의 모습을 통해 양반층이 내세우는 유교 윤리와 이들이 가진 특권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지배 논리의 허구성이 드러나게 된다. 또한 양반과 기생의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과 신의를 통해 신분의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의 가치도 확인할 수 있다.

- ① 옥단춘은 기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혈룡이 없을 때 가세가 기울 이혈룡 집안사람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재물을 많이 보내’었으니 신의를 지키려는 인간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군.
- ② ‘수천 냥 빚을 얻어’ 쓰고 ‘가정 기물을 모조리 팔아도’ 이를 다 갚지 못했다고 하는 이혈룡의 모습과 ‘거지꼴’로 온 이혈룡에게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려면 무슨 일을 안 당하’겠느냐며 위로하는 옥단춘의 모습이 대비되어 양반들이 내세우는 지배 논리의 허구성을 알 수 있군.
- ③ ‘남루한 행색’을 한 이혈룡을 빙박하고, ‘살리기는 고사하고 죄 없이 죽이기를 일삼’는 김진희의 모습에서 친구인 이혈룡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비도덕적인 양반의 모습을 보여 주는군.
- ④ 이혈룡이 ‘붕우유신 쓸데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라고 자조하는 모습에서 양반들이 내세우는 유교적 윤리의식과 실제 행위 사이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군.
- ⑤ 이혈룡이 자신을 향한 신의를 지킨 기생 옥단춘을 향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라고 말하며 함께할 것을 약속하는 모습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양반과 기생의 신분 차이를 넘어서는 연대로 발전되었음을 알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진수* 정양빈은 원래 방백* 황선이 이끄는 토벌군의 좌방장이었는데, 반란군에 빌붙었다가 사태가 실패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는 다시 방백에게 돌아가 공을 세우고자 하였다. 한 종인(種人)*이 진수에게 말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군청을 빼앗고는 소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모였었는데, 어떤 반란을 모의했는지 알 수 없으니, 당일 그곳에서 시중을 들었던 하인들을 신문하여 제일 먼저 모이자고 주창한 사람을 지적하여 고발하게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김씨 집안사람들이 매우 두려워하며 의논했다.

“곧 관청에 들어가 신문에 응하다가 말을 잘못하면 재앙이 이르게 될 것이니, 순부를 시켜 관리의 신문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순부를 제일 먼저 모임을 주창한 사람으로 관청에 알렸고, 진수는 즉시 순부를 잡아 오도록 했다. 순부는 자신을 잡으러 온 포졸에게 말했다.

“진수란 직책은 도적을 잡아 다스리면 그뿐인데 어찌하여 상부의 명령도 없이 감히 선비를 잡아 신문하려 한단 말이냐? 돌아가 이 말썽을 그대로 전해 드려라.”

그러자 포졸은 감히 순부를 핍박하지 못했다. 이를 안 김씨 집안사람들이 끊임없이 와서는 말했다.

“자네가 아니고서는 이 분란을 해결할 수가 없네.”

그리하여 순부가 관청에 들어가 신문에 응하니, 진수가 몹시 노하여 말했다.

“저 무신년 이래로 조정에서는 사사로이 모여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여, 이를 어긴 자는 법으로 다스리도록 명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군청에 모여서 소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즐기느라 3일 동안이나 머물렀으니, 어떤 일을 모의한 것인지 실상을 숨김없이 바른대로 말하라. 실상을 숨기면 법을 적용하여 다스리겠다.”

“영남에 사는 종인(宗人)*들이 해마다 한 번씩 모여 친족 간의 신의를 이야기하고 화목함을 다진 것이 비단 이번 한 번만이 아니었소. 이는 황강 김계휘와 사계 김장생 두 부자 어르신 시침이 아직 남아 있어서 금방 알 수 있을 것이오. 또한 나쁜 일을 모의하는 자라면 반드시 인적이 드문 외딴곳에 숨어서 다른 사람들이 알까 두려워할 것인데, 어찌 사람이 많고 넓은 군청 앞마당에서, 그것도 수령 앞에서 풍악을 울리며 비밀스런 일을 모의하겠소? 우리 집안사람들은 늙은이와 젊은이 가리지 않고 다 함께 모이는지라 흥을 돋우지 않을 수 없어 각자 술과 안주들을 가지고 오게 하여 넓은 곳에서 먹고 마셨고, 우리가 먹은 소고기는 관주에서 산 것이니 아전들에게 물어보시오.”

진수는 더 이상 책망하여 물을 것이 없어서 순부를 풀어 주며 나가도록 했다. 며칠이 지나자 한 종인(種人)*이 와서 진수에게 성내며 말했다.

“공께서는 어찌하여 김순부를 풀어 주시었습니까? 그자는 무오년 김상헌의 사원을 부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주모자인데, 그의 행위를 조사하여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상사(上司)의 마음을 거슬러서 노여움을 살 것입니다.”

이에 진수가 다시 순부를 잡아들이고는 비밀리에 상사에게 보고하였다.

이보다 앞서, 그 종인은 향권*을 차지하려고 청음사를 안동부 서쪽에 지었다. 그의 본심은 청음 김상헌을

사모하고 존경하여 배향하려 한 것이 아니고, 안동에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들을 노려서 치려는 것이었는데, 결국 안동 사림*들에 의해서 김상헌의 사당은 철거되었다. 그러자 당시에 득세했던 서인(西人) 세력은 모두 안동 사람들을 원수로 여겨 그들을 아주 결판내고자 하였다. 서인 세력의 화(禍)가 두려워 그들을 따르는 자들은 무거운 죄를 졌어도 관대한 처분을 받았고, 책자(冊子)에 이름을 쓰고는 ‘귀정(歸正)’이라 하였다. 서인 세력이 함정을 만들어 사람을 모함하면서 썩 다 피어내니 ‘귀정’한 사람이 날로 많아졌는데, 이렇게 한 의도는 영남 사람들 모두를 서인 세력의 편으로 만들고자 한 것이었다.

방백이 진수의 보고를 받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신임 지부에게 비밀리에 관문을 내려보내어, 김순부의 일가친척이 군청에서 모의한 것을 순부의 죄목으로 삼도록 하였다.

[A] 경신년(1740) 정월 초하룻날 순부가 일찍 일어나 점괘를 보니 불길하여 머리쓰개를 벗고 누워 있는데, 안동부의 아전이 순부를 잡으러 왔다. 순부는 병든 아들에게 말했다.
“나는 운수가 좋지 않아 곤액을 치르거나 죽을지도 모르겠다. 부디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 잘하도록 해라.”

순부가 안동부에 들어가니, 부에서는 큰칼을 씌우고 족쇄와 굴레를 채웠다. 그리고 범죄 조서를 갖추어 놓고는 순부에게 서명하라고 닦달하였으나, 순부는 큰 소리로 말했다.

“이 범죄 조서는 진상과 전혀 다르니, 바라건대 종이와 붓을 빌려주시고 아전 중에 글에 능한 사람을 시켜 제가 부르는 대로 조서를 대신 쓰게 해 주시오.”

순부가 칼에 기대어 조서 내용을 부르니, 아전은 멈춤 없이 받아 적었다. 지부가 그것을 살펴보고는 찬탄하면서 천천히 말했다.

[B] “내가 너를 사면해 줄 터이니, 너는 김씨 가문의 문장(門長)과 유사(有司)를 대신 고발하여라.”
순부가 말했다.
“문장은 나의 집안 어른과 같은 향렬이고, 유사는 같은 문중의 연소자이거늘, 우리 집안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서 어찌 그들을 곤경에 빠뜨려 놓고 스스로 풀려나려 할 수 있단 말ियो?”
지부가 말했다.
“네가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으니, 나는 다만 너를 옥에 가둘 수밖에 없다.”

순부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연두가 매우 심하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순부에게 횡액이 닥칠까 걱정하였다. 방백이 이 보고를 받고 지부에게 다시 추문*하되 순부를 유인하도록 지시하니, 지부가 말했다.

“기사년(1689) 이래 뜻있는 선비들은 모두 남인(南人)이 됨을 부끄러워하는데, 너는 지금 뜻밖의 재앙을 만났으니 생각해 보아라. 너의 고향에는 반드시 너에게 살아날 방도를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것이야.”
순부가 말했다.

“나오리! 저는 아무 죄가 없는데 살아날 방도를 찾아야 한다는 것이 슬프오. 그러니 살 방도를 찾는 것은 비록 죽임을 당하더라도 할 수가 없소.”

지부가 노하여 다시는 말하지 않았다. 이때 친구가 옷소매 속에 일가친척의 편지를 넣어 왔으나, 순부는 뜯어보지도 아니하고 돌려보냈다.

(중략)

내가 장례 치르는 일로 마을에 있으면서 서둘러 입관하도록 하고 나오니, 순부가 기운이 고르지 못하여서

집에 돌아가 몸조리하도록 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순부의 온 집안사람들이 천연두에 걸렸고, 순부는 끝내 2월 28일에 죽었고, 그의 부인 홍 씨도 뒤를 이어 죽었다. 순부의 나이 48세였다. 슬프도다! 뜻밖의 재난이 닥치리라는 것을 이미 알았었거늘, 능히 피할 수 없었던 것이 운명인가 보다. 순부의 2남 2녀도 한꺼번에 천연두에 걸렸으나 모두 온전하였다.

정침윤이 “10촌인 척이라도 오히려 짧아 보이는 수가 있고, 1촌이라도 오히려 길어 보이는 수가 있으니, 점을 친다고 한들 세상일을 다 알 수는 없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녕 믿을 만하도다.

진수가 김씨 문중을 그물로 읍아냈을 때 가문 사람들은 헤어날 수 없는 화(禍)로 여겼지만 순부는 웃으며 말로써 그 화에서 벗어났고, 바다 근처 고을에서 귀양살이를 했을 때도 천하의 명승지를 두루 다녔으며, 그의 집안에 화가 미치기 전에 그 김새를 알고 미리 피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끝내 피하지 못

[C] 하였으니 바로 그것이 짧아 보이는 경우이다.

순부는 총명함이 남보다 뛰어나 경사의 요체나 제가의 비밀스런 진기함을 지나쳐 보기만 해도 문득 깨달았고, 주역점을 치는 것도 오묘했다. 나는 항상 그의 탁월함을 사랑했다. 다만 그의 미간에 뭉친 기운이 있음을 마음속으로 걱정했으나, 평탄치 못한 기구한 삶이 이 지경에까지 이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순부가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면 명승지를 두루 다니고 그것을 문장으로 옮겨 후세에 보는 자로 하여금 상쾌한 기분으로 몸소 그곳을 밟는 것처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니, 기이하도다.

— 이광정, 「김순부전」

*진수(鎭帥): 특정 지역에 파견되어 부대를 책임지는 무관.

*방백(方伯): 조선 시대 종이품 벼슬. 그 지방의 경찰권·사법권·징세권 등 행정상 권한을 가진.

*종인(種人): 여기서는 ‘어떤 사람’의 의미임.

*종인(宗人): ‘촌수가 아주 먼 일가’의 사람.

*향권(鄉權): 향촌 사회에서 양반이나 지배층이 가지고 있던 권력이나 영향력을 이르는 말.

*사림(士林): 향촌에 기반을 둔 유학자들과 지식인 계층을 이름. *추문(推問): 죄상을 추궁하여 심문함.

[26001-0140]

0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수 정양빈이 김씨 집안의 회합을 반란으로 몰려고 한 것은 반란군에 빌붙었던 자신의 과오를 덮고 공을 세우기 위한 방책이었다.
- ② 김씨 집안사람들이 제일 먼저 모임을 주창한 사람이 순부라고 관청에 알린 것은 진수 정양빈에 의해 시작된 화가 가문에 미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였다.
- ③ 김순부가 처음에 자신을 잡으러 온 포졸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진수 정양빈의 지시가 상부의 명령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 ④ 진수 정양빈이 김순부에게 화를 내며 진상을 따져 물은 것은 김씨 집안사람들이 군청을 빼앗은 후 관리들 몰래 작당 모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다.
- ⑤ 진수 정양빈이 김순부를 그냥 풀어 주었던 것은 김씨 집안의 회합이 공개적 장소에서 이루어져 남들에게 숨길 만한 잘못된 바가 없다는 주장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6001-0141]

02

[A]와 [B]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된 ‘김순부’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김순부는 함정에 빠진 집안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었다.
- ② 김순부는 자신이 위기 상황에서 고난을 겪을 것을 알면서도 가족이나 가문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었다.
- ③ 김순부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처리할 때 일의 경중을 따진 후,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면 된다고 믿는 사람이었다.
- ④ 김순부는 점괘를 보고 앞일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자신에게 닥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 ⑤ 김순부는 김씨 문중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연로한 사람들을 우선 챙기되 연소자들의 희생은 모른 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26001-0142]

03

[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순부라는 인물을 두고 작가가 자신의 관점에서 논평하고 있다.
- ② 정침윤의 말을 인용한 후, 김순부의 삶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밝히고 있다.
- ③ 김순부의 행적을 역사적 사건과 관련지어, 이후 역사에 끼친 영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김순부의 장점과 특징을 제시하면서 평탄치 못했던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⑤ 김순부가 명승지를 다니고 남긴 문장이 후세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음을 언급하며 예찬하고 있다.

[26001-0143]

04

〈보기〉의 ‘당파 싸움’을 고려하여, ‘김상헌의 사원’과 관련된 인물들의 행위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조선 선조 때 동인과 서인의 분열로 시작된 당파 싸움은 동인이 남인과 북인으로 분열되며 더욱 복잡해졌다. 광해군은 북인들에게 힘을 실어 주려고 하였으나 인조반정 이후 북인들은 몰락해 버렸고, 효종은 북벌 계획에 동참하는 서인을 중심으로 군사적 기반을 강화하려 하였다. 남인은 어느 정도 세력을 유지하며 서인과 경쟁을 하기도 하였지만, 숙종 때에 이르러서는 거의 힘을 잃게 되었다. 윗글에 언급된 김상헌은 서인 세력의 주요 인물로 북인들과 대립하였으며 사후에도 다른 당파의 공격을 받기도 하였다.

- ① ‘한 중인’이 ‘청음사’를 지은 것은, 김상헌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어 ‘서인 세력’의 공격을 받게 하려고 한 것이군.
- ② ‘한 중인’이 진수에게 ‘김상헌의 사원’을 부순 사건의 주모자를 조사해 처벌하라고 조언한 것은, 그렇게 하면 ‘서인 세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이겠군.
- ③ ‘서인 세력’이 ‘김상헌의 사원’을 철거한 안동 사람들을 겁박하고 회유한 것은, 자신들을 따르는 사람을 늘리기 위한 것이겠군.
- ④ ‘김상헌의 사원’을 부순 사건과 유사한 함정에 빠진 안동 사람 중 일부가 ‘귀정’한 것은, ‘서인 세력’의 화가 미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겠군.
- ⑤ 김순부는 ‘김상헌의 사원’을 부순 사건과 관련해 조서를 쓸 때 자신이 ‘남인’이 아님을 밝힘으로써, 사면을 받을 기회를 제안받았던 것이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차장대(車掌臺) 가까운 한구석에 가 서서,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이제 이 차는 동대문을 돌아 경성 운동장 앞으로 해서…… 구보는, 차장대, 운전대로 향한, 안으로 파아란 용을 받쳐 댄 창을 본다. 전차과(電車課)에서는 그곳에 뉴스를 게시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요사이 축구도 야구도 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그러나 요사이 구보는 교외를 즐기지 않는다. 그곳에는, 하 여튼 자연이 있었고, 한적(閑寂)이 있었다. 그리고 고독조차 그곳에는, 준비되어 있었다.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고독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의 심경의 바른 표현이 못 될 게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 내지 못하였다. 그런 때 구보는 차라리 고독에게 몸을 떠맡기어 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 왔는지도 모를 일이다…….

표, 짝쇼, 차장이 그의 옆으로 왔다. 구보는 단장을 왼팔에 걸고, 바지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러나 그가 그 속에서 다섯 닢의 동전을 골라내었을 때, 차는 종묘 앞에 서고, 그리고 차장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구보는 눈을 떨어뜨려, 손바닥 위의 다섯 닢 동전을 본다. 그것들은 공교롭게도 모두가 뒤집혀 있었다. 대정(大正)* 12년, 11년, 11년, 8년, 12년. 대정 54년—구보는 그 숫자에서 어떤 한 개의 의미를 찾아내려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부질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또 설혹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어도 ‘행복’은 아니었을 게다.

차장이 다시 그의 옆으로 왔다. 어디를 가십니까. 구보는 전차가 향하여 가는 곳을 바라보며 문득 창경원 에라도 갈까, 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차장에겐 아무런 사인도 하지 않았다.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이, 한번, 차에 몸을 의탁하였을 때, 그는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 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벼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쨌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

(중략)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붙어 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백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향구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뻘뻘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사람에게 한 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열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사십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의 광범한 팽릉(膨隆).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제도씨병.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 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 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 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을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

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地圖代)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줄부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여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나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영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 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든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았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아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가 한번 흘끗 보기에,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시 **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의자에 가 가장 자신 있게 앉아,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루빼스, 그리고 구보를 향하여, 자네두 그걸루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깍다점(喫茶店)***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 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게다.

①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하여 보리라 생각한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대정: 일본 다이쇼 천황 시대의 연호(年號).

* 깍다점: 예전에, ‘찻집’을 이르던 말.

[26001-0144]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기 ▶

- ㄱ. 심표의 빈번한 사용을 통해 독자가 인물의 의식에 대한 서술에 주목하게 유도하고 있다.
- ㄴ. 갈등이 고조되는 사건을 인과적인 방식으로 제시함으로써 파국적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 ㄷ. 추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함으로써 타인에 관해 인물이 상상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ㄹ. 인물이 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한 과정을 요약하고 있다.
- ㅁ. 단어나 어구를 소재목처럼 처리함으로써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을 시각적으로 부각하고 있다.

- ① ㄱ, ㅁ ② ㄷ,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⑤ ㄴ, ㄹ, ㅁ

[26001-0145]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이동한 공간에서 구보가 목격한, 기쁨을 느끼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풍경이 묘사되어 있다.
- ② ㉡: 병자에 대해 관찰한 내용으로부터 자신의 병증으로 이어진 구보의 연상이 드러나 있다.
- ③ ㉢: 정결한 인상을 주지 못하는 타인의 외양에서 혐오를 느끼는 구보의 심리가 나타나 있다.
- ④ ㉣: 외양에 관한 정보만으로 관찰 대상의 직업을 판단해 버리는 구보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 상대와의 대화에 집중하지 않고 혼자만의 생각에 빠진 구보의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26001-0146]

03

[경성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결과적으로 구보의 기대를 배반한 장소이다.
- ② 구보가 관찰한 대상들에게 연민을 느끼는 장소이다.
- ③ 필수적인 경우 이외에는 의사소통이 부재한 장소이다.
- ④ 구보가 옛 친구의 애인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는 장소이다.
- ⑤ 타인에 대한 불신의 태도를 보이는 이들로 가득 찬 장소이다.

[26001-0147]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의 주인공 구보는 식민지 지식인의 울적하고 무기력한 내면을 잘 보여주는 인물로, 작가 박태원의 분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결혼과 취업을 걱정하는 어머니를 두고 집을 나선 구보는 경성(서울)을 산책자처럼 배회하는 과정에서 상이한 두 가지 태도를 보여 주는 데, 그 하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남들처럼 평범한 일상을 영위하는 세속적 행복에 대한 탐색이고, 다른 하나는 세속적 행복을 좇는 일상의 속물적 근성에 대한 염증이다.

- ① 전차에 탄 구보가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만 결국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은 행복에 대한 그의 탐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군.
- ② 대학 병원에서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는 벗을 만나러 가는 것이 ‘한 개의 일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보가 세속적 행복을 위한 평범한 일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그의 ‘대학 노트’를 펴 들’려고 하다가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는 구보의 모습에는, 소설 창작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가 박태원이 느낀 식민지 지식인의 울적한 내면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불쾌한 말투를 쓰며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는 사내와 만나서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을 쳐다본다고 한 것을 보면 구보는 속물적 근성에 대한 염증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일과 관련하여 구보가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한 것을 통해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는 그의 지향을 엿볼 수 있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해가 지고 아득아득해서야 개똥네 마당질은 끝이 났다. 어둠 속으로 뿌옇게 솟아오른 나락 더미! ㉠나락 더미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술에 취한 듯이 흥분이 되어 있었다.

유 서방과 덕호가 나왔다. 유 서방은 들어가서 등불을 켜 가지고 나왔다. 팻버리는 대두를 들고 나락 더미 앞으로 가서 나락을 손으로 헤쳐 가면서 말을 되었다. / “한 말이요는 가세요우.”

팻버리는 그 둥글둥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 가지고 소리 곡조로 마디마디를 꺾어 돌렸다. 뒤미처 썩르륵 하고 섬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벼알 소리! 그들의 가슴은 어떤 충동으로 스르르 뜨거워지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무의식 간에 그들은 눈을 썩, 썩 비비치고 ㉡동무의 어깨를 누르며 바짝바짝 다가들었다. 그때마다 옆의 동무는, / “이 사람아, 넘어지겠구먼!”

허허 웃으며, 그들은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 한 섬, 두 섬, 석 섬, 벼섬은 차례로 묶여 놓인다. 그들은 제각기 몇 섬이 날까? 하는 호기심에 묶여 놓은 벼섬과 나락 더미를 번갈아 비교해 보았다.

팻버리가 마지막 말수를 되어 벼섬에 부으며, / “열닷 섬 닷 말이요는 가세요우.”

수심가라도 한 곡조 부르려는 듯이 그렇게 흥이 나서 음성을 내뿜었다.

“열닷 섬 닷 말! 잘은 났다!”

가슴을 졸이고 섰던 그들은 똑같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팻버리는 툭툭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개똥의 어깨를 탁 쳤다.

“이 사람아 한턱내야 되리. 올 농사는 자네네만큼 된 사람이 없으리!” / “암, 허허.”

개똥이는 이렇게 대답하며 흘금 덕호를 쳐다보았다. 덕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으나 그가 가만히 섰는 것을 보아 만족해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곡식이 잘 나지 못한 때면 덕호는 잔걱정을 하며 가만히 서 있지를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발을 잘 거두지를 못하였느니 ㉢미리 베다가 먹었느니 하고 야단을 치곤 하였던 것이다.

유 서방은 구루미를 갖다 대고 벼섬을 광광 실었다. 그들도 벼섬을 받들어 올려놓으며,

“무겁다! 참 벼 한 섬이 이다지도 무거운가!”

덕호가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하였다. 덕호는 어둠 속으로 걸려만 뻑뻑 빨면서 섰더니,

“개똥이! 자네 여기서 다 회계 끝내고 말지! 후일에 다시 쓰더라도…… 응? 자네 빚내 온 돈이 얼마인지?”

개똥의 말을 들어 보려고 덕호는 이렇게 물었다.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빚 말을 내지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가 마침 이 말을 듣고 보니 전신의 맥이 탁 풀렸다. 아무 대답이 없는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이 바라보던 덕호는 저놈이 빚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에서 벼섬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았다.

“자네 15원 내 온 것이 간 정월달이 아닌가. 그러니 이달까지 꼭 열 달일세. 그래 이자까지 하면 20원이 넘네그리. 우선 벼 닢 섬은 날 줘야 하네. 그래도 내가 삼사 원은 못 받는 속일세. 그러구 비릇값과 장리쌀은 으레이 여기서 회계할 것이지…….”

유 서방을 돌아보았다.

“어서 저기서 일곱 섬만 가져오게. 그래도 나는 10여 원을 받지 못하는 셈일세. 그러나 할 수 있는가. 자

네들도 농사를 해 먹고 살아가야겠으니 우리에게로 오는 반 섬과 자네게로 가는 반 섬 합해서 한 섬은 내가 주는 것이니 그리 알게. 그것은 이번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 때문이어. 허허.”

유 서방은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벼섬을 낑 하고 저다가 구루마에 실어 놓는다. 그들은 이제까지 깜박 잊었던 하루 종일의 피로가 조수와 같이 밀려드는 것을 깨달았다. ㉔그들은 벼짚단 위에 펄쩍펄쩍 주저앉았다. 그때 첫째의 머리에는 풍헌 영감의 모양이 획 떠오른다.

입도 차압(立稻差押)*을 당하고 정신없이 아래윗동네를 미친 듯이 달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보게 이런 법이 있는가, 벼를 베기도 전에…….”

㉕그다음 말은 막히어 하지 못하였다.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하여 풍헌의 뒤를 따라 논까지 가 보았다. 논귀에 세운 조그만 나무판자에는 무슨 글인지 써 있었다.

풍헌은 그 나무쪽을 가리키며,

“글쎄 집달리*라던가? 하는 양복쟁이가 이것을 꽃아 놓으면서, 벼를 베지 못한다구 허두먼…….”

풍헌은 이렇게 말하며 누룩누룩한 벼 이삭을 바라본다. 첫째는 다가서며,

“누구의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아 덕호의 빚이지. 그것 좀 참아 달라구 하는데, 이렇게까지 할 게야 뭐 있겠나! 전날 편지 배달부가 이런 것을 갖다가 주고 가두면. 그래 나는 그게 무엇인가? 하고 두었더니, 글쎄 글쎄 이런 일이 날 줄이야 누가 꿈밖에나 생각하였겠나.”

풍헌은 거지 안에서 다 해진 편지봉투를 꺼내어 보인다. 첫째 역시 그것을 한 자 알아볼 리가 없었다. 그래서 편지봉투만 이리저리 만지다가 풍헌을 주었다.

[종락 부분 줄거리] 타작마당에서 바로 벼를 빼앗기게 되어 억울했던 개똥이 결국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첫째와 농민들이 몰려가 유 서방을 넘어뜨리고 실어 놓은 벼섬을 끌어내리지만, 곧 순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주재소로 끌고 간다. 개똥 어머니는 선처를 부탁하고자 덕호를 찾아간다.

개똥 어머니는 들어가서 머리를 숙이며,

“그저 한때 살려 줍시유, 네? 한때만 사정 봐줍슈.”

덕호는 기침을 하며 일어나서 자리로 몸을 가리고 앉았다.

“글쎄 그놈들의 행세를 보아서는 분 나는 대로 용서 없이 고생을 시키겠지만 그러나 소위 면의 어른이라는 나로서 더구나 저런 늙은이들이 불쌍해서 그럴 수야 있는가.”

개똥 어머니는 너무 감격하여 소리쳐 울고 싶었다. 그리고 저런 후한 어른의 뜻을 몰라주는 개똥이와 그의 동무들이 끝없이 원망스러웠다. / “그저 살려 줍슈. 저를 봐서…….”

“응. 그런데 마침 오늘이 공일이니까 면에 출근도 안 하니 내 직접 주재소에 가 보라…… 저희 놈들이 암만 그래도 몇십 년을 내 덕에 산 것이 아니겠나. 배은망덕이란 말이 이런 것을 두고 이름일세그려. 허 거정 나두 손두 없는 사람이라 저희들을 내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어. 어제만 하더라도 내가 생각해서 벼 한 섬을 거저 주지 않았나. 그런데 그놈이 그 은공을 몰라본단 말이어. 하필 올뿐인가,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 왔지.”

“그까짓 죽일 놈들을 생각하실 게 있습니까. 그저 후하신 맘으로 이 늙은것을 한때 보아주셔야지유.”

“응. 그럼 돌아가게. 내 이따가 가 보리.”

개똥 어머니는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덕호는 도로 자리에 누우며 이놈들을 더 고생시켜 세상의 법이 어떻다는 것을 알리어 정신을 들려주려했더니 날은 점점 추워 오고 어서 눈 오기 전에 마당 질은 끝내야겠으니 부득이 놓아주랄 수밖에 별수가 있나! 하고 생각하였다. 더구나 이 가을부터 미곡 통제안(米穀統制案)이 실시된다는 말이 있으니 그렇게 되면 곡가도 오를 것이다. 어서 바빠 그놈들의 빛도 현 곡가로 청산하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자, 곧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 강경애, 「인간 문제」

* 입도 차압: 추수하기 전부터 벼를 압류함.

* 집달리: 집행관.

[26001-0148]

0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농민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회상 장면에서 서술자를 달리하여 타작날 사건의 추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③ 덕호와 농민들의 갈등 상황을 서술하며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물의 내면을 서술하여 타작날 벌어지는 덕호와 농민 사이의 갈등을 보여 주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에 담긴 의도를 설명하여 농민들의 단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다.

[26001-0149]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수확한 벼 앞에서 뿌듯함과 기쁨을 느끼는 농민들의 감정이 드러나 있다.
- ② ㉡: 수확량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을 안고 모여드는 농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③ ㉢: 덕호가 농민들에게 곡식을 빼돌린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곤 했던 것을 드러낸다.
- ④ ㉣: 누적된 피로에 허탈감이 더해져 의욕을 잃은 농민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 ⑤ ㉤: 다른 농민의 입장을 배려하여 말하기 망설이는 풍헌 영감의 모습을 드러낸다.

[26001-0150]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개똥이는 타작날 ‘회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 ② 덕호에게 ‘회계’는 꾸어 주었던 빚과 이자, 비릇값 등을 받는 일을 의미한다.
- ③ 유 서방의 ‘회계’ 과정에서의 역할은 덕호의 지시에 따라 빚섬을 나르는 것이다.
- ④ 덕호는 ‘회계’를 타작날 끝내기 위해 꾸어 주었던 돈을 빚섬으로 환산하여 요구한다.
- ⑤ ‘회계’를 시작한 후의 개똥이의 반응을 본 덕호는 ‘회계’ 마무리를 서두르기로 마음먹는다.

[26001-0151]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강경애의 「인간 문제」는 농민과 도시 노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어 계급 갈등을 다룬 장편 소설이다. 특히 소설 전반부에서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지주-소작인 계약 관계가 본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인을 착취하는 구조임을 폭로한다. 빚 청산 문제로 인해 수확물을 빼앗기는 농민들의 사건을 ‘첫째’가 회상을 통해 떠올리고 서로 연결 짓는 장면은, 그 구조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지주 ‘덕호’에 대한 묘사 또한 이러한 폭로의 하나로, 농민을 돌보는 선한 마을 어른으로 포장된 그의 언행이 실은 이기적이고 몰인정한 속내를 감추고 있음을 드러낸다.

- ① 개똥이 농사지은 벼를 빼앗기는 장면과 첫째의 회상 장면을 병치하여 첫째가 개똥이 당하는 일을 통해 농촌의 불합리한 계약 관계를 자각하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군.
- ② 덕호가 빚 탕감을 곧바로 하지 못해 ‘좀 참아 달라구’ 사정한 풍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입도 차압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던 일은 덕호의 몰인정한 모습을 드러내는군.
- ③ 덕호가 개똥 어머니에게는 농민들을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타작을 서둘러 마무리하기 위해 석방을 요구하려는 속셈임을 서술한 것은 지주의 선량해 보이는 언행이 위장된 것임을 드러내는군.
- ④ 주재소에 가서 선처를 부탁하겠다는 덕호의 말에 고마워하고 개똥이들을 ‘죽일 놈들’이라고 칭하는 개똥 어머니의 모습은 경제적 약자로서 지주와의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농민들의 상황을 보여 주는군.
- ⑤ 덕호가 개똥이와 농민들을 두고 ‘더 고생시켜 세상의 법’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석방을 요구하겠다고 결심하는 대목은 지주가 계약 관계를 통해 농민의 토지 소유를 가로막고 있음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일본인이 주인인 가게의 점원으로, 어린 시절 자신을 돌봐 준 아주머니에게 폐만 끼치는 아저씨를 못마땅히 여긴다.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감옥에서 병에 걸려 온 아저씨는 아주머니의 정성스러운 간호로 병세가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집에만 머물러 있다.

“이 애?” / “네?”

“사람이란 것은 누구를 물론허구 말이다,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게 없느니라.” / “아침이요?”

“저 위로는 제왕, 밑으로는 걸인, 그 모든 사람이 위선 시방 이 제도의 이 세상에서 말이다, 제가끔 제 분수대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이다,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겨정 생활에다가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고, 그런 사람같이 가련한 사람은 없느니라. 사람이란 건 ㉠밥 두 그릇이 하필 밥 한 그릇보다 더 배가 부른 건 아니니까.” / “그건 무슨 뜻인데요?”

“네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같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겠다는 것이 말이다.”

“네, 그게 좋잖아요?”

“그것이 말이다, 진실로 깊은 교양이나 어진 지혜의 판단에서 우러나온 것이라면 그도 모를 노릇이겠지. 그렇지만 나는 보매, 네가 그런다는 것은 다른 뜻으로 그러는 것 같다.”

“다른 뜻이라니요?” / “네 주인의 비위를 맞추고, 이웃의 비위를 맞추고 하자고…….”

“그야 물론이지요! 다이쇼*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이웃 내지*인들하구도 좋게 지내야지요. 그래야 할 게 아니겠어요?” / “…….”

“아저씨는 아직도 세상 물정을 모르시오. 나이는 나보담 많구 대학교 공부까지 했어도 일찌감치 고생살이를 한 나만큼 세상 물정은 모릅니다. 시방이 어느 세상인데 그러시우?”

“이 애?” / “네?”

“네가 방금 세상 물정이랬지?” / “네.”

“앞길이 환하니 트였다구 그랬지?” / “네.”

[A] “환갑까지 십만 원 모은다구 그랬지?” / “네.”

“네가 말하는 세상 물정하구 내가 말하려는 세상 물정하구 내용이 다르기도 하지만, 세상 물정이란 건 그야말로 그리 만만한 게 아니다.” / “네?”

“사람이란 건 제아무리 날구뛰어도 이 세상에 형적 없이 그러나 세차게 주옥 흘러가는 힘, 그게 말하자면 [세상 물정]이겠는데, 결국 그것의 지배하에서 그것을 따라가지 별수가 없는 거다.” / “네?”

“쉽게 말하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단 말이다.”

“젠장, 아저씨두…… 요전 『깡구』*라는 잡지에두 보니까, [나폴레옹]이라는 서양 영웅이 그랬답디다. 기회는 제가 만든다구. 그리고 불가능이란 말은 바보의 사전에서나 찾을 글자라고요. 아 자꾸자꾸 계획하구 기회를 만들구 해서 분투노력해 나가면 이 세상일 안 되는 일이 어디 있나요? 한번 실패하거든 갑절 용기를 내 가지구 다시 일어서지요. 칠전팔기 모르시오?”

“나폴레옹도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했어도 그것에 거슬리다가 실패를 했더라. 너는 칠전팔기해서 성공한 몇 사람만 보았지, 여덟 번 일어섰다가 아홉 번째 가서 영영 쓰러지구는 다시 일지 못한 술한

사람이 있는 건 모르는구나?”

“그래두 두구 보시우. 나는 천하없어두 ㉔성공하구 말 테니…… 아저씨는 그래서 더구나 못써요? 일해 보기두 전에 안 될 줄로 낙심 먼저 하구…….”

“하늘은 꼭 올라가 보구래야만 높은 줄 아니?”

원 마지막 가서는 할 소리가 없으니 동에도 닿지* 않는 비유를 가져다 둘러대는 걸 보아, 그게 어디 당한 말이고? 안 올라가 보면 뭐 하늘 높은 줄 모를 천하 멍텅구리도 있을까?

(중략)

“아저씨 올에 몇이지요?” / “서른셋.”

“그러니 인제는 그만큼 해 두고 맘잡어서 집안일할 나이두 아니오?”

“집안일은 해서 무얼 하나?” / “그렇기루 들면 ㉕그 짓은 해서 또 무얼 하나요?”

“무얼 하려구 하는 게 아니란다.” / “그럼, 아무 희망이나 목적이 없으면서 그래요?”

“목적? 희망?” / “네.”

“개인의 목적이나 희망은 문제가 다르니까…… 문제가 안 되니까…….”

“원, 그런 법도 있나요?” / “법?”

“그럼요!” / “법이랴!…….”

“아저씨?” / “…….”

“아저씨?” / “왜 그래?”

“아주머니가 고맙잖습디까?” / “고맙지.”

[B] “불쌍하지요?” / “불쌍? 그렇지, 불쌍하다면 불쌍한 사람이지!”

“그런 줄은 아시느만?” / “알지.”

“알면서 그러시우?”

“고생을 낙으로, 그 쓰라린 맛을 씹고 씹고 하면서 그것에서 단맛을 알아내는 사람도 있느니라. 사람도 있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무슨 일이고 진정과 정신을 꼬박 거기다가만 쓰면 그렇게 되는 법이니라. 그러니까 그쯤 되면 그때는 고생이 낙이지. 너의 아주머니만 두고 보더라도 고생이 고생이면서 고생이 아니 고 고생하는 게 낙이란다.”

“그렇다고 아저씨는 그걸 다행히만 여기시우?” / “아니.”

“그러거들랑 아저씨두 아주머니한테 그 은공을 터리는 값어야 옳을 게 아니오?”

“글쎄, 은공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 인제 병이나 확실히 다아 나신 뒤엘라컨…….” / “바빠서 원…….”

글쎄 ㉖이 한다는 소리 좀 보지요? 시치미 툽 따고 누워서 바쁘다는군요!

사람 속 차릴 **여망** 없어요. 그저 어디로 대나 손톱만치도 쓸모는 없고 남한테 사패만 끼치고, 세상에 해독만 끼칠 사람이니, 뭐 하루바빠 죽어야 해요. 죽어야 하고, 또 죽어서 **마땅해요**. 그런데 글쎄 죽지를 않고 **폼지락폼지락** 도로 살아나니 **성화라구는**, 내…….

— 채만식, 「차숙」

* 다이쇼: 일본어로 주인을 이르는 말.

* 내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을 지칭하는 말.

* 『깡구』: 일제 강점기의 잡지 이름. 영어 'king'의 일본식 발음 표기.

* 동(이) 달다: 앞뒤 조리가 맞다.

[26001-0152]

01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밥 한 그릇’을 추구하는 ‘나’와 달리 아저씨가 추구하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은 ‘나’가 ‘주인의 비위’를 맞추어 그에게 얻어 내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은 ‘나’가 ‘칠전팔기’를 해서라도 반드시 이루려는 바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아저씨가 ‘집안일’보다 훨씬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은 ‘나’가 아저씨에게 ‘여망’이 없다고 판단하게 된 이유를 나타내고 있다.

[26001-0153]

02

[A]의 ‘아저씨’의 질문과 [B]의 ‘나’의 질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 모두에서 질문은 자신을 무시하는 상대방의 태도를 조롱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② [A]와 [B] 모두에서 질문은 상대방이 지닌 인식이나 태도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③ [A]에서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연민을, [B]에서 질문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나타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④ [A]에서 질문은 [B]에서의 질문과 달리 상대방의 감추어진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 ⑤ [B]에서 질문은 [A]에서의 질문과 달리 자신에 대한 상대방의 지적이 부당한 것임을 부각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26001-0154]

03

세상 물정과 나폴레옹을 바탕으로 인물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저씨는 ‘나’에게 나폴레옹처럼 도전 정신을 지녀야 세상 물정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 ② 아저씨는 ‘나’가 나폴레옹의 삶 중에 일면만 보고 세상 물정을 거스르려고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 ③ 아저씨는 ‘나’에게 세상 물정이 변한다고 믿었던 나폴레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역설하고 있다.
- ④ 아저씨는 ‘나’에게 세상 물정에 순응하려고 한 나폴레옹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 ⑤ 아저씨는 ‘나’가 나폴레옹처럼 세상 물정을 지배하려고 한다며, 오만함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6001-0155]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 작품의 제목인 ‘치숙’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의미로, 아저씨에 대한 ‘나’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가 비판하는 아저씨는 사적 이익보다 공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을 살려 하지만, 정작 자기 이상을 추구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않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인물이다. 그런데 비판의 주체인 ‘나’는 올바른 사회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인물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일제 치하의 현실에 순응하려 한다. 이런 점에서 아저씨와 ‘나’는 모두 작가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당대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① 아저씨가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꺼정 생활에다가 아침하는 것같이 더러운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가 ‘생활’과 같은 물질적 가치보다 ‘개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나’가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같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는 것을 좋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일제 통치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아저씨가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에서, 그가 사적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나’의 노력이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아저씨가 자기 아내의 ‘고생이 고생이면서 고생이 아니고 고생하는 게 낙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가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당대 사회의 탓으로 돌리며 무책임하게 회피하려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나’가 ‘죽어서 마땅해요. 그런데 글썽 죽지를 앓고 꿈지락꿈지락 도로 살아나니 성화라구는’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그가 아저씨를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부정적 인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전쟁이 터지자 뱃사공인 삼바우는 징병된 아들 옹팔과 마을 청년인 두칠, 천달 등을 배에 태워 강 밖으로 보낸다. 어느 날 마을로 가는 배에 오른 우편배달부에게 자신이 군수가 양 생원에게 보내는 편지를 배달하는 중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마을에서 울음소리가 일어난 것은 그로부터 잠시 후의 일이었다. ㉠물론 양 생원네 집이었다. 온 집안이 그대로 울음의 도가니였다. 난데없는 곡성에 마을은 발각 뒤집히었다. 순녀의 피나는 울음소리는 유독 마을 사람들의 간장을 끓였다. 대열이도 덩달아 뻘뻘이 소리를 질렀다. 천달이가 뭐 어찌고……. 뼈다귀가 뭐 어찌고저찌고……。 사람들은 ㉡서로 귀에 입을 대고 쑥덕거렸다. 마을은 밤이 되어도 뒤숭숭했다. 목이 잠겨 이제 부서진 풀무 소리 같은 곡성이 그래도 끊임락 이을락 한이 없었다. 뒤 언덕 도토리나무 잎새를 털고 지나가는 바람 소리도 별나게 스산하기만 했다.

며칠 뒤, 이른 새벽, 양 생원네는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갔다. 삼바우는 멀어져 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다.

순녀의 등에 업힌 대열이는 곧장 엄마에게,

“엄마야, 우이 어디 가노?” / “읍내 간다.”

“읍내가 머꼬?” / “…….”

“앙? 엄마.” / “읍내가 읍내지 뭐까 봐. 저어기 가면 읍내라고 있다.”

“머 하로 가노?” / “…….”

“앙?” / “…….”

순녀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다. ㉢땅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듯 어지럽기만 했다. 엄마의 대답이 없으니, 할아버지를 돌아본다.

“…….” / “하부이! 우이 머 하로 가노?”

“…….” / “하부이 니도 모르나?”

“…….” / ㉣별그레 부어오른 두 눈을 무겁게 내리감을 따름, 할아버지 역시 아무런 대꾸가 없다. 대열이는 울상이 되어 킁킁 칭얼거리다가 그만 엄마의 등쪽을 마구 때려 준다.

그날 저녁답은 왜 그렇게 하늘이 타는지 몰랐다. [별건 불길]이 구름을 태우며 온 별판으로 쏟아져 내렸다. 강물도 꽃자주색으로 출렁거리고, 불어오는 바람에도 붉은 빛깔이 물들어 있었다. 이처럼 무섭게 저물어 가는 황혼 속으로 양 생원네는 돌아왔다. 양 생원은 목에 띠를 걸고 네모반듯한 상자를 하나 받쳐 안고 있었다. 상자는 하얀 보에 싸여 있었다. 순녀는 고무신을 벗어 들고 맨발이었다. 그녀의 입술은 까맣게 질려 있었고, 양 생원의 얼굴에는 두 봉우리의 광대뼈가 엄청나게 불거져 올랐다. 엄마의 궁둥이에 매달린 대열이는 달랑달랑 종아리를 흔들며 돼지 새끼처럼 잠이 들어 있었다. 모두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후닥닥 배에서 뛰어내린 삼바우는 양 생원 앞으로 달려가서, / “인자 오시능교?”

여느 날보다 정중히 머리를 숙였다. 그리고 쫓쫓쫓 혀를 차면서 양 생원이 안고 있는 상자를 자기가 받아들려고 했다. 으응! 하고 양 생원은 고개를 크게 한번 가로저어 버린다. 배에 오르자 순녀는 대열이를 내려 품에 안았다. 대열이는 보송보송한 눈을 비비면서 잠을 깬다.

(중략)

③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하얗게 돌아간 밭모퉁이를 까만 그림자가 두 개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삼바우는 이마에 손을 얹고 그쪽을 바라보며 으으윽! 크게 트림을 했다. 혹시 우리 용팔이 아니가? 용팔이가 오면 혼자 올 낀데…… 보자, 동식이랑 같이 오는 거 아니가? 그렇잖으면 동식이하고 수만이 가들 둘인가? 삼바우는 ㉔두 눈을 곧장 껌벅거린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는데 보니, 그것은 용팔이도 아니고, 동식도 수만도 아니다. 자세히 보니, 하나는 **충을 어깨에 메고 있고**, 하나는 **양복쟁이에 틀림없다.** / “이크!”

삼바우는 **가슴이 덜컥했다.** 결코 반가운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다. 또 오는구나. 또 누굴 데려갈라고……. 술기와 함께 온몸의 피가 얼굴로 치솟는 듯했다. 입술도 부들부들 떨렸다. 벌써 몇이나 데려갔노 말이다. 데려가서 두칠이는 그 꼬라지를 만들어 놓았지, 천달이는 돌려준다는 것이 뼈다귀뿐이지, 더구나 우리 용팔이한테서는 소식도 없지, 동식이, 수만이라도 마찬가지로, 그만하면 됐지, 또 누굴 데려갈라고, 염치도 없는 것들 같으니……. 삼바우는 뿌드득 어금니를 문다. / “안 되지, 안 돼!”

주먹을 불끈 쥐고, 한쪽 발로 땅을 팡! 내리 구른다.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충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의 얼굴이 또렷하게 바라보일 만큼 가까워지자, 그만 아랫도리가 후들후들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뿌드득 물었던 어금니도 덜덜 떨리고, 주먹에서도 손가락들이 제가끔 힘없이 풀려 나간다.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자,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팡 돈다.** 그러나 그 순간, 참 희한한 생각이 하나 뒤통수를 갈기고 지나갔다. / “옳지!”

삼바우는 ㉕궁둥이를 탁 치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렸다. / “좋은 수고말고!”

얼른 닷줄을 풀어 배 안에 던지고, 가볍게 몸을 날렸다. 그리고 후닥닥 노를 잡고 마구 물을 휘젓는다. ㉖**깜짝 놀란 배는 어지럽게 흔들리다가 머리를 불끈 물 위로 쳐든다.** 삼바우는 아랫입술을 질끈질끈 깨물며 있는 힘을 다한다.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이 끈적끈적 내뿜는다. 배는 자세를 가다듬고 신나게 내달는다.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만 것이다.

손님도 태우지 않고 부리나케 떠나는 배를 보자, 두 사람은 눈을 휘둥그레 가지고 달려오며 냇다 고함을 지른다.

“여보! 아 여보오——”

“여기 탈 사람 있소! 좀 기다리쇼!”

그러나 삼바우는 입 언저리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을 혀끝으로 씹 훔으며 고소하게 웃는다. 어디 탈 테면 한번 타 보지, 흥! 콧방귀를 팡 끼어 준다.

“아, 저놈의 영감쟁이가 돌았나? 우쨌노?”

“아, 이리 빨리 배를 안 갖다 댈 끼가?”

㉗**두 사람은 얼굴이 빨개 가지고 주먹으로 샷대질을 해 쌓는다.**

삼바우는 **이만저만 통쾌하지가 않았다.** 자기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는가 싶으니 스스로 놀람기도 했다. 안 되지, 안 돼, 안 되고말고, ㉘**마을에서 나룻배를 만들 때는 마을 사람들 편리하라고 만들었지, 누가 저지자식 잡아가라고 만든 줄 아나? 흥! 안 되지 안 돼.**

그러나 삼바우는 차츰 술이 깨는 듯 오스스 떨리어 왔다.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26001-0156]

0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발생한 사건의 정보를 추가로 제시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 인물의 표정을 묘사하여 그의 부정적 심리 상태를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 1인칭 서술자가 자신이 관찰하여 발견한 대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다.
- ④ ㉣: 의인화의 방식을 활용하여 그 대상이 되는 사물이 지닌 역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 인물의 속마음을 노출하여 그가 특정한 행위를 한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26001-0157]

02

바람 소리와 **별건 불길**의 서사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바람 소리’와 ‘별건 불길’은 모두 각 장면의 인물들이 지닌 내면 상태를 감각적으로 나타낸다.
- ② ‘바람 소리’와 ‘별건 불길’은 모두 각 장면에서 인물들의 시련이 해소되는 과정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③ ‘바람 소리’는 낭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별건 불길’은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④ ‘바람 소리’는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별건 불길’은 사건의 긴장감을 이완한다.
- ⑤ ‘바람 소리’는 인물들이 겪는 외적 갈등을 드러내고, ‘별건 불길’은 한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드러낸다.

[26001-0158]

03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양 생원네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도외시하려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배에서 균형을 잡지 못할 정도로 혼란스러워하는 순녀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확신하는 삼바우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기가 한 결정에 만족해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삼바우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자신들에게 화를 내며 적대감을 표출하는 삼바우에 대한 두 사람의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26001-0159]

04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나룻배 이야기」는 외부와 고립되어 살던 강 안 사람들의 삶이 전쟁으로 파괴되는 과정을 생생히 보여 줌으로써, 순박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전쟁의 폭력성과 참혹성을 그려 내고 있다. 주인공 ‘삼바우’는 뱃사공으로서 강 안과 밖의 세계를 매개하는 자기 역할에 자부심을 지니지만, 그 역할에 충실할수록 강 밖의 세계로 인해 강 안의 사람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한다. 그래서 상처 입은 강 안 사람들을 위로하며 어떻게든 그들을 지키려 노력하는데, 이러한 노력은 비극의 근원을 제거할 수 없는 소박한 저항이기에 이들이 겪는 전쟁의 비극성은 더욱 부각된다.

- ① 삼바우가 ‘강을 건너 읍내로 들어’가는 ‘양 생원네’를 보며 ‘크게 한숨을 쉬’는 것은, 강 밖의 세계에서 발생한 일로 인해 고통받는 강 안의 사람들에게 느끼는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② 삼바우가 돌아온 ‘양 생원이 안고 있는 상자’를 ‘받아 들려고’ 한 것은, 강 밖의 세계의 참혹성을 몸소 겪은 강 안 사람들에 대한 위로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③ 삼바우가 ‘충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과 ‘양복쟁이’를 보고 ‘가슴이 덜컥’한 것은, 강 안의 누군가가 또다시 강 밖 세계의 폭력성에 노출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④ 삼바우가 ‘하는 수 없다’고 생각하자 그의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핏 돈’ 것은, 강 안의 세계와 강 밖의 세계를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을 드러낸 것이로군.
- ⑤ 삼바우가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난 후 ‘이만저만 통쾌하지 않았다’고 한 것은, 강 안과 강 밖의 세계를 단절하는 소박한 저항으로 강 안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기쁨을 드러낸 것이로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여름 내내 진영은 앓았다.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 찬물만 마셔도 배탈이 났다. 눈병이 나고 입이 부르토고 하기가 일쑤였다. 앓다 못해 귀까지 앓았다. 그리고 여러 해째 건드리지 않고 둔 충치가 일시에 쭈시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욕신거렸다.

진영은 진실로 하나의 육신이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몸서리치는 무서움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쨍쨍하게 내리찍는 햇볕 아래 늘어진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이었다.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 진영은 있었다.

[A] 밤마다 컷가에 올라오는 아이의 울음소리, 산이, 언덕이, 집이 무너지는 소리, 산산이 바스러진 유리 조각이 수없이 날아와서 얼굴 위에 박히는 환각, 눈을 감으면 내장이 터진 소년병의 얼굴이, 남편의 얼굴이, 아이의 얼굴이, 분홍빛, 노란빛, 파란빛, 마지막에는 시꺼먼 빛, 그런 빛깔로 차례차례 뒤덮여 가면은 드디어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처럼 진영의 주변을 짙게 싸는 것이었다.

소리와 감각과 색채, 이러한 순서로 진영의 신경은 궤도에서 무너져 나갔다.

진영은 그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내버려두었던 몸을 끌고 H 병원으로 갔다. 그러나 그곳에도 일주일도 멀다고 그만, 가는 것을 그만 중지하고 말았던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돈을 생활비에다 써야 한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직접의 동기는 외국제 주사약의 빈 병들을 팔아 버리는 장면을 본 때문이다.

Y 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 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 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

진영은 간호원이 빈 병을 헤아리고 있을 때 짐작으로 가짜 주사약 생각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H 병원만이 빈 약병을 파는 것은 아니다. 또 그 빈 병만 하더라도 반드시 가짜 약병으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도 없다. 잉크병으로 물감병으로 혹은 후춧가루병으로 흔히 이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고 있는 것이다. 상인들은 태연히 그런 가짜를 진짜 속의 진짜라고 나팔 불었다. 진영은 그것을 생각하니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파위들 같아서 신뢰감이 사라지는 것이었다. 물론 아무리 대수롭지 않은 빈 병일지라도 그것은 전연 그 의사의 소유이며 처분의 자유는 그의 기본 권리에 속한다. 그래도 진영은 그의 기본적 권리보다 무수히, 마치 페스트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만연되어 가는 가짜 주사약 생각만 하는 것이었다. / 해바라기의 꽃이 씨앗을 안았다.

며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고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십만 원은 다 받은 셈인데 조금씩 조금씩 보내 준 돈은 지금 집에 한 푼도 있지 않았다.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 진영은 어느 것이면 우상이 아니냐고 말하고 싶었으나, 곧 말하고 싶은 충동을 억눌러 버리고 그저 멍멍히 아주머니를 쳐다보았던 것이다. 자기 자신이 지닌 모순을 설명할 도리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다. / 추석날이었다.

진영은 어머니가 절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다. 도리어 정성 들여서 사다 놓은 실과를 바구니에 차곡차곡 넣어 주었다. 배, 사과, 포도, 밤, 대추, 먹음직한 과자도 서너 가지 있었다.

어머니가 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뒷모습을 문 앞에서 바라보고 섰던 진영은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았수.” 하던 말이 문득 생각났다. 문수가 먹을 것을 중이 먹다니, 아깝다. 밍살스럽다. 그러나 진영은 다음 순간 부끄럼 때문에 얼굴이 붉어졌다. 이러한 파렴치한 생각을 내가 왜 했던고…….

진영은 문을 열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울고 싶었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산에는 **계막지만 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서 있었다. 들꽃 한 송이, 나무 한 뿌리 볼 수 없는 이곳에는 벌써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어 말이 산이지 이미 산은 아니었다.

짜짜하게 괴인 샘터에서 물을 길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천막집 속에서 내미는 누렇게 뜬 얼굴들—진영은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서 집을 나와 산으로 올라온 자기 자신이 여기서는 차라리 하나의 사치스러운 존재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B] 진영은 한참 올라와서 어느 커다란 바위에 가서 앉았다.

산등성이에서 바라다보이는 시가(市街)는 너절했다. 구릉을 이룬 곳마다 집들이 마치 진땀물 모양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었다. 그 속에는 절이 있고,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서양적인 것, 동양적인 것이 과도기처럼 있고,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이 그 속에 있었다.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라고나 할까! 보랏빛이 서린 먼 산을 스쳐 가는 구름이라고나 할까. / 진영은 알뜰한 턱을 괴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신앙으로 의지하려 했던 갈월동 아주머니에게 빌려준 돈의 이자를 받지 못한 진영은 아주머니에게서 대학 생의 사기 행각으로 돈을 잃게 된 사연을 듣고는 도덕성이 붕괴된 인간의 모습에 지치고 만다. 그때 명절이니 절에 돈을 보내야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들은 진영은 그동안 버려던 일을 해치우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러고는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을 홀대하던 절에 찾아가 외아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온다.

진영은 비탈길을 돌아 산으로 올라간다. 올라가면서 이리저리 기웃거린다. 어느 커다란 바위 뒤에 눈이 없는 마른 잔디 옆에 이르자 진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는다. 그리하여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놓고 물끄러미 한동안 내려다본다.

한참 만에 그는 호주머니 속에서 성냥을 꺼내어 사진에다 불을 그어 댄다. 위패는 이내 사라졌다. 그러나 사진은 타다 말고 불꽃이 잦아진다. 진영은 호주머니 속에서 휴지를 꺼내어 타다 마는 사진 위에 찢어서 놓는다. 다시 불이 붙기 시작한다.

사진이 말끔히 타 버렸다. 노르스름한 연기가 차차 가늘어진다.

진영은 연기가 바람에 날려 없어지는 것을 언제까지나 쳐다보고 있었다.

“내게는 다만 쓰라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이 남아 있을 뿐이다.**”

진영의 깎은 듯 고요한 얼굴 위에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겨울 하늘은 매몰스럽게도 맑다. 잡목 가지에 얹힌 눈이 바람을 타고 진영의 외투 깃에 날아내리고 있었다.

“그렇지, ㉠**내게는 아직 생명이 남아 있었다. 항거할 수 있는 생명.**”

진영은 중얼거리며 잡나뭇을 휘어잡고 눈 쌓인 언덕을 내려오는 것이다.

— 박경리, 『불신 시대』

* 위패: 단, 묘, 원, 절 따위에 모시는 죽은 사람의 이름을 적은 나무패.

[26001-0160]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진영이 한여름 내내 앓았던 것은, 폐결핵을 방치하여 다른 병까지 병발하였기 때문이다.
- ② 진영이 더 이상 병원을 찾지 않게 된 것은, 방문한 병원 세 군데에서의 경험으로 인한 것이었다.
- ③ 진영이 아주머니에게 십만 원을 받은 것은, 아주머니가 진영에게 빌렸던 원금만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다.
- ④ 진영이 아들 문수의 위패를 절에 맡긴 것을 아주머니가 나무란 것은,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기 때문이다.
- ⑤ 진영이 뒷산으로 올라가서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이 도시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26001-0161]

02

[A]와 [B]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서술자가 특정 인물의 시선을 통해 관찰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A]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③ [A]는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B]는 공간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시대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 ④ [A]는 동시에 떠오르는 기억들을 제시하여, [B]는 인물 간의 갈등을 자세히 진술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인물의 의식을 스쳐 지나가는 장면을 나열하여, [B]는 인물이 관찰한 현실 상황을 드러내어 인물의 내면 심리를 부각하고 있다.

[26001-0162]

0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대 현실에 대한 진영의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진영의 의도를 담고 있다.
- ③ 사람들에게 의해 상처받은 진영의 비관적인 심정이 담겨 있다.
- ④ 자신의 처지에 대해 진영이 느끼는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진영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의미하고 있다.

[26001-0163]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6·25 전쟁으로 생활 기반이 파괴되자, 대부분의 사람은 절대적인 빈궁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불신 시대」는 이러한 전후 사회의 실상을 반영하여 사회적 모순과 다양한 인간 군상을 탐구하고 있다. 작품 전반에 드러나는 도덕성의 붕괴와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인간들의 모습은 전후 사회의 실상을 여과 없이 보여 준다. 주인공 진영을 둘러싼 전후 사회의 현실은 그녀에게 생존 자체에 대한 절망감을 안기지만, 이러한 불신의 사회 속에서도 진영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 ① ‘신경’이 ‘궤도에서 무너진 ‘진영’과 ‘문수가 먹을 것을’ 먹는 ‘중’은, 전쟁으로 인해 정신적·육체적인 고통을 겪은 이들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군.
- ② ‘가짜 주사약이 범람하’는 ‘거리’에서 ‘가짜’ 주사약을 ‘진짜라고 나팔’ 부는 상인들의 모습은, 속물적인 인간 군상들로 도덕성이 붕괴된 전후 사회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가 그런 상인 따위’와 같다는 진영의 생각은, 환자들의 믿음을 얻어야 할 의사들이 불신을 얻게 된 사회적 모순을 보여 주고 있군.
- ④ ‘계딱지만 한 천막집이 군데군데’ 모여 ‘하나의 빈민굴’을 형성한 산은, 생활 기반이 파괴되어 절대적인 빈궁을 겪은 이들이 모이게 된 전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군.
- ⑤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태운 진영이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만이 본인에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인식한 것은, 전후 사회의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이 느끼는 삶에 대한 환멸로 볼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년병의 교육 기간도 끝나고 보충병도 들어오고 해서 [유태립] 등이 한시름 놓게 된 무렵의 어느 날, 태림과는 같은 고향이라서 보다 가깝게 지내는 사이인 허봉도란 친구가 태림을 근처에 있는 방공호 속으로 끌어들었다. 그러고는 한다는 말이 안달영 씨가 교양회를 가지자고 하는데 그러자면 태림이 관리하고 있는 창고를 빌려야겠다는 것이었다. 태림은 그때 부대의 소모품 창고를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터였다.

어떤 교양회냐고 물은 태림에 대한 허 군의 답은, 아마 공산주의 교양이 아닌가 싶다고 했다. 태림은 허 군의 얼굴을 들여다보면서, 너 정신이 있는 사람이냐고 쓰았다. 허 군의 평소 언동엔 엉뚱한 데가 있는 데다가 그때 하는 말이 하도 어이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A] 허 군은 발끈하면서 안 씨는 애국자이며 사상가이니 그릇된 짓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우겼다. 대학 시절에 사상 관계로 몇 번이나 감옥 출입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학병으로 끌려오지 않았느냐는 설명까지 붙이고는 일본의 패망과 조국의 독립을 목전에 둔 이 마당에서 안 씨를 중심으로 한 교양회와, 나아가 결사를 만들어야 한다고 사뭇 열띤 어조로 말했다.

그 자리에서 시비를 벌여 보았자 아무런 보람이 없을 것을 짐작하고 태림은 생각할 여유를 달라면서 허 군과 헤어졌다. 그러나 난처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 그 시국에 더더구나 일본의 병영 내에서 공산주의의 모임을 가지려는 행위는 그 사상에 동조하진 안 하건은 둘째로 하고 대단한 용기라고 아니 할 수 없었다.

(중략)

안의 몸뚱어리가 바르르 떨리듯 하는 양이 어둠 속에서도 보이는 듯했다.

“여보시오, 유 형! 당신에겐 애국심도 없소? 젊은 사람다운 정의감도 없소? 학생다운 진리애의 정열도 없소? 몇십 년 전부터 애국자는 스스로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싸우고 있소. 변히 안 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명분과 대의를 위해서 무수한 지도자가 살을 에고 뼈를 깎고 있소. 그런 정도까지 나는 유 형에게 기대하지는 않소. 그렇지만 조국의 해방을 눈앞에 두고도 돌멩이 한 개 치우는 노력마저 안 하겠단 말요? 난 유 형을 그런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는데 정말 실망했소.”

나지막하나마 분노에 격한 어조였다. 유태립도 흥분했다.

“안 선생은 안 선생의 신념을 말했습니다. 신념에 대해서 참견할 의사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을 말해 보겠습니다. 독립운동은 독립에만 목적을 두는 운동이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특정한 사상과 주의를 개재시키면 독립운동의 과정에서 단결할 수 있는 접착력을 잃기 쉽습니다. 이것은 아일랜드의 예, 인도의 예를 보아서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정체(政體)를 택할 것인가는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쟁취한 연후에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대로 그들의 단결을 굳게 하고 동지를 포섭하되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때까지 그 주의와 사상을 전면에 내놓아선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민족주의라도 그렇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도 그렇고 프랑스의 정체를 좋아하는 사람도 그래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나라가 나갈 길이 공산주의의 길밖에 없다는 사상은 그것을 찾으러 오는 사람 이외엔 강요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강요해서 될 문제도 아니구요.”

“그것이 돼먹지 않은 망상이란 거요. 주의와 사상이 없이 어떻게 힘을 결집한단 말이요. 그저 독립만 하라고 떠들어 가지고 일이 될 줄 압니까? 꼭 그렇게 믿고 있다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잠꼬대에 지나지 않고, 고의로 하는 소리라면 비겁하고 음흉한 술책에 불과한 수단적인 궤변이요.”

“나라와 나라가 싸울 때, 주의와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요? 나라를 사랑하는 감정, 내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무감, 그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 아뇨? 종교가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 그저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싸우는 것 아뇨? 독립운동이 가능하다면 그 싸움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단 말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이 나라를 찾겠다는 마음과 감정만으로 왜 싸우지 못한단 말요. 공산주의 사상이 아니면 독립할 수 있는 힘을 결집하지 못한다면 미합중국은 어떻게 독립할 수 있었지요? 필리핀의 아기날도는 어떻게 싸웠지요? 인도의 간디와 네루는 어찌자는 거지요?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은 공산주의가 없기 때문에 것처럼 약한 건가요?”

“공산주의로써 무장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계급 투쟁의 의식이 투철하지 못하면 모처럼 얻은 독립의 기회를 사악한 제국주의의 세력에게 가로채일 위험이 있고 반동분자에게 횡령당할 염려가 있는 거요. 그리고 튼튼한 기초를 인민대중 속에 박고 다수의 백성이 고루 잘사는 나라가 되어야만 독립한 보람이 있고 반동분자에게 횡령당하지 않는다는 얘지요. 그렇게 하자면 공산주의 국가로서의 독립이라야 한다 이 말씀이요.”

거칠어져 있는 안의 숨소리를 들으면서 태림은 자기의 숨소리도 거칠어져 있구나 하고 느꼈다. 그래 되도록이면 침착해지려고 애쓰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공산주의 국가로서 독립하지 못할 바엔 독립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안 선생의 말은. 나는 그런 사고방식엔 승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겐 공산주의를 비판할 역량도 없고 그럴 필요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독립운동을 하려면 순수한 독립운동으로 일관해야 하고 정체의 채택은 국민 다수가 자유로운 의사로써 결정할 수 있도록 여유를 남겨 두어야 옳지 않을까 생각했을 뿐입니다. 물론 공산당이 내적으로 단결해서 정체 채택의 마당에선 국민 다수의 의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겠지요. 동시에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의 노력도 막을 순 없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나를 비겁하다고 해도 좋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만 이 창고를 모임에 이용하려는 것은 거절하겠습니다.”

“결국 창고를 빌려주기 싫다는 뜻을 알리기 위한 장광설이었구먼…….”

안달영의 말엔 모멸하는 냉소가 섞였다.

“뭐라고 해도 좋소. 창고를 빌려주지 않을뿐더러 그런 모임을 갖는 일 때까지 나는 반대할 작정이요.”

“뭣이?” / “어떻게 해서라도 그런 모임엔 반대한다고 했소.”

“남의 신념엔 간섭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서?”

“이건 신념의 문제가 아니요. 나는 주의보다 사상보다 극언하면 독립운동보다 지금 나와 같이 이 부대에 있는 친구들의 생명이 중요하요. 안 선생은 그런 모임을 가졌다가 만약 탄로 날 때를 생각해 보았소?”

“대단한 휴머니즘이로구먼. 그런 건 개도 먹지 않는 썩어 빠진 센티멘털리즘이란 말요. 탄로 나면 깨끗이 죽지. 이왕에 개죽음할지도 모르는 생명들이 아뇨? 차라리 조국과 인민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수틀리면 죽는 것이 숭고한 일이지. 유 선생! 비겁하게 굴지 마시오.”

안의 말엔 독기가 서려 있었다.

- 이병주, 「관부 연락선」

[26001-0164]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허봉도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유태림을 방공호 속으로 끌어들었다.
- ② 안달영은 늦은 나이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학병에 자원해 입대하였다.
- ③ 안달영은 유태림이 교양회 개최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 ④ 유태림은 창고 이용과 관련하여 허봉도와 시비를 벌이는 것을 회피하였다.
- ⑤ 유태림은 교양회를 개최하는 것이 조선인 학병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판단하였다.

[26001-0165]

02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외부 세계에 대한 인물의 내적 갈등을 서술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인물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게 된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서술자의 잦은 교체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특정 사건을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26001-0166]

03

윗글에 드러난 [유태림]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의 행동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언급하며 타협을 종용하고 있다.
- ② 상대가 지닌 사상적 신념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③ 상대의 도덕적 결함을 언급하며 상대의 주장이 지닌 윤리적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
- ④ 다른 나라의 구체적 사례를 열거하며 상대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 ⑤ 중심 화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며 상대의 주장이 지닌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26001-0167]

0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이병주의 「관부 연락선」은 1945년 해방을 전후한 5년간, 10여 년의 세월을 시간적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 소설은 해방 전후의 시기에, ‘유태림’이라는 지식인 청년이 경험해야 했던 내적, 외적 갈등을 통해 당대 지식인들이 겪어야 했던 정신적 혼란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유태림’은 독립운동의 당위성과 가치에 대한 순수한 생각과 사상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지식인이었지만, 해방 전후의 혼란한 시기를 지배하고 있던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선택을 강요당하는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시대 흐름 속에서 정신적 혼란을 겪으며 자신이 설 자리를 잃고 역사의 혼탁한 흐름에 휘말려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 ① 일본 패망 직전 일본군 병영에서 조선인 학병을 대상으로 공산주의 교양회가 기획되고 있는 상황을 통해 당시의 시기가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유태림이 어떤 정치 체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쟁취한 후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언급한 것을 통해 그가 사상적 유연성을 가진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독립운동은 독립에만 목적을 두어야 하며 종교, 직업, 계급과 관계없이 싸우는 것이라는 유태림의 말을 통해 그가 이데올로기에 휘말리지 않은 순수한 생각을 지닌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④ 안달영이 창고를 빌려주지 않는 유태림을 애국심과 정의감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공산주의를 기반으로 한 독립을 강변하는 것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신념에 대해 참견할 의사가 없었던 유태림이 외적 갈등의 대상인 안달영이 주최하는 모임 자체를 반대하게 된 것은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혼란의 결과로 볼 수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내 기억으론 내 외당숙이 조성구였지만 그가 조정구라니 조정구가 틀림없다 싶었다. 그가 설사 내 딸 연이가 현이라고 했다면 아마 내 딸은 현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나는 그 앞에 그렇게 무력했고 그는 그렇게 전능했다. 그는 내가 완전히 허탈 상태에 빠진 것을 확인한 후 비로소 엄숙히 선언했다.

6·25 때 의용군으로 나간 오빠가 이북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곧 남파되리라는 것이었다. 먼저 남파됐다가 체포된 간첩에 의해 확인된 정확한 정보란다.

오빠는 오면 반드시 집에 들를 테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그는 물었다.

“㉠어떡하긴요. 그야 당연히 시,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시켜야죠.”

나는 아주 밋고 서툴게 아양을 떨었다.

“㉡잘 생각하셨습니다. 아주머니만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협조해 줘서 고맙다고 덧붙였다. 나도 고맙다고 서너 번 고개를 조아리고 또 한 번 아양을 떨었다. 그리고 놓여났다. 남편과 어머니가 같은 꼴을 당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충청도 진천에서 거의 한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 외가와 그 밖에 오빠가 알 만한 대소가가 다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한 것을 후에 알게 되었다.

그로부터 대문 소리에 가슴이 내려앉는 날이 시작되었다.

“㉢말이 자수지, 그놈이 벌써 마흔인데 그곳에 계집자식이 없을 리 없을 테니 이 에미 말을 들을까? 계집자식 생각이 앞설 테지. 차라리 넘어오다…….”

어머니는 말끝을 흐리고 눈물을 닦는다. 그러나 나는 다음 말을 알고 있다. 나도 방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어머니보다 훨씬 진작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넘어오다 차라리 사살되었으면 하고.

간첩이 된 혈연과는 상봉이 물고 올 사건과의 당면이 두려운 나머지 십팔 평 블록 집 속의 안일이 소중한 나머지, 어머니와 나는 마녀(魔女)보다도 더 잔인해졌다.

[중략 부분 줄거리] ‘나’의 이웃인 설희 엄마는 장애를 가진 딸을 키우며 살아간다. ‘나’는 그런 그녀에게 힘겹게 현실을 살아간다는 데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면서 월북한 오빠와 관련된 집안 사정을 털어놓기도 한다. 그러던 어느 날 미국에 가 있던 설희 엄마의 남편이 취직을 하고, 설희 엄마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난다.

그 틀니는 해 넣은 지가 삼 년은 되었고, 몸에 닿는 것에 좀 지나칠 정도의 결벽성을 가진 나는 실상 내 경제 사정으론 분수에 넘칠 만큼 고가로 한 것으로 일류 치과에서 해 넣은 것이어서 처음부터 크게 불편한 줄 몰랐으나 어찌 된 영문인지 가끔 마음이 울적하다든가 몸이 불편할 때에는 이 틀니가 쑤셨다. 아니 정확히 말해서 틀니가 없힌 턱뼈가 쑤신달까.

의사는 뭐 인체의 거부 반응이라든가 하는 어려운 말로 내 동통을 진찰하고 시일이 지나면 자연히 나아져라 했지만 삼 년이 지나도록 거부 반응은 불쑥불쑥 나를 괴롭혔다.

그 동통과 중압감은 경우에 따라 경중의 차이가 있는데 오늘은 아주 심한 편이었다.

틀니가 천근의 무게로 턱뼈를 눌러 꼭 턱이 떨어지고 말 것 같았다. 나는 손으로 턱을 받쳐도 보고, 슬슬 주물러도 보고, 더위 먹은 짐승처럼 턱을 축 늘어뜨려 입을 헤벌리고 침을 흘려도 보았으나, 턱뼈가 부서질 듯한 동통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았다.

몸의 온갖 신경이 턱뼈를 중심으로 방사선으로 전신에 퍼진 듯, 중압감에 수반한 동통은 턱뼈에서 목

[A] 구멍으로, 귓속으로 골로 퍼져 내 두상은 완전히 틀니의 형포가 지배했다.

누가 이런 고통을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으랴.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틀니를 빼는 길밖에 없겠는데 나는 틀니를 빼고 있는 내 모습에 늘 몸서리를 쳐 왔으므로 차중에서나 길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차마 그 짓은 할 수 없었다.

어찌어찌해서 가까스로 내 집 문 앞까지 왔을 즈음 나는 거의 발광 직전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입을 크게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 가며 틀니를 뽑아냈다.

양쪽 두 개씩 도합 네 개의 어금니가 심어진 반달 모양의 섬세한 백금 틀은 내 손바닥에서 거의 무게를 지니지 않은 채 차게 빛났다.

마침내 무서운 동통과 중압감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내 몸은 가볍다 못해 공중으로 동실 뜨는 듯했다.

이럴 수가, 이렇게 가벼울 수가, 우화이등선(羽化而登仙)이란 이런 기분을 두고 이름인가.

나는 내 편안감을 충분히 만끽하기 위해 몸을 장판 위에 눕혔다.

그 여편네 설희 엄마는 지금쯤 어디를 날고 있을까? ㉔제아무리 공중에 떠 있기로서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갖 사는 어려움부터 벗어났기로서니 지금의 나만큼이야 가볍고 편할쏘냐. 나는 코웃음을 친다.

지금의 내 팔자는 그렇게 편타.

그런데 아까부터 누가 대문을 조심스럽게 두들기고 있지 않은가. 어머니가 누구냐고 몇 번 묻는 것 같다.

그래도 대답 없이 푹푹 두들기기만 한다. 어머니의 신소리가 들린다. 나는 별안간 가슴이 두방망이질을 한다.

대문 소리가 나고 아주 낮은 대화가 들린다. 분명 상대는 남자다. 그것도 사십 대의 남자.

남의 이목을 꺼리듯 대화는 여전히 수군수군 낮다.

[B]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만 것이다! 이제 끝장이다. 파멸이다. 오오 이렇게 파멸이 쉬 올 줄이야.

숨죽은 대화는 아직도 계속된다. 어머니는 자수 권고에 실패한 눈치다. 이렇게 오래 끄는 걸 보니.

가엾은 어머니! 어찌면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도리어 월복을 권하고 아니 협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혹시 강제로 납치하려는 거나 아닌지.

그렇게끔 내버려둘 수는 없지. 나는 벌떡 일어난다. 그 남자와 죽든 살든 결판을 내고 말 테다. 나에

게 ‘그 남자’는 이미 조금도 오빠일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남자’다.

막 나가려는데 어머니가 문을 열고 돌아 들어온다.

“㉕아유 별 끈덕진 사내도 다 봤네. 월부 책을 사라고 어찌나 조르는지…… 말이 그렇게 청산유수고 신수도 희멸정인데 고작 월부 장사밖에 해 먹을 게 없나, 쫓쫓.”

나는 다시 장판방에 눕는다. 한숨을 휴우 내쉰다. 그런데 이미 좀 전의 편안감은 없다.

옴짝달싹할 수 없으면서도 펄펄 뛰지 않고는 또 못 배길 것 같은 중압감과 동통이 여전하지 않은가? 이미

입속엔 뺨 버릴 틀니도 없는데.

뺨 버릴 틀니가 없기에 그 고통은 절망적이다.

나는 비로소 깨닫는다. 여태껏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나를.

내 아픔은 결코 틀니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었던 것이다.

나는 설희 엄마가 부러워서,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그녀가 부러워서, 그녀에의 선망과 질투로 그렇게도 몹시 아팠던 것이다.

나는 그런 아픔이 부끄러운 나머지 틀니의 아픔으로 삼으려 들었고, 나를 내리누르는 온갖 한국적인 제약의 중압감, 마침내 이 나라를 뜨는 설희 엄마와 견주어 한층 못 견디게 느껴지는 중압감조차 틀니의 중압감으로 착각하려 들었던 것이다.

— 박완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26001-0168]

01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인물이 겪을 미래의 사건을, [B]는 시·공간적 배경을 통해 인물이 속한 시대적 맥락을 보여 준다.
- ② [A]는 공간의 이동을 통해 작중 분위기가 전환되는 상황을, [B]는 시간의 경과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준다.
- ③ [A]는 인물의 내면을 묘사하여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B]는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하여 인물 간 갈등의 양상을 보여 준다.
- ④ [A]는 과거형의 진술을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물의 반성을, [B]는 현재형의 진술을 통해 외부 상황에 대한 인물의 추리를 보여 준다.
- ⑤ [A]는 추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신체적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을, [B]는 청각적 묘사를 통해 인물의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을 보여 준다.

[26001-0169]

02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틀니를 무거운 것으로 맞춘 탓에 그에 따른 신체 반응으로 통증을 겪는다.
- ② ‘나’는 오빠가 간첩이 된 경우 집에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 ③ ‘나’는 오빠가 집을 찾아와 어머니에게 월북을 종용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추측한다.
- ④ ‘나’는 딸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난 설희 엄마를 향해 질투의 감정을 지니고 있었음을 고백한다.
- ⑤ ‘나’는 오빠의 친지를 찾아 단속하는 자로부터, 6·25 때 헤어져 이북에 있을 오빠의 소식을 듣는다.

[26001-0170]

0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위세에 눌려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 상대방이 말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말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 있다.
- ③ ㉢: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자신이 놓인 상황을 타인이 처한 상황과 비교하면서 현재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상대방의 정체를 오해했음을 밝히면서 그 처지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171]

04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70년대 한국 사회는 산업화를 거치며 전쟁 이후의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지만, 전쟁의 후유증은 여전히 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특히 이념 갈등에 따른 분단 상황은 월북한 식구를 둔 가족들에 대한 권력 기관의 감시와 연좌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는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던 주인공이 이와 같은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고, 한국 사회를 벗어나 해방감을 느낄 이웃을 상상하면서 자신이 애써 외면한 채 살아왔던 이념의 중압감을 깨닫게 되는 과정을 보여 준다. 이를 통해 분단 시대의 냉전적 사회 구조가 당대 시민들의 의식과 행동을 어떻게 위축시키는가를 조명하고 있다.

- ① ‘그가 설사 내 딸 연이가 현이라고 했다면 아마 내 딸은 현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서술에서, 냉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권력 기관의 감시가 ‘나’의 의식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남편과 어머니’, ‘외가’와 ‘오빠가 알 만한 대소가가 다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한’ 일에서, 월북한 식구를 두었다는 이유로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까지 감시를 당하던 당대의 상황이 드러나는군.
- ③ ‘십팔 평 블록 집 속의 안일’은, ‘나’가 전쟁 이후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지키려 하는 일상적인 행복을 나타내는군.
- ④ ‘가볍다 못해 공중으로 둥실 뜨는 듯’한 기분은, ‘나’가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다 보면 느낄 해방감을 보여 주는군.
- ⑤ ‘여태껏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나를’ 깨달았다는 서술에서, ‘나’가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면서, 애써 외면한 채 살아왔던 이념의 중압감을 깨닫게 되는 상황이 드러나는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포곶의 제 태깅이 점차 바래어 가기 시작한 것은, 쇠계마을을 품어 온 송산(崇山)이 마루를 깎이면서 대신 미군 부대가 올라왔고부터였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면민들에겐 크나큰 사변(事變)이 아닐 수 없었다. 미사일 기지라고도 하고 유도탄 부대란 말도 있었지만, 그야 무슨 부대건 사포곶의 산과 바다, 장터와 들판에겐 비상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주둔군이 많은 것도 아니라고들 했다. 두 중대 병력밖에 되지 않는다더라는 말이 사실일 경우, 소규모의 정예 부대일 게 분명하였다. 그러나 사포곶은 다른 고장과 달랐다. 어쩌다 미군 한두 명만 장터에 들어와도 온 장꾼들의 구경거리가 되곤 하던 가라앉은 고을이었으니까. 미군 부대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나돌 즈음부터 주민들은 엇갈린 관심을 갖고 있었다. 무슨 먹고살 판이라도 만난 듯이 덕 볼 궁리에 기대 진 사람이 많은 만큼, 불안과 우려를 품은 사람도 상당했던 것이다. 어느 편이 었건 관심이 심심찮던 사람들은 정보 탐지며 소문 확인에 열매 있었음도 사실이었다. 장사가 될 만한 것, 혜택을 입어 보는 방법, 밀천 안 넣고 벌이할 방도, 그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부지런히들 뛰어 대던 거였다.

반면 불안과 걱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렇게 뛰었다고 해서 무슨 수가 날 성질의 것이 아니었기로, 덤덤히 앉아 곳만 보고 있었다. 그들이 우려하던 것들은, 주둔 부대가 무엇을 남기며 옮겨 줄 것인가 하는, 피동적이며 소극적인 자세였던 것이다.

[조]도 그런 사람 중의 하나였다. 그는 사포곶의 변모와 그 후발증에 대해 무척 관심을 가졌었고 미군들이 뿌릴 이질적인 풍속과 마주치면 어느 만큼이나 제 모습을 지키며 가꿀 수 있을까 하는, ㉠사포곶의 능력과 지녀 온 저력을 가늠해 보고자 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의 그런 태도야말로 갑작스런 일을 당한 경우에 대처하는 주인다운 마음가짐이며, 당연한 자세라 강조하고자 했다. 겹해서 비록 조그만 읍내에 한정된 넓지 못한 소견임이 사실일지라도 그리고 하찮은 면 단위로 그칠지라도 그것은 국력과 연결되는 비중으로 가늠하는 게 타당하다 믿고 있었다.

기지 정지 작업이 시작되면서부터 사포곶은 두드러지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그것이 유희 노동력의 흡수라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었대도 잠자던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의 활기를 나눠 주게 된 사실만은 외면할 수 없을 일이던 거였다. 주민들의 대부분은 말로만 듣던 미국의 원조란 것을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인 것 같았다. 부대의 노임이 제날짜에 어김없이 지급된다는가, 작업 시간의 엄수 따위, 그런 사소하고도 당연한 일마저 사포곶 사람들에게겐 난생처음 받아 본 대우로 느껴진 까닭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차츰 은연중 흥분을 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네들의 정보 수집이라든가 돈벌이에 관한 계획도 자연 두드러지게 활기를 띠어 갔다. ㉡조가 주체 못 해 한 불안감이 한결 날카로워진 것도 같은 추세였고,

밤마다 송산 꼭대기에 수은등 꽃밭이 이뤄지면서는 사포곶의 변모도 급속도로 진행되어 갔다.

[A] 그 송산 꼭대기의 불빛을 볼 적마다 조는 소름이 끼쳐졌다. 눈이 부시게 밝은 그 불빛들이 어둠을 누르는 보통 불빛에다 견주면 전연 판판으로 보여지던 것이다. 문명의 불빛이기보다는 야만스런 광채였고, 보호와 안전을 위한 친근한 불이기에 앞서 썩늘하기 공포와 위압을 뜻하는 화기(火器)로 여겨지던 거였다. 그렇다 할 근거를 내보이라면 응할 수 없었으리라. 따라서 그런 느낌을 무마시킬 방도는 더욱 없었다. 그는 밤마다 그 불빛들을 올려다보았으므로 이속해지기 전엔 잠도 불려 보질 못한 실정이었다. 그는 송산 마루에 옛 봉수대 터가 있던 걸 본 것도 여러 번이었지만, 미군들이 경계표지로 점화하는 그 불빛마저 ㉢봉홧불로만 보이던 걸 어찌지 못하겠던 것이다.

유사시에만 점화됐다면 산정이 밤마다 하늘을 밝히기 때문이었을까. 그랬는지도 몰랐다. 늘 유사시라는 느낌. 상서롭지 못한, 불길하고도 패악스런 기운이 노상 사포곶 일대를 에워싸고 있지 싶은 기분, 불안해 견딜 수가 없는 불빛이었다. 수은등은 그래도 덜 불쾌한 셈이었다. 그중 드높이 치솟은 시뻘건 ㉞적신포 등…… 그것은 공갈과 협박의 가면으로밖에 달리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었다. 그 적신포등은 늘상 밤을 새 우며 그렇게 서 있으면서도 피곤을 모르고 있었다.

[중략 부분 줄거리] 미군 부대로 인해 사포곶은 타락한 공간으로 변하고, 마을에는 미군의 횡포로 인해 흉측한 일들이 벌어진다. 변화된 시류에 한몫을 잡으려는 부류들로 인해 '조'는 어업 조합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간척 사업의 시작으로 사포곶은 폐항이 된다. 이로 인해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어민들은 망연자실하게 된다.

농촌 근대화란 거국적인 명제를 내세우고 추진하는 일에 어민 구실도 제대로 못 해 본 채 갯물만 허거물 쓰듯 커 온 몇몇 어민들의 절규란 결국 자신들의 무능과 소외감만을 재확인시켜 줄 뿐, 아무런 보람도 구경하지 못하리라고 일깨워 주지 않을 수 없던 거였다. 이날 입때껏 정부 덕을 입어 산 적이 한 번이나 있었던 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었고 ㉞어느 기관이 무슨 일을 하든 모른 척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우리 손으로 자식을 낳아 길렀듯, 우리에게 돌아오는 세월을 우리 힘으로 맞아야 하리라고 설득하지 않은 견디지 못하겠던 거였다. 조는 정말 진심으로 설득하고 싶었다. 우리는 바다만 믿고 살아왔던 것, 쌀과 의복을 바다에서 건져 먹은 것이라고 일렀고 비록 개펄은 잃었을지언정 아직도 하늘보다 더 넓은 바다가 남아 있음을 상기시켰던 거였다. 물론 바다에서 먹고살자던 고달픔이 두세 곱절로 늘며 따라서 생활고가 가중될 건 당연한 이치요 제격에 맞아떨어진 결말이라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럴수록 좌절을 해선 안 된다고 조는 누누이 당부해야 했고 또한 자기가 그 본때를 본보이기로 술선했 나서고자 했던 것이다.

㉞먼저 조가 착수한 일은 어살*을 맨 일이었다. 십여 리 밖 제방 너머 뱃길 건너편 개펄에다 어살을 매기로 작정했던 건 배를 유실하고부터 새겨 뒀던 계획이기도 했다. 그것은 육기로 제집을 불 지르고 남의 집 추녀 끝에서 한둔하게 된 신세와 조금도 다를 게 없을 심정이기도 했다. 자식들도 매한가지던가 보았다.

“아버지, 지발 덕분 집어칩시다유, 집어치유, 암만허면 우리가 굶기야 혈류, 남 뵈기 창피시렵게스리 이 게 뵈이난 말유.”

작은아들 요상이가 대살 옆을 대오리를 쪼개다 말고 투덜거린 것도 한두 차례랄 수 없었다.

“청송맞어 못 보겠단게유.” / 그러나 조는 못 들은 척했고 더러는,

“니가 무신 말을 워치기 혈라구 허는 소린지는 모르겠다마는 이전버텀 뒷집 찌구 밥 먹었다는 사람 못 봤다. 굶뱅이두 꿈지럭그러야 먹구사는 게 원측인디 너는 원제나 철이 들래?”

“그래두 이거 원…… 참 내…….” / “쉬르— 그러크럼 시금털털헌 소리 혈람 저만침 가 놀어라 놀어.”

사실 조는 혼자 생각만이 처량할 따름, ㉞남의 눈은 있어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았다. 언제까지나 상처만 들여다보며 아파할 순 없는 노릇이었다. 전엔 몸이 귀찮을 만치나 무슨 훈장처럼 주렁주렁 매달고 다녔던 하잘것없는 허울들…… 어업 조합장, 사포곶 수고 사친회장, 번영회 부회장, 사포곶 초등학교 기성회 이사, ○○당 지구당 자문 위원 따위 먹잘 것 없이 명함만 지저분해진 명칭들을, 그는 애써 잊고 박차 버린 지 오래였던 것이다.

— 이문구, 「해벽」

*어살: 물고기를 잡는 장치.

[26001-0172]

0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 주체가 행위 주체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다.
- ② 서술 주체가 인식 주체의 관점에서 인식 주체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식 주체와 일치하는 서술 주체가 행위 주체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행위 주체와 구별되는 서술 주체가 행위 주체의 과거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⑤ 행위 주체와 일치하는 서술 주체가 다양한 인물의 행위와 심리를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26001-0173]

02

㉠~㉣을 바탕으로 [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포곳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이고 있다.
- ② ㉡: 미군 부대로 인해 마을에서 자신의 지위가 무너질까 염려하고 있다.
- ③ ㉢: 어민들을 위한 정부나 기관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 ④ ㉣: 어부로서의 삶에 충실함으로써 마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 자신의 체면보다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을 더 중요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26001-0174]

03

㉠과 ㉡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는 모두 특정 인물에게 불길함을 떠올리게 한다.
- ② ㉠과 ㉡는 모두 변화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함축하고 있다.
- ③ ㉠은 문명의 불빛임을 드러내지만, ㉡는 야만스러운 광채를 지니고 있다.
- ④ ㉠은 마을 사람들에게 평온함을 가져오지만, ㉡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킨다.
- ⑤ ㉠은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는 상서로운 기운을 나타낸다.

[26001-0175]

04

〈보기〉를 바탕으로 밑줄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해벽」은 1960~70년대 농촌 근대화, 서해안 간척 사업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농어촌 마을이 해체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어업을 주된 산업으로 하는 전통적 어촌 마을에 외부 세력이 유입되면서 시작된 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었다. 그와 같은 변화는 당시 사람들에게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가져다주었고, 시류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와 과거의 삶을 지키기도태되고 몰락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었다.

- ① ‘미군 부대가 올라앉고부터’ ‘사포곶의 제 태깅이 점차 바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통적 어촌 마을이 외부 세력의 유입으로 인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② ‘무슨 먹고살 판이라도 만난 듯이 덕 볼 궁리에 기대 건 사람’은 변화하는 시류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③ ‘사포곶의 변모와 그 후발중에 대해 무척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삶을 지키려던 사람들 역시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④ ‘어민 구실도 제대로 못 해 본 채 갯물만 허거물쓰듯 켜 온 몇몇 어민들’은 시대 변화에 도태되어 몰락해 가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⑤ ‘바다에서 먹고살자던 고달픔이 두세 곱절로 늘며 따라서 생활고가 가중될 건 당연한 이치’라는 것은 밀려드는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딸네 살림이 어려워지자 손자인 ‘나’의 집으로 온 할머니, 울산에서 장사하다가 장남인 ‘나’의 집으로 온 어머니를 모두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자주 심하게 다투는 두 분 사이를 중재하느라 애를 먹는다. 어느 날 회사에 있던 ‘나’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급히 돌아온다.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가 벌어진 결정적인 이유는, 해방이 되고 아버지가 본격적인 좌익 운동에 나서고부터였다. 아버지는 남로당* 모화책에 울산지부 조직부장책을 맡아 뛰었다. 아버지는 자주 집을 비웠고, 지서 순경들이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했다. 순경과 서북 청년단*원, 대한 청년단*원 들은 아버지를 찾아내라고 걸핏하면 어머니를 지서로 연행해 갔다. 연행당해 가면 어머니는 얼마나 타작매를 당하셨던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 돌아왔다. ㉠한번은 실신해 가마니에 실려 돌아온 적도 있었다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전깃불을 비추며 저들이 또 들이닥칠까 봐 밤을 무서워했다. 할머니라도 집에 있어 주면 그 무섭증이 덜하련만 할머니는 체구처럼 간이 작아 아버지가 좌익 운동에 나서고 순경들이 집 출입을 하고부터, 태평양 전쟁 말기에 정신대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서둘러 결혼한 호계 고모네 집에 숙제 눌러사졌다. ㉡어머니는 젓먹이 어린 나를 안고 밤이면 밤마다 공포에 떨며 뜬눈으로 새벽을 맞기가 일쑤였다.

“……내가 니를 업고 호계 시누이 집으로 가서, 니 할매한테 울며불며 얼마나 애원했겠노. 지발 집에 오셔서 내하고 같이 계시자꼬 말이다. 그래도 씨가 먹혀 드가야제. 순사도 어데 거게마 가는 줄 아나. 여계가 성모 여동상 집이라고 여계도 자주 와서 분탕을 친다 카미, 거게나 여계나 똑같다고 한사코 안 올라가더라. ㉢그때는 니 할매가 귀신한테 씌었는지 죽자 살자 내 얼굴을 안 보라 안 카나. 말 같은 메누리가 이 집 귀신 될라고 간택되는 바람에 멀쩡한 서방 죽고 자숙까지도 좌익에 미치갱이가 됐다고 동네방네 나발을 불고 댕기니, 시집 잘못 온 죄밖에 읊는 내 팔자가 와 그래 서럽던둥…… 그러던 차에 머신 법이 새로 생기서 자수하지 않는 빨갱이는 몽지리 잡아 영창에 처넣고, 그중 악질은 총살시킨다 카이, 그때서야 니 애비가 어디선가 모화로 돌아와 지서에 자수를 한 기라. 보도 연맹인강 먼강, 거게 가입해서 겨우 도망 안 댕기도 되는 살길을 찾았지리. 그래 되이까 시어미가 그제서야 딸네 집을 떠나 우리 집으로 옮겨 오더라. ㉣참말로 사람도 좁쌀만 한데, 하는 짓까지 얼마나 얄밟던지…… 보골(화)이 났지마는 그래도 니 할매가 집에 오니까 반갑데. 꼬라지도 보기 싫은 니 애비 사이에서 말도 부치고 하이께 집 안에 훈기가 쪼매 돌았지리. 그런데 알고 보이께 니 애비가 자수를 하고도 지서 몰래 그 짓을 계속했던 모양이라. 일제 때는 야학당 한다고 시아비가 안 묵고 안 쓰고 장만한 논마지기를 쪼개서 팔아묵터이, 육이오 전쟁이 날 때꺼정지 에미 몰래 나머지 논마지기를 또 몽땅 다 팔아서 그놈 빨갱이 자금으로 쓴 기라. 그라고 전쟁이 터지자, 니 애비가 메칠 만에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지 뿌린 기 아니겠나. 보도 연맹 가입자들을 예비 검속한 다 카는 소문을 어데서 들은 모양이라. 미친놈으 서방. 그놈 믿고 자숙 둘까지 싸질러 가미 살은 내가 등신이지리. 니 할매는 지금도 이북 어데 자숙이 살아 있겠거니 하지만서도, 내 생각기로 버려써 뒤했다. ㉤홀에미한테 불효하고 처자숙 버리고 도망질 간 늑이 땅에 두 발 딛고 우째 살 수 있겠노. 그렇게 니 애비가 읊어지고 나자, 하메 소식이 올까 올까 하고 기다리는 기 두 달, 시에미마저 보파리를 싸 가지고 또 호계 딸네 집으로 가 뿌린게 내가 무슨 청승으로 빈집을 지키겠노. 남은 논마지기도 읊으이께 하루 두 끼 묵기도 심이 들어, 내 젓이 안 나오이께 니 동상은 비실비실 말라서 다 죽어 가제, 밤이모 순사들이 또 찾아오

제…… 그때사 증말로 약이라도 묵어 죽고 싶더라. 그래서 내가 모진 결심을 안 했다.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죽기사 마찬가지로, 이 언손시러분(지긋지긋한) 모화 땅을 떠나자고 말이다. 너저 두 성제간을 걸리고 엮고, 견고 걸어 올산으로 나갈 때, 들판에 곡식이 자알 익었더라. 가랑잎은 날리고, 곧 엄동은 닥 치는데 낫설고 물설은 올산으로 나오자, 집도 절도 읍이 자숙 데불고 우째 살꼬 싶어 눈앞이 캄캄하더라. 딸린 새끼만 읍었다 캐도 그때사 마 내 혼자 서까래에 목매달아 죽었을 끼라. 올산에서 내가 너저 성제간 데불고 추위는 닥치는데 남으 처마 밑이나 역 대합실이나 헛간이나, 비 피하고 바람 막을 데모 가리지 않고 너저 성제간을 양쪽 가슴에 꼭 붙안고 그 체온으로 삼동 겨울철을 넘긴 그 시절, 츠음 이 에미가 한 짓 이 먼공 아냐? 바로 결뱅이짓이었데이. 깡통 들고 통통 부은 손발로 남으 집이며, 미군 부대며 문전걸식 동냥질을 했니라. ㉔몸에 이가 수백 마리나 꿩고, 열흘이고 보름이고 낫짝도 몬 씻은 얼굴에, 입성이라고는 똥두더기 같은 찌든 이불을 둘러썩으이게 너저 성제간 끝은 말하모 머 하겠노. 그때 니가 다섯 살, 니 동상이 두 살이었다. 올산서 내가 호계 사람도 만났으이게 니 할매한테 올산 땅서 결뱅이질하고 댕기는 메뉴리 소식도 전해졌을 끼다. 그런데 말하모 머 하노. 죽으모 제상 채리 줄 친손자가 그 지경인데 할미란 사람이 핏줄 찾을 생각도 않더라. 남남이라도 어데 그라겠나. 내가 메루치 장사로 방 한 칸을 얻을 때겨정 코빼기도 안 비치더라. 오냐, 내가 이 두 자숙을 질질이 키아서 옛말하고 살 때, 내 팔세한 이눔으 시상, 어데 두고 보제이. 내가 무명지를 깨물어 맹세하미 나올 젓도 읍는 쪼그라진 가슴팍에다 피로써 십자가를 그렸니라. 지금도 보이제, 이 살점 날아간 손가락이…….”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밤, 중고품 교복만 사 입히던 내게 처음으로 새 교복을 맞춰 주시고 어머니는 우리 형제를 앉혀 놓고 이 말을 하시며 눈이 붓도록 우셨다. 살아온 당신의 역정과 그 울음이 너무 절절 하여 나와 아우도 따라 울지 않을 수 없었고, 세 모자는 울음으로 밤을 밝혔다. ㉕거칠고 매정하며, 두 자식을 매질로 키워 온 어머니를 내가 뜨겁게 이해하게 된 것이 그날 밤 이후였다. 우리 형제를 솟포대 매질로 키워 올 때도, 그 때가 서른둘에 청상이 되신 뒤 홀몸으로 세파를 이겨 온 분풀이와 설움의 또 다른 표현임을 알았고, 나는 순종으로써 어머니의 한풀이를 달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중략)

㉖부엌방에서는 고모의 질편한 울음 속에 뉘두리가 끝없이 풀어지고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살아생전 호강 한분 몬 해 보고, 이날 이때꺼정 대접받는 밥 한 그릇 몬 자시 보고 돌아가시다이…… 어무이요, 어무이요, 이 몬난 딸자숙 욕이나 실킨 하이소. ㉗마음씨가 여러 딸네 집에 살 때는 사위 보기 미안타미 늘 눈 한분 몬 치켜뜨고 밥상 앞에 앉으셨고, 범상인 메뉴리는 무슨다고 올산 쪽은 얼씬도 몬 하셨고, 겨우 마음씨 고분 손자메누리 덕에 뗏 년은 자알 지내셨는데, 또 원수지간인 메뉴리 눈칫밥 묵자, 그기 어데 소화나 제대로 땔겠습니껴. 오매불망 기다리던 아들 얼굴 한분 몬 보고 마 이래 눈을 감으시다니…… 대역죄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 말 한분 속 시원케 몬 해 보고, 한이 되고 암이 돼도 이날 이때꺼정 보도 연맹에 자수해서 재판도 받을 필요 읍다는 아들이라며, 오빠 기다리는 정성 하 나로 목숨을 부지해 오시다가…….”

“고모님, 그만 우시이소.” 내가 말했다.

아내가 잠시 부엌으로 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자리에 내가 앉았다. 나는 다시 담배 한 대를 꺼내 물며 무심코 할머니 얼굴에 눈을 주었다. 순간, 나는 할머니가 숨을 쉬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얼굴이 평온하

고, 구긴 미농지* 같은 그 많은 주름도 조금 펴져 있었다. 할머니는 눈을 반쯤 뜨고 있었는데, 눈동자에 초점이 없었다.

“고, 고모님, 할무이가……” 하고 더듬거리며, 나는 장작개비같이 마른 할머니 팔목을 잡고 맥을 짚었다. 맥박이 뛰고 있는지 멈췄는지 분간할 수 없었다.

고모님이 할머니 얼굴을 감싸안고 엎어지더니 와락 통곡을 쏟기 시작했다. 내 눈에서도 눈물이 썸 없이 흘러내렸다.

“준구 엄마, 어무이!” 내가 아내와 어머니를 다급하게 불렀다.

부엌에서 아내가 뛰어왔다. 집 안에 계시지 않는지 어머니는 나타나지 않았다.

시장 입구에 있는 장의사와 윤 내과에 들르려 내가 골목길로 허겁지겁 뛰어갈 때, 맞은쪽에서 어머니가 준옥이와 나란히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어머니는 준옥이 손을 잡고, 한 손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내 다급한 걸음과 얼룩진 눈을 보고도 어머니는 애써 눈길을 피했다. 네 할미가 어찌 됐냐고 물으시려고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어머니가 그때 들고 오신 비닐봉지 속에는 간갈치 두 마리가 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고모가 할머니 유품을 정리할 때, 할머니가 사십여 년을 차고 다닌 낡고 닳아빠진 비단 꽃주머니 속에서 동전 삼백 원과 증명서 한 장이 나왔다. 모서리가 닳은 그 증명서는 누렇게 색 바랜 아버지의 손톱만 한 흑백 사진이 붙은 ‘보도 연맹 가입증’이었다.

— 김원일, 「미망」

*남로당: 남조선 노동당. 1946년에 서울에서 결성된 공산주의 정당.

*서북 청년단, 대한 청년단: 해방 후에 조직된 반공 청년 단체들의 이름.

*미농지: 닥나무 껍질로 만든, 썩 질기고 얇은 종이의 하나.

[26001-0176]

01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소설에서 1인칭 서술자가 제시하는 과거 사건에 대한 정보에는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일도 있고, 타인에게 전해 들어 알게 된 것도 있다. 그중 후자는 대개 타인의 발화를 직접 인용하거나 간접 인용하는 형식을 택한다. 그런데 표면적으로는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일을 회상한 서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인용의 표지가 없는 인용으로 제시한 것인 경우도 있다.

① ㉠

② ㉡

③ ㉠

④ ㉡

⑤ ㉠

[26001-0177]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할머니에 대해 어머니가 느꼈던 두 가지의 모순된 감정이 나타나 있다.
- ② ㉡: 가족에 대한 도리를 다하지 않은 아버지를 향한 어머니의 원망이 드러나 있다.
- ③ ㉢: 타향에서 거처도 없이 떠돌며 가난으로 고생하던 가족들의 외양이 묘사되어 있다.
- ④ ㉣: 자식들을 대하는 어머니의 태도에 대해 ‘나’가 가졌던 인식의 변화가 언급되어 있다.
- ⑤ ㉣: 할머니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다고 여기는 고모의 생각이 드러나 있다.

[26001-0178]

03

손가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어머니가 오랫동안 감춰 왔던,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을 보여 준다.
- ② 어머니가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을 상징한다.
- ③ 극심한 이념 대립으로 인해 어머니가 갖게 되었던 염세적인 태도를 함축한다.
- ④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주는 세상을 향해 어머니가 다졌던 독한 의지를 환기한다.
- ⑤ 고부간 갈등으로 빚어진 물리적 충돌 과정에서 어머니가 입게 된 신체적 피해에 해당한다.

[26001-0179]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국민 보도 연맹(보도 연맹)은 정부가 좌익 전향자를 계몽, 지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목표하에 1949년 4월에 조직한 단체였다. 보도 연맹은 국가 보안법 관련자와 남로당원 및 남로당 외곽 단체 구성원을 가입 대상으로 삼는 좌익 전향자 단체를 표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검찰과 경찰 등 좌익 관련 수사 기관 간부들이 주도하는 관변 단체로서 국민들에게 반공 사상을 전파하는 역할을 했다. 정부는 가입자의 신분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공민권이었던 ‘도민증’ 대신 ‘보도 연맹 가입증’을 발급함으로써 이들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했다. 또 거주, 이전의 권리도 제한했으며, 정기적으로 동태를 감시하면서 요시찰인으로 관리했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보도 연맹원들은 ‘예비 검속’이라는 이름의 조치로 정부에 의해 곧바로 소집·구금되어 고문을 동반한 취조를 받았으며, 전황이 불리해진 상황에서 많은 수가 법적 절차 없이 죽임을 당했다.

- ① ‘지서 순경들이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타작매를 당하셨던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 돌아’오곤 했던 이유는, 아버지가 보도 연맹의 예비 검속을 피해 달아났기 때문이었군.
- ② ‘어디선가 모화로 돌아와 지서에 자수를’ 했던 아버지가 6·25 전쟁이 나자 ‘메칠 만에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지 뿌린’ 이유는, 고문을 동반한 취조 같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예감했기 때문일 수 있겠군.
- ③ 아버지가 ‘보도 연맹인강 먼강, 거게 가입해서 겨우 도망 안 멩기도 되는 살길을 찾았’던 것은, ‘남로당 모화책에 울산지부 조직부장책을 맡아 뛰었’던 이력과 관련이 있겠군.
- ④ ‘지금도 이북 어데 자숙이 살아 있겠거니 하’며 오랜 세월을 버틴 할머니가 소중하게 간직했던 ‘모서리가 닳은 그 증명서’는, 과거 정부가 아버지를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하면서 발급한 것이었겠군.
- ⑤ 할머니가 ‘보도 연맹에 자수해서 재판도 받을 필요 읍다’면서도 ‘대역죄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 말 한분 속 시원케 몬 해 보고’ 살았던 것은, 자기 아들처럼 보도 연맹 가입자였던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았다고 느꼈기 때문일 수 있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는 직장에서 급여를 여러 달 받지 못하자 결국 사직서를 내고,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가 여느 날과 같이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행동을 보이자 그날 오후 충동적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 마을 ‘꼬두메’로 향한다.

쿵더덕 쿵더덕…….

철교 위를 지나는 참인지 별안간 바퀴 소리가 커지면서 공허하게 울리고 있었다. 아마도 금강의 지류이리라. 덜컹대던 바퀴 소리는 한참 후에 다시 잦아들었다. 시계가 두 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다. 승객들은 피곤에 젖어 대부분 의자 위에서 허리를 구부린 채 불편한 잠을 청하고 있었다. 자욱한 담배 연기 때문에 실내는 부엌에 흐려 보였다. 사람들의 창백한 얼굴들은 얼핏 흔들거리는 요람 속에 누운 미라의 모습을 연상케 했다.

몸은 피곤했으나 웬지 그는 그다지 졸음기를 느낄 수가 없었다. 오히려 정신은 갈수록 투명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A] 꼬두메. 어두운 차창 저편으로 시선을 던지며 그는 혼자 가만히 그렇게 뇌까려 보았다. 불현듯 까맣게 묻혀져 있던 기억의 저편 어딘가로부터 아련한 그리움과 함께 그 이름은 그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생각하면 참으로 오랫동안 그 정겨운 고향 마을을 잃어버린 채, 그는 매물차고도 척박한 도시의 뒷거리를 병든 개처럼 지금껏 홀로 비틀거리며 헤매어 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깊숙이 빨아들었다가 천천히 내뿜었다. 파란 연기가 창유리에 부딪치며 실타래로 가느다랗게 풀어지고 있었다.

[B] 꼬두메는 무등산 기슭의 작고 한적하기만 한 동네였다. 사십여 호가량 되는 토담집들이 꼬막 껍질처럼 웅기중기 둘러앉은 마을 뒤편으로는 꽤 가파른 고개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잣고개라고 불렀다. 고개 위로 배암이 기어가듯 구불구불 나 있는 길은 무등산으로 통하는 유일한 군용 작전 도로였다. 그 잣고개 기슭을 흐르는 실개천을 따라 얼마쯤 내려가노라면 마을 초입에 커다란 당산나무가 보였고, 거기서부터 다시 산 쪽을 향하면 그의 집은 멀지 않았다. 경충하니 키 큰 대나무밭을 뒤로 두르고, 탕자 나무와 뜨락의 수국꽃이 아름답던 그 두 칸짜리 토담집 오막살이에서 어머니는 그와 형의 땃줄을 자른 것이었다.

(중략)

발가락이 시려 왔다. ㉠어머니는 멍하니 풀린 시선을 허공에 던져둔 채로 말없이 그의 곁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는 자꾸만 언 발을 구르며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었다. 눈앞으로는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이 길게 줄을 이어 펼쳐져 있었다. 그는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렸다가는, 마치 ㉡기적을 바라듯 다시 고개를 돌려 앞을 쳐다보곤 했으나, 거기 눈앞에 우뚝 서 있는 십 층 건물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그곳은 K시의 로터리 부근이었다. 거기서부터 다섯 개의 길이 따로 갈라져 있어서, 통칭 오거리라고 불리운다는 사실을 그는 조금 전에야 알았다. 시가지를 쫓아서 두 가닥의 길이 시원스레 뚫려 있고, 북으로는 기차역, 서쪽으로 공단 지대를 향하고 길이 나 있었다. 그리고 ㉢시가지의 반대편으로 난 이차선 도로는 무등산으로 통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그 길목에서 벌써 오랫동안 뱅뱅 맴을 돌고 있는 참이었다.

하늘은 금방 눈이 쏟아질 듯 잔뜩 흐려져 있었다. 짙은 잿빛 구름장이 느린 속도로 흘러가고 있는 게 보였다. 세상은 온통 은빛이었다. 밤새 내린 눈으로 거리와 지붕들, 그리고 가로수의 혈맥은 가지들도 모두가 두툼한 솜옷을 껴입은 듯한 모습이였다.

폭설 주의보가 내려다더군.

글쎄 말이시. 삼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굉장한 눈이래지 아마.

행인들이 그런 말을 주고받으며 빙판길을 엉금엉금 지나가고 있었다. 벌써 열 시가 가까워 오는 시각이었다. 기차가 종착역인 K시에 닿은 때가 아침 일곱 시. 역 앞 식당에서 요기를 하고, 방 안에 들어가 잠시 몸을 녹인 다음 그는 택시를 타고 곧장 그곳으로 달려왔던 것이다.

꼬두메라구요? 그런 동네는 금시초문인데요.

운전수의 뜻밖의 대답에 그는 아차, 했다. 하지만 너무 번두리인 데다가 그동안 명칭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고 애써 믿으며, 그가 다시 잣고개라고 가르쳐 주자 비로소 운전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내가 막상 전혀 낯선 곳에 그들을 내려 주었을 때 그는 눈을 의심해야 했다. 거대한 아파트 건물들과 고급 주택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는 그곳이 예전의 논밭과 야산이 있던 자리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암만해도 엉뚱한 곳으로 잘못 찾아온 것이리라 생각했다.

글쎄요. 꼬두메라는 동네는 모르겠소만, 잣고개는 저어기 있잖소.

근처의 구멍가게 주인 남자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손가락질을 해 주었다. ㉠그쪽으로 시선을 주었던 그는 삽시간에 온몸의 힘이 쭉욱 빠져 버리는 느낌이었다. 비록 비좁고 흙먼지투성이이던 예전의 작전 도로가 그새 말끔한 이차선 포장도로로 바뀌어져 있는 것 외에는, 그것은 아무리 봐도 잣고개임에 틀림없었다.

그렇다면…… 그는 고개 아래 기슭까지 들어앉아 있는 육중한 고층 아파트 건물들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의 기억 속의 풍경과는 눈곱만큼도 닮아 있어 주지를 않았다. 번두리의 맨 마지막 가로등이 있는 곳으로부터도 논둑길을 따라 반 시간은 족히 걸어야 했던 산비탈 동네가 번드르르한 고급 주택가로 변해 있었고, 눈만 뜨면 을씨년스레 시야를 붙잡아 내리곤 하던 맞은편 언덕의 공동묘지 자리엔 아파트가 여러 채 들어서 있었다. 그리고 그 사이로 기름진 팔뚝 같은 아스팔트가 흰히 뿔려 있는 것이었다.

모두가 생각하면 할수록 어리석은 짓이었음을 그는 뒤늦게야 깨닫고 있었다. 처음부터 앞뒤 가릴 여유조차 없이 ㉡어머니의 황당한 뉘두리를 좇아서 덜컥 그곳으로 찾아 내려온 것부터가 엉뚱하기 그지없는 일이었다. 애당초 십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가난한 꼬두메 마을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리가 만무했다.

찬우야이.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니께 왜 여그서 이르고 있냐이.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보채기 시작했다. 추위로 그녀의 입술이 푸르게 변해 있었다. 여기가 꼬두메예요, 어머니. 똑똑히 보시라구요. 어머니가 그렇게 가자고 조르시던 곳이 바로 여기라니깐요. 하지만 그는 차마 그 말을 입 밖에 낼 수가 없었다. 설혹 그런다 한들 아이들을 리도 없을 터였다. 그는 눈앞으로 허공을 비스듬히 가로지르고 있는 아파트 건물을 우울하게 올려다보았다. 거기엔 바로 예전에 공동묘지가 있던 자리였다. 십 년이 넘도록 한 번도 찾아보지 못한 채 내버려두었던 아버지의 무덤. 그 무덤이 어찌면 저 거대한 아파트 밑의 땅속 어딘가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문득 무엇인가 목구멍을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덩어리를 삼켰다. 뒤늦은 후회와 죄책감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다.

어머니는 파랗게 질린 입술로 몸을 떨고 있는 기색이 역력했다. 우선 추위를 피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는

부근의 다방으로 들어가 난로 가까운 자리에 어머니를 앉으시도록 했다.

잠깐만 여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어머니. 무얼 좀 알아보고 나서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아셨지요. 네?

절대로 그 자리에 앉아 계시라고 신신당부를 한 다음, 그는 다방을 나와 아까 보아 두었던 동사무소를 찾아갔다.

아아, 뉴타운 아파트 말이군요. 글썄요. 아마 지은 지는 몇 년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걸 여기 와서 물어보십니까.

나이가 꽤 들어 보이는 남자가 난로 곁에 서 있다가는 그가 내민 담배 한 갑을 어색한 기색으로 받아 들며 대답했다. 그는 지금의 아파트 자리에 있었던 공동묘지에 관해 알고 싶노라고 말했다.

원 세상에, 저런. 그러니까 묘를 잃어버리셨다는 말씀이구먼. 아니, 그때 신문 지상에 **분묘 이장 공고**를 냈었을 텐데 보지 못하셨소?

사내는 조금 놀랍다는 시늉으로 새삼스레 그의 얼굴을 훑어보는 것이었다. 그는 까닭 모를 부끄러움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못 봤습니다. 알았으면 이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주인 없는 분묘라도 어디론가 이장을 하기는 했을 게 아닙니까.

물론, 그랬겠지요. 어쨌든 일단 시청으로 가서 알아보시구려. 해도, 보나 마나 헛수고일 거요. 거 참,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찾아낸단 말이오. 시퍼렇게 살아 있는 사람들도 못 만나서 아우성들인데…….

대관절 이제껏 어디서 뭘 했길래 무덤이 파헤쳐진 줄도 모르고 있었담, 하는 눈초리로 사내는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그는 도망치듯 허둥지둥 그곳을 빠져나오고 말았다.

— 임철우, 「눈이 오면」

[26001-0180]

01

[A]와 [B]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와 [B]는 모두 과장된 표현을 활용하여 특정 공간에 얽힌 인물의 내력을 그려 내고 있다.
- ③ [A]는 인물의 행동 묘사를 통해 갈등 상황을, [B]는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A]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하여 인물의 성격을, [B]는 공간의 구조를 제시하여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하고 있다.
- ⑤ [A]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을, [B]는 지시 표현을 활용하여 인물의 기억 속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26001-0181]

02

㉠~㉤을 바탕으로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길을 헤매느라 탈진한 어머니가 무기력하게 ‘그’에게 의지하고 있어 더욱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 ② ㉡: 달라진 고향의 모습에 놀라 눈에 보이는 분명한 사실조차 믿지 못하고 부정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다.
- ③ ㉢: 기억 속 모습에서 달라진 공간의 모습 때문에 목적지를 찾지 못하고 긴 시간 동안 헤매고 있다.
- ④ ㉤: 누군가의 착오나 실수로 고향 마을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옛 마을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것임을 깨닫고 허탈해하고 있다.
- ⑤ ㉤: 어머니의 막연한 요구에 따랐을 뿐, 계획이나 사전 조사 없이 충동적으로 출발했던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 <보기>를 참고하여 03번과 04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

소설 「눈이 오면」에서 작가는 도시에서의 불안정한 삶에 지친 중년 남성과 도시의 거처를 부정하고 고향에 있는 집을 그리워하는 노모가 옛 고향 마을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 도시에 부적응한 인물들을 그린다. 이들이 고향 마을에 도착하고서도 결국 고향집 찾기에 실패하는 과정은 국가 주도의 급속한 도시화·산업화가 개인에게 남긴 상실감과 박탈감, 그리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겪게 되는 정체성의 혼란을 잘 보여 주고 있다.

[26001-0182]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그’가 도시에서의 삶을 돌아보며 ‘그 정겨운 고향 마을을 잃어버린 채’ ‘매몰차고도 척박한 도시의 뒷거리를’ 헤매어 다녔다고 언급하는 것은, 급속한 도시화·산업화 과정에서 홀로 뒤처져 살았던 이유를 박탈감에 근거하여 설명하는 것이군.
- ② ‘흙먼지투성이이던 예전의 작전 도로’가 ‘말끔한 이차선 포장도로’로 바뀐 것을 보며 상실감을 느끼는 ‘그’의 모습은, 농촌이 급격히 개발되는 과정에서 고향이라는 정서적 인식처를 잃어버린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군.
- ③ 기억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고향을 찾아왔지만 결국 ‘기억 속의 풍경과는 눈곱만큼도 닮’지 않은 곳에 도착하게 되는 ‘그’의 모습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된 급속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이 느끼는 소외감을 그려 낸 것이군.
- ④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아버지의 무덤을 찾으려 하지만 ‘언덕의 공동묘지 자리엔 아파트가 여러 채 들어서 있’어 혼란과 죄책감을 느끼는 ‘그’는, 국가 주도의 개발로 고향과의 중요한 연결점을 상실한 인물로 볼 수 있군.
- ⑤ 귀향길을 막무가내로 고집하던 어머니가 고향 마을에 도착하고서도 ‘어서 우리 집으로 가자’고 요구하는 모습은,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소외된 개인이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겪는 인지적 혼란을 형상화한 것이군.

[26001-0183]

04

〈보기〉를 참고할 때, **분묘 이장 공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국가 주도적 개발의 일면으로, ‘그’는 이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낼 기회가 없었던 것에 분노하고 있다.
- ② 도시 개발 계획에 뒤따른 것으로, ‘그’는 공고를 통해 이장 소식을 알지 못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다.
- ③ 뉴타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그’는 공고를 알아차릴 기회가 없었음에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 ④ 도시 구조 개편에 따라 실행된 것으로, 동사무소의 ‘사내’는 자신이 낸 공고를 보지 못한 이들을 비난하고 있다.
- ⑤ 고향을 떠난 이들을 위해 진행된 것으로, 동사무소의 ‘사내’는 ‘그’가 고향 방문을 하지 않았던 것을 질책하고 있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나’는 재개발로 인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A] 나는 낡은 털신 밑에서 뾰드득거리는 소리가 나도록 성큼성큼 무릎을 들어 발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아홉 가구가 함께 쓰는 변소 문을 열고 문턱에 올라 두 번씩이나 푸드덕푸드덕 몸서리를 치며 오줌을 갈겼다. 이빨을 위아래로 서너 번 맞부딪치며 뿜아내는 오줌 줄기가 원뿔형으로 딱딱하게 굳은 언 통에 둔탁하게 달라붙는 소리가 들렸다. 곧이어 따스한 오줌 세례를 받은 언 통이 물렁물렁하게 녹아내리는 소리를 눈을 지그시 감고 듣다가 김이 되어 무력무력 콧속을 파고드는 지린내에 코를 쫓긋거리며 돌아 나온 것까지는 좋았다.

㉠바지춤을 추스르며 김장독을 가지런히 묻어 둔 걸을 어정어정 걸어 나오다가 발끝으로 눈 덮인 가마니 때기 밑에서 뭔가 묵직한 것을 밟았다. 가마니때기 속에 발을 담근 채 눈을 꼭 뒤집어쓰고 벽에 기대 있던 그 기다란 물체는 고개를 발딱 젖히는가 싶더니 옆으로 풀썩 쓰러졌다. 눈이 털려 나간 그 물체는 공사판에서 쓰는 빠루라는 연장이었다. 어른 엄지보다도 굵은 그 기다란 쇠뿔치는 지렛대로 쓰였는데 끝이 물음표처럼 생겼고 또 갈래가 저서 대못 같은 것을 빼는 데 아주 쓸모가 있었다. 그런데 그 빠루가 넘어지면서 하필이면 땅속에 묻지 않고 그냥 바깥에 놔둔 조그마한 짚지 단지를 스치자 뚜껑은 두 동강이 나 떨어졌고 몸통에는 왕금이 좌악 그어졌다. 금은 값지만 그 짚지 단지가 당장 두 쪽으로 갈라질 것 같진 않았다. 하지만 그 갈라진 틈새에서는 시금털털한 김치 냄새를 풍기는 국물이 쨌끔쨌끔 새어 나오고 있었다.

사태는 명백하고도 돌이킬 수가 없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나는 삭풍이 부는 황량한 벌판으로 변한 마당 가에 서서 힘이 쭉쭉 빠져 나간 두 어깨를 거느리며 고개를 젖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오, 하느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무거운 눈을 밤새 다 털어 버린 새벽하늘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내 혼잣소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누워 있는 그 시커먼 빠루가 마치 마녀의 주문을 받아 밤새 뿌린 눈송이를 덮고 위장한 채 기다리다가 내 발길을 일부러 잡아채지나 않았는가 하는 엉뚱한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 그것은 내가 그 순간 혈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해 줄 수 있었다. 피로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로감…… 하긴 어찌 피로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내가 피로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절하는 것이었다. 기절이라도 하고 나면 이 세상에 뭔가가 달라져 있겠지, 혹은 최소한 모면의 여지는 남겠지 하는 맹렬한 위안이 달라붙었다.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 변소에서 오줌보를 비우고 돌아서기까지 나는 너무나 생생했고, 빠루를 밟고 나서 갑자기 피로감을 느끼기까지 불과 십여 초가 흐르는 동안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 피로감이란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정신적 흔들림에서 우러난 것이 분명했다. 그런 의미에서 그 피로감은 어른에게나 해당하는 피로였다.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은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 ㉢몇 해 전 길게 뻗 헛바닥 위에 거꾸로 올려놓은 박탄-D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 가며 쥐어짠 두어 방울의 알싸한 액체로는 도저히 풀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마저 어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다. 문간통에서 두 번째 집구

석에 사는 술주정뱅이 **고물 장수 순심이** 아버지의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려져 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저씨도 나처럼 피로해서 그랬을까?

[중략 부분 줄거리] ‘나’는 깨진 찻지 항아리를 눈 속에 파묻고 눈사람을 만들어 증거 인멸을 시도한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 곧 비밀이 탄로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나’는 그날 하루 동안 가축을 감행하고 좁은 뒷골목과 더러운 곳만 골라서 배회하다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그러곤 어느덧 해 질 녘…… 이미 비밀이 다 까발려졌을 아홉 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일제히 안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물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돗가에 물려나와 쌀을 일며 **화기에애하게 애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돗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다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굶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 두었던 변소통 쪽을 돌아다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물론 흥측한 물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찻지 단지도 눈에 띄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가]**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는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콧꼭 짜니? 정초부터 에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녀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찌했단.”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아무지개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픽 웃음을 지었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땅을 쿵쾅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졌다.**

“그래 댄 데는 안 들르고?”

“오다가 저기 전에 살던 기찻집이라고 있어요. 옛날 침례교회 밑에 말예요.”

“으응, 있었지.”

“거기 뭐 좀 볼 게 있어서 들어가려다 개 조심이라고 썩어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보** **니** **간** 너무 바귀었어. 지붕도 기와에서 슬래브로 바뀌고 마당 쪽까지 집을 새로 지어서 반지하까지 치면 이층이나 다름없대요.”

형이 고개를 건성으로 주억거렸다.

“형, 조합일 보면 보수는 좀 나와요?”

“돈?”

“예.”

“정식으로 받는 급료는 한 푼도 없지. 하지만 나야 큰돈은 못 만지지만 청탁이 큰 이권 사업이 물렸으니 잘만 하면 떡고물깨나 문힐 수 있는 자리지, 그 자리가. 근데 너 참 아버님 틀사진 가지러 왔다면 아랫집엔 안 들를 거니?”

“그만둘까 봐요. 대낮부터 별장계 술도 마시고…… 또 불쑥 찾아간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돈 삼만 원 건네주는 건데 엄마가 말한 대로 온라인 이용하는 게 낫죠 뭐.”

“그건 또 그래. 그럼 나랑 같이 마을버스 타고 내려갈래? 지하철 타려면. 아니면, 나랑 조합 사무실에 들러서 커피나 마시며 이곳 돌아가는 얘기나 좀 듣고 가든지.”

“듣긴요 뭘. @형이 어렵히 잘 알아서 해 줄까.”

“내가 해 주긴 뭘. 네가 딱지를 팔고 싶다든지 아니면 그냥 입주를 하겠다든지 가부간에 결정을 내리면 내가 아무튼 최고 시세로 되도록 다리는 놔 줄 순 있겠지. 내 생각엔 니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까 당장 현찰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 이리저리 굴려서 분양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분하는 게 장땡인데.”

“예…… 엄마가 결정을 할 거예요. 전 심부름이나 몇 번 하면 되겠조 뭐.”

—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

[26001-0184]

01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물의 행동 변화를 통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요약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물의 내면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동시에 진행되는 두 사건을 병치하여 인물의 내적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활용하여 배경을 묘사함으로써 독자의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측하지 못했던 과거의 상황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26001-0185]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의 의도치 않은 행동임이 드러나 있다.
- ② ㉡: 자신이 밟은 빠루로 인해 단지가 깨진 것이 ‘나’에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어린아이의 상상력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
- ③ ㉢: 낫선 음료를 맛본 경험을 통해 ‘나’가 당면한 감정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어른이 된 ‘나’가 오랜만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동네를 둘러보는 과정에서 변화를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 조합에서 일을 하는 ‘형’에게 ‘나’가 신뢰감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둘은 서로의 처지를 잘 알고 지내던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26001-0186]

03

피로감에 대해 ‘나’가 이해한 것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고 느낀 것으로, 어린아이로서는 잘 알 수 없는 어른들만이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한 감각이다.
- ② 짠지 단지를 깨는 실수를 하고 나서 느끼게 된 것으로,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 느끼게 된 현실적인 감각이다.
- ③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피로감과는 현격하게 다른 것으로서, ‘맹렬한 위안’을 통해 어른이 된 만족감을 느끼게 된 감각이다.
- ④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떨쳐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예감을 동반한 감각이다.
- ⑤ ‘고물 장수 순심이 아버지’가 늘 술에 취해서 사는 이유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게 된 감각이다.

[26001-0187]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눈사람 속의 검은 항아리」에는 서술 자아와 경험자아가 동시에 등장하고 있는데, 서술 자아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주체를, 경험자아는 그 이야기를 실제로 겪은 체험자로서의 인물을 의미한다. 이 작품은 서술 자아와 경험자아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거나, 서술 자아가 경험자아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종합하기도 한다. 주인공인 ‘나’는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혼나지 않는 상황에 대한 혼돈, 불안, 비애감 등을 느끼면서, 세계가 자신의 생각과 짐작대로 움직이지 않으며 현실 세계는 자신과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성숙하게 된다.

- ①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는 경험자아로서 과거에 했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실수를 저지르고 도망친 주인공이 아이다운 생각을 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 ②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는 장면은 경험자아의 시선에 비친 것으로, 주인공이 어른들에게 혼나지 않는 상황과 관련하여 혼돈에 빠지는 원인이 되는 것이겠군.
- ③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은 경험자아의 짐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을 위해 어른들이 의도했다는 서술 자아의 깨달음과 연결되는 것이겠군.
- ④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은 경험자아의 생각을 서술 자아가 종합하여 진술한 것으로, 과거에 주인공이 느꼈던 비애감의 원인임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와 ‘그렇게 컸다.’는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 자아의 진술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인공이 깨달음을 통해 성숙했음을 드러내는 것이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제5막] 표 생원 거리

꼭두각시: 내 얼굴은 뉘 탓이오? 강원도 가서 영감 찾느라고 깊은 산중에 도토리묵을 먹어서 그렇게 되었소.

표 생원: 뉘 어찌고 어째여? 산골에서 묵을 먹고 얼굴이 저 모양새가 되었으면, 나는 함경도 백두산에 다녀서 삼수갑산(三水甲山)으로 나올 제 강냉이와 상수리를 통째로 삶아 먹었는데 우툴두툴커녕 ㉠내 얼굴엔 네가 나막신을 신고 다녀 봐라. 해괴망측스런 년. 요사스런 계집도 많다. (사이) 그러나 생각하니 개천에 나도 용은 용이요, 짚으로 만들어도 신주(神主)*는 신주라니 돌모리집한테 혼계하여 큰마누라에게 상우례*나 시켜 보자. 여보게 돌모리집네! (돌모리집을 불러 앞에 세우고 꼭두각시에 대하여) 여보 부인, 그러나저러나 객담(客談)은 그만두고 살아갈 이야기나 합시다. 부인이 어느덧 환갑이 넘고, 내가 연만(年滿) 팔십에 늙어 가난하고, 따라서 일점혈육(一點血肉)이 슬하에 없으니 이런 낭패가 어디 있나? 그러므로 부인도 근심이 되지요?

꼭두각시: 여러 해포 만에 만나긴 만났으나 그도 또한 나 역시 근심이오.

표 생원: 부인의 말이 그러하니 말이오. 내가 그전에 작은집을 하나 얻었소.

꼭두각시: 아이고 듣던 중 상쾌한 말이오. 이 형편에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 집을 얻었으니 재목(材木)이나 성하며 양지바르고 또 장인들 담가 뉘겠소?

표 생원: 어으? 아 이게 무슨 소리여? 장은 무슨 장이며, 재목은 무슨 재목? 떡 줄 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네. 소실(小室)*을 얻었던 말이여.

꼭두각시: 아이고 영감, 이게 무슨 소리요? 이날껏 찾아다니면서 나중에 이런 험한 꼴을 보자고 영감을 찾았구려.

표 생원: 잔말 말고 주는 거나 먹고 지내지.

꼭두각시: ㉡그러나저러나 적어도 큰마누라요, 커도 작은마누라니 인사나 시키오.

표 생원: 여보게, 돌모리집네! 법은 법대로 하세.

돌모리집: 무얼 말이오?

표 생원: 큰부인한테 인사나 하게.

돌모리집: 머지 않은 좌석에서 들어도 알겠소. 내가 적어도 용산 삼개 돌모리집이라면 장안 안이 다 아는 터인데, 유명한 표 생원이기로 가문을 보고 살기어든 날더러 작은집이라 업신여겨 큰부인에게 인사를 하여라, 절을 하여라 하니 잣골 내시댁 문 앞인가 절은 웬 절이여? 인사도 싫고 나는 갈 터이니 큰마누라하고 잘 사소. (돌아선다.)

표 생원: ㉢돌모리집네! 여직 살던 정리(情理)로 그럴 수가 있나? 오뉴월 불도 쪼다 물러나면 서운하다네. 마음을 돌려 인사하게.

돌모리집: 그러면 인사해 볼까요? (아무 말 없이 화가 나서 꼭두각시한테 머리를 딱 들이받으며) 인사 받으우.

꼭두각시: (놀래며) 이게 웬일이요? 여보 영감! 이게 웬일이요. 요사이 인사 예절은 이러하오? 인사 두 번만 받으면 내 머리는 간다 봐라 하겠구나. 인사도 싫으니 세간을 나눠 주오.

표 생원: 꽤 씹스런 계집들은 불같은 욕심은 있구나. 나의 집은 해남 관머리요 몸 지체는 한양 성중인데 무슨

세간 무슨 재물을 나눠 주니? 짚은 몽둥이로 한번 치면 다 죽으리라. (표 생원이 화를 내고 있는데 박 첨지가 나온다.)

박 첨지: 실례 말씀이요만은 잠시 지내다 보니 남의 집안 문제나 내 몸은 일개 구장(區長)으로 모르는 체할 수 없어 물어보니 허물치 마오.

표 생원: 네, 구장이십니까? 판결 좀 하여 주시오. 제가 해남 사는 표 생원으로 부부 이별하고 그간 소실을 얻어 이곳에 왔다가 저기 선 저 화상(꼭두각시를 가리키며)은 나의 큰마누라인데 작은집으로 감정을 내어 세간을 나눠 달라 하오니 백계무책(百計無策)*이오. 어찌할는지요?

박 첨지: 그러면 세 분이 다 객지(客地)이오?

표 생원: 여기는 객지나 다름없습니다.

박 첨지: 재산이 있으면 나눠 줄 마음이오?

표 생원: 다시 이를 말씀이오?

(박 첨지가 한참 생각한다.)

박 첨지: 내가 한 마을의 구장으로 잘 처리하겠으니 염려 마우. <창> 돌모리집은 왕십리에 구실 은(銀) 두 되 하는 논 네 마지기를 주고, 꼭두각시는 남산 봉우제 재실 재답 구실 닷 마지기 고추밭 하루같이 주고, 용산 삼개 들어오는 뗏목은 모두 다 묶어다가 돌모리집 가져가고, 꼭두각시 널랑은 명년(明年) 장마에 떠밀리는 나무뿌리는 너 다 갖고, 은장 봉장 자개 함롱 반단이는 글냥 모두 돌모리집 주고, 뒤꼍에 돌아가 개똥밭 하루같이와 매운 짓독 깨진 걸랑 꼭두각시 너 다 가져라.

꼭두각시: <창> ㉠허허, 나는 가네. 나 돌아가네. 덜덜거리고 그 돌아가네. (춤추며 나간다.)

(중략)

[제7막] 평안 감사 재상(在喪)* 거리

(평안 감사의 모친 상여가 나온다.)

평안 감사: 풀곡* 풀곡 풀곡 풀곡. ㉠아이고 좋아. 콩나물 안방 차지 내 차지.

(양산도* 등 노래를 부른다.)

작은 박 첨지: (구경하다가) 이게 뉘 늙의 상여냐? 초상 상주 늙의 소리가 앓는 곳이나?

(그때 상두꾼이 발병이 나서 못 가고 상여를 내려놓았다.)

평안 감사: 여봐라, 박가야. (박 첨지가 나온다.) 말 들어라. 상여가 나가다가 상두꾼이 발병이 났으니, 인부를 사 대라.

박 첨지: 인부가 졸지에 없사오니 소인의 조카 늙이 굿은일 잘 보고, 괴털머리쩍고*, 기운이 역사요, 이상야릇한 늙이오니 그늙으로 천거하옵니다.

평안 감사: 이늙 더디다. 빨리 대령하여라.

박 첨지: 네 — (홍동지를 부른다.) 여봐라, 된둥아! 이번에 감사 사또 연번시* 상두꾼이 발탈이 났으니 허룻밤 삼시야 사시야 먹고, 돈 칠 푼 줄 것이니 상여꾼 품 팔러 안 가려느냐?

홍동지: 왜 그래썬소?

박 첨지: 지금 한 말 못 들었느냐? 만일 지체하면 주릿대학춤, 고드래뻬 뿜겨지면* 호소할 곳 바이없으니 지

체 말고 빨리 나오너라.

홍동지: 아자씨 말씀이 정말이요? / 박 첨지: 거짓말하겠느냐?

홍동지: 빨가벗어도 좋소? / 박 첨지: 관계없다.

홍동지: 어디 가서 보거나 합시다. (홍동지가 가만히 가서 상제도 보고 또 상여를 냄새 맡더니) 카— 이게 뭐요?

박 첨지: 왜 그러느냐?

홍동지: 아— 오늘월 강생이* 썩는 냄새가 나는구려.

박 첨지: 이놈아! 그게 무슨 말이나? 감사또 아시면 서운치 않으시겠느냐?

홍동지: 사또가 섭섭하시면 큰 개 썩는 냄새가 난다 합시다.

평안 감사: 꼴곡 꼴곡 꼴곡. (왔다 갔다 한다.)

홍동지: 상제님 문안드리오.

평안 감사: 이놈! 상여도 대부인* 상여인데, 문안이고 문밖이고 웬 놈이 빨가벗고 덩벼거리느냐?

홍동지: 빨가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메면 됐지. 무삼 잔말.

평안 감사: 네가 상여를 모시러 왔더니 듣기는 반갑다마는 빨가벗고 무슨 상여를 멘단 말이나? 꽤심한 놈 잡 아내라. (평안 감사가 화를 내어 박 첨지를 잡아들여서 태장을 한다.)

— 작자 미상, 「꼭두각시놀음」

* 신주: 죽은 사람의 영을 모신 위패.

* 상우례: 신랑이 처가의 친척과, 또는 신부가 시가의 친척과 처음 만나는 예식.

* 소실: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

* 재상: 아버지의 상중(喪中)에 있음.

* 양산도: 경기 민요 선소리의 하나로 삼박자의 흥겨운 노래.

* 연변사: 장사(葬事) 지내러 가는 길에 등을 들고 가는 것.

* 강생이: '강아지'의 방언.

* 백계무책: 있는 피를 다 써도 소용이 없음.

* 꼴곡: 앓는 소리.

* 괴덜머리쩍고: 수선스럽고 실없는 짓을 하고.

* 주릿대학춤, 고드래뻬 튕겨지면: 형벌을 받게 되면.

* 대부인: 남의 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26001-0188]

01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표 생원은 자신보다 꼭두각시의 나이가 더 많은 탓에 두 사람 사이에 자식을 얻기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
- ② 꼭두각시는 돌모리집이 작은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심 반기면서도 본부인으로서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
- ③ 돌모리집은 기대한 바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자존심이 상해서 꼭두각시에게 인사하라는 표 생원의 요청에 처음에는 거절의 의사를 밝힌다.
- ④ 박 첨지는 재산 분배를 위한 판결에는 당사자의 요구가 있어 개입하지만, 평안 감사의 상여꾼 구하는 일에는 상주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 ⑤ 평안 감사는 자신에게 모욕적인 행동을 한 홍동지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 대신 홍동지를 데려온 박 첨지에게 벌을 내림으로써 홍동지로 인해 생긴 화를 풀려고 한다.

[26001-0189]

02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상대방의 말에 대한 반박으로서 자기 얼굴은 꼭두각시의 얼굴보다 단단함을 강조하며 한 말이다.
- ② ㉡: 가족 간의 관계를 정립하는 선언으로서 신체적 크기에 기반하여 위아래를 결정하며 한 말이다.
- ③ ㉢: 의리를 내세운 감정적인 호소로서 돌모리집이 시도하려는 행동을 만류하기 위해서 한 말이다.
- ④ ㉤: 자기만족을 드러낸 언사로서 기대한 만큼의 재산을 분할받게 되어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한 말이다.
- ⑤ ㉥: 모친상을 당한 슬픔을 견디기 위한 독백으로서 초상의 긍정적인 측면을 억지로 찾으려는 한 말이다.

[26001-0190]

03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풍자란 현실의 부정적 현상이나 모순 따위를 무언가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비판하는 문학적인 기법을 말한다. 「꼭두각시놀음」에는 조선 후기 지배층의 허위의식과 부당한 횡포에 대하여 피지배층이 풍자를 통해 반항하고 공격하는 양상이 잘 나타난다. 또한, 등장인물의 어처구니없는 행동, 특이한 생김이나 재담 등을 통해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가운데, 풍자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의지가 좌절되는 과정을 극화하여 사회의 지배층이나 기득권층이 비천하고 품위가 낮은 존재로 전락하도록 하는 풍자의 기법도 주요하게 사용된다.

- ① 꼭두각시가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라고 말한 것은 동음이의어를 사용한 재담으로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하려는 인물의 의지가 좌절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② 박 침지가 ‘한 마을의 구장으로 잘 처리’한 것은 매우 편파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표 생원을 공격하여 상류 기득권층을 비천한 존재로 만드는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 ③ 박 침지가 흥동지를 ‘이상야릇한 놈’인 줄 알았으면서도 상여꾼으로 굳이 천거한 것은 지배층인 평안 감사를 비웃으면서 공격하여 품위가 낮은 존재로 전락시키기 위한 기법으로 볼 수 있군.
- ④ 박 침지가 ‘지체하면 주릿대학춤, 고드래뻬 튕겨지’는 것을 우려하는 데에는 조선 후기 지배층의 부당한 횡포를 피지배층의 입장에서 폭로하고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흥동지가 ‘빨가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메면 됐지. 무삼 잔말.’이라고 평안 감사에게 말한 것은 피지배층이 지배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면서 그에 반항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군.

[26001-0191]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꼭두각시놀음」은 포장을 친 무대 위에 여러 인형을 번갈아 등퇴장시키면서 연행하는 민속극이다. 무대는 폐쇄적이고 평면적인 공중무대로 특별한 무대 장치는 없거나 간소하다.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소도구가 사용되는 가운데 ‘대잡이’라는 연희자가 무대 뒤에서 인형의 하반신을 잡고 조종하면서 대사와 노래를 한다. 극의 구성단위는 ‘거리’이며, 각 거리는 줄거리에 의해 연결되는 구성이 아닌, 화소를 중심으로 한 인물 간의 대결 양상이라는 점에서 개별성이 강하다. 즉, 거리와 거리 사이에는 사실적 또는 내용적인 연결은 없고, 다만 동일한 등장인물의 출현으로 전체적인 상관성만 유지된다.

- ① [제5막]과 [제7막] 모두 대잡이가 인형을 조종하면서 대사를 하는 것은 물론 노래까지 부르는 연희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 ② [제5막]에서는 꼭두각시와 돌모리집의 처첩 갈등에 따른 대결 양상이, [제7막]에서는 평안 감사와 홍동지의 신분과 계층 차이에 따른 대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③ [제5막]과 [제7막]의 사건은 내용상으로 연결되지 않아 각 거리의 개별성이 강하지만, 박 첨지가 [제5막]과 [제7막]에 모두 등장함으로써 거리 간의 상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 ④ [제5막]을 공연할 때는 표 생원이 소유한 세간이 소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제7막]을 공연할 때는 홍동지가 메게 될 평안 감사의 모친 상여와 함께 극 중 실내와 실외를 구분 짓는 경계로서 문이 소도구로 사용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제5막]의 끝부분에서 대잡이는 꼭두각시 인형을 춤추게 하면서 무대 아래로 내림으로써 관객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할 것이고, [제7막]의 앞부분에서 대잡이는 평안 감사가 박 첨지를 부를 때 무대 위로 박 첨지 인형을 올림으로써 관객에게 보이게 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경재: 어유. 오늘은 웬 사람이 그리도 많아……. 공동 수도엔 난장판인걸! (하며 항아리에다 물을 붓는다.)

경운: (여전히 빨래를 하며) 비가 개니까 집집마다 빨래하느라고 그렇겠지…….

경재: 아버지, 우리도 다음엔 제발 물 흔한 집으로 옮기시다. 물만 긴다가 내년 봄엔 낙제하게 생겼는걸요!
하루이틀도 아니구…….

최 노인: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

경운: 애도 속없는 소리 잘하긴 경애 언니 닮았나 봐! 누가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

경재: 살기 싫으면 판 데로 옮기면 될 걸 왜 이런 계막지 굴속에서 산다는 거요?

최 노인: (눈을 크게 뜨며) 무슨 소리냐? 이 집이 어때서?

경재: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최 노인: 싫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야.

경재: (남은 물통을 비우며) 중도 없는 절을 뒀에 쓰게요? 도깨비나 날걸…….

최 노인: (약간 핏대를 올리며)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 이놈아!

경재: (못마땅한 낯으로)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죠.

최 노인: (획 돌아서며) 뭐, 뭐야?

경운: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 ㉠경재야, 한 번만 더 길어 와!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려구…….

경재: 또야? 나 시간 약속이 있는데…….

경운: (흔들며) 너 그러면 나와 약속한 일 국물도 없다!

경재: (짜증을 내며) 정식이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기로 했는걸……. 9시 40분까지 가야 돼요.

어머니: (설거지통을 들고 부엌에서 나오며) 바쁘면 어서 가려무나, 설거지가 끝나면 내가 길을 테니…….

경재: (펄쩍 뛰며) 엄마가 제일야! 우리 엄마가 넘버원이지! ㉡그 대신 내일 아침엔 식전에 다섯 지게 길을게
요, 어머니!

어머니: (웃으며) 그럼 물 항아리를 더 사 놔야겠구나……. (하며 수챗구멍에다 물을 버린다.)

경재: (손을 씻으며) 항아릿값은 우리의 재무 장관인 작은누나가 치르구, 핫하……. (하며 아랫방으로 퇴장)

경운: 깍쟁이! (빨래를 짜며) 어머니가 어떻게 물을 길으신다구 그러세요! 아직도 허리를 쓰시기가 거북하시
다면서…….

방 안에서 휘파람 소리가 흘러온다.

어머니: 관찮아…….

최 노인: 참, 그 고약은 다 붙었어?

어머니: 예. (허리를 가볍게 치며) 이제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최 노인: 뭐니 뭐니 해도 그 강 약방의 처방이 제일이야! 내 청이라면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 있게 약을 써
주거든!

어머니: 하기가 이 동리에서 예부터 사귀어 온 집은 이제 그 강 약방하구 우리 집뿐인걸요.

최 노인: 그래, 우리가 (과거를 회상하며) 이 집에서 산 지가 꼭 사십칠 년이고 그 강 약방이 사십 년이 되니까……. 그리고 보면 나도 무던히 오래 살았어……. 이 종로 바닥에서 자라서 장가들어 자식 낳 [A]고 길러서 이제는 환갑을 맞게 되었으니…….

어머니: (마루 끝에 앉으며) 정말……. 근 오십 년 동안에 이웃 얼굴 바뀌고 저렇게 집이 들어서는 걸 보면 세상이 변해 가는 모양이 환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당신에게 시집왔을 때만 하더라도 어디 우리 이웃에 우리 집 담을 넘어서는 집이 있었던가요?

최 노인: 사실이야! 빌어먹을 짓! (좌우의 높은 집을 쏘아보며) 무슨 집들이 저따위가 있어! 게다가 저것들 등쌀에 우린 일 년 열두 달 햇볕 구경이라곤 못 하게 되었지! 당신도 알겠지만 옛날에 우리 집이 [B] 어디 이랬소?

경운: (웃으며) 아버지두……. 세상이 밤낮으로 변해 가는 시대인데요…….

최 노인: 변하는 것도 좋구 둔갑하는 것도 상관하지 않지만 글썄 염치들이 있어야지, 염치가!

경운: 왜요?

최 노인: 제깃 놈들이 돈을 벌었으면 벌었지 온 장안 사람들에게 내보라는 듯이 저따위로 **충충이 쌓아 올릴** 줄만 알고 이웃이 어떻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모르니 말이다!

(중략)

경수: 여보, 영감님! 여긴 종로 한복판입니다. 게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는데, 그래 겨우 이백오십만 환이라구요? ㉔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

복덕방: 뭐, 뭐요? 공동묘지에서라고? 예끼, 버릇없는 놈 같으니라구!

경수: 아니, 이 영감님이…….

복덕방: 그래 이놈아. 너는 애비도 에미도 없는 놈이기에 나이 먹은 늙은이더러 공동묘지에 가라구? 이 천하에.

최 노인: 여보, 김 참지. 젊은 애들이 말버릇이 나빠서 그런 걸 가지고 탓할 게 뭐요?

복덕방: 그래 내가 집 거간이나 놓고 다니니까 뭐 사고무친한 외도토린 줄 아느냐? 이놈아! 나도 장성 같은 아들에다 딸이 육 남매여!

경수: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

어머니: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요……. 게다가 술을 마셨다우.

복덕방: 음, 이놈이 한낮부터 술 치먹고 어른에게 행패구나! 이놈아! 내가 그렇게 만만하니?

최 노인: 김 참지! 글썄 진정하시라니까……. 내가 대신 이렇게 사죄하겠소, 윈!

복덕방: 그리고 이백오십만 환이 터무니없는 값이라고? 이놈아, 누군 돈이 바람 맞은 대추알이라던? 응?

㉕그것도 잘 생각해서야, 응? 이런 분한 일이 있나!

최 노인: 글썄, 참으시고 이리 앉으세요.

복덕방: 난 그만 가 보겠소이다. 이런 일도 기분 문제니까요! 다른 사람 골라서 공동묘지로 보내구려! 에이.

(하며 퇴장)

최 노인: 아, 김 참지! 김 선생! (하며 뒤를 쫓아 나간다.)

경수: 제길, 무슨 놈의 영감이 저래? / 어머니: 네가 잘못이지 뭐니…….

경수: 집을 팔지 말라고 했는데…….

이때 최 노인 쉼근거리면서 등장하자 이 말을 듣고는 성을 더 낸다.

최 노인: 이놈아! 누가 이 집을 판다고 했어? 응?

경수: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뭇 하러 복덕방은…….

최 노인: 저런 쓸개 빠진 녀석 봤나! 아니, 내가 뭇 때문에 이 집을 팔아? 응? 옳아, 네 놈 취직 자본을 대기 위해서? 응?

어머니: ㉠아니 그럼, 이백오십만 환이란 무슨 애깁니까?

최 노인: 너 따위 놈을 위해서 하나 남은 집마저 팔아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전세로 육 개월만 내놓겠다는 거야!

경수: 예? 전세라구요? (어머니와 경운은 서로 얼굴을 바라본다.)

최 노인: 왜, 아주 안 파는 게 양에 안 차지? 이놈아! 이 애비가 집도 절도 없는 거지가 되어서 죽는 꼴이 그렇게도 보고프냐?

경수: (당황하며) 아버지, 아니예요! 저는…….

최 노인: 아니면 껌질이나?

어머니: 여보, 그럼 집을 전세로 줘서 뭇 하시게요?

최 노인: 글썄, 아까 어떤 친구 얘기가 요즘 그 실내에서 하는 그 뭐드라 ‘샤플이뽀’이라든가…….

경운: ‘샤플뽀오드’* 말씀이에요?

최 노인: 그래, ‘샤플뽀오드’ 말이다! 그건 차리는 데 돈도 안 들고 수입이 괜찮다고 하면서 4가에 적당한 집 이 있다가에 그걸 해 볼까 하고 이 집을 보였지. 그래 얘기가 거의 익어 가는 판인데, 글썄 다 된 음식에 코 빠치기로 저 녀석이…….

어머니: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

최 노인: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

어머니: 그런 걸 가지고 나는 괜히…….

최 노인: 뭐가 괜히야?

경운: 아버지께서 이 집을 파실 줄만 알았어요.

최 노인: 흥! 너희들은 모두 한속이 되어서 어찌든지 내 일을 안 되게 하고 이 집을 날려 버릴 궁리들만 하고 있구나! 이 천하에 못된 것들! (하며 불쑥 일어선다.)

어머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다만…….

최 노인: 듣기 싫어! (화초밭으로 나오며) 이 집안에서는 되는 거라곤 하나도 없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집에 뭇이 된단 말이야! 뭇이 돼! (하며 화초밭을 함부로 작신작신 짓밟고 뽀아 헤친다.)

어머니: (땀발로 뛰어내리며) 여보! 이게 무슨 짓이오!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가꾼 것들을, 원, 당신도…….

최 노인: 내가 정성을 안 들인 게 뭐가 있어? 나는 모든 일에 정성을 들였지만 안 되지 않아! 하나도 씨도 말야!

— 차범석, 「불모지」

* 샤플뽀오드: 19세기경 대서양 횡단 선박의 갑판에서 즐겼던 것으로 알려진 셔플보드(shuffleboard). 판 위에 원반들을 얹어 놓고 긴 막대를 이용하여 숫자판 쪽으로 밀면서 하는 게임.

[26001-0192]

01

㉠~㉡에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인물의 생각을 추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아버지와 경재의 더 큰 충돌을 막으려면 경재가 잠깐 자리를 피해 있게 해야겠어.’
 ② ㉠: ‘다친 허리가 아직 다 낫지 않으신 어머니를 위해서 내일은 내가 물을 더 길는 수밖에 없어.’
 ③ ㉡: ‘이 집을 이백오십만 환에 팔라는 것은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요구야.’
 ④ ㉡: ‘가게와 살림집을 합쳐 이백오십만 환이면 후하게 매긴 전셋값인 줄도 모르는구먼.’
 ⑤ ㉡: ‘집을 팔려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이백오십만 환이라는 금액 얘기는 대체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26001-0193]

02

윗글을 연극으로 상연한다고 할 때, [A]와 [B]에 대한 연출가의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상대방에게 느끼는 사랑이 드러나는 표정을 짓다가, [B]에서 상대방에게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표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② [A]에서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B]에서는 앞일에 대해 갖게 된 희망을 드러내는 표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③ [A]에서 아련하게 옛날 일을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짓다가, [B]에서는 오늘날의 상황에 대해 가진 불만이 드러나는 표정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④ [A]와 [B] 모두 상대방이 자신에게 베푼 호의에 감사한다는 마음이 드러나는 표정으로 연기해야 합니다.
 ⑤ [A]와 [B] 모두 마음속에 굳은 신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도록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을 일관되게 지으며 연기해야 합니다.

[26001-0194]

03

〈보기〉를 읽고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불모지」는 1950년대 전후(戰後)의 서울 중심가에 있는 최 노인 일가의 집을 배경으로, 당시 급속도로 추진되던 도시화·근대화와 같은 시대 변화에 대한 적응 양상을 다룬 사실주의 희곡이다. 이 작품은 고층 건물들에 둘러싸인 낡은 기와집에서 살아가는 가족 내 갈등과 세대 간 갈등을 다룸으로써 마치 불모지(不毛地), 즉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과도 같았던 당대의 사회적 혼란상을 보여 준다.

- ①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다른 인물들과 달리, 최 노인이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통해 주인공 가족 내의 갈등이 집이라는 공간을 두고 드러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겠군.
- ② 강 약방 주인이 이웃에게 ‘친형제 일보다 더 알심 있게 약을 써 주’는 것과, 복덕방 영감이 ‘기분 문제’를 거론하며 흥정을 그만두는 것을 통해 당시의 시대 변화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던 이들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곳곳에서 집들이 ‘층층이 쌓아 올’라가고 ‘샤뽕뽕오드’가 유행하는 것에 대해 언급하는 부분을 통해 1950년대 서울 중심가에서 서구 문물의 유입과 관련 있는 도시화·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제가 뭐라고 했길래’ 영감님이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는 경수와 달리, 어머니가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복덕방 영감에게 말하는 것은 당시에 가치관의 차이와 관련이 있는 세대 간 갈등이 존재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고층 건물들에 둘러싸여 ‘흔한 햇볕도 안 드는’ 까닭에 ‘정성을 들여서 가꾼’ 화초도 잘 자랄 수 없다는 상황 설정은 불모지와 같았던 1950년대 당시의 사회적 혼란상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고 해석할 수 있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몽골군이 파죽지세로 공격해 오자 충주성은 위기에 빠진다. 이를 먼저 알게 된 부호들과 사대부들은 성을 빠져나가고 상당수의 군사들도 도주한다. 상황이 위급해지자 노승은 노비군을 조직하자는 제안을 한다.

노승: 저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저들도 고려 사람, 나라가 위급한 마당에 저들인들 무심할 리가 없을 것이요.

이자현: 새삼스럽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잔 말ियो?

노승: 아니오, 저들에게 조건을 내세우는 것이요. / 이자현: 조건이라면?

노승: ㉠방랑하는 것이요.

이자현: (놀라) 방랑이라니? 노비를 놔준단 말ियो?

노승: 그렇소, 천적에서 풀어 주어 자유민을 만드는 것이요.

부사: 노비를 방랑한다니?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대감.

판관: 그건 불가한 일이요, 고려 개국 이래 그런 전례도 없거니와 노비를 방랑한다 해 보십시오.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십상이요, ㉡더구나 관이 소유하고 있는 관노들을 풀어놓으면 일은 누가 다 합니까?

노승: 판관, 지금은 싸움에 이기느냐, 모두 죽느냐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마당이요, 이 싸움에 패하면 충주성은 고사하고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텐데, 도망하기에 바쁜 부호들 불평을 두려워해야 겠소?

부사: 노비들을 일시 징발하는 건 좋으나 방랑한다는 처사는 지나친 일인 것 같습니다.

노승: 부사, 저들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싸우길 기대하겠소? 자기를 혹사한 주인을 위해 죽어 달라고 말할 수 있소?

부사: 나라와 왕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노승: 나라와 왕이라고? 나라가 누구의 것이요? 나라는 왕의 것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요, 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यो? 섬에 피난하여 궁녀의 치맛자락에 둘러싸여 있소. 그런 왕을 위해 싸워 달라고 빌겠소?

부사: (화가 났다.) 대감, 스님의 말씀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 이자현: 대사 고정하십시오.

노승: 언성을 높여 미안하오, 그러나 노예들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싸우도록 하는 외엔 다른 방법이 없기에 이르는 말ियो,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운다면 저들은 기꺼이 목숨을 내던지려 할 것이요.

이자현: 자유를 위해서? / 노승: 그렇소, 자유요!

이자현: 자유…… 심히 어려운 뜻이요.

노승: ㉢어려움을 걸지 않고 싸움에 이기기는 어렵소, 대감, 결단을 내리시오.

이자현: 판관은 어떻게 생각하오?

판관: 후일이 [걱정]이 되지 않는 바는 아니나 지금 처한 위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한다면 탄도리는 없겠습니다. 중요한 건 싸움에 나서 주는 것이니까요.

이자현: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종락 부분 줄거리] 전쟁에 승리하면 방랑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듣고 노비군이 조직되고, 노비군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격퇴한다. 자유를 얻는다는 기대에 벅찬 노비들은 장터에서 잔치와 놀이를 즐긴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이자현 대감이 잔치와 놀이를 금지하자, 무장한 노비들의 불만과 의심이 커진다.

노승: ㉔대감! 어떻게 된 일이오? 장터에서 놀이를 금하게 하셨다니? 싸움이 끝난 후 돼 가는 일을 알 수가 없구려!

이자현: 대사! 잘 오셨소. 나도 할 얘기가 있소. 하늘이 백성을 낼 때 비록 양천의 구별은 없으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시켜야 하므로 마땅히 준비가 있음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군자와 소인이 서로 달라 각각 일가를 형성하고 노예를 두어 상하의 분별을 정해 온 것이 우리의 천여 년 내려온 생활이오! 그렇지 않소?

노승: 사람이 모여 사는 사회에 귀천이 이루어짐을 소승이 모르는 건 아니오. 그러나 대감, 처음 우리 선조의 노비는 일종의 형벌로서 기한이 지나면 다시 평민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치였소. 그런데 지금 보오, 우리 고려는 한번 종이 되면 좀처럼 면천하기 어려워 자자손손 종신토록 우마와 같이 재산처럼 팔고, 팔리는 천하 고금에 없는 제도가 되어 버리지 않았소? 그래서 노예의 숫자는 늘어 가고 결국 양반과 적대하는 양분된 세상이 되어 버렸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오.

이자현: 허나 노비를 해방시키기 위해선 나라의 풍속부터 고쳐야 하겠소. 하루아침에 바꾸니 혼란하여 법만 어그러져 갈 뿐이오. (노기) 노예의 신분으로서 양반 사대부의 아녀자를 넘보지 않나…… (자제하며) 정말 충주성은 옛과 같지 않소이다, 대사.

노승: 어서 규율을 세우시오.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른 자는 벌하되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말고 공평히 행하면 저들은 대감을 따를 것이오.

이자현: ㉕그러나 아직 우리에게겐 저들을 다스릴 만한 군사가 없소.

노승: 힘으로 저들을 다스려선 안 되오.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하오.

이자현: ㉖대사, 다스리는 근본은 힘이오. 아무리 덕과 인을 부르짖는다 한들 인덕이나 의로움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오.

노승: 그러나 의롭지 못한 힘은 언젠가는 또 다른 힘에 의해 멸망하고 마오. 백성은 지극히 약한 존재이나 힘으로 눌러선 안 되오. 백성은 지극히 어리석으나 꾀로써 속여도 안 되오. 백성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백성은 언젠가 대감을 버릴 것이오. 자고로 다스리는 자는 신의와 약속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고 했소.

이자현: 그러나 국가 대사나 한 고을의 다스림에는 충성이 요구될 뿐이오. 어차피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치세의 근본일진대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나 똑같이 자유를 누린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요.

노승: 대감. 설마 저들 노비들을 배신하려 하시는 건 아니시겠지?

이자현: 배신? 대사, 나는 일개 성의 목사로서 국록을 먹고 있는 몸, 내 마음대로 나라의 제도를 고칠 수는 없지 않소. 비록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저들을 방랑했으나 현실이 그를 용납지 않는 걸 어떻게 하오? 나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소. 그러나 난 내가 현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소. 나는 위로는 왕으로부터 양반 사대부 그리고 내 가족까지 생각해야 하오.

- 윤대성, 「노비 문서」

[26001-0195]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자현 대감은 싸움의 위급성을 고려해 노승의 제안을 수용하였다.
- ② 부사는 왕에 대한 노승의 말을 듣고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었다.
- ③ 판관은 노비를 방랑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우려하였다.
- ④ 노승은 치세의 근본에 대한 이자현 대감의 생각을 경계하였다.
- ⑤ 노승은 노비를 해방하기 위해 규율을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26001-0196]

02

㉔를 바탕으로 판관의 **걱정**을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라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는 것
- ② 싸움에 승리한 노비들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
- ③ 병기를 갖춘 노비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
- ④ 재산을 잃은 부호들과 사대부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
- ⑤ 몽골군이 재침입했을 때 노비들이 싸움에 나서지 않는 것

[26001-0197]

03

㉑~㉔에 대한 연출자의 지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㉑: 단호한 표정과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연기해 주세요.
- ② ㉒: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항의하듯이 말하세요.
- ③ ㉓: 이자현 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재촉하듯 말하세요.
- ④ ㉔: 애절한 표정을 지으며 한탄하듯 연기해 주세요.
- ⑤ ㉔: 상대를 훈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세요.

[26001-0198]

0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윤대성의 「노비 문서」는 1973년에 발표된 서사극으로, 고려 시대에 실패했던 노비 해방 운동인 ‘만적의 난’을 모티브로 창작되었다. 작가는 이 작품을 통해 관객들이 1970년대 우리 사회 공동체가 겪고 있던 문제 상황을 직면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특히 1970년대의 억압적 정치 현실을 통해 노동을 착취하고 민중들을 기만하며 자유를 억압하던 지배 세력의 모순을 고발하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사회적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지배 계층의 비민주적, 반인권적 사고를 비판하고자 하였다. 한편 이 작품은 노비 해방의 실패로 인한 패배주의와 허무 의식이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군부 독재 정권으로부터 검열되기도 하였으나, 검열의 대상이 아니었던 마당극으로 제작되어 공연되기도 하였다.

- ①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노비들에게 방랑을 약속했다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 이러한 약속을 배신하려는 이자현 대감의 모습은 1970년대 민중들을 기만했던 지배 세력의 모순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군.
- ② 노비들이 주인으로부터 혹사당하고 우마와 같은 재산처럼 팔고 팔린다는 노승의 말은, 1970년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여러 가지 문제 중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하던 민중들의 삶이 투영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이자현 대감을 비롯한 지배 세력의 배신으로 노비 해방에 실패하게 되는 이야기 전개는 관객인 1970년대의 민중들로 하여금 억압적 정치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현실 비판적 태도를 일깨우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④ 나라는 왕의 것이며 백성은 이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부사의 말과, 국가 대사나 고을의 다스림에는 충성만이 요구된다는 이자현 대감의 말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당연시하는 1970년대 지배 세력의 비민주적 의식이 문학적 수단을 통해 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개국 이래 노비를 방랑한 적이 없다며 노승의 제안을 반대한 판관과 제도와 풍속을 이유로 노비와의 약속을 배신하려는 이자현 대감은 1970년대의 관객들에게 패배주의와 허무 의식을 확산시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이 작품이 검열되는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볼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S#142. 옥화네 집**

잠을 지고 일어서며

동운: 그람 아잠씨. / 옥화: 예……. 혹시 지나는 길이 있거든 꼭 들리시소예—.

오동운 끄덕인다. / 그때 뛰어 들어오는 성기. / ㉠계연이는 성기를 보자 갑자기 생기를 띠며 발딱 일어난다.

계연: 아—, 오빠. / 옥화: 성기야, 계연이가 시방 떠난단다.

성기, 그 자리에서 선 채 표정이 굳어진다.

동운: 아들이 참 잘생겼소. / 성기: …….

옥화: 계연이 아버지시다. 어젯밤에 오셔서 그 길로 떠나려고 하시는 걸 내가 하루 더 쉬어 가라고 만류했었다.

쇠뿔치로 얻어맞은 듯 멍하니 서 있는 성기.

옥화: 지리산 속에서 우연히 옛날 고향 친구의 아들을 만났다는구나, 여수에서 큰 공장을 하는 사람인데, 지리산 유람을 들어왔다가 영감님을 보구서는 굳이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서 살자고 권하더라. 그래서 고향 생각도 나구 또 그 사람 도움으로 어떻게 형편이 될 것같기도 생각되어 여수로 가시는 길이다.

㉡그러나 성기 귀에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는 듯 계연이만 쳐다본다.

계연이도 애걸하듯 호소하듯 붉은 눈으로 성기만 바라다본다.

[중략 부분 줄거리] 성기는 앓아누운 채 굶어 죽을 결심을 한다. 옥화는 그런 성기에게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이고 계연을 잠시 남겨 둔 채 길을 떠났던 동운이 자신의 친부임을 알게 되었다면서, 계연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이유를 털어놓는다.

S#148. 강변

얼어붙은 은어잡이 배 위에 수북이 쌓인 흰 눈, / 성기가 나와서 물끄러미 얼어붙은 강을 들여다본다.

거기서 계연이와 마지막으로 만나던 일이 회상된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서서히 풀리면서

계연: (E)* 오빠! 요즘은 어찌자고 만날 절에만 노 있는 것이여—.

성기: (E) 어무니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S#149. 강변(회상)

계연: 그렇다구 안 오든 난 어찌라구. 보고 싶어 톡 죽겠는디.

성기: 나두 기어이 절에서 배겨 내려구 했지만도 니가 보고 싶어서 왔다.

계연: 저번 날은 지가 잘못했어라우. 공연히 오빠 부아만 돋우어 놓고.

성기: 나 니한테 장가들란다. 기회 봐서 어무니한테 말할 끼구마. / 계연: 정말?

성기 끌어안으려다가 슬며시 손을 내린다.

계연: ? …… / 성기: 니 말이 맞다. 장가들기 전엔 손목두 안 만질란다.

미소 짓다가 눈을 감으며 뒷짐을 지고 입술을 내미는 계연.

지켜보다가 자기도 뒷짐을 지고 입을 맞추는 성기.

그 그림 위에 펄펄 눈이 내리며

S#150. 강변(현실)

화상에서 깨어나는 성기.

평평 쏟아지는 눈. / 뽕뽕 얼어붙은 강물.

성기, 눈과 함께 흐르는 눈물을 쓱 문지르고 돌아선다.

S#151. 옥화네 집 방안

옥화가 마음 그릇을 가지고 들어와서 성기 앞에 놓는다. 말없이 그릇을 끌어당겨 마음을 먹는 성기—.

옥화: (지켜보다가) 성기야—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냐? / 성기: …… (고개를 흔든다.)

옥화: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 …… (역시 고개를 흔든다.)

옥화: 그럼 어쩔 거냐? 너 좇대로 해라. / 성기: 봄이 오면…….

옥화: 봄이 오면? …… / 성기: 나 옛판 하나만 맞춰 주.

옥화: …….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다본다.

슬픈 눈으로 마주 보다가 다시 마음을 떠먹는 성기.

옥화: (끄덕이고 한숨 쉬어) 그래라……. 니 좋을 대로 해야제.

하며 일어난다.

S#152. 강(봄)

햇살을 받고 번득이는 강물. / 떠 있는 은어잡이 배들.

물에 씻기는 버들가지. / 산에서 내려오는 빠꾸기 소리.

S#153. 삼거리

㉡성기가 갈아입은 옥양목 고의적삼에 명주 수건까지 머리에 잘끈 동여매고는 새로 맞춘 새하얀 나무 옛목판을 질 땡 해서 느릿하게 엉덩이쯤에다 걸치고는 걸어온다. 그 뒤에 옥화가 시뻘게진 눈으로 따라 나온다.

성기: (옥화를 돌아보고) 어무니 어서 들어가시소.

옥화: 오냐— 내 걱정 말고 니나 몸 성히 다녀오그라. / 성기: 야—.

이윽고 세 갈래 길 한복판에 올라서는 성기—

잠시 계연이가 떠나간 구레 길 쪽을 한번 바라보고는 발길을 돌려 하동 길로 들어선다.

저 뒤에 우두커니 서 있는 옥화의 외로운 모습.

혜초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혜초: (E) 절에 맡긴다고 역마살이 풀리는 건 아닙니다. 가슴에 남달리 꿈이 많아서 그런 거니 지가 열심히 수도해서 그 꿈을 죽일 수밖에…….

소향: (E) 사내들 마음은 밖으로만 떠돌기 마련이구, 기집들은 그걸 붙들어 놓지 못해 안달이구……. 그러다 놓치면 눈물로 늙어 가구……. 사람이란 천생 그렇게 살기 마련인 갑다.

옥화: (E) 원래 여자들보다 사내들이 더 꿈이 많은가 봐요.

㊤옥화, 주르륵 눈물을 짓는다.

저만치 성큼성큼 걸어가는 성기, 눈물에 흐려진다.

S#154. 길

강물에 비치는 성기의 그림자.

앞은 흰히 트인 하늘.

그리고 구름.

그 구름 위를 걸어가듯 가벼운 발길.

어디선가 육자배기 가락이 구성지게 들려온다.

— 김동리 원작, 최금동·김강윤 각색, 「역마」

* (E): 이펙트(Effect)로, 화면은 앞 화면 그대로 유지한 채 소리만 덧붙이는 기법.

[26001-0199]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옥화네 집에서 머무르던 계연은 절에서 지내고 있던 성기를 그리워한 일이 있다.
- ② 옥화와 작별 인사를 하던 동운은 인사 도중 성기를 만나고서 그의 외모를 칭찬한다.
- ③ 성기가 집에 오는 것을 보고 옥화는 혼자서 길을 떠나려는 동운에게 계연을 데려가도록 한다.
- ④ 옛장수가 되어 길을 나서는 성기는 계연이 동운과 함께 떠나간 방향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 ⑤ 굶고 있던 성기가 살아갈 의지를 되찾는 것을 본 옥화는 성기에게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 지에 대한 의사를 묻는다.

[26001-0200]

02

윗글을 영화로 촬영한다고 할 때, ㉠~㉤에 대한 감독의 조언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연 역을 맡은 배우는 난처한 와중에 자신이 기다리던 사람이 등장한 상황이므로, 반가움과 기대감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② ㉡: 성기 역을 맡은 배우는 자신이 이제껏 모르고 있던 연인의 행적이 밝혀진 상황이므로, 의혹과 원망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③ ㉢: 옥화 역을 맡은 배우는 상대방에게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대답을 들은 상황이므로, 의중을 확인하려는 표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④ ㉣: 성기 역을 맡은 배우는 병에서 회복하여 스스로 택한 삶을 시작하는 상황이므로, 생기를 되찾고 활가분해진 모습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 ⑤ ㉤: 옥화 역을 맡은 배우는 자신의 기대와 달리 아끼던 혈육을 멀리 떠나보내게 된 상황이므로, 아쉬움과 슬픔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주세요.

[26001-0201]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나리오 「역마」에는 인물들의 회상이 나타나며, 이때 회상의 내용은 시간의 전환을 드러내는 장치들과 함께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장면은 기존대로 유지한 채 음향 기법만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또한 회상의 내용은 과거를 회상하는 인물의 현재 내면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 사건과 현재 사건의 인과성을 드러내면서 사건 전개에 개연성을 높이는 기능을 한다.

- ① S#148에 나타난 강의 상태 변화와 이펙트 기법은 시간의 전환을 드러내면서 과거 성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군.
- ② S#149에 나타난 성기의 회상은 앞뒤의 장면들과 구분되는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되어 현재와 대비되는 성기의 심리 상태를 보여 주고 있군.
- ③ S#149에 나타난 성기와 계연의 사건은, S#150과 S#151에서 성기의 내면적 혼란이 점차 심화되는 상황에 영향을 미치고 있군.
- ④ S#153에 나타난 이펙트 기법은 옥화가 성기를 배웅하는 장면에 포함되어, 성기의 앞날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던 일에 대한 옥화의 회상 내용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S#153에 나타난 혜초의 말은, 절에서 지내고도 역마살을 풀지 못한 성기가 S#154에서 자신의 소망을 좇아 길을 떠나게 되는 상황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S#5. 연희네 아파트 단지-늦은 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는 두 사람.

무슨 노래인지 모를 단순한 노랫가락을 콧노래로 흥얼대는 연희. / 조금 슬픈 노랫가락.

㉠ 다음 소절 생각이 안 나는지 자꾸만 같은 곳을 반복하고 있다. / 듣고 있던 현우.

현우: 하지 마, 그거.

연희: 좋아서 하나 뭐? 우울해지면 그냥 생각나. 곡이 너무 우울해서. 이젠 잘 기억도 안 나고 자꾸 틀리네.

현우: …….

연희: 그땐 우리가 참 많이 사랑했었나 봐. (장난스러우면서도 장난만은 아닌) 오빠, 한 번만 불러 줄래?

현우: 욕먹어. 사람들 다 자는데.

연희: 아 참, 우리 오빠는 함부로 아무 데서나 연주 안 하지……. 미안. 또 까먹었네.

현우: 너 술을 도대체 얼마나 먹은 거야? / 연희: 나…….

현우: ……? / 연희: 오빠가 준 목걸이 팔아서 술 먹었어.

잠시 말이 없는 두 사람.

연희: 미안해. / 현우: 잘했어. 그 얘기 할려고 전화한 거야?

연희: 그냥…… 나 버린 남자랑 나 좋다는 남자랑 누가 더 나은가 비교해 볼려고.

현우: 버리긴 뭘 버려. 누가 들으면 진짠 줄 알겠네.

연희: 그럼 버린 게 아님 뭐야? / 현우: 음악만 하는 사람이랑은 못 산다며.

연희: 누가 음악하지 말래?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현우: 그만하자. 왜 또 그래.

연희는 현우의 그런 모습에 익숙한 듯 대꾸도 없이 바짝 얼굴을 들이대고 현우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본다.

현우: …… / 연희: 오빠두 많이 늙었다. 다행이야……. 나만 늙은 줄 알았는데.

㉡ 희미한 불빛조차 없이 퍽퍽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낡은 아파트 현관. / 일어나는 현우.

현우: (연희를 보다가) 무서우면 문 앞까지 같이 가 줄까?

연희: (허탈한 웃음이 보이는 듯) 내가 외로워 보여? / 현우: (보다가) …….

돌아서 가는 현우. 연희는 현우의 뒷모습을 볼까 봐 고개를 돌리고 앉아 잠시 벤치 옆의 나무를 보고 있다. ㉢ 낙엽을 다 떨군 채 링거를 하나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무.

현우,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 연희는 없고 불 꺼진 아파트들 중에서 4층 작은 창에 불이 켜진다.

천천히 단지를 빠져나오는 현우.

[종락 부분 줄거리] 연희는 현우에게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음을 알리고, 현우는 탄광촌의 도계 중학교 관악부 임시 지도 교사를 맡아 도계로 내려온다. 관악부 부원들은 열악한 상황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열심히 연주에 임하지만 각자의 가정 사정으로 연습에 몰두하기 어렵다. 관악부 부장인 용석은 광부인 아버지의 반대로 관악부를 나오지 못하게 되고, 현우는 용석 아버지를 설득하고자 찾아갔으나 거절당하고 돌아온다.

S#74. 거리 - 낮 (눈)

학교 밖에 서서 현우를 기다리는 용석. ㉠안대를 하고 있다. 눈 쌓인 거리를 걷는 선생님과 학생. 현우와 용석이다. 문 닫힌 약국도 지나고, 약국 안을 용석이 몰래 들여다보고, 길 건너 떡 팔고 있는 재일이 할머니도 보고, 철길도 지나고…… ㉡눈이 다시 내리다가 그쳤다가…… 그러면서 쪽 이어지는 현우와 용석의 대화.

현우: 이번엔 너야? / 용석: (눈이 간지러운지 긁적긁적) …….

현우: 에이 정말……. 드럽게. / 용석: 뭐 어때요? ……치. 어떻게 됐어요?

현우: 니네 아버지……, 만나 뵈니까 누군지 알겠더라. 지난번엔 깜깜한 밤이라 그러구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얼굴을 잘 못 알아봤는데…….

용석: 예? / 현우: 옛날에는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야.

용석: 그래요?

현우: 응…….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암스트롱의 ‘헤븐스 도어’라는 곡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곡을 제대로 연주하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고들 했거든……. 바로 니네 아버님이야. [A]

용석: (흐뭇해서 웃으며) 난 다 뺨인 줄 알았는데…….

현우: 야…… 누가…… 아버지가, 아들한테 뺨을 치는 아버지가 어딴냐? 용석아……. 아버지 말씀두 일리가 있더라구. 난 아버님이 용석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어. 그냥 반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할 말이 없더라.

용석: …… / 현우: 공부 열심히 해서 다른 일 하면 좋지 뭐. 선생님 봐. 여기 와서 이려고 있잖니?

용석: 여기가 뭐 어때서요?

현우: 어…… 무슨 말이나면. 그게 말야……. 너 여자 친구 맛있는 것두 사 주구, 선물두 평평 해 주구 그러구 싶지 않니? 근데 음악하면 그게 잘 안되거든. 케니 지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상고 가서 장사하면 돈 잘 벌잖아……. 수정이두 그런 거 원할 걸 아마?

용석: 그런 게 뭐 중요해요. 나 그래서 때려쳤어요. 수정이. / 현우: 뭐? 왜?

용석: 나보다 나이두 한 살이나 많은 게 맨날 뭐가 그렇게 불만인지, 연습하는데 만나자구 전화하구……. 칭얼거리거나 하구, 뭐 사 달라 그러구, 뭐 없다구 짜증 내구. 내가 뭐 재벌 집 자식이에요? 광부 집 자식이지!

현우: 그치……. 넌 광부 집 자식이지. 야, 그래두……. 얼마 전까지만 해두 좋다구 나팔두 불어 주구 그러더니 고새 맘이 바뀌어서 여자를 버리냐? 남자가 그럼 안 되지. 안 그래?

용석: 뭘 버려요. 무슨 물건이에요, 수정이가…….

현우: …… 그치……. 맞아 니 말이……. 너 있잖아, 그래두 그럼 안돼…….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이놈아! 그래도 니가 좋아서 그랬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남자가.

용석: 글썄…… 책임을 질 수가 없다니까요! 무슨 책임을 저요, 제가 뭘 어쨌다구요.

현우: 그렇다고 그렇게 마음이 확 확 바뀌냐?

용석: 나는 그렇게 돈 많이 드는 애를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선생님이 용돈 주실래요?

현우: 그럼 수정이를 설득해 보든지, 그 애도 너 좋아하던 눈치던데.

용석: 그리고 개는 다리도 너무 짧아요.

현우: 야…… 고새 또 뭐가 잘못돼 가지구는……, 서로 조금 힘들다구 헤어지면 그게 사랑이니? 그래, 안 그래? 남자가 의리가 있지.

용석: 근데 선생님 왜 그렇게 흥분하세요? / 현우: 어…… 아니 그게 아니라…….

티격태격……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해 가며 용석을 달래 보는 현우.

눈발이 다시 조금씩 날린다.

— 류장하, 「꽃 피는 봄이 오면」

[26001-0202]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누가 음악하지 말래?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라는 말을 보면, 연희는 현우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꿈을 좇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그냥 반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라는 말을 보면, 용석 아버지는 용석이 음악을 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선생님 봐, 여기 와서 이러고 있잖니?’라는 말을 보면, 현우는 자신의 상황을 만족스럽지 않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그런 게 뭐 중요해요.’라는 말을 보면, 용석은 돈을 잘 버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내가 뭐 재벌 집 자식이에요? 광부 집 자식이지!’라는 말을 보면, 용석은 자신이 광부의 자식인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6001-0203]

02

[A]에 나타난 ‘현우’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용석 아버지를 치켜세워 줌으로써 아버지의 입장을 용석이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 ② 용석 아버지의 거짓말을 폭로함으로써 아버지에게 용석이 연민을 느끼도록 하고 있다.
- ③ 용석 아버지가 용석에 대해 언급한 말을 옮겨 용석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 ④ 용석 아버지의 과거 행적을 언급함으로써 용석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시키려고 하고 있다.
- ⑤ 용석 아버지와 자신의 처지를 비교함으로써 용석 아버지의 의견이 타당함을 말하고 있다.

[26001-0204]

03

인물 사이의 관계를 중심으로 S#5와 S#74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S#5에서 현우와 연희, S#74에서 용석과 수정의 갈등은 모두 금전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 ② S#5에서 연희를 잡지 못한 자신에 대한 불만은 S#74에서 수정과 헤어지려는 용석에게 현우가 흥분하는 이유가 된다.
- ③ S#5에서 현우가 준 목걸이를 팔아 쓴 연희의 마음은 S#74에서 수정이 용석에게 무엇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심리와 유사한 것이다.
- ④ S#5에서 음악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현우의 모습은 S#74에서 현실을 위해 음악을 포기하라고 용석을 설득하는 모습과 상반된다.
- ⑤ S#5에서 연희가 현우에게 연주를 부탁하는 것과 S#74에서 용석이 수정에게 나팔을 불어 준 것은 모두 상대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26001-0205]

04

<보기>를 참고하여,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미장센(Mise-en-Scène)은 연극이나 영화 등에서 무대 위나 카메라 프레임 안의 모든 시각적 요소를 계획하고 배치하는 행위나 그 결과물 자체를 뜻한다. 미장센은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데, 배우의 의상이나 분장, 연기와 동선, 시·공간적 배경이나 소품의 종류와 배치, 카메라나 조명을 활용한 표현 등이 그것이다. 감독이나 연출자는 이를 활용하여 작품의 분위기나 인물의 심리와 인물 사이의 관계, 사건의 전개 방향이나 주제, 상징성 등을 표현하기도 한다.

- ① ㉠은 배우의 연기를 바탕으로 한 미장센으로, 연희의 노랫가락이 다음 소절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곳만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절되지도 회복되지도 않은 채 이어지는 현우와 연희 사이의 관계를 떠올리게 한다.
- ② ㉡은 공간적 배경과 조명을 활용한 미장센으로, 컴컴한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것 같은 낡은 아파트 현관이 현우와 헤어진 연희가 돌아갈 곳이라는 점에서 현우와 연희의 관계가 위태로워질 것임을 암시한다.
- ③ ㉢은 소품의 종류를 활용한 미장센으로, 나무가 이파리를 모두 떨군 채 링거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에서 사랑하는 사람마저 떠나보내고 음악 하나만으로 버티고 있는 현우의 상황을 떠올리게 한다.
- ④ ㉣은 소품의 종류와 배치를 활용한 미장센으로, 안대가 용석의 시야를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음악을 고집하는 용석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보여 준다.
- ⑤ ㉤은 시·공간적 배경을 활용한 미장센으로, 눈이 내렸다 그쳤다는 반복하는 불안정한 날씨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용석의 처지를 나타낸다.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늘이 이미 나에게 어질고 지혜로운 성품을 주시고 귀와 눈을 만들어 주셨으니 어찌 산수를 좋아하고 즐기며 견문을 넓히지 못하겠는가. 하늘이 이미 내게 총명한 재주를 주셨으니 어찌 문명(文明)한 나라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없겠는가. **여자로 태어났으니 깊은 담장 안에서 문을 닫아걸고 법도를 지키는 것이 옳은가.** 한미한 집안에 태어났으니 처지대로 분수에 맞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옳은가. 세상에는 첨운의 거북*이 없어 굴원이 점치던 것을 본받기도 어렵다. 그러나 첨운의 말에 이르기를 “계책에는 단점이 있고, 지혜에는 장점이 있으니 스스로 그 뜻을 행하게 한다.”라고 했으니 내 뜻은 결정되었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나이지만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 돌아보고 증점*이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쐬고 글을 읊으며 돌아온 일을 본받겠다고 하면 성인계서도 마땅히 동의하시리라.

마음에 계획을 정하고 부모님께 여러 번 간청하니 한참 뒤에야 겨우 허락하였다. 그러자 가슴이 트이며 마치 매가 새장을 나와 저 푸른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것 같고, 천리마가 재갈을 벗어 던지고 천 리를 내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날로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짐을 꾸려 먼저 네 고을을 향해 길을 떠났다.

(중략)

산과 바다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두루 다 보고 나니 다시 수려하고 변화한 곳을 더 보고 싶어졌다. 마침내 한양으로 향하여 가다가 멀리 한양을 바라보며 ㉠ 시 한 수를 지었다.

한가로이 부평초처럼 멀리 노닐기를 일삼아
 산에 오른 지 여러 날이 되어도 멈출 줄 모르네
 돌아갈 마음에 즐거이 동쪽으로 흐르는 물 따라가니
 서울의 바람과 안개도 조만간 걷히리라

閒似浮萍事遠遊
 登臨多日不知休
 歸心欣逐東流水
 京洛風煙早晚收

한양은 제왕의 도읍으로 억만년 태평세월의 기틀이니 구구한 좁은 소견으로 엿보고 추측할 바가 아니고 그 웅장한 형세와 엄숙한 기상이 다만 그 큰 계획을 깨닫게 할 따름이었다. 높고 높은 봉우리와 첩첩한 산은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듯 꿈틀대며 일어나는가 하면 엎드려 있기도 하고, 칼날이 서고 깃발이 펼쳐진 것 같기도 하다. 북으로 삼각산과 백악산이 큰 도시를 웅장하게 누르고, 남으로는 목멱산과 종남산이 책상을 마주한 듯 서 있으며, 왼편으로는 왕십리 별판이 동쪽 성곽을 에워싸고 오른편으로는 만리재가 서쪽 끝을 받치고 있다. 한강이 떠처럼 두르고 있고 삼강(三江)은 도시의 문으로 배와 수레가 모여든다. 강과 육지가 만나 기세가 웅장하고 물산이 풍성하니 아아, 아름답도다. 고구려의 도읍은 평양으로 비록 **수양제**의 위세로 천하의 군대를 동원했으나 ‘요동에 가서 헛된 죽음을 당한다.’라는 노래가 나왔고*, 또 **당태종**의 뛰어난으로도 한 성 밑에서 곤경을 당하여 오히려 ‘눈에 화살을 맞다.’라는 시구를 면치 못했다*. 하물며 한양은 굳건한 천연의 요새요 땅이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땅이니 누가 날아서 강을 건너올 수 있겠는가.

남산에 올라 대궐을 내려다보니 용루와 봉각에 상서로운 기운이 쌓였고, 시내를 내려다보니 회칠한 담장과 성가퀴에 아름다운 기운이 가득했다. 크고 아름다운 저택들이 즐비하고, 짙 들어찬 숲집들이 하늘을 찌를 듯 마주 보고 있었다.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이 길을 비키라는 소리와 함께 동서로 내달리고, 부귀한 이들은 변화한 거리에서 다투어 뿔내고, 백마 타고 금 채찍을 들고 놀러 나온 젊은이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의기투합해서 청루와 술집에서 만나니 실로 밝은 세계의 태평한 기상이라 할 만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스스로 안목이 좁음을 비웃다가 성안을 두루 돌아보니 비로소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다.

창의문을 지나 세검정을 찾았다. 시냇가 바위 위에 지어진 몇 칸 정자는 설계가 정교하고 깔끔했다. 바위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은 물살이 몹시 빨라서 폭포에 가깝고, 푸른 산이 환히 비쳐 책상 위에 쌓인 듯했다. 옛날에 한 장수가 전쟁에서 이긴 뒤 이 개울물에 칼을 씻은 일이 있어 임금님이 현판에 ‘세검정(洗劍亭)’이라고 쓰고, 노란 비단으로 둘렀다. 임금님의 글씨가 휘황하게 빛나니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 옆 큰 바위에 ‘힐용(詰戎)*’ 두 글자를 새겼는데 비바람에 마모되고 깎여 글자를 알아보기 어려웠다. 탕춘대를 찾으니 산세가 몹시 험준하고 **성채가 견고했다**. 이는 바로 북한산의 관문으로 배치가 엄밀하고 계획이 원대해서 **선왕이 후세를 위해 남긴 뜻**을 우러러 짐작할 수 있었다.

실 같은 길을 따라 삼계동으로 가니 이는 김 상서의 별장이 있는 곳이다. 작은 서재가 수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고 배치가 정결해서 상서가 쉬는 곳임을 알 수 있었다. 백석실에 올라가니 맑은 시내가 화원을 두르고 흰 돌로 다리를 놓았다. 꽃잎이 눈처럼 떨어져 섬돌에 가득한데도 쓸지 않고 사립문이 낮에도 닫혀 있어 더욱 깊고 그윽하게 느껴졌다. 길을 돌아 산골짜기로 들어가니 계곡 옆에 수각(水閣)이 있는데 바위 위에 ‘천수도(千樹桃)’ 세 글자가 새겨져 있어 마치 **유우석의 시의 현도관***의 뜻을 보는 것 같았다. 산이 높고 골짜기는 깊으며 향기 나는 채소가 정원에 가득하고 작은 폭포도 있고 온갖 새가 지저귀고 물은 바위 사이로 졸졸 흐르고 꽃과 풀은 무성하니 그 빼어난 경치를 따라 그리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 ㉔ 시 한 편을 읊조렸다.

갓가지 꽃 피고 아침 기운 더하니 작은 누각이 환하고
낮은 나막신 팔랑팔랑 날개 돋은 듯 가볍네
괴로운 심사 펼쳐 내어 다 씻어 내니
온 산에 가득한 안개 끝이 없구나

百花朝氣小樓明
短屐翩如羽化輕
披得煩襟陶寫盡
滿山煙霧極望平

향기로운 난초를 발로 밟으며 손으로 맑은 냇물을 움켜쥐니 바람에 비단옷이 나부끼고 신선의 삼살개는 구름을 보고 짓어 댔다. 산과 냇물은 본디 주인이 없고 바람과 달 또한 그 사이에 있는 것이니 오로지 노니는 사람이 취할 뿐이다. 향기로운 풀을 밟고 지나가며 기이한 경치를 두루 찾아보았다.

— 김금원, 「호동서략기」

* **첨윤의 거북**: 첨윤은 중국 초나라 때 인물로 점을 잘 치는 것으로 유명했음. 당시 문인이자 충신인 굴원이 자신의 앞날을 알아보려고 찾아갔다고 함. 거북은 당시 점을 치는 데 사용했던 거북의 등껍데기를 말함.

- * 증점: 공자의 제자로 '늦은 봄에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 쐬고 시를 읊으며 돌아오겠다.'라고 말하자 공자가 감탄했다고 함.
- * 비록 수양제의 ~ 노래가 나왔고: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범하려고 군사를 징발하고 백성을 동원했는데 동원된 백성들이 '요동으로 갔다가 헛되이 죽지 말라.'라는 노래를 지어 부르자 군사들이 많이 도망간 일과 관련된 표현
- * 당태종의 ~ 면치 못했다: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범했을 때 눈에 화살을 맞았던 일과 관련된 표현
- * 활용: 군사를 정비함을 뜻하는 말.
- * 현도관: 중국의 유명한 도교 사원. 당나라 때 문인인 유우석이 변방으로 좌천되었다가 10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오니 현도관에 전에 없던 복사꽃이 만개한 것을 보고 그에 관한 시를 썼다고 함.

[26001-0206]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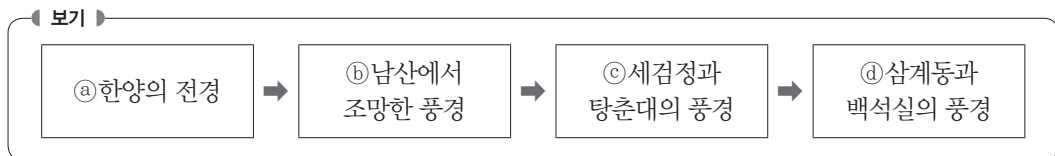
[A]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② 옛사람의 일을 근거로 들어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있다.
- ③ 여행을 떠나기 전에 부모와 갈등을 빚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있다.
- ④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이상 실현에 대한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예상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26001-0207]

02

<보기>는 [B]의 내용을 이동 경로대로 정리한 것이다.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한양의 지형을 조망하면서 비유와 대구를 사용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 ② ㉠: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한양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영탄적 어조로 강조하고 있다.
- ③ ㉡: 대궐과 비교해 시내의 유흥적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건축물의 조형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변의 자연 풍경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 공간의 이동에 따라 다양한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에 대한 주관적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208]

0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의 ‘안개’는 모두 화자가 바라보면서 흥취를 느끼는 대상이다.
- ② ㉠과 ㉡의 ‘산’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공간이다.
- ③ ㉠의 ‘흐르는 물 따라가니’와 ㉡의 ‘다 씻어 내니’는 모두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의 ‘부평초’는 유람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의 ‘나막신’은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⑤ ㉠의 ‘멈출 줄 모르네’는 자신의 과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의 ‘끝이 없구나’는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

[26001-0209]

0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호동서락기」는 여성이 쓴, 현전하는 기행 산문 가운데 최초의 작품이다. 여성의 관점에서 여행의 의미, 여행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언급하면서 당대 여성에게 가해졌던 사회적 제약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는 것은, 남성 사대부들의 기행 산문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이 작품의 중요한 특징이다. 색채어를 비롯해 감각적 표현을 적절히 활용한 대상의 선명한 묘사, 여행지와 관련한 다양한 인문 지식을 제시하는 지적인 글쓰기 태도 등도 이 작품에서 발견되는 특징이다. 글쓴이는 개인적 경험이나 느낌에 치우치지 않고, 옛글이나 역사와 연결해 여정에서 접한 장소나 사물의 유래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도 보이는데 이 또한 글쓴이의 지적인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 ① 자신도 ‘산수를 좋아하고 즐기며 견문을 넓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에서, 여행에 남녀의 차등이 없으며 자연을 즐기고 체험을 통해 배우는 것에서 여행의 의미를 찾는 글쓴이의 생각을 알 수 있군.
- ② ‘여자로 태어났으니 깊은 담장 안에서 문을 닫아걸고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에서,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당대의 사회적 규율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을 알 수 있군.
- ③ 한양의 형세를 보고 ‘수양제’와 ‘당태종’을, 산골짜기에서 ‘세 글자’를 보고 ‘유우석의 시’를 떠올려 언급하는 것에서, 여행지와 관련한 풍부한 인문 지식을 드러내는 글쓴이의 지적인 태도를 알 수 있군.
- ④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과 같이 시각적 연상을 가능케 하는 소재들을 열거해 장면을 제시하는 것에서, 색채어를 활용해 경관을 선명하게 묘사하는 표현상의 특징을 알 수 있군.
- ⑤ ‘성채가 견고’한 탕춘대를 보고 ‘선왕이 후세를 위해 남긴 뜻’을 언급하는 것에서, 여행지에서 본 사물의 유래를 실증적으로 설명하려는 글쓴이의 태도를 알 수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의 제왕 중에 띠풀을 자르지 않고 흙 계단을 세 개만 두어 거처로 삼은 사람이 있었다. 뒷사람이 이를 작다고 여겨 앞쪽의 전각을 동서 오백 보로 만들고 남북으로 신 장이나 되게 만들어, 그 위로 일만 명이 앉을 수 있고 아래에는 다섯 장의 깃발을 세울 수 있게 하였다. 뒷사람이 또 이를 작게 보아, 이십팔 리의 둘레에다 목란으로 마룻대와 서까래를 만들고, 은행나무로 들보와 기둥을 만들어 황금으로 꾸미고 옥으로 문을 달아 찬란하고 환하게 비치게 한 자가 있었다.

아! 똑같은 제왕이었지만 그 거처가 이렇듯 같지 않음은 어찌 된 것인가? 띠풀로 지붕을 인 집은 소박하였고, 흙 계단은 누추하였다. 해와 달과 별자리의 역상이 물과 땅에 나란히 미쳐서 천하를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모두 큰 정치인데, 그럼에도 이곳에서 명령하기에 충분하였으니, 이는 그 작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 그 궁전이 혹 높고 크고 장대하고 화려해서 이십팔 리에 이르고 연나라와 조나라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감취 두고, 가무와 관현의 음악, 진귀한 모피와 갓은 빗갈의 비단을 쌓아 두며, 기이한 새와 보배로운 동물, 이름나고 신기한 꽃과 풀을 길러 귀와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은 오히려 여기에서 그 욕심을 능히 다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는 그 큼을 알지 못한 것이다. 작은 줄을 모르면 큰 것이 된다. 대저 어찌 이미 크다고 여기면서 오히려 이를 키우려 하는 자가 있겠는가? 그 큼을 알지 못함은 이것을 작다고 여김이니, 또한 어찌 이미 작게 여기면서 능히 이를 크게 하려는 자가 없을 수 있겠는가?

벗 홍언명이 호수의 구비에다 집을 짓고 땅 이름을 끌어와 **해갑와(蟹甲窩)***라고 하였다. 세속의 말에 집이 작은 것을 두고 계딱지라고 하니, 홍언명 또한 집이 작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사이에 나에게 기문을 구하곤 했는데, 내가 듣고 의아하게 여겨서 말했다.

“자네는 그 집이 큰 줄 모르고 작다고만 생각하는 것인가? 내 들으니 옛사람이 돌피*를 가지고 사람의 몸뚱이에 비유했다고 하더군. 무릇 돌피 같은 몸뚱이로 계딱지만 한 집에 살게 된다면 어찌 여유작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게다가 달팽이의 뿔에는 나라가 두 개나 있지만, 계딱지는 그래도 한 집이라네. 그 크고 작음이란 그저 짐승이 새를 보거나 새가 벌레를 보는 것 그리고 승산*이나 화산*과 모래와 먼지의 차이와 다를 바가 없다네.”

이렇게 말한다면 그 집이 비록 계딱지만 하다고 하더라도 도리어 또한 작지는 않은 셈이다. 홍언명의 집은 내가 비록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은 없지만 나는 그 집이 반드시 몇 아름의 띠풀로 지붕을 덮고 몇 개의 서까래를 얹었을 것이며, 틀림없이 대문과 계단이라는 것이 있을 줄로 안다. 이는 옛날의 제왕이 견디며 살던 곳이다. 하지만 가난한 선비의 즐거움이란 기껏해야 도서와 문사로 옛 성현을 사모하며 홀로 즐기는 것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다. 노래와 춤, 관현악기, 금수와 꽃과 풀을 쌓아 둬도 없으니 또한 어찌 그 집을 계딱지로 볼 수가 있겠는가?

아! 사물 중에 진실로 굳이 클 필요가 없는 것이 있으니 궁실의 부류가 그러하다.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느니, 군자의 학문과 사업이 그러하다. 학문이 크지 않으면 도에 임하기에 부족하고, 사업이 크지 않고는 백세에 전하여도 썩지 않기에는 부족하다. 무릇 선비를 업으로 삼아 살면서 스스로를 계딱지로 본다면 이것은 어진 것이다. 이미 어진 사람이 스스로를 계딱지로 본다면 성인이 되는 것 또한 바랄 수가 있다. 이미 성인이 되고서도 스스로를 계딱지로 본다면 하늘과도 합치될 수가 있다. 선비가 하늘과 합치됨에

이른다면 그 사업이 크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선비로서 그 사업을 능히 크게 할 수 있는 자가 진실로 학문을 급선무로 삼지 않는다면 또 어찌겠는가? 홍언명은 힘쓸지어다.

나는 또 두보가 “어찌해야 넓은 집 천만 칸을 얻어서, 천하의 빈한한 선비를 덮어 주어 모두 기쁜 얼굴을 짓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홍언명으로 하여금 진실로 학문에 힘쓰고 사업을 닦아 나라에 등용되게 하여서 과연 능히 빈한한 선비들을 감싸 주는 바탕을 얻어 두보의 말을 저버리지 않게 한다면 비록 계막지로 그 집을 보더라도 또한 괜찮을 것이다.

— 김석주, 『해갑와기』

*해갑와: 계막지처럼 작은 집.

*돌파: 논이나 물가에서 자라는 벼과의 풀.

*송산, 화산: 중국의 산.

[26001-0210]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왕의 거처에 나타난 점층적인 변화를 제시하여 정치권력이 개선되는 과정을 조명하고 있다.
- ② 궁전의 두 가지 양상을 대조하여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가치가 서로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일상의 사물에 대해 상대적 관점을 적용하여 대상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상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논하고 있다.
- ④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본분을 지키려면 타고난 분수에 맞게 자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⑤ 성현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여 그 말에 담긴 내용적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함으로써 삶의 지표로 삼아야 할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26001-0211]

02

『해갑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의 벼이 가지고 있는 집으로 화려함보다 소박함의 미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② 글쓴이의 가치관을 드러내 주는 사물로서 군자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보여 주는 수단이다.
- ③ 글쓴이가 벼에게 세속적 시각에서 벗어나 대상의 본질에 주목하도록 권하는 데에 활용한 소재이다.
- ④ 벼이 학문보다는 사업의 확장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기를 바라는 글쓴이의 마음을 담은 사물이다.
- ⑤ 벼와 동일시된다고 글쓴이가 간주한 대상으로 선비의 가치를 확장하는 방도에 대해 말하기 위한 매개이다.

[26001-0212]

0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김석주의 「해갑와기」는 어떤 일을 기록하여 잊지 않고 기념하기 위해 쓴 기문(記文)으로 특정 사물에 대한 글쓴이의 사색과 탐구를 잘 담아내고 있다. 글쓴이는 글을 쓰면서 대상의 속성과 본질을 밝히는 과정을 거치는데, ‘크다’와 ‘작다’라는 크기의 문제를 역설적 논리에 기반하여 재해석하고 대상을 외형이 아닌 정신적 차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이를 통해 선비들이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혀낸다. 그리하여 글쓴이는 개인적 생각과 통찰을 드러냄으로써 타인을 설득하고 독자에게 교훈을 제공한다.

- ① 글쓴이는 ‘크음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귀와 눈을 즐겁게 하’려는 인간의 욕심이 무한함을 지적하고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삶의 통찰을 보여 주고 있군.
- ② 글쓴이는 벼이 ‘호수의 구비에다 집을’ 지은 일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면서 집의 외형을 상상하고 그 속성이 ‘옛날의 제왕이 견디며 살던 곳’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군.
- ③ 글쓴이는 집의 본질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난한 선비에게 집이란 그 외형을 ‘작다고 여’기고 ‘도서와 문사로 옛 성현을 사모하며 홀로 즐’길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개인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④ 글쓴이는 역설적 논리에 기반하여 벼의 집이 겉보기에 작아도 실상은 ‘작지는 않은 셈’이라는 점을 설득하며, 벼이 ‘빈한한 선비를 감싸 주는 바탕을 얻’는 인재가 되기를 바란다는 교훈을 전달하고 있군.
- ⑤ 글쓴이는 선비들이 ‘스스로를 계막지로’ 보면서 추구해야 할 절대적 가치를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정신적 차원에서 찾아내고 궁극적으로 벼 흥언명이 ‘하늘과 합치됨’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군.

[01~0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향기로운 MJB*의 미각을 잊어버린 지도 이십여 일이나 됩니다.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 체전부(遞傳夫)는 이따금 ‘하도롱’ 빛 소식을 가져옵니다. 거기는 누에고치와 옥수수의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멀리 떨어져 사는 일가 때문에 수심이 생겼나 봅니다. 나도 ㉠도회(都會)에 남기고 온 일이 걱정입니다.

건너편 팔봉산에는 노루와 멧돼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우제 지내던 개골창까지 내려와서 가재를 잡아 먹는 곰을 본 사람도 있습니다. 동물원에서밖에 볼 수 없는 짐승, 산에 있는 짐승들을 사로잡아다가 동물원에 갖다 가둔 것이 아니라, 동물원에 있는 짐승들을 이런 산에다 내어놓아 준 것만 같은 착각을 자꾸만 느낍니다. 밤이 되면, 달도 없는 그믐칠야(漆夜)에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아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공기는 수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참 별이 도회에서보다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옵니다. 하도 조용한 것이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도 같습니다.

객주(客主)집 방에는 석유 등잔을 켜 놓습니다. 그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가 소년 시대의 꿈을 부릅니다. 정(鄭) 형(兄)! 그런 석유 등잔 밑에서 밤이 이슬하도록 ‘호까’—연초 감지—부치던 생각이 납니다. 베짖이가 한 마리 등잔에 올라앉아서 그 연듯빛 색채로 혼곤한 내 꿈에 마치 영어 ‘티(T)’ 자를 쓰고 건너긋듯이 유다른 기억에다는 군데군데 ‘언더라인’을 하여 놓습니다. 슬퍼하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그 성악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또 이발소 가위 소리와의도 같아집니다. 나는 눈까지 감고 가만히 또 자세히 들어 봅니다.

그리고 비망록을 꺼내어 머루 빛 잉크로 ㉡산촌의 시정을 기초합니다.

그저께신문을찢어버린

때묻은흰나비

봉선화는아름다운애인의귀처럼생기고

귀에보이는지난날의기사

얼마 있으면 목이 마릅니다. 자리 물—심해처럼 가라앉은 냉수를 마십니다. 석영질 광석 내음새가 나면서 폐부에 한란계 같은 길을 느낍니다. 나는 백지 위에 그 싸늘한 곡선을 그리라면 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청석 얹은 지붕에 별빛이 내리쬐이면 한겨울에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납니다.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가을이 이런 시간에 엮서 한 장에 적을 만큼씩 오는 까닭입니다. 이런 때 참 무슨 재주로 광음을 헤아리겠습니까? 맥박 소리가 이 방 안을 방째 시계를 만들어 버리고 장침과 단침의 나사못이 돌아가느라고 양쪽 눈이 번갈아 간질간질합니다. 코로 기계기름 내음새가 드나듭니다. 석유 등잔 밑에서 줄음이 오는 기분입니다.

‘파라마운트’ 회사 상표처럼 생긴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조금 끕니다. 그러다가 어느 사이에 도회에 남

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 봅니다. 그들은 포로들의 사진처럼 나란히 늘어섭니다. 그리고 내게 걱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만 잠이 깨어 버립니다.

(중략)

내일은 진종일 화초만 보고 놀리라, 탈지면에다 ‘알코올’을 묻혀서 온갖 근심을 문지르리라, 이런 생각을 먹습니다. 너무도 꿈자리가 뒤숭숭하여서 그러는 것입니다. 화초가 피어 만발하는 꿈, ‘그라비아’ 원색판 꿈, 그림책을 보듯이 즐겁게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설명을 위하여 상쾌한 시를 지어서 ‘7포인트’ 활자로 배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도화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활엽수만으로 된 산이 고향의 시각을 가려 버린 이 산촌에 팔봉산 허리를 넘는 철골 전신주가 소식의 제목만을 부호로 전하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벌에 시달려서 마당이 부스럭거리면 그 소리에 잠을 깡니다. 하루라는 짐이 마당에 가득한 가운데 새빨간 잠자리가 병균처럼 활동입니다. 끄지 않고 잔 석유 등잔에 불이 그저 켜진 채 소실된 밤의 흔적이 남은 조끼 단추처럼 남아 있습니다. 작야를 방문할 수 있는 ‘요비링’^{*}입니다. 지난밤의 체온을 방 안에 내어던진 채 마당에 나서면 마당 한 모퉁이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불타오르는 듯한 맨드라미꽃 그리고 봉선화.

지하에서 빨아올리는 이 화초들의 정열에 호흡이 더워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처녀 손톱 끝에 물이 들을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였습니다. 흰 봉선화도 붉게 물들까 —. 조금도 이상스러울 것 없이 흰 봉선화는 꼭두서니 빛으로 곱게 물듭니다.

— 이상, 「산촌 여정」

* MJB: 커피의 제품명.

* 요비링: 초인종의 일본어.

[26001-0213]

0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촌에서 겪은 일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 ② 색채어를 활용하여 산촌의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
- ③ 자연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산촌의 밤의 정경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공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산촌에서의 삶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⑤ 도시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이국적인 느낌을 주는 소재를 사용하여 산촌을 표현하고 있다.

[26001-0214]

02

㉠와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와 달리 ‘나’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공간이다.
- ② ㉠은 ㉡와 달리 ‘나’가 익숙한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이다.
- ③ ㉠은 ㉡와 달리 ‘나’가 다양한 종류의 꿈을 즐겁게 꾸고 있는 공간이다.
- ④ ㉠은 ‘나’가 ㉡에서 접한 대상을 색다르게 느끼게 되는 공간이다.
- ⑤ ㉠은 ‘나’가 ㉡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근심 없이 놀고 싶다고 생각하는 공간이다.

[26001-0215]

03

윗글과 <보기>의 [A]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이상은 폐병을 앓고 있을 때 평안남도 성천에서 요양 생활을 했어요. 여름의 끝자락에서 가을의 초입이라는 시간 동안 성천에서 지낸 자신의 일상을 「산촌 여정」과 「권태」로 형상화했습니다. 두 작품을 비교해 볼까요?

어서—차라리—어두워 버리거나 했으면 좋겠는데—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치 길다.

동에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별판, 남을 보아도 별판, 북을 보아도 별판, 아—이 별판은 어찌자고 이렇게 한 이 없이 늘어 놓였을꼬? 어찌자고 저렇게까지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되어 먹었노?

(중략)

[A]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소위 승합자동차라는 것도 통과하지 않으니 도회의 소식을 무슨 방법으로 알랴?

오관*이 모조리 박탈된 것이나 다름없다. 답답한 하늘, 답답한 지평선, 답답한 풍경, 답답한 풍속 가운데서 나는 이리 뒹굴 저리 뒹굴고 싶을 만치 답답해하고 지내야만 된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 이상으로 괴로운 상태가 또 있을까. 인간은 병석에서도 생각한다. 아니 병석에서는 더욱 많이 생각하는 법이다.

— 이상, 「권태」

*오관: 다섯 가지 감각 기관.

- ① [A]는 윗글과 달리 성천에서 무료함을 느끼는 ‘나’의 정서를 서술하고 있군.
- ② 윗글에서는 [A]와 달리 고요한 성천의 밤하늘을 밝히는 별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윗글에서는 [A]와 달리 특정 인물에게 ‘나’의 성천 생활을 전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④ 윗글과 [A] 모두에서 병으로 인해 성천에서 휴식을 취하는 ‘나’의 처지가 제시되어 있군.
- ⑤ 윗글과 [A] 모두에서 성천에 머무는 동안 ‘나’가 도회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없음을 짐작할 수 있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말에서 내려와 사람 부르니 부인이 문을 열고 나와 보고는 초가집 안으로 맞아들이고 나그네 위하여 밥상 내온다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오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오 사방을 둘러봐도 이웃은 없고 개와 닭들 비탈에서 서성대누나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 뜯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 가련할손 이곳이 뭐가 좋다고 척박한 두메산골 산단 말인가 편안할사 저 너머 평지의 생활 가고파도 고을 관리 너무 무서워	下馬問人居 婦女出門看 坐客茅屋下 爲客具飯餐 丈夫亦何在 扶犁朝上山 山田苦難耕 日晚猶未還 四顧絕無隣 鷄犬依層巒 中林多猛虎 采藿不盈盤 哀此獨何好 崎嶇山谷間 樂哉彼平土 欲往畏縣官	[A] [B] [C] [D]

- 김창협, 「산민」

- 나** ①구경 가세 구경 가세 합강정에 구경 가세
 때는 구월 이십삼일 길일인가 명절인가
 순시(巡視) 나온 우리 감사 이날에 뱃놀이하니
 천추절 성절일* 즐거우나 창오산 저녁 구름 슬프도다
 관찰사 부임 뜻밖이나 남쪽 백성 괴로움 내 알쏭가
 뱃놀이 좋을시고 가을걷이 급함을 생각하라
 돌을 깨서 강 막는 데 한 달이나 걸렸구나
 산을 뚫어 길 낼 때에 민가 무덤 옮겼구나
 울부짖는 저 귀신아 풍경 좋은 탓이로다
 범 같은 우리 감사 조금도 원망 마라
 음식 거마(車馬) 장막 온갖 채비 밤낮으로 준비하고
 큰 물고기 낚아내어 배 안에서 요리하네
 응향각을 숙소 삼고 세여울서 배를 탄다
 물 가운데 떠내려가니 강산도 좋을시고
 감사에겐 풍류요 백성에겐 원수로다

인간 세상에 남은 액운(厄運) 물나라에 미쳤도다
 오 리 밖 기회정에 술과 고기 낭자하네
 여러 고을 관리가 대접한 것이라 백성의 피와 기름 아닌가

(중략)

홍수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 기다림은
 가을걷이 부족함을 채워 줄까 해서인데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폐단 있네
 ㉡무논 재해도 감췄는데 목화밭이야 거론할까
 백 묘(畝)나 되는 벌전 땅에 백지징세(白地徵稅)* 하는구나
 인자한 우리 임금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데
 불쌍한 백성 논밭에다 좁은 길 넓히려나
 각 읍 관리 독촉하니 채찍 몽둥이 낭자하다
 허다한 관인들이 대호(大戶) 소호(小戶)에 분담시켜
 사방 부근 십 리 안에 닭과 개가 멸종하네
 부자는 관참지만 가련한 이 가난한 자로다
 해는 기울고 이정은 저녁밥 재촉할 때
 텅 빈 부엌에서 우는 아낙 밭 구르며 하는 말이
 방아품에 얻은 양식 한두 되 있건마는
 채소도 있건마는 그릇은 누구에게 빌릴꼬
 앞뒷집 돌아보니 선달그믐에 시루 빌리는 격*이로다
 한 마을 닭과 개 다 먹어 치우고 집집마다 또 거둔단 말인가
 대호에는 한 냥 넘고 소호에도 육칠 전이라
 이 놀이 다시 하면 이 백성 못 살겠네
 낙토에서 태어난 사람 태평성대 좋다 하여
 편안히 지내더니 하릴없이 떠도네
 한 사람의 호사(豪奢)가 몇 사람의 난리 되고
 집과 논밭 다 팔고서 어디로 가잔 말인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느님께 비나이다
 우리 임금님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하시어 비추소서 비추소서
 소문에 들리기를 아전 향원(鄉員) 별한다기에
 간악한 이 별하는가 여겼더니 음식과 도로 탓하는구나
 노예 차출 무슨 일인고 순령수*의 권세로다
 음식은 넘쳐 나고 뇌물은 공공연히 오고 가니
 좋을시고 좋을시고 상평통보 좋을시고
 ㉢많이 주면 무사하고 적게 주면 트집 잡네
 춘당대에 치는 장막 오목대에 무슨 일인고

참람한 과거장서 재주 겨루는 유생들아
 오십삼 주 시향 예향에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단 말인가
 ㉠먹을 복 좋은 우리 감사 출세 운 좋은 우리 감사
 들어오시면 육조 판서 나가시면 팔도 감사
 공명도 거룩하고 부귀도 그지없다
 망극하도다 나라 은혜여 감격스럽다 임금님 은혜여
 한 토막 절개라도 있다면 온 힘을 다해 은혜에 보답하리라
 ㉡배은망덕하게 되면 자손에게 화가 미치리라

—작자 미상, 「합강정가」

* 성절일: 중국 황제와 황후의 생일.

* 백지징세: 수확이 없어 세금을 면제받아야 할 땅에 억지로 세금을 매기는 일.

* 선달그믐에 시루 빌리는 격: 어느 집이나 시루를 사용하는 선달그믐에 남의 집으로 시루를 얻으러 다닌다는 뜻으로, 되지도 않은 일에 애쓰는 것을 말함.

* 순령수: 대장의 전령과 호위를 맡고, 순시기·영기(令旗) 따위를 받들던 군사.

다 충혜왕 때 ㉠응방(鷹坊) 소속 관리가 닭을 매의 먹이로 주었다. 매가 날개 하나를 다 먹자 거의 죽어 가는 닭을 자루에 넣어 두었는데, 아침이 되자 그 닭이 울었다. 이 일을 아뢰자 성상께서 측은하게 여겼다. 그 뒤 조정에서 논의해 응방을 혁파했다. 닭이 우는 것은 본성이므로 듣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 그러다가 다친 닭이 한 번 울자 임금이 감동하고 나라에서 관청을 폐지했다. 여기에서 인(仁)이 원래부터 사람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시 백성들은 매를 잡느라 고생했다. 높은 곳에 사는 매를 잡으려다가 절름발이가 된 사람도 있었고, 바다에 사는 매를 잡으려다가 배가 가라앉으면서 빠져 죽은 사람도 있었다. 그물을 쳐서 매를 잡으면 이어서 매가 앓을 토시를 만들고, 집에서 기르며 먹이고 밭의 곡식이 짓밟혔다.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어찌 닭 한 마리의 울음소리 정도에 그쳤겠는가.

닭은 원래 사람처럼 영험하지 않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하는 말은 믿지 않고 닭이 한 번 울자 감동했다. 사람 이하로 노루, 토끼, 여우, 살쾡이처럼 털 있는 동물과 기러기, 고니, 오리, 비둘기처럼 날개 달린 동물이 모두 그 혜택을 입었다. 사람의 말은 의도가 있어서 나온 것이지만 닭의 울음은 의도 없이 나왔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남이 하는 말에는 어둡지만 자기가 믿는 데는 밝은 법이다. 그러므로 제선왕(齊宣王)은 한 마리 소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했으니, 이는 어진 마음의 발로라 하겠지만 어진 정사를 펼치라는 맹자의 말은 살피지 못했다. 『서경(書經)』, 『강고(康誥)』에 “어린아이를 돌보듯 하라.” 하였다. 임금에게 평소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찌 닭이 울기를 기다린 뒤에야 측은하게 여기겠는가. 임금이 한창 매를 좋아할 때는 용방이나 비간과 같은 충신이 조정에서 간쟁했다 하더라도 필시 성을 내며 죽여 버렸을 것이니, 신하들도 모두 그렇게 될 줄 알고 있었다. 임금이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때야말로 쉽게 간언할 기회였다. 그런데 응방을 혁파하라고 말하지 못하고 충혜왕이 유배를 가는 도중에 악양(岳陽)에서 죽은 뒤에야 응방이 혁파되었다. 아, 이 또한 늦은 일이었다.

—이첨, 「응계설」

[26001-0216]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범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물과 인간의 속성을 대비하여 현실 극복의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물을 활용하여 세태에 대한 주관적 시선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언급한 후 그 시대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대상의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하여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217]

02

[A]~[D]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 ‘바깥어른’이 아닌 ‘부인’이 화자를 맞이한 이유는 [B]에서 ‘부인’의 대답을 통해 확인된다.
- ② [A]에서는 화자가 부부를 찾아온 이유가, [D]에서는 부부가 ‘두메산골’에서 사는 이유가 제시된다.
- ③ [B]에서 제시된 부부가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은 [C]에서 특정 작물의 이름을 통해 구체화된다.
- ④ [B]에서는 척박한 토양이, [C]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이 부부가 힘겨운 삶을 사는 원인으로 제시된다.
- ⑤ [B]에서는 ‘바깥어른’의 행방에 대한 화자의 궁금함이, [D]에서는 부부의 거처에 대한 화자의 의아함이 나타난다.

[26001-0218]

0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감사’를 맞이하는 행사가 열리는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 농사와 관련된 공간을 언급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 ③ ㉢: 상반된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하여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순령수’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순시를 나온 ‘감사’가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가정적 진술을 통해 ‘감사’가 임금의 신하로서 유교적 가치를 지켜야 하는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26001-0219]

04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백성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진행한 행사이고, ㉡은 백성들이 오랫동안 호소하여 혁파된 관청이다.
- ② ㉠은 백성들을 배제한 채 관리들만 참여한 행사이고, ㉡은 백성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관리들이 요청하여 유지된 관청이다.
- ③ ㉠은 생활고의 해결을 기대했던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행사이고, ㉡은 생활을 어렵게 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관청이다.
- ④ ㉠은 임금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백성들이 요구했던 행사이고, ㉡은 사람의 본성을 실현하기 위해 백성들이 폐단의 시정을 요구했던 관청이다.
- ⑤ ㉠은 관리들에 대해 백성들이 억울함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는 행사이고, ㉡은 관리에 대해 백성들이 울분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는 관청이다.

[26001-0220]

05

(다)와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기 ▶

임금은 아버지요
 신하는 사랑을 주는 어머니요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하신다면
 백성이 사랑을 알리라
 꾸물거리며 사는 물생
 이들을 먹여 다스려서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가리 한다면
 나라 안이 유지될 줄 알리라
 아아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나라 안이 태평할 것이리라

- 충담사, 「안민가」

- ① (다)는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태도를 비판하는 의도를, <보기>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태도를 당부하는 의도를 전달하고 있다.
- ② (다)는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기>는 자신의 신분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는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대의적인 명분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보기>는 나라를 돌보는 것처럼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다)는 옛사람들이 당부한 정치의 실현을 염원하는 마음을, <보기>는 나라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태도를 임금이 지니기를 염원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다)는 자식을 대하는 부모의 마음처럼 임금이 백성을 아껴야 한다는 점을, <보기>는 백성을 대하는 임금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26001-0221]

0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학 작품에 등장하는 지배 계층은 임금부터 하급 관리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폭넓게 나타나는데, 지배 계층이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거나 나라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는 등 위정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비판의 대상이 된다. 작가는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을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사회상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작가의 논평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하고 작중 인물의 발화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 ① (가)의 ‘부인’이 ‘저 너머 평지’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것과 (나)의 ‘낙토에서 태어나 ‘편안히 지’낸 사람이 ‘하릴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은 작가가 지배 계층을 비판하는 이유로 볼 수 있겠군.
- ② (가)는 ‘고을 관리’에 대한 화자와 ‘부인’의 대화를 통해, (다)는 ‘충혜왕’이 죽은 뒤에 응방이 혁파된 것이 ‘늦은 일이었다’는 글쓴이의 논평을 통해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③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 ‘인자한’ 성품을 지닌 (나)의 임금과 달리, (다)의 임금은 ‘충신이 조정에서 간쟁’하면 ‘필시 성을 내며’ 처단하는 성품을 지녔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라 볼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물나라’에 ‘인간 세상에 남은 액운’이 미치는 것과 ‘우리 임금님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해 달라며 ‘하느님’께 기원하는 것은 모두 작중 인물의 발화를 통해 작가가 추구하는 사회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나)에서 ‘과거장서 재주 겨루는 유생들’을 향해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다는 화자의 말과, (다)에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 생각하여 신하들이 왕에게 ‘응방을 혁파하라고 말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글쓴이의 말은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배 계층의 모습을 비판한 것에 해당하겠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해야 들어 봐라 내일이 신행이라
 네 마음 어떠하며 이 심사 갈발*없어
 우마에 짐을 싣고 금반*을 굳게 매어
 친정을 하직하고 시가로 들어가니
 부모께 떠날 적에 경계할 말 많고 많다
 문밖에 사관할 제 세수를 일찍 하고
 문밖에서 절을 하고 가까이 나와 앉아
 방이나 덤사온가 잠이나 편하신가
 살뜰히 물을 적에 저근덧 앉았다가
 가만히 돌아 나와 진지를 차릴 적에
 식성을 물어 가며 반찬을 맞게 하고
 꿇어앉아 진지하고 식사를 물린 후에
 할 일을 사뢰 보아 다른 일 없다시면
 내 방에 돌아 나와 일손을 바빠 들여
 흥돈흥돈* 하지 말고 자낙자낙* 하여서라

(중략)

두세 살 먹은 후에 지각이 들거들랑
 장난을 절금하고 음식을 존절하고
 명주옷 입게 말고 새 소음 놓지 말고
 썩은 음식 주지 말고 상한 고기 먹지 말고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고
 밍다고 과장 주어 정신없게 하지 말고
 맹자의 어마임도 맹자를 기르실 제
 이사를 세 번 하여 학교 곁에 사시고
 이웃에 돼지 잡거늘 너 먹인다 속이시고
 도로혀 후회하여 사다가 먹이신다
 너희도 이것 보와 속이지 말아서라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노비는 수족이라 수족 없이 어이 살며
 더위에 농사지어 상전을 봉양하며
 추위에 물을 끼려 상전을 공양함이
 그 아니 불쌍하며 그 아니 귀할손가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한가지라

꾸짖어도 악언 말고 치나마 과장 말고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
 나이 많은 종이거든 언어를 삼가고
 어린 종이거든 자식같이 길러서라
 제때에 해 입히고 배품게 말아서라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제가를 하온 후에 치산을 하여서라
 곡식이 많으나마 입치레하지 말고
 포백이 많으나마 몸치장하지 말고
 현 의복 기워 입고 잡음식 먹어서라
 집 안은 자주 쓸되 문지 앉게 말아서라
 기명을 알아 놓아 닭과 개가 깨게 말아
 이웃을 왕래할 제 무릅을 쓰고 가고
 급한 일 아니거든 밤으로 왕래 말고
 남의 집 가거들랑 더욱 조심하여서라
 웃음을 과이하여 이뿌리 나게 말고
 옷귀를 매게 하여 속옷을 나게 말고
 남의 말 하지 말고 남의 집 내지 말아
 인물을 평론 말고 양반을 고하 말고
 부귀를 흠선 말고 음식을 욕심 말아
 아해야 들어 봐라 또 한 말 이르리라
 남의 집 처음 갈 때는 조심이 많건마는
 세월이 많아가면 홀만키기 쉬우려니
 처음의 가진 마음 늠도록 변치 마라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대강으로 기록하여 책을 매서 경계하니
 이 책을 잃지 말고 시시로 내어 보며
 행신과 처세할 제 유익하게 되었으라
 그밖에 경계할 말 무수히 있다만은
 정신이 아득하여 이만하여 그치노라

— 작자 미상, 「계녀가」

*갈발: 어디에 머물지 못하고 정처 없이 떠돌.

*흥돈흥돈: 두서없이.

*기수: 순서, 차례.

*금반: 물건을 매는 줄.

*자낙자낙: 침착하게.

나 상(相)*은 익히는 것으로 인하여 변하고, 형세는 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데, 그 형국(形局)이다 유년(流年)이다의 설(說)을 하는 사람은 거짓이다. 아주 어린 아이가 배를 땅에 대고 엉금엉금 길 적에 그 용모를 보면 예쁠 뿐이다. 하지만 그가 장성해서는 무리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무리가 나누어짐으로써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지고,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짐으로써 상도 이로 인해 변하게 된다. [A]

서당(書堂)의 무리는 그 상이 아름답고, 시장(市場)의 무리는 그 상이 검고, 목동(牧童)의 무리는 그 상이 산란(散亂)하고, 강패*나 마조* 같은 무리는 그 상이 사납고 약빠르다. 대체로 그 익히는 것이 오래됨으로써 그 성품이 날로 옮겨 가게 되니, 그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상이 이 [B]로 인하여 변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상의 변한 것을 보고는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익히는 것이 저와 같다.’ 하니, 아, 그것은 틀린 말이다.

대저 학문을 익힌 사람은 사리를 통달하는 데 효과가 있고, 이(利)를 익힌 사람은 재물을 모으는 데 효과가 있고, 힘을 익힌 사람은 비천한 일에 몸을 마치고, 악(惡)을 익힌 사람은 패망(敗亡)한 데 몸을 마치게 되니, 익힘과 효과가 아울러 진보(進步)함으로써 효과와 상이 모두 변하게 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상의 변하는 것을 보고 또한 말하기를 ‘그 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저와 같은 것이다.’ 하니, 아, 어찌면 그렇게 어리석단 말인가.

㉠어떤 아이가 있는데 그의 눈동자가 빛나면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 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서적(書籍)을 사들이고, 그 아이를 위해서 스승을 정하게 되고, 스승은 말하기를 ‘이 아이는 가르칠 만하다.’ 하여, 그 아이에게 붓·먹·연분·서판을 더욱더 주게 되니, 이 아이는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다. 대부(大夫)는 이 사람을 천거하기를 ‘이 사람은 쓸 만합니다.’ 하고, 임금(君主)은 그 사람을 보고 이르기까지 ‘이 사람은 대우할 만하다.’ 하여, 그를 권장하고 추켜세우고 칭찬하고 선발하여 이욕고 재상(宰相)에 이르게 된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얼굴이 풍만하게 생겼으면 아이의 부모는 말하기를 ‘이 아이는 부자가 될 만하다.’ 하여, 재산을 더욱더 주고, 부인(富人)은 그 아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 아이는 부릴 만하다.’ 하여, 자본을 더욱더 주게 되니, 이 아이는 더욱 힘쓰고 날로 부지런하여 사방으로 장사를 다닌다. 그러면 부인은 그가 상업(商賈)을 부흥시킬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주인으로 삼으니 잘될 사람을 더욱 도와주어 조금 뒤에는 백만장자가 되어 버린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 미모*가 더부룩하고, 또 어떤 아이는 콧구멍이 밖으로 드러났으면, 그 아이의 부모와 사장(師長)들은 양성(養成)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위와 반대로 하니, 이들이 어찌 자기 몸을 귀하고 부(富)하게 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것은 그 상으로 인하여 그 형세를 이루고, 그 형세로 인하여 그 상을 이루게 된 것인데, 사람들은 그 상의 이루어진 것을 보고는 또 말하기를 ‘그 상이 이와 같기 때문에 그 이론(理)이 저와 같다.’ 하니, 아, 어찌면 그리도 어리석단 말인가.

세상에는 진실로 재덕(才德)을 충분히 간직하고도 액궁(厄窮)*하여 그 재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상에다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을 우대했다라면 이 사람도 재상이 되었을 것이요, 이해에 밝고 귀천에 밝았는데도 종신토록 곤궁한 사람이 있는데, 상에다가 역시 그 허물을 돌리지만,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에게 자본을 대 주었다라면 또한 큰 부자가 되었을 것이다. 하물며 거처는 기질(氣質)을 변화시키고, 봉양(奉養)은 신체를 변화시키며, 부귀는 그 뜻을 음란하게 하고, 우환(憂患)은

그 마음을 슬프게 하여 아침에는 무성하다가 저녁에는 시들게 된 사람도 있고, 어제는 초췌했다가 오늘은 살찌서 윤택해진 사람도 있게 되니, 상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사서인(士庶人)이 상을 믿으면 직업을 잃게 되고, 경대부(卿大夫)가 상을 믿으면 그 친구를 잃게 되고, 임금이 상을 믿으면 신하를 잃게 된다. 공자가 말하기를,

“용모로써 사람을 취했다라면 자우*에게 실수할 뻔했다.”

하였으니, 참으로 성인(聖人)이다.

— 정약용, 「상론」

*상: 용모를 말함.

*강패: 뱃사공.

*마조: 마부.

*미모: 눈썹.

*액궁: 운수가 나빠 고생함.

*자우: 춘추 시대 노나라 사람인 담대명명의 자. 담대명명은 얼굴이 매우 못생겼으나 품행이 훌륭하였다고 함.

[26001-0222]

0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 청자를 호명하며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대조적인 상황을 제시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사물에 의탁하여 경험한 일로부터 받은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대상을 의인화하여 자연으로부터 얻은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26001-0223]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봉건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다면적으로 나타났다. 당시 여성은 아내와 어머니, 며느리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재산 및 노비 관리의 역할까지 수행함으로써 가정의 내적인 생활을 주관했다. 이때 여성의 생활 공간인 규방은 길쌈과 같은 가사 노동을 하는 공간이자 가정의 일을 관리하는 공간으로 나타났다.

- ① ‘진지를 차릴’ 때 ‘식성을 물어 가며 반찬을 맞게’ 해야 한다는 것에는 시부모님을 봉양하는 며느리가 지켜야 할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② ‘내 방에 돌아’와 ‘일손을 바빠 들’여야 한다는 것에는 규방에서도 가사 일을 해야 하는 여성의 일상이 드러나 있다.
- ③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라는 것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로서 가져야 할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④ ‘꾸짖어도 악언 말’며 ‘명분을 밝게 하’라는 것에는 부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귀천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는 노비 관리의 방법이 드러나 있다.
- ⑤ ‘헌 의복 기워 입고 잡음식 먹’으라는 것에는 집안의 살림살이를 돌봐야 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태도가 드러나 있다.

[26001-0224]

03

(가)와 (나)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우마’는 화자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고, (나)의 ‘임금’은 글쓴이가 자신과 동일시하는 대상이다.
- ② (가)의 ‘상전’은 화자가 대상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고, (나)의 ‘백만장자’는 글쓴이가 대상의 상황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 ③ (가)의 ‘남의 집’에 대해 화자는 대상이 유의해야 할 장소라고 여기고 있고, (나)의 ‘거처’에 대해 글쓴이는 대상이 지닌 특성이 달라지는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 ④ (가)의 ‘양반’에 대해 화자는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고, (나)의 ‘악을 익힌 사람’에 대해 글쓴이는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의 ‘이 책’은 화자가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계기이고, (나)의 ‘서적’은 글쓴이가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게 되는 계기이다.

[26001-0225]

04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형세는 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글쓴이의 인식은, [B]에서 ‘그 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익히는 것이 저와 같다’는 사람들의 생각과 상통한다.
- ② [A]에서 ‘설을 하는 사람’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달리, [B]에서 ‘그 상의 변한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나타난다.
- ③ [A]에서 ‘아주 어린 아이’의 ‘용모를 보면 예’쁘다는 글쓴이의 생각은, [B]에서 ‘상이 아름답’은 경우에 대한 글쓴이의 예찬으로 이어진다.
- ④ [A]에서 ‘무리가 나누어짐으로써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진다는 글쓴이의 진술은, [B]에서 ‘서당의 무리’와 ‘시장의 무리’, ‘목동의 무리’, ‘강패나 마조 같은 무리’를 통해 구체적인 양상으로 드러난다.
- ⑤ [A]에서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짐으로써 상도 이로 인해 변하게 된다’는 글쓴이의 주장은, [B]에서 ‘익히는 것이 오래’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6001-0226]

05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근면한 태도로 생활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은 천성으로 인해 게을리 생활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
- ② ㉠은 주위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경우를 보여 주고, ㉣은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
- ③ ㉠은 ㉡과 달리 상으로 인해 그 형세가 변하게 된 경우를 보여 준다.
- ④ ㉡은 ㉣과 달리 스스로 노력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성공을 이룬 경우를 보여 준다.
- ⑤ ㉠, ㉡, ㉣은 모두 성장하는 데 있어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영향을 준 경우를 보여 준다.

[26001-0227]

0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작가가 통념과 관련해 대상이 경계해야 할 태도에 대해 드러내고 있다. (가)의 작가는 시집가는 딸에게 부녀자의 행실을 가르치는 어머니로 추정된다. 작가는 당시 통념으로 여겨졌던 시집살이의 규범뿐 아니라 마음가짐이나 몸가짐, 말 등 여성으로서의 수신(修身) 자체를 강조하며 딸에게 부녀자의 도리를 다할 것을 이르고 있다. 작가는 전고나 역대의 사례를 빌려 이상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 줌으로써 딸이 실천해야 할 윤리적 덕목을 전하며 조언을 하면서도 딸에 대한 걱정을 드러낸다. (나)의 작가는 세간의 통념을 비판하며 사람을 그 자체로 보지 않고 겉모습으로만 판단하는 부조리를 지적하고 있다. 작가는 여러 사례를 통해 세간 사람들의 생각이 오류임을 밝히며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운명론적 태도보다 노력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 ① (가)의 작가가 ‘이 심사 갈발없’다고 하며 ‘부모께 떠날 적’의 상황을 언급한 것에서 시집가는 딸에 대한 걱정으로 조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② (가)의 작가가 ‘문밖에 사관할 제’에 ‘가까이 나와 앞’아 할 일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부녀자로서의 올바른 품행에 대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나)의 작가가 ‘사람들’이 ‘그 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에서 운명론적 태도를 지적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가)의 작가가 ‘이사를 세 번 하여 학교 곁에’ 산 ‘맹자의 어마임’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이상적인 여성의 전례를 전하고 있음을, (나)의 작가가 ‘공자’가 ‘용모로써 사람을 취’하지 않았음을 언급한 것에서 자신의 주장을 강화할 수 있는 사례를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⑤ (가)의 작가가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경계’한다는 것에서 대상이 통념에 따르기를 바라고 있음을, (나)의 작가가 ‘재덕을 충분히 간직’하였지만 ‘액궁’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에서 통념을 따르는 대상의 생각이 오류임을 밝히고 있음을 알 수 있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시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귀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가? 글을 꾸미고 웅얼거려서 잠시 사람들의 입을 벌여지게 만드는 것뿐이다. 나는 예전에 시인과 광대는 풀벌레 같은 존재라고 여겼다. 시인은 생각을 소리로 내고 광대는 입으로 소리를 낸다. 풀벌레는 배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고, 날개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고, 다리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고, 가슴으로 소리를 내는 놈도 있다. 소리 내는 방법은 다르지만 그 재주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힘든가 편한가로 말하자면 벌레는 몹시 편하고 광대가 그다음이며 시인이 가장 힘들다. 벌레는 때가 되면 천기(天機)가 저절로 움직여 소리를 내니, 일부러 소리 내는 것이 아니다. 광대는 술잔을 들고 좌우에서 웃으며 하루 종일 복을 비니, 입술이 마르고 혀가 뻗뻗해져도 마음은 관여하지 않아 입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시인은 생각을 짜내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쓰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야 겨우 한 구를 완성한다. **오장육부를 힘들게 만들어 부지런히 짓는 것이 삼분의 이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 세 가지의 순서를 매기면 시인은 마루에서 절하고 광대는 마당에 두며 벌레는 죽을 때까지 풀숲과 섬돌 사이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사람은 힘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편한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인가?

옛사람이 말하기를 “귀한 사람은 남을 부리고 천한 사람은 남에게 부림을 받는다.” 하였으니 ㉠사물은 어찌하여 똑같이 않은 것인가. 나는 늦게야 그러한 줄 깨닫고, 마침내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하여 시에 대해 말하기를 기피했다. 그렇지만 좋은 시를 보면 문득 기뻐하였으니 ㉡마치 병이 나서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 문득 술 생각이 나는 것 같았다.

지금 허균*은 유, 불, 도 삼교(三敎)와 제자백가에 통달했는데, 불교의 말을 더욱 믿어 시를 지어 장식했다. 이것은 좋은 버를 뽑아 버리고 잡초를 키우는 것과 같다. 힘들고 부지런한데도 도리어 광대나 벌레보다 못하게 될 것인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어떤 이는 말한다.

“㉢마음은 거북 등껍데기와 같아 속을 태우면 조짐이 바깥으로 나타나니, 이것은 마치 생각이 움직여 시를 읊는 것과 같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생각은 물과 같고 시는 얼음과 같다.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도로 물이 된다. 이것은 마치 생각이 움직여 시를 짓고, 시를 읊으면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과 같다. 생각이 깊지 않으면 시가 좋지 않고, **마음이 맑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깊은 생각에서 나온 시라야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나는 늙어서 시를 멀리하고 있다. 지금 마침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허균을 만나자 나도 모르게 수레에서 내렸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시가 과연 좋고 귀한 것이기 때문인가?

- 이항복, 「허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허균: 허균을 가리킨.

나 S#21. 강의실(낮/내부)

문화원 강의실에서 김 시인이 한창 강의를 하고 있다.

김 시인: 시를 쓴다는 것은 아름다움을 찾는 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들,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 그냥 겉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다 가슴속에 시를 품고 있어요. 시를 가두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풀어 줘야 해요. 가슴속에 갇혀 있는 시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있도록…….

김 시인이 문득 말을 끊는다. 미자가 손을 들고 있다.

미자: 선생님, **시상은 언제 찾아와요?**

김 시인: 시상이 언제 오냐고요?

미자: 예, 아무리 시상을 얻으려고 해도 도무지 오지 않아요. 언제 시상이 오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김 시인: 시상은 찾아오지 않아요. 내가 **찾아가서 빌어야** 돼. 사정을 해야 돼. 그래도 줄 동 말 동 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함부로 주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돼.

미자는 보일락 말락 고개를 끄덕인다. ㉔ 그래도 못내 미진한 듯 묻는다.

미자: 어디로 찾아가요?

㉕ 시인은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힌다. 그리고 약간 짜증이 나는 것을 참으려 한다.

김 시인: 그거……. 그거는……. 어디를 정해 놓고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찾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시상이 어디 나 여기 있소, 하고 문패를 걸어 놓고 기다리고 있겠어요? 분명한 거는 내 주변에 있다는 거야. 멀리 있지 않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 거기서 얻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설거지통 속에도 시가 있다고…….**

시인의 말을 듣고 있는 미자의 얼굴. ㉖ 뭔가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 같은 표정이다.

S#92. 미자의 집(낮/내부)

미자의 아파트 안. 싱크대 위 좁은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껴들어 오고 있을 뿐, 집 안은 비어 있다.

현관문 쪽에서 달그락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문이 열리고 미자의 딸이 들어온다. 40대 초반 정도 되어 보인다. 신발을 벗고 들어서며 미자를 부른다.

수옥: 엄마!

대답이 없다. 그녀는 안방과 욕이 방의 방문을 열어 본다. 집 안에 미자는 보이지 않는다. 식탁에 앉는다. 핸드폰으로 전화를 건다. 그러나 신호는 가지만, 전화는 받지 않는 듯하다.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다. 미자의 부재가 주는 알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힌 것 같은 얼굴이다. 시를 읽는 양미자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미자: (O.S.※) 그곳은 어떤가요

얼마나 적막하나요

S#93. 아파트 앞(낮/외부)

누군가의 시점으로 보이는 나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 카메라 틸트다운*하면, 미자가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앉아 나무를 올려다보던 곳. 미자가 앉았던 자리에 ‘신 20’의 동네 할머니가 앉아서 나무를 올려다보고 있다. 미자와 육이 배드민턴을 치던 아파트 앞 작은 공터에는 아이들이 훌라후프를 하며 놀고 있다. 미자의 목소리 계속된다.

미자: (O.S.) 저녁이면 여전히 노을이 지고
 숲으로 가는 새들의 노랫소리 들리나요
 차마 부치지 못한 편지
 당신이 받아 볼 수 있나요
 하지 못한 고백
 전할 수 있나요
 시간은 흐르고 장미는 시들까요

S#94. 버스 정류장(낮/외부)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그녀가 늘 버스를 타던 곳. 어느 때와 다른없는 풍경이지만, 오늘따라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이 비어 있다. 버스가 한 대 와서 선다. 그러나 아무도 내리지 않는다. 버스가 다시 출발한다.

미자: (O.S.) 이제 작별을 할 시간
 머물고 가는 바람처럼
 그림자처럼

- 이창동, 「시」

*O.S.: 오프 사운드(off sound). 영화에서 대사가 나오는데 화면에는 말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화면 밖에서 말이 나오는 것.

*틸트다운(tiltdown): 카메라를 수직 방향으로 밑을 향하여 움직이면서 촬영하는 기법.

[26001-0228]

01

(가)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시에 대한 회의와 애정의 태도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 ② 시인의 생각을 담아낸 시가 사람의 정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③ 시 창작의 수고와 고됨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허 군의 시 창작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시인, 광대, 벌레를 비교하며 시 창작 과정에서 시인이 겪는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이 쌓일수록 시에 담긴 생각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제시하고 있다.

[26001-0229]

02

㉔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 ② 시는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언어이다.
- ③ 시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함축하는 의미의 차이가 존재한다.
- ④ 시는 외적으로 주어지는 자극과는 무관하게 내적으로 사유하는 힘이다.
- ⑤ 시는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난 움직임이 겉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다.

[26001-0230]

0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시인은 자신의 개별적 체험이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함으로써 보편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드러낸다. 이러한 시 창작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시인의 고뇌가 수반되고 시인의 창작 행위는 독자에게 심미적 즐거움과 정서적 울림을 경험하게 한다. (가)는 독자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는 시의 가치가 어떤 창작의 고뇌를 통해 확보되는지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으며, (나)는 시를 창작하고자 하는 인물을 통해 보편적 아름다움을 형상화하기 위한 시 창작 방법이 어떻게 탐구되는지 보여 준다.

- ① (가)에서 글쓴이가 ‘생각은 물과 같고 시는 얼음과 같’아 시가 창작되는 것은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도로 물이’ 되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 것에서 시란 시인의 생각이 언어로 형상화되는 것임을 알 수 있군.
- ② (나)에서 ‘설거지통 속에도’ 시가 있다고 한 김 시인의 말에서 일상생활 속 개별적 체험이 시의 소재가 되어 독자들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③ (나)에서 시상은 ‘찾아가서 빌어야’ 얻을 수 있다는 김 시인의 말에서 시의 내용이 보편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독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군.
- ④ (가)에서 시란 ‘오장육부를 힘들게 만들어 부지런히 짓는 것’이라는 글쓴이의 생각과 (나)에서 미자가 ‘시상은 언제 찾아’오는 것인지를 궁금해하며 시상을 찾고자 애쓰는 모습에서 창작 과정에서 겪는 시인의 고뇌를 알 수 있군.
- ⑤ (가)에서 ‘마음이 맑지 않으면’ 시를 창작할 때 깊은 생각을 담을 수 없다는 글쓴이의 생각과 (나)에서 시를 쓴다는 것은 현실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는 김 시인의 말에서 독자에게 감동을 주는 시가 갖추어야 할 요소를 알 수 있군.

[26001-0231]

0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를 쓰려는 마음을 접게 된 글쓴이의 내적 갈등과 관련된 의문을 담고 있다.
- ② ㉡: 시에 대한 애정을 억누를 수 없는 글쓴이의 마음이 비유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 ③ ㉢: 미자가 김 시인의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다.
- ④ ㉣: 강의의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는 미자로 인해 화가 난 김 시인의 반응이다.
- ⑤ ㉤: 시를 잘 창작하고 싶어 하는 미자의 마음이 드러난 표정이다.

[26001-0232]

05

(나)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자는 김 시인과 함께 시를 창작하며 낭송하는 기회를 얻었다.
- ② 미자는 김 시인과 나눈 대화로 인해 다른 수강생들과 갈등하는 상황에 놓였다.
- ③ 미자는 김 시인의 강의에 따라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일상적 소재를 활용해 시를 창작했다.
- ④ 수옥은 미자가 남긴 시를 읽으며 미자의 부재로 인한 그리움을 견뎌 냈다.
- ⑤ 김 시인은 시와 관련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수강생들에게 시 창작 방법을 설명했다.

[26001-0233]

06

<보기>는 (나)를 영상화하기 위한 제작 노트의 일부이다. 뒷글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영상 제작 계획

- S#92에서 미자의 아파트 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 줄 때 텅 빈 집 안을 화면에 비추면서 집 안의 고요함을 부각해야겠어. ㄱ
- S#92에서 미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난 후 수옥이 미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수옥이 애태우며 울부짖는 표정으로 연기하도록 해야겠어. ㄴ
- S#93에서 나뭇잎의 흔들림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며 나무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야겠어. ㄷ
- S#93에서 화면에 나무의 모습에서 나무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 아이들이 홀라후프를 하는 모습까지 담기도록 카메라의 시선을 이동하며 촬영해야겠어. ㄹ
- S#92부터 S#94까지 화면 밖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미자가 낭송하는 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디오의 통일성을 잘 유지해야겠어. ㄹ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ㄹ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부생모육(父生母育) 신고(辛苦)하여 이내 몸 길러 낼 제
 공후배필(公侯配匹)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願)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當時)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달이 베을에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입이 날 필쏘냐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누구를 원망(怨望)하리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에 새 사람이 나단 말가
 꽃 피고 날 저문 제 정처(定處) 없이 나가 있어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디어디 머무는고
 원근(遠近)을 모르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라
 인연(因緣)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쏘냐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림기나 말으려문
 열두 때 김도 길사 서른 날 지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어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는 섞어 치니
 여름날 길고 길 제 꽃은비는 무름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 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올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험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리어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靑燈)을 돌려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접련화(接蓮花) 한 곡조를 시름조차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대 소리 씻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別鶴)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릴소니

간장(肝腸)이 구회(九回)하여 굶이굽이 끓쳤세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모습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천상(天上)의 견우직녀(牽牛織女) 은하수(銀河水) 막혔어도
 칠월칠석(七月七夕) 일년일도(一年一度) 실기(失期)치 아니커든
 우리 임 가신 후는 모습 약수(弱水)* 가렸관데
 오거니 가거니 소식(消息)조차 그쳤는고
 난간(欄干)에 빗겨 서서 임 가신 데 바라보니
 초로(草露)는 맺혀 있고 모운(暮雲)이 지나갈 제
 죽림(竹林) 푸른 곳에 새소리 더욱 쉼다
 세상의 설운 사람 수없다 하려니와
 박명(薄命)한 홍안(紅顏)이야 날 같은 이 또 있을까
 아미도 이 임의 지위로 살동말동 하여라

— 허난설헌 「규원가」

* 삼생: 전생(前生), 현생(現生), 내생(來生)을 통틀어 이르는 말.

* 월하: 부부의 인연을 맺어 준다는 전설상의 늑은이.

* 백마금편: 흰 말과 금 채찍, 사내의 호사스런 기마 풍류를 나타내는 관용적 표현.

* 약수: 중국 서쪽의 전설 속의 강.

나 이력저력하는 동안에 가을이 되어 칠월을 당하여 본가에서 송이를 들여오거늘, 후계서 보시고 척연히 안색을 변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니 궁녀가 꿇어 묻자오되,

“낭랑이 웬만한 어려운 일을 당하셔도 태연하시더니 요즘 서러워하심은 어떤 일이옵니까?”

후계서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기를,

“내 이리 죄를 얻어 백옥무하하니* 시운만 한탄할 뿐 무엇을 서러워하리요마는, 내 대내*에 있을 때 본가에 기별하여 송이를 들여오면 두 대비 전에서 즐겨 진어하시던 고로, 위하여 수라에 쓰더니 오늘날 송이를 보니 마음이 저절로 아픈 듯하도다.”

㉑ 말씀하시며 따라 눈물을 흘리시니 좌우가 모두 흐느껴 울고 우러러보옵지 못하였다더라.

창호와 사벽을 바르지 않으시고, 넓은 동산과 집의 풀을 매게 아니하므로 사람 한 길만큼이나 자라 인적이 끊겼으니 귀신과 망령이 날고, 저물면 예사 사람과 같이 다니니 궁인이 움직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더니 하루는 난데없는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오니 거동이 추한지라, 궁인들이 쫓아도 또 들어오니 후계서 이르기를,

“그 개 출처 없이 들어와 쫓아도 가지 않으니 기이한지라. 내버려두어 그 하는 양을 보라.”

하시매, 궁인들이 밥을 먹이며 두었더니 10여 일 뒤에 새끼를 세 마리 낳으니 매우 크고 모진지라. 이후는 날이 저물어 망령의 불과 도깨비의 자취가 있으면 네 마리의 개가 함께 짖어 대므로 잡귀가 급히 물러가 종적을 감추니 그로 인하여 집안이 편안한지라. ㉒ 대개 무지한 짐승도 도움이 있거늘 하물며 신민이라, 후 폐

출하신 뒤로 조정에선 기뻐하는 소인이 많으니 도리어 금수만도 못하리로다.

후가 천성이 단정하고 정중하여 요동하시는 바가 없으나, 매양 급한 풍우에 뇌성을 두려워하사 청사에 계시다가도 빨리 방으로 들어가시나 날마다 적적함을 이기지 못하시어 오라버님 **민정자의 딸**이 여덟 살이라 데려다가 두시고 『소학(小學)』과 『**열녀전(烈女傳)**』을 가르치시고 길쌈을 가르치시어 소일하시고, 신세 구차하고 황락하시되 일찍이 사람을 탓하고 귀신을 원망하는 바가 없이 천연 자약하시니*, 좌우가 더욱 마음속으로 탄복해 마지않았다더라.

부원군의 삼년상을 마치시매 후께서 더욱 애처롭게 서러워하시어 옥체가 자주 편찮으시더라. 본가에서 색깔이 있는 옷을 들여오되 받지 아니하시고 이르기를,

“죄인이 어찌 색깔 있는 옷을 입으리요. 무명으로 의복 금침을 만들도록 하라.”

하시어, 무명 치마와 순백 저고리를 들여오니 입으시고 보물과 진찬을 가까이 아니하시더라.

이때 상감께서 민후를 폐출하시고 희빈 장씨를 왕비로 책봉하여 곤위에 오르게 되어 궁중의 조화를 받게 하니, ㉠궁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궁중이 이렇듯이 됨을 서러워하고 장 씨의 참혹한 처사를 분하게 생각하되 조정 안에 어진 사람이 없으니, 누가 감히 말을 하리오. 그옥이 분한 마음을 품고 조화를 마치니, 희빈의 아버지를 옥산 부원군으로 봉하고 빈의 오라비 장희재로 훈련대장을 제수하시니 백성들이 한심히 여기고 기강이 흩어져 팔도의 인심이 산란하여 별 소문이 다 도니, ㉡대개 예로부터 성제명왕(聖帝明王)이라도 한 번은 참소하는 말을 귀담아듣기가 쉬운 법이거니와, 숙종 대왕과 같이 문무를 겸하신 어진 임금도 장 씨에게 이토록 **침혹*하사 나라의 체면을 손상**하심은 실로 의외라.

이듬해 경오년에 장 씨의 생자로 왕세자를 책봉하시니, 장 씨 양양자득하여 방약무인하니, 이러므로 발악을 일삼아 비빈을 절제하며 궁녀를 엄형하여 포박한 말과 교만한 행실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궁중에 기강이 없어지고 원망이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장희재는 탁란하고* 음험하여 팔도에 장난하되 감히 말할 이가 아무도 없더라.

㉢이렇듯 삼사 년이 지나가매 천운이 순환하여 즐거운 일이 지나면 슬픈 일이 닥쳐오고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옴이라. 구름이 점점 걷히며 태양이 다시 밝아 오니, 성충이 깨달으시어 민후의 억울하심을 알고 장희빈의 요사스럽고 악독함을 깨치사 의심이 가득하시니, 대하시는 기색이 전과 다르시고 조정 소인들이 후의 삼촌 숙질을 다 처벌하시라고 날마다 아뢰기를 수년에 이르렀으나, 상감께서 마침내 허락하지 않으시니 이러므로 민씨 일문이 보존함이 되니라.

장 씨 그옥이 임금의 뜻을 짐작하고 크게 두려워 **오라비 희재와 더불어 피하여** 갑술년에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여 일으킨 옥사*를 다시 일으켜 무수리를 죽이고 폐비에게 사약하려 하니 **변이 크게 나매**, 상감께서 짐짓 그 하는 양을 보시고 궁중 기색을 살펴 망연히 간사한 사람의 흉모를 깨달으사, 즉일 옥사를 뒤집으시고 비위만 맞추는 신하들을 다 물리시고, 옛 신하들을 불러 쓰실새, 갑술년 삼월에 대전별감이 세 번이나 안동 본가 궁을 둘러보고 들어가더니, 4월 9일에 비망기(備忘記)*를 나리시어 폐하신 중궁의 무죄하심을 밝히시고, 별궁으로 모시라 하시며, 어찰을 내리사 상궁 별감과 중사를 보내시니 후께서 사양하사 이르기를,

“죄인이 어찌 외인을 접하며 감히 어찰을 받으리요.”

하시고, 문을 열지 않으시매, 연 삼 일을 별감이 문밖에서 밤새고 문을 열기를 청하되, 마침내 요동치 않으시니 이대로 복명한대, 상감께서 어렵게 여기시고 또한 답답하시어 예조 당상으로 문 열기를 청하게 하나,

끝내 허락지 않으시니 예조와 승지, 국체 그렇지 않음을 아뢰나, 듣지 아니하시므로 상감께서 민부(閔府)에 엄지를 내리시어,

“이는 임금의 원망하는 일이라, 빨리 문을 열게 하라.”

하시니, 민부에서 황송하여 서간을 올려 무수히 간하되, 끝내 열지 않으시므로 또 며칠 후에 이품 벼슬하는 신하를 보내시어 문 열기를 청하니 중신이 말씀을 아뢰되, 사체 그리 못하신 줄로 누누이 밝히고 개문을 청하니 후께서 궁녀를 시켜 전하여 이르기를,

“죄인이 천을 입어 인명이 살았은즉, 이 집이 죄인의 뼈를 감출 곳이라 어찌 국명을 받자오며 변화히 사람을 인접하리오. 사명이 여러 번 내리니 더욱 불안하여이다.”

사관이 절하여 명을 받잡고 재삼 간청하여 민부에 두 번 엄지를 내리시니, 후의 큰 오라버님 되시는 판서 민 공이 황송하여 간절히 권하여 겨우 ‘바깥문만 열라’ 하시어 4월 21일에야 비로소 대문을 여니, 초목이 무성하여 사람의 키와 같은지라. 왕명으로 일꾼을 시켜 풀을 베며 들어가니 풀 이끼가 섬돌 위에 가득하고, 먼지와 창호를 분별치 못하니 사관이 탄식하여 눈물을 흘리더라.

외당을 깨끗이 치우고 사관과 군사들이 들어앉으니, 쓸쓸하던 집이 변화한지라. 궁인들이 문틈으로 보고 일희일비하며 눈물을 흘리며 즐겨 하되, 후는 조금도 기쁜 기색이 없어 오히려 불안히 여기시더라.

바깥문이 열리매 민씨 일가에서 가마가 수없이 들어가고 바깥문이 열렸음을 아뢰니, 상궁 넷을 보내사 어찰을 내리 오시니, 상궁이 왔음을 아뢰대 중문을 열지 아니하시니, 반나절을 밖에 있는지라. 그사이 별감의 길에 있었으니 연하여 어찰 보심을 청하는지라. 후의 오라버님 내인이 연하여 국체 불경하심을 누누이 간권하시고 체면을 불안히 여기시어 문을 열라 하시니, 상궁이 섬돌 아래에서 머리를 조아려 청죄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러러보오매, 용모 복색이 초췌 무색한지라. 슬픔을 이기지 못하여 소리 남을 깨닫지 못하여 애통하게 우나, 후께서는 두 눈을 내리뜨시고 못 보시는 체하고, 어찰을 드리니 북향 사배하고 얼마 후 펴보시니 만지에 가득한 사연이 다 전과를 뉘우치고 시운을 슬퍼하시며 대내로 드심을 청하신지라.

— 작자 미상, 「인현왕후전」

* 백옥무하하니: 아무런 흠이나 결점이 없으니.

* 대내: 임금이 거처하는 곳.

* 자약하시니: 큰일을 당해서도 놀라지 아니하고 보통 때처럼 침착하시니.

* 침혹: 무엇을 몹시 좋아하여 정신을 잃고 거기에 빠짐.

* 탁란하고: 정치나 사회를 흐리어 어지럽히고.

* 옥사: 살인 따위의 중대한 범죄를 다스림. 또는 그 사건.

* 비망기: 임금이 명령을 적어서 승지에게 전하던 문서.

[26001-0234]

01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황에 대한 운명론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자연의 변모 과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③ 다양한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시적 배경의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설화 속 인물을 활용하여 그 인물이 겪은 삶과 화자의 처지를 동일시하고 있다.
- ⑤ 설의적 표현과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부정적 상황과 그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26001-0235]

02

(가)의 화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임의 ‘경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불안해하며 지내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회고하고 있다.
- ② 임이 꺾박한 탓에 ‘면목가증’의 상태로 변화된 자신의 외양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있다.
- ③ 임과 헤어진 상태로 지내기보다 차라리 ‘인연’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④ 임을 ‘꿈’에서 보려고 잠을 청하다 잠결에 ‘앞’과 ‘짐승’ 소리를 임의 인기척으로 착각하고 있다.
- ⑤ 임과 자신 사이에 ‘약수’나 ‘난간’과 같은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 임과 재회하기 어려울지 모른다고 상상하고 있다.

[26001-0236]

03

(나)의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후는 폐출된 자신의 기구한 운명과 관련하여 사람들을 원망하는 대신 귀신의 탓으로 돌렸다.
- ② 후가 색깔 있는 옷은 거부하고 무명 치마와 순백 저고리를 고수한 이유는 자신의 결백을 보여 주기 위함이었다.
- ③ 장 씨는 왕세자의 어머니가 되자 기세를 떨치며 오라비에게 훈련대장이라는 벼슬을 받게 하고 궁궐 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였다.
- ④ 장 씨는 후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했고 장 씨와 정치적 노선을 같이하는 조정 소인들은 후의 가족들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애썼다.
- ⑤ 임금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궁궐 사람들을 시켜서 후에게 어찰을 보냈으나 후가 문도 열어 주지 않자 몸소 후를 찾아가서 사죄의 뜻을 전했다.

[26001-0237]

04

(가)의 [실술], [녹기금], (나)의 [큰 개]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실술’과 ‘녹기금’은 화자의 근심을 달래 주는 매개체로 나타난다.
- ② ‘큰 개’는 사안에 대해 색다르게 인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부각해 준다.
- ③ ‘녹기금’은 화자의, ‘큰 개’는 인물의 감정 상태를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된다.
- ④ ‘실술’과 ‘큰 개’는 시련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 주는 자연물로 나타난다.
- ⑤ ‘실술’은 화자의, ‘큰 개’는 주인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

[26001-0238]

0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사건을 겪거나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전한 말을 인용하여 소개하고 있다.
- ② ㉡: 인간의 당연한 도리가 지켜지지 않는 세태를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 ③ ㉢: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여 사태 해결이 난망함을 부각하고 있다.
- ④ ㉣: 사회 공동체가 오랫동안 가져온 상식에 근거하여 임금의 과오가 용인되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 ⑤ ㉤: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한 서술자의 주관적 의견을 언급하여 사건 진행의 반전을 암시하고 있다.

[26001-0239]

06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학은 가족 구성원 간의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졌던 욕망의 본모습을 드러낸다. 엄격한 유교적 가부장제 윤리 규범이 지배하던 조선 사회에서 가족의 구성원들은 왕족과 사대부, 백성을 막론하고 가족주의 이념에 따라 각자의 역할 수행을 강요받았다. 효와 열이라는 규범은 그렇게 마련된 것이며 인물이 그 역할에 충실할 때는 선인으로, 충실하지 못할 때는 악인으로 규정된다. 하지만 그 잣대가 남성들에게는 관대했고 여성들에게는 엄격해서 설사 가족의 문제가 가장의 실수나 무책임 또는 무능력으로부터 야기되더라도 그 책임은 대개 여성에게 전가되었다.

- ① (가)의 화자는 ‘임이 날’ 꾀지 않고 남편의 소식이 없는 이유를 남성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여성인 자신에게 돌리고 있군.
- ② (나)의 후가 ‘대내에 있을 때’ 송이를 들여와 ‘두 대비 전에서 즐겨 진어’한 것은 가족 안에서 효를 행하며 며느리로서 가족 구성원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선인의 모습이라 할 수 있군.
- ③ (나)의 희빈 장씨는 ‘오라비 희재와 더불어 꾀하여’ 나라에 ‘변이 크게 나’게 만들어 남편인 임금을 실망시킴으로써 임금의 아내로서 그 역할에 충실하지 못했으므로 악인으로 규정될 수 있군.
- ④ (가)의 화자가 ‘이 태도로 백년기약’을 다짐한 것과, (나)의 후가 ‘민정자의 딸’을 데려다가 ‘열녀전’을 가르친 것은 유교적 가부장제 윤리 규범의 잣대가 남성에게는 관대했고 여성에게는 엄격했음을 보여 주고 있군.
- ⑤ (가)의 임이 ‘백마금편으로’ ‘정처 없이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상황과, (나)의 임금이 희빈 장씨에게 ‘침혹하사 나라의 체면을 손상’할 지경에 이른 것은 남성인 가장의 실수나 무책임에서 야기되었다고 할 수 있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녹양방초 언덕에 소 먹이는 저 아이야
 인간 영육을 아는가 모르는가
 인생 백 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
 삼만 육천 일을 다 살아도 덧없거늘
 하물며 장수 단명이 운명이어니 사생(死生)을 정할쏘냐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가
 공명도 못 이루고 초목같이 썩어지면
 공산 백골이 그 아니 느껴우냐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움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死日)은 무궁하니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영구히 전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
 (중략)

어와 그 뉘신고 그 어떤 사람인고
 형용이 초췌하니 초나라 대부 굴원이신가
 잔흔이 영락하니 학사 유자후이신가*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으신가
 발끝으로 서시니 어디를 보시는가
 아름다운 기약을 바라는가 이별의 슬픔이 중하신가
 해 질 녘 대나무에 혼자 어둑히 서 있어
 내 근심 던져두고 무슨 말씀 하시는고
 영락(榮落)은 운수에 달렸고 부귀는 재천(在天)이라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갈꼬
 천생만물(天生萬物)하여 살아갈 일이 다 있으니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大道)를 몰라도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아느니라

㉠ 송아지 어미 좇아 녹음간에 절로 놓여

푸성귀 뜯어 먹고 시냇물 흘려 마셔
 누웠다 일어났다 하며 제 맘대로 다니기와
 코뚜레 코에 끼고 긴 고삐 굳게 매어

㉡ 곤 쿵대 삶은 쿵을 배까지 찰지라도
 불 같은 여름벌에 큰 쟁기 마주 매어

[A]

일생의 고단함이 저희 중에 불작시면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고
 ◎일시에 빛나기야 희생(犧牲)*만 할까마는
 헌 덕석 물리치고 비단 거적 가로 덮고
 밧줄 굴레 벗기고 붉은 실로 엮어내어
 예관(禮官)이 고삐 들고 태묘(太廟)로 몰아가서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지니
 저더러 물어보면 어느 소 되려 할꼬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려니

— 임유후, 「목동가」

*형용이 ~ 유자후이신가: 굴원 유자후는 귀양 가서 세상을 근심하다가 죽은 중국의 옛 문인으로 근심 많아 보이는 상대방을 그 돌에 빚뎀.

*희생: 천지신명 따위에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

나 청풍(淸風)을 좋이 여겨 ㉠창을 아니 닫았노라
 명월(明月)을 좋이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
 옛사람 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

〈제1수〉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록(爵祿)*을 마음에 돌꼬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바
 어젯밤 손수 닫은 ㉡문을 늦도록 닫치었소

〈제2수〉

두고 또 두고 저 욕심 그지없다
 나는 내 집에 내 세간을 살펴보니
 우습다 낚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

〈제4수〉

오두미* 위하여 홍진(紅塵)*에 나아가지 마라
 바람 비 어지러워 칼과 톱이 무서워라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기구하다 기로다단(岐路多端)*하여라

〈제6수〉

— 이정, 「풍계육가」

*작록: 관직(관직과 작위)과 녹봉을 아울러 이르는 말.

*오두미: 다섯 말의 쌀이라는 뜻으로, 얼마 안 되는 봉급을 이르는 말. 중국의 도연명이 쌀 다섯 말 때문에 허리를 굽힐 수 없다고 하여 벼슬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데서 유래함.

*홍진: 번거롭고 속된 세상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기로다단: 갈림길의 갈래가 많은.

다 군자의 처신은 어렵다. 이롭다고 해서 조금하게 나가 벼슬해서도 안 되고, 위태롭다고 해서 거리낌 없이 용감하게 벼슬에서 물러나서도 안 된다. 공자가 밥을 지으려고 쌀을 씻으시다가 건져서 급하게 제나라

를 떠난 게 벼슬하려고 억지로 서두르신 것이 아니요, 벼슬하던 노나라를 떠나실 때 “더디도다, 내 걸음이여!”라고 하신 게 억지로 느리게 하시려던 것이 아니다. 성현은 벼슬에 나아가는 일과 벼슬에서 물러나는 일을 의리에 합당한가와 시의에 맞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했을 뿐이다.

(중략)

그러므로 선비의 거취, 은거함과 벼슬함은 반드시 먼저 그것이 의리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도를 행함 직한가 행함 직하지 않은가를 헤아려서 결정해야 하며, 꼭 자리를 박차고 떠났다고 하여 어질고, 벼슬길에 나아갔다고 해서 아첨이 되며, 은거했다고 하여 고상하고, 벼슬했다고 해서 구차한 것은 아니다. 마땅히 떠나야 했기에 떠난 것이므로 미자(微子)*가 주(紂)* 임금의 떠난 것을 두고 은나라를 배반했다고 할 수 없고, 나아갈 만하기에 나아간 것이므로 이윤과 부열*이 은나라에 벼슬한 것을 두고 뜻을 잃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은거할 만하기에 은거한 것이므로 백이와 숙제*가 수양산에 숨은 것을 고상하다고 할 수 없고, 마땅히 벼슬에 나아가야 했기에 나아간 것이므로 강태공이 무왕*을 도와 위세를 떨친 것을 구차하다고 할 수 없다. 『주역』 고괘(蠱卦) 상구(上九)에 이르기를 “왕후를 섬기지 않는다.”라고 했고, 건괘(乾卦) 구이(九二)에 이르기를 “대인을 만나 봄이 이롭다.”라고 했으니, 각각 그 처한 상황에 따를 뿐이다.

간교한 신하가 이익을 탐하여 작록을 사양함으로써 임금의 마음을 얻는 것이라든가, 위선적인 선비가 이름을 얻으려고 은둔하는 척 땅을 피해 다니는 것이라든가, 심지어 재주도 없고 덕도 부족해 세상에 버림받아 스스로 궁벽한 고을에 살며 아무런 힘도 없는 주제에 남을 꾸짖고 힐난하면서 거들먹거리며 사람들에게 “나 또한 은자의 무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추녀가 미녀 서시의 웃는 모습을 흉내 내는 격이니, 거론할 것도 없다.

— 김시습, 「고금군자은현론」

*미자: 은나라 주왕의 이복형으로, 주왕이 자신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자 은나라를 떠났음.

*주왕: 중국 은나라의 마지막 왕. 주색을 일삼고 포악한 정치를 하여 인심을 잃고 주나라 무왕에게 살해됨.

*이윤과 부열: 이윤은 은나라를 세운 탕왕의 재상이고, 부열은 은나라를 중흥한 고종의 재상임. 탕왕과 고종 모두 어진 임금으로 각각 이윤과 부열의 도움을 받아 선정을 펼쳤음.

*백이와 숙제: 은나라 말의 현인들로 은나라가 망하고 주나라가 천하를 통일하자 수양산에 들어가 굶어 죽었음.

*무왕: 중국 주나라를 세운 왕으로 후대에 성군으로 평가받음.

[26001-0240]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드러낸다.
- ②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문제 상황의 원인을 성찰한다.
- ③ 대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변화한 세대에 대한 비판 의식을 나타낸다.
- ⑤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물의 특성에서 유추한 교훈적 의미를 전달한다.

[26001-0241]

02

〈보기〉를 참조하여 (가)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는 ‘소 먹이는 저 아이야’라고 말을 건네는 화자 ‘갑’과 ‘어와 그 뉘신고’라고 대답하는 화자 ‘을’의 목소리를 통해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 ① ‘인간 영육을 아는가 모르는가’라는 ‘갑’의 질문에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라고 대답하는 것에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에게 배우려고 하는 ‘을’의 태도가 드러난다.
- ② ‘인생 백 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는 ‘갑’의 생각은 ‘씩지 앓을 이름을 / 영구히 전하여’야 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진다.
- ③ ‘장수 단명이 운명이어니 사생을 정할쏘냐’라고 한 것과 ‘영락은 운수에 달렸고 부귀는 재천이라’라고 한 것에서 ‘갑’과 ‘을’ 모두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불가피한 운명을 인정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 ④ ‘공명도 못 이루고’ 세상을 떠나면 ‘그 아니 느껴우냐’라고 한 것과 ‘구한들 곁에 오며 던져둔들 어디 갈꼬’라고 한 것에서 삶에 대한 ‘갑’과 ‘을’의 상이한 관점이 드러난다.
- ⑤ ‘형용이 초췌하’고 ‘잔흔이 영락하’며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아 보인다고 한 것에서 ‘갑’의 모습에 대한 ‘을’의 부정적 인식이 나타난다.

[26001-0242]

03

〈보기〉를 바탕으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A]에서 화자는 세 가지 유형의 삶을 세 가지 경우의 소에 빗대어 제시하면서 바람직한 삶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자연에서의 검소하고 자유로운 삶을 ㉠의 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겠군.
- ②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만 고단한 삶을 ㉡의 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겠군.
- ③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삶을 ㉢의 소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겠군.
- ④ ㉡의 소를 ㉠의 소와 비교해 한가함을 잃은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의 소를 서로 비교해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26001-0243]

04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은 세상과 단절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② ㉠은 옛사람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은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에서 오는 화자의 실망감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 ③ ㉠은 세속적 가치에 무관심한 화자의 모습을, ㉡은 이상적 공간을 찾는 데 실패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기대가 좌절된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현실을 부정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26001-0244]

05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무엇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질문은 조선 시대 사대부 문학에서 다루는 주된 주제 가운데 하나이다. 사대부 문인들은 벼슬길에 나아가 백성들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출세’의 삶을 지향하기도 하고, 자연으로 물러나 독서를 하며 도를 지키는 ‘은거’의 삶을 지향하기도 했다.

- ① (가)의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가’,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움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에서 화자는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도를 지키는 은거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 ② (가)의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아느니라’, ‘내 분수만 지키려니’에서 화자는 출세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타고난 분수에 만족하여 욕심부리지 않는 삶을 지향하고 있군.
- ③ (나)의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록을 마음에 들꼬’, ‘남싯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에서 화자는 벼슬에 뜻이 없음을 강조하며 소박한 삶을 지향하고 있군.
- ④ (나)의 ‘홍진에 나아가지 마라’, ‘명월을 좋아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에서 화자는 출세의 삶을 경계하면서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군.
- ⑤ (나)의 ‘바람 비 어지러워 칼과 톱이 무서워라’,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론바’에서 화자는 출세의 삶을 위태로운 것으로 여기며 자연으로 물러나 은거의 삶을 지향하고 있군.

[26001-0245]

06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군자의 처신’이 어려운 것은, ‘벼슬에 나아가’거나 ‘벼슬에서 물러나는 일’이 ‘의리’와 ‘시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 ② ‘미자’가 ‘주 임금을 떠난 것’과 ‘백이와 숙제’가 ‘은거한 것’이 합당한 처신인 것은, 그들의 거취가 ‘의리에 맞는가’와 ‘도를 행함 직한가’를 판단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③ ‘이윤과 부열’이 ‘은나라에 벼슬한 것’과 ‘강태공’이 ‘무왕을 도와 위세를 떨친 것’이 구차한 일이 아닌 것은, ‘각각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하기로 결정해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다.
- ④ ‘간교한 신하’와 ‘위선적인 선비’가 스스로를 ‘은자의 무리’라고 말하는 것이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해 ‘거론할 것도 없다’라고 한 것은, 그들의 처신이 ‘이익’이나 ‘이름’을 탐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⑤ ‘작록을 사양함’이 늘 ‘고상’한 것은 아니고 ‘벼슬길에 나아’감이 늘 ‘구차한 것’은 아닌 것은, ‘선비의 거취’에 대한 평가가 그것을 결정하는 동기나 이유보다 그 결정이 낳는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죽은 줄 알았던 매화나무 가지에,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 주는 쇠잔한 눈 위에, 가만히 오는 봄기운은 아름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밖에 다른 하늘에서 오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모든 꽃의 죽음을 가지고 다니는 쇠잔한 눈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구름은 가늘고 시냇물은 열고 가을 산은 비었는데, 파리한 바위 사이에 실컷 붉은 단풍은 곱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풍은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읊니다. 그러한 ‘자연의 인생’은 가을바람의 꿈을 따라 사라지고 기억에만 남아 있는, 지난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주는 줄을 아십니까.

일경초(一莖草)*가 장륙금신(丈六金身)*이 되고, 장륙금신이 일경초가 됩니다.

천지는 한 보금자리요, 만유(萬有)는 같은 소조(小鳥)입니다.

㉡나는 자연의 거울에 인생을 비춰 보았습니다.

고통의 가시덤불 뒤에, 환희의 낙원을 건설하기 위하여 님을 떠난,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

—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A]

*일경초: 한해살이풀.

*장륙금신: 일 장 육 척인 불상의 신장(身長)을 이름.

나 산이라 해서 다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다 험하고 가파른 것은 아니다

어떤 산은 크고 높은 산 아래

시시덕거리고 웃으며 나지막이 엎드려 있고

또 어떤 산은 험하고 가파른 산자락에서

슬그머니 빠져 동네까지 내려와

㉢부러운 듯 사람 사는 꼴을 구경하고 섰다

그리고는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

순하디순한 길이 되어 주기도 하고

남의 눈을 꺼리는 젊은 쌍에게 짐짓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되어 주기도 한다

그래서 낮은 산은 내 이웃이던

간난이네 안방 왕골자리처럼 때에 절고

그 누더기 이불처럼 지린내가 배지만

눈개비나무 찰피나무며 모싯대 개썩에 덮여

곤줄박이 개개비 휘파람새 노랫소리를
 듣는 기쁨은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들이 서로 미워서 잡아 죽일 듯
 이빨을 갈고 손톱을 세우다가도
 침녕쿨처럼 머루 념쿨처럼 감기고 어우러지는
 사람 사는 재미는 낮은 산만이 안다
 사람이 다 크고 잘난 것만이 아니듯
 다 외치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듯
 산이라 해서 모두 크고 높은 것은 아니다
 모두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고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

— 신경림, 「산에 대하여」

다 달사(達士)*는 이상할 것이 없으나 속인(俗人)은 의심스러운 것투성이다. 이른바 본 것이 적으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달사라고 해서 어찌 사물을 쫓아다니며 눈으로 보았겠는가? 하나를 들으면 눈으로 열 가지를 떠올리고 열 가지를 보면 마음에 백 가지를 펼치고 보니 수많은 이상야릇한 것들은 도리어 사물에 붙은 것이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은 한가롭고 여유가 있어 무궁무진하게 맞대응할 수 있다.

본 것이 적은 사람은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기준 삼아 학의 긴 다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사물 자체는 이상할 것이 없는데 저 혼자 의심해 화를 내며 한 가지라도 생각과 다르면 만물을 모조리 비방한다.

아! 저 까마귀를 보라. 그 날개보다 더 검은색이 없긴 하나 얼핏 옅은 황금색이 돌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반짝인다. 햇별이 비추면 자주색으로 솟구치다, 눈이 어른어른하면 비취색으로도 변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저 사물은 본디 정해진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정해 버리는 것이다.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라?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 버린다. 슬프다! 까마귀를 검은색으로 고정한 것도 충분한데 다시금 까마귀를 갖고 세상의 온갖 색을 고정하려 하는구나.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다. 그러나 누가 다시 이른바 푸르고 붉은 색이 검은색 안에 깃들어 있는 빛깔인 줄 알겠는가?

검은 것을 일러 어둡다고 하는 자는 비단 까마귀를 알지 못하는 것뿐 아니라 검은색도 모르는 것이다.

왜냐? 물은 깊고 그윽하기 때문에 비출 수 있고, 옷칠은 검기 때문에 비취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빛깔[色]이 있는 것엔 빛[光]이 있지 않은 것이 없고, 형체[形]가 있는 것엔 자태[態]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

미인을 관찰하면 시(詩)를 ㉡알 수 있다. 그녀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은 부끄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턱을 받치고 있는 것은 한스러워함을 나타낸다. 홀로 서 있는 것은 누군가 그리워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눈썹을 찌푸리는 것은 근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기다리는 바가 있으면 난간 아래 서 있는 모습으로 보

여 주고, 바라는 바가 있으면 파초 아래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 준다. 만약 다시 그녀에게 서 있는 모습이 재계(齋戒)한 것처럼 단정하지 않다고 나무라거나 앓은 모습이 불상처럼 가부좌가 아니라고 나무란다면, 이는 양 귀비*에게 치통을 앓는다고 꾸짖고, 번희*에게 쪽 찢 머리를 감싸 쥐지 말라고 금하며, 사뿐사뿐한 걸음걸이를 요염하다고 조롱하고, 손뼉 치며 추는 춤을 가볍다고 꾸짖는 격이다.

나의 조카 종선은 자가 계지(繼之)인데 시를 잘 썼다.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詩體)를 두루 갖추었으니,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된다. 성당(盛唐)*의 시인이 싶어 보면 어느새 한위(漢魏)의 시체를 띠고 또 홀연 송명(宋明)의 시체를 띤다. 겨우 송명체라고 말하려니 다시 성당의 시체를 띠고 있다.

아! 세상 사람들이 까마귀를 비웃고 학을 위태롭게 여기는 것이 또한 너무 심하다. 그러나 ㉔계지의 동산에는 까마귀가 문득 푸르렀다 붉었다 한다. 세상 사람들은 미인을 재계하는 모습이나 불상처럼 만들고 싶어 하나, 손뼉 치며 추는 춤과 사뿐사뿐한 걸음걸이는 날이 갈수록 가볍고 요염해지고 쪽 찢 머리를 감싸 쥐거나 치통을 앓는 모습은 모두 각기 자태를 갖추고 있으니, 그 성내고 화를 내는 것이 심해질 것임은 의심할 바 없다.

㉔세상에 달사는 적고 속인은 많다. 그러니 침묵하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그런데도 말을 그칠 수 없는 것은 왜일까? 아! 연암 노인이 연상각*에서 쓴다.

— 박지원, 『능양시집 서』

*달사: 이치에 밝아서 사물에 얽매어 지내지 않는 사람.

*양 귀비: 중국 당나라 현종의 비로 춤과 음악에 뛰어난 미인.

*번희: 중국 초나라 장왕의 아내로 총명한 미인.

*성당: 당나라 때 한시가 융성했던 시기를 이름.

*연상각: 연암 박지원이 안의 현감 시절 관아 안에 지은 누각 중 하나.

[26001-0246]

0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영탄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대조적인 특성을 지닌 대상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사물을 의인화하는 기법으로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 ⑤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26001-0247]

0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우리는 자연을 통해 인생의 본질이나 인간적인 삶의 의미에 대해 깨닫곤 한다. (가)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생성과 소멸이 이루어지는 대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자연처럼 절망과 행복의 순환이 생의 본질임을 전달하고 있다. (나)는 낮은 산이 지닌 다양한 특성을 바탕으로, 인간이 지녀야 할 바람직한 삶의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다.

- ① (가)에서 ‘쇠잔한 눈’이 ‘구슬 같은 꽃방울을 맺혀’ 준다는 것은, 소멸의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생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자연을 통해 드러낸 것이로군.
- ② (가)에서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우는 ‘단풍’을 ‘지난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준다는 것은, 계절의 순환이 대자연의 섭리임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③ (가)에서 ‘남을 떠’났음에도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라고 한 것은, 고통 뒤에 환희가 오는 것이 생의 본질임을 깨달은 이의 태도를 드러낸 것이로군.
- ④ (나)에서 ‘어떤 산’이 ‘순하다순한 길’이나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되어 준다는 것은, ‘낮은 산’처럼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⑤ (나)에서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낮은 산’과 같은 약한 존재가 ‘높은 산’과 같은 강한 존재보다 더 영속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드러낸 것이로군.

[26001-0248]

03

〈보기〉를 (다)의 수업 상황이라고 가정할 때, [가]에 들어갈 학생의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선생님: 연암 박지원은 조선 영·정조 때의 학자로, 세상의 변화에 올바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좁은 식견과 획일화된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인식했습니다. 따라서 고정 관념과 선입견을 버리고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과 유연한 사고로 대상의 본질을 파악해야 세상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지원이 종선의 시를 칭찬한 것도 종선이 이러한 관점과 사고를 토대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시를 창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점을 고려하여 이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학 생: _____ [가] _____

선생님: 네, 잘 말했습니다.

- ①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기준 삼아 학의 긴 다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 다’는 것은, 좁은 식견을 지닌 사람이 대상을 그릇되게 판단하는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 ②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획일화된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파악한 결과를 제시한 것입니다.
- ③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라?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 버린다’는 것은, 선입견으로 인해 마음으로 본 것만 진실로 여기고 눈으로 본 것은 진실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지적한 것입니다.

- ④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었으니,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은, 종선이 특정한 문체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문체를 활용하려는 유연한 사고를 지녔음을 칭찬한 것입니다.
- ⑤ ‘세상 사람들은 미인을 재계하는 모습이나 불상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은, 고정 관념에 얽매어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속인의 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26001-0249]

04

[A]와 [B]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에서는 모두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세상의 사물에 담겨 있는 진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B]에서와 달리 유사한 구조의 문장을 활용하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개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B]에서는 [A]에서와 달리 인과의 표현을 통해 세상의 모든 사물은 본질적으로 유한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역설적 표현을 통해, [B]에서는 이중 부정 표현을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지닌 보편적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차이점을 근거로, [B]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긍정적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26001-0250]

05

㉠, ㉡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낮은 산에 대해 동병상련의 정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② ㉡은 미인의 자태가 다양한 것처럼 시의 문체도 다양할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③ ㉠은 화자가 산이 낮아진 이유를, ㉡은 글쓴이가 미인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④ ㉠은 낮은 산이 화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은 시 속의 미인이 글쓴이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은 낮은 산으로 인해 변화한 화자의 자연관을, ㉡은 미인으로 인해 변화한 글쓴이의 시 창작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26001-0251]

06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가을을 맞이한 자연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 자연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펴보려 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 ③ ㉢: 사람이 사는 곳 가까이 존재하는 낮은 산의 특성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 계지가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많은 당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내가 사는 집은 높이가 한 길에 채 되지 않고 너비가 아홉 자에 되지 않는다. 일어나 인사하려면 갓이 걸리고, 드러누우려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한여름에는 햇볕이 쏟아져 들어와 창문이 열에 달아오른다. 그래서 집을 에워싼 담장 밑에 박을 심어 뿌리 심었더니 녀쿨이 뻗어 올라가 지붕을 뒤덮었고, 그 그늘 덕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파리와 모기가 그 컴컴한 그늘에 서식하고 뱀과 구렁이가 서늘한 습지에 도사리고 있어서 어두컴컴해진 밤이 되면 자주 일어나 등잔이나 촛불을 들고 마당을 왔다 갔다 하였다. 조용히 앉아 있자니 벌레에 물린 자리를 긁어 대느라 지치고, 벌떡 일어나 빨리 걸으면 저들에게 독하게 물릴까 겁이 났다. 걱정에 피곤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병이 나서 소갈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겼다.

[A]

손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처지를 털어놓곤 하였다. 서울에서 찾아온 과객이 있어 내 하소연을 듣고서 안타까워하더니 예전에 직접 겪은 일이라며 다음과 같은 사연을 들려주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가난하여 장사를 해 왔습니다. 조령 이남의 나루터나 역마일의 여관에서부터 후미진 시골의 작은 주막집까지 **발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습지요. 무더운 여름철이 되면 나그네들이 한데 모여듭니다. 지방 수령이나 사신들은 먼저 호젓한 안채에서 서늘한 바람을 쐬고, 바람 잘 드는 행랑이나 한데서 잘 수 있는 평상은 또 그들을 따라다니는 종이나 역졸들이 차지합니다. 남아 있는 곳은 벽을 후벼 파서 관솔불을 피운 후덥지근한 온돌방이나 대자리를 쳐서 빈대를 쫓아내는 따뜻한 평상이 그나마 깔끔한 자리인데 바로 우리 같은 과객들이 하루이틀 묵는 곳입니다.

밤이 깊어 갈수록 사람들로부터 열기가 후끈 달아올라 마치 가마솥에서 밥을 짓는 김이 오르는 느낌입죠.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심히 나는 이도 있고, 방귀 끼는 자,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는 자, 이를 부득부득 가는 자, 움이 나서 긁어 대는 자, 잠꼬대하며 욕을 하는 자가 있어 나오는 소리와 하는 짓이 천태만상이라 이루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고역을 견디지 못해 옷가지를 집어 들고 돛자리를 옆에 끼고 부엌두렁*이나 방앗간, 소 외양간이나 마구간을 두루 찾아다니다 보면 어느새 네댓 번 자리를 옮기게 되더군요. 그런데 여관집 머슴이나 종을 보면 땀국물이 흐르는 머리와 얼굴을 하고서 부산하게 소나 말처럼 뛰어다니면서 아침저녁으로 행인들이 남긴 음식을 받아먹습니다. **먹다 버린 밥이나 국도 달게 먹지 않는 법이 없**습니다. 술에 취하거나 배가 부르면 자리에 드러눕자마자 바로 잠이 듭니다. 우리들이 접때 견디지 못하던 잠자리에서 그놈들은 마치 쌀쌀한 날씨에 시원한 집에서 잠을 자듯이 편안히 잘도 잡니다. 그놈들의 행동이나 낮빛을 보면 남루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는 있으나 살결은 튼튼하여 병도 고통도 없이 천수를 누리지요.

그건 다른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더군요. 저들은 자기들이 사는 곳을 여관으로 간주하고 운명과 분수가 본래부터 그렇게 정해졌다고 여깁니다. 분개하거나 걱정함으로써 속을 상하게 하거나 꿈꿨고 탄식하여 기운을 허비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도 고통도 없이 천수를 누리는 게지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지금 이 세상이란 우리들이 목숨을 이어 가며 죽은 이를 떠나보내는 여관인데 그 여관이란 게 또 하룻밤이나 이틀 밤을 자고 떠나는 여관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른신께서는 이 ㉠여관 안

에서 몸을 부쳐 살면서 또 웅색하게 떠돌아 후미진 골짜기에 몸을 숨기는 처지이니 이는 또 ⑥여관 속의 여관에서 머무는 꼴입니다.

저 머슴이나 종은 무식하고 무지하여 여관을 여관이라 알고 있을 뿐 음식을 잘 먹고 잠을 편히 자므로 추위와 더위가 그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고 질병이 그에게 재앙을 끼치지 못합니다. 반면에 ⑦어르신께서는 도를 지키고 운명을 순종하며 평상시의 살아가는 길을 잘 알고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여관 속의 여관에서 머무는 처지임에도 여관이라 여기지 않고서 ⑧스스로 속에서 일어나는 불을 돋워 일으키고 원기를 해치니 질병이 생기고 위기나 죽음이 당장 이를 것입니다. 어르신께서 배우고자 하는 분들은 옛날의 성현 이견마는 여관의 머슴이나 종과 같은 자들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과객의 말을 듣고서 그 말을 조리 있게 다듬어 벽에 써서 박꽃이 피어난 집의 기문으로 삼는다.

— 이학규, 「박꽃이 피어난 집」

※부엌두렁: 독이나 단지 따위를 놓기 위하여 부엌 한쪽에 턱을 지어 쌓은 단.

나 [앞부분 줄거리] 정희는 집을 구하기 위해 도시에 갔다가 돌아오려는 참에, 막무가내로 불쾌한 수작을 거는 사내를 주차장에서 맞닥뜨려 황급히 자리를 피해 운전대에 오른다.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집에 가려면 속력을 내야 할 것이었다. 다행히 도시 외곽으로 갈수록 차가 쑥쑥 빠져서 낮모르는 남자 때문에 고약했던 기분도 차차 나아졌다. 불쾌감이 사라지자 그 자리에 불안감이 들어 찼다. 팔자에도 없던 ‘전원생활’을 하게 된 남편은 그 덕분에 길어진 출퇴근길이 주는 스트레스를 톡하면 그 녀에게 쏟아 내곤 했다. 그런데 이즈음 남편의 짜증이 갑자기 없어진 이유를 정희는 ‘그 여자’ 때문이라고 여겼다. 도시에서 한 시간 남짓 되는 그 출근길에 남편은 동네 입구에 사는 그 처녀를 태우고, 그러니까 도시식으로 말하면 ‘카풀’하여 다니게 되었던 것이다. 그것 때문인가. 그녀가 도저히 그곳의 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여 다시 도시로 들어오려고 하는 이유가, 그건 맹세코 아니었다. 정희가 더 이상은 이곳에서 못 살겠다, 하면 남편은 틀림없이 그럼 달나라에 가 살라고 하고도 남을 거였다. 그것을 생각하면 도시에 집 보러 다니는 이즈음 자신의 행각을 도저히 남편한테 털어놓을 수 없는 형편이었다.

시골로 이사하여 다행히 아이들도 그런대로 잘 적응하고 시어머니도 노인들 특유의 자연 친화력으로 도시 살 때와는 사뭇 다른 건강하고 온화한 ‘시골 할머니’가 되어 가는 중이었다. 정희가 처음 시어머니를 뵈을 때의 느낌은 그녀가 고등학교 때 읽은 도스토옙스키 소설에 나오는 전당포 노인을 연상시키는 바도 있었다. 것처럼 외롭고 각박하고 쓸쓸해 보이는 모습이었는데 이즈음 시어머니는 아주 많이 파스해졌다. 그런데 왜 정희는 도시로 다시 나오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어떻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 정희는 아득해졌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이유는,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는 모두 다 거창해야만 하고 분명해야만 하는 것일까.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일까. 왜 자신으로서는 절실한 이유가, 문제가 타인들에게는 하찮고 우습고 그래서 짜증 나는 것이 될까.

아침에 정희는 또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정말 바라지 않는 그 소리. 새소리, 이슬방울 떨어지는 소리보다도 더 빨리 듣게 되는 소리.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시어머니나 이웃들은 다들 아무렇지 않고 오

히려 은근히 기다릴지도 모르는 소리. 다시 한번 고쳐 생각해 보면 정말 정희 자신으로서도 아무렇지 않은 소리. 어찌 해석하면 눈물겨운 삶의 소리. 도시 산동네에 살 때 날마다 들었던 소리. 이를테면 개 사요, 염소 사요, 소리들. 콩나물 사요, 파곤파곤한 두부 사요, 소리. 그 남자는 꼭 세 번째에 왔다. 그러고는 확성기를 소리 높여 틀었다. 그 남자는 꼭 카세트를 튼다. 중간중간에 기괴한 추임새가 들어가는, [B] 관광버스 안에서 아줌마들이 춤출 때 트는 그 노래들 한 곡조가 끝나면 이윽고 남자는 자신이 가지고 다니는 품목들을 열거하기 시작한다. 이미 콩나물, 두부를 파는 사람이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나간 뒤인데도 제깟 게 돌고 나갔는지 말았는지 자기로서는 알 바 아니라는 듯, 한가롭게, 태평하게, 천연덕스럽게, 혹은 청승맞게.

번개탄 있어요, 미원 있어요, 왜간장 있어요, 아부래기 있어요, 간고등어 있어요, 화장지 있어요, 계란 있어요, 명태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한없는 있어요, 소리. 그 남자 때문일까. 시골 동네 입식 부엌, 기름 보일러 안 한 집 없는데 도대체 어느 시대를 살다 왔는지, 언제 녹음한 걸 트는 건지 아무도 사지 않을 번개탄부터 사라고 외치는 남자가 자신을 괴롭혔으면 어디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자신을 짜증 나게 했으면 어디를 얼마나 짜증 나게 했다고, 남편과 ‘사투’를 벌여 가며 이주를 해 온 시골집인데, 그런 집을 놔두고 또다시, 그렇게도 저주해 마지않던 도시의 ‘집도 아닌 집’을 보러 다닌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신이 남편 출근하고 아이들 학교 가고 시어머니 아파 누워 있는 이웃 할머니네로 병문안차 마실 간 사이에 네 살배기 옆에 끼고 벌건 대낮에 그놈의 집도 아닌 집을 구하러 도시 바닥을 싸돌아다니는 이유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중략 부분 줄거리] 정희는 마을의 사냥꾼들로 인한 총기 사건 때문에 마을을 떠나고 싶어졌던 것을 떠올린다.

마을에서 파란색 작은 트럭이 내려오고 있다. 정희는 제 차를 길가 쪽으로 바짝 붙여 댄다. 차가 가까이 올수록 귀에 익은 노랫소리도 선명하다. ㉠정희는 모른 척하고 원고개를 튼 채 차가 비켜 가기를 기다린다. 차가 다 비켜 갔겠지, 싶어 고개를 바로 하는 순간 운전석 옆자리에 앉은 아이가 고개를 있는 힘껏 뒤로 젖혀 그녀를 바라본다. 그러고는 손을 흔든다. 아이가 타고 있다니.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일이다.** 아이는 마냥 손을 흔든다. 웃는다. 정희는 클랙슨을 길게 울렸다. 트럭이 멈춘다.

“오늘 아침에는 안 오셨던가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다. ㉡아침에 안 오더니 기어코 오후에 온 모양이군, 속으로는 뼈죽거리는 심보면서.

“예에, 어제 애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뭘 드릴까요?” / “간고등어 있어요?”

“명태도 있고 갈치도 있어요.” / “번개탄도 있잖아요.” / 사내가 씨익 웃는다.

“요새도 분명히 연탄 때는 집이 있는데 번개탄 장수는 안 온다 그래서 갖고 다니지요.”

언제 간을 했는지 부엌에 소금기가 말라붙어 있는 간고등어 한 손만 사려다가 아기를 낳은 엄마 땀에 아뻘을 따라다니는 어린것한테 마음이 끌려 ‘아부래기’도 산다. 산 것들을 차에 갖다 놓고 지갑을 찾아봐도 지갑이 없다. / “명수야, 엄마 지갑 못 봤어?”

지갑이라는 말이 뭐 말인지도 모를 아이한테 지갑 얻다 뵈냐고 건져증을 낸다.

“찌갑? 찌갑 여기찌.” / 아이가 내미는 것은 내내 손에 쥐고 다니던 장난감 로봇이다.

낭패다. / “아저씨, 내일 또 와요?” / “오다마다요.”

“그럼 오늘은 외상을 달아 놓으세요. 저 어디 사는지 아시죠?” / “알다마다요.”

트럭은 떠났다. 아이가 손을 흔드는데도 같이 흔들어 줄 정신이 없다. 그러면서 포렛이 떠오르는 시내 주 차장에서의 일. 진저리가 절로 인다.

차를 몰아 집으로 오며 정희는 다짐한다. ㉠내일부터는 시내 나갈 일도 없을 것이라고, 분수에 맞지도 않는 이놈의 차도 없애 버릴 거라고. 그런데 웬 놈의 눈물은 그렇게도 쏟아지는지, 정희는 그만 차의 시동을 끄고 말았다.

— 공선옥, 「한데서 울다」

[26001-0252]

01

(가)의 ‘과객’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여관집 머슴들의 삶의 모습을 관찰하고 분석하여 깨달은 바를 전하고 있다.
- ② 여관집 머슴들의 삶의 태도를 사례로 들어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 ③ 객지에 머물 때 만난 사람들의 외양을 묘사하여 상황에 따른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여관집 머슴들의 삶의 태도를 여관에 묵던 자신의 태도와 비교하여 듣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여관에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지내며 본 천태만상을 열거하여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26001-0253]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이 평소 지향하는 바를 상기시켜 내면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 ② ㉡: 지금 상대방이 느끼는 괴로움이 스스로 불러일으킨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
- ③ ㉢: 트럭을 만나 놀란 마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 보이는 행동을 표현하고 있다.
- ④ ㉣: 트럭을 반기지 않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⑤ ㉤: 새로운 집을 찾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결심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6001-0254]

03

㉠,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와 ㉡는 과객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처세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누어 비유한 것이다.
- ② 과객은 인간의 삶을 ㉠에 빗대어 말하며 글쓴이가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③ 과객은 ㉠에서의 삶보다 ㉡에서의 삶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글쓴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고 있다.
- ④ ㉠에서 사는 이와 ㉡에서 사는 이는 서로 대조를 이루는 관계로, 과객은 ㉡에서의 삶을 더 중시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자신을 ㉠에서 살고 있다고 여기고, 과객은 그 사실에 근거하여 글쓴이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다.

[26001-0255]

04

(나)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희는 집을 옮기겠다는 생각을 남편에게 설명하는 일을 상상하며 압박감을 느낀다.
- ② 정희는 확성기 소리를 불쾌하게 여기면서도 그런 자신의 반응이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 ③ 정희는 도시로 나갔다가 돌아오는 차 안에서 자신이 이사를 원하게 된 원인을 찾고자 애쓴다.
- ④ 정희의 남편은 정희의 고집 때문에 시골집에 살게 되어 출퇴근길이 길어졌다며 짜증스러워한다.
- ⑤ 정희의 남편은 동네 입구에 사는 여인에게 출퇴근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며 특유의 친화력을 발휘한다.

[26001-0256]

05

[A]와 [B]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어난 일을 순차적으로 서술하며 그에 따라 인물의 달라진 반응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계절적 배경을 제시하여 인물이 겪는 문제 상황이 반복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상황 묘사로 인물이 겪는 불쾌감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다.
- ④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를 그려 내고 있다.
- ⑤ 스스로 묻고 답하는 표현을 나열하여 자신이 처한 상황의 원인을 분석하는 인물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26001-0257]

0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타인과의 만남은 스스로 간혀 있던 인식의 한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된다. 이것은 저마다 가진 경험과 인식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타인과의 만남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한다. (가)와 (나)에는 모두 타인과의 만남을 통한 인식의 확장이 드러나 있다. (가)의 ‘과객’은 오랜 객지 생활에서 경험한 바를 일반화하여 얻은 깨달음을 들려주며 조언을 건네고 그것을 통해 글쓴이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정희’가 자신을 괴롭힌다고 여기던 번개탄 장수와의 만남을 통해 인식을 전환하게 된다.

- ① (가)의 과객은 ‘먹다 버린 밥이나 국도 달게 먹지 않는 법이 없’는 여관집 머슴, 종들과 만난 자신의 경험을 일반화하여 얻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의 글쓴이는 과객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타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얻었음을 글로 기록한 것이군.
- ③ (나)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던 트럭에 아이가 있음을 보고 정희가 ‘한 번도 상상해 보지 않은 일’이라고 언급한 것은 과거의 제한된 인식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군.
- ④ (나)에서 번개탄 장수와의 만남 중에 정희가 ‘어린것한테 마음이 끌’린 것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번개탄 장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군.
- ⑤ (가)의 과객이 ‘밭길이 닿지 않은 데가 없’다고 한 것에서 글쓴이와의 경험의 차이를, (나)의 번개탄 장수가 ‘요새도 분명히 연탄 때는 집이 있’다고 말한 것에서 정희와의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바다가 갑자기 밝아진다. 별빛이 스러지고 동녘이 어느새 쪽빛으로 물들어 있다. 배가 나가는 좁은 뱃길 양쪽으로 양식장의 하얀 부이들이 줄지어 나타난다. 뒤를 돌아보니 요사스러운 새벽빛 아래 Y형의 불빛들이 가물가물 멀어지고 있다. 도시의 불빛과 동틀 녘의 새벽빛이 서로 교대하는 어중간한 시간이다.

- “사장님 작년에 여그서 큰 사고 터진 거 아시지라?” / “무슨 사고?”
- “저 너매 안바다서 외국 화물선이 불이 나 터졌는디 그 안에 실린 기름이 바다루 몽창 쏟아져 부렸어라우. 텔레비전 방송에두 나왔는디 사장님은 뉴쓰도 못 보셨소?”
- [A]** “본 것 같소. 사고가 컸지. 허지만 이쪽 바다에는 아무 피해두 없는 걸루 들었는데?”
- “물이 알로 흐른 덕에 이쪽 바다는 피해가 읍었지라. 아따 그란디 야기 들어 본께 저쪽 갯가서 어장 허는 어민들 참말로 억울하고 복장 터지게 생겨습디다.” / “피해가 주로 어떤 거요?”
- “반지락 양식장에 독한 기름이 흘러들었뿐께 대대로 지어 묵던 어장이 하루아침에 기름밭이 되었뿐졌지라. 나두 으쩌다 한 번 가 봤는디 그 사람들 기름 걷어 내니라 참말로 죽을 욕들 톹디다.”

서울 낚시꾼은 노여움으로 두 눈을 질끈 감는다. 세상에서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 부주의든 고의든 사람들이 바다에 기름을 쏟아붓는 것이다. 살생의 죄를 개체의 숫자로만 따진다면 가장 큰 생명의 학살이 기름에 의한 바다 오염이다. 비중이 가벼워 바닷물과 잘 섞이지 않는 기름은 수표면 위로 얇게 퍼져 엄청난 넓이의 바다를 오염시킨다. 말하자면 바다 표면에 기름의 막을 만들어 햇빛과 산소를 차단하여 그 밑에 사는 바다 생물을 일거에 질식사키는 것이다.

“바다에 기름 쏟아붓는 작것들은 잡어다가 총살을 시켜 뿌려야쓰요! 뱍이 무슨 뱍이다요! 그놈들이 시상에 질로 나쁜 놈들이요!”

김선두의 느닷없는 욕설에 서울 낚시꾼은 ㉠오히려 호젓이 웃는다. 언젠가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 김선두로부터 호된 반격을 당한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자신과 동갑인 김선두가 단것을 매우 좋아하는 것을 안 서울 낚시꾼은 바다로 나갈 때면 양쪽 주머니에 군것질용 과자를 잔뜩 사서 넣고 다녔다. 어느 가을날 낚시를 끝내고 귀향하던 서울 낚시꾼은 자신이 건넌 초콜릿 과자를 다 먹고 껌질을 배 밖으로 마구 버리는 김선두의 행동을 목격한다.

- 사실 서울 낚시꾼은 낚시가 시작된 그날 아침부터 김선두의 행동 중의 한 가지가 몹시 눈에 거슬렀다. 낮 동안 낚시를 할 때는 물론이고 점심때가 되어 도시락을 함께 먹을 때도 김선두는 자잘한 쓰레기
- [B]** 를 예사롭게 배 밖으로 버렸다. 서울 낚시꾼이 먹다 남긴 음식까지 비닐봉지에 따로 담아 자기 가방에 꼼꼼히 챙기는 것을 보고도, 김선두는 담뱃갑이며 소독저며 심지어는 맥주병까지 서울 낚시꾼이 보거나 말거나 그대로 ㉡홀홀 바다로 던져 버린 것이다.

아까부터 김선두의 행동을 못마땅히 여기던 서울 낚시꾼은 이번에 다시 김선두가 초콜릿 껌질을 바다로 버리는 것을 보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점잖게 한마디했다.

“여보 김선두, 바다 덕에 먹구사는 사람이 어찌자구 쓰레기란 쓰레기는 죄 바다에 버리는 게요. 남이 버리면 말려야 될 처지에 당신이 먼저 쓰레기를 바다에 버려서야 되겠소?”

서울 낙시꾼의 힐책에도 불구하고 김선두는 들은 체 만 체 다시 초콜릿 껍질을 바다로 버렸다. 마치 서울 낙시꾼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어딘가 당돌하면서도 도전적인 태도였다. 표정으로 보아 한마디 더 하면 두 사람 사이에 시비라도 될 것 같아 서울 낙시꾼은 불쾌했지만 참기로 하고 입을 다물었다. 그러나 이 쪽이 참기로 하자 오히려 김선두 쪽에서 시비 걸 듯 말을 건네 왔다.

“나가 종이때기 바다에 베리는 게 사장님 생각에는 바다 오염시키는 것맨키로 보입디요?”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된다고 했소. 종이때기두 많이 버리면 바다 오염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지.”

“허허 나가 콧구멍이 두 갠게 숨을 쉬요.”

사람 좋은 김선두의 얼굴이 돌연 상대를 비아냥대는 영악스런 표정으로 바뀌었다. 피우던 담배를 바다 쪽으로 내던지더니 김선두가 실췌한 눈으로 서울 낙시꾼을 비스듬히 돌아보았다.

“바다 오염 야그만 나오면 나가 복장이 터져뿌요. ㉠나가 버린 이따구 종이때기가 바다를 오염시킨다고 라? 비만 오면 서울 사람들은 풍년이라고 한다등만 참말로 바다 오염이 어쩐지 사장님 알고나 잡소?”

김선두의 어투가 뜻밖으로 거칠고 맹랑해서 서울 낙시꾼은 말대답을 하는 대신 잠자코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잠시 후 김선두가 침을 튀기며 들려준 이야기는 ㉡과연 그의 표현대로 복장 터지는 기막힌 것들이었다.

우리가 아는 바다 오염은 대부분이 작은 내만이나 육지와 가까운 연안 지역에 국한된다. 그것도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 농축산 폐수 등이 바다를 망가뜨리는 주원인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나 바다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김선두는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바다 오염의 다양한 실태와 오염의 여러 원인들을 구체적인 사례별로 속속들이 알고 있었다. 그가 오염의 원인으로 첫손에 꼽는 것은 연근해에 빈틈없이 설치된 여러 종류의 양식장 시설물들이다. 수천수만 개의 기둥과 줄들이 바닷속에 가득히 박히고 드리워진 양식장에는, 우선 조류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심한 정체 현상이 발생한다. 거기에 다시 투자한 양식장 설치비를 뽑기 위해 한 종류의 해산물만을 여러 해 동안 연작(連作)함으로써, 굴 양식장 같은 곳은 굴 배설물이 바다 밑에 적체되어 양식장 바닥에 오니(汚泥)*가 쌓여 도시의 하수도보다 더 심하게 오염되어 있다고 한다.

— 홍성원, 「남도 기행」

*오니: 더러운 흙, 특히 오염 물질을 포함한 진흙을 이름.

나 그런데 어느 날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가 내 눈에 들어왔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하디묘한 것이어서 ㉢하필이면 나무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이 먼저 눈에 보였다. 오래전에 누군가 바가지를 걸어 놓기 위해 박아 놓은 것 같았다.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

그다음 주말에 나는 배낭에 장도리를 챙겨 넣고 약수터로 올라갔다.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바야흐로 4월이 되면서 참나무는 연둣빛의 아름다운 잎을 가지마다 무성하게 토해 내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그 참나무를 보기 위해, 아니 보고 싶어 산에 오르는 기분이 들었다. 괜히 마음이 심산스러울 때, 남에게 무심코 아픈 말을 내뱉고 후회할 때, 또한 이유 없는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면 나는 그 나무를 보러 올라가곤 했다.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았다. 네가 그 못을 빼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계속 옆구리가 아팠을 거야.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 힘든 때일수록 한결 같은 마음을 갖도록 노력해 봐. 나는 그 나무 아래 앉아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거나 사과나 김밥을 먹기도 했다. 여름 한철을 나는 주말마다 새로 사귄 친구를 만나러 가듯 설레는 마음을 안고 산으로 올라갔다.

우리의 옛 신화를 보면 ‘우주나무’라는 게 있다.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나무로 ㉔아직도 시골에 가면 커다란 느티나무에 오색 천이 감겨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네 민간 신앙으로 우주나무는 사람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를테면 나는 평범하기 짝이 없는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가을이 시작될 무렵 지방에 살고 계신 어머니가 몸이 편찮으시다는 연락을 받았다. 곧장 내려가 볼 수 없었던 나는 마음을 달래려 저녁 무렵 산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나무를 올라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 또한 간절하게 원하면 누군가 도와준다는 말도 믿게 되었다. 내가 지방에 다녀오고 나서 얼마 후에 어머니는 가까스로 건강을 되찾았다.

지난 주말에도 나는 산에 다녀왔다. 눈이 내린 날이었다. 불과 일주일 만에 약수터의 참나무는 제 스스로 모든 잎을 떨근 채 찬바람 속에 무연히 서 있었다. 그리고 침묵의 시간으로 돌아간 듯 더 이상 말이 없었다. 나는 내가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았다.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태였다.

그 ㉕혈벗은 나무를 보며 나는 생각했다. 그동안 나는 사소한 일에도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던가. 또 어쩌다 상처를 받게 되면 얼마나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가. 그리고 나는 길을 잃은 사람이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던가. 그렇게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있었던가.

이제부터는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 자기 자리에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세월이 가져다주는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가끔은 누군가 찾아와 기대고 쉴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싶다. 겉모습은 어쩔 수 없이 변하더라도 속마음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한 그루 나무처럼 말이다.

- 윤대녕, 「한 그루 나무처럼」

[26001-0258]

01

[A]와 [B]의 서술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B]는 인물에게서 받은 인상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A]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B]는 관찰한 인물의 행동에 대한 반감을 제시하고 있다.
- ③ [A]는 사건에 대한 인물 간의 서로 다른 견해를, [B]는 인물의 상반된 심리를 서술하여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A]는 인과적 서술을 통해 현실 상황에 대한 문제를, [B]는 사건의 요약적 서술을 통해 미래에 벌어질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 ⑤ [A]는 관찰을 바탕으로 얻게 된 객관적 상황을, [B]는 타인의 내면 상태를 추리하여 인물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나타내고 있다.

[26001-0259]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오히려’는 서울 낚시꾼이 과거와 유사한 경험을 떠올린 것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의 ‘홀홀’은 김선두가 서울 낚시꾼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의 ‘과연’은 김선두가 들려준 이야기가 서울 낚시꾼이 예상했던 내용과 일치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의 ‘하필이면’은 우연한 발견이 ‘나’와 참나무와의 인연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의 ‘아직도’는 지금도 시골에서는 느티나무에 염원을 빌어 하늘에 전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26001-0260]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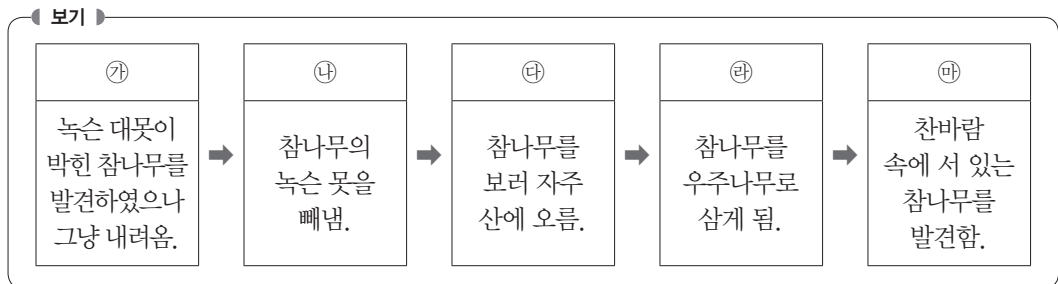
㉣에서 확인할 수 있는 ‘김선두’의 심리 상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 등이 바다를 망가뜨리는 원인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싶어 한다.
- ② 자신이 버리는 종이 쓰레기는 양식장 바닥에 오니로 쌓이기 때문에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
- ③ 바다 오염은 육지와 가까운 연안 지역에 국한되지만, 자신들은 항구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 ④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은 인간이 설치한 양식장 시설물 때문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한다.
- ⑤ 바닷속에 가득히 박힌 수천수만 개의 기둥과 줄들로 인해 조류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자신이 버리는 종이 쓰레기는 건져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26001-0261]

04

<보기>는 (나)를 도식화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참나무에 박혀 있는 대못을 손으로 빼낼 수 없어 그냥 내려온 것이 ‘나’의 마음에 걸렸다.
- ② ㉡: ‘나’는 마음이 후련해지는 동시에 참나무가 자신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 ③ ㉢: 참나무가 보고 싶어 산에 오른 ‘나’는 참나무가 베푸는 다양한 미덕을 느끼게 되었다.
- ④ ㉣: 어머니의 건강을 빌며, ‘나’는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믿게 되었다.
- ⑤ ㉤: ‘나’는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참나무를 보며 한 그루의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다짐을 하였다.

[26001-0262]

05

⑥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에게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 ② ‘나’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③ ‘나’가 지난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 ④ ‘나’가 주변 사람들에게 회의를 느끼는 이유가 되고 있다.
- ⑤ ‘나’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26001-0263]

0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인간은 오랫동안 자연을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함으로써 자연 생태계의 황폐화와 환경 오염 등의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 사고가 야기한 결과에 대한 반성적 목소리와 함께, 자연 생태계를 이루는 모든 생명체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간과 자연의 조화와 협동을 지향하고 공존 방안을 모색하는 생태 중심주의가 대두되었다. (가)와 (나)는 이러한 생태 중심주의에 근거하여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인간과 자연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성을 조망하고 있다.

- ① (가)에서 ‘바다 덕에 먹구사는’ 김선두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서울 낚시꾼이 힐책하는 것은,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② (가)에서 ‘지름이 흘러들’어 ‘대대로 지어 묵던 어장이 하루아침에 지름밭이 되’어 생존에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인간과 자연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관계성을 지니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군.
- ③ (나)에서 ‘못을 빼냈던 자리’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은’ 것은, ‘나’가 자연이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④ (가)에서 ‘사람들이’ ‘쏟아붓는’ ‘기름’과 (나)에서 ‘바가지를 걸어 놓기 위해 박아 놓은’ ‘대못’은, 자연에 폭력을 가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군.
- ⑤ (가)에서 ‘바다에 지름 쏟아붓는 작것들’이 ‘시상에 질로 나’쁘다는 것과 (나)에서 ‘녹슨 못을 빼’낸 후 ‘마음이’ ‘후련’함을 느낀 것은, 생태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있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욱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A]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B]
—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 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隕石)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 윤동주, 「참회록」

나 새로이 이사를 와서
형편없이 더럽게 슬어 있는
㉡흑갈빛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지나온 생애에는
얼마나 지독한 녹이 슬어 있을지
부끄럽고 죄스러워 손이 아린 줄 몰랐다
나는, 대문의 녹을 닦으며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보았다
비늘처럼 층층히 걸쳐 있는
회한의 슬픈 역사 그것은 바다 위에서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
그리 살아온

마흔세 해 수많은 불면의 축수가
 노을 앞에서 바람 앞에서
 ㉞ 철없이 울먹였던 뽀얀 사랑까지
 바로 내 영혼 깊숙이
 칙칙하게 녹이 되어 슬어 있음을 보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㉟ 온몸으로 온몸으로 문지르고 있었다

— 허형만, 「녹을 닦으며—공초* 14」

*공초: 조선 시대 형사 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다 원고를 써 달라는 족족 시치미를 딱 떼고 거절하는 판에 여성지에서 하필 왈, 자화상을 그려 달란다.
 그 목적이 나변(那邊)*에 있는지를 죽히 짐작하는지라 이번에 또 거절을 하는 날이면 제 얼굴이 “추남이 되어 저러는 게로구나.” 할 테니 였다 보아라 “추남이라고 자랑 못할 날까 보냐.” 하고 튀어 나설 나인 줄을 알아차린 눈치 빠른 편집자 씨의 약은 꺾에 안 넘어가려다가 기어이 내가 또 넘어가는구나.
 기왕 내친걸음이니 내 **얼굴 자랑**이나 좀 해 보자꾸나. 나는 원래 순후(純厚)하고 면장(面長)하고 안심(眼深)하고 비고(鼻高)한 분이니, 나쁘게 말하자면 톨스토이 같고, 좋게 말하자면 해중(海中)에서 솟아오른, 문인(文人)·묵객(墨客)이 애무(愛撫)하는 괴석(怪石)*과 같다.
 한때 유학생 시대에는 동경 일판에 내 코는 몰리에르 코 같다고 자못 평판이 자자하였던 코라 지금도 끔찍이 내가 사랑하는 코다. 남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나는 거울을 놓고 내 얼굴의 이모저모를 아무리 뜯어보아도 **그저 좋기만 하다.**
 더구나 요즈음은 여름에 빨강게 깎았던 머리가 수터분하게 길어 오르고 코밑 턱 밑의 수염이 제법 고전풍으로 어울려서, 다른 분은 실례의 말씀으로 이 수염을 보시고 욕 꽤나 할는지 모르나 내 눈에는 이 수염처럼 내 적막한 심사를 위로해 주는 것은 없다.
 내 얼굴에서 굳이 결점을 잡아내자면 ㉠ 양미간이 좁고 찌부러져서 보는 이는 속이 뻑뻑하다 하겠으나 사실은 내 속이 뻑뻑한 것이 아니요 미간의 좁은 내 심저(心底)에 깊이 숨은 우울이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 우울이 나로 하여금 그림을 그리게 하고 글을 읽게 하며 부단히 내 불량심을 바로잡아 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나는 어느 좌석에서 희한하게도 통쾌한 호(號) 하나를 얻었으니 왈 선부(善夫)라.
 평생에 소원이 어찌하였으면 선량하게 살아 볼까 하는 것이었는데, 그러면서 늘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가끔 저지르고 그러고는 곧 참회하곤 하였다.** 하다못해 이름 하나만이라도 선(善) 자를 넣어 볼까 하던 차에 별안간 선부란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러나 막상 선부 하고 부르고 보니 내가 과연 선 자를 놓을 만한 잼이가 되는가 싶어서 마음이 움츠러진다. 선부가 부당하면 불선부(不善夫)도 좋다. 어느 친구나 나를 불선부라 부른 것은 결코 섭섭히 생각지 않는다.

이제까지 꽤 내 사랑을 하기는 했으나 자화상을 보니 나도 그 추남임에는 정이 떨어진다.
 아내가 늘 ㉔“저런 인 줄 알았으면 시집을 아니 올걸.” 하는 고충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그리고 편집자 씨가 내 얼굴을 장사하려는 현명(賢明)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일필휘지(一筆揮之) 내 얼굴
 이 지상(紙上)에 재현된 것이다.

— 김용준, 「선부 자화상」

* 나변: 어느 곳 어디.

* 괴석: 괴상하게 생긴 돌.

[26001-0264]

0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사물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가)와 (나)의 화자는 (다)의 글쓴이와 달리 현실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나)의 화자는 (가)의 화자, (다)의 글쓴이와 달리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 ④ (가)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다.
- ⑤ (나)의 화자와 (다)의 글쓴이는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현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다.

[26001-0265]

02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 화자가 제기했던 의문은 [B]에서 해소되고 있다.
- ② [A]에서 화자가 참회한 내용은 [B]에서 참회의 대상이 된다.
- ③ [A]에서는 과거의 행위에 대해, [B]에서는 미래의 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행동의 변화를 제안하고 있고, [B]에서는 행동의 지속을 촉구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B]에서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26001-0266]

03

㉑과 ㉒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녹이 슬어 있다는 점에서 대상의 원래 모습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 ② 화자의 모습을 재현해 나타내는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분신이라 할 수 있다.
- ③ 방치된 물건이라는 점에서 자신의 과거에 대한 화자의 망각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④ 화자가 과거부터 소유해 왔던 것이라는 점에서 화자의 생애를 함축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 ⑤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강인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26001-0267]

0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그 속에서 자아의 성찰을 보여 주고 있다. (가)의 화자는 국권을 상실한 일제 강점의 현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역사적 현실에 대응하는 자아의 모습을 성찰하고,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와 희망을 나타내고 있다. (나)의 부제인 ‘공초’는 동학 농민 운동 당시 전봉준의 공초를 지칭하는 것이다. 화자는 목숨을 내놓고 불의에 항거한 역사적 인물의 치열한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① (가)에서 화자가 ‘어느 왕조의 유물’을 ‘욕’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제 강점으로 인해 국권을 상실한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화자가 ‘만 이십사 년 일 개월’ 동안 바라던 ‘기쁨’은 ‘그 어느 즐거운 날’로 표상되는 조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내 지나온 생애’에 대해 ‘부끄럽고 죄스러워’하는 화자의 감정은 자신의 생애가 전봉준과 같은 치열함을 가지지 못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내 깊고 어두운 생명 저편’을 ‘회한의 슬픈 역사’와 연결 짓는 것은 삶에 대한 성찰을 역사적 차원으로 확장하고자 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⑤ (가)에서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는 행위와 (나)에서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문지르는 행위는 모두 치열하게 자아를 성찰하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겠군.

[26001-0268]

0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동일시되는 대상에 빗대어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 ② ㉡: 시적 허용의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성격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특정 시어를 반복하여 화자가 느끼는 절실함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묘사를 통해 대상의 외형과 내적 정서를 연결 지어 설명하고 있다.
- ⑤ ㉤: 인용의 방식을 통해 자신에 대한 글쓰기의 새로운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269]

06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필은 시나 소설과는 달리 작품 속 글쓴이와 현실의 작가를 동일하게 보는 문학의 갈래이다. 따라서 작품 속 글쓴이는 실존하는 인간이며, 글의 문체와 내용에는 작가의 성격이나 지향 등의 개성이 드러나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성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유쾌하게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을 객관화하고, 성찰을 통해 삶에 대한 자신의 지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① ‘얼굴 자랑’을 하겠다면서 자신의 얼굴을 ‘문인·묵객이 애무하는 괴석과 같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글쓴이는 유쾌한 성격을 지닌 사람임을 알 수 있군.
- ② ‘남들은 어떻게 볼는지 모’른다고 하면서도 ‘그저 좋기만 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니,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평생에 소원’을 바탕으로 ‘선부’라는 호를 얻은 것에 기뻐하는 것을 보니, 글쓴이는 선량한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가끔 저지르고’는 ‘곧 참회하곤 하’는 것을 보니, 글쓴이는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임을 알 수 있군.
- ⑤ ‘나를 불신부라 부른 것’을 ‘결코 섭섭히 생각지 않는’ 것을 보니, 글쓴이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 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였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 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 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나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
[A]
└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썩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 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

큰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늙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 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B]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C]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다 1년 내내 아파트 베란다에 내버려두었던 화분에서 ㉡수선화 싹이 돋기 시작했다. 입춘이 지난 날 우연히 베란다 청소를 하면서 빈 화분을 버리려고 하다가 싹이 돋는 것을 발견하곤 마음을 고쳐먹었다. 싹은 점점 자라 꽃대가 올라오고 나중엔 연노란 수선화가 환하게 피어올랐다.

베란다 유리창 앞에 화분을 놓고 갓 피어난 수선화를 보고 또 보았다. 맑다 못해 투명해 보이기까지 하는 수선화의 연노란 꽃 빛이 아름다웠다. 수선화는 마치 내가 보고 싶어서, 나를 만나기 위해 어둡고 좁은 화분 속에서도 겨울을 견디고 피어났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지난해 봄 영등포 거리에서 꽃대가 막 올라온 수선화 화분을 사서 꽃이 시들 때까지 보다가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고 까맣게 잊고 만 나는 수선화에게 좀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는 1층인 데다 서향이라 해 질 무렵에만 햇빛이 잠깐 들어오기 때문에 베란다에 화초를 두면 잘 자라지 않는다. 얼마 전에는 꽃망울이 맺힌 동백나무 화분을 옆집에서 얻어 와 애지중지했는데, 그만 시들시들하다가 끝내 죽고 말았다. 그런 내 집에서 어떻게 수선화는 싹이 돋고 꽃대가 올라와 환하게 세상을 꽃피울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뿌리 때문이다. 수선화는 구근이 있기 때문에 **모진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꽃피운 것이다. 수선화는 꽃이 진 뒤에 잎과 줄기가 마르면 구근을 수확해 잘 말렸다가 가을철에 다른 화분에 옮겨심기를 해야 이듬해 봄에 꽃이 잘 핀다. 그대로 두면 장마철에 구근이 썩어 버릴 수도 있고 영양이 손실돼 구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런데 구근을 옮겨 심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음에도 불구하고 수선화는 피어올랐다. 그것은 구근이 자신의 본분과 본질을 결코 잃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수선화 구근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제서야 꽃이 뿌리로 보였다. 실은 모든 꽃은 뿌리다. 꽃은 뿌리에서부터 피어난다. 뿌리가 꽃을 피우는 것이다. 꽃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뿌리도 아름다운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 점을 잊고 산다. 꽃과 뿌리를 구분함으로써 **꽃의 가치만 소중히 여기고** 뿌리의 가치는 마냥 잊고 마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꽃은 뿌리의 꽃이다. 뿌리가 바로 꽃이고 꽃이 바로 뿌리다. 뿌리의 노고와 사랑 없이 저절로 피어나는 꽃은 없다. 『논어』에 ‘회사후소(繪事後素)’라는 말이 있다. 그림은 흰 바탕이 있음으로써 그 위에

그릴 수 있다는 의미로, 본질적 갖추이 있는 연후에 꾸밈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 말이다. 어떠한 예술이든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먼저 이뤄져야 창작의 아름다움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본질이라는 뿌리 없이 외양이라는 꽃만 아름답게 피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을 누구나 존경하고 흠모하는 까닭은 조선 선비로서의 본질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선비의 본질이란 모름지기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과 고통을 함께하는 데에 있는데 다산 선생은 선비로서의 실천적 본질을 결코 잃지 않았다.

전남 강진에 있는 다산 주막에 가면 주막 뜰에 주모의 모녀상이 조각돼 있다. 왜 다산 주막에 다산 선생 조각상은 없고 주모 모녀의 조각상만 있는 것일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은 외면했으나 주모만은 귀양 간 다산 선생께 국과 밥을 꼭 챙겨 드리며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끼니때가 되면 식사를 함으로써 배고프지 않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본질을 지니고 있는데 주모는 그 본질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것은 곧 다산 선생으로 하여금 유배 생활 중에서도 선비로서의 실천적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큰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주모가 다산 선생의 유배의 꽃을 활짝 피우게 한 것이다.

주모는 다산 선생께 “부모의 은혜는 다 갚지만 어머니의 수고가 더 많은데 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해서 아버지의 일가(一家)는 크게 이루는가” 하고 질문을 한 적이 있다. 이에 다산 선생은 “아버지는 나를 낳아 준 시초다. 어머니의 은혜가 비록 깊지만 하늘이 만물을 내는 것 같은 큰 은혜가 더욱 무거운 것”이라고 답변한다. 그러자 주모는 “풀과 나무에 비교하면 아버지는 종자요 어머니는 토양이다. 종자를 땅에 뿌리는 일은 지극히 보잘것없지만 토양이 종자를 길러 내는 공적은 아주 크다”고 말한다.

나는 주모의 이 말에 주목한다. 주모는 종자를 키우는 토양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뿌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흙이 없으면 뿌리가 없고, 뿌리가 없으면 꽃이 없고, 꽃이 없으면 열매도 씨앗도 없다는 것이다.

다시 수선화를 바라본다. 수선화 화분에 준 물이 구근에까지 도달하는 것을 느끼면서 내 본질이 무엇인지 나를 들여다본다. 내 본질을 숨기고 가식과 허상의 껍질을 두르고 사는 내가 보인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서 있지 않고 남이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 있다. 감사함을 잃어버리고 남과 비교하는 삶을 사는 탓이다. 꽃과 나뭇잎이 떨어져 뿌리에서 자신을 찾듯 나도 나 자신에게서 나를 찾아야 한다.

- 정호승, 「뿌리가 꽃이다」

[26001-0270]

01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직유법을 사용하여 대상이 주는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구체적인 공간들을 제시하여 대상이 이동해 온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경어체의 문장을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어 그에 따른 대상의 외형적 변모를 보여 주고 있다.

[26001-0271]

02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그물로 건져진 멸치가 햇빛을 받게 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② ㉡: 멸치가 바다에서처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다.
- ③ ㉢: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가 버팀목에 의해 지탱받고 있는 동안의 시간을 환기한다.
- ④ ㉣: 버팀목이 부식되어 사라지고도 나무가 홀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상황을 가리킨다.
- ⑤ ㉤: 꽃과 뿌리의 관계에 대한 사색의 결과 뿌리가 지닌 진가를 깨닫게 된 상황을 가리킨다.

[26001-0272]

03

[A]~[C]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와 [B]에 드러난 상반된 관점이 [C]에서 절충되어 제시된다.
- ② [A]의 상황에서 비롯된 정서가 [B]와 [C]에서 직접적으로 표출된다.
- ③ [A]의 갈등이 해소되어 [C]의 상황으로 변화하게 된 계기가 [B]에서 드러난다.
- ④ [A]에 제시된 덕목들이 지닌 의의가 [B]와 [C]에서 각각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된다.
- ⑤ [A]의 상황과 [B]의 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깨달음이 [C]를 통해 드러난다.

[26001-0273]

04

㉠와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는 글쓴이의 자궁심을 고취하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소중하게 간직하려 하는, ㉡는 글쓴이가 경계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③ ㉠은 화자의 특정 행동을 재촉하는, ㉡는 글쓴이의 의도했던 행동을 가로막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를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는 글쓴이에게 희망을 품게 해 주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기대했던 현상을 보여 주는, ㉡는 글쓴이가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대상이다.

[26001-0274]

05

(다)의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지난해 봄 수선화 화분을 샀다가 꽃을 피우지 못한 화분을 베란다에 방치한 일이 있음을 고백한다.
- ② 수선화의 구근을 손질하여 간수한 결과 구근이 썩지 않고 이듬해에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 ③ 『논어』에서 다루고 있는 예술에서의 본질적 가치와 꾸밈의 관계를 뿌리와 꽃의 관계에 대응시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 ④ 타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 주모의 정성을 조명하면서 그녀의 삶이 선비의 삶보다 본질에 충실하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 ⑤ 부모의 은혜에 대한 주모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의견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어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6001-0275]

06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문학 작품에는 어떤 삶이 바람직한 삶인가에 대한 탐구가 드러난다. 이때 작품 속의 주체는 주위의 사물이나 그 사물이 보여 주는 현상에 주목하고, 인간의 삶과 관련지어 그 의미를 탐색한다. 그럼으로써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해야 할 가치를 도출하는 한편, 그 가치에 비추어 현재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조명하기도 하고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기도 한다.

- ① (가)에서 ‘바다의 무늬’가 ‘멀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정적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현재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투영된 것이겠군.
- ② (가)에서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멀치의 모습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큰바람이 불어와도’ ‘눕지 않’는 나무가 보여 주는 현상에 주목하는 것은, 화자가 지향하는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떠올리게 하는 것이겠군.
- ④ (다)에서 ‘모진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수선화가 꽃을 피운 일과 ‘유배 생활 중에서도’ 다산 선생이 ‘선비로서의 실천적 삶을’ 산 일은, 시련과 고통이 가치 추구의 전제라는 글쓴이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이겠군.
- ⑤ (다)에서 ‘꽃의 가치만 소중히 여기’며 산 결과 ‘남이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서 살아간다는 생각은, 본질의 중요성을 잊은 삶의 모습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을 보여 주는군.

[01~0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백 마리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
 내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 치르르 도는 소리
 보랏빛 가을 찬바람이 정미소에 실려온 나락들처럼
 바퀴살 아래에서 자꾸만 뿔아지는 소리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뺨보다 더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와 내 손등을 덮어 주고 가네요
 그 작은 구름에게선 천 년 동안 아직도
 아가인 그 사람의 냄새가 나네요
 내 자전거 바퀴는 골목의 모퉁이를 만날 때마다
 둥글게 둥글게 ㉠길을 깎아 내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 돌아온 고향 마을만큼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이고 있네요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평상에 앉아
 그렇게 큰 사과를 손가락으로 파내서
 잇몸으로 오물오물 잘도 잡수시네요

- 김혜순, 「잘 익은 사과」

나 혼(魂)이 오늘은 유빙(流水)처럼 떠가네
 살차게 뒤척이는 기다란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이곳에서의 ㉡일생(一生)은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
 꿈속 마당에 큰 꽃나무가 불터니 꽃나무는 사라지고 꿈은 벗어 놓은 흐물흐물한 식은 허물이 되었다
 초생(草生)을 보여 주더니 마른 풀과 살얼음의 주저앉은 둥근 자리를 보여 주었다
 가볍고 상쾌한 유모차가 앞서 가더니 절룩이고 초라한 거지가 뒤따라왔다
 새의 햇곡식 같은 아침 노래가 가슴속에 있더니 텅 빈 곡식 창고 같은 등지를 내 머리 위에 이게 되었다
 여동생을 잃고 차례로 아이를 잃고
 그 구체적인 나의 세계의, 슬프고 외롭고 또 애처로운 맨몸에 상복(喪服)을 입혀 주었다
 누가 있을까, 강을 따라갔다 돌아서지 않은 이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지 않은 이
 누가 있을까, 눈시울이 별절게 익도록 울고만 있는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이
 누가 있을까, 삶의 흐름이 구부러지고 갈라지는 것을 보지 않은 이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강을 따라갔다 돌아와 강과 헤어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돌담을 돌렸으나 유량과 흐름을 지닌 **집**으로 돌아왔다
 돌담을 돌렸으나 유량과 흐름을 지닌 **무덤**으로 돌아왔다

- 문태준,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다 모든 여행은, 그것이 비록 아침에 떠났다가 한잠도 자지 않고 새벽이 되기 전에 돌아오는 짧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 터널 안에 있다는 생각이 든다. 터널의 울림은 깊고, 어둠은 몽롱하지만, 그러나 모든 터널은 **바깥을 향해 열려** 있다. 한때는 예닐곱 살 어린아이이던 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의 여행이 늘 성공적이던 것은 아니다. 그럴 리가 있으랴! 아마도 대개는 실패였으리라. 터널을 지나 세상으로 나왔으나, 그 세상이 내가 원하던 곳인 적은 그리 많지 않다.

나는 대개 길을 잃고 망연자실 서 있다가 서둘러 되돌아갈 터널을 찾는다. 나는 떠나는 쪽보다는 늘 회귀하는 쪽이어서, 실패를 자인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취하는 태도는 더 멀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가는 쪽이다. 그리하여 여행지에서 남는 사진은 **황홀한 추억**보다 **망설임**과 **초조함**이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빛나는 사진은 있다. 대체 언제 찍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찍혔는지 알 수 없으나 사진 속의 나는 잊음을 다 드러낸 채 웃고 있다. 기억할 수 없는 찰나가 나를 위로한다. 무엇이 걱정이라. 나는 수십 년을 살고도 여전히 살아 있으니, 떠나는 일은 이미 내 몸이 아니라.

지난해까지 내가 몇 년 동안 머물던 중국의 도시 다롄에는 여행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직업이 있다. 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다 보면 팻말 하나씩을 들고 길가에 줄줄이 서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직업은 ‘**향도(嚮導)**’ 즉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향도’라고 씌어진 공책 크기만 한 팻말을 가슴 앞으로 치켜들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고개를 끄덕거리며 줄고 있다. 그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그들이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구직자들이 아닌가 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라는 팻말을 봤는데도, 그 남루하고 한가해 보이는 사람들이 오히려 ‘어디에든 날 좀 데려가 주세요’라고 하는 듯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직업을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길을 모르는 운전자들이 그들에게 길을 물을 때, 그들은 지도를 판매하거나 혹은 손가락을 펴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운전자의 차에 동승을 해서 운전자의 목적지까지 가장 빠르거나 가장 안전한 길을 안내한다. 마치 길을 묻는 어린아이나 노인을 집 앞까지 데려다주는 친절한 소년처럼. 그러니, **길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한은 아무 쓸모도 없는 그들이 하루 종일 땀별과 추위, 먼지 속에서 꿈꾸는 것은, 세상의 단 한 사람 오직 그밖에는 알지 못하는, 아주 먼 곳의, 어떤 곳을 **물어봐 주는 고객**이 나타나 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경쟁자는 너무 많고 고객은 너무 없는 것이다.

여행자는 비굴할 필요 없이 그들에게 무엇이든 물을 수 있다. “여보세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지?” 물론 대가는 치러야 한다. 먼 길은 먼 길만큼, 가까운 길은 가까운 길만큼. 그러나 나는 바로 이 대가가 마음에 들거니와, 세상에 대가 없이 도달할 수 있는 종착역이 어디에 있겠는가.

다행히 중국에서 **길 안내자**들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아주 싸다. 다만 **낮선 사람**을 보조석에 태워야 하고, 그 낮선 이가 지시하는 길이 완전히 안전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어야 하는**, ‘사소한’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 안내자들은 결코 망설이거나, 차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가야 할 곳을 모른다고 말하는

경우도 결코 없다. 처음 가는 길을 갈망정, 안내자들은 망설임 없이 결연한 어조로 좌회전과 우회전을 거듭해 말하고, 가끔 의혹의 눈길을 보내는 운전자들에게는 며칠 전까지 있던 길이 감쪽같이 사라져 버렸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물어볼 필요는 없다. 어차피 모르는 길에 있기는 마찬가지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 안내자의 얼굴에 먼저 미소가 번진다.

아니, 그런데 길 안내자들, 그들은 어떻게 돌아오나? 나는 그 가난한 ㉠귀로를 생각해 본다. 멀리 떠날수록 멀리서 돌아와야 할 터이니, 그렇게 멀리서 돌아오는 길은 지치고, 배고프고, 고단한 것임에 틀림없을 터이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오는 길 내내 절대로 주먹 쥔 손을 펴지 않을 터이니, 그 주먹 안에 들어 있는 몇 푼의 동전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삶이란 어쩌면 그런 것이 아닐까. 아주아주 가난한 귀로, 그러나 다행히 텅 빈 손은 아닌 것. 길에서 얻은 몇 푼의 동전, 그토록 가난해서 소중한 대가 같은 것, 말이다.

- 김인숙, 「길의 안내자들」

[26001-0276]

0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화자가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삶의 방향을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동일한 시구를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설의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접하게 된 사물을 통해 화자의 인식 전환을 드러내고 있다.

[26001-0277]

02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는 평범한 것처럼 보이는 사물의 현상을 놓고 연상의 과정을 따라 특이한 이미지를 포착해 내며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고향 마을의 골목길을 도는 행위는, 연상 작용 속에서 다양한 배경적 상상력과 만나며 마을 전체로 확장된 사과의 껍질을 깎아 내는 행위와 연관이 된다. 그럼으로써 과거의 아픈 기억은 세월이 흐르며 슬픔을 망각하게 되고 상처는 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시상 전개와 마지막 부분에서 할머니는 평안한 존재로 형상화되어 궁극의 어머니와 같은 이미지로 드러나게 된다. 애상적인 어린 아기의 순결에서부터 할머니의 평온함에 이르기까지 시간과 공간의 조화를 형상화한 작품이다.

- ① ‘자전거 바퀴가 치르르 치르르 도는 소리’가 ‘여치가 한꺼번에 우는 소리’에서 ‘나락들이 뿔뿔아지는 소리’로 변하는 것은, 청각을 매개로 화자의 연상 작용이 이어지는 것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먼 나라로 입양 가는 / 아가’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애상적 이미지는, ‘차가운 한 송이 구름’이 ‘내 손등을 덮어 주’는 행위와 연결되어 상처를 보듬어 주는 것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군.
- ③ ‘내 자전거 바퀴’가 ‘골목의 모퉁이’를 ‘둥글게 둥글게’ 만든다는 것은, 화자가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통해 여러 삶의 여정을 돌아보며 삶에서 생긴 상처를 다듬고 다독이는 과정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겠군.
- ④ 자전거 바퀴가 ‘길을 깎아 내고’ 있는 모습에서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꺾이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삶의 무게와 고통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⑤ ‘노망든 할머니’를 과거의 아픈 기억을 망각한 주체로 본다면, ‘평상에 앉아’서 ‘그렇게 큰 사과를’ 먹는 모습은 과거의 상처를 잊고 평안을 찾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겠군.

[26001-0278]

03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인간은 삶의 여정에서 어떤 것을 지향하더라도 끝내 그것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에 남게 되기도 하는데, (나)는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느끼는 비애감을 형상화하고 있다. 대비를 이루는 장면을 포착하여 희망과 절망, 생성과 소멸이라는 삶의 양면성을 상징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통해 삶의 다양한 국면에 대한 통찰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말의 차례를 바꾸어 쓰는 도치법을 사용하여, 이 시가 삶에 대한 일반적인 진술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인생의 여정 끝에 도달하는 죽음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붉은 ‘꽃나무’가 나온 ‘꿈’은 사라지고 ‘식은 허물’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여러 국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새의 햇곡식 같은 아침 노래’를 가슴에 간직하다가 ‘텅 빈 곡식 창고 같은 동지’를 ‘머리 위에 이게 되었다’는 것은, 지향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에 대한 회한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여동생을 잃고 차례로 아이를 잃’은 화자가 자신의 삶이 마치 ‘슬프고 외롭고 또 애처로운 맨몸에 상복을 입’은 것과 같다고 인식하는 것은, 죽음을 맞닥뜨려야 하는 인간의 숙명적인 비애감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누가 있을까’, ‘~지 않은 이’처럼 도치법이 사용된 시구를 반복한 것은, 삶에 대한 통찰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내포한 것이겠군.
- ⑤ ‘강을 따라갔다 돌아와 강과 헤어지는 나를 바라보’며 ‘집으로’, ‘무덤으로’ 돌아왔다는 화자의 인식은, 모든 인간이 인생의 여정 끝에 도달하게 되는 죽음에 대한 성찰을 드러낸 것이겠군.

[26001-0279]

04

(가)와 (나)의 **유모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서 모두 생동감 있는 움직임을 중심으로 묘사되어 대상이 지닌 생명력을 환기하고 있다.
- ② (가)와 (나)에서 모두 친근하고 동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며 화자의 과거 경험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삶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여리고 상처 입은 어린 존재의 모습을, (나)에서는 밝고 명랑한 어린 존재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시간의 역행적 구성을 드러내는 소재로서, (나)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 시의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에서는 타인에게 슬픔을 자아내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나)에서는 타자를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26001-0280]

05

㉠~㉣을 비교하여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 ㉢과 달리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의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은 ㉠, ㉢과 달리 타인과 동행하는 여로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은 ㉠, ㉡과 달리 삶의 시작과 마무리에 관한 화자의 성찰을 함축하고 있다.
- ④ ㉠과 ㉡은 타인의 삶을 위한 희생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 ⑤ ㉡과 ㉢은 여정을 거쳐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의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26001-0281]

06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에게 모든 여행은 그곳이 자신이 원하던 곳이든 그렇지 않은 곳이든 ‘바깥을 향해 열려’ 있는 세상과 연결되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 ② ‘나’는 여행에서 실패한 경우에 ‘망설임과 초조함’보다는 ‘황홀한 추억’을 느끼는 경험을 해왔다.
- ③ ‘나’는 ‘향도’라는 사람들을 처음 봤을 때, 남루하고 한가해 보이는 모습으로 인해 그들을 인력 시장에 나온 구직자로 오해했다.
- ④ ‘길 안내자들’이 ‘길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안내하는 방식과 길을 ‘물어봐 주는 고객’을 기다리는 방식은 ‘나’로서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었다.
- ⑤ ‘향도’와 함께하는 여정은 ‘나’로서는 ‘지불하는 대가’는 저렴하지만 ‘낯선 사람’과 동행하면서 그를 전적으로 ‘믿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었다.

3부

www.ebsi.co.kr

실전 학습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옛날 경상도 땅에 ㉠한 사람이 있으니, 대대 부자로 일 년 추수가 만석에 지나니, 그 사람의 무량대복을 가히 알지라. 일생 가산이 풍비하여 그릴 것이 없으되, 이웃 사람이 송덕 아니하는 이 없더라.

그중 일가에 한 ㉡패악무도한 늙이 있어 불분동서하고 유리표박하여 다니러니, 일일은 홀연 이르러 구박하여 왈,

“너희는 종이 잘사는구나. 너 잘사는 것이 도시 조상 전래지물이니, 우리 서로 같은 고조의 자손으로 너만 홀로 잘 먹고 잘 입어 부족한 것 없이 지내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오. 이제 그 재물을 반 나누어 주면 무사하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너를 살지 못하게 하리라.”

하고, 종야토록 광언망설을 무수히 하며 심지어 불을 놓으려 하더니, 동리 사람들이 그 거동을 보고 그놈의 목숨 심사를 헤아리며 차마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가만히 주인 부자를 권하여 왈,

“그놈을 그저 두지 말고 관가를 정하거나 감영에 의송하거나 하여 다시 이런 일 없게 함이 가하노라.”

그 부자 이 말을 듣고 오히려 여겨 왈,

“이놈은 좀처럼 속이지 못할지라. 서울에 올라가 형조를 정하여 후환을 없이하리라.”

하고, 그놈을 이끌고 한가지로 서울로 올라오니라.

이 부자는 본래 하향*에 있어 좀처럼 글자도 읽으며 상시 박람하여 구변도 있으며 주제넘은 문자도 쓰더니, 이러한 일을 당하매 득송*은 단단히 하리라 하고 분하여 절통함을 이기지 못하여 이놈을 형추정배*하면 다시 꿈쩍 못 하게 하리라 하고 경성에 올라와 형조를 찾아 원정*을 올려 왈,

“소인은 경상도 아무 고을서 사옵더니, 천행으로 가산이 풍족하오매 자연히 친척의 빈곤한 사람도 많이 구제하옵더니, 소인의 일가 중 한 늙이 있어 본디 허랑무도하므로 가산을 탕패*하고 동서로 유리하옵기로 불쌍히 여겨 다시 집도 지어 주며 전답도 사 주어 아무쪼록 부지하여 살게 하오되, 그놈이 갈수록 괴이하여 농사도 아니 하옵고 온갖 노름하기와 술 먹기를 좋아하온대, 그 가산을 지탱하지 못하와 일조에 다 팔아 없이하옵고, 또 정치 없이 다니기를 좋아하옵기로 이제는 장사질이나 하라 하고 돈을 주면 또 어찌하여 없이하고 다니며, 혹 일 년 만에도 와 재물을 얻어 가옵고 혹 이 년 만에도 와 이삼백 냥, 사오백 냥을 물어내기도 무수히 하옵더니, 요사이는 더구나 흉악하온 마음을 먹고 소인을 찾아와 발악을 무수히 하옵고, 질욕을 대단히 하오며, 재물과 전답을 반씩 나누어 가지지 아니하면 너를 죽여 없이하리라 하옵고 날마다 싸우며 집에 불을 놓으려고 하오니, 이러한 늙이 천하에 어디 또 있사오리이까. 차마 견디지 못하와 불원천리하옵고 세세 원정을 명정지하에 올리옵나니 복결참상시후에 이러한 부도의 늙 각별 처치 하와 하방 백성으로 하여금 부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옵심을 천만 바라옵나이다.” / 하였더라.

관원이 그 원정을 자세히 보고 서리에게 분부하여 일후 좌기* 시에 처결하리라 하고 아직 추열*치 못하였더니, 여러 날이 되도록 좌기되기만 기다리며, 그사이 서리나 찾아보고 껌이나 얻은 일이로되, 제 이왕 그러지 아니하게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고 그 절통한 심사를 견디지 못하여 그놈 속히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지라.

그놈이 비록 놀기를 즐겨 허랑무도하여 주유사방하매, 문견이 너르고 겹하여 시속 물정 또한 아는지라. 이때 송사에 올라와 일변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청길을 뚫어 당상이며 낭청이며 서리, 사령까지 꺾으니 자고로 송사는 눈치 있게 잘 돌면 이기지 못할 송사도 아무 탈 없이 득승하노니, ㉢이는 이른바 녹비에 가로

알 자를 씌이라. 아무렇거나 좌기 날을 당하여 당상은 주좌하고 낭청들은 동서로 열좌하고 서리들은 텃마루에서 거행할새 그 엄숙함이 비할 데 없더라.

사령에게 분부하여 양측을 불러들이라 하고 계하에 분부하되,

“네 들으라. 부자는 너같이 무지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네 자수성가를 하여도 빈족을 살리며 불쌍한 사람을 구급하거든, 하물며 너는 조업을 가지고 대대로 치부하여 만석꾼에 이르니, 족히 흉년에 일읍 백성을 진휼도 하려든 너의 지친을 구제치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니, 너같이 무도한 놈이 어디 있으리오. 어느 자손은 잘 먹고 어느 자손은 굶어 죽게 되었으니 네 마음이 어찌 죄스럽지 아니하랴. 네 소위를 헤아리면 소당 형추정배할 것이로되 심분 안서하여 송사만 지우고 내치나니, 네게는 이런 상덕이 없는지라. 저놈 달라 하는 대로 나누어 주고 친척 간 서로 의를 상하지 말라.”

하며, 그대로 다짐받고 끌어 내치라 하거늘, 부자 생각하매 이제 송사를 지니 가장 절통하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그놈의 청으로 정작 무도한 놈은 착한 곳으로 돌아가고 나같이 어진 사람은 부도로 보내니, 그 가슴이 터질 듯하매 전후사를 고쳐 고하면 반드시 효험이 있을까 하여 다시 끓어앉으며 고하려 한즉, 호령이 서리 같아 등 밀어 내치려 하거늘 부자 생각하되, ‘내 관전에서 크게 소리를 하여 전후사를 아뢰려 하면 필경 관전 발악이라 하여 뒤엎어 잡고 조율할 양이면, 청 듣고 송사도 지우는데 무슨 일을 못 하여 무지한 사령놈들이 만일 함부로 두드리면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종신어혈될 것이니 어찌할꼬?’

이리 생각 저리 생각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저 송사를 지고 가기는 차마 분하고 애달픔이 가슴에 가득하여 송관을 뚫어지게 치밀어 보다가 문득 생각하되, ‘내 송사는 지고 가거니와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 내어 조용히 할 것이니, 만일 저놈들이 듣거나 하면 무안이나 뵈리라.’

하고 다시 일어서 계하에 가까이 앉으며 왈고,

“소인이 천리에 올라와 송사는 지고 가옵거니와 들음직한 이야기 한마디 있사오니 들으심을 원하나이다.”

관원이 이 말을 듣고 가장 우습게 여기나 상의 이야기 듣기를 좋아하는 고로, 시골 이야기는 재미있는가 하여 듣고자 하나 다른 송사도 결단치 아니하고 저놈의 말을 들으면 남이 보아도 체모에 괴이한지라. 거짓 꾸짖는 분부로 일러 왈,

“네 본디 하향에 있어 사체경중을 모르고 관전에서 이야기한단 말이 되지 못한 말이로되, 네 원이나 풀어 줄 것이니 무슨 말이고 아뢰라.” / 하니 그 부자 그제야 잔기침하며 말을 내어 왈,

옛적에 피꼬리와 삿갓새와 따오기 세 짐승이 서로 모여 앉아 우는 소리 좋음을 다투되 여러 날이 되도록 결단치 못하였더니, 일일은 피꼬리 이르되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송사하여 보자.” 한대,

그중 한 짐승이 이르되,

“들으니 황새가 날짐승 중 귀 크고 부리 길고 몸집이 어방저워 통량이 있으며 범사를 곧게 한다고 하기로 이르기를 황 장군이라 하나니, 우리 그 황 장군을 찾아 소리를 결단함이 어떠하뇨.”

세 짐승이 웅이 여겨 그리로 완정^{*}하매, 그중 따오기란 짐승이 소리는 비록 참혹하나 소견은 밝은지라, 돌아와 생각하되, ‘내 비록 큰 말은 하였으나 세 소리 중 내 소리 아주 초라하니 날더러 물어도 나뻛에 질 놈 없는지라. 옛사람이 이르되 모사는 재인이요, 성사는 재천이라^{*} 하였으니, 아무렇거나 청축이나 하면 필연 좋으리로다.’ 하더라.

— 작자 미상, 「황새결승」

* 하향: 하방(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

* 득승: 소송에서 이기거나 유리한 판결을 받음.

* 형추정배: 심문을 하여 죄상을 밝히고 형량을 정하여 유배 등의 벌을 내림.

* 원정: 사정을 하소연함.

* 좌기: 관청의 우두머리가 근무지에 나가 일을 봄.

* 모사는 재인이요 ~ 재천이라: '일을 꾸미는 것은 사람에게 달렸고, 일이 되고 안 됨은 하늘에 달려 있다'는 뜻임.

* 탕패: 재물 따위를 다 써서 없앴.

* 추열: 죄인을 심문함.

* 완정: 완전히 결정함.

[26001-0282]

01

㉠과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그 행실로 동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고, ㉡은 그 언동 때문에 동리 사람들의 분함을 샀다.
- ② ㉠이 ㉡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동리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송사를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 ③ ㉠은 박람하여 구변도 있고 문자도 잘 썼지만, ㉡은 놀기만을 즐기고 허랑무도하여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
- ④ ㉠은 송사를 진행하고 나면 자신이 득송할 것이라 기대하였고 ㉡을 다시는 꿈쩍 못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 ⑤ ㉠은 원정을 올린 후 사람들을 따로 찾아다니지 않았지만, ㉡은 친구를 찾아 청길을 뚫으며 송사와 관련된 이들을 만나고 다녔다.

[26001-0283]

02

<보기>를 바탕으로 송관의 판결을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민사 재판은 양측의 주장과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판의 쟁점이 되는 것은 사실의 인정에 관한 분쟁, 법규의 해석에 관한 분쟁으로 나눌 수 있다. 법규는 법원이 직권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게 되므로, 소송은 당사자가 다투는 사실 관계가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된다. 현행 민사 소송법은 증거 방법을 한정하거나 증거의 가치 판단에 대한 기준을 법조문으로 규제한 바 없고 법관의 자유로운 심증에 맡기고 있다.

- ① 송관은 부자를 두고 '조업을 가지고 대대로 치부하여 만석꾼에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부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과정을 사실로 인정한 것이겠군.
- ② 송관은 '그놈'에게 '집도 지어 주며 전답도 사 주'었다는 부자의 주장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당사자가 다투는 주요 쟁점이므로 사실 관계를 정확하게 따져 보아야 했겠군.
- ③ 송관은 부자가 '지친을 구제치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였다면서 무도하다 말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의 말은 인정하지 않고 '그놈'이 주장한 것만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겠군.
- ④ 송관은 '재물과 전답을 반씩 나누어 가'져야 한다는 '그놈'의 주장을 수용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민사 재판이라면 그러한 재산 분배 비율이 어떠한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를 밝혀야겠군.
- ⑤ 송관은 어떠한 법조문을 따랐는지는 밝히지 않고 '저놈 달라 하는 대로 나누어 주'라고 판결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법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증에 따라 판결을 내린 것이라 할 수 있겠군.

[26001-0284]

03

다음은 ㉠에 대한 설명이다. 윗글의 전체 맥락과 관련지어 ㉠을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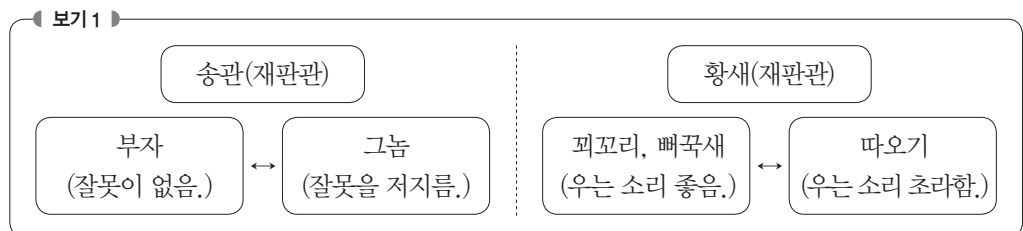
‘녹비왁자(鹿皮曰字)’는 ‘사슴 가죽에 가로왁 자’를 쓴다는 뜻이다. 사슴 가죽은 유연하고 매끄러운 특징을 가지고 있어, 옆으로 당기면 글자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특히 ‘날 일(日)’ 자는 ‘가로 왁(曰)’ 자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날 일’ 자를 쓴 후 가죽을 잡아당기면 ‘가로 왁’ 자로 보이기 때문이다.

- ① 송사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 부자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충고를 들어야 했다는 것을 조언하는 말이다.
- ② 사건을 바라보는 기준이나 관점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면, 사건의 진실과 무관하게 잘못된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이다.
- ③ 간단한 일도 서로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송관이라면 다양한 관점에서 갈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 ④ 부자처럼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 있으면, 재판에서 좋은 인상을 줄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이다.
- ⑤ 옳고 그름을 정할 때 뚜렷한 기준 없이 남이 하는 말을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송관처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이다.

[26001-0285]

04

〈보기 1〉은 윗글과 [A]의 인물 관계도이고, 〈보기 2〉는 [A]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건을 구상한 것이다. 부자가 자신의 송사 과정을 바탕으로 **이야기 한마디**를 꾸며 냈다고 할 때, [A] 이후에 이어질 사건의 내용과 순서가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기 2 ▶
- ㉠ 따오기가 황새를 찾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해 달라고 청축한다.
 - ㉡ 따오기의 청축을 받은 황새가 피꼬리와 삿죽새에게 그 사실을 넘기지 알린다.
 - ㉢ 황새의 판결을 신뢰한 따오기가 다른 새들이 들으라고 일부러 참혹한 소리를 낸다.
 - ㉣ 피꼬리와 삿죽새는 따오기가 우는 소리를 가장 좋다고 한 황새의 판결에 억울함을 느낀다.
 - ㉤ 따오기의 우는 소리를 최고라 하는 황새의 판결을 두고, 다른 새들이 황새를 비판하며 조롱한다.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

[0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가** 산수 간(山水間)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다 하니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어리고 하얌*의 뜻에는 내 분(分)인가 하노라

〈제1수〉

㉠보리밥 꽃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後)에

바위 끝 물가에 실컷 노니노라

그 남은 여남은 일이야 부러울 것이 있으라

〈제2수〉

잔 들고 혼자 안자 먼 뵈를 바라보니

㉡그리던 입이 온들 반가움이 이리하랴

말씀도 웃음도 안 해도 못내 좋아하노라

〈제3수〉

그 누가 삼공(三公)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萬乘)이 이만하랴

이제사 생각하니 소부(巢父) 허유(許由)가 낙뎡더라*

아마도 임천 한흥(林泉閑興)*을 비길 곳이 없어라

┌
[A]
└

〈제4수〉

㉢내 천성이 게으르더니 하늘이 알으셔서

인간 만사(人間萬事)를 한 일도 아니 맡겨

다만당 다툼 이 없는 강산(江山)을 지키라 하시도다

〈제5수〉

강산(江山)이 좋다 한들 내 분(分)으로 누웠느냐

임금 은혜(恩惠)를 이제 더욱 아나이다

아무리 갇고자 하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어라

〈제6수〉

- 윤선도 「만흥」

* 하얌: 시골에 사는 건문이 좁고 어리석은 사람.

* 낙뎡더라: 약았더라.

* 임천 한흥: 자연에서 한가롭게 살아가는 즐거움.

나 ㉣천지의 조화가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만물을 감돌고 고금에 흐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일 년으로 말하면 봄에서 여름이 되고 여름에서 가을이 되고 가을에서 겨울이, 겨울에서 다시 봄이 된다. 계절이 흐르고 추위와 더위가 바뀌며 만물을 피어나게 하고 시들게 한다. 마치 다그치는 것 같지만 멈추지 않는 데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이치를 군자는 음미하여 마음을 다 쓰고, 소인은 모른 채 부림을 받는다. 모르는 데 만족하지 못하여 음미하려 하고, 부러지는 것을 꺼려 마음을 다 쓰려 한다면 홀륭하지 않겠는가.

전 훈련원 첨정(訓鍊院僉正) 유중환(柳仲翰) 군이 죽포(竹浦) 어귀에 정자를 세웠다. 바위에 기대 물가를 굽어보며, 높은 산과 이어지고 무성한 숲이 어리비친다. 그 사이에 아름다운 꽃을 심고 ‘장춘정(藏春亭)’이

라는 현판을 걸었다. 또 정자의 서쪽 땅에 작은 집을 짓고 ‘매굴당(梅橋堂)’이라는 편액을 걸었다. 모두 난간을 두르고 단청을 칠하니 영롱한 빛이 감돌며 조용하고 시원하여 마치 별세계 같았다. 여기에 여러 명승지에 서 지은 시를 새겨 문미(門楣)*에 걸고, 아울러 내 글을 걸어 자랑하려고 했다. 내가 유중한 군에게 물었다.

“일 년 중에 봄은 석 달뿐인데, 지금 봄을 감추어 간직한다는 뜻의 장춘(藏春)이라고 하였으니, ㉓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겠는가?”

유중한 군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사시(四時)와 팔절(八節), 이십사절기와 칠십이후(候)*는 일 년을 주기로 돌아오며 이 세상 밖에 숨어 있는데 사람들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만 할 따름입니다. 봄바람이 불어 얼음이 녹고 벌레가 나오면 작은 양(陽)의 기운이 전부 땅 위로 나옵니다. 그러다가 복숭아꽃이 피고 피꼬리가 올면 양의 기운이 가득하여 온갖 꽃이 피고 숲이 땅을 덮으며 고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산은 무성하고 아름다우며 물은 깨끗하고 멀리 흐르며, 태양은 빛을 더하고 하늘은 더욱 넓어지니, 이야말로 한창인 때입니다. 옛사람이 근심을 잊고 감상한 데는 참으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구리가 울고 축융(祝融)*이 계절을 다스리면 봄이 여름으로 바뀌니, 봄을 간직할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정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이한 화초를 무려 수십 종이나 모았고, 종마다 열 개씩 심었습니다. 뿌리가 엉키고 잎이 맞닿으며, 잎이 나란히 들고 가지가 교차한답니다. 붉은 꽃이 지면 흰 꽃이 남아 있고, 옥빛 꽃이 지면 누런 꽃이 피니, 비록 계절이 바뀌어도 꽃은 시들지 않습니다. 게다가 겨울에도 푸른 나무가 있어 처마 사이로 푸르게 솟아 눈 속에서도 종종 꽃을 피우며, 향기를 풍기는 매화가 햇빛을 받으며 봄기운을 누설합니다. 이 때문에 정자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그 사이에서 봄기운을 느낍니다. 이것이 저의 정자를 장춘정이라고 이름 지은 까닭입니다.

옛날 조정순(刁景純)이 장춘오(藏春塢)를 만들자*, 소동파가 장춘부(藏春賦)를 지었습니다. ‘세월을 조화의 변화 밖에 버리니, 봄은 선생의 지팡이와 짝인 사이에 있다[年拋造化陶甄外 春在先生杖屨中].’ 이 말이 여기에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옛사람에게서 증거를 찾았는데, 선생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말했다.

“그대의 말이 좋기는 하지만 미진한 점이 있구나. 천지의 조화에 따른 변화는 형체를 가진 존재라면 피할 수 없다. 봄은 사월이 지나면 사라지니, 어찌 그대의 정자에 간직할 수 있겠는가. 예컨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에 주름이 없고 머리가 빠지지 않고 근력이 약해지지 않더라도 젊음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이다. 그런데 억지로 젊은이로 남아 있고자 한다면 잘못이 아니겠는가. ㉔장자(莊子)의 말에 이르기를 ‘골짜기에 배를 간직하고, 못에 산을 간직하고는 잘 간직했다고 여기지만, 힘센 사람이 젊어지고 가 버리면 어리석은 자는 알 수 없다.’라고 하였다. 그대가 봄을 간직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은가.

봄은 조화의 자취이다. 조화는 마음이 없어 모든 것을 만물에게 맡기고 사사로운 짓을 하지 않는다. 봄조차 간직할 수 없는데, 하물며 높은 공명과 부귀, 풍요한 재물과 곡식, 비단처럼 없어지기 쉽고 사람들이 다투는 것은 어떻겠는가. 화려하게 쌓아 놓은 것이 며칠 되지도 않아 먼지로 변하여 바람에 날아가기란 잠깐이니, 붙잡아 두기에 부족하다. 과거에 노심초사하여 급급히 도모하면서 차지하기에 힘썼던 것이 하루아침에 이 지경에 이른다면 슬프지 않겠는가. 그러니 간직해서 무엇 하겠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회암 선생이 사계절을 끌어와 사람 본성의 네 가지 덕을 말씀한 적이 있다. 그분 말씀에 ‘봄은 봄이 생기는 때이고, 여름은 봄이 자라는 때이고, 가을은 봄이 완성되는 때이고, 겨울은 봄을 간직하는 때이다.’라고 하였다. 하늘의 성정(性情)은 원(元), 형(亨), 이(利), 정(貞)이 있어 낳고 자라고 거두고 숨기는 차이가 있다. 그렇지만 봄에 생긴 기운은 통하지 않는 때가 없다. ⑤ 사람의 성정도 인(仁), 의(義), 예(禮), 지(智)에 따라 측은지심(惻隱之心), 수오지심(羞惡之心), 사양지심(辭讓之心), 시비지심(是非之心)의 각기 다른 명칭이 있으나, 측은지심이 모든 마음을 관통한다. 만약 하늘이 나에게 준 것을 가지고 거꾸로 찾아본다면, 간직할 수 없는 봄이 내게 없었던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점을 음미하여 마음을 다 쓰면 되지 않겠는가?”

유중한 군이 그렇다고 하였다. 이 이야기를 정리하여 장춘정의 기문(記文)으로 삼는다.

— 기대승, 『장춘정기』

* 문미: 창문 위에 가로 댄 나무. 그 윗부분 벽의 무게를 받쳐 줌.

* 칠십이후: 음력에서 자연 현상에 따라 닳새를 한 후(候)로 하여 일 년의 기후(氣候)를 72로 나눈 것.

* 축융: 화신(火神)으로 남방(南方)과 여름철을 맡았다고 함.

* 조경순이 장춘오를 만들자: 경순은 북송 때의 문장가인 조약의 자로, 일찍이 진사에 급제하고 요직을 맡았지만 훗날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 장춘오라는 서재를 짓고 글을 지으며 여생을 마쳤다고 함.

[26001-0286]

05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자연물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제2수>에서는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여 화자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③ <제3수>에서는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화자가 추구하는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④ <제5수>에서는 자연물과 화자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남들과 다른 화자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다.
- ⑤ <제6수>에서는 물음의 방식으로 화자의 상황을 언급한 후 화자가 고마워하는 대상을 부각하고 있다.

[26001-0287]

06

(가)의 [A]와 <보기>의 [B], [C]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허유는 기산(箕山)에 숨어 살던 선비로, 요임금이 구주(九州)*의 장을 맡아 달라고 하자 못들을 말을 들었다고 하며 영수(潁水)에서 귀를 씻었다. 이때 그 아래에서 소에게 물을 먹이고 있던 소부는 허유가 귀를 씻은 더러운 물을 자신의 소에게 먹일 수 없다며 그보다 더 상류로 거슬러 올라가 소에게 물을 먹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고전 문학 작품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었는데, 아래의 작품들도 이에 해당한다.

○ 기산(箕山)에 늙은 사람 귀는 왜 씻었던고
박 소리 핑계하고 지조가 가장 높다더니
지금에 영수(潁水) 맑은 물은 더러운 채 있나니

┌
[B]
└

○ 산 밑 샘에 귀를 씻으니 인간사를 누가 들으리오
물가의 술을 벗 삼으니 은사의 마음을 내 아노라
하물며 공을 이루는 일은 구름 속에 있도다

┌
[C]
└

*구주: 중국 고대에 전국을 나눈 9개의 주.

- ① [A]에서는 허유가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행위에 주목하고 있고, [B]와 [C]에서는 허유가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후 귀를 씻은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 ② [A]와 [B]는 타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허유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고, [C]는 화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허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와 [C]는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 [B]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A]와 [C]는 자신의 삶을 근거로 허유의 삶을 평가하고 있고, [B]는 타인의 말을 근거로 허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 ⑤ [A]와 [C]는 자연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속세의 삶을 평가하고 있고, [B]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자연에서의 허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26001-0288]

07

(나)의 글쓴이와 ‘유중한 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만물이 바뀌는 이치를 알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의 여부가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유중한 군’은 ‘장춘정’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③ ‘유중한 군’은 옛사람이 지은 글을 근거로 봄을 감추어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④ 글쓴이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귀공명과 재물 등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 ⑤ 글쓴이는 만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봄이 돌아온다는 점에서 봄을 감추어 보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6001-0289]

08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일상을 보여 주는 사물이다.
- ② ㉡: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흥을 고조하는 인물이다.
- ③ ㉢: 글쓴이가 생각한, 만물이 필연적인 이치에 따라 변하는 원인이다.
- ④ ㉣: 자신에게 글을 부탁한, 유중한 군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글쓴이의 요청이다.
- ⑤ ㉤: 글쓴이가 유중한 군의 발언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거이다.

[26001-0290]

09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노력하여 바꾸려는 것이고, ㉡는 글쓴이가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② ㉠은 하늘로 인해 화자가 깨달은 것이고, ㉡는 글쓴이로 인해 유중한 군이 깨닫게 된 것이다.
- ③ ㉠은 속성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고, ㉡는 부르는 명칭에 따라 그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다.
- ④ ㉠은 화자가 자연에 은거하며 살아가는 이유이고, ㉡는 글쓴이를 비롯한 인간들이 하늘의 성정을 찾을 수 있는 이유이다.
- ⑤ ㉠은 화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다른 이들의 견해에 동조하게 된 계기이고, ㉡는 유중한 군이 글쓴이의 견해에 동조하게 된 계기이다.

[26001-0291]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지리학자인 이-푸 투안은 인간이 장소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인 생각이나 감정을 ‘장소감’이라고 지칭한다. 그에 따르면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의미만 지니고 있지만, 인간이 그 공간과 긴밀한 정서적 끈을 형성하며 살아갈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보았다. 그는 우리가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함에 따라 장소가 된다고 하였으며, 공간이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인 ‘장소애’를 갖게 되는데, 이때 공간과 맺는 정서적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 ① (가)의 ‘산수 간 바위 아래 띠집’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자에게는 ‘장소’가 될 수 있지만, 화자를 비웃는 ‘남들’에게는 단순히 집이 존재하는 ‘공간’에 불과하겠군.
- ② (가)의 ‘바위 끝 물가에’서 화자가 ‘실컷 노’는 것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과 긴밀한 정서적 끈을 형성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화자가 ‘물가’에 대해 ‘장소애’를 갖게 되는 이유라 볼 수 있겠군.
- ③ (가)에서 화자가 ‘먼 뒀을 바라보’며 ‘혼자 안자’ 있는 곳은 좋아하는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가치가 부여된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에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겠군.
- ④ (나)에서 유중한 군이 ‘장춘정’ 주위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장춘정’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된 행위라는 점에서 ‘장춘정’에 대한 유중한 군의 인식은 글쓰기와 차이가 있겠군.
- ⑤ (나)에서 글쓰이가 유중한 군의 부탁으로 ‘장춘정’에 대한 기문을 적는 것은 ‘장춘정’의 가치를 알고 해당 장소에 대한 ‘장소애’를 갖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겠군.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저, 김 박사 댁이죠?”

“네, 그렇습니다만…….”

나도 어느 겨울에 전화 받는 태도가 점잖아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어디서 함부로 김 박사를 찾느냐는 투로 꼬리를 달았다. ㉠먼저 당신의 관등성명을 대고 김 박사를 찾을 일이지 어디서 함부로 뉘 집 강아지 이름 부르듯 김 박사 김 박사 하느냐는 투로 한껏 말소리를 낮추어서 점잖게 대했다. 그런 나 자신이 속으로는 히히 웃음이 나왔지만, 제기, 알 게 뭐야, 덕분에 나도 올라가 보자 하는 생각이 그럴 때마다 들던 것이다.

“계시면 좀 바꿔 주십시오.”

“누구신데요.”

㉡(떨어놓고 바꿔 달라니 어디서 함부로.)

“아, 나 이XX라는 사람입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내가 금방 바꿔 줄 줄 알고? 이 대목에서 혀를 날름.)

그런데 여기서 꼭 산통이 깨진다. 내가 그쯤 상대를 해 놓았으면 아저씨는 잠자코 있다가 어디 사는 아무개 씨한테서 전화 왔어요 하면, 오냐 그러니……,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건데, 아저씨는 내가 전화를 받고 미처 대답도 다 하기 전에,

“나니? 나한테 온 전화지?” 하고는 채신머리없이(실례) 덤비는 것이다. 기껏 내가 꾸며 준 무드를 왕창 깨어 버리는 것이다. 좀 남이 알아주는 점잖은 양반답게 알고도 모른 척,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있으면 좋으련만 전화벨만 울리면 벌써부터 신경을 곤두세우고 영덩이를 들먹들먹, 이쪽 눈치를 힐끗힐끗 도무지 가만히 앉아 있지를 못한다.

하지만 염려할 건 없다. 전화를 받을 때까지는 그렇지만, 일단 수화기를 들었다 하면 그렇게 목소리가 의젓하고 점잖을 수가 없으니까. <영등포의 밤>을 부른 어떤 가수처럼 처음으로 점잖게 나오니까.

“네, 전화 바꿨습니다.”

의젓하게 운을 떼고는 어느새 얼굴까지가 근엄해진다.

“아아, 이 선생이시요? 이거 적조했소이다. 집안도 다 무고하시고.”

잘 나간다. 그러다가 웃는다.

“㉢핫 핫 핫 핫, 원 별말씀을.”

‘핫’ 소리 하나에 꼭 일 초는 걸릴 만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높지도 낮지도 않게 웃는다.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배우들이 꾸며 대서 웃는 소리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정확한 간격으로 웃는다. 이를테면 새벽녘에 아직 잠자리에서 깨어나지도 않았는데 전화가 걸려 왔다고 치자. 우리 같으면 어쩌면 짜증도 나고 해서 받은 덜 깬 목소리로 더듬더듬 씨불일 것인데, 아저씨는 그렇지 않다. 방금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지 않게 어쩌면 그렇게 말도 의젓하고 또렷또렷한지 참 희한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요컨대 우리 아저씨는 남을 대할 때와 흥허물 없는 식구를 대할 때의 태도가 그렇게 다를 수가 없다. 식구들을 대할 때는 물론 심지어 나에게까지도 툭 터놓고 지나다가도, 일단 상대가 바깥 사람이 되고 보면 칼로 벤 듯이 싹 태도가 달라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아저씨의 허물을 고자질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아저씨에게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때인가 식구들이 다 나가고, 별로 할 일도 없어서 현 잡지를 뒤적이지니까, 아저씨의 사진이 커다랗게 나와 있고 곁들여 아저씨의 긴 글이 적혀 있었다. 다행히 그 잡지의 내용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아저씨의 글을 따라 읽던 나는, 이게 아닌데 하는 스스로의 의문을 풀지 못했다. 아저씨가 쓴 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 내용을 전부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그 요점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무엇이었던고 하니, 그 글의 골자는,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자면은 서로 입장을 바꾸어서 이해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우선 피차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정에서부터, 특히 부모와 자식간에 흥허물 없이 툭 터놓고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말인즉슨 그럴 듯도 한데, 내가 보기에 우리 아저씨가 식구들과 툭 터놓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되었다. 내 아둔한 생각으로도 글이라는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바를 남에게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그러자면 우선 자기 자신의 생활이 거기에 걸맞아야 하는 것일 텐데, 대화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우리 아저씨는 과연 집안에서 그런 일을 어쩌다가라도 가진 일이 있었던가. 없다 이거다. 물론 간간이 아저씨가 식구들과 얘기를 나누는 적은 있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말 아니면 잔심부름 따위를 시킬 때 뿐이지 아주머니나 아이들을 얹혀 놓고 초곤초곤 얘기를 하는 일을 별반 보지 못했던 것이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 집 식구들은 제각기 사업에 바빠서 서로 들고 나는 시간이 엇바뀌는 바람에 일동 집합하는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누는 다든가, 유식한 말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아저씨가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는 대화가 제일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뜻인지, 앵이 참.

(중략)

㊤얘기가 나온 김에 또 한 가지 털어놓아야겠다. 직접 나에게 관계되는 일이 되어서 좀 거북하지만 어쩌랴 싶다. 다름이 아니라 내 월급 얘기다. 장난감 사장 집에 있는 옆집 심순이는 심심찮게 월급이 야곰야곰 오르는데, 우리 집은 내가 내 입으로 꺼내기 전에는 도통 아무도 신경을 써 주지 않는다.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네는 인간적인 대우도 대우지만, 때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월급이 오르는 것을 깨소금 맛으로 알고 붙어 사는 건데, 우리 집 아저씨나 아주머니는 한 번도 자진해서 이 얘기를 꺼낸 적이 없으니 뿔따구가 날 밖에.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아주머니더러 알아들으라고 대놓고 말했다. 물론 정면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심순이의 예를 들어서 엇비슷이 빗대 놓고 말이다.

“옆집 심순이 있잖아요, 개는 이번 달부터 월급이 오천 원씩 더 오른다나요.”

“그래 너도 그만큼 올려 달라 이 말이냐?”

“꼭 그렇다기보담두…….”

“아니긴 뭐가 야냐. 요구를 할 양이면 정정당당히 얘기를 할 것이지 왜 송물스럽게 심순이는 갖다 붙이니.”

“아주머니도, 왜 제가 송물스러워요?”

“시끄럽다. 그건 그렇고 그 집은 장사하는 집이니까 돈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너도 알다시피 우리 집이

어디 부자니? 그러니 조금만 참아라.”

참아라. 참아라. 나는 아주머니에게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들어 온지 모른다.

그날 밤이었을까. 나는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앉아 있는 응접실로 커피를 나르러 갔다가 우연히 두 분이 내 월급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귀담아들었다. 두 분은 내가 들어가자 하던 얘기를 똑 그쳤는데, 이미 내가 들어가면서 들은 얘기는 분명히 이랬다. 아저씨의 말이었다.

“**잘 달래서 따둑거리라구.** 그리고 당신도 그렇지, 나처럼 바쁜 몸이 식모 월급까지 신경 쓰게 됐어?”

순간 나는 나도 모르게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끼면서 하마터면 쟁반 위의 커피를 었지를 뻔했다. 서운했다. 정말 서운했다. 물론 아저씨처럼 큰일을 하는 분이 나 같은 것의 월급에 참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아저씨의 바깥에서의 말이나 행동으로 견주어 봐서, 다만 말로라도 그렇다, 지나가는 말로라도 ‘거 좀 올려 주지 그래’ 이 말 한마디만 했더라도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서운해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른 집에서도 우리 같은 애들의 월급은 대개 아주머니들이 정하고 바깥양반들은 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 같은 애들의 가슴에서 국이 끓고 있는지 밥이 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래서 나쁜 것이 없지만, 일단 얘기가 나오거나 아내의 상의를 받으면 그래도 다소는 호의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이 **도량 있는 남자가 할 짓**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아저씨는 안 그랬다.

그런 다음 날 아저씨와 아주머니는 갈비짜이다 비단이다를 한 짐 잔뜩 차에 싣고는 어디론지 핑 나갔다. 그것이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지만 필경 아저씨보다도 더 높은 분에게 가는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다. 내외분은 그전에도 명절 때만 되면, 아니 비단 명절 때가 아니라도 수시로 선물을 싸 들고 어디론가 찾아가는 것을 보았으니까. ㊸그럴 때마다 나는 아저씨만큼 세상에 알려질 만큼 알려진 높은 분이 또 판 사람에게 교제할 리는 없고 어째서 그런 것일까 하고 고개를 가우똥거리곤 했다.

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놀란 토끼처럼 허리를 칠십 도로 구부리고, 후딱 하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젓한 자세로 얘기를 하고 걸려 오는 전화마다 받들어 모시듯 하는 우리 아저씨 같은 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다. 기왕이면 그런 집에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더 배우고 보는 것이 더 많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 아름답던 산도 막상 그 속에 들어가 보면 뭐가 뭔지 천방지축으로 좋은 건지 나쁜 것 인지를 모르듯이, 나도 너무 아저씨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어떤 때는 무엇이 아저씨의 정체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 오히려 좋은 점보다는 헬렐레한 구석이 더 자주 눈에 띄어서, 속으로 이 맹추야 너는 사람 볼 줄도 모르니 하고 스스로의 살을 꼬집는 때가 많다.

어려서의 경험이지만, 나는 우리 동네에서 십 리가량 떨어진 천방산이 먼 데서 볼 때에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다.**

하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이랑 패거리를 지어서 막상 그 산속에 들어가 고사리며 취나물을 캐다 보면 **우리 뒯동산이나 별다른 것이 없었다.**

지금의 내가 그럴까.

큰 나무의 바로 밑동에 서서 보면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듯이 지금의 내가 그럴까.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 최일남, 「너무 큰 나무」

[26001-0292]

11

〈보기〉를 참고하여 밑글의 ㉠~㉣에 대해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인칭 시점을 택한 소설은 서술자 ‘나’가 자신의 심리를 직접 설명하기 때문에, 독자는 작중 상황과 관련한 서술자의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인물에 대해서는 서술자가 관찰한 바를 기반으로 제한적인 정보만 제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자가 그의 심리를 이해하고 사건의 내밀한 진실을 파악하려면 보다 능동적인 추론을 해야 한다.

- ① ㉠은 상대가 전화로 아저씨를 찾는 이유에 대한 ‘나’의 추론을 제시한 부분으로,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상황에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독자에게 알려 준다.
- ② ㉡은 ‘나’의 속마음을 부가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화를 걸어 온 상대에게 서술자가 한 발화의 진의를 독자가 이해하게 한다.
- ③ ㉢은 ‘나’가 새로운 사건에 대해 서술할 것임을 예고하는 부분으로, 노출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서술자 관련 정보가 직접 제시되리라는 점을 독자가 짐작하게 한다.
- ④ ㉣은 월급에 대한 ‘나’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독자는 서술자가 다른 인물에게 한 행동의 이유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 ⑤ ㉤은 선물을 들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아저씨의 의도에 대해 제한적인 정보만 제시된 부분으로, 독자가 사건의 내밀한 진실을 파악하려면 작중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26001-0293]

12

밑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주머니는 이제껏 ‘나’에게 참으라는 말을 여러 번 해 왔다.
- ② ‘나’는 유명 인사의 집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꼈다.
- ③ 아저씨네 식구들은 각자 바쁜 일정이 있어 한자리에 전부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
- ④ 아주머니는 ‘나’가 심슨이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것이 당당하지 못한 태도라고 여겼다.
- ⑤ ‘나’는 다른 집 가장들이 아저씨와 달리 식모의 처우나 고민 등에 관심이 많다고 생각했다.

[26001-0294]

13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가 아저씨에게 느끼는 친근감이 더 커지게 한다.
- ② ‘나’가 아저씨를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여기게 만든다.
- ③ 아저씨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각한다.
- ④ 아저씨가 ‘나’에게 느낀 불쾌감을 숨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나’가 작위적인 연기를 비교 대상으로 연상할 만큼 규칙성을 띠고 있다.

[26001-0295]

14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너무 큰 나무」는 소위 사회 지도층에 속한 지식인들의 가식적이고 표리부동한 면모와 속물적 근성을 폭로한 풍자 소설이다. 이와 같은 이 작품의 비판적 주제 의식은, 순박한 식모인 ‘나’가 집 안에서 김 박사 부부의 일상을 관찰한 내용, 그리고 그에 관해 ‘나’가 제 나름대로 해석과 판단을 시도하는 내용 등을 통해 환기된다고 할 수 있다.

- ① ‘엉덩이를 들먹들먹, 이쪽 눈치를 힐끗힐끗’ 하다가도 전화를 받으면 ‘그렇게 목소리가 의젓하고 점잖을 수가 없’어진다는 것은, ‘나’가 관찰한 내용을 희화화하여 제시함으로써 김 박사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② ‘나’가 ‘이게 아닌데 하는 스스로의 의문을 풀지 못’하는 것은, 글이란 ‘우선 자기 자신의 생활이 거기에 걸맞아야 하는 것’이라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일상과 괴리된 주장을 글에 담은 김 박사의 표리부동한 면모에 의아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③ 월급 문제로 불만이 있는 ‘나’를 ‘잘 달래서 따둑거리라’고 아내에게 말할 만큼 따스한 마음씨를 가졌으면서도 ‘도량 있는 남자가 할 짓’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김 박사의 모습을 통해 사회 지도층이 지닌 가식적 면모를 폭로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④ ‘나’는 집 안에서 관찰한 김 박사의 모습이 세상에 알려진 것과 판이하다는 사실에 대해, ‘먼 데서 볼 때에는 어린 마음에도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던 천방산이 ‘우리 뒷동산이나 별다른 것이 없었’던 어릴 적 경험과 비슷하다는 해석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군.
- ⑤ ‘바로 밑동에 서서 보면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는 것처럼 집 안에서 김 박사를 관찰하다 보니 그의 정체에 대한 판단 시도가 난관에 봉착한 상황에서 ‘나’가 느낀 난감함이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를 통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군.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가**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는

선산 뒤에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말씀보다 큰 여백을 걸어 두셨다
 석양 무렵 동산에 올라가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서울에서 묻혀 온 온갖 잔소리들이
 방생의 시냇물 따라
 들 가운데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들어가고
 바다로 들어가 보이지 않는 것은 뒤에서
 팽팽한 바람이 뗏목의 발목을 툭, 치며
 다시 더 큰 여백을 일으켜
 막막궁산 오솔길로 사라진다

오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남아 있는
 둥근 여백이여 뒤편길이여
 모든 부재 뒤에 떠오르는 존재여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그리하여 여백이란 탄생이구나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날
 내 마음의 잡초 다 스러진 뒤
 네 사립에 걸린 노을 같은, 아니면
 네 발 아래로 쟁쟁쟁 흘러가는 시냇물 같은
 고요한 여백으로 남고 싶다
 그 아래 네가 앉아 있는

—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나 가을엔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
 내려놓을 것이 있다는 듯
 부러야 할 몸이 무겁다는 듯

가지가 휘어지도록 열매를 달았던 사과나무,
 열매를 다 내려놓고 난 뒤에도

그 휘어진 빈 가지는 퍼지지 않는다
아직 짙어질 게 남았다는 듯

그에겐 허공이, 열매의 자리마다 비어 있는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빈 가지에 나비가 잠시 앉았다 날아간다
무슨 축복처럼 눈앞이 환해진다
아, 네가, 네가, 어디선가 나를 내려놓았구나
그렇지 않다면 이토록
사과나무 그늘이 환해질 수 있을까
꽤맨 자국 하나 없는 나비의 날개보다
오늘은 내 백결(百結)*의 옷이 한결 가볍겠구나

아주 뒤늦게 툭, 떨어지는 사과 한 알

사과 한 알을 내려놓는 데
오 년이 걸렸다

— 나희덕, 「사과밭을 지나며」

*백결: 무수히 껌매 누더기가 된 옷.

[26001-0296]

15 (가)와 (나)의 공통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 어미를 반복하여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자연물을 활용하여 화자가 처한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26001-0297]

16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1연에서는 시적 대상의 변화된 모습을 포착하고 그 이유를 계절의 변화에서 찾고 있다.
- ② 2연에서는 조건이 달라졌음에도 복원되지 않는 자연물의 모습에 화자의 정서를 연결 지어 표현하고 있다.
- ③ 3연에서는 화자의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시적 대상의 변화와 관련지어 드러내고 있다.
- ④ 4연에서는 시적 대상 간의 분리가 일어나는 순간을 강조하여 화자의 내면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5연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기까지의 기간을 진술하여 그 변화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 이유를 강조하고 있다.

[26001-0298]

17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가)와 (나)는 이별과 상실을 경험하고 이를 수용하고 극복하는 화자의 모습을 담고 있다. (가)와 (나)의 화자는 부재를 통해 오히려 그 존재를 깊이 느끼기도 하고, 관계가 종결됨으로써 새로운 깨달음과 출발이 가능해진다는 상실의 역설을 발견하기도 한다. 특히 (가)의 화자는 이러한 발견을 통해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순환한다는 자연의 보편적 이치에 인간사 속 만남과 이별을 비추어 보고 있다.

- ① (가)에서 ‘모든 사라지는 것들 뒤에’ 비로소 떠오르고 탄생하는 존재가 있다는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자신의 경험을 보편적 이치에 비추어 이해하고 있군.
- ② (가)에서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때를 떠올리며 여백으로 남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은 만남 후에 이별이 온다는 깨달음 속에 화자 자신의 미래를 떠올려 보는 것이군.
- ③ (나)에서 ‘나비조차’ 무거워 보인다고 말하던 화자가 ‘나비의 날개보다’ 자신의 옷이 더 가벼울 것이라고 느끼는 것은, 관계의 종결을 인정하고 난 후의 후련함과 관련이 있겠군.
- ④ (가)에서 ‘무덤에 잠드신 어머니’를, (나)에서 ‘어디선가 나를 내려놓’은 이를 떠올리는 것은 화자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순환을 떠올리는 것이군.
- ⑤ (가)에서 ‘큰 여백’을, (나)에서 ‘열매보다 더 무거’운 ‘허공’을 언급하는 것은, 대상의 부재를 통해 오히려 그 존재를 깊이 느끼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바로 그때, 장선빙은 잠깐 정신이 들었으나 기운이 없고 어지러워 누워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공중에서 한 여자아이가 내려와 웃으며 말하였다.

“㉠아가씨! 이제는 모든 액이 다하였으니,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귀한 몸을保重하십시오. 저는 남해 용왕의 시녀입니다. 오늘 아가씨의 목숨이 위급하여, 용왕의 명으로 환혼주를 얻어 아가씨를 구하고 돌아 갑니다.”

그러고는 소매에서 대추 비슷한 것을 내어 주었다.

“그래도 아가씨의 정신이 평소와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먹으면 자연히 좋아질 것입니다.”

말을 마치고는 병을 들고 표현히 구름에 싸여 가니 그 종적을 알 수가 없었다. 장선빙이 시녀가 준 것을 먹자, 기운이 상쾌해지고 정신도 또렷해졌다. 가만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집이 아니라 배 안으로,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어떤 노인이 갈전에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 장선빙은 노인이 자기를 구하여 살렸음을 짐작하고, 설랑과 영춘은 필시 죽었으리라 생각되어 길게 탄식하였다. 그때 노인이 곁에 와서 물었다.

“어디 사람인데, 젊은 마음에 세상을 나쁘게 여겨 강물에 몸을 던졌는가? 옛날 먹라수에 빠져 죽은 굴원의 뒤를 따르려는 것인가?” / 장선빙이 급히 절을 하고 애처롭게 눈물 흘리며 말하였다.

“㉡저는 남방 사람입니다.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액운을 면치 못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다시 살려 주신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으니, 어르신께서는 부모와 다름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이 정하신 뜻이니, 어찌 나의 공이겠는가?”

장선빙이 다시 사례하다가 문득 보니, 설랑과 영춘이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장선빙이 놀라 붙들고 목 놓아 울었다. 설랑과 영춘 또한 장선빙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대성통곡하였다. 그 소리가 하늘에 사무쳐 태양이 빛을 잃고 산천이 슬퍼하니, 주위의 모든 사람이 차마 보지 못하였다. 이영이 비로소 주인과 노비 사이인 줄 알고 눈물이 어리어 위로하고 차를 권하였다. 세 사람의 마음이 조금 진정되자, 이영이 눈을 들어 장선빙을 살펴보았다. 얼굴은 흰 옥을 깎아 교묘하게 새긴 듯하였고, 눈썹과 섯별 같은 두 눈, 그리고 붉은 입술과 하얀 이는 맑고도 빛났다. 버드나무 같은 허리에, 봄바람 같은 기상이 넘쳐나 완연한 신선의 기질이 있었다. 마치 선계의 단산에 깃든 봉황과 같아 세속에 찌든 모습이 조금도 없었다. 이영이 감탄하고 크게 아끼어 말하였다.

“기이하다. 신선의 풍격이여! 무슨 일로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 큰 강의 고기밥이 되려고 하였는가? 고향은 어디며 성은 무엇인가? 또한 아버님은 누구인가? 알고 싶도다.”

장선빙이 울다가 경의를 표하며 자리에서 일어나며 대답하였다.

“저는 전 이부 상서 장자영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수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승상 익주후 장원의 친손자인가?” / “네, 그렇습니다.”

[중략 부분 줄거리] 장선빙의 정혼자 김희경은 장선빙이 죽은 줄로 알게 되고,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지내던 이영은 장선빙을 양자로 삼는다. 이후 김희경과 장선빙은 모두 과거를 보게 된다.

한편, 장선빙은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왔다가 마음속으로 결심하였다.

‘내가 4년 동안 남북을 입고 세상을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남자로 알고 있다. 그런데 아버님은 만 리 먼 곳에서 원통함을 품고 돌아가셨으나 그 원을 풀어 줄 사람이 없다. 이제 내가 비록 여자이나 만약에 장원 급제하면 위로는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 줄 수 있고, 이름을 후세에 전할 수 있으리니, 한번 나아가 구경이나 해 보리라.’

이에 이날 과거에 참여하였는데, 호명하는 소리를 들으니 자기의 이름과 김희경이었다. 김희경 또한 장자영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고는 놀라 생각하였다.

‘㉠내가 북해에 갔을 때 장 상서의 아들이란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오늘 또 이 말을 들으니 아들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왜 장 소저는 나에게 혼자라고 했는가? 혹시 나를 속인 것인가?’

하다가 다시 생각하였다. / ‘혹시 동명이인인가?’

의심하며 임금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한 소년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고운 얼굴과 뛰어난 풍격이 여러 사람 가운데 뛰어난 것을 본 김희경은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뻐하였다. 두 사람이 함께 어전에 이르자 임금과 여러 신하가 길이 칭찬하였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을 돌아보며 말하였다.

“㉡옥을 얻기 위해 진주를 버릴 수는 없는 법. 내가 이 두 사람을 모두 쓰려고 하는데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폐하께서 오늘 주식 같은 두 신하를 얻었으니 국가의 큰 행운입니다. 신들이 어찌 폐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김희경을 한림학사에, 장수정을 태학사에 제수하니, 두 사람이 임금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물러났다. 김희경과 장수정이 뛰어난 모습으로, 장원의 푸른 옷을 입고 금빛 안장을 얹은 백마를 탄 채로 화려한 일산을 숙여 궐문을 나오니, 길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그 기상과 풍도를 흠모하였다.

김희경이 돌아오자 김정 부부가 더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였다. 장선빙도 돌아오자 설랑과 영춘이 맞았다. 그런데 장선빙이 머리에 장원 급제한 계화를 꽂고,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또한 손에는 태학사 벼슬의 홀을 잡고 있자, 설랑과 영춘이 놀람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였다. 그러나 잠시 후 한숨을 내쉬며 나아가 아뢰었다.

“이제 아가씨께서 이렇게 귀한 몸이 되셨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또 도련님께서도 아가씨와 함께 급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는 고금에 드문 일입니다. 하지만 아가씨께서는 나중에 어찌시려고 이러십니까?”

“나도 본의 아니게 마지못해서 한 일이다. 아버님의 원통함을 풀기 위한 것이니, 만일 이 일만 이룰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 / 영춘이 말하였다.

“도련님께서 함께 급제하셨다고 하니, 아가씨께서는 당초의 맹약을 어찌하실 겁니까?”

“㉢일이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어찌하겠느냐? 머지않아 나를 찾아올 것이니,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대답할 말이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다음 날, 장선빙은 상소를 올려 장자영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그 품은 마음에 감동하여 즉시 애매함을 풀어, 장자영을 청주후로 추증하였다.

— 작자 미상, 『금한기봉』

[26001-0299]

01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장선빙은 자신이 배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 설랑과 영춘이 죽었다고 생각하였다.
- ② 이영은 설랑과 영춘이 장선빙이 있는 장소를 알려 준 덕분에 장선빙을 만날 수 있었다.
- ③ 신하들은 어전에 이른 김희경과 장선빙을 칭찬하고 임금의 뜻에 따르겠다고 하였다.
- ④ 김희경은 임금에게 한림학사 관직을 받은 이후 궐에서 나가 김정 부부를 만났다.
- ⑤ 임금은 장선빙이 상소를 올리자 장선빙의 아버지가 억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26001-0300]

0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상대방에게 바라는 점을 언급하고 자신이 한 행위와 그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 상대가 언급한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 ③ ㉢: 대상과 관련된 과거 일을 회상하며 대상이 이전에 했던 말의 사실 여부를 따져 보고 있다.
- ④ ㉣: 대상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며 상대방에게 두 대상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 상대가 물어본 내용과 관련해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며 상대의 걱정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26001-0301]

03

과거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게 되는 계기이다.
- ② 주인공을 시기하는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개죄된 것이다.
- ③ 주인공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활용하는 요소이다.
- ④ 주인공이 타인의 권유를 뿌리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다.
- ⑤ 주인공의 정체가 밝혀지며 인물 간의 갈등이 증폭되는 계기이다.

[26001-0302]

04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금환기봉」은 적강한 남녀 주인공의 기이한 만남에 중점을 둔 여성 영웅 소설이다. 이 작품에는 여성 인물이 정혼자와 이별한 뒤, 남성의 신분으로 살아가다 다시 정혼자와의 결연을 이루는 남장 결연담의 서사 구조가 드러나 있다. 작품에서 여성 인물은 비범한 면모를 드러내거나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여성 인물이 지닌 영웅적 형상을 부각한다. 수차례의 고난을 겪는 과정에서 여성 인물은 남장을 선택함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얻게 되는 등 자신의 능력을 여과 없이 보여 주는데, 개인의 애정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가문의 누명을 벗는 것에 있어서는 각각 다른 태도를 보인다.

- ① 장선빙이 정신을 차렸을 때 주위에 갈건에 베옷을 입고 앉아 있는 노인이 있었다는 것에서, 어려움에 처한 주인공을 돕기 위해 나타난 초월적 존재의 모습을 알 수 있군.
- ② 이영이 장선빙을 보고 감탄하며 고향과 성을 묻자 장선빙이 자신이 누구인지 답하는 것에서, 스스로 남성의 신분을 선택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③ 장선빙이 사람들이 자신을 남자로 알고 있다고 하며 장원에 급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는 것에서, 주인공이 남장을 수단으로 삼아 가문의 누명을 벗고자 함을 알 수 있군.
- ④ 장선빙이 푸른 옷을 입고 손에 홀을 잡고 있었다는 것에서, 주인공이 관직을 통해 사회적 지위를 얻었음을 엿볼 수 있군.
- ⑤ 설랑과 영춘이 장선빙이 급제한 일과 관련해 기뻐하면서도 우려를 드러내자 장선빙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는 것에서, 애정의 성취보다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인 주인공의 면모를 엿볼 수 있군.

[05~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가 ㉠산이 날 에워싸고
 씨나 뿌리며 살아라 한다
 밭이나 갈며 살아라 한다
- 어느 짧은 산자락에 집을 모아
 아들 낳고 딸을 낳고
 흙담 안팎에 호박 심고
 들쫓레처럼 살아라 한다
 쑥대밭처럼 살아라 한다
- 산이 날 에워싸고
 ㉡그믐달처럼 사위어지는 목숨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그믐달처럼 살아라 한다

- 박목월, 「산이 날 에워싸고」

- 나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고 싶다.
- ㉢참으로 흐른다는 것이 무엇인지
 흐름의 숨결로 키워 낸 진주는
 왜 슬픔처럼 영롱한 것인지
 알고 싶다.
- 하늘은 왜 우리에게
 햇살과 함께
 자유를 주었는가.
-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 바다에 가서
 바다가 되지 못하고
 날개가 되지 못하고
 왜 약속처럼 ㉣산으로 가는가.

산으로 가는가
한 벌 죽음으로 자유와 햇살 빼앗기고
㉔다만 혼자 제 목숨 갖고 가는가.

- 문정희, 「흐름에 대하여」

다 오호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선비가 벼슬을 하찮게 여겨 내던지고 아예 숲속으로 숨어들고 싶겠는가? 추구하는 도가 풍속과 어긋나고, 운명이 시대와 맞지 않을 때에만 고상한 생활에 몸을 던져 숲속으로 도피한다. 그런 선택을 하는 자의 마음이 가엾다.

요순이 다스리던 세상에서는 요순을 임금으로 모시고 군주와 신하가 서로 화합하고 도와서 정치와 교화가 잘 펼쳐졌다. 그럼에도 ㉕소부와 허유 같은 무리가 나타나 정사를 맡으라는 더러운 소리를 들었다고 귀를 씻었고, 제 몸이 크게 더러워지기라도 한 것처럼 표주박을 나뭇가지에 걸어 둔 채 세상을 버리고 떠나 버렸다. 이들은 또 무엇을 보여 주려는 것인가?

나는 어려서부터 제멋대로여서 아버지나 스승으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장성해서는 예의 엄치를 지키는 행실을 하지 못했다. 세상에 보탬이 못 되는 자질구레한 문장 솜씨로 젊은 시절부터 조정에서 나가 벼슬을 시작했다. 그러나 거침없고 도도한 행동 탓에 권세가로부터 미움을 사서 마침내 노장이나 불가의 무리 틈에 스스로 도피했다. 외물과 육신을 하찮게 여기고, 잃고 얻는 문제를 똑같이 보는 태도를 고상하게 보았다. ㉖세상사에 휩쓸려 되어 가는 대로 내맡기면서 미치광이나 망령된 자들과 어울렸다.

금년 내 나이 벌써 마흔두 살이다. 머리카락은 듽성듬성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저물어 가는 세월은 서두르건만 이루어 놓은 공훈이나 업적이 없다. 나 자신의 꼴이 적이나 안타깝다.

그러니 제일 낫기로는 사마자미나 방덕공처럼 산언덕이나 골짜기를 하나씩 차지하여 실컷 즐기고 마음먹은 대로 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다음 낫기로는 상자평이나 도홍경처럼 자식을 다 키워 낸 뒤 멀리 은둔하거나 벼슬을 사직하고 영구히 속세를 떠나는 것이지만 그렇게도 하지 못했다. 가장 못하기로는 사강락이나 백향산처럼 벼슬아치들과 뒹굴다가 산수에 오만한 기분을 푸는 것이지만 그렇게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반대로 권세를 쫓는 길 위에서 허둥대느라 한 해 내내 한가로운 때가 없었다. 털끝만 한 이익이나 손해에 얽은 경향이 없었고, 모기나 파리 같은 자들의 칭찬이나 비방에 마음은 요동을 쳤다. 걸음을 멈칫거리고 숨을 죽이면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조바심을 냈다. 큰 기러기가 높이 날고 봉황이 솟아오르며 매미가 허물 벗듯이 시원스럽게 혼탁한 속세를 벗어났던 옛날의 현자와 나 자신을 비교해 보았다. 지혜롭고 어리석기가 하늘과 땅 차이보다 훨씬 더 컸다.

(중략)

나는 재주가 모자라서 미처 도를 듣지 못했다. 그러나 성인이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나 관직은 고위 벼슬 아치고, 직책은 임금님의 교서를 짓는 자리에 있다. 어찌 감히 소부나 허유의 자취를 따르고자 요순 같은 임금과 결별하는 짓을 모질게 해치우고 고상한 척하겠는가?

㉗다만 시대와 운명에 부합하지 않아서 옛사람이 탄식한 점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 아직 몸이 건강할 때 조정에서 물러나기를 청하여 내게 주어진 천수를 누릴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없겠다. 훗날 숲 아래에서 세상을 버리고 속세와 인연을 끊은 선비를 만나게 되거든 이 책을 내어놓고 서로 논평하며 읽고 싶다. 그렇게 하면서 처음 먹은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 허균, 「한정록 서」

[26001-0303]

05

(가)와 (나)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독백적 어조로 화자의 체념적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 ② (가)는 (나)와 달리 대립적 시어를 병치하여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화자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물음의 형식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환기하고 있다.

[26001-0304]

06

㉠과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존재이고, ㉡는 화자가 삶의 과정에서 도달하게 되는 운명적 공간이다.
- ② ㉠은 화자의 삶을 고양하는 존재이고, ㉡는 화자가 경험했던 삶의 고통을 나타내는 상징적 존재이다.
- ③ ㉠은 화자가 귀의하고자 하는 공간이고, ㉡는 화자가 일시적으로 도피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 ④ ㉠과 ㉡는 모두 화자가 지향해 온 삶의 목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존재이다.
- ⑤ ㉠과 ㉡는 모두 화자가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위안을 얻게 되는 공간이다.

[26001-0305]

07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삶도 차오르면 언젠가는 기우는 달과 같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
- ② ㉢: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의문이 제시되어 있다.
- ③ ㉣: 자신의 삶은 궁극적으로 자기 선택의 결과라는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④ ㉡: 속세를 벗어났던 옛날의 현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의미한다.
- ⑤ ㉣: 옛사람과 자신의 공통점을 이유로 숲속으로 떠나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다.

[26001-0306]

08

(다)의 글쓴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벼슬살이를 하면서도 항상 자연에 귀의하기만을 희망하였다.
- ② 그동안 공훈이나 업적을 쌓아 두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 ③ 세속적 가치를 좇는 생활을 지속하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였다.
- ④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방에 동요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하였다.
- ⑤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권세가에게 영합하여 도도하게 행동하였다.

[26001-0307]

09

㉮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가 풍속과 어긋난 상황에서 보인 ㉮의 태도와 처세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
- ② ㉮가 숲속에 몸을 던져 생활하는 것은 자신만의 오만한 기분을 풀기 위한 것이다.
- ③ 훗날 ㉮와 같은 선비들과 함께하며 처음 먹은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희망한다.
- ④ ㉮가 세상을 떠난 것은 군주와 신하가 화합하여 정치와 교화가 잘 펼쳐졌기 때문이다.
- ⑤ ㉮가 도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벼슬을 하찮게 여기게 된 것이다.

[26001-0308]

10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 (나), (다)는 모두 자연을 인간의 삶과 연결 짓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각각의 작품에는 구체적인 자연 공간과 자연물이 제시되어 있는데, 화자와 글쓴이는 이러한 자연 공간과 자연물이 지닌 속성을 활용하여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나 삶의 고유한 속성을 드러낸다. 그리고 화자와 글쓴이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가치관을 자연과 연결 지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① (가)는 ‘산’이 화자에게 ‘살아라 한다’와 같이 말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나)는 ‘바다가 되고 싶다’와 같이 화자가 자신의 욕구를 직접 드러내는 방식으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들쫄레’, ‘쑥대밭’, ‘그믐달’은 수수함과 소박함이 느껴지는 자연물로서, (나)의 ‘바다’는 넓고 자유로운 속성을 지닌 자연물로서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고유한 속성을 나타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 ③ (가)의 ‘산’과 (다)의 ‘숲’이나 ‘산수’는 세속적 가치나 번잡한 세상살이로부터 유리되어 있는 공간으로 화자와 글쓴이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드러내는 기능을 하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죽음’을 통해 ‘자유와 햇살’을 빼앗기는 인간적 한계로 인해, (다)의 글쓴이는 ‘임금’과 모질게 결별할 수 없는 신하로서의 사회적 책무로 인해 이상적 자연 공간에 도달하는 것의 어려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나)의 화자는 삶 속에서 ‘진주’와 같이 영롱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다)의 글쓴이는 ‘사강락’, ‘백향산’처럼 ‘벼슬아치들’과 어울리다가 때때로 자연을 즐기는 것이 현재의 처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다.

[11~1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하룻밤 동안에 원터 앞뒤통들은 그야말로 상전이 벽해로 변하였다. 잘된 벼는 모조리 엮치고 앞뒤통—안승학이가 지적도를 위조하던 굵이친 회목—은 터져서 원터 동리 앞까지 복사가 들이밀렸다.

비는 그 뒤로도 연사흘을 와서 마침내 큰물은 을축년 이상으로 갔다. 큰내 방축은 상리에서 내려오는 상류 쪽으로 터져서 읍내 앞으로 대드니만큼 그 안에 든 벼들은 복사와 물속에 휩쓸려서 여지없이 전멸되고 말았다.

오종과 잘된 벼들은 이때가 마침 이삭이 나올 무렵이라 침수가 안 된 것도 바람에 엮쳐서 버릴 지경이다.

엮치지 않은 벼에는 잠으락[稻花]이가 떨어졌다가도 다시 올라붙어서 상관없으나 쓰러진 놈은 그런 작용도 할 수 없이 되었다.

인동이에 논은 마냥모인 데다가 ‘다마금’을 심어서 덜 팬 이삭도 많았거니와 배가 벌어진 놈도 까뭇까뭇하게 ‘관자’를 붙였다(관자 붙은 놈은 쪽정이가 된다). 읍내에도 침수 가옥이 수백 호나 되지마는 원터에도 쓰러진 집이 세 가구나 되고 반쯤 무너진 집이 십여 호나 되었다.

방축 위로 상리에서 흐르는 냇물이 윗대가 터지기 때문에 읍내 앞으로 내 하나가 새로 생겼다. 읍내 서리 쪽 언덕바지 빈민 부락의 담집들은 폭풍우에 거지반 무너진 중에도, 밤중에 ‘환난’을 당한 집은 몇 식구씩 치여 죽기까지 하였다.

S 청년회에서 구호반을 조직해 가지고 부근 각 동리와 읍내로 출동하였다. 희준이는 원터에 사는 까닭으로 자기 동리를 맡아보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상의한 후 두레 먹을 돈으로 이번에 수해를 많이 입은 사람에게 분배해 주기를 제의하였다. 그래서 우선 집이 무너져서 거처할 수가 없는 사람에게는 집을 짓도록 조력하였다.

날이 변쩍 들자 큰물이 지나간 벌판은 황량한 폐허와 같이 살풍경을 이루었다. 물에 나간 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렇지 않은 것도 마치 우박 맞은 김장밭같이 짓대겨졌다. 농사는 큰 흉년이다.

원터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였다. 마을에서는 푹푹! 푹푹! 재목을 다듬는 소리가 들린다.

원철이 집 마당에는 김 선달, 덕철이, 백룡이, 쇠득이, 누구누구가 모여 앉았다. 원철이는 재목을 다듬고 있었다. 남의 빛은 더 지더라도 머느리가 다치기까지 하게 방이 무너진 것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재목을 사왔다.

그래서 인동이는 동중에서 두렛돈 나눠 준 것을 도로 되하였다. 박성녀는 그 말을 듣고 아들을 책하였다.

“애야, 한 푼이 새로운데 왜 그랬니. 우리 집도 무너져서 주는 것을 왜 안 받는단 말이나. …… 네가 받기 싫으면 내가 받으마.”

“그만뒤요. 우리는 그 돈 아니라도 집을 고치지 않수.” / “그건 그제고 이젠 이제지.”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그도 좋은 일 아니겠수.”

[A] “아따, 기 애는 별말을 다 하네. 누가 남 위해 산다더냐.”

인동이는 욕심내는 모친의 꼴이 보기 싫다. 그는 여태까지 늙어 가도록 그렇게 욕심을 피워서 무엇을 모았던가? 가난뱅이의 욕심 채우기란 가난을 저축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는 만일 음전이가 그런 말을 한다면 당장에 불치를 올리고 싶었다.

“인제 꼭 죽었으니 이 일을 어째야 종단 말인가?”

조 침지는 한숨을 내쉬며 시름없는 말을 꺼내었다. 그는 하루에 이 말을 적어도 열 번 이상을 하는 것 같다.

“아따, 귀끼면 아저씨 한 분만 귀끼겠수. 대동지환으로 죄다 죽을 판인데요 뭐.”

김 선달은 이런 판에도 활발한 기상을 보였다.

“그래도 있는 사람들은 끄떡없지 않겠나.” / “그야 그렇지요.”

“어떻게 마름뎌에 잘 말해서 소작료를 감하든지 해야지. 무슨 변통을 하든지…….”

“감할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탕감한대도 소출이 없을 터인데요.” / “그럼 그렇구말구.”

다른 사람들도 여출일구로 김 선달의 말에 동의한다.

작인들의 관심은 차차 소작료를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물론이 돌기 시작하였다.

“희준이 자네 논은 수파 안 당했나?” / “왜 안 당해요. 죄다 앞치고 복새가 나갔는데요.”

“그러니 어떻게들 산단 말인가?” / “어떻게든지 살겠지요.”

그들은 지금은 희준이를 의미 있게 쳐다보며 무엇을 하소연하는 것 같다.

[중략 부분 줄거리] 마을 사람들은 마름인 안승학을 찾아 수재로 인해 소작료를 면제해 달라고 하지만 안승학은 지주의 뜻을 핑계 대며 들어주지 않는다. 결국 소작인들은 직접 지주와 담판하러 비밀리에 상경하고, 마름과 작인 간의 갈등을 눈치챈 지주는 타작관을 내려보내기로 한다.

안승학은 그런 기별을 듣고 나서 다시 지주의 그런 편지를 보고 나니 그들의 소위가 여간 껄뽀하지 않았다. 그래 그는 단단히 양심을 먹고 어디 두고 보자고 작인들을 버리고 있었다.

그는 우선 먼 서기를 다니는 자기 동생을 오라 해서 전후사연을 자세히 설파한 후 그것은 오로지 희준이의 사촉*이라는 것을 던지시 말하고 앞으로 그들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당부하였다.

그러나 벼는 베려면 아직도 멀었다. 벼가 익기도 전에 베랄 수도 없는 일이요, 작인들이 그 뒤에는 가만히 있고 보니 그는 다시 무어라고 손을 댈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 그는 학삼이를 내놓아서 오직 그들의 행동을 주야로 탐문하라는 부탁을 해 놓고, 그리고 그에게서 무슨 보고가 들리기만 고대하였다.

그래서 만일 어떤 불온한 공기가 보인다면 그는 즉시로 전횡줄을 대고 있는 읍내 사는 동생에게 기별하여서 그들의 계획을 미연에 부숴뜨리자는 심산이었다.

한편으로 희준이는 안승학이가 자기의 뒤를 밝을 줄을 결코 모르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학삼이가 자기네의 행동을 내탐하는 줄도 알았다. 그뿐 아니라 그는 길동 아버지의 연통으로 민 지주에게서 편지가 온 사연까지 들을 수 있었다.

길동 아버지는 겉으로는 안승학에게 심복인 척하며 유유복종하는 모양을 하고 있으나 속으로는 항상 그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도 그전에 안승학이가 구차하게 지낼 때는 오히려 승학이보다도 잘살았다. 그리고 또, 지체도 그리 떨어질 것이 없는데, 어찌하다가 패가를 한 후 오늘날 제집에서 행랑살이를 한다고 아주 하인처럼 천대하는 것이 속으로 불쾌하였다.

그렇다고 후하지도 않고 보니 자연 주인의 험구를 아니 할 수가 없었다. 그런데 희준이로 말하면 이웃 사람들의 일을 자기 집 일 보듯 보살펴 줄 뿐 아니라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길동네네도 자연 그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된 것이었다.

희준이는 민 지주가 안승학에게 책망을 하고 타작관을 내려보내서 잘 처리하겠다는 말을 듣고, 속으로 회심의 웃음을 웃었다. 그렇다면 안승학을 다시 건드릴 것도 없다. 가만히 못 들은 척하고 있다가 타작관이 내려와서 간평을 할 때에 서두를 일이다. 다만 그동안에 단속만 잘하고 있으면 그만이다.

그래 그는 작인들 중 모모에게 그런 말을 하고 그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그리고 이번 물난리로 가옥이 무너진 사람들을 위하여 동중이 협력해서 조력하도록 동독하였다.

이때 동안 [두레]를 내서 이웃 간에 친목이 두터운 마을 사람들은 불의의 손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아끼지 않았다.

그전 같으면 앞뒷집에서 굶어도 서로 모르는 척하고 또한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는데 그것은 그들의 처지가 서로 절박하여서 미처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을뿐더러 날로 각박해지는 세상인심은 부지중 그렇게만 만들어 놓았던 것인데, 지금은 굶는 사람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려는 호호한 인간의 훈김이 떠올랐다.

두 되만 있어도 서로 꾸어 먹고 한 톨이라도 남의 사정을 보려 들었다. 그것은 누구를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웃 간에서 누가 굶는데 양식 있는 집으로 먹이를 꾸러 갔다가 그 집에서 거절을 하는 지경이면 그 집과는 수화를 불통하고 안팎 없이 발을 끊는다.

지금 학삼이네가 그렇게 온 동리 사람에게 돌려내서 일꾼도 타 동리에서 얻어 와야 할 형편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두렵기도 하였다.

- 이기영, 「고향」

* 사족: 남을 부추겨 좋지 않은 일을 시킴.

[26001-0309]

11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동의 모친은 아들의 행동이 자신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치며 힐난하고 있다.
- ② 인동은 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타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모친이 욕심내는 것을 마뜩잖게 생각한다.
- ③ 조 침지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절망적으로 인식하며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 보지만 뽀족한 수가 없어서 낙담하고 있다.
- ④ 김 선달은 조 침지의 걱정과 대해 모두가 어려운 형편이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사람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
- ⑤ 김 선달은 소작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름에게 제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하고 있다.

[26001-0310]

12

〈보기〉를 참고하여 ‘안승학’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마름 안승학은 고전 소설의 인물 형상화 방식처럼 선악의 이분법으로 재단되고 성격이 일관되게 유지되는 인물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긍정적인 면모와 부정적인 면모가 동시에 드러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안승학은 누구보다도 먼저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과도기적 혼란 속에서 자기의 지위와 부를 구축한 인물이다. 계산적 합리성을 갖춘 긍정적인 면모를 보면서도, 기존 지배 구조를 위협하는 존재와 적극적으로 대결하여 농민을 착취하는 등 이기적 측면도 함께 지니고 있어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독자는 일제 강점기의 허약한 경제 현실을 엿볼 수 있다.

- ① ‘지적도를 위조’하고 ‘전환줄을 대고 있는’ 동생을 이용하는 모습 등을 통해, 근대적인 문물을 익숙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지위와 부를 구축하는 현실 감각이 있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군.
- ② 동생에게 소작인들의 움직임을 설명하고 ‘그것은 오로지 희준이의 사촉이라는 것’을 말하며 감시를 부탁하는 것을 통해, 희준을 기존의 지배 구조를 위협하는 존재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결하려는 부정적인 면모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군.
- ③ 소작인들의 입장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며 ‘벼가 익기도 전에 베탈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계산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선악 구도의 중립적인 위치에 놓이는 인물이라고 판단할 수 있군.
- ④ 소작인들의 움직임을 ‘불온한 공기’로 인식하며 ‘그들의 계획을 미연에 부숴뜨리자는 심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농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물이라고 파악할 수 있군.
- ⑤ ‘그전에’ ‘구차하게 지낼 때’도 있었지만 현재는 소작인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혼란기 속에서 지위가 변화한 인물로, 이를 통해 독자는 당대 현실을 짐작할 수 있겠군.

[26001-0311]

13

‘원터’ 마을 사람들이 인식하는 [두레]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궁핍한 현실 때문에 서로 각박해지는 세상의 인심으로 인해 운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조직이다.
- ②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발동하는 협력체로서 혈연적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조직이다.
- ③ 농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입이 이루어지며 이웃 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직이다.
- ④ 마을의 환난이 있을 때 민관이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지주와 소작인의 계층을 구분하여 운영되는 조직이다.
- ⑤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이기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공동체의 유대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조직이다.

[26001-0312]

14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1930년대 조선은 근대 자본주의로 급격히 이행하면서 농촌은 안팎으로 피폐해지며 전통적인 사회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농민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졌다. 「고향」은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조선 농촌의 현실을 윈터 마을 사람들의 삶을 통해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무지했던 윈터 마을의 소작농들이 부당한 경제 구조에 점차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과정을 보여 주는데,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김희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김희준은 단순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을 넘어, 정신적으로도 농민들과의 연대를 중요시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는 과거 사회주의 소설들이 부자와 빈자의 대립 속에서 빈자의 분노를 일방적으로 부각하거나, 무지한 민중을 계몽 대상으로 삼았던 태도와는 구별된다. 이 작품은 근대 자본주의가 확산되던 농촌의 황폐화 속에서도, 서로 연대하며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이들의 희망을 담아내고 있다.

- ① 폭우로 ‘환난’을 당한’ 마을 사람들의 막막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마름인 안승학이 ‘앙심을 먹고 어디 두고 보자고 작인들을 버르고 있’는 것에서, 안팎으로 피폐해진 농민들의 곤궁한 삶을 엿볼 수 있군.
- ② 수해를 입은 뒤에 ‘소작료를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물론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에서, 소작농들이 부당한 경제 구조에 대해 함께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군.
- ③ 길동 아버지가 안승학보다 희준을 더 신뢰하는 것은 그가 ‘이웃 사람들의 일을 자기 집 일 보듯 보살펴’ 주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는 경험에서 비롯한 것으로, 희준에게 정신적으로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희준이 소작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타작관이 내려와서 간평을 할 때에 서두를 일’이라고 ‘회심의 웃음’을 짓는 것에서, 무지한 민중을 계몽 대상으로 삼았던 여타 소설의 방식과는 달리 민중과의 연대 의식을 강조한 인물 형상화 방식을 엿볼 수 있군.
- ⑤ 소작인들이 예전과 달리 ‘두 되만 있어도 서로 꾸어 먹고 한 톨이라도 남의 사정을 보려’하고 그것이 ‘유익’한 일이라 생각하는 분위기가 된 것은 농민과의 연대를 중요시하는 김희준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임을 짐작할 수 있군.

[15~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보고 싶네 보고 싶네 임의 얼굴 보고 싶네
 인생이 생겨날 때 이목구비 같건마는
 천만 사람 누구를 알리 다시 못 볼 임이로다
 무심하다 저 여자야 가련하다 이내 청춘
 임 못 봐서 병이 되고 임 못 잊어 원수로다
 첩첩한 이내 시름 골수에 젖었으니
 식불감미*하고 침불안석*이라
 답답한 이내 생각 임 못 본 탓이로다
 나는 홀로 병이 들어 다만 한숨뿐이로다
 아무리 허사인들 무단히 잇을까
 임 생각하고 지는 눈물 베개 아래 소(沼)이로다
 나 죽은 무덤 위에 네가 나를 찾아오며
 너 죽은 무덤 위에 내가 너를 찾아가라
 네 한 몸 위하여서 만사가 뜻이 없네
 이내 몸 죽어지면 언제 다시 생각할까
 일신이 천금보*니 그 아니 가석*한가
 열녀 정절 본받으면 천만년을 살 것인가
 임아 임아 각시님아 나의 목숨 살려 주소
 화무십일홍*이요 세무십년리*라
 이내 경상* 돌아보소 이내 심정 가련하오
 너로 하여금 든 병이니 한 번 사정 허하여라
 목석이 아니거든 인정조차 없겠는가
 이런 일 생각하니 눈에 암암 귀에 쟁쟁
 상사불견*하던 몸이 ㉠황천객이 되리로다

- 작자 미상, 「규수상사곡」

*식불감미: 근심과 걱정으로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음.

*침불안석(寢不安席): 걱정이 많아서 잠자리에 들어도 편안히 잠들지 못함.

*천금보(千金寶): 천금과 같이 소중한 보배.

*가석(可惜): 애뜻하게 아깝고 가없는 것.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열흘 붉은 꽃이 없다는 뜻으로, 한 번 성하면 반드시 머지않아 쇠해짐을 이르는 말.

*세무십년리(勢無十年利): 아무리 높은 권세라도 십 년을 가지 못함.

*경상(景狀): 좋지 못한 물결.

*상사불견(相思不見):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만나지 못함.

나 임 그린 상사몽이 ㉡실솔의 뉘이 되어
 추야장(秋夜長) 깊은 밤에 임의 방에 들었다가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깨워 볼까 하노라

- 박효관

[26001-0313]

15

(가)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입을 영원히 못 볼 것만 같다고 생각하며 시름겨워한다.
- ② 입을 향한 그리움에 입맛을 잃고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
- ③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을 갈구하는 자신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긴다.
- ④ 열녀를 본받는 것보다 입이 자신과의 사랑을 이어 가는 것에 큰 가치를 부여한다.
- ⑤ 자신이 입을 그리워하며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입이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26001-0314]

16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사랑의 좌절로 인한 절망감을, ㉡는 입을 보고 싶은 간절함을 표상한다.
- ② ㉠는 야속한 입에 대한 원망을, ㉡는 화자에 대한 입의 변함없는 신뢰를 표상한다.
- ③ ㉠는 사랑의 성취를 향한 강한 열망을, ㉡는 사랑의 성취에 대한 좌절감을 표상한다.
- ④ ㉠는 이별할 수밖에 없는 입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을, ㉡는 이별한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를 표상한다.
- ⑤ ㉠는 자신을 떠난 입이 겪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을, ㉡는 자신은 안중에도 없는 입에 대한 섭섭함을 표상한다.

[26001-0315]

17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사람들은 이별의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을 현재 경험한 듯 떠올리기도 하고,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재구성하기도 하며, 특정한 상황을 가정하여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등 현재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상상을 하기도 한다. (가)에서 남성 화자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여인과의 이별로 인한 그리움을 현실에 기반한 상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반면, (나)의 화자는 변신 모티프를 통해 만날 수 없는 입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비현실적 상상으로 입에 대한 그리움을 해소하고자 한다.

- ① (가)의 화자가 입과의 이별 후에 ‘홀로 병이 든’ 상황에서 ‘나 죽은 무덤’을 떠올리는 것은, 죽음의 상황을 상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자신의 마음을 강조한 것이군.
- ② (가)의 화자가 입을 향해 ‘나의 목숨 살려’ 달라고 하며 ‘인정’을 베풀 것을 호소하는 것은, 현실에 기반한 상상으로 입이 자신의 마음에 화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것이군.
- ③ (가)의 화자가 이별한 입을 떠올리며 ‘눈에 암암 귀에 쟁쟁’하게 느끼는 것은, 현재 부재하는 입이지만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재구성하는 상상을 통해 그 모습을 느끼고 있는 것이군.
- ④ (나)의 화자가 ‘상사몽’을 통해 다른 존재가 되어 ‘입의 방’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은, 변신 모티프를 통해 입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비현실적 상상이 드러난 것이군.
- ⑤ (나)의 화자가 입의 상황을 ‘날 잊고 깊’은 잠을 자고 있다고 한 것은, 특정한 상황을 상상하여 입에 대한 서운함의 정서를 드러낸 것이군.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작품으로 이해하기 ① 예시 답안

본문 9~11쪽

01 ④

02 ②

03 ㉠: 기러기 ㉡: 열 십자

■ 김소월, 「길」

해제 ▶ 이 작품은 고향을 상실한 채 떠돌아야 하는 나그네의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일제 강점기라는 시대적 배경을 고려할 때, 이 작품은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정처 없이 유랑해야 했던 민족의 비극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인 3음보 율격을 변주하여 방황하는 화자의 비애를 표현하고 있으며, 대화하듯 건네는 말투, 방황성을 상실한 '길'이라는 공간적 배경, 감정 이입이 가능한 소재의 사용 등을 통해 삶의 뿌리를 잃은 화자의 절망과 허무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갈림길 한가운데에서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한 채 서 있는 화자의 모습은, 일제 강점기 고난 속에서 주체적 삶의 길을 잃었던 우리 민족의 비애와 좌절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 ▶ 고향을 잃고 방황하는 나그네의 비애

구성 ▶

- 1연: 방황하는 나그네로서의 화자
- 2연: 정처 없이 떠도는 일상의 반복
- 3연: 갈 곳 없는 화자의 막막함
- 4연: 고향에 갈 수 없는 현실
- 5연: 기러기에게 길을 묻는 자조적 시선
- 6연: 방향을 상실한 화자의 방황
- 7연: 아무 길도 선택할 수 없는 절망감

01 ④ '공중엔 길 있어서 잘 가는가?'에서 의문형 종결 방식을 사용한 것은 화자의 정서를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시 전체의 율격의 통일성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호흡을 세 마디로 끊어 읽는 율격을 활용하여 시 전체의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각 연에서 시행의 길이는 유사하면서도 각각 차이점을 보이며 변주되고 있다. 이는 현대시의 운율 형성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못 가오', '곳이라오', '새었소', '섰소', '없소' 등에서 청자에게 말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오'와 '-소' 등의 종결 어미를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⑤ '가왓가왓', '갈래갈래' 등 동일한 단어가 중첩되는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대상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며 이것은 시

적 의미와 주제를 드러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02 ② '오늘은 / 또 몇 십 리 / 어디로 갈까'에서 화자는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으로서 목적지 없이 방황하는 고단한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화자가 관념 속에서 인생의 길을 탐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종교적 진리를 구하고자 하는 갈망과도 거리가 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를 참고하여 이 작품에서 '길'의 의미가 나그네의 여정임을 주목할 때, '가마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어제도' 밤을 지새웠다는 것은 끝없이 이어지는 여정으로 인한 화자의 외로운 처지와 불안한 심리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산으로 올라갈까 / 들로 갈까'는 방황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낸 것으로, 목적지가 없는 나그네의 처지를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정주 객산'을 '차 가고 배 가는 곳'으로 인식하는 것은, 차나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곳임을 화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자는 고향에 갈 수 없는 처지임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보기>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나그네의 여정이 일제 강점기의 고단한 유랑민의 삶의 행로를 드러낸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내게 바이 갈 길은 하나 없소'에서 드러난 화자의 정서를 이와 관련하여 이해할 수 있다.

03 이 작품에서 나그네의 처지인 화자는 '갈래갈래 갈린 길'의 '열 십자' 한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방황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화자의 처지와 달리 '저 기러기'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비상하고 있는 대상으로서 화자와 대비를 이루고 있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② 예시 답안

본문 13~14쪽

01 ㉠: (가), (다) ㉡: (나) ㉢: (다)

02 ㉠: 가장(家長), (손자의) 할아버지 등 ㉡: 농부

03 ⑤

㉠ 안민영, 「고을사 저 꽃이어～」

해제 ➤ 이 작품은 활짝 피었다가 지고 있는 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소회를 읊은 시조이다. 완전히 피어 있지도 않고 완전히 시들지도 않은 상태의 꽃에 대한 예찬의 어조가 두드러지지만, 모든 꽃은 끝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이 소리이므로 머지않아 완전히 시들게 될 꽃에 대한 안타까움의 정서를 깔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인생에 대한 비유로도 읽을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삶의 절정기를 넘어 어느 정도 노화한 나이로 접어드는 사람의 인생을 예찬하는 노래가 된다.

주제 ➤ 지고 있는 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예찬과 안타까움

구성 ➤

- 초장: 반쯤 시든 꽃의 고운 자태
- 중장: 반쯤 시든 꽃이 그대로 있기를 바람.
- 종장: 나비를 맞이하는 꽃의 표정

㉡ 오경화, 「피골피골 우는 소리에～」

해제 ➤ 이 작품은 봄을 배경으로 하여 삼대가 어울려 사는 한 가정의 한가롭고도 평화로운 일상을 담담하게 묘사한 시조이다. 가족 구성원들이 각각 낮잠을 즐기고 글을 읽고 배를 짜고 꽃놀이를 하고 술을 거르는 모습을 묘사하는 가운데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한 가정의 평화로운 일상

구성 ➤

- 초장: 피꼬리 울음소리에 낮잠을 깬.
- 중장: 아들, 며느리, 손자의 평화로운 일상
- 종장: 아내가 술을 거르고 맛보기를 권함.

㉢ 이규보, 「농부를 대신하여 읊다」

해제 ➤ 이 작품은 농민들을 수탈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는 지배층에 대한 반감을 비교적 직설적으로 표현한 한시이다. 작가인 이규보는 고려의 무신 집권기에 관직에 진출하여 활약한 사대부로서 민중들의 고난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았다. 이 작품은 특히 수탈당하는 농부를 화자로 설정하여 지배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귀족 계층에 대한 농부의 원망

구성 ➤

• 1연: 왕손 공자들이 자신들을 알보는 데 대한 농부의 항변

• 2연: 때가 되기 전부터 조세를 걷는 데 대한 농부의 항변

01 (가)에서는 ‘저 꽃이어’, (다)에서는 ‘왕손 공자들이’라고 하여 시적 청자를 명시하고 있으며, 각각은 이들 명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어조를 취하고 있다. (나)에서는 피꼬리 울음소리에서 청각적 심상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글을 읽고’, ‘배 짜는데’가 연속되는데, 이는 화자가 잠에서 깨어 일어난 시점에 다른 공간에서 들려오는 소리로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청각적 심상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다)의 마지막 행에서는 설의적인 문장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02 (나)는 피꼬리 울음소리가 들리는 집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는 한 가정의 모습을 순간적으로 포착한 작품이다. 화자는 ‘작은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지어미’가 무엇을 하는지 차례대로 나열하고 있다. 이로 보아 화자는 ‘작은아들’의 아버지, ‘며느리’의 시아버지, ‘손자’의 할아버지, ‘지어미’의 남편임을 알 수 있다. 즉 한 가정의 어른이라는 의미의 ‘가장’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에서는 ‘우리 농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화자가 농부(들)임을 알 수 있다. 이규보는 고려의 문신으로서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을 화자로 설정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3 ⑤ (다)에서 ‘햇곡식’은 농부들이 가꾸는 대상이고, ‘조세’는 햇곡식을 가꾸는 노동이 끝난 후에 납부해야 하는 의무이다. 곡식을 거두면 조세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에서 제도적으로 인접해 있다. 그러나 (다)에서 ‘조세’는 아전들이 성화를 부리며 거두어 가려고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수탈’의 한 방법으로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조세’를 노동의 보람으로 볼 수는 없다.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작품으로 이해하기 ③ 예시 답안

본문 16~18쪽

01 (1) × (2) × (3) ○

02 ④

03 [A]에서 초점화자는 칠복으로,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칠복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주목하게 됩니다. [B]에서 초점화자는 봉구로,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봉구의 칠복에 대한 죄책감(미안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 문순태, 「징 소리」

해제 ▶ 이 작품은 1970년대 수몰 지구를 배경으로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농촌 현실과 실항민들이 겪는 아픔을 사실적으로 그려 낸 단편 소설이다. 칠복은 농촌 출신 빈민을 대표하는 인물로, 댐 개발로 인해 재산과 고향을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한다. 모든 것을 상실한 채 마을로 돌아온 칠복은 징을 울리면서 한과 슬픔을 토해 낸다. 그가 울리는 징 소리는 비인간화되어 가는 현대 사회에 대한 비판과 공동체적 삶의 회복에 대한 염원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 산업화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실항민의 한

전체 줄거리 ▶ 칠복은 낚시꾼들을 방해하며 징을 울리다 종종 매를 맞곤 한다. 마을 사람들은 댐 건설로 호수에 잠겨 버린 방울재를 떠나 매운탕 장사로 생계를 이어 가고 있으며, 칠복을 동정하면서도 그를 내쫓으려 한다. 원래 칠복은 일찍 부모를 잃고 외가에서 머슴처럼 살다가, 도시에서 온 순덕과 결혼했다. 순덕은 곧 도시 생활을 원했고, 결국 부부는 광주의 사글셋방에서 어렵게 살아간다. 칠복은 농사 품팔이로 번 돈을 들고 집에 돌아왔다가,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한다. 이후 징을 들고 방황하던 그는 다시 마을로 돌아오지만, 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마을 사람들은 결국 칠복을 버스에 태워 쫓아낸다.

01 (1) 칠복은 ‘시골에서 벌어들인 돈마저 모두 깨 먹어 버리고, 얼마 안 남은 산동네 사글셋방값마저 찾아 쓴’ 상황에서 ‘방울재에서 나올 때 나뉘어 가진 낱물인 징 하나만’은 간직한 채 떠돌아다니다가 고향으로 돌아온다. 잃어버렸던 징을 되찾으려 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2) 강촌 영감은 자신을 내쫓지 말아 달라는 칠복의 애원에도 ‘안 가겠다면 덕석물이를 허서라도 내쫓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봉구, 덕칠, 팔만도 칠복의 애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강촌 영감과 함께 칠복을 ‘억지로 버스에 태워 쫓아’낸다.

(3) 봉구는 마을을 떠나는 칠복의 등에 업힌 딸아이가 기침을 하자 ‘잠바를 벗어 덮어줘 주’고 버스가 도착하자 ‘천 원짜리 두장을 칠복이의 호주머니에’ 넣어 주는 등, 칠복 부녀에게 동정을

표하면서 칠복을 배웅한다.

02 ④ 칠복이 ‘다시는 휘방 치지 않겠’다면서 자신을 내쫓지 말아 달라고 강촌 영감에게 비는 것으로 보아, 방울재 사람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점을 이유로 칠복을 쫓아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칠복의 환각을 구실로 칠복을 쫓아내고 있다는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칠복은 ‘환각’ 속에서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정월 대보름날 밤 매귀굿을 할 때처럼’ ‘춤을 추고 싶어져’ 징을 찾아 들고 춤을 추게 되었다.

② 칠복은 ‘거렁뱅이 신세가 되어’ 타향을 떠돌다가 징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왔고, 예전의 모습이 사라진 고향에서 ‘환각’을 겪으며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과 ‘거대한 댐’이 아닌 수몰되기 전 고향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③ 칠복은 ‘환각’을 통해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을 보고 그들과 ‘정월 대보름날 밤 매귀굿을 할 때처럼’ ‘춤을 추고 싶’은 마음을 느낀다. 이를 통해 ‘환각’에는 방울재 사람들과의 유대에 대한 칠복의 그리움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칠복은 돌아온 고향에서 ‘환각’을 통해 현재의 ‘방울재를 삼킨 호수의 물’과 ‘거대한 댐’이 아닌, 과거의 ‘낮익은 하늘, 반갑게 맞아 주는 마을 사람들’을 본다. 이는 방울재의 모습을 현재 상태와 다르게 지각하는 칠복의 정신 상태를 보여 준다.

03 [A]에서 서술자는 칠복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칠복이 고향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과 그로 인한 칠복의 행동을 제시하고 있다. [B]에서 서술자는 봉구의 시선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봉구가 칠복을 떠나보낸 직후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끼는 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④ 예시 답안

본문 20~22쪽

- 01 • 해당 구절: 응서의 칼이 ~ 추풍낙엽 같으니
• 평가의 내용: 김응서의 탁월한 무력(武力)에 대한 예찬
- 02 적의 침입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자면 서도 눈과 귀를 열어 둬.
- 03 ②

■ 작자 미상, 「임진록」

해제 ②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조선의 정치 상황과 전쟁의 경과를 통해 일반 민중들과 이름난 전쟁 영웅들의 활약을 보여 주는 역사 소설이다. 지문에는 여러 이본 중 경판본을 수록하였다. 봉당 정치로 인한 어지러운 정치상, 평수길의 조선 정벌 준비와 조선 침범, 이순신의 승리, 명나라 구원병의 참전, 그리고 사명당 등 여러 인물의 활약을 형상화하였다. 역사적인 사실에 기반하면서도 설화적 상상력을 가미하여 흥미를 더하는 한편 왜적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하였다. 「임진록」 전체가 단일한 서사 구조로 응집되어 있지 않고 인물이나 사건을 중심으로 다수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지문에 주어진 내용은 평양성 전투에서 기녀 계월향의 도움을 받아 왜장 소서비의 목을 벤 장수였던 김응서에 대한 사실적 기록을 서사적으로 재구성한 대목이다.

주제 ② 왜적의 침입에 대응하는 김응서의 활약

전체 줄거리 ② 왜국에서는 평수길이 태어나고 조선에서는 조헌이 왜란을 예언하나 갑산으로 귀양을 간다. 왜국의 장수들이 조선을 정탐한 데 이어 황윤길 등이 왜국에 사신으로 다녀온 후 곧장 왜국의 침범이 시작되고 조선은 패전을 거듭한다. 선조는 북쪽으로 피신한 채 명나라에 구원병을 요청하고, 김응서와 이순신 등의 활약으로 왜군을 격퇴한다. 명나라 장수 이여송의 트집으로 선조는 굴욕을 당하게 되고 이순신은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며, 평수길의 죽음으로 전란이 끝나게 된다. 이후에도 진주성 싸움, 김덕령과 강홍립, 김응서의 활약이 계속되며, 사명당이 왜국으로 건너가 왜왕의 항복을 받는다.

01 ‘응서의 칼이 있는 곳에 도적의 머리 추풍낙엽 같으니’는 3인칭 전지적 서술자가 인물이나 상황을 평가하는 진술에 해당한다. 이 장면에서는 비유와 과장 표현을 통해 홀로 많은 적군을 처단하는 김응서의 영웅적 활약상을 더욱 부각하여 독자가 그에게 성원을 보내도록 유도하는 효과를 낳는다.

02 기생의 말에 따르면 왜장 종일은 ‘비단 휘장을 드리워 장의 귀마다 방울을 달아 조금 요동하면 방울 소리가 요란한지라. 이로써 불우지변을 방지하며, 삼경 전에는 귀로 자며 눈으로 보고 삼

경 후에는 눈으로 자며 귀로 듣고 사경이 되면 귀와 눈을 모두 자고 보지 아니하’는 인물이라고 했다. 이를 통해 종일이 매우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다.

03 ② 김응서가 부친상을 당한 상황에서 상주 역할을 하는 것이 ‘사사로운 정’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를 김응서를 비롯한 지배층이 국가의 안위보다 가문의 법도를 우선시한다고 평가할 근거로 볼 수는 없다. 김응서가 세상에서 보기 힘든 장사이면서도 전란의 와중에 은거하고 있었다는 설정은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지만, 이는 서사의 흐름을 입체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김응서가 부친상을 당했으면서도 이원익의 부름에 응한 상황은 오히려 지배층의 충성심을 부각하므로 지배층의 무능한 행태에 대한 반감과는 거리가 멀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⑤ 예시 답안

본문 24~27쪽

- 01 ④
02 ④
03 [A]: 헛것 [B]: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 김민정, 「길삼봉면」

해제 ② 이 작품은 조선 선조 때 일어났던 기축옥사를 배경으로 하여 역사적 사건에 허구를 덧붙여 창작한 희곡이다. 기축옥사는 1589년(선조 22), 정여립이 모반을 꾀한다는 고변에서 촉발되어 2년 남짓한 기간에 동인 쪽의 수많은 선비들이 처벌된 사건이다. 기축옥사를 배경으로 실체가 모호한 ‘길삼봉’이라는 존재를 이용하여, 죄 없는 정적들을 역적으로 몰아 죽이는 위정자들의 모습과 신하들의 갈등을 부추겨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왕의 모습, 이익과 권력 다툼에 혈안이 되어 민생은 뒷전인 왕과 위정자들 탓에 민중이 겪어야 했던 고난을 극적으로 형상화했다. 이를 통해 정치권력의 비정함과 정쟁이 야기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적 주제의식을 잘 나타냈다. 극 중 인물 중 선조, 정철, 이산해, 최영경은 실

존 인물이다. 작가는 김훈의 장편 소설 『칼의 노래』에 나오는 ‘길삼봉’에 관한 내용에 착안하여, 이 작품을 구상했다고 한다. 『칼의 노래』는 임진왜란 직전 사회적으로 불길하고 흉흉한 분위기가 팽배하던 시기를 다루고 있어 두 작품은 시대적 배경 면에서 서로 이어진다. 2009년에 극단 연우무대(연출: 안경모)에 의해 남산예술센터에서 초연되었다.

주제 ⑤ 정치권력의 비정함과 정쟁이 야기하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비판

전체 줄거리 ⑤ 조선 전역에서 괴이한 일들이 벌어지고 하늘에서는 변란을 예고하는 천문 현상이 일어나 민심이 흉흉하다. 한양에서는 백성들이 밤낮없이 남산골에 모여 「동동곡」이라는 노래를 부르며 해괴한 짓을 서슴지 않는다. 서인과 동인이 극심한 정쟁을 벌이는 가운데 동인의 선비 정여립이 역모를 꾀했다는 혐의로 죽게 된다. 길삼봉이란 인물은 정여립과 함께 거론된 반란의 우두머리인데, 그가 누구인지 아니면 그가 실재하는 인물인지도 불분명하지만 선조는 정철을 시켜 길삼봉을 찾게 하고, 그 과정에서 정여립과 관련이 있는 수많은 동인의 선비들이 길삼봉으로 의심받아 죽임을 당한다. 서인인 정철은 위관(재판장)이 되어 길삼봉을 색출하는 데 혈안이 되어 동인의 선비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고, 급기야 재야의 덕망 있는 선비인 최영경마저 붙잡아 신문을 한다. 동인인 이산해는 교활하고 냉혹한 인물로 최영경을 돕는 척하면서 몰래 그에게 독주를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 후 정치적 야욕 때문에 죄 없는 선비를 죽였다는 죄목으로 정철을 고발한다. 이에 선조는 정철을 쫓아내고 이산해에게 위관의 자리를 맡기지만, 정체불명의 길삼봉을 잡아들이라는 어명을 더욱 매섭게 내림으로써 역모를 구실로 자행되어 온 공포 정치를 계속 이어 간다. 겉으로는 권력의 축이 정철의 서인에서 이산해의 동인으로 옮겨 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승자는 실제 없는 길삼봉을 내세워 신하들 간의 갈등을 부추겨서 왕권을 강화한 선조인 것이다.

01 ④ ‘서찰’ ⑥ 안에는 벼슬을 대가로 최영경을 길삼봉이라고 거짓 고발할 것을 사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산해는 이 서찰이 정철이 쓴 것이라고 주장하고, 선조는 이산해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 서찰을 본 선조는 정철이 위관으로서 주도한 ‘옥사’ ⑧가, 서인인 정철이 정적인 동인을 제거하려는 목적에서 불공정하게 진행해 온 것으로 판단해, 정철의 관직을 폐하고 징벌을 내린다. 그러나 옥사를 주도하는 위관의 자리가 정철에서 이산해로 바뀌었을 뿐, 길삼봉과 관련해 진행되어 온 옥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는 ‘위관은 무얼 하는가?~어서 길삼봉을 잡아들여라!’라는 선조의 대사와 그것을 잇는 ‘길삼봉을 잡으라는 어명이시다.’라는 이산해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선조가 옥사를 멈추게 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대들의 쓸개 빠진 당파 싸움’, ‘당쟁만 일삼는 그대들’이라는 최영경의 대사에서, 그가 정철이 옥사 ⑧를 진행한 이유를

당쟁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수많은 고변을 밝히고자 그리한 충정은 헤아려 주시옵소서.’, ‘역모를 막고자 한 소인의 충정을 헤아려 주옵소서.’와 같은 정철의 대사에서, 그가 나라를 위한 충정에서 옥사 ⑧를 진행해 왔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이산해는 정철이 정적 제거를 위해 음모를 꾸밈음을 입증하는 증거로 서찰을 제시하면서 정철이 그 서찰을 쓴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철은 그 서찰이 자신의 필체를 모방하여 만든 거짜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산해는 자신이 송강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문우라는 사실을 근거로 정철의 필체를 잘 알고 있으며 그 서찰은 정철이 쓴 것이 분명하다고 반박한다. 따라서 이산해가 자신과 정철이 문우였던 사실을 내세워 서찰 ⑥에 대한 자기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최영경의 고발을 사주하는 내용의 서찰 ⑥을 근거로 하여, 이산해는 옥사 ⑧의 진행 과정에서 정철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계락을 꾸밈음을 주장한다.

02 ④ 정철은 정쟁만 일삼고 백성의 삶을 돌보지 않는 위정자들에 대한 최영경의 비판을 귀담아듣지 않고, 되레 궤변을 동원해 반박한다. 이러한 정철의 태도에 대한 엄중한 경고와 비판의 뜻을 전하려는 최영경의 심리가 ‘정색하며’라는 지시문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해당 지시문을 통해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허물을 감추려고 하는 최영경의 심리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에는 술에 취해 최영경을 신문하는 정철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술에 취한 채로 신문을 진행한 정철의 행동은 훗날 이산해가 선조 앞에서 정철을 비판하는 빌미가 되는데 이는 ‘참음을 다 한다는 위관이 어찌 술에 취해 공초를 진행하였겠사옵니까?’라는 이산해의 대사에서 알 수 있다.

② ‘호탕히 웃으며’라는 지시문은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려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최영경의 담대한 성격과 자신은 죄가 없고 땃땃하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최영경의 심리를 드러낸다. 아울러 정철이 진행하는 옥사에 대해 ‘없는 죄를 엮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정철의 행위에 대한 최영경의 부정적 인식을 짐작할 수 있다.

③ 정철은 말로는 최영경에게 ‘헌자라는 소릴 들을 만하’다고 하지만 지시문에 나온 태도로는 비웃고 있다. 태도와 말의 불일치에서 정철의 말이 상대방을 비꼬기 위한 반어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⑤ ‘눈이 불꽃이 될 듯 부딪친다’라는 지시문은 정철과 이산해 간의 고조된 갈등을 대사가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준다. 아울러 지시문 앞에서 정철의 대사가 ‘일찍이 이산해는 정여립의 서간.’에서 끊기는데 정철이 본래 하고자 했던 말은 ‘일찍이 이산해는 정여립의 서간에 언급된 인물이다.’로 짐작된다. 지금 자신을 비판하는

이산해가 본래 역적 정여립과 관련이 있는 인물임을 언급함으로써 이산해의 말이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하여 자신을 변호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나 정철은 이 말을 끝마치지 못하는데 이는 그만큼 이산해에 대한 분노의 감정이 고조되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03 정철은 ‘행함이 없으면 다 헛짓’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최영경의 고매한 뜻이 기실 현실에서의 실천이 수반되지 않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다. 최영경은 정철이 사용한 그 표현을 그대로 받아, 없는 죄를 만들어 정적을 해치는 정철을 ‘헛짓을 핑계 삼아 선비의 목을 치는 그대’라고 비판하면서 정철의 행위가 근거 없는 정치적 모략이라는 생각을 드러낸다. 그러므로 [A]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헛짓’이다. 선조가 정철을 축출하고 위관의 자리를 이산해에게 넘긴 후 선조와 이산해가 함께 기쁨의 웃음을 짓는 장면에 바로 이어지는 장면은 선조가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이산해에게 잔혹한 옥사를 계속 이어 갈 것을 명령하고 이에 이산해가 놀라면서 급히 선조의 명령을 따르는 장면이다. 정철이 축출되면서 옥사가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것 같았던 분위기는,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라는 지시문으로 제시되는 선조의 태도 변화만으로 기존의 엄혹한 분위기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서인과 동인 간의 정쟁에서 서인 우세에서 동인 우세로 전세가 역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체가 모호한 길삼봉을 구실로 삼아 선조가 주도하는 공포 정치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산해가 잔인한 옥사가 이어질 것을 예고하는 말을 하면서 다급하게 선조의 명령에 따르는 모습에서, 동인과 서인이 서로 갈등하는 와중에 선조의 왕권이 더욱 강해졌음을 짐작하게 된다. 따라서 [B]에 들어갈 적절한 지시문은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이다.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작품으로 이해하기 6 예시 답안

본문 29~30쪽

01 ③

02 ①

03 (자신이) 높아진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자신에게) 유익하다 등

■ 백문보, 「윤정설」

해제 > 이 작품은 글쓴이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한 윤택(尹澤)이 자신이 지은 정자의 이름을 ‘윤정’이라 하자, 이에 대해 글쓴이가 써 준 한문 수필이다. 늦은 나이에 급제하고 그보다 더 늦은 나이에 벼슬길에 나아간 윤택의 삶이 가진 가치를 밤나무의 생태적 속성을 바탕으로 칭송하고 있다. 설(說) 갈래에 속하는 글의 일반적인 구조와 약간 다르지만, 밤나무가 가진 속성과 윤택의 삶을 유추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 갈래의 특성을 살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 > 늦되어도 충분히 성취할 수 있다는 삶의 이치

구성 >

- 1문단: 밤나무를 선호하는 윤 공의 취향
- 2, 3문단: 밤나무에 대한 윤 공과 ‘나’의 생각
- 4문단: 윤 공의 성취와 밤나무의 닮은 점
- 5문단: 이지러지면 가득 차게 되고 빠지면 더해지는 이치
- 6문단: 밤의 생장 및 수확에서 깨닫는 삶의 이치

01 ③ ‘윤 공’은 밤나무가 주는 실용적 혜택, 즉 쓰임새를 근거로 들어 밤나무를 좋아한다고 했지만, 글쓴이는 생장이 느리지만 이점이 많은 밤나무에 빗대어 늦게 과거에 합격하고 늦게 벼슬에 나아갔으나 커다란 성취를 이룬 ‘윤 공’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02 ① 글쓴이는 ‘윤 공’의 생애에 비추어 볼 때, 어려움과 노림이 반드시 피해야 할 결함이 아니며 어느 단계에서는 얼마든지 쉽고 빠르게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글쓴이는 어려움과 노림에 미덕이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일부러라도 추구해야 하는 미덕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는 글쓴이의 관점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므로 이 글의 실상과 다르다.

③ 글쓴이는 어려움과 쉬움을 태도의 문제로, 빠름과 느림을 천성의 문제로 구별하여 보는 관점은 확인되지 않는다.

④ 글쓴이는 풀과 나무의 생장에서 어려움과 쉬움, 빠름과 느림은 제각각 다르다고 했고, 이는 인간의 삶에서도 두루 나타난다고 보

고 있다. 따라서 쉬움과 빠름이 더 우세한 가치를 갖는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글쓴이는 어려움과 느낌의 미덕을 말하고 있을 뿐, 쉬움과 빠름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해 경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역설은 표면적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을 가리킨다. 따라서 괄호 안에는 겸손과 모순되는 뜻을 가진 말이 들어가야 한다. 겸손의 뜻을 고려하면 ‘자신이 높아진다’나 ‘자신에게 유익하다’ 등의 내용이 적절하다.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작품으로 이해하기 7 예시 답안

본문 32~34쪽

01 ①

02 ④

03 하나씩의 별

■ 이옥악, 「하나씩의 별」

해제 ▶ 이 작품은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다가 돌아오는 유랑민과 화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화자는 고향이 아닌 서울로 향하고 있는데, 이들이 열차의 지붕 위에서 함께 바라보는 밤하늘의 별은 변환기의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저마다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유랑민이 품고 있는 미래에 대한 희망

구성 ▶

- 1연: 귀국하는 화물 열차 지붕 위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유랑민
- 2연: 서로 다른 사연을 지니고 귀국하는 유랑민의 모습
- 3연: 광복의 기쁨과 동시에 느끼는 우리 민족의 미래에 대한 불안
- 4연: 희망을 품고 바라보는 저마다의 별

01 ① 첫 연과 마지막 연에서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위에 /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반복하여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전체적으로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마지막 연에서 ‘빨가의 노래를 부르던’ 정도에서 드러날 수 있지만, 이를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반전시킨다고 보기 어렵다.

③ 가상의 청자를 설정하고 있지 않으며,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도치된 어순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현실에 대응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 정도에서 계절감을 짐작할 수 있으나, 계절의 순환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변화하는 대상의 모습을 묘사하여 화자의 처지를 부각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02 ④ ‘푸르른 바다와 거리 거리’는 ‘이민 열차’에서 고향을 떠날 때 바라보던 조국의 풍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이라는 구절에서 서러움의 정서가 환기되므로,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오며 감격한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드러낸 구절로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달리는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는 것은, 앞으로 펼쳐질 유랑민의 미래를 어둡고 답답한 이미지로 화자가 인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힘한 땅에서 힘한 번 치르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에게 대한 진술은, 당대 유랑민들이 고향을 떠나서 여러 시련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③ ‘함경도 사내’인 ‘나’가 고향(함경도)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고향으로 향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고향을 떠난 처지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⑤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과 달리 본인은 고향을 떠난 처지이지만, 둘 다 마찬가지로 ‘헐벗은’ 처지라는 점을 드러낸 부분으로, 함께 귀국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동지애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3 이 작품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처지와, 고향을 떠나서 타지로 향하는 자신의 처지가 다르면서도 ‘헐벗은’ 채로 살아가는 유랑민의 처지라는 점에서 유사함을 바탕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그들은 같이 열차 지붕 위에 드러누워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하나씩의 별’을 통해 저마다의 희망을 떠올리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작품으로 이해하기 8 예시 답안

본문 36~39쪽

01 ④

02 학생 ㄱ, 학생 ㄴ

03 ③

■ 황순원 원작·이상현 각색, 「카인의 후예」

해제 ▶ 이 작품은 동명의 장편 소설을 각색한 시나리오로, 지주들에 대한 재산 몰수와 숙청이 이루어지던 북한의 토지 개혁 전후를 배경으로 해방 직후의 사회상을 그리고 있다. 평생 지주를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지주를 고발하는 데 앞장서는 옛 마름, 혼란스러운 시기를 틈타 제 것을 챙기는 데에 혈안이 된 마을 사람들, 지주의 아들이지만 땅 소유권을 주장하기보다는 마을 학당의 교사로 헌신하는 주인공 박훈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을 그려 내어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이기적 생존 본능과 탐욕, 불의를 지켜보는 지식인의 고뇌, 신분 제약을 넘어서 사랑 등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이념 대립의 비극과 금기를 넘어서 사랑

전체 줄거리 ▶ 고향 마을 양지골에서 마을 학당을 열고 젊은이들을 가르치며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박훈은 마을 지주의 아들로, 광복 후 들어선 공산 정권의 타도 대상이다. 지주의 재산을 몰수하여 무산(無産) 계급에게 나눠 주고 반동 지주는 숙청하기까지 하는 토지 개혁이 각 마을에서 실제로 진행되기 시작하자 그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을을 떠날 마음을 먹고 있다. 박훈 아버지를 지주로 모시고 헌신했던 마름 도섭 영감은 박훈이 홀로 있는 처지를 돌아야 한다며 딸 오작녀를 박훈 집에 기거하게 하기도 하였었지만 이제는 박훈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오작녀에게도 그와의 관계를 끊기를 종용한다. 오작녀는 비록 다른 이와 결혼한 후 소박을 맞아 마을로 돌아온 신세지만, 어린 시절부터 연모해 온 박훈의 곁에서 그를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자 한다. 인민재판이 진행되고 박훈의 집으로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 찾아간 사람들 앞에서 오작녀는 무산 계급인 자신이 박훈과 부부가 되었음을 말하여 박훈을 구한다. 한편 박훈의 사촌 형은 도섭 영감이 갈수록 지나친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를 죽여 응징하려 하는데, 이것을 알게 된 박훈은 자신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사촌과 도섭 영감을 모두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도섭 영감과 난투를 벌이지만 그를 죽이지 못한 박훈은 결국 오작녀를 데리고 남쪽으로 떠나기로 한다.

01 ④ 극의 전개를 통해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심리를 파악하고 있는지 묻는 문제이다. 훈은 토지 개혁이 곧 닥쳐올 것임을 알고, 지주를 처단하겠다고 물려올 농민들의 폭력적 행동이 오작녀에게 미칠까 봐 걱정하여 오작녀가 이제 자신을 보살피는 일을 그만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오작녀는 훈에 대한 애정

을 느끼고 그 제안을 거절한다. 과거 오작녀의 남편이었던 이가 동네에 돌아왔다는 소식을 훈이 알리지만 오작녀는 이 또한 자신의 거취를 바꾸어야 할 이유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 농민 대회가 개최되고 지주인 훈이 타도 대상이 되어 농민 위원회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오작녀는 훈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을 막아내고, 농민인 자신과 훈이 결혼하였다는 거짓 진술을 하여 훈을 구하려고 한다. 이는 지주인 훈이 마름의 딸과 혼인한 사이가 되면 지주로서 당하게 되는 공격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따라서 그동안의 일에 대한 보상을 받아 내기 위해 부부임을 인정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02 이 작품의 주인공 박훈은 지주이지만 농민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저항하기보다는 마을을 떠나는 선택을 취하려고 한다. 또 지주 박훈 집안의 마름이던 도섭의 딸인 오작녀는 훈에게 애정을 품고 그의 곁에 머무른다. 토지 개혁이 벌어지던 상황을 배경으로 이와 같은 인물을 설정한 것은 이분법적 대립 구도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3 ③ 극은 소설과 달리 서술자의 직접적인 심리 묘사 없이 인물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갈등을 드러내는 갈래이지만 내적 갈등이 소설보다 더 강조되는 갈래는 아니므로, 〈보기〉와 달리 [A]가 내적 갈등이 강조되는 갈래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A]에서 ‘격정에 못 이겨 튕겨나듯’, ‘흐느낀다’ 등의 지시문은 오작녀의 내적 갈등을 인물의 행동으로 표현할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②, ④, ⑤ [A]는 소설 작품인 〈보기〉를 시나리오로 각색한 것이다. 시나리오 창작에는 화면 연출에 대한 다각도의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면들로 이루어진 시퀀스를 구성하기 위한 화면 구성의 순서, 배경과 소품이 인물과 화면에서 자리 잡는 위치, 화면의 어둡기와 밝기 등에 대한 상세한 지시가 각본에 포함된다. 또한 극 갈래에서 인물의 내면, 인물 간의 갈등과 사건은 배우의 행동과 대사를 통해 드러나고 전개된다. 이는 서술자의 서술 또는 인물의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는 서사 장르와의 차이점으로, 극으로의 각색 과정에서 소설의 서술자가 묘사해 놓았던 인물의 내면 또는 사건의 전개 과정을 극 중 인물의 행동 또는 인물의 대사로 제시하게 된다. 이에 독자 또는 감상자는 행동과 대사, 표정으로 표현된 것을 통해 인물의 내면과 사건 전개를 파악한다.

9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작품으로 이해하기 9 예시 답안

본문 41~44쪽

01 ㉔, ㉕, ㉖

02 ㉔

03 ㉔

■ 현진건, 「고향」

해제 ▶ 이 작품은 ‘그의 얼굴’이란 제목으로 발표되었다가 나중에 제목을 바꾼 소설로, 일제의 수탈 때문에 농촌 공동체가 황폐해진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서술자인 ‘나’는 기차 안에서 우연히 만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그’의 얼굴이 일제 강점기에 고통받는 조선 민중의 전형적인 얼굴이라는 생각을 하고, ‘그’에게 연민과 동정, 유대감을 느끼게 된다. 극적인 사건의 전개나 인물 간의 갈등 관계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액자식 구성을 통해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현실을 고발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을 보여 주는 이 소설은 결말 부분에 신민요를 삽입하여 주제를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주제 ▶ 일제 강점기 조선 민중의 참혹한 삶에 관한 폭로

전체 줄거리 ▶ ‘나’는 대구발 서울행 기차에서 기이한 옷차림과 행동을 보이는 ‘그’와 우연히 함께 앉게 된다.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겨 ‘그’를 외면하려 하지만, 일제의 식민 지배로 고향에서의 삶이 파멸해지면서 시작된 ‘그’의 파란만장한 유랑 생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는 먼 객지에서 부모님을 잃고 떠돌다가 오랜만에 찾은 고향에서, 예전에 자신과 혼담이 있었으나 부모에 의해 유곽에 팔려 가고 말았던 여인을 다시 만나서 들은, 비참한 그녀의 인생 이야기도 ‘나’에게 들려준다. ‘나’는 ‘그’의 이야기에 공감하면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일제에 대한 분노와 현실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며, 어릴 때 부르던 노래를 같이 부른다.

01 사회·문화적 맥락은 당대의 이념이나 사상, 사회 제도나 문화적 관습, 사회 질서에 대응하는 인물의 삶의 방식 등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이 소설을 사회·문화적 맥락의 차원에서 탐구하려는 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그’가 궁금해하는 ‘노동 숙박소’라는 시설이 어떤 곳이었는지 파악하여 ‘그’의 현재 처지와 연관 지어 보려는 ㉔, 당대 한국, 중국, 일본의 의복 문화와 관련지어 ‘그’의 옷차림이 묘사된 부분을 더 섬세하게 이해해 보려는 ㉕, 그리고 작품 속 대중교통 이용객의 모습을 오늘날의 그것과 비교하면서 작품 속 인물 간 관계 형성에 관해 이해해 보려는 ㉖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인물의 심리와 태도에 관심을 두는 ㉕, 그리고 서술상의 특징과 효과를 분석해 보려는 ㉖는 작품 내의 요소들에 주목하는 내재적 관점에 따른 감상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02 ㉔ ‘그’의 ‘신세타령’을 정리한 내용에 따르면, 동양 척식 회사가 역둔토의 소유권을 전부 소유하게 된 후로 ‘그’의 고향 사람들은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는 일을 겪어야 했고, 결국 ‘남부여대하고 타쳐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동양 척식 회사가 조선의 자원을 수탈하면서 소작료를 징수함은 물론, 회사에 소작인 노릇을 하는 중간 소작인의 착취까지 더해져 이중의 착취가 행해짐으로써 ‘그’와 고향 사람들의 소득이 대폭 줄어들게 되었다는 점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동양 척식 회사가 일본으로 반출하는 양곡의 운송 임무를 ‘그’의 고향 사람들에게 맡겼는지 여부는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없다.
 ② ‘세상이 뒤바뀌자’ 역둔토는 ‘전부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고 했으므로, 역둔토가 강점, 강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할 수 없다.
 ④ ‘그’의 고향 사람들은 동양 척식 회사의 소유가 되어 버린 역둔토를 경작한 후 가혹한 소작료에 시달렸다고 했으므로, ‘그’의 고향 사람들이 역둔토의 경작 자격을 갖지 못했던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⑤ ‘그’의 고향 사람들이 사삿집 농토의 농사를 지을 때보다 역둔토 농사를 지을 때 더 많은 소득을 얻었다는 것은 동양 척식 회사가 역둔토를 소유하기 이전 시절에 해당하는 이야기이다.

03 ㉔ ㉕은 ‘그’가 ‘나’에게 한 말을 직접 인용한 부분으로, ‘그’와 ‘궐녀’가 지난 9년 동안의 고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눈 뒤 눈물조차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껴 술만 나누어 마시고 헤어졌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일제 강점기 역사의 질곡 속에서 극심한 고통을 감내해야 했던 민중이 말할 수 없는 슬픔을 함께 느낀 것일 뿐, 취업난으로 인한 생활고로 인간관계가 변질된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

01

고전 시가

본문 46~47쪽

01 ⑤

02 ③

03 ①

㉠ 신충, 「원가」

해제 ▶ 이 작품은 신라 효성왕 때 신충이 지은 향가이다. 『삼국유사』에 배경 설화와 함께 원문 8구가 전해진다. 후구는 소실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원래 10구체 형식이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이 작품을 잣나무에 걸어 놓자 잣나무가 말라 버리고, 신충의 염원이 이루어지자 잣나무가 다시 소생되었다는 배경 설화에 의거해 「해성가」처럼 주술적 성격이 강한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약속을 어긴 임에 대한 원망과 소외감, 괴로움과 좌절감이 작품 전체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원망의 언어가 주술적 힘을 얻게 된 것으로 설명한다. ‘жат’, ‘달’, ‘물’의 비유를 통해 시적 정황과 이별의 분위기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서정성을 인정받는다. 제시된 지문은 김완진의 향찰 해독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주제 ▶ 약속을 저버린 임을 원망하는 마음

구성 ▶

- 1~4구: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 하던 임이 변해 버린 상황
- 5~8구: 지나가는 물결을 바라보는 모래처럼 안타깝고 괴로운 화자의 심정

㉡ 이순신, 「진중음」

해제 ▶ 이 작품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서 큰 공을 세운 이순신이 지은 한시(오언 율시)로, 「진중음」이란 제목으로 알려진 세 작품 중 하나이다.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바다를 지키던 화자는 높은 누각에 올라 하염없이 생각에 잠긴다. 나라를 위해 공을 세우고 있지만 난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자신의 명성을 시기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다. 화자는 자신의 소망이 이름을 얻는 것이 아니라,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고 ‘귀거래사’를 읊으며 자연과 함께 사는 것임을 고백한다. 태평한 나라를 염원하는 충신의 마음과 명성에 연연하지 않고 전원생활을 꿈꾸는 선비의 마음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주제 ▶ 하루빨리 나라를 태평하게 만들고 전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구성 ▶

- 기(1, 2행): 홀로 누각에 앉아 생각에 잠김.
- 승(3, 4행): 큰 난리가 끝나고 태평한 시절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 전(5, 6행): 자신이 이룬 업적을 시기하는 사람들과 그림에도 알려지는 자신의 명성
- 결(7, 8행): 어서 빨리 전쟁을 평정하고 전원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바람

01 시적 상황의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 따르면 이 시의 화자는 (가)를 지은 ‘신충’ 자신으로도 볼 수 있다. 화자는 더 이상 자신을 중히 여기지 않는 왕을 ‘지나가는 물결’에 빗대면서, 자신을 ‘연못 잣’의 ‘모래’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 ‘모래’에 왕을 빗대어 왕의 마음을 붙잡지 못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신충’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가)의 화자가 ‘질 좋은 잣’을 작품 속에 언급한 것은 잣나무가 주인이 될 것이라 장담했던 <보기>의 효성왕에게 자신과 바둑을 두면서 했던 말을 떠올려 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너를 중히 여겨 가겠다’라는 임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기>의 배경 설화 속 효성왕이 신충에게 했던 말과 유사하다. 이를 통해 자신에게 했던 왕의 장담을 환기하려는 것이다.

③ (가)의 화자는 ‘낮이 변해 버린 겨울에여’라고 탄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탄식을 통해 신충에 대한 효성왕의 태도가 달라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왕의 마음이 식어 싸늘해진 상태를 ‘겨울’이라는 계절적 분위기로 드러내고 있다.

④ (가)의 화자는 ‘달이 그림자 내린 연못’에 자신이 머물러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밤’이라는 시간적 배경과 ‘연못’이라는 공간적 배경을 활용하여 왕으로부터 버림받은 신충의 처지를 부각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화자는 ‘어느 날에야~태평해질까’와 같이 의문형 문장을 활용하여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과 평화로운 시기가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는 자기 이름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 업적을 깎아내리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 화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의 의도에 대해 의심하는 심리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한바다’는 수군이 있는 바다 위를, ‘가을바람’은 서늘해지는 계절을, ‘이 밤’은 밤이 깊어 어두컴컴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들은 작품 전체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② 화자는 자신이 ‘홀로’, ‘높은 누각에 앉아’, ‘하염없이 생각에 잠기’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통해 위기에 처한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과 쓸쓸하고 외로운 처지, 앞날에 대한 고민 등을 드러내고 있다.

④ 화자는 ‘변방의 근심을 평정할 수 있다면~ 읊으리’와 같이 미

래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평화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감과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이때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는 것은 평화로운 시대를 이루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곧 자신보다 국가의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충성스러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화자는 독자들에게 ‘도연명’이라는 시인과 그가 쓴 작품 「귀거래사」를 떠올리게 함으로써, 화자 또한 자연과 더불어 사는 전원 생활을 소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0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스스로를 두고 ‘세상 모든 것 여히여 버린 처지여’라고 말하고 있다. 임의 닢이 변해 버린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상실감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의 화자는 ‘온 세상’과 관련해 자신이 해 온 일과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떠올리고 있다. 즉 ‘온 세상’이 태평해지도록 난리 속에서 업적을 세워 왔음과 ‘온 세상’을 위해 앞으로 ‘변방의 근심을 평정’해야 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임이 변해 버린 순간 ‘세상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모든 것’과 소통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의 경우, ‘온 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알게 된 것을 이미 알고 있지만, 자신의 명성을 알리는 것보다는 ‘변방의 근심’을 평정하는 데에 관심을 두고 있다. 특히 (나)의 화자는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진 것에 대해 자부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화자는 ‘세상 모든 것 여히여 버린’ 것과 같은 심정임을 말하고 있지만, ‘세상 모든 것’이 ‘임과 함께할 수 없게 된 화자가 잃어버린 것 전부’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는 자신의 업적을 어느 정도 이루었음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 세상’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④ (가)의 화자는 ‘세상 모든 것’을 원해 왔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또한 (나)의 화자도 ‘온 세상’을 원하고 있거나 가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가 임에 대해 가지고 있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작품 전체의 흐름 속에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2

고전 시가

본문 48~50쪽

01 ⑤

02 ⑤

03 ③

㉠ 작자 미상, 「만전춘별사」

해제 ② 이 작품은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 가요 중 대표작으로 꼽힌다. 임과의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화자의 심정이 진솔하게 나타난 작품으로, 과장된 표현과 비유적 표현을 통해 남녀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② 임과의 영원한 사랑 기원

구성 ②

- 1연: 임에 대한 사랑의 의지
- 2연: 임의 부재로 인한 외로움
- 3연: 임과의 관계가 어긋난 것에 대한 원망
- 4연: 임에 대한 기다림

㉡ 김삼헌, 「내 영혼 술에 섞여 ~」

해제 ② 이 작품은 추상적 대상인 ‘영혼’을 술에 섞을 수 있다는 참신한 발상을 통해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을 잊고 다른 이를 마음에 두고 있는 임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평시조이다. 임의 마음속을 찾아다니며 다른 이를 생각하는 마음을 다 태우겠다는 화자의 말을 통해 임에 대한 화자의 사랑과 그리움의 깊이를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전해지는 문헌에 따라 작가가 ‘김창흠’으로 표기된 경우도 있다.

주제 ② 임에 대한 그리움과 임의 사랑을 얻겠다는 의지

구성 ②

- 초장: 자신의 영혼을 술에 섞어 임의 마음속에 들어감.
- 중장: 임의 마음속을 굽이굽이 찾아다님.
- 종장: 다른 이를 생각하는 임의 마음을 태우려 함.

㉢ 작자 미상, 「창밖에 가마슬 때우라는 장사 ~」

해제 ② 이 작품은 대화체의 형식을 통해 이별의 고통을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사실시조이다. 화자는 ‘이별 나는 구멍’을 막을 수 있는지를 장사에게 묻고 있는데, 장사는 천하의 영웅호걸들의 이름을 나열하며 그들도 ‘이별 나는 구멍’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에 화자는 임과 오랫동안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한탄하고 있는데, 임과의 이별을 때울 수 있는 구체적 대상으로 사물화하여 임에 대한 그리움과 이별의 슬픔을 드러낸 참신함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주제 ②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과 한탄

구성 ②

- 초장: 이별 구멍을 때울 수 있느냐는 ‘나’의 물음
- 중장: 이별 구멍은 그 누구도 때울 수 없다는 ‘장사’의 대답
- 종장: 임과 오랫동안 이별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나’의 한탄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는 ‘얼음 위에 맺힌 자리 보아 입과 나와 얼어 죽을 망정’, ‘넋이라도 입을 한테 지내겠다고 여겼더니’라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하며 입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으며, (다)에서는 ‘진시황’, ‘한 무제’, ‘제갈량’, ‘서초 패왕’ 등과 같이 역사적 인물들의 능력을 나열하며 이러한 영웅들도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입과 함께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과 이별한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나)에서는 자신을 잊고 남을 생각하는 입의 마음을 태우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낼 뿐, 화자의 인식 변화 과정이 드러나지 않으며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도 않다.

② (다)의 화자는 입과의 이별을 막기 위해 ‘장사’에게 ‘이별 나는 구멍도 때우는가’라고 묻고 있다. 따라서 (다)는 입과 이별해야 하는 부정적 상황에 놓인 화자가 자신의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가)는 ‘어느 잠이 오리오’와 ‘버기터시니 뉘러시니잇가’ 등의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입에 대한 그리움과 입과 이별한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을 뿐, 부정적 현실에 대한 극복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③ (다)는 화자와 ‘장사’의 대화를 통해 입과 이별해야 하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화자의 독백을 통해 자신을 잊고 남을 생각하는 입의 마음을 태우고 싶다는 화자의 바람을 드러낼 뿐,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

④ (가)는 객관적 상관물인 ‘도화’를 활용하여 입과 이별한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여 대상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 않다. (나)는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입을 향한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을 뿐, 대상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입의 마음은 화자가 아닌 ㉠을 향하고 있다. 따라서 ㉠은 입이 화자 대신 마음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다)의 화자는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 있는가를 ㉡에게 묻고 있고, 이러한 화자의 물음에 대해 ㉡은 진시황이나 한 무제 등과 같은 인물들도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는 없었다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의 대답을 듣고 (다)의 화자는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화자의 처지를 환기시켜 주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답 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이 ‘시름 없어 소춘풍’하는 것은 봄이 왔기 때문일 뿐, 화자를 조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화자는 ㉠에게 ‘여울은 어디 두고 소에 자러 오느냐’라고 묻고 있는데, (가)가 헤어짐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은 이별한 후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화자의 심정을 이해하는 자연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에서 입의 마음이 화자가 아닌 ㉢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의 괴로움을 심화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서 ㉠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자연물일 뿐, 화자의 즐거움을 방해하는 자연물로는 볼 수 없다.

③ (가)에서 ㉠은 작품의 맥락상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입을 의미하며 화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와 유사한 처지에 놓인 자연물이라 볼 수 없다. (나)에서 ㉢은 입이 마음을 주고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화자가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 화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볼 수 있다.

④ (가)에서 ㉠은 작품의 맥락상 화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입을 의미할 뿐, 화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다)의 화자는 입과의 이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에게 묻고 있을 뿐, 자신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 ㉡에게 물음을 던지는 것이 아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여울’과 ‘소’는 모두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이며, ‘비오리’가 잠도 잘 수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비오리’가 잠을 자거나 추위에 얼 수 있는 공간으로 ‘소’를 인식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인 ‘소’를 평소와 다르게 인식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밤’이라는 시간은 화자의 바람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흐르는 물리적 시간이다. (가)의 화자는 ‘얼음 위’에서 얼어 죽더라도 ‘오늘 밤’이 ‘더디 새’길 바라고 있는데, 이는 물리적인 시간에 변화를 주어 입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싶은 화자의 바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넋’은 사람의 몸에 깃들어 있다고 여겨지는 관념적인 대상으로, 눈으로 확인하거나 실체를 알 수 없는 추상적 대상이라 할 수 있다. (가)의 화자는 이별로 인해 입을 만날 수 없다는 점에서 화자와 입의 육체는 서로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자신의 ‘넋이라도 입을 한테 지내겠다고 여겼’던 것은 추상적 대상인 ‘넋’은 육체와 달리 입과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상에 의한 것으로, 이는 입과의 이별로 인한 힘겨움과 그리움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사람의 ‘영혼’과 ‘마음’은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없는 추상적

인 대상이다. 그러나 (나)의 화자는 자신의 '영혼'이 '술에 섞여 입 속에' 들어가서 '남 향한' 입의 마음을 '다 태우'고 싶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추상적 대상을 물리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대상으로 사물화하여, 자신을 멀리하는 입에 대한 원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이별'은 서로 갈리어 떨어지는 것으로, 이별은 술의 구멍을 때우는 것처럼 수선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다)의 화자는 '이별 나는 구멍'을 때울 수 있는지를 '장사'에게 묻고 있는데, 이는 추상적인 대상을 사물화하여 입과의 이별을 원하지 않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3

고전 시가

본문 51~52쪽

01 ③

02 ⑤

03 ③

■ 정훈, 「월곡답가」

해제 > 이 작품은 전체 10수의 연시조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일관되게 한 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인 '월곡'은 작가가 존경하는 인물로, 작가는 대상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자신의 심회를 표현하고 있다. 작가는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향촌 사족으로서 현실에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때 '월곡'은 속세에 초연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형상화되며 작가의 이상적인 지표로 설정되어 나타난다.

주제 > '월곡'에 대한 그리움과 흠모의 정

구성 >

- 제1수: 벗을 그리워하는 마음
- 제2수: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나를 알아봐 주는 벗
- 제4수: 욕심 없는 삶을 살아가는 벗에 대한 예찬
- 제5수: 벗을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간절함
- 제6수: 벗에 대한 흠모
- 제7수: 벗에 대한 그리움
- 제9수: 벗과 함께 세상을 초탈하고 싶은 마음
- 제10수: 선계에 대한 동경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6수>에는 '달이 밝은 제'와 '시절이 좋은 제'에 화자가 바라본 상황이 드러나 있고, '잔을 들고'와 '경을 보고'에 이러한 상황에 따른 화자의 행위가 각각 드러나 있다. 또한 '달이 밝은 제는 잔을 들고 생각하고'와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노라'에 대구의 형식이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제1수>에는 대상을 '내 벗'이라고 여기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날 뿐, 자연 현상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제4수>에는 대상에 감정을 이입하여 화자의 애상감을 표현한 부분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제9수>에는 명령적 어조가 드러나 있지 않으며, '상산에 채지 하러'에 자연에서 화자가 하고자 하는 일이 드러나 있을 뿐 자연에서 얻은 깨달음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제10수>에는 '나도 타다 어떠하리'에 설의적 표현이 드러나 있지만, 과거의 삶에 대한 동경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에서 화자는 '신선'이 타는 '청학'을 '나도 타다 어떠하리'라고 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자신 또한 신선과 같이 행동하고 싶다는 뜻을 드러낼 뿐, 자신에 대한 비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에서 화자는 대상을 '내 벗'이라고 하며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에서 '엇그제 지나간 한 분'은 화자에게 '곰다'고 한다는 점에서 '분 바른 각시님네'와 대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③ ㉣에서 화자는 '벗님 사는 땅'이 '용추동 밖이오 구름다리 위로다'라고 하였는데,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는 것을 볼 때, '용추동 밖', '구름다리 위'는 대상과 화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나타낼 수 있다.
- ④ ㉤에서 '바라도 볼 성 없다'는 것에는 '피'와 '구름'으로 가려져 '고인의 집 땅'을 바라보기 어려운 화자의 처지가 드러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벗님 사는 땅'을 생각하며 '밤마다 외로운 꿈만 혼자 다녀'온다는 것을 통해서도 작가가 대상에 대한 그리움으로 꿈에서나마 대상을 만나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포부를 펼치고자 하는 마음과 대상을 닮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작가가 괴리감을 느끼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내 양자 하 험하'다는 것을 통해 자신의 상황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알 수 있으며, '분 바른 각시님네 다 웃고 다'닌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초옥 삼간에 숨어' 있다는 것을 통해 대상이 속세와 단절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대상을 '내 벗님'이라고 여기는 것을 통해 작가가 대상을 자신과 가깝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기〉에 따르면 속세에 초연한 대상에 대한 지향은 작가가 자신의 처지에 합당한 현실 대응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④ ‘시절이 좋은 제는 경을 보고 그리워한다는 것을 통해 작가에게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사람이 털 껍은 탓으로 잊힐 적이 적’다는 것을 통해 작가가 그러한 대상을 향해 지속적인 애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상산에 채지하러’ 가자는 것을 통해 작가가 속세와 거리를 두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세상의 어지러운 일들’을 통해 속세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의 태도를 알 수 있으며, 이를 ‘듣도 보도’ 말자는 것을 통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살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태도를 알 수 있다.

04

고전 시가

본문 53~54쪽

01 ③

02 ③

03 ④

㉠ 조식, 「두류산 양단수를 ~」

해제 ▶ 두류산은 지리산의 다른 이름으로, 이 작품은 지리산의 뛰어난 경치를 무릉도원이라는 선경(仙境)에 빗대어 그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주제 ▶ 두류산(지리산)의 절경에 대한 예찬

구성 ▶

- 초장: 두류산 양단수를 봄.
- 중장: 두류산 양단수의 아름다움
- 종장: 두류산 양단수를 무릉도원으로 여김.

㉡ 김천택, 「요일월 순간곤은 ~」

해제 ▶ 요순시절은 태평성대를 의미한다. 요순시대의 일월과 건곤(천지)은 그대로인 것과 달리 세상은 많은 것이 달라졌고, 화자는 늦게 태어난 것을 탄식하고 있다. 작가의 삶을 반영하여 평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주제 ▶ 혼란스러운 시대에 대한 탄식

구성 ▶

- 초장: 요순시절의 자연은 그대로임.
- 중장: 변함없는 자연과 달리 인세는 달라짐을 탄식함.
- 종장: 불우한 시대에 태어남을 슬퍼함.

㉢ 작자 미상, 「대장부 공 이룬고 ~」

해제 ▶ 작자 미상의 사실시조이다. 대장부가 공을 이룬 후에 물러

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열거의 방식으로 보여 주며 지극한 충만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대장부의 즐거운 삶에 대한 만족감

구성 ▶

- 초장: 대장부가 공을 이룬 후의 상황
- 중장: 임천에 초당 짓고 순임금이 지은 남풍시를 노래하며 평화로운 세월을 보냄.
- 종장: 평화로운 삶에 대한 지극한 만족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와 (다)에는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나)에는 슬픔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화자의 부정적 정서를, (다)에는 즐거움의 감정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종장에서 시적 청자를 ‘아희야’로 부르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화자가 자신의 만족감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지 시적 청자에게 말을 건네며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화자의 한탄이 섞인 영탄적 표현이 제시되고 있을 뿐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와 (나) 모두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화자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는 한결같은 자연의 모습을 예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한 세상 인사에 대한 탄식과 슬픔을 드러내고 있다. (다)에는 대조의 방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④ (다)는 벼슬에서 물러난 후에 화자가 임천에 초당을 짓고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열거하여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는 일상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고 있는 것이지, 특정 공간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는 화자의 행동이 열거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가)~(다)는 모두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와 (다)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는 데 반해 (나)에는 화자가 처한 상황에 대한 슬픔의 정서가 드러난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두류산 양단수에 대해 듣기는 하였으나 보지는 못했던 때라면, ㉡는 말로만 듣던 두류산 양단수를 본 때이다. 화자는 말로만 듣던 곳을 직접 보면서 무릉이 바로 이곳이라고 생각하며 지극한 충족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는 ㉠과 달리 화자가 시각적인 실제 경험을 통해 충족감을 느끼는 시간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는 평화로운 시대인 요와 순의 시절을 의미하는데, 이 시절의 자연은 현재도 그대로이지만 세상 인사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리운 ‘세상 인사’가 있었던 때라고 볼 수도 있다. 반면 ㉕는 두류산 양단수에 대해서 들었던 과거의 시간이지만, 그때 들었던 두류산 양단수를 지금 보고 있으므로 지금은 만날 수 없는 그리운 대상이 존재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㉖는 대장부가 공을 이룬 후의 시간이므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이후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㉗는 도화 뜬 맑은 물에 산영조차 잠긴 모습을 보고 있는 시간으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이후의 만족감과는 관련이 없다.

④ ㉘와 ㉙는 모두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있는 시간으로, 결핍으로 인한 슬픔을 느끼는 시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⑤ ㉚와 ㉛는 모두 화자가 지극한 만족감을 느끼는 시간으로, 과거에 대한 후회에서 벗어나고자 애쓰는 시간으로 볼 수 없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는 대장부의 꿈을 이룬 후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준다. ‘천금준마’를 술질하고 ‘보라매’도 길들이고, ‘노복’은 밭을 갈고, ‘절대가인’도 옆에 둔 채 술과 더불어 거문고까지 연주하며 정서적으로 지극한 충족감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세속적으로도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이후에 느끼는 정서적으로 충족된 삶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화자가 세속적 욕망 자체를 부정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화자가 ‘두류산 양단수’를 직접 보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머무는 공간을 ‘무릉’에 빗대며 현실 공간을 이상적 공간으로 여기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② (가)는 고전 시가에서 낙원을 표상하는 시어로 자주 등장하는 ‘무릉도원’을 바로 화자가 경험하는 두류산의 모습과 연결 지으며 ‘도화 뜬 맑은 물’이 흐르는 곳에 ‘산영’이 비치는 모습의 공간을 낙원으로 여기고 있다.

③ (나)는 화자가 요순시대의 자연은 그대로인 것에 반해 ‘세상 인사’가 달라졌음을 탄식하며 자신이 늦게 태어나 요순시대가 아닌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것에 슬픔을 느끼고 있다.

⑤ (다)의 중장에서 열거되고 있는 모습은 대장부가 공을 이루고 물러난 뒤 의식주에 결핍 없이 충만함을 느끼는 모습으로, 화자는 이를 ‘강구연월’, 즉 태평성대라고 인식하고 있다.

05**고전 시가**

본문 55~57쪽

01 ⑤

02 ②

03 ④

㉔ 원천석, 「눈 맞아 휘어진 대를～」

해제 ➤ 이 작품은 사군자 중 하나인 대나무를 소재로 하여, 굽힘 없는 곧은 절개를 노래한 평시조이다. 화자는 한겨울 눈을 맞아 휘어지면서도 꺾이지 않고 푸르름을 잃지 않는 대나무를 보며, 시련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는 곧은 절의를 노래하고 있다. 작가는 고려의 유신(遺臣)으로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는 무리의 회유와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두 왕조를 함께 섬길 수 없다는 유학 자로서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 이 작품은 그러한 작가의 절의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 대나무의 절개 예찬(고려 왕조에 대한 절의)

구성 ➤

- 초장: 눈을 맞아 휘어진 대나무
- 중장: 눈 속에서도 푸른 대나무
- 종장: 대나무의 절개 예찬

㉕ 작자 미상, 「연못에 비 오는 소리～」

해제 ➤ 이 작품은 사랑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한 작자 미상의 평시조이다. 현실에서 만나지 못한 임을 꿈에서 만나 보려고 했으나 연잎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어 임과의 만남이 좌절되었다는 것이 전체적인 설정이다. 빗소리, 연잎, 물방울과 같은 자연적 소재들이 어우러져 시적 상황과 정서를 감각적으로 형상화하여 임과 만나지 못하는 화자의 아쉬움과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주제 ➤ 사랑하는 임을 만나지 못하는 아쉬움과 슬픔

구성 ➤

- 초장: 연못에 비 오는 소리가 들림.
- 중장: 꿈에 임을 만나려 했으나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남.
- 종장: 임을 만나지 못한 슬픔

㉖ 이정보, 「임이란 회양 금성 오리나무 되고～」

해제 ➤ 이 작품은 임에 대한 사랑을 오래도록 간직하고자 하는 화자의 다짐을 담은 사설시조이다. 임과 화자가 각각 오리나무와 칙녕쿨로 모습을 바꾼다는 상상을 통해, 어떤 시련이 닥쳐도 임과 결코 헤어지지 않겠다는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현실을 초월한 변신의 상상은 임에 대한 애정을 더욱 절실하게 드러내며, 그 사랑이 끝없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주제 ➤ 임과의 사랑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구성 ➤

- 초장: 오리나무가 된 임과 칙녕쿨이 된 화자
- 중장: 임과 결속되어 항상 붙어 살고 싶은 심정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세한고절은 너뿐’이라고 말하며 ‘대’라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세한고절’을 지닌 ‘대’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예찬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나)에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예찬적 태도를 보여 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세한고절은 너뿐’이라고 하는 데에서 인간은 그렇지 못하다고 볼 경우 자연과 인간을 대비한 표현이 나타난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삶에 대한 자족감을 드러나게 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나)에는 애상적 정서가 나타나지만 말을 주고받는 방식이 아닌 독백체의 말하기 방식이 사용되었다.
- ③ (가)는 ‘~푸를쏘냐’에서, (나)는 ‘~깨뚫던고’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으나, 그것을 통해 현실의 삶에 대한 자부심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의 경우 ‘늠라서 굶다던고’에서 화자가 미상의 타인이 한 말을 인용하고 그 말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의 경우 타인의 말을 인용하여 대상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여 주는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02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화자가 ⑥로 변신하는 발상은 나타나지만, ⑥에서 ③로의 변신은 나타나지 않는다. ③의 경우 화자와 ‘입’ 간 결속의 의미를 더욱 부각하기 위해 비유적으로 사용된 소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입’은 곧게 자라고 생명력이 강한 ③에 비유되고 있다. 그리하여 ③은 침녕쿨이 감고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든든히 기뻐 만만 존재로서 ‘입’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형상화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 ③ ④와 ⑥의 주요한 특성은 둘 다 추위에 강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동 설달’ 겨울에도 두 소재가 함께 살아남는 것이 가능함을 뒷받침해 준다.
- ④ ⑥는 퉁로로써, ③은 줄로써 다른 대상을 능동적으로 ‘감’는 기능을 가진 소재이다. 따라서 ⑥와 ③ 모두 강력하고 지속적인 결속을 위한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다.
- ⑤ ③은 감고 ④는 감기는 대상으로 서로 얹혀져 있다는 ③과 ④ 사이의 외형적인 주요 특성은, ⑥가 감고 ③은 감기는 대상으로 ⑥와 ③ 사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자연물의 특성에 기대어서 화자는 ‘입’과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을 강조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비’는 ‘듣’는다는 하강 이미지와 액체라는 본연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초·중장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화자를 꿈에서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종장에서는 연 ‘잎 위에 구슬’처럼 떨어진 ‘비’가 입을 못 만난 화자가 흘린 슬픔의 눈물에 빗대어져 표현되고 있다. 따라서 연 ‘잎 위에 구슬’ 모양으로 흘러서 맺힌 것을 ‘비’가 아니라 화자의 눈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눈’은 고체라는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무게로 절개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대’를 눌러 ‘휘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때의 ‘눈’은 절개를 꺾게 만드는 고난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눈’은 하얀색으로 시각적 차원에서 ‘대’의 푸르름과 색채 대비를 이룬다. 이는 ‘세한고절은 너뿐’에서 알 수 있듯이 추운 겨울의 계절적 배경 속에서 화자가 ‘대’만의 고유한 특성을 발견하게 해 준다고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화자는 잠에 들어 ‘입 보러 가던 꿈’을 꾸고 있다가 빗소리에 의해 깨어난다. 이때 ‘비’는 꿈에서 만날 수 있는 입을 못 만나게 만들었으므로 입과 화자의 만남에 제약을 가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 ⑤ (다)에서 ‘비’와 ‘눈’은 ‘바람’, ‘서리’와 함께 입과 화자가 서로 사랑으로 맺어져 결속 관계를 이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관계를 ‘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원인 요소로 나타나 두 사람 사이에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닥치게 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

06

고전 시가

본문 58~62쪽

01 ①

02 ⑤

03 ⑤

04 ④

■ 송순, 「면앙정가」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고향에 내려와 면앙정을 짓고, 정자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과 자신의 생활을 노래한 은일 가사이다. 이 작품에서 화자는 면앙정 주변의 자연 풍경을 근경과 원경으로 그려 내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경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면서, 그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결사 부분의 ‘역군은이삿다’와 같은 관습적 표현을 통해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정극인의 「상춘곡」의 영향을 받은 이 작품은 면앙정에서의 풍류 생활을 노래하면서도 유학자 본연의 자세를 드러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철의 「성산별

곡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강호가도를 확립한 대표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제 ▶ 자연 속에서의 풍류와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구성 ▶

- 서사: 제월봉의 형세와 면양정의 모습
- 본사 1: 면양정의 근경과 원경
- 본사 2: 면양정의 사계절 풍경
- 결사: 풍류 생활의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①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① ‘무등산 한 줄기 동쪽으로 뻗어 있어 / 멀리 떨어져 와 제월봉이 되었거늘’과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엮었는데’를 통해 면양정이 위치한 곳과 무등산은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는 면양정을 떠난 화자가 무등산이 아닌, 면양정 주변의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따라서 화자가 면양정을 떠나 무등산의 사계절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은 작품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술이 익었으니 벗이야 없을쏘냐 / 부르며 타이며 헐이며 이아며’는 화자가 면양정에서 자신의 벗과 함께 노래를 즐기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③ ‘일곱 굽이 한데 모아서 문득문득 벌였는 듯’과 ‘가운데 굽이’의 ‘너럭바위 위에 송죽을 헤치고 / 정자를 엮었는데’를 통해 면양정이 무등산에서 뻗어 나온 일곱 개의 산 중에서 가운데 위치한 산에 세워졌다는 점을 알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 ④ ‘이 산에 앉아 보고 저 산에 걸어 보니’와 ‘다만 지팡이가 다 무디어 가는구나’는 화자가 면양정을 벗어나 지팡이를 짚으며 이동하면서 주변 풍경을 감상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 ⑤ ‘이 몸이 이리함도 역군은이삿다’는 면양정에서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삶이 임금의 은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적절하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⑤ 화자는 면양정이 마치 ‘구름 탄 청학이 /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를 펼친 것 같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구름 탄 청학)은 화자가 바라보는 면양정의 외형적 특징을 비유하는 대상이라 볼 수 있다. 한편 화자가 가마를 타고 가면서 듣는 피꼬리 소리를 ‘교태’롭다고 하는 것은 봄을 즐기는 화자의 감정이 자연물인 ‘피꼬리’에 이입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녹양에 우는 피꼬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대상이라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면양정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대상일 뿐 화자의 처지와는 관련이 없다. 한편 화자는 자연을 감상하며 ㉡의 소리를 듣고 있을 뿐, ㉢가 화자의 처지를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다.
- ② ㉠은 추상적 사물을 구체화하여 드러낸 대상이 아닌, 면양정이라는 구체적 장소를 비유적으로 나타낸 대상이다. 한편 ㉡는 화자가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듣는 소리일 뿐, 화자의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대상은 아니다.
- ③ 면양정은 제월봉에 있는 정자로, 이상적 세계가 아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정자라는 점에서 ㉠가 이상적 세계의 몽환적 분위기를 환기하는 대상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는 화자가 자연을 즐기 위해 가마를 타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듣는 소리일 뿐, 현실 세계에 몽환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④ ㉠은 면양정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천 리를 가리라 두 날개 벌였는 듯’을 통해 면양정이 위치한 공간의 광활함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화자는 가마를 타고 ㉡의 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감상하고 있을 뿐, 화자가 위치한 곳이 역동적인 공간은 아니며 ㉢가 공간의 역동성을 부각하는 대상도 아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⑤ ㉠의 ‘어부 피리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는 ‘달’이 떠오른 시간적 배경과 ‘어부 피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를 연관 지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화자가 자신을 찾은 대상들과 함께 풍경을 즐기는 모습은 ㉡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보기>의 ‘기러기 한 소리에 맑은 서리 물들이고’는 시간적 배경과 청각적 이미지를 연관 지은 것으로, ‘깃옷 입은 손님은 다 나를 찾아와 눈에 가득 보이도다’는 화자가 자신을 찾은 대상들과 함께 풍경을 즐기는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에서는 ‘곡구암 반타암’이라는 구체적 지명을 언급하며 화자가 바라보는 풍경을 제시하고 있지만, ㉡에서는 구체적 지명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 ② ㉡에서는 ‘황운은 또 어찌 만경에 펼쳤는가’라는 물음의 방식을 통해 가을 들뜬 풍요로움을 부각하고 있으며, <보기>에서는 ‘세모에 날씨 차고 온 산에 눈 덮이니 / 인적은 끊어지고 우는 새도 없는 때에’라는 대구적 표현을 통해 겨울 산의 적막함을 전달하고 있다.
- ③ ㉡에서는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라는 백색의 이미지와 관련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보기>에서는 ‘백옥 궁궐’이라는 백색의 이미지와 관련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눈으로 덮인 겨울 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㉔에서는 ‘된서리’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와 ‘금수’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보기>에서는 ‘맑은 서리’라는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와 ‘금수’라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단풍이 물든 가을 산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D]에서 화자가 ‘바람’을 씌고 ‘달’을 맞으며, ‘밤’을 줌과 ‘고기’를 낚는 생활을 하며 바쁘게 보내는 것은 현재의 시간에 해당한다. <보기>에서 과거는 ‘양’의 시선으로, 현재는 ‘면’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바쁘게 하루를 보내는 화자의 모습은 ‘양’의 시선이 아닌, ‘면’의 시선에서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에 해당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에서 ‘면’은 아래를 굽어보는 것으로 ‘면’과 ‘양’의 시선은 ‘면양정’을 기준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A]에서 정자 앞 넓은 들에 흐르는 물과 물가의 모래밭을 날고 있는 기러기는 산 중턱에 있는 면양정보다 아래에 펼쳐진 풍경에 해당하므로, [A]에 제시된 풍경은 ‘면’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양정’ 주변 풍경으로 볼 수 있다.

② <보기>에서 ‘양’은 위를 우러러보는 것으로 ‘면’과 ‘양’의 시선은 ‘면양정’을 기준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B]에서 넓은 길 바깥길 하늘 아래 병풍처럼 펼쳐진 봉우리와 원근의 푸른 절벽에 벌여 있는 산들은 산 중턱에 위치한 면양정보다 위쪽에 펼쳐진 풍경에 해당하므로, [B]에 제시된 풍경은 ‘양’의 시선으로 바라본 ‘면양정’ 주변 풍경으로 볼 수 있다.

③ <보기>에서 ‘면’과 ‘양’의 시선은 ‘면양정’을 기준으로 구별된다고 하였다. [C]에서 흰 구름 뿌연 연하와 산람이 하늘로 떠나는 풍경은 면양정보다 위쪽에 펼쳐진 풍경에 해당하고, 흰 구름 뿌연 연하와 산람이 광야로 건너가는 모습은 면양정보다 아래에 펼쳐진 풍경에 해당한다. [C]에 제시된 풍경은 ‘면’과 ‘양’의 시선을 모두 사용하여 ‘면양정’ 주변의 풍경을 바라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에서 과거는 현재를 기준으로 되돌아본다는 점에서 ‘양’의 시선으로, 현재는 지금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이므로 ‘면’의 시선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였다. [E]에서 ‘이때’는 현재의 시간이고, ‘약양루 위의 이백’은 과거에 살았던 인물이다. 따라서 [E]에 제시된 화자의 모습은 ‘면’과 ‘양’의 시선을 모두 사용하여 자신의 삶을 살피는 것에 해당한다.

답 ④

07

고전 시가

본문 63~66쪽

01 ②

02 ③

03 ③

04 ④

■ 작자 미상, 「사친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창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작자 미상의 가사(잡가)이다. 「사친가」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부모를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주제를 월령체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매달의 행사나 절기(명절)와 관련지어 각 부분의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사친」이라는 주제와 무관하게 계절의 변화나 당시 사람들의 생활상에 초점을 맞춘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화자의 지식수준을 뽐내기 위해 어려운 한자어나 중국의 고사 등을 많이 인용하고 있으며, 월령체라는 형식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한해의 변화 속에서 만나게 되는 다양한 풍경과 상황, 그에 대한 단상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주제 ▶ 사시사철 부모님을 생각하며 섬기려는 마음

구성 ▶

- 1~12행(정월령): 정월 대보름에 달구경하는 소년들에게 부모 봉양 생각할 것을 권함.
- 13~21행(2월령): 이월 한식일(청명)에 절기의 의미를 떠올리며 절기를 즐기지 못하는 부모님을 안타까워함.
- 22~34행(3월령): 삼월 단청절에 단청절 행사와 봄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흥겨움 속에서 부모님을 생각함.
- 35~46행(4월령): 4월 초파일(관등절)에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사람들 속에서 부모님의 마음을 떠올림.
- 47~61행(5월령): 5월 단오절에 여름을 맞아 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과 보리타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부모님을 떠올림.

01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와 [D]에는 ‘소년’이나 ‘아이’를 청자로 삼아 말을 건네는 부분이 나타난다. [A]에서는 ‘소년’을 대상으로 ‘부모 봉양 생각하라’와 같이 효의 실천을 권하고 있지만, [D]에서는 ‘아이’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강조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 [B]의 ‘후인’은 ‘개자추’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데, 그들을 청자로 삼아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③ 이 작품은 ‘정월’부터 ‘십이월’까지 매달의 절기나 명절, 풍습 등을 소개하는 월령체 작품에 해당한다. 지문에서는 정월의 대보름, 이월의 한식일, 삼월의 단청절 등에 사람들이 하는 놀이나 풍습들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④, ⑤ 이 작품은 각 월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을 시작할 때, ‘슬프(도)다 우리 부모~모르시나’와 ‘그달을 허송하니(고)’ 혹은 ‘그달

그름 다 지나고’를 연달아 배치하고 있다. 앞 구절은 당시 사람들이 즐기던 행사나 풍속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부모님을 떠올리면서 화자의 효심을 드러내는 구절이고, 뒤 구절은 앞에서 언급한 한 달이 어느새 다 지나가 버렸음을 드러내는 구절이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은 부모님께 드리고 싶은 것으로, 부모님의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는 소재이다. ㉔이 현실 세계에서 인력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맞지만, ㉔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부모님 살아생전에 효도를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㉔을 얻을 수 없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충고하는 말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교적 가치관에 따르면 ㉔은 모두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㉔은 자식으로서 부모를 봉양하는 행위의 당위성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다.
- ② ㉔은 부모님께서 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한없이 많음을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이다. ㉔을 생각할 때,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보답하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㉔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의 상황을 함축하고 있다. ㉔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한 줌 흙’ 되어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이라는 안타까움이 투영되어 있다.
- ⑤ ㉔은 ‘일 년’의 시간을 넘어, ‘매일매일의 모든 시간’이라는 의미로 확장된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지니고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C]는 ‘제비 새끼’, ‘호랑나비’, ‘청류’, ‘산화는 붉은 비단’, ‘세류는 푸른 실’과 같은 자연물을 제시하여 새봄을 맞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것을 즐기려는 사람들의 흥겨운 모습을 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D]는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 ‘태평성대’, ‘우레같이 소리’, ‘산호만세’와 같은 소재를 제시하여 태평성대를 이룬 임금과 그를 칭송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C]에는 삼월 삼짇날에 사람들이 하는 풍습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D]의 사월 초파일에 도성에서 국가 행사가 따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C]에는 봄을 맞아 바쁜 농부들이나 봄 풍경을 즐기는 사람들의 모습이 주로 나타난다. 일하러 가는 농부들의 모습이 나타나지만, 이 농부들이 농사일이 바빠 봄이 온 것을 아예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④ [C]는 답청절을 맞아 기수에 목욕하고, 청류 이르러 시 짓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고, [D]는 관등절이 있는 사월에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D]가 함께 모여 행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C]에는 삼월을 맞은 제비 새끼와 호랑나비의 분주함이 나타나지만, 이는 아름다운 봄 풍경의 일부일 뿐이다. [D]에는 사월이 되어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가 불리는 상황이 언급되어 있지만, 경성가를 부르며 놀러 다니는 주체로서 아이들의 모습이 제시되지는 않았다.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는 ‘후인들이 슬퍼’하는 모습이, [D]에는 ‘만사 인간 짧은 날에 소년행락’을 즐기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B]의 경우, ‘개자추’의 고사를 떠올리며 한식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해당 절기의 특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일 뿐, 적당한 때를 놓치고 아쉬워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또한 [D]의 ‘타기행영~우지 마라’는 즐거운 꿈을 깨우지 말도록 하라는 의미로, 이 역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짧은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상황을 드러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와 [E]는 ‘항상 부모를 섬기고 효를 실천하라’라는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부분이다. 화자는 [A]와 [E]에서 ‘부모 봉양 생각하라’, ‘부모 생각뿐이로다’와 같이 적극적으로 효의 실천을 강조하며 ‘사친’이라는 주제를 표현하고 있다.
- ② [B]와 [D]에는 중국의 고사를 바탕으로 한 인물들이나 사건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다. [B]에서 ‘개자추’는 춘추 전국 시대 진나라의 충신이자 한식날의 유래와 관련된 인물이고, ‘이영백’은 효심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인물이며, ‘적인걸’은 충직한 신하의 모습을 갖춘 인물이다. [D]의 ‘요’임금과 ‘순’임금은 태평성대를 이룬 성군으로 제시되고 있다. 화자는 중국 고사 속 인물들을 활용하여 당대인들이 중시했던 유교적 가치를 표현하고 있다.
- ③ [C]에는 삼월을 맞은 농부들이 ‘농구를 둘러메고 처처에 왕래하’는 모습이, [E]에는 남과 북에 있는 이웃집(‘남린 북사’)에서 ‘보리타작’을 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각 시기에 맞게 농사를 짓는 농부들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농민들의 생활상에 대한 화자의 관심을 표현한 부분이다.
- ⑤ [A]와 [E]에는 대보름과 단오절에 하는 놀이나 행사로 달구경하기, 풍년인지 흉년인지 점치기, 그네 타기 등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이러한 풍속이나 놀이를 모르고 지내시는 부모님의 상황을 떠올리며, ‘사친’이라는 주제 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01 ②

02 ③

03 ③

04 ④

■ 이진유, 「속사미인곡」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영조 때 사대부인 이진유가 유배지인 추자도에서 지은 가사이다. 이처럼 유배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가사를 일러 유배 가사라고 한다. 유배 가사는 보통 ‘연군의 정서’와 ‘유배 생활의 시련’이라는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속사미인곡」은 다른 유배 가사에 비해 유배 생활의 시련이 보다 자세히 서술되고 있어, 조선 후기 가사의 사실화·서사화 경향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미가 있다. 작품의 제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 송강 정철의 ‘양미인곡’ 즉 「사미인곡」과 「속미인곡」을 계승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적인 내용 면에서 유배의 노정과 유배객의 생활 및 심정을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정철의 ‘양미인곡’에서 상당히 벗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은 ‘서사-본사-결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사는 유배지까지의 여정, 나주에서의 유배 생활, 추자도에서의 유배 생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문에는 본사의 일부와 결사가 수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죄 없음과 억울함, 임을 향한 그리움, 임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와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표현되어 있다.

주제 ▶ 유배 생활의 고통과 연군의 정서

구성 ▶

- 서사: 3년간 임을 떠나 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이유
- 본사 1: 청나라에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유배형을 받아 유배지인 나주로 가는 여정
- 본사 2: 나주에서의 유배 생활과 나주 유배에서 깨닫는 임(임금)의 은혜
- 본사 3: 추자도로 유배지를 옮기게 된 사정과 추자도로 가는 여정
- 본사 4: 추자도에서의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
- 결사: 임(임금)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임금의 은혜로 유배에서 풀려나기를 바라는 마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화자는 ‘어육이야 바람쏘냐’, ‘제 방이 덮기 생각까’, ‘못 본다고 상관하랴’, ‘무엇으로 저녁에 먹을꼬’와 같이 의문의 형식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의문의 형식을 사용해 먹을 것이 부족하고 겨울 추위에 시달리며 풍토가 달라 국화꽃도 볼 수 없는 유배지에서의 참담한 생활상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의인법이 사용된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A]에서 화자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생활상에

대해 진술하고 있을 뿐, 부정적 세태에 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③ ‘삼 년을 임을 떠나 해도에 유배되니’와 같은 구절에 장소의 이동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해당 표현은 [A]에 있는 표현이 아니며, [A]에는 장소의 이동과 그에 따른 경관의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서 화자는 유배지의 척박한 생활 환경을 알려 주는 구체적인 생활상을 나열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상황을 나열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정해진 운명으로 여겨서,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은 [A]에는 나와 있지 않다.

⑤ ‘어육이야 바람쏘냐’와 같은 표현은, 어육을 과거에는 먹었지만 지금은 어육은 고사하고 염장도 못 먹는 화자의 상황을 제시한 것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화자는 현재 겪고 있는 유배 생활의 고통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지, 지난날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의문의 형식을 사용하여 자신의 외로운 처지를 임이 모르실 리 없다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의 앞뒤에 나오는 ‘우리 임 아니시면 누구를 다시 의지할꼬’,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화자에게 임은 은혜로운 존재로서 의지해야 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임에 대한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생활 여건이 결핍된 상황은 화자가 마주한 문제 상황 중 하나이다. 육지와 단절된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은 음식을 비롯한 기본적 생활 여건을 불충분하게 만든다. 아울러 겨울이라는 계절적 상황은 먹을 것 구하기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생활고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에서 자신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원인과 조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에는 집을 떠나 유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자신의 빈집을 관리해 줄 사람이 없어 뜰 안의 꽃이 방치되어 있을 것을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본래 살던 집의 현재 상황을 짐작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은 해와 달처럼 밝은 지혜를 지닌 임이 화자 자신의 죄 없음과 임에 대한 정성스러운 마음을 알아주리라는 화자의 생각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⑤ ㉥의 ‘꿈’은 앞에서 서술한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임을 모’시

는 꿈을 가리킨다. ㉔에서 화자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 그 꿈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부각하고 있다. 그러므로 입을 다시 모시고 싶은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③ ‘가을 부채’(㉔)는 더 이상 주인이 찾지 않는 사물이다. 부채는 여름에 필요한 물건이며 서늘한 가을이 되면 더 이상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화자는 입과 헤어진 자신, 즉 입이 더 이상 찾지 않는 자신을 ‘가을 부채’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마름과 연으로 지은 ‘옷’(㉕)은 부용으로 지은 치마와 더불어 입을 위해 자신을 단장하려고 준비한 사물로서 입을 향한 화자의 애정과 정성을 드러내는 소재이다.

오답이 옳답인 이유

① ‘가을 부채’(㉔)와 ‘옷’(㉕)을 통해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 결핍의 감정이 드러나지만 입을 원망하는 마음은 드러나지 않는다.

② ‘가을 부채’(㉔)와 ‘옷’(㉕)을 통해 화자의 슬픔과 안타까움, 결핍의 감정이 드러나지만 입과 재회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체념의 정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되레 화자는 ‘두어라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라고 말하며 입과의 재회를 소망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④ ‘옷’(㉕)은 입을 향한 화자의 애정과 정성을 나타내는 소재이다. 입을 위해 정성껏 옷을 마련했지만, 그 옷으로 단장하여 입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데서 오는 안타까운 심정이 ‘눌 위하여 단장할꼬’라는 표현에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옷’이 결핍의 상황에서 비롯된 슬픔을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그러나 ‘가을 부채’(㉔)는 입과 헤어진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표현하기 위해 쓰인 사물일 뿐,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와는 무관한 소재이다. 따라서 ‘가을 부채’가 결핍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가을 부채’(㉔)는 입과 헤어진 자신의 현재 상황을 드러내는 소재이지, 화자가 기대하는 미래의 긍정적 상황을 나타내는 소재는 아니다. ‘옷’(㉕)은 입을 정성껏 모시고 싶은 화자의 마음을 나타내는 소재이고 입을 모시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바이므로, ‘옷’(㉕)이 화자가 기대하는 바를 이루려는 노력을 나타낸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④ ‘옥음은 꽃가에 완연하고’라는 표현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작가의 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옥루 높은 곳에 밤마다 입을 모’셨다는 표현은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깊어서 밤마다 임금을 모시는 꿈을 꾸는 뜻으로, 현실에서 겪은 일을 나타낸 것이 아니며 작가가 임금을 모셨던 옛일과도 무관하다.

오답이 옳답인 이유

① ‘숫국에 떡’, ‘갯물에 절인 배추 반찬’은 설날 명절에 고깃국도 못 먹고 맛없고 거친 음식밖에 먹을 것이 없는 작가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 표현을 통해 작가는 설날의 초라한 상차림을 자세히 묘사하여 자신이 유배지에서 겪은 시련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보기>에 따르면 이와 같이 유배지에서 경험한 고난과 시련을 자세히 서술하는 것은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변모를 보여 주는 특징이다.

② 작가는 주 문왕이 행했던 것과 같은 어진 정치가 이 나라에서도 펼쳐지게 되면 자신이 반드시 임금의 어진 정치에 일조하는 신하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작가 스스로가 훌륭한 정치에 필요한 가치 있는 인물임을 밝히려는 적극적인 의도에서 비롯한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이처럼 작가 자신이 임금에게 가치 있는 신하임을 밝히는 적극적인 모습은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변모를 보여 주는 특징으로 이해된다.

③ 작가는 ‘옛 잘못을 헤아리’면서 ‘우직하기 본성이요 망령됨도 내 죄’라고 하여 자신의 과거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 과거 자신이 한 행동이 유배형을 받게 된 원인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곧이어 자신이 한 행동의 ‘근본을 생각하면 입 위한 정성’이라고 해명하면서, 비록 자신이 한 행동에 문제가 있기는 했지만 그 모든 행동의 동기와 의도는 임금을 위한 정성스러운 마음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신이 과거에 한 행동이 선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뒤이어 ‘일월 같은 우리 입이 거의 아니 굶어볼까’라고 말하면서 임금이 작가의 행위가 아니라 행위 이면에 있는 정성을 밝게 헤아려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보기>에 따르면 이와 같이 작가가 지난 일에 대해 반성하거나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은 전대의 유배 가사를 계승하는 면모로 이해된다.

⑤ ‘임금께서 고치시기를 날마다 바라노라’라는 구절은 유배의 시련을 겪고 있는 자신을 구원해 줄, 문제 해결의 주체가 임금이라는 작가의 믿음에서 비롯한 표현이다. <보기>에 따르면 연군의 감정이 임금에 대한 맹목적 사랑에만 그치지 않고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주체로서 임금에 대한 믿음으로까지 확장되는 것은 조선 후기 유배 가사의 변모를 보여 주는 특징으로 이해된다.

09

고전 시가

본문 71~73쪽

01 ②

02 ②

03 ⑤

21 작자 미상, 「몽금포 타령」

해제 ▶ 이 작품은 황해도 민요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민요이다. 작품에는 장연군에 있는 장산꽃의 경치와 어항의 정경, 어부들의

생활이 묘사되어 있다. 장산곶에서 ‘곶’은 육지가 바다 쪽으로 돌출된 곳을 일컫는데, 장산곶의 북쪽 지점에 몽금포가 있으며 절벽이 병풍처럼 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제 > 장산곶의 경치와 어항의 정경

구성 >

- 1연: 배를 탄 임과의 재회에 대한 소망
- 2연: 돌아오는 배에 대한 기원
- 3연: 여러 포구에 들르길 바라는 마음
- 8연: 임과 헤어진 상황으로 인한 외로움
- 9연: 몽금포의 정경
- 10연: 배를 탄 임이 돌아온다는 소식
- 11연: 만선으로 돌아온 임
- 12연: 떠났던 임이 돌아오는 상황
- 13연: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배의 모습
- 14연: 돌아오는 임에 대한 반가움

❷ 이중경, 「어부별곡」

해제 > 이 작품은 전체 6수로 이루어진 연시조로, 자연과 벗하는 강호 생활을 통해 만족감을 느끼는 작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정계에 진출하지 못한 인물로 작품에는 이러한 작가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하지만 작가는 자신을 어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자연 속에서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일임을 드러내며 자신의 고뇌를 자연 속에서의 삶으로 극복하고자 한다.

주제 > 자연에서의 삶에 대한 지향

구성 >

- 제2수: 지난 삶에 대한 반성과 자연 속에서 지내는 현재 삶에 대한 만족감
- 제3수: 세상의 시비와 거리를 둔 어부의 삶에 대한 긍정
- 제4수: 위국 충심을 내어 보일 수 없는 한계
- 제6수: 자연에서 한가롭게 사는 삶에 대한 지향

01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바람새 좋다고 돛 달지 말’라는 것은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라는 것과 관련 있을 뿐, 화자가 이별로 인한 원망을 표출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장산곶 마루에 북소리’ 난다는 것은 임이 탄 배가 돌아오는 상황에서 북이 울리는 포구의 활기찬 분위기를 보여 준다.
- ③ ‘몽금이 개암포 들렀다’라는 것은 배로 몽금포와 개암포에 들르라는 것으로 포구가 제한된 구역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 ④ ‘몽금포 백사장’에 해당화가 있고, 푸른 ‘솔가지’에 두루미가 앉아 있다는 것은 포구의 풍경이 시각적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장산곶 마루에 새 소식 들’렸다는 것은 포구가 ‘정든 임 오’신 상황과 관련된 공간으로 나타나 있음을 보여 준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임 실려 갈 적’에는 배가 ‘반돛’을 달고 ‘임 싣고 올 적’에는 배가 ‘온 돛’을 단다는 것에서 화자가 임을 태우러 가는 배와 임을 태우고 오는 배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바다에 흰 돛은 쌍쌍이 좋으나’, ‘외로운 사랑엔 눈물만 겨워라’라고 한 것에서 화자가 ‘쌍쌍이’ 있는 돛의 모습과 ‘외로운’ 자신의 상황을 동일하지 않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옹거나 외거나’ 한 일을 ‘나도 내 일 모르노라’라고 하는 것에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 태도가 드러나 있을 뿐, 옹고 그름을 정해 주고자 하는 태도는 드러나 있지 않다.
- ④ ‘체제할 이 없을려나’에는 세상을 구제할 사람이 없겠냐는 인식이 드러나 있을 뿐, 화자의 의무감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산고수장’에 자연물의 속성이 드러나 있지만 높은 청산과 긴 유수를 ‘그 아니 좋을쏘냐’라고 하는 것에는 자연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을 뿐, 자연물의 속성이 인간의 삶과 대비되어 있지는 않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에서 ‘가는 임 아속타 속’태운다는 것은 고기를 잡으러 떠나는 임을 걱정하는 어촌 사람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에서 ‘중간에 망령되어 명리를 바라도다’는 과거의 자신을 성찰하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낼 뿐, 자연에서 머물면서 속세에 미련을 버리지 못해 고뇌하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갈 길’이 멀고 ‘행선은 더’덜 때 ‘늦바람 불라고 성황님 조른다’는 것은 배 운항이 원활하도록 ‘늦바람’이 불기를 기원하는 상황을 드러낸다.
- ② (나)에서 ‘필부의 위국 충심을 내어 뵈 데 없’다는 것은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나라를 위한 자신의 충심을 펼칠 수 없는 것에 대해 고뇌하는 작가의 인식을 드러낸다.
- ③ (나)에서 ‘산수 간 일한인되어 허물 없이’ 산다는 것은 ‘청산’과 ‘유수’에 만족하며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낸다.
- ④ (가)에서 ‘봉죽을 받고서 돌아’왔다는 것은 생계를 위해 바다로 나가 만선을 이루고 장산곶으로 돌아오는 어부들의 모습을 드러낸다. (나)에서 ‘세상이 시비를 마라’라는 것은 속세를 떠나 살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모습을 드러내며, ‘어부 무삼 그리리’라는 것은 작가가 자신을 강호 생활을 영위하는 어부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0

고전 시가

본문 74~77쪽

01 ②

02 ②

03 ①

가 작자 미상, 「유산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도시의 유흥 공간에서 널리 가창되었던 12잡가의 하나로,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노래하고 있다. 4음보 연속체를 기반으로 한 점으로 보아 가사 갈래에서 영향을 받은 잡가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음성 상징어의 활용으로 생동감을 더하고, 대구나 열거, 비유와 같은 다양한 기법을 통해 표현 효과를 높은 점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주제 ▶ 봄날의 아름다운 경치를 완상하며 느끼는 즐거움

구성 ▶

- 서사: 봄을 맞은 산천 경치의 구경 권유
- 본사 1: 봄날의 화려한 경치가 지닌 아름다움
- 본사 2: 봄날 산의 장관과 폭포의 역동적인 모습
- 결사: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에 대한 감흥

나 신고, 「백석정별곡」

해제 ▶ 이 작품은 작가가 1677년경 백석정이라는 정자를 짓고 창작한 가사이다. 자연 속 은거 생활의 이상을 구현한 작품으로, 자연과의 조화 속에서 유유자적한 삶을 추구하는 화평하고 즐거운 풍류의 세계를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속세를 떠나 자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예찬하면서, 자연의 순환성과 거문고, 음주, 시문 등 예술적 향유를 통해 조화로운 이상 세계를 그리고 있다.

주제 ▶ 백석정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삶에 대한 만족

구성 ▶

- 서사: 백석탄에 이르러 펼쳐진 절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에 감탄함.
- 본사: 산수를 즐기며 화평하고 즐거운 이상 세계를 추구함.(수록 부분)
- 결사: 속세를 잊고 자연 속에 은거하는 삶을 실천함.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에서 ‘석양이 고개에 걸려’를 하강적 이미지로, ‘은린옥적은 경면에 뛰노는고’를 상승적 이미지로 볼 여지가 있으나,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가)에서도 물이 ‘소쿠라지’는 모습을 상승적 이미지로, ‘물이 주르륵’ 흐르는 것을 하강적 이미지로 볼 여지는 있으나, 화자의 정서가 변화하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나)와 달리 ‘팔팔’, ‘주르륵’, ‘살살’ 등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폭포수 물살의 흐름을 역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가)와 (나)에는 모두 공간의 이동 과정에서 경험하는 자연의 모습에 대한 묘사가 드러난다. (가)에서는 ‘산천경개 구경 가세’, ‘천리 강산 들어가니’를 통해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후 산을 유람하면서 보는 봄날의 자연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나)에서는 ‘붉은 난간에 기대앉아’에서 시작해 ‘돌길로 돌아가니’, ‘이끼 낀 돌에 앉아’, ‘고요하게 거니니’ 등을 통해 화자의 공간 이동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보는 백석정 주위의 자연 풍광을 묘사하고 있다.

④ (가)는 ‘무릉도원이 예 아니냐’, ‘기산 영수가 예 아니냐’ 등과 같이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상황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공명을 다 잊으니 부귀인들 부러우랴’와 같이 의문형 종결 어미를 사용한 설의적 표현으로 부귀와 공명을 부러워하지 않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는 ‘만산 홍록’, ‘창송취죽’, ‘도화 만발 점점홍’ 등과 같은 표현을 통해 붉고 푸른 색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고, 이는 봄날의 자연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드러내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나)에는 ‘백암에 섰는 단풍’, ‘늪은 술은 사시에 푸르렀다’, ‘철쭉과 살구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등에서 붉고 푸른 색채 이미지를 통해 자연 경물의 특징이 시각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02 시어, 사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물결에 비친 다리의 모습을 ‘무지개’에 빗대고, 흰 바위 위의 단풍을 ‘금병’, 즉 금칠을 한 병풍에 빗대어 그 모습의 아름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무지개는 원관념이 아니라 보조 관념에 해당하므로 물결에 비치는 무지개를 다리에 빗대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탄의 노랫소리’와 ‘화평에 피리 소리’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고기 낚는 늪은이’와 ‘소 먹이는 아이’의 모습이 펼쳐지는 평화로움을 생동감 있게 나타내고 있다.

③ ‘석양이 고개에 걸려 만학이 한 빛일 때’ ‘돌길’과 ‘둔덕 위’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의 모습과 푸른 버들가지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다채롭게 묘사하고 있다.

④ 낚시로 잡은 고기를 ‘회 쳐 놓고’, ‘연잎에 빚은 술’을 먹으며 자연 풍류를 즐기는 여유 있는 화자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

⑤ ‘연하의 병’, 즉 자연을 사랑하는 병이 들어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을 지내는 태도를 긍정하고 ‘세사’는 ‘나 몰라라’ 하며 거리를 두는 화자의 태도가 대비되어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에 가치를 두는 화자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죽장’을 짓고 ‘망해’를 신고, ‘단표자’를 들고 ‘천리 강산’으로 들어가는 화자의 모습은 화려한 산천의 경치를 가벼운 차림으로 즐기고자 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부 허유’의 고사를 활용한 것은 화자가 감상하는 경치가 마치 ‘소부 허유’가 은거했던 자연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지, 화자가 ‘소부 허유’의 삶의 태도를 따르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에서 화자는 팔팔 흐르는 폭포수를 ‘수정럼 드리운 듯’하다고 하고, 골짜기에 흐르는 물결을 ‘은옥같이 흘러지’는 것에 빗대며 물로 대유되는 자연 경물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따라서 ‘물’로 대유되는 자연 경물을 이상적으로 제시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나)에서 화자는 거문고를 연주하며 자연과 벗하고 풍류를 즐기는 삶을 무릉도원으로 여기고 있다. 따라서 화자가 자연에 묻혀 은거하는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가)에서 화자는 ‘때 좋다 벗님네야 산천경개 구경 가세’라고 하며 ‘벗님네’를 부르며 봄날을 맞아 산천 구경을 가자고 하며 ‘천리 강산’을 쾌락의 대상으로 삼아 구경할 것을 제안하고, (나)에서 화자는 ‘홍진의 벗님네야 이 생애 웃지 마오’라고 하며 속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세상과 거리를 둔 채 자연을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도화 만발 점점홍’ 즉, 붉은 도화가 여기저기 흩어져 피어 있는 상태를 시각적으로 형상화하고, ‘무릉도원이 예아니냐’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나)에서 화자는 ‘소쇄한 정자 속의 매화로 벗을 삼아’ 자연 속에서 지내고자 한다. 즉 ‘매화’인 자연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자연 속에서 안빈낙도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11

고전 시가

본문 78~80쪽

01 ④

02 ①

03 ⑤

01 김상헌, 「성패관천운」

해제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 끝난 후 청나라에 잡혀갔던 김상헌이, 심양의 옥에 갇혀 있던 최명길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하기 위해 지은 한시이다. 오언 율시로 자신의 주장을 간결하게 나타내고 있다. 일의 ‘성공과 실패’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보다 더 중요한 ‘원칙과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말하는 시이다. ‘권’을 따르다가 ‘의’를 해치지 말고, 아무리 위급한 상황에서도 ‘경’을 따를 것을 조언하고 있다. 제시된 지문은 『연려실기술』 제26권에서 가져왔으며, 김상헌의 문집에는 「차강경권유감운」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최명길이 지은 「용전운강경권」을 차운하여 지은 시이다.

주제 ▶ 급한 상황에서도 권(權)보다는 경(經)을 따라야 함.

구성

- 기(1, 2행): 성공과 실패보다는 의로움이 중요함.
- 승(3, 4행):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과 기준이 있음.
- 전(5, 6행): 권은 사람을 그르칠 수 있으므로 경을 따라야 함.
- 결(7, 8행): 급한 때라도 경을 따르려고 해야 함.

04 최명길, 「정차관군동」

해제 ▶ 이 작품은 병자호란의 위기 속에서 척화론을 주장했던 김상헌을 청자로 삼아, 최명길이 쓴 한시이다. 오언 율시에 해당한다. 최명길은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전체 상황을 바라보아야 원만한 귀결을 지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위기 상황 속에서 서로의 판단이나 선택이 다르더라도, 그 본질은 둘 다 정도(正道)에 어긋나지 않을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시된 지문은 『연려실기술』 제26권에서 가져왔으며, 최명길의 문집에는 「용전운강경권」이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주제 ▶ 서로 달라 보이는 행동이나 선택도 그 본질은 정도일 수 있음.

구성

- 기(1, 2행): 전체 상황을 바라보아야 진실을 파악할 수 있음.
- 승(3, 4행): 서로 달라 보이는 것들도 그 본질은 동일할 수 있음.
- 전(5, 6행): 행동이나 선택은 달라도 속마음은 정도(正道)에 어긋나지 않음.
- 결(7, 8행): 말함도 침묵함도 하늘의 이치일 수 있음.

01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의 화자가 ‘그대 이 이치를 깨닫는다면’이라고 말한 것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 또한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대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발화이다. (나)의 화자는 두 사람 모두에게 ‘천기’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 상대의 생각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있다. (나)의 화자가 현재 상황에서 상대의 논리가 적절하지 않음을 깨우치게 하려고, 조건을 달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상대를 ‘이치에 밝은 선비’라고 칭하고 있는데, 이는 상대를 수준 높은 대화가 가능한 훌륭한 인물로 인정하는 말이다. (가)의 화자는 상대의 의견 또한 ‘이치’에 닿아 있음을 인정하면서 조언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대를 추켜올림으로써 더 깊이 있는 대화가 가능해진다.

② (가)의 화자는 상대가 지금의 상황을 ‘급한 때’로 인식하였음을 수용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저울질을 삼가라’라는 조언 역시 상대의 급박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두 사람의 속마음이 ‘정도와 어긋나’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서로의 생각에 차이가 있어 ‘다를망정’, 자신의 주장

과 상대의 주장 모두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다.

⑤ (나)의 화자는 ‘말함도 침묵함도 각기 천기’라고 말하며 ‘말함’과 ‘침묵함’이 둘 다 타당한 것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자신의 주장과 상대의 주장 모두 가치 있는 것임을 드러내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을 두고 개념 자체가 달라 서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의 ‘윗옷과 아래옷’은 인간의 신체를 기준으로 각각 위에 입는 옷, 아래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이라 바꾸어 입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의 화자는 ㉠의 ‘끓는 물과 얼음장’, ㉡의 ‘털옷과 삼베옷’이 각기 달라 보이지만, 각각 ‘물’과 ‘옷’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그 본질은 같은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는 ㉠을 서로 바꿀 수 없는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윗옷’을 아래에 입는 것이 불가하고, ‘아래옷’을 위에 입는 것이 불가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서로 바꾸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 것들’임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는 ㉠과 ㉡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들을 서로 바꾸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③ (가)의 화자는 ㉠을 두고 서로의 차이가 극복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나)의 화자는 ㉠, ㉡을 두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설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 (가)의 화자나 (나)의 화자가 각각의 개념들의 차이를 극복하거나 넘어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④ (가)의 화자는 ㉠을 두고 바꿔 사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나)의 화자 또한 ㉠, ㉡을 각각 상황이나 경우에 따라 바꾸어 쓸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언제나 바꿀 수 있는 ‘기준이나 원칙’으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⑤ (가)의 화자가 제시한 ㉠을 ‘옷’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면, (나)의 화자가 제시한 ㉠, ㉡도 각각 ‘물’, ‘옷’이라는 상위 개념으로 묶을 수 있다. 따라서 ⑤는 적절하지 않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속담이야 어찌 정도와 어긋나겠는가’라는 표현에는 겉으로 드러난 선택이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모두 ‘정도’를 지향하는 것일 수 있다는 화자의 생각이 드러난다. 하지만 (나)의 화자는 대의를 앞세운 신하들이 자신을 모욕한 것이 시국에 대한 판단 자

체가 달라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화자와 그를 모욕한 신하들 모두 병자호란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동일하게 인식했기 때문이다. 대의를 앞세운 신하들이 (나)의 화자를 비난한 것은 시국에 대한 판단이 달라서가 아니라 명분과 실리 중 명분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성공과 실패는 천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전쟁의 패배보다 중요시되는 명분, 즉 조선이 지켜야 할 대의가 있음을 강조하는 말로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경만은 마땅히 여러 사람이 어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이 있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이때 (가)의 화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칙은 오랑캐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급한 때라도 저울질을 삼가라’라고 조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최명길이 강화 문서를 써서 오랑캐에게 화친을 요청하려 했던 것이 잘못된 일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고요한 곳에서 못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는 나라가 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 더욱더 전체 시국을 보는 넓은 시야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말로 볼 수 있다.

01

현대시

본문 81~83쪽

01 ⑤

02 ②

03 ①

㉠ 이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해제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우리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대한 자각을 바탕으로 창작된 시이다. 화자는 ‘빼앗긴 들’로 표상되는, 지금은 남의 지배를 받게 된 국토에 진정한 ‘봄’, 즉 광복이 찾아올지 물으면서, 국권 상실의 아픔과 국권 회복에 대한 염원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국권 상실의 울분과 국권 회복에 대한 소망

구성 >

- 1연: 국권 침탈에 대한 인식
- 2, 3연: 아름다운 봄 경치에 이끌리지만 답답한 심정
- 4~8연: 봄을 맞은 국토의 활기찬 모습과, 그에 대한 애정
- 9, 10연: 암담한 현실에 대한 깨달음
- 11연: 조국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

㉡ 구상, 「초토의 시 1」

해제 > 이 작품은 6·25 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바탕으로 창작한 열다섯 편의 연작시 중 첫 번째 시이다. 초토(焦土)는 불에 타서 검

게 그을린 땅을 이르는 말인데, 이는 6·25 전쟁 직후 폐허가 된 우리 조국을 의미한다. 화자는 초토와 같은 조국의 현실에 낙담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극적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극복에 대한 희망

구성 >

- 1연: 전후의 폐허 속 천진한 아이들의 모습을 봄.
- 2연: 전쟁의 비극을 인식하며 괴로움을 느낌.
- 3연: 잿더미 속에서 개나리를 발견함.
- 4연: 언덕을 내려 달리는 소녀의 순수한 미소를 봄.
- 5연: 조국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은 ‘불타는 해바라기마냥’ 순박하고 강렬한 생명력을 드러내는 아이들을 보고 ‘햇밭’이 눈이 부서 돌아선 것처럼 화자도 돌아선다는 의미이다. 화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공간과 대비를 이루는, 티 없이 환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슬픔, 미안함 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일 뿐 현실을 달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현실을 달관한다는 것은 사소한 것에 얽매이지 않고 세속을 벗어난 상태에 이른다는 의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㉓은 자기만의 의지로 이 들관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서 답답함을 느끼는 화자가 ‘하늘’과 ‘들’에게 말을 해 달라며 던지는 물음들이다.
- ② ㉒은 간밤에 내린 비로 ‘보리밭’의 보리들이 깨끗이 씻긴 듯한 산뜻한 모습을 시각화하기 위해, 마치 ‘보리밭’이 ‘삼단 같은 머리를 감’은 것처럼 의인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 ③ ㉑은 도랑물이 흐르는 소리를 ‘젓먹이 달래는 노래’라고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보고 있는 우리 국토의 풍경에 모성적 이미지를 부여한 것이다.
- ④ ㉐는 유리창을 통해 보이는 아이들 모습을 ‘불타는 해바라기’에 빗댄 직유법이 사용된 시구로, ‘판잣집 유리막지’라는 말이 환기하는 공간의 누추함과 대비되는 아이들의 생동감, 생명력을 강조한 표현이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㉔은 위험한 줄도 모르고 강가에 나와 있는 아이이므로, 암울한 현실 상황을 잊은 채 봄날 국토의 아름다움에 대한 감격에 빠져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철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화자 자신을 빗댄 말이다. 그리고 ㉒은 폐허에서도 개나리가 망울진 모습을 본 화자가 관찰한 또 다른 대상으로, ‘언덕을 내려 달리’며 ‘앞니가 빠져 / 죄 하나도 없’는 얼굴로 ‘미소’를 짓는 순진무구한

모습의 소녀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은 ‘언덕을 내려 달리’고 있으므로 역동적 움직임을 보이는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㉒은 ‘째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을 빗댄 것이므로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존재라고 할 수 없다.
- ③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라는 시구로 볼 때 ㉔은 화자가 자조의 대상으로 삼는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㉒은 화자가 목격하고 희망을 발견한 대상일 뿐 자신이 동경하는 또 다른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④ ㉔은 화자가 자기 혼의 모습을 빗댄 대상이고 ㉒은 화자가 언덕을 보며 관찰한 대상이므로, 둘 다 화자의 감정이 이입된 대상이라는 말은 적절하지 않다.
- ⑤ ㉒은 ‘죄 하나도 없다’를 통해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라는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㉔은 암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철없이 봄 풍경에 심취해 있는 자기의 혼을 빗댄 대상이지, 비극적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신이 자유롭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언급한 대상이 아니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한 자옥도 섰지 마라’는 ‘바람’이 화자의 옷자락을 흔들면서 하는 말이고, ‘깎치지 마라’는 너무 재촉하지 말라며 화자가 ‘나비 제비’에게 하는 말이다. 이는 모두 봄날 국토의 아름다운 풍경과 그로부터 받는 감격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다. 따라서 이를 우리 민족 공동체가 상실된 국권을 되찾아 상징적 의미로서의 봄을 속히 맞이하기 위해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 시구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의 ‘푸른 옷을 푸른 설움이 어우러’졌다는 말에서 ‘푸른 옷’은 봄날 우리 국토가 지닌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과 관련이 있고, ‘푸른 설움’은 그렇게 아름다운 국토가 실상은 일제에 ‘빼앗긴’ 상태라는 암담한 현실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이질적인 인식의 공존은 부조화를 초래하고 그로 인해 ‘다리를 절며’ 걷는 화자의 모습이 언급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③ (가)의 1연에서는 ‘지금은 남의 땅—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을 던졌고, 마지막 연인 ‘그러나 지금은—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는 그 질문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대답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대답에는, 들을 빼앗긴 것으로 상징된 국권의 상실 상황에서 봄으로 상징되는 광복의 도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 ④, ⑤ (나)의 2연에서는 ‘그림자’가 ‘울상이 된’ 모습으로 ‘나의 뒤를 따르다’고 했는데, 이는 화자가 느끼는 참담함과 절망감의 반영이다. 그러나 ‘개나리’와 ‘소녀의 미소’를 본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자신이 ‘술 취한 듯 흥그러워진다’고 하였으며, 울상이던

그림자가 웃는 모습으로 바뀌고 뒤따르지 않고 앞장을 서는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이는 ‘젓더미가 소복한 울타리’로 대표되는 초토 같은 우리 국토에서도 극복의 의지를 환기하는, 망울진 ‘개나리’의 생명력에 주목함으로써 암담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감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2

현대시

본문 84~86쪽

01 ④

02 ③

03 ④

㉠ 정지용, 「오월 소식」

해제 ▶ 이 작품은 편지를 보낸 이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 시로, 1927년 6월 「오월 소식」을 발표할 당시 시의 말미에 ‘1927. 5. 경도’라고 써어 있었던 것을 통해 정지용이 일본 경도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쓴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외래어나 외국어의 사용, 감각적 이미지의 사용, 비유적 표현 등을 통해 정지용만의 모더니즘적인 감성을 엿볼 수 있다.

주제 ▶ 편지를 보낸 그리운 이에 대한 그리움

구성 ▶

- 1연: 그리운 사람에 대한 화자의 기억
- 2연: 편지를 읽으며 느끼는 화자의 정서
- 3연: 대상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
- 4연: 편지를 보낸 이를 찾아가고 싶은 화자의 마음
- 5연: 편지를 보낸 이에 대한 그리움

㉡ 김광균, 「와사동」

해제 ▶ 이 시는 1930년대 식민지 조선의 급속한 도시화 과정에서 등장한 가스등을 소재로 현란한 도시의 야경 속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화자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참신한 비유와 선명한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현대인의 비극적이고 공허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으며, 도시의 밤을 배경으로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고독과 비애를 잘 드러내고 있다.

주제 ▶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불안 의식

구성 ▶

- 1연: 삶의 방향을 상실한 화자
- 2연: 도시 문명의 무질서함과 무생명성
- 3연: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비애와 절망감
- 4연: 고독하고 쓸쓸한 현대인의 모습
- 5연: 삶의 방향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그림자 아니한가?’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 (나)에서는 ‘슬픈 신호나’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화자의 애상적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하늘과 딱 닿은 푸른 물결 위에 솟은, / 외따른 섬’을 통해 외딴섬에 대한 묘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섬을 ‘찾아갈까나’를 통해 그리운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며, 멀리 있는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는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 같이 황혼에 젖어’를 통해 시의 배경이 되는 도시의 풍경을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에 대한 화자의 인식 및 근대 도시에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는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모두 배경 묘사를 통해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② (가)에서는 ‘네가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소곤거리는구나’를 통해 의인법이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생동감 넘치는 역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나)에서는 자연물을 의인화하고 있지 않다.

③ (나)에서 시적 배경이 되는 공간은 도시의 밤거리로,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화자는 시 전반에서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비애감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시적 분위기가 변화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에서도 공간의 이동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리운 이에 대한 화자의 정서가 일관되게 나타나므로 시적 분위기가 변화하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1연과 5연에 유사한 시구인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려(걸리어) 있다’를 배치하여 안정감을 주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는 시의 처음과 끝에 유사한 시구를 배치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 화자는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먼 곳으로부터 은은히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끼고 있다. 이때 ㉠은 파도 소리를 비유한 표현으로, 또는 실제로 화자에게 들리는 어떤 소리가 오르간 소리처럼 들리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리운 이로부터 소식을 듣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반영되어 있는 소리로 볼 수 있다. ㉡(‘아우성 소리’)는 화자가 낯선 거리에서 경험한 군중의 소리로, 화자에게 낯선 도시 문명에 대한 고독감을 불러일으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화자가 대상에 대해 느끼는 그리움의 정서가 반영되어 있는 소리이므로, 화자의 내적 감동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화자에게 고독감과 소외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므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볼 수 없다.

④ ⑥는 화자에게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고독감을 불러일으키는 소리로, 화자가 맞닥뜨린 현실인 도시 문명을 견뎌 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⑤ ③는 화자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는 먼 곳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끼는 소리이고, ⑥는 낯선 도시 문명 속에서 느끼는 비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소리이다. 따라서 ④와 ⑥ 모두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 ‘꿈이 시시로 파랑새가 되어 오’거나 ‘섬 돌레가 근심스런 풍랑에 씹히는’ 것은 회화적 이미지에 해당하지만, 풍경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대상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나)에서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는 화자가 느끼는 도시에서의 공허함과 쓸쓸함의 정서를 드러낸 것으로, 그림을 그리는 듯한 회화적 이미지를 통해 풍경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는 강화도에 교원으로 발령 난 이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순풍이 되어,’ ‘외따른 섬 로맨틱을 찾아갈까나.’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그리워하고 있는 이를 찾아가는 즐거운 상상을 하는 모습으로, 상상 속에서 발현되는 이미지와 함께 ‘로맨틱’과 같은 이국적 시어를 사용함으로써 정지용의 모더니즘적 경향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늘어진 고층,’ ‘신호기’는 근대 도시 문명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소재로, 화자가 도시 문명에서 느끼는 고독감, 애상적 정서를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가)에서 ‘오동나무꽃으로 불 밝힌,’ ‘남기고 간 기억만이 소곤 소곤거리는’은 시각과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나)에서 ‘피부의 바깥에 스미는 어둠,’ ‘길—게 늘인 그림자’는 시각을 촉각화한 공감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구체화한 표현이다. 이처럼 (가)와 (나)에는 화자의 정서가 감각적 이미지로 구체화되어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미학적 언어로 낭만적 경향을 표현하거나 사상성을 앞세운 이전의 시와 구별되는 시인의 개성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화자는 자신이 그리워하는 대상을 ‘페스타로치’와 ‘피꼬리 같은 선생님’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나)에서 도시의 고층 건물과 찬란한 불빛으로 뒤덮인 밤의 풍경을 ‘창백한 묘석’과 ‘무성한 잡초’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에서는 강화도에 교원으로 발령 난 이에 대한 정다움과 애정을, (나)에서는 삭막한 근대 도시의 풍경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3

현대시

본문 87~89쪽

01 ③

02 ①

03 ④

가 김기림, 「연료」

해제 ▶ 이 작품은 지나온 삶을 성찰하며 앞으로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드러내는 시이다. 화자는 지금까지 살아온 ‘서른 남은 해’가 ‘무너지는 꽃이파리’처럼 덧없음을 느낀다. 큰 뜻을 이루지 못한 채 활력을 잃고 연료만 쌓이는 초라한 삶을 살아왔다고 인식한 것이다. 이에 화자는 ‘육지’로 상징되는 과거와 단호히 결별하고 열렬한 삶을 살기 위해 ‘섬’이라는 이상적 공간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주제 ▶ 초라한 삶에서 벗어나 열정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

구성

- 1연: 지나온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
- 2연: 자신의 뜻을 펴지 못한 채 쌓여 가는 연료
- 3연: 이상적 공간으로 가려는 소망과 의지
- 4연: 아름다운 이상적 공간의 모습
- 5연: 과거와 단절한 채 열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

나 박재삼, 「정릉 살면서」

해제 ▶ 이 작품은 고혈압으로 쓰러졌던 시인이 건강을 회복한 후 정릉에 살면서 쓴 시이다. 화자는 바람, 햇빛, 실개천과 같은 자연을 통해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삶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 자연 속에서 얻게 되는 삶의 위안과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는 의지

구성

- 1연: 목숨의 운영을 잘해 보라는 바람
- 2연: 잘못 살아온 삶을 덮고 쓰다듬어 주는 햇빛
- 3연: 간장 안 웅덩이를 씻어 주는 실개천
- 4연: 소중한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는 자연물인 ‘바람,’ ‘햇빛,’ ‘실개천’을 의인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이러한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친근감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가)에서 대상에 인격을 부여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 (나)에서 부사어의 사용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사어를 사용하여 시상을 전환하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② (가)에서 ‘~리라’라는 동일한 어미가 반복되고 있기는 하지만

‘꽃은 맑기도 하리라’에는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나)에는 ‘~고 있고...’가 반복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부분도 화자의 의지를 강조한 표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나)의 4연에서 화자의 고조된 감정이 표현되어 있다고 볼 수는 있지만, 1~3연은 상이한 소재를 바탕으로 유사한 정서가 열거되고 있을 뿐 점층적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가)에서도 점층적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화자가 이동하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가 지닌 의식의 세계를 중심으로 화자의 심리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나)에서는 여러 가지 자연적 소재가 사용되고 있기는 하지만 공간의 이동을 중심으로 시상이 전개되고 있지 않으며, 화자의 심리가 변화하고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에는 꽃잎처럼 아래로 떨어지며 발아래 깔리는 하강의 이미지가 드러나 있으며, 화자는 이를 통해 자신이 살아온 과거의 삶에서 느끼고 있는 초라함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갈매기’의 형상이 표현된 것이지만, ‘갈매기’는 ‘산호 핀 바다’와 ‘바다에 내려앉은 섬’을 향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보조 관념일 뿐이다. 그러므로 ㉠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불안감을 형상화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화자가 과거의 삶을 의미하는 ‘연륜’과 단절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삶과 단절한 채 불꽃과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으므로, ㉡을 통해 화자의 회한을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바람이 부는 자연 현상을 화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화자는 이러한 표현을 자연이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을 통해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에 과장된 표현이 사용된 것은 맞지만, 화자를 둘러싼 자연물과 자연적 환경을 가치 있는 자산으로 여기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 있을 뿐 미래 상황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드러나 있지는 않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가자’는 화자가 자신이 지향하는 새로운 세계로 이행할 것을 스스로 독려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청유형 표현이다. 또 ‘또한’은 화자가 열정적인 태도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드러내는 과정에서 사용된 시어로, 이 시어를 통해 화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인물 중 열정적 태도를 지닌 사람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추론을 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의 ‘가자’나 ‘또한’이라는 시어가, 자신이 지향하는 세계를 타인에게 확장하려는 태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의 삶은 ‘꽃이파리’처럼 화려하게 피어야 하지만 휘날려 발아래 깔리어 있고, ‘구름’같이 피려던 화자의 뜻은 날로 굳어 연륜이 되고 있으므로, ‘꽃이파리’와 ‘구름’은 모두 화자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자연물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웅덩이’는 화자가 지나온 삶에서 경험했던 시름을 담고 있는 것이므로 화자의 고달팠던 삶의 여정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한 상징적 시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자신이 살아온 ‘서른 남은 해’의 삶을 ‘초라한 경력’이라고 표현하였다. 또 (나)의 화자는 자신의 지나온 ‘서른여섯 해’를 ‘허술’하고 ‘잘못 살아온’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화자는 모두 자신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산호 핀 바다’에 있는 ‘섬’으로 가자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상상 속 자연 공간을 통해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의 화자는 ‘바람’, ‘햇빛’, ‘실개천’과 같은 실제의 자연물들이 자신의 삶에 대해 따뜻한 조언과 위안, 치유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므로, (나)는 삶을 인식하는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의 ‘비춧빛’은 ‘하늘’을 수식하는 시어이다. 그리고 화자는 ‘눈빛’을 ‘파도’에 적시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비춧빛’과 ‘눈빛’은 모두 대상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한편 (나)의 ‘금싸라기’와 ‘말깡게’는 각각 ‘햇빛’과 ‘실개천’과 관련된 시어로 자신의 삶에 대한 화자의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기 위한 시각적 이미지로 볼 수 있다.

04 현대시

본문 90~92쪽

01 ④

02 ①

03 ④

㉠ 이육사, 「꽃」

해제 > 이 작품은 극한의 현실 상황 속에서도 꽃이 피어날 것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시이다. ‘비 한 방울 나리잡는’, ‘북쪽 쓴도라’와 같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봄이 오면 꽃이 피어나리라는 희망을 ‘저바리지 못할 약속’으로 노래하여 극한적 상황이 극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서 ‘꽃’은 봄날의 희망과 새로운 생명의 의미를 넘어서 자유가 있는 미래, 조국 광복의 희망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주제 > 밝은 미래에 대한 신념과 의지

구성 >

- 1연: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
- 2연: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기를 기대함
- 3연: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나 이성부, 「누룩」

해제 > 이 작품은 술을 빚을 때 쓰이는 발효제인 ‘누룩’을 의인화하여 자신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중의 저력을 형상화하고 있다. ‘누룩’은 알맞은 바람을 만나고 좋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지만 물과 함께 덩달아 끓어올라 ‘춤’, ‘기쁨’, ‘해 솟는 얼굴’이 된다. 화자는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 자신을 희생하고 사회적 연대를 통해 억압적인 사회를 극복해 가는 민중의 모습을 구현하였다.

주제 >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민중의 저력

구성 >

- 1연: 누룩이 뜨는 까닭에 대한 인식
- 2연: 누룩이 겪는 시련과 고통
- 3연: 술이 되기 위한 누룩의 인내
- 4연: 발효로 술이 되어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누룩
- 5연: 발효되어 퍼지는 누룩과 술의 냄새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는 ‘나비처럼 취하는 화상의 무리들아’에서 직유의 방식으로 대상을 구체적 형상으로 제시하는 표현이 나타나 있지만 (나)에는 직유법이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는 ‘~날이어’, ‘~약속이어’와 같은 영탄적 표현을 사용하여 조국의 독립과 같은 희망적 미래에 대한 화자의 믿음과 의지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지’라는 대명사를 사용하여 ‘누룩’을 지칭함으로써 대상을 인격화하고 있다.
- ③ (가)는 ‘빨강게’에서 꽃의 강렬한 생명력을, ‘까맣게’에서 제비 떼가 날아오는 희망적 상황을 색채어를 사용하여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만 (나)에는 색채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가)의 ‘피지 않는가’, (나)의 ‘알겠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에서 의문형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청자에게 대상의 속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가)와 (나)의 화자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각각 ‘꽃’과 ‘누룩’이라는 대상이 지닌 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척박한 현실에서도 빨강게 피어난다는 점에서 불의한 현

실에 처해 있는 화자에게 희망을 환기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은 억압적인 현실 속에서 나약한 존재이지만 다른 대상과 힘을 합쳐 새로운 희망을 이끌어 내는 존재라는 점에서 화자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은 화자가 긍정하는 대상으로, 화자와 갈등하고 있지 않다. ㉡은 화자에게 연대의 가치를 일깨우는 존재이지만, 화자와 직접적으로 연대를 하고 있지는 않다.
- ③ ㉠은 화자에게 희망을 일깨우는 존재이기에 화자가 경계하는 대상이 아니다. ㉡은 화자에게 깨달음을 주는 존재이므로, 화자가 지향하는 대상으로 볼 여지가 있다.
- ④ ㉠은 화자에게 희망을 일깨우는 존재이므로, 화자의 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은 화자가 그 속성을 예찬하고 본받고자 하는 존재이므로, 현재 이후 화자가 어떤 삶을 지향할 것인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렇게 볼 때, ㉠은 화자의 미래를 짐작하게 하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 ⑤ ㉠은 화자에게 희망을 일깨우는 존재이므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은 화자가 본받고자 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와 대립되는 대상으로 볼 수 없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는 누룩이 뜨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누룩이 ‘춤’과 ‘기쁨’, ‘해 솟는 얼굴’도 될 수 있으므로, 이 과정을 군부 독재하의 불의한 현실 상황에 대해 화자가 느끼는 무력감을 형상화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때’는 생명이 살기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화자가 처해 있는 일제 강점의 상황을 빗댄 것이다. 이를 통해 화자가 일제 강점의 현실을 극한적인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제비 떼’는 봄의 전령사와 같은 소재로, 그것이 ‘까맣게 날라 오길’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화자가 봄과 같은 희망적 현실을 염원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이는 당시의 시대 상황을 볼 때 조국 광복을 의미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 ③ ‘알맞은 바람’과 ‘살며시 더운’은 누룩이 발효되어 뜨는 환경적 조건을 나타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누룩은 바람, 온도와의 연대를 통해 비로소 발효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통해 화자는 억압받고 나약한 존재인 민중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서로 연대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가)의 ‘새벽’은 차고, (나)의 ‘칼벌’은 엄동설한 속에 보이는 것이니 모두 춥고 혹독한 현실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꽃 땀 아리’와 ‘꽃피는 가슴’을 예견하게 하므로, 각각의 불의한 현실 상

황 속에서 긍정적인 미래 상황을 기대하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5

현대시

본문 93~96쪽

01 ⑤

02 ⑤

03 ①

㉠ 김규동, 「나비와 광장」

해제 ▶ 이 작품은 나비와 나비를 둘러싼 냉혹한 현실을 통해 문명에 대한 비판과 인간성이 회복된 세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다. ‘흰나비’가 환기하는 백색의 이미지는 나비가 순수함을 간직한 존재임을 보여 주며, 나비는 지치고 상처 입었으면서 어떤 희망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존재로 형상화된다. ‘활주로’, ‘제트기’ 등과 같은 소재는 현대 문명과 관련된 소재로 전쟁을 연상시키며, 나비가 처한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마지막 연에서 이러한 현실에 맞서 대결하려는 나비의 모습은 장엄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절망 속에서도 순수함을 지켜 내고자 하는 의지를 강렬하게 보여 준다.

주제 ▶ 현대 문명의 비정함과 대결 의지

구성 ▶

- 1연: 극한 상황에서 방향성을 잃어버린 나비
- 2연: 절망적 상황에 처한 나비
- 3연: 폭력적 현실에 짓눌려 날개를 파닥이는 나비
- 4연: 희망적 미래에 대한 상상
- 5연: 현실에 맞서 대결하려는 나비의 의지

㉡ 이형기, 「민들레꽃」

해제 ▶ 이 작품은 민들레꽃을 통해 강인한 생명력과 허무에 맞서는 의지를 그려 내고 있다. 민들레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피어나는 존재로 묘사된다. 삶이 외롭고 덧없다 하더라도 허무에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 허무를 삶의 한 부분으로 끌어안는 민들레의 태도는 생에 대한 깊은 성찰을 보여 준다. 화자는 민들레처럼 작고 하찮아 보이는 존재도 이러한 태도를 가진다면 ‘어떤 자로서도 켈 수 없’을 만큼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주제 ▶ 허무에 맞서 피어난 민들레에 대한 예찬

구성 ▶

- 1연: 전력을 다해 노랗게 피어난 민들레
- 2연: 주어진 한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 피어난 민들레
- 3연: 주어진 장소를 자기 자리로 받아들이고 피어난 민들레
- 4연: 뿌리 내리고 싹 틔우는 과정을 거쳐 닳새 동안 핀 민들레
- 5연: 노랗게 피었다가 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진 민들레
- 6연: 생의 허무에도 불구하고 영원을 꿈꾸며 피어 있는 민들레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는 ‘흰나비’에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흰색의 이미지는 나비가 지닌 순수함, 연약함 등의 속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나)는 ‘노랗게 노랗게 ~ 피어 있다’에서 색채 이미지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노란색의 이미지는 민들레꽃이 지닌 생명력, 강인함 등의 속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2연의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 3연의 ‘불길처럼 일어나는 인공의 조수’ 등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 ‘심장’과 ‘조수’에서 환기되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부각하면서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6연의 ‘한 댕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에서 직유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동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는 동일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나)는 5연의 ‘아주 노랗게 노랗게만 피는 꽃 /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꽃’에서 동일한 명사로 시행을 종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가)는 감탄사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는 6연의 ‘아 민들레!’에서 감탄사로 영탄적 어조를 드러내어 민들레를 예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는 4연의 ‘하얀 미래의 ~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푸르른 활주로의 ~ 피고 있는 것일까’에서 의문형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을 통해 희망적 미래에 대한 기대나 회의감이 드러날 뿐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나)는 6연의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에서 의문형 진술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진술을 통해 ‘꿈’에 대한 수용적 태도가 드러날 뿐, 화자의 반성적 태도가 드러나지는 않는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지치고 상처 입은 나비가 머무르고 있으면서 ‘한 모금 샘물도’ 기대할 수 없는 공간으로 묘사되는 점을 고려하면, 나비가 좌절감을 느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민들레가 ‘바위 새’나 ‘잡초 속’ 일지언정 ‘바로 내 자리’라고 받아들이는 공간이므로, 수용적 자세를 드러내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절망적 상황에 놓인 나비가 처한 공간이면서 허무함을 환기한다는 점에서, 나비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민들레가 자기 자리로 받아들이고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는 공간이므로, 민들레가 추구하는 가치가 실현되지 않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과 ㉡에는 모두 나비나 민들레가 외부 대상과의 교감을 시도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는다.

③ ㉠은 나비가 머무르면서 ‘한 모금 샘물도’ 찾지 못하는 공간이므로 나비가 아직 도달하지 못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은 민들레가 주어진 환경을 자기 자리로 받아들이고서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는 공간이므로, 민들레가 현재 머무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④ ㉠은 ‘한 모금 샘물도 없’고 ‘투명한 광선의 바다’만이 시야에 들어오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나비가 내적 갈등을 겪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민들레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어지나 민들레가 자기 자리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간이므로,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공간이라고 보기 어렵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기계처럼 작열한 심장’은 현대 문명이 지배하는 공간 속에서 비행하고 있는 나비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현대 문명의 거스를 수 없는 힘 자체를 나타낸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보기>를 참고할 때 한계 상황에 도달한 나비가 ‘아름다운 영토’를 향한 비행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은, 현대 문명의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아니라 현대 문명의 힘에 맞서는 의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의 ‘신도 기적도 이미 / 승천하여 버린’ 상황은 나비가 처한 비극적 상황을 보여 주며, 나비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또 한번 스스로의 신화와 더불어 대결하’는 모습을 보인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나비의 모습을 통해 비극적 상황에서도 순수성을 지켜 내려는 의지적 태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③ (나)의 ‘주어진 한계 그 안’은 민들레에게 주어진 공간적 제약을 나타내며, 민들레는 이러한 제약 속에서 ‘피어선 질 수밖에 없는’ 순간적 존재로 묘사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민들레의 모습을 통해 환경적 제약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의 운명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헛된 꿈’은 언젠가 소멸할 수밖에 없는 민들레의 개화가 헛된 일일 수도 있다는 인식을 보여 준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인식에도 불구하고 ‘한 댕새를 짐짓 영원인 양하고’ 피어 있는 민들레의 모습을 통해, 허무에 매몰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다.

⑤ (가)의 ‘이즈러진 날개’는 미성숙한 존재인 ‘어린 나비’가 상처 입고 훼손되었음을 보여 주며,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표현은 나비의 연약한 속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전력을 다해 셋노랑게 피어 있다’는 표현은 ‘찌그만 것’이 가리키는 민들레의 색을 부각하며,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표현은 민들레의 작지만 강인한 속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06

현대시

본문 96~98쪽

01 ③

02 ③

03 ②

가 김수영, 「그 방을 생각하며」

해제 ▶ 이 작품은 시간이 지난 후 4·19 혁명 당시를 돌아보며 그 사이 혁명 정신이 퇴색된 것에 대한 탄식을 드러낸 시이다. 1960년 10월경 창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책과 씁쓸함 속에서도 좌절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려는 태도가 드러나 있다.

주제 ▶ 혁명 정신이 퇴색된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래에 대한 기대

구성 ▶

- 1연: 방을 바꾸고 좌절된 혁명을 떠올리는 ‘나’
- 2연: 열정을 품었던 과거 그리고 이제는 달라진 ‘나’
- 3연: 좌절과 실망을 재산으로 삼아야겠다고 생각하는 ‘나’
- 4~6연: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와 기대감

나 황동규, 「달밤」

해제 ▶ 이 작품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광경을 상상하며 정체성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을 형상화한 시이다. 시적 화자는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과 태도, 자신이 품고 있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달빛’, ‘구름 개인 들판’ 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어둡던 과거를 청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

구성 ▶

- 1~5행: 과거를 돌아보며 삶을 성찰하는 ‘나’
- 6~9행: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는 ‘나’
- 10~12행: 진취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의지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혁명’은 안 되고 나는 방만 바꾸어 버렸다’라는 1, 3연의 시구를 4연에서 변주하여 언급하며, 화자의 정서 전환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기억 속 상황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에는 사실적 묘사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녹슬은 펜’, ‘달콤한 의지의 잔재’, ‘쓰디쓴 담뱃진 뱀새’라는 표현은 시각·미각·후각을 활용한 감각적 이미지로, 좌절과 환멸을 느끼는 화자의 상황을 형상화하고 있다. (나)의 ‘얼은 들판 위에 내리는 달빛’, ‘얼음을 밟으며’, ‘혈빛은 옷 가득히 받는 달빛’이라는 표현은 시각·촉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고독하지만 성숙에 이른 화자의 상황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는 ‘방’을 반복하며 화자에게 혁명의 열정이 있던 과거 공간을 제시하고 있고, (나)는 ‘들판’, ‘달빛’을 반복하며 화자가 깨달음과 충만함을 경험하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④ (가)에서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 ‘일하라 일하라 일하라’에 드러난 명령형 어미를 통해 화자가 과거 가지고 있던 혁명 정신을 실천하고자 했던 의지를 표현하고 있으나, (나)에는 명령형 어미가 보이지 않는다.

⑤ (나)에서는 마지막 행에서 ‘달빛 달빛’이라는 명사로 시행을 마무리함으로써 시각적 이미지와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으나, (가)에서는 그와 같은 구절이 보이지 않는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화자가 부르던 모든 노래를 남기고 온 공간으로, 그 방의 벽에 남아 있는 ‘싸우라 싸우라 싸우라는 말’들이 ‘가슴’이고 ‘사지’였던 것으로 진술이 되고 있으므로, 과거 화자가 증시하던 가치들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현실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기 위해 제시한 공간으로, 화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한 뒤 ‘이제’ ‘외로움이 아닌 길’을 걷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얼음을 ‘두 팔 들고’ ‘달빛’을 받으며 밟겠다고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현실을 수용하려는 태도와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화자가 과거를 떠올릴 때 중요하게 떠오르는 노래, 말들이 담겨 있는 공간이므로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나)에서 화자의 슬픔은 다루어지고 있지 않으므로 ㉡을 화자의 슬픔 극복 의지와 관련짓기는 어렵다.

② ㉡을 화자가 계속해서 떠올리고 있으나 그리워하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에 다른 사람과의 추억이 담겨 있는지 여부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④ ㉡이 화자가 이루려고 했던 것을 가로막았는지 여부는 시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은 과거와 달리 밝아진 시적 상황을 표현하고 있으나 시 속에 화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장애물을 극복하였는지 여부는 언급되지 않는다.

⑤ (가)와 (나) 두 시 모두 화자의 세속적 가치 추구 혹은 세속적 가치와의 거리 두기 등은 언급되어 있지 않으므로 ㉠과 ㉡을 세속적 가치와 관련지어 이해하기 어렵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가 ‘실망의 가버움을 재산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 ‘가버움’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역사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과거 자신이 지향해 오던 가치들을 실현해 내지 못했음을 알면

서도, 이 실패에서 오는 실망을 기억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과거의 불완전함을 배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의 가슴을 아직도 울리고 있는 것은 과거에 지향하던 이상, 이상적 가치들에 대한 기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을 헛소리처럼 느끼기도 하고 잊기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자신의 삶이 과거의 이상에서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이 과거와 크게 달라져 있음을 낙서, 기대, 노래를 잃은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기쁘고 풍성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앞으로의 삶을 희망적 태도로 바라보고 자아를 모색하는 화자의 자세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화자가 자신이 이제까지 생각해 온 것, 지금 자신에게 남은 것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살아온 과정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화자는 ‘누가 와서 나를 부’르는 상황을 가정하며 자문하고,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보여 주게 될 다른 모습을 그려 보고 있다. 이것은 스스로의 모습을 자문자답을 통해 돌아보며 정체성 회의 끝에 얻게 된, 새로워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07 현대시

본문 99~102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④

㉠ 조지훈, 「눈 오는 날에」

해제 > 이 작품은 삶의 값진 보람과 빛나는 자량을 뒤로 하고 무념히 쇠락해 가며 비애를 느끼던 화자가 눈이 내리고 쌓이는 자연 현상을 바라보며 마음의 위안과 안정을 찾아 가는 과정을 형상화하고 있다. 고요히 눈이 내리고 쌓이는 공간의 분위기를 통해 경건하고 차분한 시적 분위기를 연출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비애와 절망에 빠지지 않고 자신의 혼을 지키며 포근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가 잘 드러나 있다.

주제 > 눈을 바라보며 느끼는 심리적 위안과 평화

구성 >

- 1연: 창에 기대어 밖을 바라봄.
- 2연: 새하얀 눈이 내려 쌓임.
- 3연: 삶의 보람과 자량이 쇠락해 감.
- 4연: 허망함과 외로움을 느끼며 눈을 바라봄.
- 5연: 마음에 찾아온 고요와 안정
- 6연: 포근한 눈을 통해 느끼는 삶의 위안

나 이수익, 「유등제」

해제 ➤ 이 작품은 세상살이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유등제라는 의식을 활용하여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강가의 어둠 속에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등불을 흘려보내는 유등제를 보고 싶다는 소망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온갖 설움과 번민, 괴로움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어둠과 대비되는 유등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유등제의 모습을 제시하고, 화자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주제 의식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삶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소망

구성 ➤

- 1연: 눈물의 제의, 유등제를 보고 싶은 소망
- 2연: 세상의 온갖 설움을 유등처럼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
- 3연: 간절한 마음을 담아 경건하게 치러지는 유등제
- 4연: 슬픔을 떠나보내는 축복의 제의를 보고 싶은 소망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3연에서 추상적 대상인 ‘보람’과 ‘자랑’을 ‘모조리 불사르고’라는 표현을 통해 구체화하며,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추상적 대상의 구체화를 통해 화자의 내면적 고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는 눈이 내리는 자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대상의 성질이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 ③ (나)의 4연에서 목적어에 해당하는 어구가 도치되어 유등제를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서가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심리적 갈등이 부각되고 있지는 않다.
- ④ (가)와 (나) 모두에 대상의 움직임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역동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간의 속성을 나타낸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가)에서는 화자의 심리가 점차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특정 시어의 사용을 통해 시상의 반전을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나)에는 유등제를 보고 싶어 하는 화자의 정서가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 시상의 반전이 나타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에서 ‘불빛’과 ‘어둠’의 대비를 통해 ‘불빛’이 부각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빛’을 일상의 체험 속에서 발견하게 된 희망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불빛’은 화자가 유등제라는 가정적

상황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고민을 떠나보내고자 하는 수단이지만, 화자가 일상의 체험 속에서 발견하게 된 희망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㉔의 ‘꽃다발’은 눈이 내려 쌓이는 형상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화자가 내려 쌓이는 눈을 아름다운 꽃다발과 같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㉔에는 고평화 속에 호젓한 폴폴리 소리가 어우러지는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경건하고 차분한 시적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 ③ ㉔에 드러난 화자는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번뇌와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화자는 이러한 소망을 드러내기 위해 유등을 ‘함께 따라갈 수 있다면’과 같이 가정적 상황을 설정하고 있다.
- ⑤ ㉔에는 ‘차마’라는 시어를 통해, 연등을 띄운 채 그것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며 쉽사리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형상화되어 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는 자신의 보람과 자랑이 모두 사라져 버리는 절망감을 느꼈던 화자가, 절망을 포근한 것으로 인식하는 모습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B]에는 화자가 자신의 번민과 고통을 떠나보내고 싶다는 인식이 드러나 있을 뿐 이러한 인식이 전환되는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전환된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 새롭게 지각하게 된 삶의 교훈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또 [B]에서도 화자가 새롭게 지각하게 된 삶의 교훈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B]에는, 화자가 자신의 번민과 고통을 유등제의 연등처럼 떠나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일관되게 제시되어 있을 뿐 화자의 의식이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 [A]에서 화자의 의식이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는 모습이 드러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④ [A]에는 자신의 보람과 자랑이 모두 사라져 가는 것에 괴로워하던 화자가 심리적 안정을 회복해 가는 양상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B]에는 화자가 자신의 번민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을 뿐 화자의 심리가 안정된 상태를 회복해 가는 양상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⑤ [A]에서는 절망을 눈처럼 포근한 것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 [B]에서는 유등제의 연등처럼 자신의 번민과 고통을 떠나보내고 싶은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자의 모습과 소망이 화자가 소망하고 있는 이상적 상황을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이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 강설과 적설이라는 시적 상황이 나타나고 이를 통해 화자가 위안을 얻고 있지만, 강설과 적설은 모두 끊임없이 지속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일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유등제'는 삶의 고통을 '불귀의 하늘'로 전함으로써 화자와 사람들이 겪고 있는 삶의 고통을 떠나보내는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유등'이 '강가'로 돌아오지 못하므로 삶의 고통이 근본적으로 제거되지는 못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눈이 내리고 쌓이는 상황에서 마음속 고요와 포근함을 느끼고 있으므로 강설과 적설이라는 자연 현상은 화자의 삶의 고통을 위안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 (나)의 화자는 해 저문 강가에서 유등제를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므로 유등제라는 의식은 화자가 느끼는 삶의 고통을 위안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지나온 삶 속에서 가지고 있던 보람과 자량이 모두 사라지는 허무함을 느끼는 와중에 눈이 내리자 마음속 평안을 찾고 있다. 그리고 (나)의 화자는 유등제를 통해 그동안 삶 속에서 느꼈던 세상의 온갖 설움을 떠나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므로 (가)의 '빛나는 자량을 모조리 불사르고'와 '허망한 시공', (나)의 '세상의 온갖 설움'은 모두 화자가 인식하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세계를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내 외로운 영혼', '내 혼' 등의 시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자 자신의 정서와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나)의 화자는 유등제를 통해 삶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을 드러내면서 유등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심리를 추측하며 '수천, 수만 개의' 아득한 '행렬'이라는 표현을 통해 다른 사람들로 의식을 확장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절망을 오히려 포근하다고 표현하였고, (나)의 화자는 유등제를 슬픈 의식이지만 축복의 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순된 표현은, 두 작품의 화자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삶의 고통을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데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을 감내해 내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8

현대시

본문 103~105쪽

01 ①

02 ④

03 ③

21 신동집, 「포스터 속의 비둘기」

해제 > 이 작품은 비둘기가 인쇄된 포스터에서 연상한 내용을 바

탕으로 현대인들의 삶을 그려 낸 시이다. 포스터는 인위성을 띤 소재로 현대 문명과 관련이 있으며, 비둘기의 자유와 생명을 빼앗는 획일화된 공간으로 형상화된다. 비둘기는 포스터 밖에서 노닐던 전과 달리 더 이상 날지 못한 채 포스터 속에 적응하고 안주하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데, 이는 자유를 잃은 채 반복적인 일상을 살아가야만 하는 현대인들의 비극적 처지를 우의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 자유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의 삶

구성 >

- 1, 2행: 포스터 속 비둘기의 모습
- 3, 4행: 비둘기가 가진 습성의 변화
- 5~9행: 과거 비둘기가 자유롭게 노닐던 공간
- 10~12행: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 포스터 속 공간
- 13~19행: 자유와 생명력을 상실한 포스터 속 비둘기
- 20~23행: 복사된 포스터 속 비둘기들의 획일적인 모습

4 최승호, 「대설주의보」

해제 > 이 작품은 폭설이 내리는 산골의 풍경을 통해 억압적인 현실을 상징적으로 그려 낸 시이다. 눈은 '해일', '군단', '계엄령' 등과 같은 시어와 결합하여 단순한 자연 현상을 넘어 거대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굴뚝새는 이러한 눈의 위협 앞에서 공포를 느끼고 서둘러 몸을 숨긴다. 이 시가 1980년대에 발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묘사는 군부 독재 아래의 폭압적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굴뚝새는 이러한 억압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삶을 이어 가는 민중의 모습을 환기한다.

주제 > 자유를 억압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구성 >

- 1연: 눈보라 속을 날아가는 굴뚝새
- 2연: 거세게 몰려오는 눈보라
- 3연: 위협을 피해 몸을 감추는 굴뚝새
- 4연: 모든 것을 파괴할 듯 몰아치는 눈보라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는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어 있지 않다. (나)는 2연의 1행과 2행, 4연의 1행과 2행을 '-(으)ㄴ 듯'으로 끝맺으면서 추측을 드러내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눈이 내림으로써 벌어질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각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는 인칭 대명사 '나'와 '그'를 활용하여 비둘기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인칭 대명사가 나타나 있지 않다.

③ (가)에는 색채어가 사용되어 있지 않다. (나)는 '백색'과 같은 색채어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가)에는 직유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나)는 ‘해일처럼 굽이치는 백색의 산들’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눈보라가 환기하는 역동적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⑤ (가)는 ‘비둘기는 자꾸만 결눈질을 하고 있다’, ‘피 한 방울 나지 않는다’ 등에서 현재형의 진술을 활용하여 화자가 포스터 속에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나)는 ‘굴뚝새가 눈보라 속으로 날아간다’, ‘날아온다 꺼칠한 굴뚝새가’, ‘서둘러 뒷간에 몸을 감춘다’ 등에서 현재형의 진술을 활용하여 굴뚝새가 눈보라를 피해 움직이는 상황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지붕마루’를 노닐던 비둘기가 거쳐하던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비어 버린’ 채 ‘비바람에 털리며 삭고 있’으므로, 비둘기가 머무르다가 떠난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굴뚝새가 ‘굵은 눈발’과 ‘그 어디에’ 있을지 모를 ‘부리부리한 솔개’의 공포로 인해 산에서 쫓겨 와 ‘서둘러’ ‘몸을 감’추는 공간이므로, 굴뚝새가 머물러 숨기 위해 찾아든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비어 버린’ 채 ‘비바람에 털리며 삭고 있’으므로 비둘기의 부재를 확인하게 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짧은 날개를 파닥이며’ ‘눈보라 속으로 날아’가던 굴뚝새가 위협적 상황을 피해 몸을 감추는 곳일 뿐, 굴뚝새의 실재가 밝혀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② ㉠은 비둘기가 ‘포스터 속에 들어앉’기 전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생명력을 발휘할 때 머물던 곳이므로, 비둘기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었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은 굴뚝새가 위협적 상황을 피해 몸을 감추는 곳일 뿐 굴뚝새의 가치가 부정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③ ㉠은 비둘기가 ‘포스터 속에 들어앉’기 전 자유롭게 살아가던 터전이므로, 비둘기에게 불안을 겪게 한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은 굴뚝새가 ‘눈보라가 내리는 백색의 계엄령’이 조성하는 위협적 상황을 피해 몸을 감추는 곳이므로, 굴뚝새에게 안정을 찾게 해 주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은 ‘비어 버린’ 상태에 있으며 비둘기에 대한 연대감을 환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없다. ㉡은 ‘부리부리한 솔개’와 대비되는 ‘쪼그마한 솟덩이만 한’ 굴뚝새가 위협적 상황을 피해 몸을 감추는 곳이므로, 굴뚝새에 대한 연민을 환기하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보기>를 참고하면 (가)에서 ‘한때의 지붕마루’는 현재 ‘날아

볼 하늘이 없’는 ‘포스터 속에 들어앉아’ 있는 비둘기가 자유롭게 노닐던 과거의 공간이며, 자유가 상실되기 이전의 상황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 ‘깊은 백색의 골짜기’가 굴뚝새를 쫓기게 하는 원인임을 고려하면 골짜기 밖이 아닌 골짜기 내부가 자유가 억압된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깊은 백색의 골짜기’가 자유가 상실되기 이전의 상황을 환기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포스터’는 현대 문명 속에서 만들어진 인위적 산물이다. ‘수많은 복사’는 똑같은 모습의 비둘기가 대량 인쇄된 포스터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를 참고하면 현대 문명의 획일성을 환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눈보라의 군단’과 ‘백색의 계엄령’은 ‘군단’과 ‘계엄령’의 군사적 의미와 작품의 시대적 맥락을 고려할 때 군부 독재를 연상시키며, ‘은하수가 펄펄 쏟아져 날아오듯 덤벼’들면서 ‘등산객들’의 길을 잃게 하고 ‘외딴 두메 마을’의 길을 끊을 수 있는 압도적인 존재로 묘사된다. <보기>를 참고하면 이러한 묘사는 군부 독재의 폭력성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보기>를 참고하면 (가)에서 ‘비둘기가 날아 볼 하늘이 없다’는 것은 포스터 속 비둘기가 처한 상황을 나타낸 것으로, 자유를 잃고 현실에 속박되어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처지를 보여 준다. (나)에서 ‘쪼그마한 솟덩이만 한 게 짧은 날개를 파닥이’는 상황은 폭압적이고 위협적인 상황에 처한 굴뚝새의 처지를 나타낸 것으로, 자유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던 민중의 처지를 보여 준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가)에서 ‘차라리 죽지 못해 그는 탈’이라는 말은 포스터 속에서 자유와 생명력을 상실한 비둘기가 존재 의의도 함께 상실하고 말았다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며, 이 말에는 삶의 의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부자유한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그 어디에 부리부리한 솔개라도 도사리’는 것은 눈보라 속을 날던 굴뚝새에게 공포를 느끼게 하는 상황을 보여 주며, 눈보라가 군부 독재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떠올리는 말에는 공포를 조장하여 자유를 억압하던 당대 현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09

현대시

본문 106~108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가 이성복, 「그 여름의 끝」

해제 ▶ 이 작품은 폭풍을 이겨 내고 붉은 꽃들을 피워 낸 ‘백일홍’의 모습을 통해 절망의 극복을 형상화한 시이다. 여러 차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여름을 견딘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보면서 화자 역시 절망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즉 백일홍과 화자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절망을 극복해 가는 강인한 의지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서로 대응되고 있다.

주제 ▶ 생명력 넘치는 백일홍을 통한 절망 극복 의지

구성 ▶

- 1연: 폭풍을 이겨 내고 꽃을 피운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
- 2연: 시련과 절망에 처한 화자
- 3연: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을 보며 절망을 극복한 화자

나 김명인, 「그 나무」

해제 ▶ 이 작품은 병든과 늦은 대상인 ‘그 나무’를 바라본 화자가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성찰하게 되는 시이다. 봄을 맞아 한창 꽃을 피운 다른 나무들과 달리, ‘제 꽃 한 송이도 펼쳐 들지 못하고 멈춰서 있는’ 늦은 ‘그 나무’를 본 화자는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방황하느라 남들에 비해 늦은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동질감을 느낀다. 화자는 늦되고 병든 그 나무가 ‘푸릇한 잎새’를 매달고, 시간이 지나 ‘가난한 소지’를 지퍼 올릴 기회를 기대한다. 이는 곧 나무와 동일시되는 자신의 삶에서도 그러한 결실을 얻기를 소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제 ▶ 늦된 ‘그 나무’에서 느끼는 연민과 동질감

구성 ▶

- 1~4행: 늦된 ‘그 나무’를 발견함.
- 5~11행: ‘그 나무’에 대한 연민
- 12~18행: ‘그 나무’를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봄.
- 19~22행: ‘그 나무’에 대한 기대감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에서는 색채어 ‘붉은’을 활용하여 백일홍이 지닌 강인한 생명력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으며, (나)에서는 색채어 ‘푸릇한’을 활용하여 무성한 잎새를 매달고 서 있을 나무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는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는 ‘나의 절망은 장난처럼 붉은 꽃들을 매달았지만’을 통해 화자가 처한 괴롭고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장난처럼’이라는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실제로는 결코 절망이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다는 화자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반어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가)와 (나)에서는 명시적인 청자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자를 호명하여 말을 건넌으로써 친근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가)에서는 ‘쏟아지는 우박처럼’을 통해 직유적 표현이 사용되었고, 나무에 매달린 붉은 꽃들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나)에서는 직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⑤ (가)에서는 ‘넘어지면 매달리고’를 통해, (나)에서는 ‘들킨 게 부끄러운지, 그 나무’를 통해 의인화의 방식을 활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와 (나) 모두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내적 갈등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은 다른 꽃나무에 비해 시기는 늦었지만, 그 나무가 가지마다 푸릇한 잎새를 매달기를 바라는 화자의 바람이 담겨 있다. 아울러 그 나무와 동일시되는 화자 역시 늦깎이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나무를 바라보는 화자의 안타까움을 드러낸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은 화자가 관찰한 백일홍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여러 차례의 폭풍을 강인하게 이겨 낸 백일홍의 모습을 통해 화자가 관찰을 통해 알게 된, 백일홍의 강인한 생명력을 드러낸다.

② ㉔은 폭풍의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했던 백일홍과 마찬가지로, 폭풍의 한가운데서 시련과 고통을 견뎌야 했던 화자의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백일홍과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드러낸다.

③ ㉔은 꽃이 활짝 피었다 진 벚꽃과 달리, 꽃 한 송이도 피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늦된 그 나무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화자가 벚꽃과는 다르게 그 나무의 성장 속도가 느리다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다.

④ ㉔은 화자가 병든 그 나무를 보면서 남들에 비해 늦은 자신의 삶을 떠올리며 그 나무에서 친밀감과 동질감을 느끼고 있음을 드러낸다.

03 시어 및 시구의 비교와 대조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은 여러 차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강인하게 견뎌 낸 백일홍이 맺은 결실을 나타내고 있고, ㉔은 늦된 나무가 피우게 될 꽃으로, 늦된 나무가 맺을 결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과 ㉡ 모두 백일홍과 늦된 나무의 희생정신을 의미하지 않는다.
 ② ㉠과 ㉡ 모두 백일홍과 늦된 나무가 내재하고 있는 상실의 고통을 나타내지 않는다.
 ③ ㉠은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이 이루어 낸 결실을 의미하므로 즐거움을 전달한다고 볼 수 없고, ㉡는 늦된 나무가 피우게 될 꽃에 대한 기대감을 의미하므로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에서 백일홍의 강한 생명력을 보며 화자가 절망을 극복하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위로를 주는 존재로 볼 수 있지만, ㉡에서 늦된 나무를 화자에게 결핍감을 느끼게 하는 존재로 볼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나)에서 '가난한 소지'는 늦된 나무에 물든 단풍을 비유하는 동시에, 화자가 이루어 낼 결실을 의미한다. 이는 늦은 나무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무와 화자가 모두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봄'을 지나 '여름도 지'칠 때야 '가난한 소지'를 '지퍼 올릴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을, 화자가 타자인 나무와 같이 소외된 처지의 자신에게 연민의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화자는 '백일홍 역센 꽃들이' '좁은 마당을 피로 덮을 때'에 '나의 절망은 끝'이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는 화자가 타자인 백일홍에 주목하여, 백일홍을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나)에서 화자는 늦된 나무가 '꽃철 이미 지난 줄도 모르'고 '가지 가득 매달고 있는 명울'을 보며, 그러한 나무의 모습에서 '제자릴 찾지 못'하고 방황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이를 통해 화자는 나무에게서 동질감을 느낀 것을 계기로 타자와 관계를 맺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가)의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고 '무사'한 '나무 백일홍'과 (나)의 '벚꽃 가'에서 '발견'한 '늦된 그 나무'는 모두 화자가 자신과의 동일성을 발견한 타자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화자는 타자와의 심리적 동일시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한편,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의 '여러 차례 폭풍에도 쓰러지지 않'은 '나'는 절망에 굴하지 않고 이를 이겨 났다는 점에서 폭풍에 쓰러지지 않고 붉은 꽃들을 매단 나무 백일홍과 유사하다. 그리고 (나)의 '난만한 봄길 어디'를 '헤매고 다녔던' '나'는 꽃철이 지난 줄도 모르고 가지 가득 명울을 매달고 있는 늦된 나무처럼 시기가 늦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따라서 (가)와 (나)의 화자 모두 자연물인 타자에게서 자신과의 연관성을 발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현대시

본문 109~111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④

가 오세영, 「원시」

해제 ▶ 이 시는 사랑과 이별에 대한 원숙한 깨달음을 보여 주고 있는 작품이다. 시의 제목인 '원시(遠視)'는 가까운 물체는 흐릿하게 보이고, 먼 물체는 선명하게 보이는 눈의 상태를 뜻하는 말로, 화자는 이를 통해 이별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역설적인 태도를 보여 준다. 이와 같은 태도는 '늡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것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원숙해지는 화자의 내면적 성숙을 보여 주는 것이다.

주제 ▶ 사랑과 이별에 대한 원숙한 깨달음

구성 ▶

- 1~6행: 멀리 있는 것이 아름다운 이유
- 7~11행: 이별의 의미에 대한 인식
- 12~19행: 원숙함에서 오는 이별에 대한 깨달음

나 손택수, 「차심」

해제 ▶ 이 시는 찻잔에 생기는 '차심'을 보며 바람직한 인간관계에 대한 소망을 노래하고 있는 작품이다. 화자는 '잔금'이라는 부정적 대상이 오히려 그릇을 단단히 조여 주고 병균을 막아 주는 '차심'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보며, 상처와 고통 속에서 서로 성숙하고 단단한 관계로 발전하는 인간관계를 소망하고 있다.

주제 ▶ 상처와 고통 속에서 성숙하고 단단해지는 인간관계를 소망함.

구성 ▶

- 1~3행: 찻잔에서 차심을 발견함.
- 4~6행: 차심이 생기는 과정
- 7, 8행: 차심의 긍정적 기능
- 9, 10행: 차심에 대한 화자의 생각
- 11~15행: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도 차심이 생기기 바람.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을, (나)에서는 '너'를 청자로 지칭함으로써 시의 청자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은 ~다'의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지만 (나)에는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이 나타나지 않는다.
 ② (나)에는 '조여 준다고……', '금마저 몸의 일부인 양'에서 종결되지 않은 문장이 사용되고 있으나, (가)에는 종결되지 않은 문장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③ (가)의 '이별을 서러워하지 마라'에서 명령형 어미를 사용하고

는 있으나 이를 통해 화자의 단호한 의지를 드러낸 것은 아니며, (나)에는 명령형 어미가 사용되고 있지 않다.

⑤ (가)에는 ‘무지개’, ‘별’, ‘벼랑에 피는 꽃’과 같은 유사한 속성을 지닌 대상이 열거되고 있으나, (나)에는 속성이 유사한 대상들의 열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화자가 멀리 있어 아름답다고 느끼는 대상일 뿐, 가까이 두고자 하는 대상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돋보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곧 나이가 들어 노안이 왔다는 것이므로, ㉠은 나이 들을 인식하게 하는 대상이라 할 수 있다.

③ 화자가 ‘차심’을 ‘물이기’로 착각했으므로, ㉠은 ‘차심’에 대한 화자의 잘못된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④ ‘뜨거운 찻물’은 그릇의 ‘잔금’을 ‘차심’이 되게 해 주는데, ‘차심’은 병균을 막아 주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주므로, ㉠은 대상의 가치를 변화하게 하는 존재라 할 수 있다.

⑤ 화자는 ‘차심’의 특성에 대해 듣고, 이를 바탕으로 ‘차심’이라는 말에서 이별의 상처와 고통을 다스려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새로운 의미인 ㉠을 떠올리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0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C]는 ‘차심’의 긍정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D]에서 ‘차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제시되어 있다. ‘차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다른 대상으로 확장되는 것은 [E]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화자는 ‘차심’이라는 대상을 발견하는데,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B]에 제시되어 있다.

② [A]에서 발견한 ‘차심’의 효과는 병균을 막고 그릇을 더 단단하게 조여 주는 것인데, 이를 [C]에서 나열하고 있다.

③ [B]와 [C]를 통해 ‘차심’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효과를 알게 된 화자는 [D]에서 고통을 다스려 그릇을 더욱 단단하게 해 주는 ‘차심’에 대해 ‘차의 마음’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⑤ [A]~[D]에 제시된 ‘차심’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E]에서 ‘갈라진 너와 나 사이’에 적용하여, 바람직한 관계 형성을 염원하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차심’은 차를 내리는 과정에서, ‘불가마 속의 고통’을 다스려

만들어진 ‘잔금’에 뜨거운 찻물이 스며들어 만들어진 것이지만 ‘차심’이 ‘불가마 속의 고통’으로 생긴 ‘잔금’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나)에 각각 제시된 ‘이별’과 ‘갈라진 너와 나 사이’는 모두 화자가 다른 대상과 헤어졌거나 갈등하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

② ‘멀리 있는 것은 / 아름답다’는 인식에 따르면, 화자와 사랑하는 존재가 떨어져 있는 상황, 즉 이별 역시 아름답다고 인식된다. 이는 화자가 이별을 서러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③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하는 대상이 멀리 있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상황으로 인식되는데, 오히려 멀리 있다는 사실이 대상의 아름다움을 만드는 이유가 된다는 인식은 모순되는 것이므로 역설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⑤ ‘수백 년 동안 대를 이은 잔’은 오랜 세월 ‘차심’에 뜨거운 찻물이 배어들어 차 맛이 나는 것이므로, 이는 ‘불가마 속의 고통’으로 생긴 잔금이 뜨거운 찻물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이며 만들어 낸 맛이라는 점에서 고통의 경험을 내면화해서 성숙해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11

현대시

본문 112~115쪽

01 ①

02 ⑤

03 ④

㉡ 고재중, 「면면함에 대하여」

해제 > 이 작품은 고난과 시련을 견디며 생명력을 이어 가는 느티나무의 모습을 중심으로, 시련을 이겨 내며 삶을 이어 가는 의지와 생명력을 ‘면면함’으로 노래하고 있다. ‘면면함’은 끊어지지 않고 꼭 이어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련을 극복해 나가는 민중의 삶의 의지와 관련된다. 화자는 삭풍과 상처의 겨울을 견디고 나무가 다시 초록빛 광휘를 뿜어내며 생명력을 드러내고 있음에 주목하여, 붕괴될 위기의 농촌 공동체의 고달픈 현실 속에서도 농민들이 나무의 생명력을 통해 희망을 얻고 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주제 > 시련을 이겨 내고 생명력을 이어 가는 나무의 모습을 통한 인간 존재의 의지

구성 >

- 1, 2연: 겨울의 시련을 견디는 느티나무의 고통과 생명력
- 3연: 붕괴 위기의 농촌 공동체의 현실과 이를 지켜 내려는 농민들의 의지

- 4연: 겨울을 이겨 내고 생명력을 되찾은 느티나무의 모습
- 5연: 느티나무를 바라보며 희망을 얻는 농민들의 모습

나 송수권, 「며느리밥풀꽃」

해제 > 이 작품은 '며느리밥풀꽃'을 소재로 설화 속 며느리의 한과 고통을 민중의 삶의 모습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며느리밥풀꽃은 혹독한 시집살이를 견디던 며느리가 밥알을 훔쳐 먹었다가 시어머니의 매질로 죽고, 그 허끝에 달린 밥알 두 알의 형상과 유사한 형태로 꽃이 피었다는 설화를 지니고 있다. 시의 화자는 가난과 핍박 속에서 서럽게 살았던 설화 속 며느리의 삶을 통해, 시련과 설움 속에서도 끈질기게 삶을 이어 가는 민중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며느리밥풀꽃 설화를 통해 떠올린 서러운 민중의 삶

구성 >

- 1연: 풀꽃들과 여러 섬의 나열을 통해 연상한 민중의 삶과 터전
- 2연: 며느리밥풀꽃 설화 속 며느리의 서러움과 애환
- 3연: 과거의 억울함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한과 연민의 정서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는 '너 들어 보았니', '~던 소리', '저렇게 생생한(생생히)', '왜 ~겠니' 등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는 형식을 사용하여 시의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나)는 '으스러지는 꽃', '일으켜 세우는 꽃', '추스림 끝에 피는 꽃'에서 '~는 꽃'의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시의 주제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가)에서는 '푸르른 울음소리'와 '초록의 광휘'에서 녹색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고, (나)에는 '흰 쌀밥'에서 흰색의 이미지가 드러나고 있으나, 색채 이미지의 대비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가)와 (나) 모두 부분을 통해 전체의 속성을 드러내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시적 배경의 의미를 부각하는 것도 아니다.
- ④ (나)에서 '며느리밥풀꽃'의 설화를 떠올리고 있으나 이것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대상의 변화라고 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화자의 의지가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 ⑤ (가)에서는 '삭풍 되게는 치고', '지난 겨울' 등에서 겨울의 이미지와 대비하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생생한 초록의 광휘' 등에서 봄의 이미지를 드러내며 긍정적인 인식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나)에서 1연에 여러 꽃의 이름을 나열하는 것을 바탕으로 봄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으나, 중심 소재인 '며느리밥풀꽃'은 '울음도 지쳐 / 추스림 끝에 피는 꽃'으로 '햇빛 기진하면은 혀 빼물고' 피는 꽃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따라서 (나)에서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사용해서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의 '울음'은 '초록의 광휘'가 지닌 색채 이미지와 연결하여 희망적인 의미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고, ㉡의 '울음'은 '그 울음도 지쳐 / 추스림 끝에 피는' 며느리밥풀꽃의 설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서러움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봄을 배경으로 하므로 '지난 겨울'에 대한 회한의 의미를 형상화한다고 보기 어렵다. ㉡은 며느리밥풀꽃의 설화와 관련하여 눈물을 흘리며 견디는 인고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은 설화 속 며느리의 한과 관련되므로 절망의 의미를 형상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은 마음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울음이기 때문에 억압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과 관련하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는 겨울의 추위와 관련하여 인고의 시간으로 볼 수 있으나 결실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은 '나를 잉태할 적 입덧 나고'에서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지 생명력의 이미지와는 관련이 없다.
- ④ ㉠은 생명력과 관련되므로 타인을 향한 교훈적 의미를 환기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애련은 슬픈 사랑의 정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애련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그중에서도 우리 설움 / 뺏물까지 녹아흘러 / 밟으면 으스러지는 꽃'은 시련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핍박받는 민중의 처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끈질기게 저항하거나 희망을 찾아내는 모습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의 농촌 공동체의 붕괴와 이농 현상에 대한 현실 인식과 관련하여,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을 척박한 농촌 현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는 나무의 의연함은 현실을 이겨 내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 ② (가)에서 농촌을 배경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나무를 '한참씩이나' 쳐다보는 것은, 고단한 현실 속에서 상처를 딛고 살아가는 나무의 모습을 보며 희망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나)에서 여러 풀꽃의 이름을 떠올린 것은 민중의 모습을 연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섬의 의미는 민중의 삶의 터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것들이 지닌 끈질긴 생명력과 관련한 민중의 삶을 환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⑤ (나)에서 '허끝에 감춘 밥알 두 알'은, 옛날 며느리가 밥이 잘

익었는지 확인하려 밥알을 입에 넣었다가 시어머니에게 구박받아 죽은 후, 밥알을 문 꽃으로 피어난 머느리밥풀꽃의 설화를 형상화하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서러움을 견디고 끈질기게 삶을 이어 가는 민중의 삶을 형상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1

고전 산문

본문 116~119쪽

01 ⑤

02 ④

03 ②

04 ④

■ 이현기, 「포천이문」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 문인 이현기의 문집 『기리총화』에 실린 한문 단편으로, 소설적 경향을 보여 아담게 소설로도 분류된다. ‘포천에서 전해진 기이한 이야기’를 기록하되, 당시 정세와 북벌론에 대해 현실적인 시선으로 비판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인공인 정태화는 실존 인물로, 효종, 현종 때 거둬 영의정을 지낸 바 있다. 작품의 전반부는 조선의 개국 공신인 하륜의 혼령이 정태화를 찾아와 자신의 묘를 이장해 달라는 청원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후반부는 자신의 숙원을 해결해 준 정태화에게 사례하기 위해 찾아온 하륜의 혼령과 정태화의 대담이다. 작품의 주제 의식은 작품 후반부에 드러난다. 둘 사이의 대담에서 정태화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씻고 대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청나라를 정벌해야 한다는 이른바 ‘북벌’의 타당성에 대해 묻고, 하륜은 이에 대해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북벌론의 허상을 통렬히 지적한 다음, 국정 쇄신의 방책이 올바른 인재 등용에 있음을 강조한다. 대담의 화제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민감한 정치적 주제여서 이러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서로 대담케 함으로써 논란을 비켜 가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작품이다. 판본에 따라 제목이 ‘포주이문(抱州異聞)’이라고 된 것도 있는데 ‘포주’는 지금의 경기도 포천을 가리킨다.

주제 ▶ 북벌론의 허상과 올바른 인재 등용의 중요성

전체 줄거리 ▶ 정태화(정 공)가 포천 현감으로 부임한 날 밤에 귀신이 찾아왔는데 그는 개국 공신 하륜(하 공)의 혼백이었다. 하 공이 폐허가 된 자신의 묘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자, 정 공은 임금에게 사정을 아뢰어 하 공의 묘를 이장해 깨끗이 단장한 다음, 하 공의 후손에게 비옥한 토지를 주어 조상의 묘를 잘 관리하도록 한다. 정 공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하 공이 찾아오고, 정 공과 하 공은 서로 대화를 나눈다. 정 공이 명나라 부흥을 위한 북벌의 길흉을 묻자, 하 공은 큰 절개와 대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은 영예로운 일이지만, 속으로는 오랑캐(청나라)를 두려워하면서 명성을 얻기 위해 겉으로만 북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한다. 아울러 천시(하늘의 운세), 지리(전쟁 때 지리적 조건의 우열), 인사(인적 자원의 우열)에서 조선이 오랑캐에 비해 열세인 것을 근거로 들어 북벌론을 실현 불가능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한다. 정 공이 다시 하 공에게 국가의 폐단을 바로잡고,

국정이 잘되게 하는 방안을 묻자, 하 공은 훌륭한 인재를 잘 가려 쓰면 나라가 잘 운영될 것이라고 답한다. 대화를 마친 후 하 공은 표연히 떠난다. 정 공은 훗날 공명을 드날리고 그 후손도 번성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정 공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하 공은 ‘조정 신하들이 큰 절개를 지키고자~최후의 결전을 벌이다 변방에서 죽는다면 죽어도 이름이 남을 것이요 나라의 명맥이 끊어져도 영예로울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 공은 조정 신하들이 전쟁을 벌이다가 죽게 되어도 그것이 절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저승에 조물주가 있느냐는 정 공의 질문에 하 공은 ‘저승의 일은 누설할 수 없’다며 대답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정 공이 하 공과의 대화를 통해 조물주의 존재 여부를 파악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② 하 공이 정 공에게 ‘저승의 보답을 두터이 받아 수명이 한 등급 연장될’ 것임을 알려 주기는 하지만, 저승에서의 벼슬을 높여 주기로 약속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 ③ 정 공은 ‘우리나라의 법이 지극히 훌륭하나 법이 오래되면 폐단이 생기는 법’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가 훌륭한 법은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정의 폐단이 생기는 까닭을 훌륭한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법이 오래되면서 초래된 다른 요인들에서 찾고 있다.
- ④ 하 공은 ‘사또는 정신이 탁월해서 보통 사람에 비할 바 아니니’라고 말하며 정 공의 정신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죽은 뒤 그 낮이 남아 있는 기간을 놓고 자신과 정 공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게다가 하 공의 낮은 사후 500년을, 정 공의 낮은 사후 100년을 남아 있을 것이므로, 죽은 뒤 낮이 남아 있는 기간은 하 공이 정 공보다 길다.

02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서 하 공은 ‘중화의 운은 차츰 쇠하고 북방의 운은 왕성’하다고 말하며 천시가 청나라에 유리함을 주장한다. 아울러 청나라가 ‘천험의 요새’인 산해관을 지키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군량을 수송하는 길도 끊어지고 후퇴해 돌아올 길도 가로막히면 수레 한 대라도 귀국할 수 있겠소?’라고 말하며 지리 또한 청나라에 유리하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하 공이 천시와 지리가 청나라에 유리한 것을 근거로 들어, 청나라와의 전쟁이 유리하다고 한 정 공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하지만 하 공은 ‘우리 군대의 진법은 고작해야 장사진뿐’이고 우리 군의 ‘용렬한 장

수와 나약한 병사들'은 적을 보면 도망갈 생각부터 한다고 말하면서,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기에는 국내의 조건도 불리함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의 조건(백만의 정예 군대, 넉넉한 군량미)이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기에는 유리하다고 한 정 공의 견해에 하 공이 동의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명나라는 큰 은혜를 베풀어~의리가 있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 정 공이 청나라와 전쟁을 벌여야 하는 이유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곧이어 정 공은 하 공에게 '군사를 일으켜 청나라의 죄를 묻고~이 일의 길흉이 어땠겠습니까?'라고 묻고 있다. 여기서 정 공이 대의명분을 위해 청나라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A]에서 하 공은 명나라와의 대의명분을 위해 진심으로 싸운다면 비록 전쟁에 나가 목숨을 잃고 나라를 잃어도 영예로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강조하는 정 공의 생각에 하 공도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곧이어 하 공은 대의를 내세우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개인의 명성과 이익만 좇아 나라를 곤란하게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③ [B]에서 정 공은 국내의 조건으로 백만의 정예 군대와 넉넉한 군량미를 갖출 수 있는 점, 국외의 조건으로 명나라 유민과 오삼계 군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점을 근거로 들어, '만전지책'(실패의 위험이 없는 아주 안전하고 완전한 계획.)이라는 표현을 쓰며 청나라와의 전쟁에서 우리나라에 승산이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⑤ [C]에서 정 공은 하 공의 설명을 듣고 나서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롭니다.'라고 말하며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한다. 아울러 '화의를 고수해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논의의 사안인 '북벌'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자신의 관점으로 정립한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은 정 공이 백성들이 입는 피해를 없애고, 국정을 쇠신하기 위한 방안을 묻자, 하 공이 대답한 말을 가리킨다. ㉠에서 하 공이 국정 쇠신의 방안으로 강조한 것은 '올바른 인재 등용'이다. 이는 '용렬하고 게으른 종을 도태시키고 똑똑하고 부지런한 자를 그 자리에 대체하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될 거요.'라는 말에 잘 드러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하 공은 권세가의 집안일에 빚대어 나라의 경영에 대해 설명하면서 '중 하나가 자기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한 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고, 중 여덟 명이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여덟 가지 일에 폐단이 생기요.'라고 말한다. 이는 나랏일의 각 분야에 부지런하고 역

량 있는 인재를 등용해야 함을 의미하므로, 가장 중요한 분야의 일이 잘 관리되면 나머지 분야의 일도 잘 운영된다는 뜻에서 한 말로 보기는 어렵다.

③ 하 공은 무능하고 나태한 자는 도태시켜 일을 맡기지 않고, 유능하고 성실한 자에게 일을 맡겨야 한다고 말한다. 집안과 나라가 잘 운영되려면 일하는 자에 대한 신뢰보다 엄격한 신상필벌(공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을 주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을 줌.)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④ 하 공은 '부유한 권세가에 노예가 많아'도 종들이 자기 직분을 다하지 않으면 폐단이 생기지만, 집안의 가장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종을 잘 뽑아 일을 맡기면 '모든 일이 잘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올바른 국정 운영의 관건은 국가 재정이 풍부해 나랏일을 할 사람을 많이 뽑는 것보다 적절한 인재 등용에 있다는 하 공의 생각을 알 수 있다.

⑤ 하 공은 집안의 가장이 '용렬하고 게으른 종을 도태'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이를 국가 경영에 적용하면, 이 말은 임금이 직접 무능하고 나태한 신하를 엄중히 가려 직위에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임금이 인재를 가려 쓰는 일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나랏일을 맡은 사람들과 경쟁하게 하여 게으른 자는 도태되게 해야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이 작품에서 정 공의 목소리를 통해 북벌론에 대한 긍정의 논의가 제시되고 하 공의 목소리를 통해 북벌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시되지만, 상반된 이 두 견해는 작품에서 동등하게 다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 그 중점이 하 공의 목소리에 놓여 있다. 이는 북벌론에 대한 정 공과 하 공의 문답이 정 공의 '참으로 말씀하신 그대롭니다. 화의를 고수해야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으로 마무리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쟁점과 관련한 상반된 견해를 대등하게 다루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를 참고하면, 북벌론에 대한 비판적 논의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이었으므로 그것을 현실의 실존 인물이나 작가 자신의 목소리로 제시했다면 논란이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작가가 비현실적 존재인 귀신의 목소리를 빌려 북벌론의 허상을 비판한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다룰 때 수반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한 서사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제목에 '이문(異聞)', 즉 '기이한 소문'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은 작품의 주된 소재가 귀신과 인간의 만남과 대화라는 비현실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③ 하 공과 정 공은 당대에 높이 평가되었던 역사상 실존 인물이

며, 작중에서는 지혜롭고 탁월한 정신을 지녀 죽은 뒤에도 낮이 오랫동안 흠어지지 않는 인물로 그려진다. 이와 같은 인물 설정은 두 인물을 신뢰할 만한 인물로 형상화하며, 결과적으로 두 인물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는 북벌론에 관한 작가의 견해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⑤ 마지막에 사라져 자취를 감추는 인물, 어디로 갔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는 인물의 목소리를 빌려 작가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은, 고전 소설에서 현실 사회의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다. 이 작품에서도 작가는 마지막에 사라지는 인물인 하 공의 목소리를 빌려 북벌론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데, 이는 현실의 민감한 정치적 주제를 우회적으로 드러내어, 그러한 주제를 다룰 때 수반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선택한 이야기 전략이다.

02

고전 산문

본문 120~124쪽

01 ①

02 ④

03 ⑤

04 ③

■ 작자 미상, 「왕수재취득용녀설」

해제 ▶ 이 작품은 「고소설」이라는 소설집에 수록된 작자 미상의 소설로, 제목은 ‘왕수재가 용녀와 결혼한 이야기’라는 의미이다. 이 작품은 「삼국유사」에 수록된 「거타지 설화」를 서사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데, 왕수재가 승천하려는 용을 방해하는 늙은 여우를 죽여 준 대가로 용녀(龍女)를 아내로 맞이해 고려 태조 왕건을 낳았다는 신화적 내용과 바다에 옷을 던져 가라앉히는 장면, 요괴와의 대결 장면 등 익숙한 설화들이 이어지면서 서사적 흥미를 자아내고 있다. 전통적 설화를 전승하며 변용한 작품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용의 후손이라는 신성성을 부각한 소설로 볼 수 있다.

주제 ▶ 왕수재의 영웅적 능력과 활약상

전체 줄거리 ▶ 고려 태조 왕건의 아버지인 왕수재는 어려서 돌림 병으로 부모를 잃게 되고, 이웃에 사는 부인이 왕수재를 거두어 기른다. 스무 살이 된 왕수재는 영웅적 자질을 보이며 뛰어난 활 솜씨도 지니게 되고, 사절단의 일원이 되어 중국 남경을 향해 출발한다. 바다를 건너던 도중,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변고가 일어나고, 왕수재는 해신이 끼리는 부정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일행과 떨어져 홀로 섬에 남게 된다. 이때 서해 용왕의 아들인 노인이 나타나서 왕수재에게 자신의 승천을 방해하는 삼천 년 묵은 구미호를 죽여 달라고 부탁한다. 처음에 활을 쏘는 데 실패했던 왕수재는 결국 활을 쏘아 여우를 죽이고, 노인은 이에 대한 보답으로 왕수재에게 자신의 딸(용녀)을 아내로 준다. 육지로 돌아온 왕수재는 송악산 아래 집을 짓고 큰 부자가 되고, 아내는 미래에 나라의 주인이 될 왕건을 낳는다. 그 뒤 용의 자손으로 인간 세상에서 생활하며 건강이 나빠진 아내는 왕수재에게 치료를 위해 가끔 변신을 해야 하니

자기 방을 출입할 때 미리 통지를 해 달라고 간청한다. 그러던 어느 날 왕수재는 실수로 통지 없이 아내 방에 들어갔다가 아내가 용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 대한 정이 사라지게 된다. 그러자 아내는 왕수재가 신의를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떠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상사는 ‘이는 필히 해신이 우리를 가로막고 장난하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면 당장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뱃사람의 말을 옳게 여기고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상사는 배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해신의 장난 때문이라고 믿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뱃사람들은 왕수재의 말을 듣고 부정한 자를 찾기 위해 노력할 뿐, 자신의 일행 중에 해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다.

③ 왕수재는 일행 중에 부정한 자가 있으므로 각자 옷깃에 이름을 써서 바다에 던져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자고 제안할 뿐, 상사의 말을 듣고 부정한 사람을 찾아내는 방법을 알아낸 것은 아니다.

④ 노인은 왕수재에게 귀신같은 활 솜씨로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할 뿐, 왕수재에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구해 줄 수 있는가를 물어보지는 않았다.

⑤ 노인은 왕수재에게 자신이 부인과 싸우는 틈을 노려 부인의 명치를 쏘라고 했으나 왕수재는 부인의 얼굴이 너무나 아름다워 차마 활을 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노인과 부인은 한바탕 큰 싸움을 끝낸 뒤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갈 뿐, 부인이 노인과의 대결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02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B]에서 노인은 왕수재의 활 솜씨를 근거로 삼천 년 묵은 구미호를 물리쳐 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왕수재가 상사의 능력을 근거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전달하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왕수재는 ‘중국 수도의 장려한 모습을 보고 대장부의 울울한 심사를 풀고 싶어서’ 배에 탔다고 밝히고 있을 뿐, 자신의 과거 업적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있지 않다. [B]에서 노인은 자신이 섬에 천 년 넘게 살았다는 점과 자신의 집을 빼앗으려는 구미호와 일전을 벌인 과거의 일을 언급하며, 구미호에 대항하기 위해 수재의 활 솜씨를 빌려 달라고 요청하고 있을 뿐, 자신의 과거 업적을 말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서 왕수재는 사신 일행이 만리 길을 무사히 다녀와서 임금의 명을 욕되이 하지 않길 바라고 있을 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B]에서 노인은 왕수재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있을 뿐, 왕수재에게 일어날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을 부각하고 있지 않다. ③ [A]에서 왕수재는 자신의 운명을 언급하며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을 뿐, 상대방이 겪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는 않다. [B]에서 노인은 자신의 운명을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상대방이 겪는 문제 해결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않다.

⑤ [A]에서 왕수재는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가 어찌 감히 억지로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자신이 바다로 뛰어드는 선택을 한 불가피함을 상사에게 전하고 있다. 그러나 [B]에서 노인은 왕수재에게 자신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언급하고 있을 뿐, 이를 청유의 방식으로 전하고 있지는 않다.

03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바다 위를 마치 평지 밟듯이 다녔다’는 것은 노인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일 뿐 초현실적인 대상에 비유한 것은 아니다. 또한 ⑥은 노인이 여우와 대결을 펼치기 위해 나서는 모습을 나타낸 것일 뿐 노인이 여우와 싸우고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에서는 ‘목욕재계하고’, ‘제문을 지어 고한 뒤’, ‘제물을 갖추어 제사를 지내’와 같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상사의 행위를 열거하여 배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상사의 절박함을 드러내고 있다. ② ①에서는 다른 사람의 옷과 달리 왕수재의 옷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곧바로’, ‘유독’과 같은 부사어를 사용하여 제시하며 왕수재의 옷이 지닌 특별함을 부각하고 있다. ③ ①에서는 ‘종소리’, ‘북소리’, ‘피리 소리’와 같은 소리를 나열하며 노인과의 대결을 위해 여우가 출현할 조짐이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④ ①에서는 여우가 등장하는 모습을 ‘임금이 출입하는 것’과 비교하고 있으며, ‘수재가 몸을 숨기고 바라보니’와 ‘보는 사람의 눈을 황홀하게 하고 마음을 격동시켰다’라는 구절을 통해 왕수재가 여우의 모습에 놀라워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㉗와 ㉜ 모두 노인의 말을 통해 거타지와 왕수재가 섬에 남겨진 이유가 활을 잘 쏘는 것 때문이라는 점이 밝혀지는데, ㉗에서 거타지가 섬에 남겨진 이유를 말해 준 노인은 서쪽 바다의 신으로, 그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중을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그런데 ㉜에서 왕수재가 섬에 남겨진 이유를 말해 준 노인은 서해 용왕의 아들로, 자신이 구름을 타고 하늘에 오르기 위해 구

미호를 처치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주인공이 섬에 남겨진 이유가 지상에 있는 대리인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교체되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㉗에서는 활 솜씨가 뛰어난 거타지가 중을 활로 쏘자 중이 늙은 여우로 변해 땅에 떨어져 죽게 된다. ㉜에서는 노인이 왕수재에게 귀신같은 활 솜씨로 자신을 괴롭히는 여우를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㉗와 ㉜ 모두 주인공이 지닌 영웅적 능력은 활을 잘 쏘는 것이고, 그 주인공의 능력은 ㉜에서도 유지되고 있다. ② ㉗에서는 거타지가 서쪽 바다의 신의 부탁을 받고 그의 자손들을 괴롭히는 중을 활로 쏘자 중이 늙은 여우로 변한다. ㉜에서는 서해 용왕의 아들이 왕수재에게 자신을 괴롭히는 여우를 활로 쏘아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따라서 ㉗와 ㉜ 모두 주인공에게 도움을 청하는 존재를 괴롭히는 대상의 정체는 여우이다. ④ ㉗에서는 당나라로 가는 거타지가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 항해를 할 수 없게 되고, ㉜에서는 중국으로 가는 왕수재가 탄 배가 ‘하늘엔 바람 한 점 없고 바다엔 작은 파도 하나 없는데’ 사흘 동안이나 나아가지 않아 항해를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㉜의 주인공이 향하는 목적지는 ㉗와 마찬가지로 중국이지만, ㉜의 주인공이 항해를 할 수 없는 이유는 ㉗와 달라졌다. ⑤ ㉗에서는 선원들의 이름을 쓴 나뭇조각을 물에 던진 후, 물에 가라앉은 나뭇조각에 이름을 쓴 선원이 섬에 남게 되고, ㉜에서는 이름을 쓴 옷을 물에 던진 후, 물에 가라앉지 않는 옷에 이름을 쓴 선원이 배를 떠나게 된다. 따라서 ㉗에서 이름을 적은 사물을 물에 던지는 행위는 ㉜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주인공이 배를 떠나야 하는 이유는 ㉗와 달라졌다.

03

고전 산문

본문 125~128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②

■ 작자 미상, 「서해무릉기」

해제 ➤ 이 작품은 주인공이 여러 시련을 극복하고 혼사를 성취하는 과정을 그린 고전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은 부모가 배필을 정하는 사회적 관습을 어기고 친척 간에 혼인을 하려 해 혼사 장애를 겪는다. 이후 남주인공은 도적에 의해 신부가 납치되어 또 다른 위기에 처하지만 신부를 구함으로써 이를 극복한다. 이 작품은 제도과 관습을 넘어 결연을 이루고자 하는 개인의 욕망이 드러난다는 점에서 현세적 인간 의식이 나타나며, 두 남녀가 결연을 이루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문제 상황을 해결해 나간다는 특징이 나타난다.

주제 ➤ 남녀 간의 간절한 사랑

전체 줄거리 ▶ 전주의 명공 유현중의 아들 유연은 부친의 명으로 영흥에 사는 친척 최 공을 문병하러 갔다가 최 공의 딸 최월혜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하지만 유연과 최월혜는 인척 관계였기에 혼인하기 어려워 유연은 상사병을 앓게 된다. 유연의 상태가 악화되자 유연의 부모는 할 수 없이 두 사람을 혼인시킨다. 혼삿날 밤, 갑자기 쳐들어온 도적 무리에 의해 유연은 신부 최 씨를 빼앗기게 되고, 최 씨를 잊지 못한 유연은 부모에게 편지를 남기고 집을 떠나며 10년을 기한으로 최 씨를 찾고자 한다. 도적은 최 씨의 용모와 덕성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내로 삼기 위해, 최 씨를 자신의 근거지인 서해무릉으로 데려갔으나 역지로 혼인을 치르지 않고 역시 10년을 기한으로 최 씨의 회심을 기다린다. 유연은 3년 동안 최 씨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서해무릉에 닿고, 금산사 부처의 도움으로 최 씨를 되찾아 완전한 결연을 이룬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정 부인은 최 씨를 불러 자기 아들인 장군과 결혼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 말을 듣고 최 씨가 ‘더욱 죽는 것이 마땅하옵니다’라고 하자, ‘최 씨의 뜻이 한결같음을 보고 크게 근심하였다’라고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생은 ‘큰 섬’에 들어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는데, 유생이 섬에 대해 묻자 사람들은 ‘이곳은 서해무릉이라는 곳’이라고 하며 섬에 대해 말해 주면서 유생에게 ‘다투어 양식을 주’었다고 하였다.
- ② 최 씨가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한 후 ‘계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와 나와 보니’ 거기에 ‘흰옷을 입은 여승’이 있었다고 하였다.
- ③ 최 씨는 유생의 ‘낮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라고 하였고, 유생이 ‘풍상과 천신 만고의 고생을 겪은 것이 모두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 ⑤ 최 씨는 밖으로 나와 ‘장원을 향하여 축원을 올리’면서 ‘아득하고 아득한 하늘이시여! 저의 이 모습을 알고 계신다면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주’고, ‘유생과 저의 쇠잔한 목숨을 구해’ 달라고 빌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A]에서는 정 부인이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습니다. 그사이 제 자식이 오히려 소저를 핼박하지 않은 것은 이로써 소저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 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다고 하며 상대가 처한 상황을 환기하고 있다. 또한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으니 ‘고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B]에서는 ‘금산사 부

처’가 ‘네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하여’라고 하며 자신이 상대에게 하는 행위의 이유를 밝히고 있으며, ‘바빠 나가 달아날 기약을 정하여라’라고 하며 상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정 부인이 ‘소저가 여기에 이른 지 벌써 몇 해가 지났’다고 하며 상대의 과거 행적을 밝히고 있으며,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다고 하며 상대를 설득하고 있다. [B]에서는 ‘금산사 부처’가 ‘네 지아비의 정성에 감동하여 두 사람을 돕노라.’에서 상대를 돕고자 함을 드러낼 뿐, 상대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② [A]에서는 정 부인이 최 씨의 정체를 추론하고 있지 않다. [B]에서는 ‘여승’이 ‘금산사 부처’라고 하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상대에게 느낀 측은지심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③ [A]에서는 ‘우리 아들의 청춘이 이제 저물어 가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에 자기 아들과 최 씨가 혼인하기를 바라는 정 부인의 마음이 드러나 있다. 최 씨가 장군과 혼인을 하려 하지 않는 점을 상대가 저지른 행위로 볼 때 ‘고집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며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B]에서는 ‘금산사 부처’가 ‘두 사람을 돕노라’라고 하며 자신이 상대의 안위를 위해 하는 일을 언급하고 있을 뿐, 상대가 자신의 안위를 돌봐 준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 ⑤ [A]에서는 정 부인이 자기 아들을 언급하고 있고 자기 아들과 최 씨가 결혼하길 바란다는 점에서 정 부인과 상대의 관계를 짐작할 수는 있지만 정 부인이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소저의 나이도 적지 않’으니 혼례를 이루어 길이 복록을 누리도록 하십시오. 이제 그만 마음을 돌려 부부의 연을 맺고 자식을 낳아 기름이 이치에 맞’다는 것에서는 정 부인의 입장에서 상대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에서는 ‘금산사 부처’가 최 씨가 자신에게 한 일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최 씨는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고, ‘장지문 밖에 한 여승이’와 있다는 계선의 말에 ‘꿈속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놀라워하’며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하였다. 이를 통해 ‘꿈’은 최 씨가 계선이 하는 말에 따라 여승을 보러 나가게 되는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꿈’을 꾸기 전에, 최 씨는 ‘자나 깨나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가슴속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 ③ ‘꿈’을 꾸기 전에, 최 씨는 ‘밤낮으로 명철하신 하느님을 향하여 길게 탄식하며 지냈’다고 하였다.

④ 최 씨는 ‘꿈’을 꾸 뒤 ‘여승’이 와 있다는 계선의 말을 듣고 ‘어제 꿈속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놀라워’할 뿐 계선에게 자신의 걱정을 토로하지 않았다.

⑤ 최 씨는 ‘꿈’을 꾸 뒤 ‘한날 꿈속의 헛된 일인 듯 여겨져 몸과 마음이 모두 어지럽고 뒤숭숭한’ 상태라고 하였으므로, 최 씨의 마음이 불안감에서 안도감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최 씨는 비몽사몽 사이에 한 노승을 만나는데, 이 노승은 자신이 ‘금산사의 부처’라고 하며 ‘오시에 한 여승이 밖에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최 씨는 꿈에서 깨어난 뒤 ‘꿈속 일에 의심이 생겨’ 여승을 만나러 가게 되는데, 이때, 여승은 유생이 여장을 한 것이다. 남녀 주인공이 혼사 장애를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비현실적 조력자는 여승이 아니라 ‘금산사의 부처’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유생은 ‘서해에 배를 띄워 대양을 방황하’다가 ‘배에서 내’린 후 ‘큰 섬’인 ‘서해무릉’에 닿는데, 이는 납치당한 신부를 찾기 위해 길을 떠난 유생의 여정을 보여 준다.

③ 유생은 ‘장군에게 쫓겨 나와 원혼에 숨어’ 있다가 ‘굴을 찾’아 ‘여기에 머물러 몸을 숨기고 마을에서 얻어 온 양식으로 연명하며’ 지냈다고 하였다. 이는 유생이 ‘장군’과의 대결 구도에서 열세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준다.

④ 장군이 ‘혼례를 치를 뜻이 다급하’다는 것과, ‘최 씨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신이 초조하여 빨리 죽고자 할 뿐’이라는 것은 유생과 최 씨 사이의 애정이 성취되는 데 있어 제삼자인 장군으로 인해 혼사 장애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최 씨가 ‘여기서 벗어날 계책을 가르쳐’ 달라고 하며 ‘유생과 저의 쇠잔한 목숨을 구해’ 달라는 것과, 이러한 최 씨의 목소리를 듣고 유생이 ‘낭자가 옛 정인을 아직도 그리워하거든 서로 만날 기약을 정해 알려’ 달라고 응답하는 것은 최 씨와 유생이 재회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완전한 혼사라는 애정의 성취는 남녀 주인공의 재회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유생이 재회에 대해 언급하며 최 씨에게 응답하는 것은 애정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과 관련 있음을 보여 준다.

중심으로 한 가정 소설로, 여자 동서 사이의 알력과 복수, 고부 갈등, 형제간 갈등 등 다양한 가족 내 분쟁을 다루고 있다. 특히 중국을 배경으로 여자 동서들 사이에 벌어지는 가정 비극을 중심으로 두고 전개된다. 위 승상의 둘째 아들 위진의 부인 채 씨와 셋째 아들 위준의 부인 맹 씨는 큰아들 위윤의 부인 반 씨의 착함을 시기해 모해한다. 시모 양 부인에 의해 친정으로 쫓겨난 채 씨는 부친의 권세를 이용해 반 씨의 남편 위 상서를 유배 보낸다. 이 일로 양 부인은 병사하고, 채 씨가 반 씨를 옹주로 몰아가자 반 씨는 선계로 피신한다. 이후 반 씨의 아들 위흥이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돌아와 가문에 얽힌 문제를 해결한다. 이 작품은 악인들의 개과천선보다는 권선징악의 주제를 강조하며, 황제가 악인들을 처벌하고 훈계함으로써 가정의 비극을 마무리 짓는다.

주제 > 선인의 고난과 그 극복

전체 줄거리 > 절강 땅의 위윤, 위진, 위준 삼 형제는 각각 반 씨, 채 씨, 맹 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맏며느리 반 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는 반 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시어머니 양 부인은 반 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다. 채 씨는 아버지 채영과 짜고 위윤과 반옥을 유배 보낸다. 양 부인은 이를 비통해하다 세상을 떠나고, 두 동서는 재산을 독차지하며 반 씨를 박대한다. 반 씨는 묘막에서 지내며 아들 위흥의 학업을 돕는다. 위진과 채 씨는 반 씨를 해치려 하고, 장생은 반 씨를 납치하나 반 씨는 투신자살한다. 그러나 선녀와 거북의 도움으로 살아난다. 이후 남편 위윤과 재회하고, 아들 위흥은 과거에 장원 급제해 출세한다. 위흥은 악인들을 처벌하고 가족을 복권시키며 부마가 되고, 위윤은 병부 상서, 반옥은 대사도가 되어 부귀를 누린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채 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는 것을 듣고 반 씨와 반 씨의 아들 위흥을 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는다. 따라서 흥이 여막에서 공부한다는 사실을 위진에게 들은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채 씨는 친정으로 떠나면서 맹 씨에게 남아 있다가는 잔명을 보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며 본부로 돌아가 있을 것을 권했다.

② 채영이 상소를 올리고 제신들 앞에서 위윤과 반옥을 모함하는 말을 할 때, 제신들은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③ 상은 위윤과 반옥을 아꼈지만 채영의 모함을 듣고도 이들을 변호하는 신하들이 없어 할 수 없이 ‘위윤은 장사에 원찬하고, 반옥은 강동에 정배’한 후 탄식하였다.

⑤ 반 씨는 쫓기는 신세로 친정 동네에 들어가는 것을 꺼렸지만 아들 흥과 함께 친정을 찾아가서 어머니인 유 부인을 만나 서로 위로하였다.

04

고전 산문

본문 129~132쪽

01 ④

02 ⑤

03 ④

04 ③

■ 작자 미상, 「반씨전」

해제 > 이 작품은 위씨 가문의 세 형제와 그 아내들 간의 갈등을

02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반희가 위윤과 반옥이 기군망상, 즉 임금을 속인 죄인이라는 채원의 상소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B]에서는 상이 채원의 상소를 보고 '위윤은 청렴 강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예'라고 하며 부정적 평가를 받는 위윤과 반옥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B]에서는 [A]와 달리 부정적 평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 인물이 느끼는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는 반희가 자신이 본 상소의 내용을 위윤에게 전하는 내용이고, [B]는 상이 상소를 보고 난 후의 반응이다. 따라서 [A]와 [B]에는 모두 자신이 겪은 일에 대해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하지만 일의 결과에 대한 원인을 짐작하고 있지는 않다.
- ② [A]에는 상소 내용을 본 반희의 생각이 '알지 못하겠노라'라고 제시되어 있고, [B]에는 상소를 받은 상의 반응이 '통해하도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A]와 [B] 모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속마음을 추측하여 공감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는 반희가 본 상소의 내용을 인용한 것인지 상대의 말을 인용한 것은 아니다. [B]에서는 상의 생각이 드러난 표현이 제시되어 있을 뿐 이 역시 상대의 말을 간접 인용하고 있지는 않다.
- ④ [A]에는 상대방에 대한 채 씨의 참언이 제시되어 있지 상대방에 대한 세간의 평판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B]에는 위윤과 반옥에 대한 상의 평판을 바탕으로 참언에 대해 의아하게 여기는 상의 태도가 드러나 있기는 하지만, 세간의 평판을 기준으로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㉓는 집에 불이 날 상황을 언급하며 반 씨와 위흥을 구하기 위해 어서 피하라는 말을 하여 도움을 주고 있고, 이로 인해 반 씨 모자는 몸을 피해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게 된다. 이후 산에서 ㉔를 만나게 되는데, ㉔는 산중에서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방황하는 반 씨와 위흥에게 줄 같은 것을 내어 주고 정신이 맑아지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㉓는 반 씨의 꿈에 나타나 안 좋은 일이 곧 있을 것이니 잠을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 즉 서둘러 피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을 반복하여 어서 도망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㉓가 한 말을 ㉔가 반복하여 반 씨 모자의 행동 변화를 촉구하고 있지는 않다.
- ② 반 씨는 비몽사몽간에 ㉓의 말을 듣지만, ㉓와 대화를 나누며 의문을 품고 있지는 않다.
- ③ ㉓는 문제를 일으킨 원인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문제 상황을

피할 방법을 알려 주고 있다. ㉔는 인물들에게 '줄 같은 것들'을 주어 인물들이 이를 먹고 정신이 깨끗해지므로 문제가 해결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㉓가 알려 준 정보를 바탕으로 ㉔를 만나 문제를 해결하게 된 것은 아니다.

⑤ ㉓는 반 씨의 꿈에 나타나 재앙을 피해 산으로 가게 만들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점에서 인물을 현실적 공간으로 이동시켜 서사의 전환점을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㉓가 반 씨 모자를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 세계로 이동시킨 것은 아니므로 적절하지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상은 채원의 상소를 보고 위윤과 반옥을 아끼지만 제신들이 모두 변백치 않아 하는 수 없이 둘을 유배 보내고 탄식을 한다. 그러나 선인인 위윤과 반옥을 유배 보내는 것을 통해 권선징악의 주제의식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채 씨가 친정으로 가면서 홀로 남겨진 맹 씨에게 '반 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겠냐고 말하며 잔명을 보전하려면 어서 본부로 돌아가 있으라고 말하고, 맹 씨 역시 이에 울며 화답하는 모습을 통해 선인인 반 씨와 두 동서 사이의 대립 상황을 알 수 있다.
- ② 채 씨가 친정으로 가서 눈물로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권력이 있는 아버지인 좌승상 채원의 권세를 이용하여 반 씨를 비롯한 선인들을 위기로 몰아가는 모습을 통해 악인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 개인적 친분과 권력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채 씨가 남편인 위진에게 반 씨의 행동을 모해하는 말을 하고, 이를 들은 위진 역시 대로하여 반 씨 모자를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동서 간의 갈등이 형제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위진이 창두 이십여 인을 보내 반 씨의 여막에 불을 질러 '반 씨 모자를 죽이려'고 한 것은 음모 모티브에서 악인의 음모에 해당한다. 이러한 음모로 인해 고난에 처했으나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결국 죽지 않고 '외가 반부를 찾아'가 유 부인을 만나는 부분은 음모 모티브의 서사 구조에서 선인의 고난 극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5

고전 산문

본문 133~137쪽

01 ⑤

02 ①

03 ④

04 ⑤

■ 작자 미상, 「현몽쌍룡기」

해제 > 이 작품은 작자, 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로, 조용홍, 조용창

이라는 두 형제의 결연 과정과 영웅담을 묘사한 가문 소설이자 영웅 소설이다. 조씨 가문의 형성 과정과 영웅적 활약상을 주로 다루고 있다.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두 쌍의 부부 관계를 대조적인 형태로 표현하여 가부장제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제시한다. 소설의 뒷부분에서는 남성 주인공의 영웅적 활약을 통해 대외적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이 드러난다. 주인공 가문이 대내외적으로 완성되는 과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가문 소설로 분류된다. 흔히 「조씨 삼대록」의 전편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다.

주제 ⑤ 조 공자와 정 소저의 만남과 결연 과정에서의 위기 극복

전체 줄거리 ⑤ 송나라의 상국 조숙과 부인 위 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을 얻는다. 두 아들은 금가락지와 은가락지의 인연을 각각 만나 혼인하고, 과거에 급제한다. 황제는 조용흥을 금선 공주와 결혼시켜 부마로 삼는다. 금선 공주와 박수관은 악독한 인물로 조씨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조용흥과 조용창은 거란의 침입, 반란과 모반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집안의 분란을 해결한다. 조씨 형제가 큰 공을 세우며 대내외적인 문제가 모두 해결되고 조씨 가문은 화목함과 평온을 되찾는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조 공자 형제가 정 소저에게 처소를 제공하고 비복들에게 그것을 누설치 말라고 명령한 것은, 쫓기고 있던 정 소저를 안전하게 지키고 부모님께 자신이 알게 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이다. 조 공자와 정 소저는 이미 부모의 허락을 받은 사이이므로, 부모의 허락 없이 인연을 만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 글에는 조 공자 형제가 정 소저와 그의 시녀들을 위기에서 구하는 장면이 제시되고 있다. 이는 애정 소설에서 하늘이 정한 남녀의 인연이 이어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 ② 조 공자 형제는 정 소저 일행이 남장을 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호기심이 생겨 그들의 과거 사정을 캐묻고 있다.
- ③ 조 공자 형제는 자신들이 조 상국의 자제임을 먼저 밝히고 있는데, 이를 알게 된 정 소저의 시비들 또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고 있다. 시비들의 고백은 이후 사건의 진행 과정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④ 정 소저의 시비들이 정 소저의 과거 사연을 솔직하게 털어놓음으로써, 조 공자 형제는 정 소저의 절행과 성품을 알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 소저에 대한 조 공자의 신뢰 또한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이 글의 핵심 사건은 조 공자 형제가 우연히 구한 세 사람이 자신의 정인인 정 소저와 그의 시비들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즉 정

소저와 조 공자의 결연 과정에서 정 참정과 계모로 인해 발생한 혼사 장애 갈등이 해결되는 양상이 드러나고 있다. 결국 지문으로 제시된 부분은 혼사 장애 갈등과 그 극복 과정을 드러내어 통속적 재미를 추구하는 장면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조 공자 형제, 즉 용흥과 용창이 장자 승계권을 두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며, 정 소저와의 만남 과정에서 자신을 따르는 시비와 비복들을 규합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 ③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조 공자 형제 중 첫째 용흥이 금가락지의 인연인 정 소저를 만나는 과정이다. 정 소저가 계모와의 갈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했던 것은 맞지만, 제시된 부분이 가문의 여인들이 기존의 윤리관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 ④ 조 공자 형제 중 첫째 용흥과 정 소저가 결연 과정에서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조 공자나 정 소저가 부모의 도움으로 서로에 대한 애정을 회복하는 양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 ⑤ 정체를 감춘 미모의 여인이 등장하여 조 공자 형제가 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형제간의 갈등으로 가문의 위기가 시작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03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춘앵과 벽란이 목숨을 구해 준 사람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다면, 처음부터 조 공자 형제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을 것이다. 두 사람은 처음에는 정 소저의 정체를 숨기려고 하다가 추후에 조 공자 형제에게 정 소저의 정체를 밝히는데, 이는 자신들을 구한 사람 중 하나가 정 소저와 혼인을 약속한 조 공자(용흥)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춘앵과 벽란은 정 소저의 시비로서 두 공자를 믿고 소저의 위태로운 처지를 두 공자에게 털어놓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② 춘앵과 벽란은 조 상국의 자제와 정 소저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들에게 구원을 받은 것을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다.
- ③ 춘앵과 벽란은 자신들이 겪은 일을 털어놓기 전에 정 소저를 만나,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 정 소저의 의견을 먼저 묻고 있다.
- ⑤ 춘앵과 벽란은 조 공자 형제에게 정 소저의 사연을 털어놓으면, 정 소저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04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정 소저가 외가로 가지 아니한 것은 석공 어르신께서 정 참정이 자신을 박수관의 후실로 보내려고 한 것을 알게 되면, 석공 어르신과 정 참정이 크게 부딪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정 소저

가 정 참정이 석공 몰래 자신을 박수관에게 시집보내려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이 평장 부인을 찾아가는 상황이 아니므로, 이러한 정보의 격차로 인해 독자들의 긴장감을 유발되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정 소저는 조 공자 형제가 자신을 구해 준 것임을 춘앵과 벽란으로부터 알게 되었지만, 자기 집안의 허물을 알리고 싶지 않다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
- ② 춘앵과 벽란은 조 공자 형제에게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정 소저에게는 자신들이 한 행동을 숨기고 있다. 정 소저와 독자 사이에 정보의 격차가 생기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독자는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정 소저의 선택에 대해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다.
- ③ 조 공자 형제는 정 소저의 정체를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이는 정 소저가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흥미를 주는 요소가 된다.
- ④ 정 소저는 언젠가 절간에 의탁하러 갈 생각을 하면서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지 않고 있다. 조 공자 형제와 떨어지게 되면 정 소저에게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독자들의 경우, 이후의 사건 전개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

06

고전 산문

본문 138~141쪽

01 ④

02 ④

03 ②

04 ⑤

■ 심의, 「대관재몽유록」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중종 때 심의가 지은 한문 소설로, '대관재기몽' 또는 '몽기'라고도 불린다. 꿈의 형식을 빌려 문인이 주도하는 문장 왕국을 설정하고 역사적으로 유명한 문인들을 등장시키고 있다. 이는 정치 현실에 대한 불만을, 꿈속 세계의 문인 왕국을 이상 세계로 설정함으로써 해소하려고 한 작가의 욕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설 문학이 본격화되지 않은, 창작 당시의 문학적 환경을 고려해 보면 독창성이 매우 강한 작품이다.

주제 ➤ 꿈속에서 문인들이 구성한 이상 세계를 경험함.

전제 줄거리 ➤ 현실 세계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던 문인인 '나'는 꿈속에서 천상 세계에 들어가 천자인 최치원의 총애를 받고 관직을 제수받는다. 규박부를 관장하며 자신의 시론을 인정받고, 김시습의 난이 일어나자 달려가 휘파람을 불어 진압하는 큰 공을 세운다. 그리하여 천자로부터 높은 벼슬과 상을 받고 문벌을 이루어 부

귀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다른 신하의 탄핵을 받아 결국은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천자는 '나'가 다른 신하인 우승상 이규보를 향소하자 '그 아뢰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천자가 나의 향소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천자는 오거서와 특진이라는 응분의 보상을 '나'에게 제공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는 군사를 부리는 용병술이 아닌 혼자 휘파람을 부는 것만으로 김시습의 반란을 제압한다.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하여 천자의 칭찬을 받아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집안의 '문벌이 빛'나게 된다.
- ② '나'는 천자의 신임으로 공신이 된 후에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이 넘'치는 부를 이루므로 빈궁한 삶을 이어 간 것은 아니다.
- ③ '나'는 공경 즉 높은 관리들이 개인적으로 '명함을 내고 보기를 청탁하'면 '신하 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가 없'다고 말하며 사양했으므로 높은 관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려고 노력한 것은 아니다.
- ⑤ 천자는 '나'를 탄핵하는 한림 선생의 상소를 불쾌히 여긴 것이지, '나'에 대한 불쾌함으로 한림 선생을 부추겨 '나'를 탄핵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문장가들이 모여서 잔치를 즐기는 사단에서 천자는 주인공인 '나'가 아니라 이하에게 「옥루기」를 외우게 하고 왕희지가 쓴 글씨를 벽에 걸게 하였다. 따라서 사단을 천자의 요구에 따라 주인공이 문장에 관한 재능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두보, 이백은 모두 타국(중국)의 옛 인물들이며, 사단은 꿈속 세계에서 이런 인물들과 어울릴 수 있는 곳이므로 환상성을 지닌 공간이다.
- ② 사단은 천자가 '날아오르기를 구름같이 하'는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여 올라가 '매우 즐기'는 유희의 공간이다.
- ③ 사단은 '삼정승과 신하 몇 명'과 같은 지체 높은 사대부들마저 높이를 감당하지 못하여 '다리가 떨려 두려워서 엎드려 한 사람도 시종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한계를 느끼는 공간이다.
- ⑤ 사단은 천자가 '두 천자는 문장으로 3백 편의 유작이 있고, 따르는 신하와 재자'들도 뛰어난 인물이 있다고 하면서 자신과 두 천자의 처지를 비교하며 자신의 '신하 중 한 사람이라도 이들과 같이 재능이 있는 자가' 없다고 생각하여 부족함을 느끼면서 안타까워하는 공간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주인공이 ‘머리를 섬돌에 부딪치고 하직하’고 난 후 ‘돌아보아 생각’한 ‘집안 식구’는 현실로 되돌아가서 재회하게 될 인물이 아니라 탄핵으로 인해 이별을 맞게 된, 이계에서 이룬 가족을 가리킨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인공이 ‘휘파람을 불’어 적병을 물리치는 것과 같은 비현실적인 일을 겪게 되고 상상의 동물인 ‘난새와 봉황이’ 나는 광경을 보게 되는 것은 이계의 환상 체험에 해당한다.

③ 주인공은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서 잠에서 깨어난다. 이렇게 주인공이 아픔을 느껴서 갑자기 잠에서 깬 것은 <보기>를 참고할 때, 몽유자가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사용된 문학적 장치에 해당한다.

④ 꿈을 깬 후 주인공의 ‘배가 복처럼 부풀어’ 오른 이유는 꿈속에서 이색이 ‘먹물 몇 말을 들어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꿈속 세상에서 겪은 일이 원인이 되어, 그것이 꿈 밖 세상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두 세상이 연결된 증거에 해당한다.

⑤ 주인공은 배가 아파 잠에서 깨어나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하는 상황에 있게 된다. 이는 주인공이 꿈속 세계인 이계에서 돌아와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현실 세계의 시·공간에 속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초목의 산화를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것과,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음은 탄핵을 받아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나’에게 임금의 한 말이다. 이는 『시경』의 영역을 넘어서서 조물이 공을 꺼릴 만큼 ‘나’의 문장 능력이 대단함을 말해 주는 비유적 표현으로서 <보기>에서 말하는 적대 세력과 동조 세력이 공존하여 권력의 대립과 암투가 벌어지는 현실 세계의 모습을 반영한 것과 관련되지 않는다는.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천자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내린 상까지 받게 되는 ‘나’의 모습에는 <보기>에서 말한 것처럼 자기 능력을 마음껏 펼쳐 왕에게 인정받고 싶은 선비로서 심의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벼슬길에 올라 ‘임금의 총애’를 받으면서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는 ‘나’의 모습은 사람과의 탄핵으로 이상을 펼치지 못한 심의가 현실에서 가졌던 정치적 포부를 실현하는 모습을 그려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가 이규보의 허물을 지적하며 항소를 올린 이유는 ‘문장이 경솔부박하며 나약하고 뼈대가 없’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문장에 나타난 잘못이나 문제점을 가지고 한 고관에 대한 탄핵의 사유로

삼은 것과 그러한 행위를 천자가 인정하고 상까지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이상적 공간은 문장이 중심이 되는 세계임을 알게 해 준다.

④ 천자는 탄핵을 당한 ‘나’에게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건넨다. 임금의 총애를 받다가 조정을 떠나게 된 ‘나’의 모습은 <보기>를 참고할 때, 사람과의 탄핵과 비난으로 벼슬길에서 좌절한 작가의 모습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07

고전 산문

본문 142~145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①

■ 작자 미상, 「금방울전」

해제 ▶ 이 작품은 작자·연대 미상의 고전 소설로, 부부였던 남해 용왕의 딸과 동해 용왕의 아들이 각각 금방울(금령)과 장해룡으로 환생해 온갖 고난을 이겨 낸 후 전생의 인연을 되찾기까지의 과정을 그려 보인다. 금방울이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으로 뛰어난 능력과 활약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 작품은 여성 영웅 소설의 면모를 보인다. 빼어난 능력을 발휘해 위기를 극복하고 사랑을 쟁취하는 금방울의 모습은 당시 소설의 주요 독자층이었던 여성들의 흥미와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이해된다. 그러나 금방울의 역할이 해룡의 성장과 업적을 돕는 조력자의 위치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여성 주체의 독립성이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한 한계도 드러난다. 아울러 금방울의 성취가 현실과 거리가 먼, 환상적이고 신화적인 요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점 또한 이 작품의 한계로 언급된다. 이는 환상성과 신화성을 빌리지 않고는 주체적 여성의 영웅적 활약을 표현하기 어려웠을 만큼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억압이 강했음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주제 ▶ 금령의 영웅적 활약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남녀의 사랑

전체 줄거리 ▶ 중국 원나라 때 장원 부부가 꿈속에서 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을 구해 준 인연으로 아들 해룡을 얻는다. 몇 해 후 장원이 일어나서 피란길에 도적에게 쫓기던 장원 부부는 해룡을 잃어버리고, 장삼이라는 도적이 어린 해룡의 영특한 모습을 보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기른다. 이때 조계촌에는 효성이 지극한 막 씨는 사람이 살았는데 꿈에 신선들이 나타나, 남해 용왕의 막내딸(동해 용왕의 셋째 아들과 남해 용왕의 막내딸은 서로 부부였음.)이 억울하게 죽어 그 딸을 막 씨에게 점지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후 귀신이 된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잉태하여 낳았는데 아이는 금방울의 모습으로 태어났다. 금방울은 신통한 능력을 지녀 어머니 막 씨를 도와 온갖 어려운 일을 해낸다. 이웃 마을의 목손이 금방울을 탐내어 훔쳐 갔지만 금방울은 자신의 능력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 목손의 모함으로 막 씨와 금방울이 옥에 갇히지만, 사또인 장원이 부인의 권유에 따라 그들을 풀어 준다. 장원의 부인이 잃어버린 아들 해룡을 그리워하다 병을 얻어 숨을 거두자 금방울이 보은초를 가져와 부인을 살린다. 이에 장원의 부인은 금방울에게 극진한 사랑을 베풀면서 ‘금령’이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어느 날 금령이

죽자 하나를 장원에게 주고 사라지는데 족자에는 과거 장원 부부와 해룡이 헤어질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한편 해룡은 양아버지인 장삼이 세상을 떠난 후 장삼의 아내인 변 씨에게 박해를 받게 되는데 위기 때마다 금령이 나타나 구해 준다. 변 씨의 박해가 이어지자 해룡은 금령과 함께 집을 떠난다. 그런데 금령이 요괴에게 잡아먹히게 되고, 해룡은 지하국으로 내려가 요괴를 퇴치하여 금령을 구하고 납치되었던 금선 공주와 시녀들도 구한다. 공주를 구한 공로로 해룡은 벼슬을 받고, 금선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된다. 해룡은 복흥노가 침범하자 대원수로 출전해 금령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한 후 위왕에 봉해진다. 이후 금령은 해룡에게 족자 하나를 남기고 장원의 부인과 어머니 막 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 해룡에게 준 족자에는 어린아이가 난중에 부모를 잃고 우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신선이 나타나 금령이 겹질을 벗고 아름다운 여인이 되도록 하고, 해룡은 금령이 남기고 간 족자를 매개로 친부 모인 장원 부부와 재회한다. 금령은 해룡과 혼인하여 백년해로하다가 한낱한시에 승천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해룡이 어림군을 관리하며 국사를 돌보기 시작한 것은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되기 이전의 일이다. 이는 ‘해룡이 친을 입사와 ~어림군을 관리하며 다스릴새, ~국사를 극진히 살피더니, 어느덧 혼인날이 다다랐는지라.’라는 문장에서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주는 요괴에게 잡혀가서 고생을 하다가 해룡과 금령의 도움으로 구조되어 천자와 황후를 다시 만난다. 그러므로 천자와 황후가 요괴에게 잡혀갔던 공주와 다시 만나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천자는 해룡에게 ‘(공주가) 임사의 덕은 갖추지 못했으나 죽히경의 건줄을 받들 것이니’라고 말한다. 이는 공주가 비록 부녀자의 이상형인 ‘임사’(중국 주나라 문왕의 어머니 태임과 무왕의 어머니인 태사)에는 못 미치지만 해룡의 배필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천자가 공주를 해룡의 배필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④ 사또는 족자의 그림에 대해 설명하면서 ‘노부가 늦게 아들 하나를 낳았더니 전란 중에 잃은 지 십팔 년이라.’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대화를 통해 사또가 십팔 년 전 전란 중에 잃은 아들이 바로 어사, 즉 해룡임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해룡이 십팔 년 전에 전란의 와중에 부모와 헤어지게 되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⑤ 사또는 잃어버린 아들의 신체적 특징으로 등에 복두칠성 모양으로 ‘일곱 개의 사마귀’가 있는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어사가 ‘실성통곡’함으로써 자신이 아들임을 암시하고, 이어서 ‘소자, 정성이 부족하여 이제야 부모를 만나 뵈오니’라고 말하며 자신이 아들임을 밝힌다. 따라서 사또가 어사의 신체적 특징을 근거로 어사가 자신의 아들임을 알았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2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남가일몽’(㉠)에서 깨어난 후 어사는 꿈 때문에 이상한 느낌이 들어 다시 잠들지 못하고 관가로 가 사또를 만난다. 그리고 사또와 대화하는 도중에 사또가 어릴 적 헤어졌던 자신의 부친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으로 촉발된 어사의 행위가 계기가 되어 인물 간 관계가 밝혀진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공주가 꿈 ‘꿈’(㉡)을 통해 해소되는 공주와 인물 사이의 갈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 이전에 발생한 공주와 인물 간의 갈등이 ㉡을 통해 해소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③ 사또와 어사는 과거, 금령에게 받았던 족자 덕분에 서로 부자지간인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금령이 자신들에게 족자를 주었던 까닭을 이해하게 된다. ‘하늘이 우리를 보살피시어 금령에게 지시하여 이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어사가 한 말도 바로 그 점을 언급한 것이다. 이 말은 금령이 하늘의 명을 받아 어사와 그 부모를 재회하게 하려고 어사와 사또에게 같은 모양의 족자를 주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어사가 말한 ‘이 일’은 금령이 준 족자 덕분에 부모와 자식이 재회한 일을 뜻하며, 어사가 꿈에서 백발노인을 만난 일과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에서 백발노인이 어사 앞에 나타난 것이 금령이 하늘의 지시를 받아 벌인 일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④ ‘꿈’(㉡)에 예언된 공주와 어사의 미래 모습은, 그 둘이 속세에서의 연분을 이루고 공주의 부모인 부황과 모후를 만나는 것이다. 그런데 ‘남가일몽’(㉠)을 통해 실현되는 일은, 사또와 어사가 서로 부자지간임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을 통해 ㉡에 예언된 공주와 어사의 미래가 실현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⑤ 공주의 ‘꿈’(㉡)에 나타난 선인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그 요괴를 잡고’라고 말하며, 공주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인물이 비범한 존재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어사의 ‘남가일몽’(㉠)에 나타난 백발노인은 어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인물(사또)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래에 만나게 될 인물의 비범한 능력이 암시된다는 설명은 ㉡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나 ㉠에 대한 설명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④는 가까이 있는 사또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보지 못하여 자식의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어사를 질책하고 아울러 어서 부모를 찾을 수 있도록 일깨우기 위해 한 말이다. 그러므로 어사, 즉 해룡을 돕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나타낸 말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환궁한 공주는 자신이 요괴에게 잡혀갔다가 구출되어 돌아오

기까지 겪었던 일들을 황후에게 자세히 이야기한다. 그 내용 중에는 ‘천지조화로 된 금령이 신통함이 기이하여 재주와 수단을 부리’었던 일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황후가 공주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금령을 칭찬하면서 한 말이 ㉔이다. ㉔를 통해 황후는 금령의 능력과 업적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㉔ ㉕는 천자가 해룡이 세운 공로를 치하하면서 한 말이다. ㉕에서 천자는 해룡이 세운 공로를 자연물인 ‘태산’, ‘하해’와 비교하여, 그 공로가 태산보다 높고 하해보다 깊다고 말하면서 높이 평가하고 있다.

㉔ ㉖는 천자가 해룡에게 한 말로, ‘공주의 꿈 이야기’를 근거로 하여 해룡과 공주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천자가 거론한 ‘공주의 꿈 이야기’는, 앞서 공주가 황후에게 말한 꿈 이야기이다. 그 꿈은 공주가 요괴에게 잡혀가 있을 때 꿈 속에서 공주는 한 선인에게 ‘동해 용왕의 아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갔으니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라는 말과 함께 ‘(동해 용왕의 아들이) 요괴를 잡고 같이 나아가 부왕과 모후를 만나리라.’라는 말을 들었다.

㉔ ㉗는 자신의 족자와 똑같이 생긴 족자를 어사가 지닌 것을 보고, 사또가 이상하게 여겨 한 말이다. 이 말을 할 때 사또는 어사가 지닌 족자의 출처가 금령인 사실을 아직 모르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보기>를 참고할 때 선인이 공주의 꿈속에서 말한 ‘동해 용왕의 아들’은 해룡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속세의 연분을 이루어라’라는 선인의 말은 해룡과 금령의 인연을 가리켜서 한 말이 아니라 해룡이 공주와 혼인하여 부마가 될 것임을 암시한 말이다. 그러므로 선인의 말에서 해룡이 금령과 맺은 전생의 인연을 되찾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금령은 전생에는 용의 딸로 태어나 용의 아들과 결혼하고, 인간으로 환생해서는 해룡의 아내가 되는 여성이다. 여성인 금령은 신통한 능력으로 요괴를 퇴치해 나라의 근심을 없애고, 조화를 부려 해룡이 입신양명하게 만든다. 여성 주인공인 금령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나라의 문제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하여, 이 작품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여성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등장하는 여성 영웅 소설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③ 금령은 신이한 능력으로 요괴를 처치하고 요괴에게 붙잡힌 공주와 시녀를 구함으로써 나라의 근심을 없앴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궁궐에서 황후에게 치하를 받는데 황후는 ‘다 네 덕’이라고 말하면서 금령의 업적을 높이 평가한다. 이처럼 여성이 큰 업적을 이루고 공적으로 인정받아 황실의 치하를 받는 장면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제약 때문에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

던 조선 후기 여성들에게는 사회적 성취를 이루고 싶은 욕망을 상상의 차원에서 대리 만족케 하는 기능을 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금령의 활약을 과거 여성 독자들이 지녔던 사회적 성취에 대한 욕망이 투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사또와 어사는 서로 똑같은 족자를 지니고 있는 것이 계기가 되어 족자에 관해 대화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사또와 어사가 부자 관계임이 밝혀진다. 이 장면에서 비로소 과거에 금령이 두 사람에게 족자를 준 이유가 밝혀지는데, 금령은 전란의 와중에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이 다시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헤어졌던 아버지와 아들이 족자를 매개로 재회하게 되는 것에서 금령이 타인을 돕는 조력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했음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여성 영웅 소설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 여성 주인공이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는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당대 여성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된다. 여성 영웅 소설인 이 작품에서도 금령이 영웅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여자의 모습으로 변하기 전, 즉 ‘신령스런 물건’의 모습을 하고 있을 때까지만이다. 그러므로 남들에게 여성으로 인식되지 않는 조건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금령의 모습을 여성의 사회 활동이 제한되었던 과거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8

고전 산문

본문 146~149쪽

01 ④

02 ④

03 ④

04 ④

■ 작자 미상, 「적벽가」

해제 ▶ 이 작품은 중국 소설 「삼국지연의」에 나오는 적벽 대전의 내용을 재구성한 판소리게 소설이다. 원작 소설이 영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과 달리, 이 작품은 이름 없는 군사들의 이야기를 첨가하여 약자의 설움과 고통을 드러냄으로써 전쟁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한편 원작에서 간사한 피가 많은 영웅으로 평가된 조조를 이 작품에서는 간사하고 어리석은 인물로 형상화함으로써 허세와 위선으로 가득 찬 기득권 세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 의식을 표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작품을 우리 실정에 맞게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외국 문학을 주체적으로 수용한 대표작으로 꼽힌다.

주제 ▶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군사들의 설움과 기득권 세력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전체 줄거리 ▶ 의형제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는 제갈공명을 모셔와 세력을 보강한다. 권력을 쥔 조조는 남쪽을 정벌하기 위해 백만 대군을 일으킨다. 조조의 군사들은 남정길에서 각자의 설움을 늘어놓는다. 조조의 선봉 부대는 제갈공명의 지략에 넘어가 전투에

서 패하고, 장비는 장판교에서 조조의 대군을 물리친다. 제갈공명은 오나라의 손권과 주유를 설득하여 조조와 적벽 대전을 벌이게 하고, 조조는 적벽 대전에서 대패한다. 퇴각하던 조조는 화용도에 서 제갈공명이 보낸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여 겨우 살아 돌아간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조조의 군사들은 ‘키는 쥐방울만한 게 말소리는 똑똑하네. 쥐 창자만 한 네 뱃속에는 무슨 설움 들었느냐?’라고 말하며 왜소한 체구를 지닌 화병을 놀리고 있지만, 곧이어 ‘말해 보아라. 들어나 보자.’라고 말하며 화병의 설움을 듣고 있다. 따라서 조조의 군사들이 체구가 왜소하다는 이유로 설움을 토로하려는 화병의 행위를 무시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양편 전선 수백 척으로 수채를 만들고’와 ‘정중앙에 자리 잡고 앉았는데’를 통해 조조가 자신의 전선에 앉아 있다는 점을,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공황하여 호기가 절로 난다.’를 통해 조조가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호기로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주유와 노숙은 천시를 모르느냐. 내 군사 거짓 행복 네 복심이 되었으니 하늘이 도움이요.’라는 조조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③ ‘집에 있을 적에 새끼 까치 한 마리 잡아다가 그 꼬랑지에 공작 깃털 꽃고 반침대 놓아두고, 이것저것 먹이며 온갖 정성 다했제. 근디 급히 잡혀 오느라고 못 가지고 왔기에’라는 화병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그들 머리 한칼에 베어 들어 깃발에 매달아 노래 부르며 고향으로 돌아가네. 그제 대장부 바라는 바’라는 현결찬 풍채의 군사의 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2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련타, 그리운 마음에 녹아내리는 뺨골. 규방의 아낙네가 낭군 그리워 꿈속을 배회하는 듯.’에서 옛사람이 지은 풍월을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애고애고 설운지고.’를 통해 직설적인 감정 표현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의 일에 대한 조조 군사의 판단이 바뀌는 근거는 ㉔에서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는 ‘많이’와 ‘잡고’라는 어휘를 반복하고 ‘술’, ‘떡’과 같은 음식과 ‘소’, ‘돼지’, ‘개’, ‘닭’과 같은 동물을 나열하며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큰 잔치를 벌이는 조조의 행동을 부각하고 있다.
- ② ㉒에서는 ‘이때’라는 시간 표지와 ‘거동을 보소’라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여 조조가 만든 수채에 대한 묘사에서 수채의 정

중앙에 자리 잡고 앉아 있는 조조의 외양 묘사로 서술을 전환하고 있다.

③ ㉓에서는 ‘변고인가’라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 쇄끝같이 나는 울음소리의 주인을 찾지 못해 의아해하는 조조 군사들의 반응을 전달하고 있다.

⑤ ㉔에서는 ‘울음’과 ‘웃음소리’라는 의미가 대비되는 어휘와 발음이 유사한 ‘개가환향’과 ‘소가환향’이라는 어휘를 활용하여 풍채가 현결찬 군사의 신세에 대한 판단을 미루는 조조 군사의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그 까마귀 달 밝으니 새벽인가 의심하여 나무를 떠나면서 우나이다.’라는 장수들의 답을 들은 조조가 크게 웃었다는 점에서, 조조가 장수의 답을 듣고 크게 만족감을 느꼈다는 점은 알 수 있지만 만족감을 느끼는 이유는 노래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까 울고 가던 까치가 나를 찾아온 내 까치지.’와 ‘경망한 승상님이 내 까치인지 묻지도 않고 글만 지어 읊으시니’를 통해 화병이 말한 ‘글’이 조조가 지은 ‘노래’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내 마음 절통하여 어찌 살겠는가’라는 화병의 말을 통해, 화병이 조조가 지은 노래를 듣고 조조에 대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② ‘조조가 사방을 돌아보니 너무나도 공황하여 호기가 절로 난다.’라는 구절과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를 동작대에 데려다가 봄바람 맞으며 늙도록 즐겨 볼까 하노라.’라는 조조의 말을 통해 조조는 전쟁에 나서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며, 전쟁이 끝난 후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술잔 잡고 노래하니 인생이 얼마인고. 아침 이슬 같은 삶, 몇 날 남지 않았구나.’라는 노래의 구절은 자신의 처지에 대한 조조의 생각을 반어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 ③ ‘좌우의 장군들이 화답하고 한참 서로 즐긴다.’라는 구절을 통해 조조의 장군들은 조조가 지은 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유복은 조조의 노래를 듣고 불길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유복은 조조가 까마귀를 본 후 지은 노래에 대해 불길한 구석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이에 조조는 자신의 흥을 꺾다는 이유로 유복을 창으로 찌른다. 조조가 주유와 노숙, 유비, 제갈량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유복이 말한 ‘불길한 구석’은 조조가 전쟁에서 패할 것을 염려한 것으로, 조조가 말한 ‘내 속의 흥’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자신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조조가 지은 노래가 전쟁의 승패 예측을 두고 유복과 조조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진술은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화병은 ‘울고 가던 까치’가 자신의 까치인지를 묻지 않고 ‘글만 지어 읊’은 조조에 대해 ‘경망한 승상님’이라 부르며 자신의 마음이 절통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조조의 교만함과 군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모습을 비판한 것일 뿐, 전쟁의 무의미함을 부각하는 것이나 조조가 벌이는 전쟁의 정당성을 비판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보기>를 통해 조조가 말한 전쟁의 정당성은 기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조가 전쟁을 벌이는 표면적인 이유인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겠다는 대장부의 큰 뜻’은 기존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것에 해당한다.

② <보기>에서는 조조가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전쟁을 하는 모습에서 조조의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강남을 얻은 후에 반드시 이교녀를 동작대에 데리고 가겠다는 조조의 말은, 전쟁의 목적이 대의가 아니라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것에 있음을 보여 준다.’

③ <보기>에서는 자신의 부하를 대하는 비인간적인 모습을 통해 조조가 지닌 부정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신의 흥을 꺾었다는 이유로 부하인 유복을 창으로 찌르는 조조의 모습은 그가 지닌 부정적 면모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보기>를 통해 조조의 부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는 것에는 백성을 돌보는 지도자를 바랐던 당대 사람들의 염원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랫사람 생각하지 않으니, 남은 것은 교만뿐’이라는 군사의 말은 부하들을 돌보지 않은 조조의 모습을 비판한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부하들을 돌보지 않은 조조의 모습은 조조가 당대 사람들이 염원했던 지도자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전체 줄거리 > 웅진골 웅당촌에 웅고집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웅고집은 걸인이나 중이 와서 구걸을 하면 쫓아내는 등 심술이 사납고, 인색하며 남을 위해서는 한 톨도 쓰지 않는 수전노였다. 또한 노모가 병들어 냉방에 누워 있어도 불도 때 주지 않고 약 한 첩 쓰지 않는 불효자였다. 이에 보다 못한 월출봉 취암사의 한 도사가 웅고집을 혼내 주려 마음먹게 되고, 도사가 허수아비를 만들어 부적을 써 붙이자 영락없는 웅고집이 된다. 그 도사는 실용가가 잠시 나간 틈에 허용가를 실용가의 집에 보내어 사랑방에 앉아 하인들을 호령하게 하는데, 잠시 후 실용가가 들어와 실용가와 허용가 사이에 시비가 벌어진다. 하지만 도사의 신통술로 원님까지 허용가를 진짜로 판정 내리고 실용가는 하는 수 없이 결식하는 신세가 된다. 실용가는 온갖 고초를 겪으며 자신의 삶을 비판하며 산중에 들어가는데, 그때 도승이 나타나 그를 만류한다. 그 도승은 취암사의 도사로, 실용가는 도사의 충고를 듣고 자신의 과거를 뉘우친다. 실용가가 도승의 말대로 부적을 몸에 붙이고 집에 돌아가자, 허용가는 다시 허수아비로 변하고 실용가는 개과천선하여 지낸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사또는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놈에게 빼앗길 뻔했다는 허용가의 말을 들었으며, 이후 실용가에게 ‘남의 세간 탈취하려’ 했다는 죄를 묻고 있다. 군노는 사또에게 실용가가 허용가의 세간을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실용가는 ‘벌떼 같은 군노 사령’에 의해 ‘내쫓’기고 ‘하릴없이 가슴을 탕탕 두드리며 대성통곡하’면서 ‘답답하다’고 하였다.

③ 허용가는 ‘득송하고 돌아올 제 의기양양’해하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조롱하’며 실용가를 ‘흉악한 놈’이라고 하였으며, ‘희색이 만만하’다고 하였다.

④ ‘세상에 살아 무엇 하랴. 애고애고, 내 팔자야.’에서 실용가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실용가는 ‘죽장 망해 단표자로 만첩청산 들어’갔다고 하였다.

⑤ 실용가의 아내는 ‘옛집을 다시 찾아’온 실용가를 보고 ‘심히 대경실색하’였다고 하였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㉔에는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에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드러나 있지만, 앞으로 상대방이 겪을 수 있는 일을 예견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의 ‘하마터면 아까운 세간을 저놈에게 빼앗기고 이런 일등 미색의 이렇듯 맛난 술을 못 먹을 뻔하였다.’라는 것에는 자칫 자신에게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 드러나 있고, ‘은혜 백골난망이로

09

고전 산문

본문 150~153쪽

01 ①

02 ⑤

03 ②

04 ①

■ 작자 미상, 「웅고집전」

해제 > 이 작품은 못된 웅고집이 가짜 웅고집에게 쫓겨난 뒤 개과천선한다는 조선 후기의 판소리게 소설이다. 고집 세고 인색하며 불효막심한 수전노를 징계하고 풍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해학적 표현이 전반에 드러나 있다. 이 작품은 부를 축적해 지배 체제에 편승한 웅고집이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변동하는 향촌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으며, 웅고집이 벌을 받는 과정을 통해 인간이 갖춰야 할 도리에 대해 다루고 있다.

주제 > 개과천선을 통한 인간의 참된 도리에 대한 교훈

소이다'에는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이 드러나 있다.

② ㉠의 '어려쁜 우리 아내 월하의 인연 맺어 일월로 본증 삼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 년 중사하겠더니'에는 대상과 함께했던 과거 상황이 드러나 있고, '독수공방 적막한데 입 없이 홀로 누워 전전반측 잠 못 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에는 대상의 처지에 대한 걱정이 드러나 있다.

③ ㉡의 '자네 얼굴 다시 보니 이런 좋은 일 또 있을까'에는 상대방과 재회하게 된 데 따른 소회가 드러나 있고, '불행 중 다행'이라는 것에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평가가 드러나 있다.

④ ㉢의 '이놈의 죄를 생각하면 천사라도 무석이요 만사라도 무석'에서 자신의 잘못을 극대화하여 표현하고 있고, '명령하신 도덕하에 제발 살려 주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종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에는 자신이 소망하는 바를 밝히며 상대방의 선처를 구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실용가의 아내는 허용가를 자신의 남편으로 여기고 지내다가 허수아비들을 낳았는데, '좋아라고 괴로움을 모르고 길러 내'었다는 것을 통해 실용가가 다시 집으로 와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허수아비를 자식으로 여기고 열심히 길러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10삭이 차매 실용가 아내 몸이 곤하여 침석에 누워 해태하'었다는 것을 통해 허수아비는 실용가의 아내가 허용가와 지내며 낳은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허수아비는 도사가 실용가의 자식들을 변신시킨 결과로 볼 수 없다.

③ '10삭이 차매 실용가 아내 몸이 곤하여 침석에 누워 해태하'고 '실용가 마누라 좋아라고 괴로움을 모르고 길러 내'었다는 것을 통해 도사가 실용가의 아내가 허수아비를 자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지만, 도사가 실용가의 아내에게 깨달음을 주려 한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실용가가 허수아비를 보고 '마누라, 그새 허수아비 자식을 저렇듯 무수히 낳았으니, 그놈과 한가지로 얼마나 좋아하였는가. 한상에 밥도 먹었는가?'라고 한 것을 통해 허수아비는 실용가와 실용가의 아내가 화해하는 계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실용가는 자신의 아내가 허용가를 남편으로 믿고 지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실용가의 아내는 허용가를 실용가로 믿었으므로 아내가 실용가를 그리워하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또한 실용가의 아내는 실용가가 다시 집에 왔을 때 '애고애고 좌수님, 저놈 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고 들어오니, 이 일을 어찌하리까.'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실용가의 아내는 허용가가 자신의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대곤삼십도를 맹치하여 업문 죄목 하'자 옹고집이 '옹가 아니오. 처분대로 하옵소서'라고 한 것을 통해 옹고집이 '곤장 밑에 죽을' 것 같아 거짓으로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도사가 '팔십 당년 늙은 모친 냉돌방에 구박'하고 '불도를 능멸할까.'라고 한 것을 통해 옹고집이 반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인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③ 실용가는 도사를 만난 뒤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간 곳이 '고루거각 높은 집'이라는 것을 통해 옹고집이 부를 축적해 지배 계층과 같은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옹고집이 도사가 준 부적을 붙이고 집으로 돌아가자 허용가가 '짚 한 묶음'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 실제 옹고집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과정에 도사라는 신이한 존재가 관여했음을 알 수 있다.

⑤ 실용가가 '모친께 효성하고, 불도를 공경하'었다는 것을 통해 개과천선하였음을 알 수 있고, '그 어짚을 칭찬하'었다는 옹고집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통해 옹고집과 같은 인물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포용해야 한다는 당대 사람들의 의식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0

고전 산문

본문 154~158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②

■ 작자 미상, 「옥단춘전」

해제 ▶ 이 작품은 이혈룡과 김진희라는 친구 사이의 우정과 배신, 이혈룡에 대한 기생 옥단춘의 사랑과 신의를 그리고 있다. 양반인 이혈룡과 김진희는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약속했지만 평양 감사가 된 김진희는 이혈룡의 집안이 몰락하자 이혈룡의 도움 요청을 매정하게 거절한다. 옥단춘은 기생이지만 위기에 처한 이혈룡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목숨을 걸고 그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이처럼 이 작품은 친구 간의 신의와 남녀 간의 신의, 양반 간의 신의와 신분을 초월한 신의 등 신의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있다. 한편 이 작품은 양반과 기생의 사랑, 암행어사가 된 남주인공의 출현 장면 등과 같이 내용 면에서 「춘향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평가된다.

주제 ▶ 신분적 제약을 초월한 남녀의 사랑

전체 줄거리 ▶ 이혈룡과 김진희는 어린 시절 함께 공부하며 출세하면 서로 돕자고 굳게 맹세한다. 이후 김진희는 과거에 급제해 평양 감사가 되지만, 이혈룡은 집안이 몰락하고 벼슬길에도 오르지 못한다. 이에 이혈룡은 김진희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김진

화는 이혈룡의 요청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한다. 이를 지켜보던 기생 옥단춘은 이혈룡을 구출하고 그와 연분을 맺는다. 옥단춘의 도움으로 과거에 급제해 암행어사가 된 이혈룡은 결인 행색을 하고 김진희를 찾아간다. 김진희는 이혈룡이 옥단춘의 도움을 받아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둘을 죽이려고 한다. 이에 이혈룡은 암행어사로 출포하고, 김진희의 죄를 물어 벌을 준다. 이후 이혈룡은 우의정에 오르고 옥단춘은 정덕 부인에 봉해져 부귀를 누린다.

01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㉞은 이혈룡이 암행어사인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 전에 하는 말이다. 이는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 사이의 신의를 저버리고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김진희에 대한 분노가 담긴 말이라고 볼 수 있다. 이혈룡은 김진희에게 자신을 모르느냐는 질책 담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혈룡에 대한 서운함을 우회적으로 표현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이혈룡이 암행어사가 된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 옥단춘에게 과거도 보지 못했다고 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
- ② 옥단춘은 이혈룡의 체면을 세워 주며 위로하기 위해 과거를 보지 못한 것이 운수에 의한 것이라고 하며 과거를 보지 못한 상황의 원인을 운명으로 돌리고 있다.
- ③ 옥단춘이 기생의 신분으로 인해 감사의 영을 거역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혈룡에게 말하며 평양 감사의 잔치에 다녀와야 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를 구하고 있다.
- ④ 나졸들이 남루한 행색을 한 이혈룡의 덜미를 잡아 끌어내리고 함부로 말하며 거칠게 대하고 있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북소리가 세 번 울리는 과정에서 옥단춘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하며 살려 달라고 애원을 한다. 이러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공들은 감사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며 빨리 물에 뛰어든 것을 강요하며 재촉한다. 마지막 세 번째 북소리가 난 후에 옥단춘이 뛰어들려고 행동을 하는 순간 이혈룡이 붙잡는다. 따라서 반복적으로 울리는 북소리는 감사의 명에 따라 옥단춘의 행동을 재촉하는 것으로 서사의 흐름에 긴장감을 조성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북소리는 이혈룡이 암행어사라는 사실을 모르는 평양 감사의 명에 따라 사공들이 울리는 것이므로 이혈룡의 계획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② 북소리가 거듭됨에 따라 기생 신분인 옥단춘의 이혈룡에 대한 신의와 사랑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북소리가 상하 계층의 뒤바

뀐 권력관계를 보여 주는 것으로 옥단춘의 승리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다.

④ 옥단춘이 억울한 처지에 놓인 것은 맞지만 북소리로 인해 옥단춘이 오해를 받게 된 것은 아니다.

⑤ 북소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옥단춘이 물에 뛰어든 것을 재촉하고 있으나, 옥단춘이 자신의 삶을 반복적으로 돌아보며 성찰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의 춘향이는 수청을 강요하는 사람(어사또)이 자신의 낭군이라는 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끝까지 항거를 하고, 향단에 서방님이 어디에 계시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시킨다. 이후에 어사또가 자신이 그리워하던 낭군임을 알고 기쁨의 웃음을 웃고 눈물을 짓는다. 하지만 [A]에서 옥단춘은 이혈룡이 암행어사라는 것을 모를 뿐, '낭군님'이라 부르며 이혈룡과 대화를 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낭군이 옆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는 감사의 명을 받은 사공들이 북을 치며 옥단춘에게 강물에 뛰어든 것을 재촉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기>에서는 어사또가 춘향을 시험하기 위해 수청을 강요하고 있으나 주변 인물들이 춘향에게 죽음을 택할 것을 재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② [A]에서는 옥단춘이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자신의 무죄함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보기>에서는 춘향이 자신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상대를 비판하며 죽여 달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 ③ <보기>에서 춘향이 자신의 지조를 '충암절벽 높은 바위'와 '청송녹죽 푸른 남기(나무)'에 빗대어 강조하고 있으나, [A]에서는 옥단춘이 자신의 태도를 비유적으로 드러낸 표현을 확인할 수 없다.
- ⑤ [A]에서는 자신은 죽을지라도 이혈룡만은 살려 달라고 애원하는 옥단춘이, <보기>에서는 서방님에 대한 절개를 끝까지 지키며 수청을 거부하는 춘향의 모습이 드러난다. 따라서 [A]와 <보기>는 모두 암행어사라는 신분을 감춘 남성 주인공 앞에서 자신의 낭군을 향한 여성 주인공의 변함없는 사랑이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혈룡은 신분을 숨기는 상황에서 초라한 행색에 대해 옥단춘에게 설명하고자 빚을 갚으려고 가정 기물을 모두 팔았다고 거짓말을 한다. 이 말을 들은 옥단춘은 이혈룡에 대한 신의를 지키며 힘든 처지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모습에서 양반들이 내세우는 지배 논리의 허구성이 드러난다고 볼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옥단춘은 천민인 기생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혈룡의 가족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호의를 베푸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이혈룡에 대한 신의를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인간성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 ③ 김진희는 평양 감사가 되어 화려한 잔치를 열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오랜 친구인 이혈룡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죽이려고 한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비도덕적인 양반의 모습을 알 수 있다.
- ④ 신의를 저버린 김진희의 행동 앞에서 이혈룡이 ‘봉우유신 쓸데 없고, 결의형제 쓸데없다.’라고 자조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양반들이 내세우는 유교적 가치관인 신의가 실제 행위와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⑤ 이혈룡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신의를 지키고자 하는 옥단춘을 향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 양반과 기생의 단순한 신분적 차이를 넘어 상호 연대의 관계로 나아간 것을 알 수 있다.

11**고전 산문**

본문 159~163쪽

01 ④**02 ②****03 ③****04 ⑤****■ 이광정, 「김순부전」**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이광정이 지은 전(傳)으로, 김순부라는 선비의 생애를 다루고 있다. 무고 사건에 연루된 김순부와 그를 조사하는 진수 정양빈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당파 간의 갈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사건의 진행 과정과 갈등의 양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인물 간의 대화를 그대로 노출하여 입장의 차이를 드러내면서, 당시 지역 사회에 만연한 파쟁의 분위기를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가는 송사의 과정에서 보여 준 김순부의 능력과 유배지에서 쓴 문장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며 작품을 마무리하고 있다.

주제 ▶ 송사 사건에 얽힌 김순부의 삶과 죽음(김순부의 현실 대응 방식과 비극적 삶)

전체 줄거리 ▶ 안동에 사는 김순부는 충명함과 효성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당시 권력을 가진 정파와 연계된 한 인물이 김순부의 집안을 향원에서 몰아내기 위해 누명을 씌우려 드는데, 김순부는 첫 번째 무고에 슬기롭게 대처해 가문의 신망을 얻게 된다. 진수 정양빈은 공을 세우기 위해 김씨 집안의 모임을 두고 다시 무고를 하는데, 김순부는 처음에는 슬기롭게 위기에서 벗어나지만, 결국 3년여의 억울한 옥살이와 귀양살이를 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감옥에서 풀려난 김순부는 천연두에 걸려 비극적 삶을 마감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답 ④****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진수 정양빈은 ‘반란군에 빌붙었다가 사태가 실패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 ‘방백에게 돌아가 공을 세우’기 위해 ‘종인’의 말에 따라 김씨 가문의 회합을 문제 삼으려 하고 있다. 진수가 김순부에게 화를 내며 진상을 따져 물은 것은 공을 세우기 위한 것이지, 김씨 집안사람들이 실제로 작당 모의를 했다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진수 정양빈은 ‘반란군에 빌붙었다가 사태가 실패로 기울어지는 것을 보고는 다시 방백에게 돌아’갔던 인물이다. 진수 정양빈이 김씨 집안의 회합을 반란으로 몰려고 한 것은 공을 세워서 이러한 과오를 덮기 위해서이다.
- ② 김씨 집안사람들은 고발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며 ‘제일 먼저 모임을 주창한 사람’이 순부라고 관청에 알린다. 이는 순부가 관리의 신문에 대응할 만한 인물임을 믿었기 때문이다.
- ③ 김순부가 자신을 잡으려 온 포졸을 따라가지 않은 것은 진수 정양빈이 ‘상부의 명령도 없이’ 선비인 자신을 잡아들이려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⑤ 진수 정양빈은 김순부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책망하여 물을 것이 없어서’ 순부를 풀어 준다. 김순부와 김씨 집안의 회합이 잘못된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02 인물의 성격, 유형 이해**답 ②****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김순부는 자신이 앞으로 곤액을 겪게 될 것이라 예상하면서도, 병든 아들을 먼저 걱정하며 아들의 건강을 기원하고 있다. [B]에서 김순부는 ‘문장과 유사를 대신 고발하’라는 지부의 회유를 거절하면서 같은 문중의 사람을 곤경에 빠뜨리지 않겠다는 신념을 실천하고 있다. [A]와 [B]를 통해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김순부가 자신보다 가족이나 가문을 지키는 것을 우선시하는 사람이라는 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를 통해 자식을 사랑하는 김순부의 모습을, [B]를 통해 집안의 어른과 연소자를 보호하려는 김순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당한 권력과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물의 모습이 공통적으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A]와 [B]를 통해 김순부가 자신의安危보다 자식이나 일가친척을 먼저 걱정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부터 순서대로 처리해 나가려는 계획적 면모를 부각하지는 않는다.
- ④ [A]를 통해 김순부가 ‘점괘’를 볼 줄 아는 사람임이 드러나지만, 점괘를 활용해 자신에게 닥칠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B]의 경우, 김순부가 스스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 있

는 것은 아니다.

⑤ [B]를 통해 김순부가 집안의 손윗사람은 물론 연소자들까지 챙기려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다. 김순부는 연소자들의 회생을 모른 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다.

03 시점 및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작가는 마지막 논평에서 김순부의 행적이나 그와 관련된 주요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김순부와 관련된 역사적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김순부의 행적이 이후 역사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도 드러내고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C]는 전제 소설이나 인물의 생애를 주로 드러내는 '전'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논평에 해당한다. 전제 소설이나 전에서 서술자의 논평은 곧 작가가 자신의 관점에서 인물을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서술자는 '10촌인 척이라도 오히려 짧아 보이는 수가 있고, ~ 세상일을 다 알 수는 없다.'라며 정침윤의 말을 인용한 뒤, 김순부의 삶을 두고 '짧아 보이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침윤이 한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④ 서술자는 김순부의 장점과 특징을 '충명함이 남보다 뛰어나 ~ 주역점을 치는 것도 오묘했다.'와 같이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를 두고 '평탄치 못한 기구한 삶이 ~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⑤ 서술자는 마지막 부분에서 '순부가 재앙을 만나지 않았다면 ~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김순부의 문장이 후세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지부가 김순부를 사면해 주려고 한 것은 그가 김순부의 당당한 태도와 그의 정연한 논리에 감탄했기 때문이다. 지부가 김순부를 두고 '남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은 맞지만, 김순부가 사면의 기회를 얻어 내기 위해 자기 스스로 '남인'이 아니라고 밝히는 장면은 제시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한 종인'이 '김상헌의 사원(청음사)'을 지은 본심은 '청음 김상헌을 사모하고 존경하여 배향하려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을 노력해서 치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다. '한 종인'은 '서인 세력'과 '안동 사림'의 갈등을 유발하려고 했던 것이다.

② '한 종인'은 진수에게 '서인 세력'의 총애를 받기 위한 방안으로서 '김상헌의 사원을 부순 사건'의 주모자를 밝혀내 처벌하라고 제안한 것이다.

③ '서인 세력'은 함정을 만들어 안동 사람들을 포함한 뒤, 겁박과 회유를 통해 그들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여 하였다.

④ '안동 사람들' 중에는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두려워 '서인 세력'에 '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01

현대 소설

본문 164~168쪽

01 ③

02 ③

03 ④

04 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해제 > 이 작품은 1934년 한 신문에 연재된 모더니즘 소설로, 작가 자신이라고 볼 수 있는 작중 인물 구보가 집에서 나가 뚜렷한 목표 없이 광고, 종로, 화신 상회, 조선은행 앞, 경성역, 경찰서 앞 다방, 종각 뒤의 술집, 카페, 종로 네거리 등 경성 여기저기를 온종일 배회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구보는 이 과정에서 우울과 고독을 느끼며 행복의 가능성을 모색한다. 인물 간의 갈등, 사건의 인과적 전개 등을 중시하는 일반적인 소설들과 달리, 이 소설은 거리의 풍경과 주변 인물을 묘사하고, 구보의 내면 흐름을 생생하게 드러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제 > 1930년대 소설가의 무기력한 내면과, 그의 눈에 비친 경성의 모습

전체 줄거리 > 자식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 집을 나와 동대문행 전차에 올라탄 구보는 과거에 선을 봤던 여자를 보지만 모른 척한다. 다방으로 자리를 옮긴 구보는 차를 마시며 여행비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이후 구보는 경성역에서 애인과 함께 있는 중학교 동창을 만나고, 다방에서 시인이자 기자인 친구와 대화를 나눈다. 다방을 나온 구보는 동경에서의 옛사랑을 추억하고 오랜 벗에게서 편지를 받고 싶다는 생각도 한다. 종로 술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구보는 이제 생활도 갖고 창작도 하리라고 다짐하며 집으로 돌아온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ㄱ. 인물의 의식이 흘러가는 것에 따라 진행되는 이 글의 문장들에는, 예컨대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같은 부분에서 알 수 있듯 쉽표가 빈번하게 사용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일반적 어순에 변화를 주거나 독자의 읽기 속도를 조절하면서, 인물이 지닌 의식의 전개 양상에 대한 정교한 서술에 독자가 주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ㄱ은 적절하다.

ㄷ. 경성역 대합실에서 노파, 중년의 시골 신사 등을 관찰하는 부분을 보면 ‘~지 모른다’, ‘~을 깨다’처럼 추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반복되어 있다. 이는 모두 자신이 관찰한 타인에 관해 구보가 상상한 내용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ㄷ은 적절하다.

ㄹ. ‘전차 안에서’, ‘조그만’, ‘개찰구 앞에’는 모두 장면이 전환되는 문장의 첫머리를 소재목처럼 처리한 것이다. 독자는 이를 통해 내용의 단락 구분을 시각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ㄹ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ㄴ. 이 글에는, 인과적으로 진행되며 갈등을 고조시키는 뚜렷한 사건이 없다. 이는 이 글이 구보라는 인물의 의식을 그대로 제시하는 이른바 ‘의식의 흐름’ 기법을 보여 준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 글이 파국적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는 근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ㄴ은 적절하지 않다.

ㄷ. 이 글의 대부분은 구보의 상념 제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타인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를 통해 인물 간의 갈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 심화했는지 요약적으로 제시한 부분은 찾을 수 없다. 따라서 ㄷ은 적절하지 않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바제도씨병’ 환자라서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고 한 ‘사십여 세의 노동자’의 외양 때문에 그 근처까지 굴러간 복숭아를 줍기를 단념하고 마는 것은 구보가 아니라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이다. 따라서 ㉠은 구보가 느끼는 혐오에 대한 진술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는 남대문 안에서 밖으로 공간의 이동이 드러나며, 그곳에서 본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어서 구보는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는 데 실패하고 고독을 느끼면서 경성역으로 가게 된다.

② ㉡에서 구보는 신장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관찰 대상의 얼굴에서 부종을 발견하고, ‘자신의 만성 위 확장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낸다. 이는 병자에 대해 관찰한 내용으로부터 자신의 병증으로 이어진 구보의 연상이 드러난 것이다.

④ ㉢에서 구보는 개찰구 앞에 서 있는 두 사내의 차림새를 관찰한 내용만으로, 그들이 금광 브로커라고 단정해 버린다.

⑤ ㉣을 보면 구보는 사내의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만 치면서, 속으로는 ‘꼭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와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 간의 연관 관계를 언제든 연구해 보리라는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03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구보는 경성역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다가 우연히 동창생을 만나고 그의 애인도 보게 되지만, 그녀가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다고 느꼈을 뿐 호감을 느낀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하여 경성역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경성역은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고 느낄 정도의 장소였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구보의 기대를 배반한 장소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경성역을 가득 채운 군중을 관찰하다가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없었다.’라고 한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그네들은 거의 옆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경성역에서 본 사람들은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고, ‘남을 결코 믿지 않는’ 모습이었던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황금을 찾는 일에 열광하는 ‘황금광 시대’에 대해 구보는 자기도 모르게 ‘무거운 한숨’을 쉰다. 그는 불쾌함을 느끼게 만드는 속물인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의 ‘천한 얼굴’을 새삼스레 쳐다보면서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라는 생각을 한다. 이를 통해 구보는 황금광 시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가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했던 것은 세속적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라, 소설의 ‘창작을 위하여’ ‘사람들의 사행심, 황금의 매력’ 같은 것을 느껴 보려는 까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구보는 전차 안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고민하면서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지만, 고독에 대한 상념에 젖거나 동전에 적힌 숫자들 속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부질없는 일을 하다가 결국 ‘어디서든 선불리 내릴 수 없’는 ‘갈 곳을 갖지 않은 사람’임을 깨닫는다. 이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목적지를 정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행복을 탐색하는 구보의 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

습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②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조차 모르는 구보는 ‘문득, 대학 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연구실에서 정신병을 공부하는 친구를 만나러 갈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 것이다. 평범한 일과를 보내는 남들과 달리, 산책 같은 배회를 하느라 목적도 없이 전차를 탄 구보에게는 친구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이 ‘어떻든 한 개의 일일 수 있다’는 가치를 부여할 만한 일이 되는 것이다.

③ 구보가 경성역에서 ‘그의 ‘대학 노트’를 펴 들’려고 하는 것은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러나 구보는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사내를 보고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이는 소설 창작의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보가 느낀 울직한 내면 심리를 언급한 것이다. <보기>에 따르면 구보는 작가 박태원의 분신이므로, 이는 곧 박태원의 심리가 투영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④ 구보는 우연히 마주친 중학 동창생의 모습과 말투에서 느끼는 혐오에 가까운 감정을 거의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다고 하는 것,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것, 그의 얼굴을 ‘천한 얼굴’이라 하고 그의 말을 ‘교양 없는 이야기’라 하는 것 등등이 모두 그러하다. 이는 그 사내가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로서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며 ‘자네’ 소리로 불쾌감을 유발하는 속물적 근성을 보이는 인물이기 때문이고, 구보는 그 점에 대해 염증을 드러내는 것이다.

02

현대 소설

본문 169~172쪽

01 ④

02 ⑤

03 ①

04 ⑤

■ 강경애, 「인간 문제」

해제 > 이 작품은 지주에게 착취당하는 가난한 농민들의 삶,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한 후 노동자로서의 계급 의식을 각성하는 과정을 보여 주며 농민과 노동자의 현실을 사실주의적으로 그린 소설이다. 소설 속에는 궁핍한 생활을 하며 지주 덕호에게 맞서다가 마을을 떠나는 ‘첫째’, 그리고 그 이웃인 ‘선비’가 결국 농촌 마을을 떠나게 되는 과정, 도시에 터를 잡기 위해 노동자로 살며 쟁의 행위를 조직하는 모습 등이 나타나 있다. 제목인 ‘인간 문제’는 착취당하는 모든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할 인류의 과제임을 암시하며, 농촌의 착취 구조를 다룬 전반부와 도시 노동자의 착취 문제를 다룬 후반부로 나뉘어 전개된다.

주제 > 1930년대 노동자와 농민의 처참한 현실과 계급 의식 각성

전체 줄거리 > 정덕호가 지주로 있는 용연 마을에 살고 있는 ‘첫째’는 몸을 팔아 근근이 생활을 유지하는 어머니 밑에서 배필기를

밥 먹듯 하며 어렵게 살아간다. ‘선비’는 지주 정덕호 아래에서 일하던 아버지가 덕호의 매질에 사망한 후 어렵게 살아가다가 결국 어머니마저 세상을 뜨자 어쩔 수 없이 덕호의 집에서 몸종으로 살아가는데, 덕호는 선비를 감언이설로 유혹하여 겁탈하고, 결국 선비는 용연 마을을 떠난다. 선비를 연모하던 첫째도 악덕 지주 덕호의 등쌀에 결국 마을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인천 부두 노동자로 자리를 잡고, 파업을 주도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위해 저항하는 삶을 살아간다. 선비 또한 마을을 떠나 일자리를 찾다가 인천 방적 공장의 노동자가 되는데, 마을 소꿉친구였던 간난이의 설득에 이끌려 노동자를 착취하는 공장주에 맞서 싸우다가 폐결핵이 악화돼 죽고 만다. 그리워하던 선비를 주검으로 만나게 된 첫째는 자신이 해결해야 할 인간 문제가 있음을 깨닫는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서술자는 개똥, 첫째를 비롯한 농민들의 내면을 서술하여 타자일 덕호의 눈길과 말을 의식하는 긴장된 심리를 부각하는 한편 농민들로부터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덕호의 내면을 서술하며 둘 사이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서술자는 관찰자에 머무르지 않고 인물의 내면까지 함께 묘사하고 있으며, 농민들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은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첫째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다루고 있기는 하나 이를 서술자를 달리하며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니다.
- ③ 개똥 등의 농민, 덕호의 내면을 드러낸 서술이 곳곳에 드러나 있으나 객관적인 관점에서 그들이 대립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⑤ 덕호의 행동에 담긴 의도, 개똥의 표정에 담긴 심리가 드러나 있으나, 이러한 내용들이 농민들의 단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부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억울함을 호소하던 풍헌 영감의 모습으로 볼 때,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의식하고 배려하여 말을 멈춘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갑작스러운 통보에 놀라고 당황한 상황에서 큰 충격으로 말을 잊지 못한 것이라 보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벼를 거두어 나락 더미가 쌓인 것을 보며 풍성하게 수확한 것에 기뻐하고 뿌듯해하는 농민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② 벼섬이 점점 높이 쌓여 가는 것을 보며 총 수확량이 몇 섬이나 될지 기대하는 궁금한 마음에 모여드는 농민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벼섬을 쌓아 올리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수확량으로 집계되지

않는, 농민들이 남몰래 빼돌리는 벼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던 덕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④ 벼의 수확량을 확인한 당일에 절반 가까운 양을 빼앗기게 되어 허탈감을 느끼고 좌절하는 농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03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개똥이는 덕호로부터 벼섬을 빼앗기게 되자 당황하고 절망하고 있다.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벼 말을 내지 않으려나? 하는 불안에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개똥이 ‘회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회계’를 마치자고 덕호가 말하는 것은 빚과 이자, 비룻값, 장리 빚을 계산하여 정리하자는 의미이다.
- ③ 유 서방은 덕호가 ‘회계’에 필요한 것을 쟁하여 명령하는 바에 따라 지시받은 만큼의 벼섬을 나르는 역할을 하고 있다.
- ④ 덕호는 타작을 마친 벼섬이 쌓여 있을 때 회계를 마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갚아야 할 빚을 벼섬으로 환산하여 요구하고 있다.
- ⑤ 덕호는 개똥이의 반응을 보며 지금 이자를 쳐서 빚을 받지 못하면 앞으로도 영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서둘러 회계를 마치려고 하고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덕호는 주재소의 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 자신이 뜻하는 바에 따라 농민들을 더 감옥에 두게 할 수도 있고 석방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장면이다. 이를 두고 농민들의 토지 소유를 가로막는 계약 관계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개똥이 타작날 바로 벼섬들을 빼앗기는 것을 보며 첫째는 풍헌 영감이 입도 차압을 당했던 일을 떠올린다. 첫째가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을 삽입하여 현재 개똥이 당하고 있는 일과 과거 풍헌 영감이 당했던 일을 나란히 제시한 것은 몰인정한 지주의 횡포에 고통받는 농민들의 삶이 부조리하며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 가는 첫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또한 불공정한 지주-소작인 착취 관계에 대한 작가의 문제의식이 드러난 장면이기도 하다.
- ② 이미 살림이 넉넉한 지주인 덕호가 생활고에 빚 탕감 시기를 늦춰 달라는 풍헌 영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입도 차압했던 일을 제시한 부분에서 지주 덕호의 몰인정한 면모를 볼 수 있다.
- ③ 덕호가 일꾼들의 석방을 요구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은 타작을 마무리하는 것이 더 이득이겠다는 자신의 잇속과 관련된 판단이

다. 그 속내를 서술하면서도 겉으로는 농민들을 친자식처럼 여긴다고 말하는 덕호를 묘사한 것은 마을에서 선량한 어른으로 포장하며 살아가는 지주의 이중성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다.

④ 개똥 어머니가 ‘죽일 놈들’이라고 아들과 다른 농민들을 일컫는 것은 악덕 지주인 덕호 앞에서 오히려 그의 어려움을 헤아리는 행세를 해야 하는 개똥 어머니의 입장을 그려 내어 덕호가 선처를 베풀어 주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것은 지주와의 관계에서 농민들은 평등할 수 없는 절대적 약자였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03

현대 소설

본문 173~176쪽

01 ①

02 ②

03 ②

04 ④

■ 채만식, 「치숙」

해제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나’의 눈을 통하여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옥살이를 하고 나온 아저씨의 삶을 보여 주고 있다. 작품의 제목인 ‘치숙(癡叔)’은 어리석은 아저씨라는 뜻으로 아저씨의 삶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나’의 관점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비판의 대상인 아저씨는 사회적 모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지식인이지만 정작 무능력하고 도덕적 흠결이 있는 인물이다. 그런데 그를 비판하는 주체인 ‘나’는 일제의 식민 통치를 긍정하며 자신의 영달만 추구하는 현실 순응형 인물로, 올바른 사회의식이 결여된 무지한 존재이다. 이런 점에서 작가는 비판의 대상과 주체 모두 당대 사회의 문제형 인간임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특별한 사건 없이 인물의 대화와 주인공의 생각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며, 풍자적이고 반어적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 > 현실 순응형 인물인 ‘나’와 몰락한 사회주의자인 아저씨와의 갈등

전체 줄거리 > 화자인 ‘나’가 오촌 고모부인 아저씨를 소개하고 있다. 아저씨는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징역살이를 하고 나와서 지금은 폐병으로 앓아누워 있다. ‘나’는 대학교까지 나왔음에도 전과자가 되어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아저씨와 그런 아저씨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아주머니를 담당하게 여긴다. ‘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상점의 종업원으로, 주인의 눈에 들어 자립하여 일본에 살고자 한다. 아저씨는 이런 ‘나’를 한심하게 여겨 비판하지만 오히려 ‘나’는 아저씨가 세상 물정을 모른다며 힐난한다. 그러면서 ‘나’는 아저씨 같은 사람이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01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아저씨는 모든 사람이 ‘이 제도의 이 세상’에 따라 상하가 구분되는 사회에 살고 있으므로 자기에게 주어진 ‘분수’에 따라 살아

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밥 한 그릇’에 배부를 사람이 ‘밥 두 그릇’을 추구하는 것은 자기 ‘분수’에 벗어나는 삶의 태도임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아저씨는 ‘나’가 ‘밥 한 그릇’에 만족하지 않고 ‘밥 두 그릇’을 추구한다며 ‘나’의 삶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는 주인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주인의 ‘신용’을 얻으려면 기꺼이 그의 ‘비위’를 맞추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 ③ ‘나’는 아저씨에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나폴레옹처럼 ‘철전 팔기’의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④ ‘나’는 아저씨에게 ‘집안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아저씨’는 이를 거부한다. ‘나’는 아저씨가 ‘그 것’을 중시하여 ‘집안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 ⑤ ‘이 한다는 소리’는 아주머니의 은공을 생각해 가정을 돌보라는 ‘나’의 제안에 대해 아저씨가 거부하는 말을 이르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나’는 아저씨가 지금까지의 삶의 방식을 버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아저씨는 ‘나’에게 ‘세상 물정’과 관련한 질문을 계속하는데, 이는 ‘나’가 지닌 ‘세상 물정’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또 [B]에서 ‘나’는 아저씨에게 아주머니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는데, 이는 아주머니를 고생하게 만드는 아저씨의 태도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의 ‘나’의 질문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아저씨를 조롱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지만, [A]의 아저씨의 질문에는 자신을 무시하는 ‘나’를 조롱하려는 태도가 담겨 있지 않다.
- ③ [A]의 아저씨의 질문에는 ‘세상 물정’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나’에 대한 연민이 담겨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B]의 ‘나’의 질문에는 아저씨에 대한 존중이 담겨 있지 않다.
- ④ [A]의 아저씨의 질문과 [B]의 ‘나’의 질문은 모두 자기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기 위해 활용될 뿐, 상대의 감추어진 본심을 파악하기 위해 던진 것은 아니다.
- ⑤ [A]의 아저씨의 질문은 자신에 대한 ‘나’의 지적이 부당함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지만 [B]의 ‘나’의 질문은 아저씨의 잘못을 지적하는 데 활용될 뿐, 자신에 대한 아저씨의 지적이 부당함을 드러내는 데 활용되고 있지는 않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아저씨는 ‘세상 물정’을 단순히 당대의 풍속이나 동향 정도로

만 파악하는 ‘나’에게 ‘세상 물정’이 역사적 흐름을 의미한다고 알려 준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나폴레옹의 말을 인용해 아저씨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한다. 이에 대해 아저씨는 나폴레옹이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는 성공하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실패하였다고 하며, ‘나’가 나폴레옹의 삶 중 성공했을 때만 보고 세상 물정을 거스르며 살려고 한다며 비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폴레옹의 도전 정신을 지녀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은 아저씨가 아니라 ‘나’이다.
- ③ 아저씨는 나폴레옹처럼 살려는 ‘나’를 비판했을 뿐, 나폴레옹이 세상 물정이 변한다고 믿었다는 언급은 하지 않았다.
- ④ 아저씨는 나폴레옹이 세상 물정에 순응할 때만 성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나’에게 나폴레옹이 성공한 경우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 것으로, 세상 물정에 순응하여 성공한 나폴레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고 충고한 것은 아니다.
- ⑤ 아저씨는 ‘나’가 세상 물정을 거슬러 살아서라도 사회적 성공을 하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였을 뿐, ‘나’가 세상 물정을 지배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하지는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아저씨는 아내가 자기의 경제적 무능력 때문에 고생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아내가 ‘고생하는 게 나’이 될 수도 있다며 아내의 고생을 외면하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 자신의 행위를 합리화하려 한다. 이는 제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당대 지식인의 한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일 뿐, 자신의 경제적 무능력을 일제 식민 통치라는 사회 탓으로 돌리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아저씨는 ‘제 개성을 속여 가면서 끼적 생활에다가 아침하는 것 같이 더러운 것이 없’다고 말하며 물질적 가치만 중시하는 ‘나’를 비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저씨가 ‘생활’과 같은 물질적 가치보다 ‘개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를 중시하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나’는 사회적 성공을 위해 조선인의 자부심을 버리고 ‘일본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성명까지 같고 모든 생활 법도를 일본화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나’가 일제 식민 통치라는 비극적 현실에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현실에 적극적으로 순응하려는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③ 아저씨가 개인이 ‘계획이나 기회를 아무리 억지루 만들어 놓아도 결과가 뜻대루는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개인이 원하는 바가 있어 ‘계획이나 기회’를 만들어도 제힘만으로는 그 ‘결과’를 얻을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즉 ‘나’가 개인의 성공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기회를 잡으려 하지만, 결국에는 그 노력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것이다.

⑤ ‘나’는 아저씨가 고생하는 아주머니의 은공을 나중에 갚겠다는 말을 하자 그가 ‘남’에게도 패를 끼치고 ‘세상’에도 해를 끼치는 부정적 인물이라고 판단해 가정과 사회를 위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여기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아저씨를 매우 부정적 인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04

현대 소설

본문 177~180쪽

01 ③

02 ①

03 ④

04 ④

■ 하근찬, 「나룻배 이야기」

해제 ▶ 이 작품은 1959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전쟁이 평화로운 농촌 마을과 그곳 주민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 준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마을은 나룻배만이 외지에 오갈 수 있는 유일한 교통수단일 정도로 세상과 고립된 공간이지만, 전쟁은 이런 마을의 청년들을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 밖으로 끄집어낸다. 주인공인 뱃사공 ‘배삼바우’는 자기 아들과 마을 청년들을 나룻배를 통해 전쟁터로 떠나보내고 전쟁에서 상처 입은 청년들을 다시 마을로 돌려보내거나 청년들의 전사 소식을 전하는 인물로, 직접 전쟁에 참여하지 않지만 전쟁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이러한 그가 청년들을 전쟁터로 데려가려는 외지 사람들을 자신의 나룻배에 태우지 않으려는 행위는 무의미한 저항처럼 보이지만 힘없는 이가 보이는 세상에 대한 치열한 몸부림으로 볼 수 있다.

주제 ▶ 전쟁의 폭력성과 참혹성에 대한 폭로

전체 줄거리 ▶ 배삼바우는 마을과 외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배를 모는 사공이다. 전쟁이 터진 얼마 후 삼바우는 자기 아들인 웅팔, 양 생원의 아들이자 순녀의 남편인 천달, 모랑택의 아들인 두칠을 배에 태워 전쟁터로 떠나보낸다. 그들이 전쟁터로 간 사이에 순녀는 아들을 낳았고, 모랑택은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삼바우는 마을 청년 동식과 수만도 배에 태워 전쟁터로 떠나보낸다. 설이 지나고 봄이 되자 갑자기 두칠이 눈을 잃고 도깨비처럼 변한 채 마을로 돌아온다. 두칠을 좋아했던 삼바우의 딸 갑분이는 그런 두칠을 보며 무섭기도 하고 서럽기도 한 감정을 느낀다. 시간이 흘러 천달의 아들 대열의 두 돌이 지난 가을의 어느 날 천달의 전사 통지가 배달된다. 마을 사람들은 양 생원과 순녀를 위로하며 천달을 장사 지낸다. 그런데 바로 그날 삼바우는 읍내에서 오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마을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 가기 위해 배를 타려 하고 있음을 직감한다. 그는 나룻배를 움직여 그들을 배에 태우지 않고 혼자 마을로 돌아간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이 작품은 3인칭 전지적 서술자 시점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④은 초점화자인 삼바우의 눈에 비친 대상의 변화를 서술한 것으로, 이는 삼바우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게 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은 마을에서 나는 울음소리의 주체가 양 생원네 집 사람들을 제시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② ②은 할아버지의 표정을 묘사하여 자식의 유골을 가지러 가는 그의 침울한 심리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④ ④은 삼바우가 힘 있게 배에 오르자 뱃머리가 솟구치는 역동적인 모습의 배를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⑤은 삼바우의 생각을 직접 제시하여 그가 외지 사람들을 배에 태우지 않으려는 이유를 드러내고 있다.

02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밤새 마을에 부는 스산한 ‘바람 소리’는 천달의 죽음으로 무겁고 우울해진 마을 사람들의 심리를 청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또 양 생원이 천달의 유골을 가지고 돌아오는 강가의 강물과 하늘을 물들이는 ‘별건 불길’은 자식을 잃은 양 생원과 남편을 잃은 순녀의 울분에 찬 심리를 시각적 이미지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바람 소리’와 ‘별건 불길’은 시련을 당하는 인물들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감각적으로 드러낼 뿐, 시련 해소 과정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③ ‘바람 소리’와 ‘별건 불길’은 모두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할 뿐, 낭만적 분위기와는 거리가 멀다.

④ ‘바람 소리’와 ‘별건 불길’은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뿐, 사건의 긴장감을 완충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다.

⑤ ‘바람 소리’는 인물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상징할 뿐, 인물들이 겪는 외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별건 불길’ 역시 인물의 괴로운 심리를 상징할 뿐, 한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을 드러내지는 않는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궁둥이를 탁 치’는 것은 자기가 내린 결정이 매우 재치 있는 것이라고 여긴 삼바우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고, ‘고의춤을 불끈 추켜올’린 것은 그 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은 양 생원네 집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심리적 동요를 일으키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낼 뿐, 양 생원네 집에서 일어난 사건을 무시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② ②은 이미 배에서 내려 읍내로 가는 길에서 순녀가 보인 반응

으로, 남편의 유골을 가지러 읍내로 가는 순녀의 괴로운 심리가 행동으로 표현된 것이다.

③ ㉔는 삼바우가 점점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정체는 누구인지 몰라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 행동이다.

⑤ ㉔는 자신들을 배에 태우지 않은 삼바우에 대한 두 사람의 분노를 나타내기는 한다. 그러나 삼바우가 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화를 내며 적개심을 표출하지는 않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삼바우는 총을 멘 사람과 양복쟁이를 보고 그들이 마을 청년 중 누군가를 전쟁터로 데려갈 사람들이라고 직감하고, 그들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낸다. 그러나 곧 ‘하는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며 ‘두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도는데, 자신이 마을 청년을 강 밖으로 데려가는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여긴 삼바우의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은 강 안과 강 밖을 매개하는 뱃사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 괴로움을 나타내는 것일 뿐, 뱃사공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절망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삼바우가 천달의 유골을 가지러 가는 ‘양 생원네’를 배에 태우고, ‘읍내’로 가는 그들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쉰다. 이는 강 밖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마을 사람들에게 느끼는 삼바우의 안타까움을 드러낸 것이다.

② 삼바우가 돌아온 ‘양 생원이 안고 있는 상자’, 즉 천달의 유골 상자를 ‘받아 들리고’ 한다. 이는 전쟁의 피해자로서 그 참혹성을 몸소 겪은 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위로의 마음을 드러낸 것이다.

③ 삼바우가 ‘총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과 ‘양복쟁이’를 보고 그들이 강 안 사람들을 데려갈 것이라고 여겨 ‘가슴이 덜컥’한다. 이는 자신으로 인해 이전에 마을 청년들이 겪었던 것처럼 마을의 누군가가 또 강 밖 세계의 폭력성에 노출될 것이라는 두려움을 드러낸 것이다.

⑤ 삼바우는 외지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 길을 끊어 버리고’ 난 후 ‘이만저만 통쾌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마을과 강 밖의 세계를 단절하는 방식으로 소박하게나마 저항함으로써 강 안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는 만족감을 드러낸 것이다.

■ 박경리, 「불신 시대」

해제 ⑤ 이 작품은 전쟁을 직접 경험한 작가 박경리의 자전적 소설로, 6·25 전쟁 이후 도덕성의 붕괴로 인해 혼탁해진 사회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전쟁이 초래한 궁핍과 인간성의 상실은 작품 속의 종교계, 의료계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불신’이 팽배한 시대 현실 속에서, 무기력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주제 ⑤ 전쟁 이후의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분노와 고발

전제 줄거리 ⑤ 6·25 전쟁으로 인해 남편을 잃은 진영은 하나뿐인 아들 문수마저 잃는다. 문수의 죽음은 엑스레이도 찍지 않고 약도 챙겨 주지 않은 의사의 무관심 때문이었다. 아들 문수의 죽음으로 진영은 사회를 불신하게 된다. 상실감을 잊기 위해 진영은 종교에 매달리고자 하나, 그런 진영의 눈에 비친 타락한 종교계는 그녀에게 분노를 안겨 줄 뿐이다. 또한 폐결핵인 진영이 찾아가던 병원은 한결같이 엉터리에, 거리에는 가짜 주사약이 난무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진영의 돈을 떼어먹은 갈월동 아주머니는 사기로 인해 돈을 잃게 된 자신의 고민을 진영에게 털어놓는다. 진영은 이러한 시대의 문제에 지치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조리한 사회에 분노를 터뜨린다. 사회의 부당함에 저항하기 위해 진영은 절에 맡겼던 문수의 위패와 사진을 불태우고 삶의 의지를 다진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울고 싶고 외치고 싶은 마음’에 뒷산으로 올라간 진영은 산등성이에서 너절한 시가의 모습을 바라본다. 그 속에서 절과 예배당, 서양적인 것과 동양적인 것, 조화를 깨뜨린 잡다한 생활을 발견한 진영은, 이러한 도시 속에 꿈이 있다면 그것은 가로수나 구름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만으로 진영의 답답한 마음이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진영이 도시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떠올리며 답답한 마음을 해소한 것도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애당초 극히 경미하게 발생한 폐결핵이 전연 방치되었기 때문에 점점 악화되어 갔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병발하는 것이었다.’를 통해 진영이 폐결핵을 방치하여 다른 병까지 병발하는 바람에 고통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Y 병원에서는 주사약의 분량을 속였고 S 병원은 엉터리였다. 그리고 H 병원에서는 빈 약병을 팔았다.’를 통해 진영이 방문한 병원 세 군데에서의 경험은 진영에게 병원을 불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진영은 병원에 가는 것을 중지하고 만다.

③ ‘머칠 전에 아주머니가 원금만은 돌려주겠다고 약속대로 마지막 남은 만 원을 가지고 왔다. 이것으로 원금 십만 원은 다 받은 셈인데’를 통해 아주머니가 진영에게 돈 십만 원을 빌렸고,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진영과 했던 약속을 지켰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아주머니는 돈을 주고 난 다음 가려고 일어서면서 문수의 위

05

현대 소설

본문 181~184쪽

01 ⑤

02 ⑤

03 ⑤

04 ①

패를 절에다 모신 데 대한 불만을 말했다. 그리고 왜 그런 우상을 숭배하느냐고 나무라는 것이었다.’를 통해 아주머니가 진영이 아들 문수의 위패를 절에 맡긴 것에 대해 탐탁하지 않은 반응을 보인 것을 알 수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는 과거의 기억이 동시다발적으로 떠올라 진영의 심리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상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진영이 겪는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부각하고 있다. [B]에는 산에 올라온 진영이 천막집에서 나온 소녀와 천막집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한 후, 전쟁 이후의 힘겨운 사람들의 현실 상황을 직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 진영은 자신이 이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나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진영의 시각에서 느끼는 고통과 무서움이 드러나 있다. 그리고 [B]에는 힘겨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한 진영이 그들에 비해 자신이 나은 상황임을 깨닫는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A]와 [B]는 모두 서술자가 특정 인물인 진영의 시선을 통해 그의 내면 심리를 제시하고 있을 뿐, 관찰한 사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는 ‘한 마리의 지렁이 같은 생명’, ‘무한정한 공간이 안개 처럼’과 같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이는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B]에는 ‘거미같이 가는 소녀의 팔’, ‘집들이 마치 진땀물 모양으로’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지만 [B] 역시 인물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에는 진영의 의식 속에 과거의 기억이 동시다발적으로 스쳐 지나가는 장면들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B]에는 산등성이에서 바라다보이는 시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너절’하고 ‘다닥다닥 붙어 있’는 시가의 모습은 가난, 혹은 전쟁 후 혼란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유추할 수 있으므로, 시대적 배경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A]에는 ‘이러한 육신과 더불어 정신도 해체되어 가는 과정 속에’를 통해 기억들이 동시에 떠오르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진영의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B]에는 진영이 현재 바라보고 있는 빈민굴, 시가의 모습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인물 간의 갈등 상황을 자세히 진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전쟁 이후의 사회가 지닌 모순과 도덕성의 붕괴 등으로 지친 진영은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들을 다르게 대접하고, 자신들

을 홀대하던 절에 더 이상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절에서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찾아와 이를 태움으로써, 시대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타락한 시대와의 연결 고리를 끊는다. 위패와 사진이 타는 모습을 끝까지 바라본 진영은 자신에게는 아직 ‘항거할 수 있는 생명’이 남아 있음을 마음으로 새기며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태운 언덕을 내려온다. 이는 진영이 타락한 시대에 맞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①은 진영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 수 있는 원동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①은 타락한 사회에서 진영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 수 있는 원동력이자 삶에 대한 의지이므로, 시대 현실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으로 볼 수 없다.

② 진영이 문수의 사진과 위패를 태운 것은 오랫동안 마음에서 버려진 일이었다. ①은 진영이 아들의 사진과 위패를 불태운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합리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타락한 시대 현실에 맞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③ ③은 시대에 맞서 진영이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므로, 사람들에게 의해 상처받은 진영이 느끼는 비관적인 심정으로 볼 수 없다.

④ ④은 시대나 현실에 순종하지 않고 맞서서 반항하겠다는 진영의 의지가 드러나므로, 자신의 처지에 대해 진영이 느끼는 불안감으로 볼 수 없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진영은 폐결핵을 방치한 탓에 다른 병까지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고통을 받다 환각을 겪으며 정신적인 아픔에 시달린다. 이를 통해 진영은 전쟁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는 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문수의 위패를 절에 맡긴 진영에게 ‘당신네 같으면 중이 먹고 살았수.’라고 무안을 준, 절의 중은 전쟁 이후의 속물적인 인간상을 반영하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전쟁 이후 많은 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를 상실한 채, 자신의 이익만을 따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가짜 주사약을 범람하는 거리에서 가짜 주사약을 진짜라고 속이고 파는 상인들은, 전쟁 이후의 속물적인 인간 군상으로 도덕성이 붕괴된 전후 사회의 실상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환자의 치료를 도와야 할 병원에서 주사약의 분량을 속이고, 엉터리 의사가 진찰을 하고, 빈 약병을 파는 행위는 병원에 대한 환자들의 신뢰감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진영이 ‘인술이라는 권위를 지닌 의사’를 가짜 주사약을 태연히 진짜라고 속이며 파는 ‘상인 따위’와 같다고 인식하는 것은, 믿음을 얻어야 할 의사와 병원이 불신을 얻게 된 사회적 모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집을 나와 뒷산으로 올라간 진영은 황량한 산에서 군데군데 서 있는 천막집을 바탕으로 하나의 빈민굴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한다. 이는 삶의 터전을 잃고 경제적 궁핍을 겪은 이들이 한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전후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종교계마저 타락해 버린, 불신이 팽배한 사회에 대한 환멸을 느낀 진영은 절에 맡긴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찾아온다. 그리고 아들의 위패와 사진을 한참 바라보던 진영이 그것들을 태우고,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만이 본인에게 남아 있을 뿐이라고 인식한다. 따라서 '무참히 죽어 버린 추억'은 불신 시대가 진영에게 남긴 것으로, 전후 사회의 현실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인물에게 느끼게 하는 삶에 대한 환멸로 볼 수 있다.

06

현대 소설

본문 185~188쪽

01 ②

02 ②

03 ④

04 ⑤

■ 이병주, 「관부 연락선」

해제 > 이 작품은 유태림이라는 식민지 지식인 청년의 행적과 삶을 통해, 일제 강점, 해방, 6·25 전쟁이라는 우리의 현대사를 성찰하고 당시를 살아가던 지식인들의 정신적 고통과 혼란을 조명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은 유태림이라는 중심인물의 삶에 대해, '나'의 기억과 유태림이 쓴 수기인 '관부 연락선'을 교차하여 서술하는 방식과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과 구성 방식을 통해 일제 강점과 이념 대립의 고통스러웠던 역사를, 당시의 시점과 1960년대의 시점에서 통합하여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지나온 역사를 통찰하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했던 지식인의 비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적·정치적 상황과 지식인 청년의 고뇌

전체 줄거리 > 해방 후 '나'(이 선생)는 일본 유학 시절 대학 동문이었던 일본인 E로부터 편지를 받는다. '나'는 E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행방불명된 조선인 동문 유태림의 소식을 알려 주는 대신, 유태림이 쓴 수기 '관부 연락선'을 받아 보기로 한다. 유태림에 대한 '나'의 기억과 그의 수기 '관부 연락선'을 통해 유태림의 행적과 생각이 다음과 같이 드러난다. 유태림은 C시 유지의 자제로 뺨여난 수재였지만 항일 운동에 휘말려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대학으로 진학한다. 그는 일본 대학의 문학과에서 일본인 학생들과 교류하며 문학과 철학을 논하는가 하면 조국의 미래에 대해 번뇌하기도 한다. 유태림은 학병으로 징집되고 중국 전선으로 끌려간다. 중국에서 해방을 맞은 그는 조국으로 돌아오지만, 조국은 이미 극심한 이념 대립의 공간이 되어 전쟁이 임박한 상황이다. 혼란한 상황에서 유태림은 스스로 고향에 내려가 교편을 잡고, 이념 대립으로부터 청년 학생들을 지켜 내고 이끌어 간다. 하지만 유태림은 빨

치산에게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고, 질곡의 현대사를 살아가야만 했던 지식인 청년은 비극적 운명을 맞는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허봉도의 말에 따르면, 안달영은 대학 시절 사상 관제로 여러 차례 투옥된 적이 있으며 그런 이유로 나이가 많은데도 학병으로 끌려오게 되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허봉도는, 교양회 개최 장소를 빌리려는 안달영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 유태림을 방공호로 끌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안달영은 유태림에게 조국의 해방을 눈앞에 두고 돌맹이 한 개 치우는 노력마저 하지 않으려는 사람으로 보지는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달영은 유태림이 자신이 개최하려는 교양회 장소를 빌려주는 데 협력할 것이라고 기대했음을 알 수 있다.

④ 유태림은 창고 이용과 관련하여 허봉도와 시비를 벌이는 것이 보람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허봉도에게 생각할 여유를 달라면서 헤어졌다.

⑤ 유태림은 안달영에게 창고를 이용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며, 자신은 주이나 사상, 독립운동보다도 같은 부대에 있는 조선인 학병들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02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는 '(중략)' 이후에 제시된 유태림과 안달영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 이유와 내막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 인물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특정 사안에 대한 인물의 내면 의식이 일부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인물이 외부 세계에 대해 내적 갈등을 겪는 모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A]에는 서술자가 유태림과 허봉도 사이에 있었던 일과 인물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지만 서술자의 교체를 통해 사건의 의미를 입체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A]에 허봉도가 안달영의 과거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으나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며 사건을 속도감 있게 전개한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A]에 허봉도가 유태림을 방공호로 끌어들이 창고 이용을 요청하는 사건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03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유태림은 독립운동이 반드시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해야 한다

는 안달영의 말을 듣고, 미합중국, 필리핀, 인도 등의 구체적 사례를 들며 그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역설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유태림이 안달영과 허봉도에게 한 말 중 상대의 행동이 가져올 부정적 결과를 연상할 수 있는 부분은 제시되어 있지만 상대에게 타협을 종용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② 유태림은 안달영과의 대화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절대시하고 강요하는 그의 신념에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달영이 가진 공산주의 신념의 실현 가능성을 비판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③ 유태림과 안달영의 대화에서, 유태림이 안달영의 도덕적 결함을 언급하며 상대의 주장이 지닌 윤리적 문제를 지적한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 ⑤ 유태림과 안달영의 대화에 등장하는 중심 화제로는 독립운동, 공산주의, 정체 등이 있지만, 유태림이 이러한 중심 화제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에서, 유태림이 안달영에게 그가 가진 신념에 대해 참견할 의사가 없다고 말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유태림은 안달영과의 갈등이 격화되자 그가 주관하는 모임 자체를 반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달영은 유태림이 모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자신의 신념에 간섭한 것이라고 항의하지만, 유태림은 모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과 같은 부대에 있는 조선인 학병의 생존과 관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태림이 안달영의 모임 자체를 반대한 것은 이데올로기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정신적 혼란의 결과가 아니라 일본군에 소속된 조선인 학병의 생존에 관한 걱정 때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일본이 아직 패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병영 내에서 공산주의 사상에 기반한 조선 독립에 대해 조선인 학병들이 교양회를 개최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당시가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기였음을 나타낸다.
- ② 유태림은 안달영에게 독립된 나라의 정체를 선택하는 것은, 먼저 나라가 독립할 수 있는 환경을 쟁취한 후 다수의 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또 공산주의에 기반한 독립운동과 독립만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안달영에게 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태림은 이데올로기적 확립성을 거부한 사상적 유연성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 ③ 유태림은 안달영에게 독립운동은 종교, 직업, 계급을 비롯해 이념이나 사상과 무관하게 순수하게 독립에만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태림은 이데올로기에 휘말리지 않은 순수한 생각을 지닌 지식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④ 안달영은 유태림이 창고를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자, 일말의 애국심이나 정의감도 없는 사람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그리고 공산주의에 기반한 독립운동과 나라의 독립만이 바르고 합당한 것임을 유태림에게 역설하며 이데올로기에 대한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07

현대 소설

본문 189~192쪽

01 ⑤

02 ①

03 ⑤

04 ④

■ 박완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틀니」

해제 ▶ 이 작품은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는 가족의 모습을 통해, 1970년대의 폐쇄적 사회 분위기와 당시 소시민들이 겪었던 시대적 아픔을 그려 낸 단편 소설이다. 월북한 식구를 둔 주인공 모녀를 향한 정보기관의 추적과 감시는, 전쟁이 끝난 뒤에도 분단 현실이 개인의 삶에 지속적인 정신적,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주인공이 '틀니'에서 느끼는 무게와 통증에 대한 묘사는 당대 한국 사회의 제약과 그로 인한 시민들의 고통을 우회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 전쟁과 분단의 상황으로 고통받는 소시민의 삶

전체 줄거리 ▶ '나'의 이웃에 사는 설희 엄마는 가난한 화가인 남편과 함께 살며, 형편이 나아지면 지체 장애가 있는 설희를 미국으로 데려가 수술을 받게 하고 싶다는 소망을 품고 있다. 한편 '나'는 6·25 전쟁 당시 의용군으로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은 오빠로 인해 마음속에 막연한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 그러던 어느 날, '나'와 가족들이 정보기관에 연행되고, '나'의 집안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기관원은 '나'에게 오빠가 곧 간첩으로 남파될 것이라며 오빠에게 자수를 권하라고 종용한다. 그 후 설희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고, 공항에서 그들을 배웅하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틀니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집에 돌아와 틀니를 빼자 통증이 사라지지만, 잠시 후 문밖에 찾아온 월북 책 장수와 어머니가 대화하는 것을 들으며 그를 오빠로 착각하고는 다시 심한 통증을 느낀다. '나'는 그 통증이 틀니 때문이 아니라 설희 엄마에 대한 선망과 질투,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제약과 중압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는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는 '턱뼈가 부서질 듯한 동통'의 묘사를 통해 틀니를 한 '나'의 신체적 고통이 심화되는 상황이 드러난다. [B]에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와 '사십 대의 남자'의 대화 소리 묘사를 통해 월북했던 오빠가 몰래 집을 찾아왔을지도 모른다고 여기는 '나'의 심리적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이 드러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에서 ‘틀니’를 화자가 느끼는 사회적, 이념적 중압감을 함축하는 상징적 소재로 볼 수 있지만, 이를 통해 미래의 사건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B]에는 시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나’의 집이라는 공간적 배경이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 이를 통해 인물이 속한 시대적 맥락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 ② [A]에는 ‘차중’, ‘길’에서 ‘내 집 문 앞’으로의 공간 이동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작중 분위기가 전환되는 상황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B]에는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와 남자가 대화하는 소리가 연이어 들려오고 이에 ‘나’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인물의 성격이 변화하는 과정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 ③ [A]에는 틀니를 한 턱에 통증을 느끼는 ‘나’의 내면 묘사가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B]에는 인물의 행적을 요약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A]에는 과거형의 진술이 나타나 있지만, 이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인물의 반성이 드러난다고는 볼 수 없다. [B]에는 현재형의 진술이 나타나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상황, 즉 집을 찾아온 남자와 어머니가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나’의 추리가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0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① ‘나’는 일류 치과에서 고가로 틀니를 맞추었고, 틀니는 ‘내 손바닥에서 거의 무게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 묘사된다. 또한 ‘나’는 자신의 아픔이 ‘틀니에서 기인한 아픔이 아니었던 것’임을 깨달았다고 밝힌다. 따라서 ‘나’가 틀니를 무거운 것으로 맞춘 탓에 그에 따른 신체 거부 반응으로 통증을 겪는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나’는 ‘간첩이 된 혈연과는 상봉이 물고 올 사건과의 당면이 두려운 나머지’ 오빠가 ‘넘어오다 차라리 사살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 ③ ‘나’는 대문 밖을 찾아온 월부 책 장수를 오빠로 착각하고는 오빠가 ‘어머니에게 도리어 월복을 권하고 아니 협박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추측한다.
- ④ 설희 엄마는 ‘딸과 함께 미국으로 떠났으며, ‘나’는 그런 그녀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풍토가 주는 온갖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에 대해 ‘선망과 질투’의 감정을 지니게 되었음을 고백한다.
- ⑤ ‘나’는 외당숙에 대한 정보를 가진 ‘그’로부터 오빠가 ‘이북에서 밀봉교육을 받고 곧 남파되리라는’ 소식을 듣고 단속을 받는다. 또한 ‘남편과 어머니’, 그리고 ‘외가’, ‘오빠가 알 만한 대소가’도 ‘그런 일을 당’한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㉔은 대문을 두들기던 사내가 월부 책을 사라고 졸랐다는 점을 밝히면서 그 처지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는 ‘어머니’의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정체를 오해했음을 밝히고 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은 월복한 오빠가 남파되어 집에 들 경우 어떻게 할지를 묻는 ‘그’의 물음에 대한 ‘나’의 대답이다. ‘그’는 ‘나’의 오빠가 남파될 것이라는 첩보를 가지고 오빠의 주변 사람들을 단속하고 있다. ‘나’는 그런 ‘그’ 앞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그’의 ‘전능’함을 느끼고는 ‘신고’를 하거나 자수를 시키겠다고 하고 있다. 따라서 ㉑은 ‘나’가 위세에 눌려 ‘그’가 원하는 바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㉒은 오빠가 집에 들 경우 자수를 시키겠다고는 ‘나’의 말에 대한 ‘그’의 반응이다. ‘그’는 ‘나’의 말에 ‘잘 생각’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드러내고는, ‘아주머니만 믿겠’다면서 ‘나’가 말한 내용에 대한 책임을 환기하고 있다.
- ③ ㉓은 ‘어머니’가 집에 들른 오빠에게 자수를 권하더라도, 오빠가 ‘이 에미 말을’ 듣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면서 염려를 드러내는 말이다. 따라서 ㉓은 ‘어머니’가 앞으로 벌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면서 염려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
- ④ ㉔은 ‘나’가 턱에서 통증을 느끼다가 틀니를 뺀 직후 느끼는 현재의 편안감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온갖 사는 어려움’에서 벗어난 설희 엄마의 상황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편안감이 더 크다고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나’는 길에서 틀니를 해 넣은 턱에 통증을 느끼다가 집으로 돌아와 틀니를 빼내고는 ‘가볍다 못해 공중으로 둥실 뜨는 듯’한 기분을 느낀다. 그러나 이는 일시적인 기분일 뿐, ‘나’는 불안을 느끼자 다시금 극심한 통증을 느낀다. <보기>를 참고하면 ‘나’의 이 불안은 사회적 제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나’가 잠시 틀니를 빼낸다고 해서 이 제약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가볍다 못해 공중으로 둥실 뜨는 듯’한 기분이, ‘나’가 분단으로 인한 사회적 제약에서 벗어나다면 느낄 해방감을 보여 준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보기>를 참고하면, 오빠에 대한 첩보를 바탕으로 오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신고나 자수를 종용하는 ‘그’는 권력 기관의 감시를 수행하는 인물이며, 이러한 감시는 분단 시대의 냉전적 사회

구조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가 설사 내 딸 연이가 현이라고 했다면 아마 내 딸은 현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이라는 서술은, 이러한 권력 기관의 감시가 딸의 이름에 대한 판단에까지 영향을 줄 만큼 ‘나’의 의식을 위축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② <보기>를 참고하면, 월북한 식구를 둔 가족들에게 연좌제가 적용될 수 있었던 당대의 현실에서 ‘남편과 어머니’, ‘외가’가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오빠가 알 만한 대소가가 다 한 번씩 그런 일을 당한’ 일은 월북한 식구를 둔 이들의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까지 감시를 당하던 당대의 상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③ <보기>를 참고하면, ‘나’는 전쟁 이후 산업화가 진행되는 사회 속에서 일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임을 파악할 수 있다. ‘십팔 평 블록 집 속의 안일’은 이러한 ‘나’가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면서 지키려 하는 일상적인 행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보기>를 참고하면, ‘나’는 이념 갈등에 따른 분단 상황에서 사회적 제약을 경험하면서 이념의 중압감을 깨닫게 되는 인물임을 파악할 수 있다. ‘여태껏 얼마나 교묘하게 스스로를 이중 삼중으로 기만하고 있었나를’ 깨달았다는 서술은, 이러한 ‘나’가 아픔의 원인을 직시하면서, 애써 외면한 채 살아왔던 이념의 중압감을 깨닫게 되는 상황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08

현대 소설

본문 193~196쪽

01 ②

02 ②

03 ①

04 ③

■ 이문구, 「해벽」

해제 > 이 소설은 1970년대 산업화의 흐름 속에서 한 어촌 마을이 몰락하는 과정을 통해 산업화로 인한 폐해를 고발하고 있는 작품이다. 작품 속 사포곶은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어촌 마을로, 급변하는 산업화의 현실 속에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타락해 가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이다. 미군 부대의 유입과 산업 지형의 변화를 둘러싼 권력 암투와 이해타산을 중심으로 하는 이진투구는 인간을 소외시키고 타락시킨다. 작가는 이와 같은 70년대의 현실을 사실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날카롭게 고발하고 있다.

주제 >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몰락해 가는 어촌 마을의 비극

전체 줄거리 > 사포곶 어업 조합장인 조등만은 사포곶과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학교를 세우고 출어세를 거두는 등 온갖 노력을 기울이지만 산업화와 도시화의 물결 속에서 그 노력이 좌초된다. 때마침 미군 부대가 마을에 들어오고, 이로 인해 사포곶은 타락한 공간으로 변한다. 마을에는 미군의 횡포로 인해 흉측한 일들이 벌어진다. 변화된 시류에 한몫을 잡으려는 부류들로 인해 조등만은 어업

조합장에서 물러나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소유한 배마저 조난당한다. 간척 사업의 시작으로 사포곶은 폐항이 되고, 생계가 막막해진 조등만과 어민들은 어살을 놓으며 희망을 놓지 않는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의 서술 주체는 전지적 서술자이지만 [A]에서는 주로 인식의 주체인 ‘조’의 관점에서 ‘송산 꼭대기의 불빛’에 대한 그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의 서술 주체는 행위 주체인 ‘조’의 관점에서 그의 생각과 심리를 서술하고 있을 뿐, ‘조’가 알 수 없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고 있지는 않다.

③ [A]의 서술 주체는 전지적 서술자이고, 인식 주체는 작품 속 인물인 ‘조’이므로, 두 주체가 일치하지 않고, 서술 주체가 행위 주체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도 않다.

④ [A]의 행위 주체는 ‘조’이고 서술 주체는 전지적 서술자이므로, 두 주체가 구별되기는 하지만 서술 주체가 ‘조’의 과거 행적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⑤ [A]의 행위 주체는 ‘조’이고 서술 주체는 전지적 서술자이므로, 두 주체가 일치하고 있지도 않고, 서술 주체가 다양한 인물의 행위와 심리를 주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지도 않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조’가 느끼는 불안감은 미군 부대로 인해 마을의 분위기가 부정적으로 바뀔 것을 염려하는 것이지 자신의 지위가 무너질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포곶의 능력과 지녀 온 저력을 가늠해’ 보겠다는 것은 사포곶의 능력과 저력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태도이므로, ‘조’가 사포곶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③ ㉔의 앞부분을 보면, ‘조’는 정부가 어민들의 삶에 도움이 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㉔은 정부나 기관의 역할에 대해 ‘조’가 회의적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조’가 마을의 몰락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한 일이 ‘어살’을 맨 일인데, ‘어살’은 전통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장치로, 이를 통해 ‘조’는 결국 어부로서의 충실한 삶을 통해 마을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⑤ 과거 마을의 중요한 직책들을 역임한 그가 ‘남의 눈’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는 것은 ‘조’ 자신의 체면보다 마을의 문제 해결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㉔는 나라에 번고가 생겼을 때 올리던 것이고, ㉕는 ‘조’로 하여금 ‘공갈과 협박의 가면’으로 인식되는 것이므로, 둘 다 ‘조’에게 불길함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㉕가 변화에 대한 일부 마을 사람들의 기대를 함축한 것일 수는 있으나, ㉔는 그렇지 않다.

③ ㉔는 과거 나라에 번고가 생겼을 때 올리던 것이므로, 문명의 불빛으로 보기 어렵다. ㉕는 미군 부대에 설치된 것이라는 점에서 ‘문명의 불빛’으로도, 또 ‘조’가 느끼는 것처럼 ‘야만스런 광채’로도 볼 수 있다.

④ ㉔는 평온함과는 거리가 먼 불빛이고, ㉕는 ‘조’와 같이 사람에게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불빛일 수 있다.

⑤ ㉔는 나라의 번고를 알리는 불이라는 점에서 상서롭지 못한 기운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고, ㉕는 경우에 따라 상서롭게도, 그렇지 않게도 생각할 수 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사포꽃의 변모와 그 후발증에 대해 무척 관심을 가’진 것은 ‘조’이고, ‘조’가 이에 관심을 둔 것은 변화에 대한 기대 때문이 아니라 사포꽃이 ‘미군들이 뿌릴 이질적인 풍속과 마주치면 어느 만큼이나 제 모습을 지키며 가꿀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때문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미군 부대’는 외부 세력이고, 이것의 유입을 통해 ‘사포꽃’의 제 태깅이 점차 바래어 가기 시작했다는 것은 외부 세력으로 인해 전통적 어촌 마을이었던 사포꽃이 변화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② 미군 부대의 유입과 그로 인한 변화에 대해 ‘덕 불 궁리에 기대 건 사람’은 변화하는 시류에 편승하여 이익을 보려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④ ‘어민 구실도 제대로 못 해 본 채 갯물만 허거물쓰듯 커 온 몇몇 어민들’은 농촌 근대화라는 시류에 편승하지 못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이들을 시대 변화에 도태되어 몰락해 가는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농촌 근대화로 인해 변화하는 현실에서 어민으로서의 삶을 고집하면 생활고가 가중될 것이라는 말은, 변화의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09

현대 소설

본문 197~201쪽

01 ②

02 ⑤

03 ④

04 ①

■ 김원일, 「미망」

해제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부터 6·25 전쟁을 거쳐 분단에 이르는 격변기에 크나큰 상실과 고통을 겪어야 했던 ‘나’의 가족 이야기를 통해 우리 민족의 상처를 보여 주는 소설이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나’의 ‘아버지’가 희생되고, 이 때문에 ‘할머니’와 ‘어머니’ 사이에는 깊은 갈등과 불화가 생긴다. 역사적 질곡의 희생자라는 공통점을 가졌으면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고 포용하지 못했던 것이다. 작품 결말 부분에 등장하는 ‘보도 연맹 가입증’은 ‘할머니’가 ‘아버지’에 얹힌 한을 끝내 풀지 못한 채 생을 마감했음을 알게 해 준다.

주제 ▶ 현대사의 질곡으로 인한 우리 민족의 상처

전체 줄거리 ▶ ‘나’는 할머니와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에 살고 있다. 할머니는 고모네 집에 사시다가 그 집 사장이 어려워지자 옮겨 오셨고, 어머니는 울산에서 장사를 하다가 사장이 생겨 큰아들인 ‘나’의 집으로 오시게 된 것이었다. 고부지간인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한 지난 다섯 달 동안 여섯 번이나 싸웠는데, 일단 싸움이 나면 할머니는 식사를 하지 않고 두 분은 잠도 함께 자려 하지 않을 정도로 심하게 대립한다. ‘나’와 아내는 두 분의 싸움을 중재하려 애써 보지만 번번이 허사이다. 이러한 갈등은 오래전부터 쌓인 것으로, ‘나’의 아버지, 즉 할머니의 아들이자 어머니의 남편이 실종된 일과 관련이 있다.

갯마을에서 태어나 힘들게 살던 할머니는 열아홉 되던 해에, 상처한 서른한 살 홀아비와 혼인하며 모화로 온다. 할머니가 아들 둘을 잃은 후 얻은 영특한 셋째 아들(‘나’의 아버지)은 중학교 졸업 후 야학당을 개설하고 농민 운동을 시작해 일본 경찰의 감시를 받는다. 결혼 후에도 농민 운동을 그만두지 않은 아버지가 해방 후에 좌익 활동을 하자 어머니는 자주 지서에 연행돼 고초를 겪지만, 할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두고 자기 딸인 고모네 집에 가서 지내다가 아버지가 자수한 후에야 집으로 돌아온다. 6·25 전쟁이 발발하자 아버지는 다시 중적을 감추고, 할머니도 다시 고모네로 간다. 그 후 어머니는 어린 ‘나’와 동생을 데리고 모화를 떠나 울산에서 살아 간다.

회사에서 일하던 ‘나’는 할머니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전화를 받고 집으로 급히 돌아오는데, 할머니가 위독한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냉랭한 말만 하지만,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갈치를 두 마리 사 들고 온다. 그러나 그사이에 할머니는 돌아가시고, 통곡 후에 유품을 정리하던 고모는 할머니가 사십여 년이나 차고 다닌 비단 꽃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조그마한 사진이 붙은 ‘보도 연맹 가입증’을 발견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㉞는 서술자 ‘나’가 젖먹이 아기였던 때의 사건에 관한 서술이므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기억을 회상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전해 들은 이야기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타인의 발화를 직접 혹은 간접 인용했다는 표지가 없어서,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일을 회상한 서술과 표면적으로 구별되지 않을 뿐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있었다 했다.’를 통해 타인에게 들은 내용을 간접 인용한 문장임을 알 수 있다.
- ③ 타인인 어머니의 발화가 직접 인용된 대목의 일부분이다.
- ④ 서술자 ‘나’가 직접 보고 들은 경험에 대한 회상이다.
- ⑤ 어머니의 행동을 서술자 ‘나’가 관찰한 것이므로, 서술자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한 서술이라고 할 수 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㉞은 고모가 한평생 호강도 못 해 보고 돌아가신 할머니에 대한 애달픈 감정이 북받쳐, 할머니가 당신의 딸인 자기네 집에 머무실 때와, 손자인 ‘나’의 집에 머무실 때 각각 사위와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힘드셨을 거란 말을 하는 것이다. 할머니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드러나 있는 말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㉞은, 하는 짓까지 ‘얕밟던’ 할머니가 그래도 ‘집에 오니까 반갑’더라는 과거 일에 대한 어머니의 진술이다. 따라서 어머니가 할머니에게 느꼈던 두 가지 모순된 감정이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
- ② ㉞은 아버지가 이미 죽었을 것이라는 어머니의 말로, 모친께 불효하고 처자식을 버린 사람은 멸절하게 살아 있을 수가 없다는 원망을 토로한 것이다.
- ③ ㉞은 모화를 떠나 울산에 도착하여 ‘문전걸식 동냥질’을 할 때, 몸에 이가 꺾고, 세수도 못 한 얼굴로, ‘찌든 이불’을 옷 대신 두르고 살았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 ④ ㉞은 자식들에게 ‘거칠고 매정’하며 ‘매질’도 하곤 했던 어머니의 마음을 ‘나’가 ‘뜨겁게 이해하게 된’ 변화에 대한 언급이다. 그 후 ‘나’는 어머니가 매를 때릴 때에도 ‘순종으로써 어머니의 한풀이를 달게 받아들였’다고 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남편이 실종되고 시어머니도 돌봐 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아

이 둘을 키우기 위해 ‘걸뱅이짓’을 비롯해 갖은 고생을 하던 어머니는 ‘오냐, 내가 이 두 자식을 질질이 키아서 옛말하고 살 때, 내 팔세한 이놈으 시상, 어데 두고 보제이. 내가 무명지를 깨물어 맹세하미 나를 젖도 읊는 쪼그라진 가슴팍에다 피로써 십자가를 그’리느라고 손가락의 살점이 날아간 상태이다. 따라서 ‘손가락’은 갖은 시련을 견디며 자식들을 보란 듯이 잘 키워서 언젠가는 이 모진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던 어머니의 독한 의지를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 때문에 손가락을 깨물며 맹세한 것이 아니다. 어머니는 ‘미친놈으 서방. 그놈 믿고 자식 둘까지 싸질러가미 살은 내가 등신이지려.’라고 말할 정도로 아버지에게 대한 강한 원망의 태도를 보인다.
- ② 어머니는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만 했을 것이다. 그러나 삶의 의지를 다지며 깨문 ‘손가락’이 그 ‘포기해야만 했던 것들’을 상징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어머니가 극심한 이념 대립 때문에 염세적인, 즉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일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태도를 가졌다고 볼 근거는 없다.
- ⑤ 어머니는 할머니와 갈등을 겪었지만, 그로 인해 물리적 충돌이 빚어져 어머니 손가락의 살점이 날아간 것은 아니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지서 순경들이 거의 우리 집에 살다시피’ 하고 어머니가 ‘얼마나 타작매를 당하셨던지 온몸에 피멍이 들어 돌아’오곤 했던 것은 ‘남로당 모화책에 울산지부 조직부장책을 맡아 뛰’면서 집을 자주 비우는 아버지를 좌익 관련 수사 기관이 검거하려 했기 때문인데, 이때는 아버지가 보도 연맹에 가입하기 전이다. 보도 연맹의 예비 검속은 6·25 전쟁 발발 후의 일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③ ‘남로당 모화책에 울산지부 조직부장책을 맡아 뛰었’기 때문에 지서의 순경들에게 쫓기며 숨어 다니던 아버지는 ‘어디선가 모화로 돌아와 지서에 자수를’ 했는데, 이는 좌익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보도 연맹인강 만강, 거게 가입해서 겨우 도망 안 덩기도 되는 살길을 찾았’던 것이다. 그러나 6·25 전쟁이 나자 아버지는 다시 ‘매칠 만에 온다 간다 말없이 사라지 뿌’리고 말았는데, 이에 관해 어머니는 ‘보도 연맹 가입자들을 예비 검속한다 카는 소문을 어데서 들은’ 것 같다고 말한다. 따라서 이를 <보기>의 설명과 관련지어 본다면, 아버지가 사라진 것은 예비 검속에 의해 구금되어 고문을 동반한 취조를 당할 것을 예감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 ④ ‘지금도 이북 어데 자식이 살아 있겠거니 하’며 아버지를 하염없이 기다린 할머니가 돌아가신 뒤 고모가 유품을 정리할 때 ‘달

아빠진 비단 꽃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속에서 '모서리가 닳은 그 증명서', 즉 보도 연맹 가입증이 나왔다.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보도 연맹원들을 법적인 공민의 지위에서 제외했음을 보여 주는 증명서이다.

⑤ 고모의 낫두리에 따르면, 할머니는 아들이 '보도 연맹에 자수해서 재판도 받을 필요 없다'면서도 '대역죄인 아들이라고 남한테 아들 말 한분 속 시원케 몬 해 보고' 살았다고 하였다.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만일 좌익 전향자를 계몽, 지도하여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신분을 보장하겠다는 보도 연맹의 말이 온전히 지켜졌다고 할머니가 느꼈다면, 아들을 '대역죄인'이라고 여겨 '남한테 아들 말 한분 속 시원케 몬 해 보고' 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10

현대 소설

본문 202~206쪽

01 ⑤

02 ①

03 ①

04 ②

■ 임철우, 「눈이 오면」

해제 ㉠ 이 작품은 고향 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길을 떠났다가 어린 시절을 보낸 마을이 도시 개발로 사라졌음을 알게 된 주인공을 통해 산업화와 도시화로 고향을 잃어버린 현대인의 상실감을 그린 소설이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던 주인공 '그'가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어머니의 요구에 따라 고향 마을을 찾아 나서는, 일종의 여로형 구조를 취하고 있다. 어린 시절을 보낸 그곳에 당도했지만 마을을 밀어 버리고 들어선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보며 깊은 상실감을 느끼는 주인공의 모습은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현대인이 느끼게 되는 가치관 혼란과 부정성을 형상화한다.

주제 ㉡ 산업화로 인해 잃어버린 고향에 대한 그리움

전체 줄거리 ㉢ '그'(찬우)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며 살아가는 가장이다. 몇 달째 봉급을 주지 않는 회사에 사표를 내고 앞으로의 삶이 막막해진 '그'는, 두 달 전부터 자꾸만 고향 마을 '꼬두메'로 가자고 난데없이 외치는 등 치매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를 모시고 충동적으로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난다. '그'가 세 살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뜬 후 어머니는 홀로 어렵게 두 아들을 키웠다. 그런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꼬두메를 향해 밤새 달리는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도착한 '그'는 어린 시절의 그 마을이 아파트 단지로 뒤바뀌어 이제는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아버지의 묘마저 찾을 수 없게 되어 망연자실해진 '그'가 묘 일장에 대해 알아보는 사이 어머니는 간곳없이 사라져 버린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는 '병든 개처럼'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그'가 삭막한 도시 생활에서 느꼈던 괴로움을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그것', '그 잣고개', '거기' 등의 지시 표현을 활용하여 옛 고향 마을을 묘사함으로써 '그'가 기억하고 있는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A]와 [B]에 '그'의 가치관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소재가 드러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② [A]의 '병든 개처럼'을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이것이 공간에 얹힌 인물의 내력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고, [B]에는 과장된 표현이 드러나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A]에는 기차 차창을 바라보며 뇌까리는 인물의 행동이 드러나 있으나 이것이 갈등 상황을 보여 주는 것이라 보기 어렵고, [B]에서는 어머니의 행동을 언급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것을 두고 인물의 행적에 대한 요약적 서술이 드러난 부분이라 보기 어렵다.
- ④ [A]에는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부분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B]에서는 공간의 구조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이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서술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목적지 부근에 왔으나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몰라 갈피를 못 잡고 있는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어머니의 상황을 나타낸 문장이다. ㉠에서 '그'의 책임감이나 어머니의 탈진 여부를 알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서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반복하여 확인하는 것, '환상'이 아니라는 언급 등은 목적지에 도착한 것 같지만 자신이 기억하던 모습과 너무 달라진 모습에 눈에 보이는 것조차 믿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 ③ ㉢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그 공간이 눈에 보이지 않아 고향 마을 꼬두메를 찾으며 같은 곳을 계속 헤매는 '그'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 ④ ㉣에서 '그'가 온몸의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의 착오로 '잘못 찾아'왔다고 생각한 고향 마을에 자신이 이미 와 있다는 것, 그리고 고향 마을이 개발로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그'가 허탈함을 느끼게 된 것을 나타낸 표현이다.
- ⑤ ㉤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무작정 고향으로 내려오는, 지나치게 충동적인 결정을 내렸던 자신의 행동에 대해 '엉뚱하기 그지없'었다며 후회하는 '그'의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해당 구절은 ‘그’가 고향과의 정서적 연결을 상실한 채 삭막한 도시에서 외롭고 불안한 생활을 해 왔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가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홀로 뒤처졌다는 언급이나 그 이유는 이 글에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비포장도로에서 포장도로로 개발된 옛 마을의 도로를 바라보며 ‘그’는 자신이 찾아온 고향 농촌의 소박한 마을을 더 이상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충동적으로 도시에서의 생활을 뒤로 하고 정서적 안식처를 찾아왔지만 그곳을 찾을 수 없게 된 ‘그’의 모습은 고향 마을로 돌아갈 수 없는 현대인의 상실감과 연결 지어 이해할 수 있다.

③ 기억 속 지명에 의존하여 고향 마을을 찾아온 ‘그’는, 도착 후에야 기억 속 공간이 이미 소멸했음을 알게 된다. 이는 농촌 마을의 개발이 그 공간에 뿌리를 둔 개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 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고향을 상실한 개인들은 변화에 부적응하게 되고 소외감을 경험한다.

④ 아버지를 모셨던 묘지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선 것을 보며 ‘그’는 고향집에 이어 아버지의 무덤마저 찾을 수 없게 되었음에 당황한다. 아버지의 무덤이라는 물리적 공간은 개인이 고향에 정서적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상징하는 곳이라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잃었다는 면에서 ‘그’가 국가 주도의 개발로 박탈감을 느끼는 인물임을 알 수 있다.

⑤ ‘그’의 어머니는 고향 마을에 도착하고서도 옛 모습을 찾을 수 없게 되자 반복해서 ‘우리 집’으로 갈 것을 요구한다. 급격한 도시화로 ‘우리 집’이라는 정서적 안식처를 잃고 인지적 혼란을 느끼는 개인의 모습이 ‘우리 집’을 반복적으로 찾는 어머니를 통해 형상화되어 있다.

04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분묘 이장 공고’는 묘가 들어선 공간의 철거, 시공 등을 이유로 묘를 옮겨야 함을 안내하는 공공 기관의 광고이다. 동사무소를 찾아가 공동묘지에 대해 물었을 때 ‘분묘 이장 공고’를 보지 못했느냐는 ‘사내’의 말을 듣고 ‘그’는 부끄러움을 느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분묘 이장 공고를 내고 아파트 시공을 시작했던 것을 국가 주도적 개발의 일면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가 자신의 의견 개진 기회를 잃은 것에 분노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그’는 공고를 보지 못했느냐는 말에 당황하고 부끄러움을 느낄 뿐,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분묘 이장 공고를 동사무소의 ‘사내’가 낸 것이라는 언급은 찾

을 수 없다.

⑤ 분묘 이장 공고는 묘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에게 안내하기 위한 것이지만 고향을 떠난 이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사내’는 ‘그’가 묘를 잃은 것을 모르고 있었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을 뿐, ‘그’의 고향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11

현대 소설

본문 207~211쪽

01 ⑤

02 ③

03 ③

04 ③

■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검은 향아리」

해제 > 이 작품은 어른이 된 서술자가 유년을 보냈던 동네를 방문하여 재개발 현장에서 어릴 적 사건을 회상하고, 사라져 가는 마을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성장 소설이다. ‘나’는 과거 향아리를 깨뜨린 사건을 통해 세상은 자신과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을 얻고 성장하게 된다. ‘나’에게 성장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며 주변일 뿐이라는 깨달음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유년기 기억을 통해 깨달은 성장의 의미

전체 줄거리 > ‘나’는 재개발이 시작되어 이제 곧 사라지게 될 고향 산동네를 찾아가면서 추운 겨울날 찢지 향아리를 깨뜨렸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린다. ‘나’는 어느 날 새벽에 소변을 보러 나갔다가 공동 주택의 이웃 할머니의 찢지 단지를 깨뜨리고 어쩔 줄 모르며 당황한 나머지 깨진 단지를 눈사람 속에 숨겨 놓고 집을 나와서 방황한다. 괴로움에 고뇌하며 일부러 더러운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귀가하게 되는데,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자신이 저지른 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고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한다. ‘나’는 그런 세계가 낯설어 울음을 터트리고 성장하게 된다. 과거의 일을 회상한 ‘나’는 재개발 지역에서 ‘칭이 형’을 만나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떠난 빈집에서 깨진 향아리 조각을 보며 자신을 지탱해 왔던 기억과 그 기반이 된 산동네가 사라진다는 사실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쁘드득거리는’, ‘푸드덕푸드덕’, ‘물컹물컹하게’, ‘무럭무럭’ 등의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곧 본인이 향아리 단지를 깨뜨리게 될 것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과거 상황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간의 경과에 따른 인물의 행동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사건의 원인을 분석적으로 제시한다고 보기 어렵다.

②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요약하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물의 내면이 변화하고 있지도 않다.

③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을 병치한다고 보기 어렵고, 인물 내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지 않다.

④ ‘낮은 툇길 밑에서 뾰드득거리는 소리’에서 눈이 쌓인 장면을, ‘이빨을 위아래로 서너 번 맞부딪치며’에서 추운 겨울날의 계절감을 느낄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독자의 긴장감이 유발된다고 보기 어렵다.

02 구절의 의미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에서 ‘박탄-D 병의 밑바닥을 손으로 탁탁 두들겨 가며 쥐어짜서 ‘알싸한 액체’를 맛보았다는 것은, 어린아이인 ‘나’가 어른들이 먹는 피로 회복제를 맛본 경험을 말한다. 전후 맥락을 통해, ‘나’가 경험한 피로감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나’의 행동이며,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임을 알 수 있다.

② ㉢에서 단지를 깨뜨리게 된 원인을 ‘빠루’로 보고, 마치 ‘마녀의 주문’을 받았다고 진술하는 부분을 통해 어린아이다운 상상력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에서 ‘너무 바빠졌어요.’라는 진술과, 바로 뒤에 이어지는 마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어른이 된 ‘나’가 변화를 실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의 ‘어련히 잘 알아서 해 줄까.’라는 표현은 ‘나’가 ‘형’에게 신뢰를 드러내는 표현으로, 이를 통해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임을 짐작할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육체적 고단함’에서 비롯된 피로감과과는 현격하게 다른 것이 맞지만, ‘맹렬한 위안’은 ‘나’가 기절이라도 한다면 받게 될 모를 면죄부에 대한 것이지, 어른이 된 만족감을 느끼게 된 감각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피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와, 문단 마지막 부분인 ‘그런 의미에서 그 피로감은 어른에게나 해당하는 피로였다.’에서 ‘나’가 어른들만이 느끼는 감각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② ‘피로감’은 단지를 깨고 난 후에 ‘나’가 느낀 감각으로 ‘동시에 그 피로감은 어쨌든 세상에 대한 것이라는 게 맹백해졌다.’를 통해 ‘나’가 현실적으로 느끼게 된 감각임을 알 수 있다.

④ ‘한편으로는 그 피로감은 몹시 물리치기 어려운 불길함을 품고 있었다.’와 ‘앞으로도 그 오랫동안 그 피로감을 떨쳐 낼 수 없을 것이라는 지루한 예감이 그날 어슴푸레한 새벽에 덮친 절망감의 핵심이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문간통에서 두 번째 집구석에 사는 술주정뱅이 고물 장수 손님이 아버지의 노상 흐느적거리는 두 팔과 술 때문에 항상 짓물려져 있는 눈자위가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저씨도 나처럼 피로해서 그랬을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이라는 생각은 경험자아의 착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한 아이다운 발상이라고 볼 수 있다. 서술 자아는 과거 경험자아의 생각을 종합하여 성숙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서술 자아가 어른들이 자신을 위해 의도한 행동이라고 깨달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한 것은 과거 경험자아의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아이다운 태도를 엿볼 수 있다.

②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화기에애하게 얘기를 나누는’ 장면은 경험자아의 시선에 비친 세계의 모습으로, 주인공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혼나지 않는 상황에 대해 혼돈에 빠지고 불안해하는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러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슴푸레한 깨달음’은 과거 사건을 통해 경험자아가 느꼈던 것을 서술 자아가 종합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당시 주인공이 눈물을 흘렸던 비애감의 원인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그 얼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와 ‘그렇게 컸다.’는 과거 사건에 대한 서술 자아의 생각을 드러낸 진술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깨달음의 과정을 통해 주인공이 성숙했음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1

극 · 수필

본문 212~216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④

■ 작가 미상, 「꼭두각시놀음」

해제 ▶ 이 작품은 우리나라 전통극 가운데 유일한 인형극의 대본이다. 전체 8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시된 지문은 제5막 ‘표 생

원 거리' 중 후반부와 제7막 '평안 감사 재상 거리'의 전반부이다. 지배층의 부조리한 권력 남용과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이 주된 내용을 이루며 특히 권위적인 남성 중심주의에 대한 신랄한 풍자가 담겨 있다. 재담에는 방언과 비속한 표현, 해학적인 언어가 사용되어 우리 전통 인형극의 대표적 특징인 골계미를 효과적으로 보여 준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민중의 정서를 반영하면서 사회적 부조리를 웃음을 통해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주제 ▶ 가부장적 제도의 모순과 지배층의 횡포 및 허위에 대한 비판과 풍자

전체 줄거리 ▶

- 제5막 표 생원 거리: 해남 양반 표 생원이 본처와 첩 사이에서 재산 분재 문제로 낭패에 처하자 박 첨지가 표 생원을 돕는다며 본처인 꼭두각시에게 불리하게 표 생원의 재산을 분배한다.
- 제7막 평안 감사 재상 거리: 평안 감사가 모친상을 당해 상여가 나가는데 상주는 오히려 좋아하며, 벌거벗은 흥동지가 상두꾼으로 불려 와 상여를 맨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돌모리집은 '유명한 표 생원' 가문의 여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여 표 생원과 같이 살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표 생원으로부터 큰부인에게 인사하라는 요청이 들어오자 기대한 바와 다르게 '작은집이라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한 나머지 '내가 적어도 용산 삼개~절은 웬 절이여?'라고 응수한다. 이를 통해 꼭두각시에게 인사하라는 요청에 돌모리집은 기대한 바와 다른 상황이 펼쳐지자, 자존심이 상해서 일단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표 생원이 돌모리집을 들인 이유를 합리화하기 위해 '부인이 어느덧 환갑이 넘고, 내가 연만 팔십에' 자식이 없다고 말한 것에서 표 생원이 꼭두각시보다 나이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 ② 꼭두각시는 돌모리집이 작은집, 즉 소실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가워하는 것이 아니라 '힘한 꼴을 보'게 되었다며 실망하지만, 곧 바로 현실을 직시하고 본부인으로서 권위와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쓴다.
- ④ 박 첨지는 재산 분배를 위한 판결에 당사자인 표 생원이 '판결 좀 하여' 달라고 요구해서 개입하고, 상여꾼 구하는 일에도 상주인 평안 감사의 '상여가 나가다가~사 대라.'라는 요구가 있어서 참여한다.
- ⑤ 평안 감사는 자신에게 '빨가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메면 됐지. 무삼 잔말.'과 같은 모욕적인 언사를 일삼는 흥동지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네가 상여를~맨단 말이나?'와 같이 꾸짖고 그를 데려온 박 첨지까지 잡아들여 태장을 가한다.

02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돌모리집이 '인사도 싫고 나는~큰마누라하고 잘 사소.'라고 말하며 표 생원과 헤어지고 떠나려고 하자 이에 표 생원은 함께 살면서 쌓아 온 정리(인정과 사람으로서 도리나 의리)를 내세워 감정적으로 호소한다. 즉 표 생원은 돌모리집이 꼭두각시에게 인사하기를 거부하면서 버티는 행동과 자신을 떠나려는 행동을 만류하기 위해서 ㉠과 같이 말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은 꼭두각시가 자신의 얼굴이 '깊은 산중에 도토리묵을 먹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하자 표 생원이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반박하면서 한 말이다. 이는 자신의 얼굴이 꼭두각시의 얼굴보다 단단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꼭두각시가 말한 것과 같은 이유로 얼굴이 '우툴두툴'하게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말한 것이다.
- ② ㉡은 꼭두각시와 돌모리집의 상하 관계는 신체적 크기가 아니라 처와 첩이라는 표 생원과 관계에 기반하여 정해지게 됨을 선언한 말이다.
- ④ ㉢은 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재산을 얻게 된 자기만족이나 홀가분함을 표현한 언사가 아니라, '개똥발 하루같이와 매운 짓독 깨진' 것 등 가치가 떨어지는 재산을 받게 된 꼭두각시가 자신이 원하던 만큼의 재산을 얻지 못한 채 허탈감을 가지고 떠나면서 한 말이다.
- ⑤ ㉣은 모친상의 슬픔을 견뎌 내기 위한 독백이거나 초상의 긍정적인 부분을 억지로 찾으려는 한 말이 아니라, 뒤에 노래를 부르는 행위로 미루어 보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안방을 차지하게 되었다고 기뻐하면서 한 말이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박 첨지가 '한 마을의 구장으로 잘 처리하겠'다면서 내린 매우 편파적인 결정은 <보기>에서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표 생원을 공격하여 상류 기득권층을 비천한 존재로 만드는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박 첨지로 대변되는 관리의 위선과 무능을 풍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꼭두각시의 말인 '큰 집 작은 집을 어찌 가리겠소.'에서 거처를 뜻하는 '작은 집'과 소실을 뜻하는 '작은집'이라는 동음이의어를 사용하여 청중의 웃음을 유발하는 재담이 확인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집을 마련하여 표 생원과 정착하려고 했던 꼭두각시의 의지가 좌절되는 과정도 함께 나타난다.
- ③ 박 첨지는 평안 감사에게 흥동지를 '이상아룻한 놈'이라고 소개한다. 이렇게 박 첨지가 정상적이지 않은 인물인 줄 알면서도

홍동지를 상여꾼으로 천거한 것은 지배층인 평안 감사를 비롯하면서 공격하여 품위가 낮은 존재로 전락시키기 위한 풍자적 기법에 해당한다.

④ ‘주릿대학춤, 고드래뻬 텅거지’는 것은 가혹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상여 메는 것을 지체한 일로 그토록 가혹한 형벌을 우려해야 하는 것은 조선 후기 지배층의 부당한 횡포가 심함을 피지배층이 폭로하면서 비판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⑤ 평안 감사가 ‘대부인 상여인데 ~빨가벗고 땀병거리느냐?’며 체통과 격식을 따지자, 홍동지는 ‘빨가벗었더라도 상여만 잘 메면 됐지. 무삼 잔말.’이라고 반응한다. 이는 피지배층인 홍동지가 지배층인 평안 감사의 허위의를 비판하는 것이면서 그에 반항하는 모습에 해당한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제5막]에서 가구를 비롯한 세간은 인물의 대화에서 언급될 뿐 이므로 공연에서 소도구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제7막]에서 상여는, 극 중 ‘평안 감사의 모친 상여가 나’오고 있고 홍동지가 자신이 메게 될 상여의 냄새를 맡는 장면도 있으므로 소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하지만 문은 평안 감사의 대화인 ‘문안이고 문밖이고’에서 언어유희로 언급된 것에 불과하므로 공연 중에 문이 실내와 실외를 구분 짓는 소도구로 사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5막]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함께 <창>을, [제7막]에서는 인물의 대사와 함께 ‘양산도’ 등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보기>에 따르면 이는 모두 대잡이가 인형을 조종하면서 대사를 하고 노래도 불러야 하는 연희의 상황이 펼쳐지는 것에 해당한다.

② [제5막]에서는 표 생원의 처인 꼭두각시와 첩인 돌모리집 사이의 갈등에 따른 대결 양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7막]에서 나타나는 대결 양상은 지배층인 평안 감사와, 피지배층인 박 첩지 및 홍동지의 신분과 계층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③ [제5막]과 [제7막]에서 각 거리의 사건은 서로 다른 에피소드로서 줄거리가 내용상으로 연결되지 않으며 거리별로 개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박 첩지가 [제5막]과 [제7막]에 모두 등장함으로써 전체 작품 안에서 각 거리 간의 상관성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제5막]의 끝부분에서 꼭두각시는 춤추며 퇴장한다. 이는 <보기>에 따르면 대잡이가 인형을 춤추게 조종하면서 무대 아래로 내려 관객의 시야에서 사라지게 하는 방식으로 연출될 것이다. 그리고 [제7막]의 앞부분에서 평안 감사가 박 첩지를 부르자 박 첩지가 등장하는데, 이는 <보기>에 따르면 무대 위로 박 첩지 인형을 올림으로써 관객에게 보이도록 하는 방식으로 연출될 것이다.

02

극 · 수필

본문 217~221쪽

01 ②

02 ③

03 ②

■ 차범석, 「불모지」

해제 ▶ 이 작품은 1950년대의 서울 중심가, 고층 건물에 둘러싸인 낡은 한옥에서 살아가는 최 노인 일가의 이야기를 통해 전후 사회의 모순을 형상화한 장막 희곡이다. 작품의 제목인 ‘불모지’는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는 근대화 과정에서 세대 간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화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상황을 상징한다.

주제 ▶ 근대화의 과정에서 겪는 가치관의 변화와 가족의 몰락

전체 줄거리 ▶ 제대 군인으로 실업자 신세인 큰아들 경수, 경수를 염려하는 어머니, 허영심 많은 배우 지방생 장녀 경애, 인쇄소의 식자공으로 가족의 생계를 떠맡고 있는 차녀 경운, 대학 진학을 앞둔 막내아들 경재 등 가족들과 함께 높은 건물에 둘러싸인 낡은 한옥에 살고 있는 최 노인은 집에 강한 집착을 보인다. 신식 결혼의 성행으로 인해 전통 혼례용 혼구를 대여하는 최 노인의 사업은 날로 기울어 간다.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집을 팔자는 가족들과 달리, 최 노인은 집을 팔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다. 하지만 결국 최 노인은 집을 세봉기로 결심하는데, 경수는 집이 헐값에 팔리는 것으로 오해해 이를 막으려 하다가 최 노인과 충돌한다. 모든 불화의 원인이 돈에 있다고 생각한 경수는 총을 들고 나가 보석상을 털려다 미수에 그치고, 뒤늦게 날아든 취업 통지서는 무용지물이 된다. 배우 지방생 경애는 심사 위원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하고 그 충격을 못 이겨 자살하고 만다. 형사들에게 경수가 체포되어 떠난 후 경애의 시신을 발견한 최 노인은 비통하게 절규한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경재는 어머니가 자기에게 바쁘면 어서 가라고, 설거지 끝나고 어머니가 대신 물을 길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서 ‘엄마가 제일야! 우리 엄마가 넘버원이지! 그 대신 내일 아침엔 식전에 다섯 지계 길을걸요, 어머니!’라고 말한다. 따라서 허리를 다친 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①은 지금 물 길으러 안 가는 대신 내일 더 많이 길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제집 지니고 사는 것 자체를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는 아버지 최 노인에게 경재는 ‘(못마땅한 낯으로) 다행으로 알 건덕지가 있어야죠.’라고 대꾸하고, 이에 대해 최 노인이 ‘(획 돌아서며) 뭐, 뭐야?’라며 화를 내려 하자 경운은 ‘(재빨리 공기를 수습하려 들며) 경재야, 한 번만 더 길어 와! 물이 끊어지면 어떡하러구…….’라고 말한다. 따라서 ①은 아버지 최 노인과 동생 경재가 충돌하

는 것을 막기 위해 경제가 잠깐 자리를 피하게 하려고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다.

③ 경수는 자기네 집이 ‘종로 한복판’에 있는 데다가 ‘가게와 살림집이 붙었기’ 때문에 훨씬 비싼 값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백오십만 환’을 주겠다는 복덕방 영감의 말은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주장하면서 ㉠과 같은 말을 한 것이다.

④ 이백오십만 환은 복덕방 영감이 매대 대금이 아니라 전셋값으로 최 노인에게 제시한 금액이었음이 후에 밝혀진다. 어머니가 ‘아니 그럼, 전세로 이백오십만 환이란 말인가요?’라고 묻는 말에 최 노인이 ‘그렇지! 저 가게만 해도 백만 환은 받을 수 있어!’라고 답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복덕방 영감이 ㉠과 같은 말을 한 것은, 가게와 살림집을 합쳐 전셋값을 그 정도 매겼으면 후하게 주려는 것인데도 그걸 모르는 경수가 당치도 않은 요구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이다.

⑤ ‘아니 그럼, 이 집을 파시는 게 아니면 뭇 하러 복덕방은…….’ 이라고 말하는 경수와 마찬가지로 어머니도 최 노인이 집을 팔려고 복덕방 노인을 불렀다고 착각했다. 따라서 ‘뭇 때문에 이 집을 팔’겠느냐는 최 노인에게 ㉠과 같이 묻는 것이다.

02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에서는 ‘(과거를 회상하며)’를 통해 드러나듯이 이 집에서 살았던 47년 세월을 아련하게 떠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러다가 [B]에서는 ‘벌어먹을 것! (좌우의 높은 집을 쏘아보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높은 건물들이 자기 집을 둘러싼 현재 상황에 관해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러나는 표정으로 연기해야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최 노인이 오랜 세월을 함께 산 아내에게 사랑이 드러나는 표정을 지을 수도 있지만, [B]에서 최 노인이 아내에게 사건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런 표정으로 연기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② ‘회한’은 ‘뒤우치고 한탄함.’이라는 뜻을 지닌 말이다. 따라서 [A]의 최 노인이 지난 삶에 대한 회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B] 또한 앞일에 대해 희망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과 무관하다.

④ [A]와 [B] 모두 최 노인이 자신에게 베푼 아내의 호의에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다.

⑤ [B]는 대사의 내용상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의 연기가 어울릴 수도 있지만, [A]는 그런 표정이 어울리지 않는 대사이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강 약방 주인이 오랜 이웃인 최 노인 일가에게 ‘친형제 일보다

더 앞심 있게 약을 써 주’는 것은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웃 간에 정을 나누는 모습에 해당하며, 복덕방 영감이 ‘기본 문제’를 거론하며 흥정을 그만두는 것도 경수의 무례한 말에서 느낀 불쾌감을 표현한 것일 뿐 시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과는 무관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경운은 ‘누가 이따위 골목 구석에서 살고 싶어 살고 있니?’라고 말하고, 경재는 ‘아버지나 좋아하시지 우리 식구 중에서 이 집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아버지 최 노인과 달리 자식들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떠나 새집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버지 최 노인은 ‘젊은 놈은 언제건 나가라지! 절간이 미우면 중이 나가는 법’이라면서 ‘도깨비가 나건 노다지가 나건 제집 지니고 산다는 걸 다행으로 알’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집이라는 공간을 두고 벌어지는 가족 내 갈등을 엿볼 수 있다.

③ 서울 중심가 곳곳에서 집들이 ‘층층이 쌓아 올’라가는 것은 도시화·근대화가 급속히 추진되는 양상에 해당하며, ‘샤벨뽑오드’가 유행했다는 것은 서구 문물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④ 경수는 ‘그런 당치도 않은 거짓말은 공동묘지에서나 하시오.’라는 말에 화를 내는 복덕방 노인에게 ‘아니, 제가 뭐라고 했길래…….’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아들을 두고 어머니는 ‘넌 잠자코 있어! 용서하시우. 요즘 젊은 놈들이란 아무 생각 없이 말을 하니 까요…….’라고 말한다. 이는 언어에 대한 예의 규범 면에서 존재하는 세대 간의 가치관 차이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당시 사회의 혼란상이 마치 불모지와도 같았다고 하였다. 이 글에서 최 노인이 ‘정성을 들여서 가꾼’ 화초들이 ‘흔한 햇볕도 안 드는’ 환경 때문에 제대로 자라지도 못하는 것은, 그의 집, 나아가 우리 사회가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과 같음을 상징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03

극·수필

본문 222~225쪽

01 ⑤

02 ③

03 ④

04 ⑤

■ 윤대성, 「노비 문서」

해제 ▶ 고려 시대 노비 해방 운동이었던 ‘만적의 난’을 소재로, 1970년대 억압적 정치 현실과 관련해 지배층의 부도덕과 모순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노비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권위적 지배 체제와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모순적인 지배층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현실 사회의 독자들이 부조리한 현실을 인지하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저항의 의지를 고양하는 데 기여한 작품이다. 민

속극의 요소와 코러스 등 다양한 형식과 기법을 활용하였다는 형식적 특징도 특기할 만하다.

주제 > 인간 존엄의 회복과 해방을 위한 투쟁과 좌절

전체 줄거리 > 여러 차례 몽골군의 침입을 받았던 고려 시대, 노비들을 혹독하게 부려 충주성 개축 공사를 진행하던 중 몽골군이 침입해 온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소식을 들은 부호와 사대부, 관관들은 성안을 빠져나가고 충주성은 위기에 빠진다. 이에 노승은 노비들을 방랑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비군을 조직하지는 제안을 하고, 이자현 대감은 이를 허락한다. 노비들은 승리하면 방랑을 해 준다는 약속을 듣고 노비군으로 활약하며 몽골군을 격퇴한다. 노비들은 자유를 얻는다는 기대에 벅차오르지만, 이자현 대감을 비롯한 부사와 관관은 이를 배신하고 다시 노비들을 잡아들일 계획을 세운다. 분노한 노비들은 무력으로 항거하지만 실패하고 비극적으로 막을 내린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노승이 이자현 대감에게 규율을 세울 것을 제안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제안은 노비를 해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옳은 자에게는 상을 주고 그른 자에게는 벌을 주자는 내용이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자현 대감은 결단을 내리라는 노승의 말과 현재의 위기를 막기 위해 도리가 없다는 관관의 말을 듣고, 방랑을 조건으로 노비들을 싸움에 동원하지는 노승의 제안을 수용하고 있다.

② 노승이, 나라가 왕이 아니라 백성의 것이며 궁녀의 치맛자락에 둘러싸여 있는 왕을 위해 싸워 달라고 비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을 하자, 부사는 노승의 말이 지나치다며 화를 내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관관은 노비를 방랑했을 경우, 노비를 소유하고 있는 부호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특히 관노를 풀어 줄 경우 일을 할 사람이 없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노비들을 싸움에 동원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도 후일이 걱정되지 않는 바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④ 이자현 대감이 노승에게 누군가는 다스림을 받는 것이 치세의 근본이라고 말하자 노승은 이 말을 듣고 노비를 배신하려는 것이 아닌지 이자현 대감에게 되묻고 있다. 그러므로 노승은 치세에 대한 이자현 대감의 생각을 경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관관은 노비들을 동원해 싸움에 승리한 이후의 일을 걱정하고 있다. 그리고 ㉠에서, 이자현 대감은 싸움이 끝난 후 무기를 갖추고 있는 노비들을 다스릴 만한 군사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관관은 병기를 지급받아 싸움에 승리한 노비들을 통제하지 못하

게 되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에서, 이자현 대감은 노비를 다스릴 수 있는 군사가 아직 없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나라와 왕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는 것은 ㉠을 바탕으로 추론한 관관의 걱정으로 볼 수 없다.

②, ④ ㉠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을 바탕으로 추론한 관관의 걱정으로 볼 수 없다.

⑤ 관관의 걱정은, 몽골군과의 싸움에서 이긴 후 노비들이 방랑된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이다. 그리고 그 걱정은 무기를 갖춘 노비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몽골군이 재침입했을 때 노비들이 싸움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을 바탕으로 추론한 관관의 걱정으로 볼 수 없다.

03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은, 이자현 대감이 노비들의 놀이를 금지한 조치 이후 자초지종을 물으려는 노승의 말이므로, 애절한 표정이 아니라 항의하는 듯한 표정이거나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연기를 하도록 주문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 이어지는 노승의 말을 통해 노승이 아직 이자현 대감의 의도를 알지 못한 상황이므로 한탄하듯 연기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노승이 이자현 대감에게, 노비들을 싸움에 동원하기 위한 조건을 말하는 부분이다. ㉠의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은 노비들을 싸움에 동원할 수 있는 묘안을 제시한 부분으로 고려 개국 이래 전례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그러므로 ㉠은 단호한 표정과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연기할 수 있도록 지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은 노비를 방랑하지는 노승의 말을 듣고, 관관이 보인 반응이다. 관관은 노비를 방랑하는 것은 개국 이래 전례가 없는 일이며 그러한 조건이 여러 가지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그 부당함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항의하듯이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③ ㉠은 관관과 부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비의 방랑을 약속하는 노승이 최종 결정을 내릴 이자현 대감에게 결단을 재촉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은 이자현 대감을 똑바로 응시하며 재촉하듯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은 이자현 대감이, 노비들을 힘이나 신분으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인과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노승의 제안을 부정하며 건넨 말이다. 특히 이자현 대감은 노승의 생각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인 생각이라고 치부하며 자신의 생각을 노승에게 강변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비현실적인 생각을 가진 노승을 훈계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 따르면, 노비 해방에 실패하는 내용을 본 관객들에게 전파된 패배주의와 허무 의식이 사회적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이 작품이 검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검열은 1970년대 비민주적, 반인권적 사회 구조와 분위기를 비판하려는 이 작품의 공연을 제한하려는 군부 독재 정권의 억압적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판관과 이자현 대감이 이 작품이 검열되는 주요한 원인이었을 것이라는 감상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자현 대감은 노비와의 약속을 어기고 배신하려는 인물이므로, 1970년대 민중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자유를 억압했던 모순된 지배 세력에 대응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② 노승의 말을 통해 이 글의 배경이 되는 고려 시대에 노비들이 자유를 억압당하고 노동을 착취당하며 마치 상품처럼 취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노비는, 이 글이 창작되었던 1970년대에 노동을 착취당하고 인권을 유린당했던 민중들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다.

③ 이 글은 1970년대 우리 사회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현실 비판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작품이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노비들이 지배 세력의 배신으로 인해 약속받았던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해방에 실패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1970년대 이 작품을 접하게 된 민중들로 하여금 모순된 지배 세력에 의한 억압적 정치 현실의 문제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현실 비판적 태도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부사는 나라와 왕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말을, 이자현 대감은 국가 대사나 고을의 다스림에는 충성이 요구된다는 말을 하며 비민주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당연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들은 이 글이 창작되었던 1970년대 지배 세력의 비민주적 의식이 문학적 표현 방식으로 형상화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04 극·수필

본문 226~229쪽

01 ③

02 ②

03 ③

■ 김동리 원작, 최금동·김강윤 각색, 「역마」

해제 ⑤ 이 작품은 김동리의 소설 「역마」를 원작으로 하여 각색한 시나리오이다. 원작에서 주인공 성기는 역마살을 타고났고 어머니 옥화의 바람에 따라 역마살에서 벗어나기 위한 삶을 살았지만, 사랑에 실패하면서 결국 자신의 운명을 수용하고 순리대로 살아가는

길을 택한다. 시나리오 「역마」는 이러한 원작의 중심 내용을 유지하면서도 원작에는 없는 주변 인물을 등장시키거나 새로운 장면을 삽입함으로써 성기와 옥화가 겪는 만남과 이별의 개연성을 높인다. 또한 영상 기법과 음향 효과를 통해 인물들의 심리와 갈등의 전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⑤ 운명의 수용과 이를 통한 생의 의지 회복

전체 줄거리 ⑤ 화개 장터에서 주막을 운영하는 옥화는 쌍계사 승려였던 법운과 하루 인연을 맺었다가 파계승이 된 그를 떠나보낸 일이 있다. 옥화는 아들 성기가 타고났다고 하는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 성기를 쌍계사에 보내 중으로 생활하게 하고, 이후 성기의 청에 따라 장이 서는 날에는 책 장사를 하도록 허락한다. 하루는 체장수 오동운이 딸 계연을 데리고 옥화의 주막에 들른다. 동운은 원래 소리꾼으로, 예전에 화개 장터에 와서 옥화의 어머니인 소향과 하룻밤 인연을 맺은 일이 있다. 옥화는 동운이 잠시 떠난 사이 계연을 맡아 주기로 하고, 절에서 돌아온 성기가 계연과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는 둘이 맺어져 정착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란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화는 계연의 왼쪽 귀에서 자기와 같은 곳에 난 사마귀를 발견하고, 무당을 찾아가 동운이 자신의 친부이며 계연이 이복동생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동운이 돌아오자 옥화는 계연을 떠나보내고, 뜻하지 않게 이별을 겪은 성기는 앓아눕는다. 옥화는 죽을 지경에 처한 성기에게 계연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털어놓고 성기는 점차 회복한다. 봄이 찾아오자 성기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옛장수가 되어 길을 나선다.

01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성기가 집에 오는 것을 보고 계연이 애걸하듯 성기를 바라보는 점을 고려하면, 동운은 성기가 집에 오기 전부터 혼자서가 아니라 계연과 함께 길을 떠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계연은 옥화네 집에 머무르는 동안 성기와 만나면서 성기에게 ‘요즘은 어찌자고 만날 절에만’ 있느냐고 하고는, ‘보고 싶어’ 죽겠었다면서 그를 그리워했던 심정을 드러낸 바 있다.

② 동운은 ‘짐을 지고 일어서며’ 옥화와 작별 인사를 하는 도중에 ‘그때 뛰어 들어오는 성기’를 대면하고서 옥화에게 ‘아들이 참 잘 생겼’다는 말을 한다.

④ 계연은 동운과 함께 옥화네 집을 떠났으며, 성기는 ‘옛목판’을 메고 길을 나서면서 ‘세 갈래 길 한복판’에서 ‘계연이가 떠나간 구레 길 쪽’이 아니라, ‘하동 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긴다.

⑤ 옥화는 ‘앓아누운 채 굶어 죽을 걸짐을’ 한 성기가 ‘미음을 먹’으며 살아갈 의지를 되찾는 것을 본다. 그리고 성기에게 ‘강원도 쪽으로 가 보고 싶’은지,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 것인지를 묻고, 성기가 두 질문 모두에 거부 의사를 표하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묻는다.

02 연극 연출의 방법과 효과 추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옥화는 성기에게 동운의 행적에 대해 말할 뿐 성기가 모르던 계연의 행적을 말하지 않았으며, 성기가 ㉠과 같이 행동하는 이유는 옥화의 말 때문이 아니라 옥화와 동운의 결정으로 갑작스럽게 계연이 떠나게 된 상황 때문이다. 또한 계연이 성기를 반기고 애걸하듯 성기를 바라보는 상황에서, 성기 역을 맡은 배우가 계연에게 의혹과 원망이 드러나도록 연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성기와 옥화의 이별을 원치 않는 계연은 동운이 자신을 데려가려 하는 난처한 상황에서 기다리던 성기가 옥화네 집으로 뛰어 들어오자 ㉠과 같이 행동한다. 따라서 계연 역을 맡은 배우에게, 성기에 대한 반가움과 성기가 자신을 붙잡아 주기를 바라는 기대감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③ 옥화는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물음에 ‘옛판 하나만 찾춰’ 달라는 성기의 대답을 듣고는, 예상치 못한 대답에 대한 반응으로 ㉡과 같이 행동한다. 이어서 성기의 의중을 확인한 옥화가 ‘끄덕이고 한숨 쉬어’ 말하는 것을 고려하면, 옥화 역을 맡은 배우에게 성기의 의중을 확인하려는 표정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④ 병을 앓던 성기는 계연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안 후 차차 병에서 회복하면서, 역마살을 없애기를 바라는 옥화의 기대와 달리 자신이 택한 떠돌이 옛장수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성기가 병에서 회복하여 스스로 택한 삶을 시작하는 모습이 ㉢을 통해 드러난다. 따라서 성기 역을 맡은 배우에게 생기를 되찾고 흥분해진 모습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⑤ 옥화는 역마살을 풀게 하려던 성기가 이별의 아픔을 겪은 후 옛판을 맞추어 떠돌아다니겠다는 마음을 드러내자, 결국 성기의 바람을 받아들여 ‘시뻘게진 눈으로’ 성기를 배웅하면서 ㉣과 같이 행동한다. 따라서 옥화 역을 맡은 배우에게 아쉬움과 슬픔이 드러나도록 연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S#149. 강변(회상)’에 성기와 계연이 겪은 사건이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기가 ‘S#150. 강변(현실)’에서 눈물을 닦고 ‘S#151. 옥화네 집 방 안’에서 마음을 먹고 옥화에게 옛판을 맞추어 달라고 하는 점을 고려하면, 두 장면에서 성기의 내면적 혼란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148. 강변’에는 현재 ‘얼어붙은 강’이 과거 성기와 계연이 대화를 나누었던 때의 모습으로 ‘서서히 풀리’는 상황이 묘사되어

있으며, 장면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당시 성기와 계연의 대화 내용이 이펙트 기법으로만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강의 상태 변화와 이펙트 기법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시간의 전환을 드러내면서 과거 성기의 상황을 보여 주는 장치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② ‘S#149. 강변(회상)’에 나타난 성기의 회상은 앞 장면에서 화면을 바꾸어 과거 성기와 계연이 대화를 나누는 상황을 보여 주며, 이를 통해 기쁘고 설레는 성기의 심리 상태가 드러나고 있다. 이는 이별 후 슬픔에 빠져 있는 성기의 현재 상황을 포함하고 있는 ‘S#148. 강변’, ‘S#150. 강변(현실)’과 구분되는 하나의 장면으로 제시되어, 현재와 대비되는 성기의 심리 상태를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④ ‘S#153. 삼거리’에 나타난 이펙트 기법은 옥화가 성기를 배웅하는 장면 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역마살을 가진 성기의 앞날에 대해 혜초, 소향과 대화하던 옥화의 회상 내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⑤ ‘S#153. 삼거리’에서 ‘절에 맡긴다고 역마살이 풀리는 건 아’니며 성기의 ‘가슴에 남달리 꿈이 많’다는 혜초의 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성기가 ‘절에서 배겨 내려’ 했음에도 역마살을 풀지 못하고 ‘S#154. 길’에서 떠돌이 옛장수가 되겠다는 자신의 소망을 좇아 ‘가벼운 발걸’로 길을 떠나게 되는 상황의 개연성을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5

극 · 수필

본문 230~233쪽

01 ⑤

02 ①

03 ③

04 ④

■ 류장하, 「꽃 피는 봄이 오면」

해제 ▶ 이 작품은 2004년에 개봉했던 동명의 영화 시나리오로, 현실에 좌절한 사람들이 따뜻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희망과 꿈을 회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패한 연주가인 현우와 꿈꿀 수 있는 미래조차 없는 쇠락한 탄광촌의 아이들이 서로의 암울한 현실을 보듬어 주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위안을 주고 희망을 회복해 가는 과정을 보여 준다. 작품은 이와 같은 인물들의 성장의 과정을 기울과 겨울을 거쳐 봄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에 조응하여 효과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주제 ▶ 따뜻한 인간애를 통한 희망의 회복

전체 줄거리 ▶ 교향악단 연주자를 꿈꾸던 트럼펫 연주자 현우는 현실의 벽에 부딪쳐 오랜 연인이었던 연희를 떠나보내고,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강원도 도계 중학교의 관악부 임시 교사로 부임한다. 쇠락한 탄광촌의 중학교 관악부는 전국 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강제 해산해야 하고, 현우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음악에 대

한 열정을 꽃피우는 아이들에 감화되어 함께 대회 준비에 몰두한다. 우여곡절을 겪으며 전국 대회에 출전하지만 결국 우승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과정을 겪으며 현우와 아이들은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을을 떠난 현우는 헤어졌던 연인 연희에게 전화를 하고 다시 봄을 꿈꾼다.

01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용석은 자신이 광부 집 자식이라고 인정하고는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님에 대한 인식이지, 자신이 광부의 자식인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현우가 ‘음악만 하는 사람이라는 못산다며.’라고 말하자 ‘누가 음악하지 말래? 학원에서 애들도 가르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라고 대꾸하는 것을 통해 연희는 현우가 학원을 통해 현실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면서 꿈을 좇기를 바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그냥 반대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라는 현우의 말을 통해 용석이 음악을 하는 것을 용석 아버지가 반대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③ ‘선생님 봐, 여기 와서 이려고 있잖니?’라는 말은 현우가 자신의 꿈인 연주자가 되지 못하고, 외진 탄광촌에 선생으로 와 있는 자신의 상황을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④ ‘상고 가서 장사하면 돈 잘 벌잖아…….’라는 현우의 말에, ‘그런 게 뭐 중요해요.’라고 말하는 것은 용석이 돈을 잘 버는 일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02 대사의 특성 이해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용석 아버지를 ‘아주 유명하셨던 분’이라고 치켜세워 줌으로써, 용석을 이해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우선시하는 선택을 하라는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작품 전체의 내용을 보면 용석 아버지가 유명한 연주자였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A]에서 현우가 이를 폭로하고 있지는 않다.
- ③ [A]에 용석 아버지가 용석에 대해 언급한 말을 옮긴 내용은 제시되지 않는다.
- ④ 용석 아버지가 훌륭한 연주자였다고, 그의 과거 행적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용석의 음악적 재능을 확인시키려고 한 말은 아니다.
- ⑤ [A]에 용석 아버지와 현우의 처지를 비교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03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S#5에서 현우가 준 목걸이를 연희가 판 것은 현우와의 관계를 이어 가기 어려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S#74에서 수정이 용석에게 무엇을 사 달라고 하는 것은 용석에 대한 애정과 관심 때문이므로, 두 행위가 유사한 심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S#5에서 현우와 연희의 갈등은 연희가 현실을 위해 음악만을 고집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현우가 이를 외면해서 생긴 것이고, S#74에서 용석과 수정의 갈등은 돈이 없는 용석에게 수정이 무엇인가를 자꾸 사 달라고 하는 데 있다. 이렇게 볼 때, 두 갈등은 모두 금전적인 문제와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S#5에서 현우는 연희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과 타협하지 못해 연희를 붙잡지 못한다. S#74에서 용석 또한 현실과 타협하지 못해 수정과 헤어지려 하지만 현우는 연희를 책임지지 못한 자신의 모습과 용석의 모습이 닮아 있음을 알고 자책하는 마음에 흥분을 하는 것이다.
- ④ S#5에서 현우는 음악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만, S#74에서는 용석에게 현실을 위해 음악을 포기하라고 설득하고 있다. 이 두 모습은 음악과 현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 상반된다.
- ⑤ S#5에서 연희가 현우에게 연주를 부탁하는 것은 현우에 대한 애정 표현이고, S#74에서 용석이 수정에게 나팔을 불러 준 것은 수정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므로, 둘 모두 상대에 대한 호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04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안대가 용석의 한쪽 눈을 가리고 있다는 점에서 안대는 소품의 종류와 배치를 활용한 미장센이다. 또한 안대가 용석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이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용석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이기보다는, 한쪽 눈을 가려 생활에 불편함을 갖게 된 모습을 통해 음악을 하고자 하는 용석에게 장애가 생겼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현우와 연희는 서로 사랑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결혼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연희의 노랫가락이 다음 소절로 나아가지 못하고 같은 구절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연희 역을 맡은 배우의 연기를 바탕으로 한 미장센으로, 이를 통해 나아가지도 헤어지지도 못한 채 이어지는 현우와 연희의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② 연희는 현실적인 문제로 현우와의 결별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고, 현우는 연희의 바람을 알지만 그것을 들어주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이별이 다가온 현우와 연희의 관계를 고려할 때, 현우와 헤어지는 연희가 들어가는 낯선 아파트 현관은 현우와 연희의 위태로운 관계를 암시하는 미장센으로, 공간적 배경과 조명을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③ 사랑하는 연희를 붙잡지 못한 채 보내 준 현우의 심리를 고려할 때, 연희가 바라보는 '링거를 하나 매달고 힘겹게 버티고 있는 나무'는, 소품의 종류를 활용하여 오로지 음악에 대한 열정만으로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현우의 상황을 상징하는 미장센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용석은 음악이 좋아 음악을 계속하고자 하지만 아버지의 반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눈이 내렸다 그쳤다 하는 시·공간적 배경은 용석의 불안정한 상황을 나타내는 미장센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제 > 여러 경승지를 유람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여정에서 얻은 견문과 그에 대한 감상

구성 >

- 처음: 여성으로서 여행을 결심한 이유
- 중간 1: 14세 때 남장(男裝)을 하고 첫 여행지로 금호 사군을 유람한 기록
- 중간 2: 금강산과 관동 팔경을 유람하면서 얻은 견문과 그에 대한 감상
- 중간 3: 한양을 유람하면서 얻은 견문과 그에 대한 감상
- 중간 4: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온 후 남편을 따라 관서 지역을 유람한 기록
- 끝: 한양으로 돌아온 후 삼호정에서 벼들과 시를 지으며 지내는 삶, 자신의 여행 경험을 글로 써서 남기려는 이유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글쓴이는 여성으로서 답장 밖을 나서 여행을 하려는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공자의 제자였던 증점의 사례를 근거로 들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며 음풍농월하겠다고 한 증점이 스승인 공자에게 칭찬을 들었던 것처럼 강산의 아름다운 경치를 두루 돌아보고자 하는 자신의 뜻도 성인인 공자가 계신다면 마땅히 동의하셨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여행을 실행에 옮김으로써 여성의 답장 밖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던 당대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꿈과 환상을 통해 현실의 제약에서 벗어나려 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글쓴이는 여행을 떠나기 위해 부모님께 여러 번 간청하여 겨우 허락을 얻어 낸다. [A]에서 부모님의 허락을 얻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는 사실 정도는 알 수 있지만, 글쓴이가 부모님과 갈등을 겪었다고 해석될 만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아울러 부모와 갈등을 빚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글쓴이가 후회의 감정을 드러내는 내용도 [A]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④ 글쓴이는 '처지대로 분수에 맞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 옳은가'라고 말하며, 주어진 상황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 나아가 분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당대의 통념을 거슬러 자신이 꿈꾸었던 여행을 실행에 옮긴 것이다. 따라서 글쓴이가 주어진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체념적 태도를 보였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⑤ 글쓴이가 자신의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겪게 될 일을 예상하는 내용은 [A]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06

극·수필

본문 234~237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⑤

■ 김금원, 「호동서락기」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의 여성 문인 김금원이 34세 되던 해인 1850년에 펴낸 한문 기행문으로, 현전하는 여성의 기행 산문 가운데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호동서락기'라는 제목은 '금호 사군(현재 단양군과 제천시에 해당하는 지역)과 관동 지역, 관서 지역과 낙양(한양)을 여행한 기록을 뜻한다. 글쓴이의 여정은 '금호 사군 → 금강산과 관동 팔경 → 한양 → 관서 지역 → 한양'으로 되어 있다. 이는 다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글쓴이가 혼인 이전에 남장을 하고서 금호 사군, 금강산과 관동 팔경, 한양을 유람한 기록이 작품의 전반부를 이룬다. 남장을 그만두고 여성의 모습으로 돌아와 혼인을 한 후 의주 부윤이 된 남편을 따라 관서 지역을 유람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와 벼들과 함께 시를 즐기며 지내는 삶에 대한 기록이 작품의 후반부를 이룬다. 이 작품의 특징적 면모로는, 여행이라는 소재를 매개로 하여 조선 시대 여성에게 가해졌던 차별에 대해 비판적 견해를 드러내는 점, 색채어를 비롯한 감각적 표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대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점, 여행지와 관련된 인문 지식을 풍부하게 언급하는 현학적 글쓰기 태도 등을 들 수 있다. 어느 여행기와 달리 여정과 관련한 구체적 날짜나 머물렀던 숙소, 가는 길 등에 대한 사실 정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것도 이 작품의 특징인데, 이는 글쓴이가 처음 여행을 시작한 지 20년이 지나서야 이 작품을 썼던 사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된다.

02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대궐의 상서로운 모습과 시내의 변화하고 유희적인 정경이 어우러져 만들어 내는 성안의 풍경에 대해 ‘성안을 두루 돌아보니 비로소 가슴이 탁 트이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하며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에게는 대궐의 모습도 시내의 정경도 모두 마음에 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궐과 시내를 비교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아울러 시내의 유희적 분위기에 대해 ‘실로 밝은 세계의 태평한 기상’이라고 말하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내의 유희적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신이 조망한 한양의 지형을 자세히 묘사하기 위해 글쓴이는 ‘용이 서리고 호랑이가 웅크린 듯’, ‘갈날이 서고 깃발이 펼쳐진 것 같기도 하다’, ‘책상을 마주한 듯’과 같은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북으로~웅장하게 누르고, 남으로는~서 있으며’, ‘왼편으로는~동쪽 성곽을 에워싸고 오른편으로는~서쪽 끝을 받치고 있다’와 같이 대구도 사용하고 있다.

② 글쓴이는 한양의 지리적 조건에 대해 ‘기세가 웅장하고 물산이 풍성하니’, ‘굳건한 천연의 요새요 땅이 비옥하고 물산이 풍부한 땅이니 누가 날아서 강을 건너올 수 있겠는가’라고 영탄적 어조로 진술하면서 경제와 안보의 측면에서 한양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세검정을 찾아가 시냇가 바위 위에 지어진 정자를 보고 ‘설계가 정교하고 깔끔했다.’라고 말하며 건축물의 조형미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아울러 ‘바위 사이로 흐르는 개울물은 물살이 몹시 빨라서 폭포에 가깝고, 푸른 산이 환히 비쳐 책상 위에 쌓인 듯했다.’라고 말하며 세검정 주변의 자연 풍경을 비유적 표현을 통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⑤ ‘실 같은 길을 따라 삼계동으로 가니’, ‘백석실에 올라가니’, ‘길을 돌아 산골짜기로 들어가니’와 같은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㉔에 해당하는 장면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 내용이 전개된다. 그리고 글쓴이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접하게 되는 건축물과 자연 풍경을 ‘흰 돌’, ‘꽃잎이 눈처럼 떨어져’와 같은 시각적 심상과 ‘향기 나는 채소’와 같은 후각적 심상 그리고 ‘온갖 새가 지저귀고 물은 바위 사이로 줄줄 흐르고’와 같은 청각적 심상을 두루 사용해 묘사하고 있다. 아울러 ‘더욱 깊고 그윽하게 느껴졌다’, ‘마치 유우석의 시의 현도관의 뜻을 보는 것 같았다’, ‘그 빼어난 경치를 따라 그리기도 어려울 것 같았다’와 같은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주관적 감상 또한 드러내고 있다.

03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㉑의 ‘부평초’는 ‘멀리 노닐기를 일삼는’ 화자의 모습을 자연물

에 빗댄 표현이다. 따라서 ‘부평초’가 유람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㉒의 ‘나막신’은 화자가 신고 있는 신발이다. 화자는 ‘나막신 팔랑팔랑 날개 돋은 듯 가볍네’라는 표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행복감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나막신’이 화자의 긍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소재라는 설명도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㉑의 ‘서울의 바람과 안개도 조만간 걷히리라’라는 구절은 화자가 다음 여행지인 한양을 향해 가면서 한양의 바람과 안개가 걷혔으면 하는 자신의 기대를 표현한 것이다. 그러므로 ㉑의 ‘안개’는 화자가 바라보면서 흥취를 느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㉒에서 화자는 ‘괴로운 심사’를 ‘다 씻어 내니’ 온 산에 가득한 안개 끝이 없구나’라고 말한다. 여기서 ‘안개’는 화자의 마음속 괴로움이 사라진 후 눈에 비친 자연 풍경으로, 화자의 내면 상태와 조응하는 자연물이다. 따라서 ㉒의 ‘안개’는 화자가 흥취를 느끼는 대상으로 볼 수 있다.

② ㉑의 ‘산’은 화자에게 즐거움을 주는 공간이고, ㉒의 ‘산’은 화자의 눈에 비친 자연 풍경 중 하나이므로, ㉑과 ㉒의 ‘산’ 모두 삶의 성찰과는 무관한 공간이다.

③ ㉑의 ‘흐르는 물 따라가니’는 유람을 즐기는 화자의 모습을 공간의 이동에 따라 형상화한 것이다. ㉒의 ‘다 씻어 내니’는 화자 내면의 ‘괴로운 심사’가 사라졌음을 나타낸 표현이다. 따라서 ㉒의 ‘다 씻어 내니’는 화자의 내적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나타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지만, ㉑의 ‘흐르는 물 따라가니’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

⑤ ㉑의 ‘멈출 줄 모르네’는 자연에서 노니는 일에 대한 화자의 지극한 만족감을 나타낸 표현이다. 자연을 유람하는 일이 너무 즐거워 유람을 멈출 수 없다고 ㉑의 화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㉑의 ‘멈출 줄 모르네’가 자신의 과오에 대한 화자의 비판적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㉒의 ‘끝이 없구나’는 화자의 눈에 비친 자연 풍경(산에 가득한 안개)을 묘사한 표현이므로, 이 구절이 화자가 바라보는 자연 경관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탕춘대의 성채가 견고한 모습을 보고, 탕춘대를 축조한 선왕의 뜻을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글쓴이는 선왕의 뜻을 ‘짐작’만 하고 있을 뿐 탕춘대를 축조한 선왕의 계획이나 의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게 하는 옛글이나 역사 정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어질고 지혜로운 성품’과 지각 능력(‘귀와 눈’)은 하늘이 준 것이고,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사회적 규율과 관습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글쓴이는 ‘하늘이 준 것’과 ‘인간이 만든 것’을 비교하면서 ‘하늘이 준 것’이 더 중요하다는 논리를 펼친다. 이 논리에 근거하여 글쓴이는 ‘하늘이 준 것’은 여성과 남성 사이에 차등이 있지 아니하므로, 여행을 하는 데에도 남녀의 차등이 있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다. 아울러 여행의 이유가 ‘산수를 좋아하고 즐기며 견문을 넓히’는 데 있다고 말함으로써 여행의 의미를 산수 유람의 욕구 충족과 체험을 통한 배움에 두고 있다.

② 여성이라면 ‘깊은 담장 안에서 문을 닫아걸고 법도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은, 조선 시대 여성의 삶을 제약했던 사회적 규율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글쓴이는 그렇게 사는 것이 옳은지 반문하며 여성의 자유로운 삶을 억압하는 사회적 규율과 통념이 옳지 않다는 자신의 생각을 부각한다. 그러므로 여성의 삶을 제약하는 사회적 규율에 대한 글쓴이의 의문 제기로부터 그 규율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인식을 알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글쓴이는 한양의 형세를 조망하면서 국방의 측면에서 한양이 지닌 지리적 이점을 설명하고 그와 관련해 ‘수양제’와 ‘당태종’의 옛일을 언급한다. 아울러 백석실 계곡의 바위에 새겨진 글씨를 보면서 당나라 때 시인 유우석의 시를 떠올린다.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여행지와 관련해 다양한 인문 지식을 제시하는, 이 작품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④ <보기>에 따르면, 색채어를 활용해 대상을 감각적,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호동서락기’에서 발견되는 표현상의 주된 특징 중 하나이다. 작품에 쓰인 ‘붉은 수레바퀴, 푸른 말발굽’과 같은 표현들은 색채어를 활용해 시각적 이미지를 환기하는 부분들로 이 작품의 표현상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07

국·수필

본문 238~240쪽

01 ③

02 ④

03 ③

■ 김석주, 「해갑와기」

해제 ▶ 이 작품은 글쓴이가 그의 벗 홍언명이 마련한 집을 기념하여 지은 한문 수필이다. 홍언명이 자신의 집이 보기에 작고 보잘것 없어 ‘해갑와(게딱지처럼 작은 집)’라고 이름한 것에서 비롯된 생각을 기문 형식으로 나타낸 글이다. 글쓴이는 집의 외형이 작다고 해도 그곳이 크다고 생각하면 제왕의 사업을 펼칠 수도 있음을 강조한다. 이에 벗이 뜻을 크게 품고 학문과 사업에 힘써서 나라에 등용되어 큰 업적을 남길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주제 ▶ 벗이 새로 지은 집에서 학업에 전심하여 나라에 크게 쓰이기를 기원함.

구성 ▶

- 처음: 제왕들이 작고 소박한 궁궐에서 살다가 크고 장대한 궁궐에서 살게 된 과정과 이유를 언급함.
- 중간: 해갑와가 작지 않은 이유를 설명함.
- 끝: 벗이 학문과 사업에 힘써 나라에 등용되기를 바램.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제왕의 거처를 두고 ‘작은 줄을 모르면 큰 것이’ 되고 ‘그 큼을 알지 못함은 이것을 작다고 여김이니’라고 한 것에서 집이라는 일상의 사물에 대해 상대적인 관점을 적용하여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대상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에 대해 논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옛날 제왕들이 거처를 마련하는 행위에 대해 후대로 갈수록 제왕들의 거처가 점점 장대하고 화려하게 변하는 과정을 점층적으로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정치권력이 개선되는 과정을 밝힌 것이 아니라 권력의 양상이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② 작고 누추한 궁전과 장대하고 화려한 궁전의 두 가지 양상을 대조하고 있다. 하지만 외적으로는 초라하더라도 큰 정치를 하는 것과 같은 내적인 가치는 얼마든지 훌륭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다. 이로부터 외적인 모습과 내적인 가치가 조화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는 ‘선비를 업으로 삼아 살면서~성인이 되는 것 또한 바랄 수가 있’고 나아가 ‘하늘과도 합치될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따라서 사람마다 가진 재능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본분을 지킨다거나 각자의 분수에 맞게 자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⑤ “어찌해야 넓은 집~할 수 있을까?”에서 성현의 말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말에 담긴 오류를 지적하고 비판한 것이 아니라, 그 말에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선비들이 삶의 지표로 삼아 지켜 나가야 할 윤리를 제시하고 있다.

02 배경의 기능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글쓴이는 선비에게 학문과 사업이 모두 중요하지만, 사업보다 학문을 ‘급선무로 삼’고 더 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해갑와는 글쓴이의 ‘벗 홍언명’이 ‘호수의 구비에다’ 짓고 소유한 집으로 작고 ‘몇 아름의 띠풀로 지붕을 덮고 몇 개의 서까래를 엮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화려함보다 소박함의 미덕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다.

② 글쓴이는 해갑와를 매개로 ‘성인이 되고서도 스스로를 게딱지

로 본다면 하늘과도 합치될 수' 있다는 자신의 가치관을 드러내며 해갑와를 군자가 추구해야 할 이상을 보여 주는 수단으로 여긴다.

③ 글쓴이는 벼 홍언명이 '집이 작은 것을 염두에' 두고 세속의 말에 따라 집 이름을 '해갑와'로 지은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에 글쓴이는 해갑와를 소재로 하여 선비가 가진 집의 본질이 학문과 사업에 힘쓰는 데에 있음을 밝히면서 벼에게 집의 외형적 크기를 따지는 세속적 시각에서 벗어나 집의 본질에 주목하도록 권한다.

⑤ 글쓴이는 '스스로를 계막지로' 봄으로써 선비가 성인이 될 수도 있고 하늘과 합치될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로부터 글쓴이가 해갑와를 그 집의 주인인 벼와 동일시된다고 간주함으로써 선비의 가치를 크게 할 수 있는 방도에 대해 말하는 매개물로 활용함을 알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글쓴이는 가난한 선비에게 집이란 '작다고 여'길 것이 아니라 크게 여김으로써 '노래와 춤, 관현악기, 금수와 꽃과 풀을 쌓아둠' 없이 '도시와 문사로 옛 성현을 사모하며 홀로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며 집의 본질에 대한 자신의 개인적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귀와 눈을 즐겁게 하'려는 '그 욕심을 능히 다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인간의 욕심이 무한함을 지적하고 '금을 알지 못'하는 삶을 경계해야 한다는 통찰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이 글은 글쓴이가 '벼 홍언명이 호수의 구비에다 집을' 지은 일을 소재로 삼았으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기록으로 남긴 것이다. 글쓴이는 홍언명의 집을 '비록 한 번도 찾아가 본 적은 없'었지만 상상을 통해 집의 모습을 그리면서 그 속성이 '옛날의 제왕이 견디며 살던 곳'과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홍언명이 '집이 작은 것을 염두에 둔 것'을 알고 역설적 논리를 통해 해갑와가 외형은 작을 수 있으나 그 본질은 결코 '작지는 않은 셈'이라는 점을 밝히며, 그가 스스로를 계막지로 봄으로써 학문과 사업에 충실하고, '나라에 등용되'어 '빈한한 선비들을 감싸 주는 바탕을 얻'는 인물로 성장해야 함을 교훈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선비들이 '스스로를 계막지로' 보면서 '크지 않아서'는 안 되는 것', 즉 반드시 커야만 하는 학문과 사업에 절대적 가치를 두고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하여 벼 홍언명이 성인이 되고 궁극적으로 하늘에 합치됨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다.

08

극 · 수필

본문 241~243쪽

01 ④

02 ③

03 ④

■ 이상, 「산촌 여정」

해제 ⑤ 이 작품은 글쓴이가 평안남도 성천에 머물며 체험한 산촌의 풍물과 정취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수필이다. 글쓴이는 산촌에서의 체험과 정서를 시각적, 청각적, 후각적 이미지 등 다양한 감각적 이미지와, 참신한 비유적 표현을 통해 다채롭게 드러낸다. 특히 도회적 감각을 바탕으로 산촌의 자연물을 근대적이고 이국적인 이미지로 형상화한 점에서 글쓴이의 개성을 느낄 수 있다.

주제 ⑤ 도시인의 시각으로 바라본 산촌의 정경과 정서

구성 ⑤

- 처음: 산촌의 밤 정경과 객주집 방에서의 상념, 가족에 대한 걱정(수록 부분)
- 중간 1: 즐겁게 꿈을 꾸고 싶은 마음과 화단의 식물들 보며 느끼는 감상, 도시에 대한 그리움(수록 부분)
- 중간 2: 산촌의 이곳저곳을 걸으며 마주친 풍경, 사람들에 대해 느끼는 생각
- 끝: 객주집 방으로 돌아와 떠올리는 도회에 대한 향수와 질병, 가족들에 대한 근심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그윽한 내음새', '장독 터지는 것 같은 소리', '벌레 소리가 요란합니다.', '봉선화 중에는 흰 것도 섞여 있습니다.' 등에서 후각적, 청각적,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감각적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산촌의 밤의 풍경 → 그 속에서 느끼는 정서 →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 가난한 식구들을 본 꿈 → 아침에 잠에서 깨어 바라본 화단의 식물들'에 대한 서술이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산촌에서 겪은 일상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그 연둣빛 색채로', '새빨간 잠자리', '흰 봉선화' 등 색채어를 활용하여 글쓴이가 산촌에서 본 자연물을 생동감 있게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③ '팔봉산도 사람이 침소로 들어가듯이 어둠 속으로', '공기는 수 정처럼 맑아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를 통해 자연물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산촌의 밤의 정경을 서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⑤ '도회에 남기고 온', '그 도회지의 석간과 같은', '도회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 같은', '도회에 화려한 고향이 있습니다.' 등과 같은 도시인의 정서를 바탕으로, '향기로운 MJB의 미각', '파

라마운트’, ‘그라비아’ 등 이국적 느낌을 주는 소재를 사용하여 산
촌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도회 소녀가 나오는 꿈을 꾸던 ‘나’는 어느 순간 꿈에서 가난한
식구들을 보고 가족에 대한 걱정스러운 마음에 잠에서 깨게 된다.
따라서 ⑥는 ‘나’가 다양한 종류의 꿈을 꾸는 공간으로는 볼 수 있
으나, 이러한 꿈을 즐겁게 꾸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산촌에 있는 ‘나’와 달리 가족들은 도시에 있으며, 도회에 남겨
두고 온 가난한 식구들을 꿈에서 본 ‘나’는 가족에 대한 걱정스러
운 마음에 잠에서 깬다. 따라서 ④는 ‘나’가 그리워하는 대상이 있
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② 산촌에서 이십여 일 머무른 ‘나’는 MJB의 미각을 잊어버렸
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리고 산촌에서 듣는 베짦이의 소리를 ‘도회
의 여차장이 차표 찍는 소리’와 ‘이발소 가위 소리’에 빗대어서 표
현한 것을 통해 ④는 ‘나’가 익숙한 문물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
간으로 볼 수 있다.

④ ‘나’는 별이 도회보다 산촌에서 갑절이나 더 많이 나온다고 인
식하며, 하도 조용하여 처음으로 별들의 운행하는 기척이 들리는
것 같다고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⑥는 ‘나’가 ④에서 접한 대상
을 색다르게 느끼게 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⑤ 〈중략〉 뒷부분에서 ‘나’는 진중일 화초만 보고 놀거나 온갖 근
심을 문지르고 즐겁게 꿈을 꾸고 싶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를 통
해 ⑥는 ‘나’가 ④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고 근심 없이 놀고 싶
다고 생각하는 공간으로 볼 수 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보기〉를 통해 이상이 폐병을 앓고 있을 때 성천에서 요양 생
활을 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의 처지는 [A]의 ‘인간
은 병석에서도 생각한다. 아니 병석에서는 더욱 많이 생각하는 법
이다.’에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글에는 ‘나’가 병을 앓고 있음
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제시되거나, 병으로 인해 성천에서 휴
식을 취하는 ‘나’의 처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에서 ‘나’는 성천에서 바라보는 밤의 풍경과 가족에 대한
걱정, 식물을 보며 느끼는 감상 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A]
에서는 ‘벽촌의 여름—날은 지리해서 죽겠을 만치 길다.’, ‘답답
한 하늘~답답한 풍경’을 통해 ‘나’가 성천에서 무료함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이 글에서 ‘별빛만으로도 넉넉히, 좋아하는 누가복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를 통해 성천의 밤하늘을 밝히는 별의 속성
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A]에는 ‘어서—차라리—어두워 버리
기나 했으면 좋겠는데’를 통해 어두워지기 전의 풍경만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정 형! 그런 석유 ~ 생각이 납니다.’를 통해 ‘나’가
성천에서의 생활을 특정 인물인 ‘정 형’에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그러나 [A]에서는 ‘나’의 성천 생활을 특정 인물에
게 전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없다.

⑤ 이 글에서는 ‘이곳에는 신문도 잘 아니 오고’를 통해, [A]에서
는 ‘이 마을에는 신문도 오지 않는다.’, ‘도회의 소식을 무슨 방법
으로 알라?’를 통해 ‘나’가 도회의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없음을 짐
작할 수 있다.

01

갈래 복합

본문 244~249쪽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④

㉠ 김창협, 「산민」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관리들의 가혹한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 주는 한시이다. 백성들이 편안한 평지에서
의 삶을 포기하고 이웃도 없는 산골에서 외로운 삶을 살게 된 원
인, 그리고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어 고달픈 삶을 살게 된 원인이
모두 가혹한 수탈을 일삼는 관리들 때문이라는 것을 산골에 사는
아낙의 목소리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백성과 대
화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하여 현장감을 느끼게 한다는 점, 산
골과 평지라는 두 공간을 대비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작품은 양반이 지은 것이지만, 백성의 문제를 직
접 다룸으로써 백성들의 고통에 무심하고 관념적인 가치만을 예찬
하던 기존 양반 시가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 관리들의 횡포로 인한 백성들의 고달픈 삶

구성

- 기(1~4행): 산골 부인의 인정 있는 모습
- 승(5~8행): 산골의 고달픈 삶
- 전(9~12행): 산골 생활의 외로움과 어려움
- 결(13~16행): 관리들의 횡포 비판

㉡ 작자 미상, 「함강정가」

해제 ㉡ 이 작품은 1792년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현실 비판 가사로,
‘함강정선유가(含江亭船遊歌)’라고도 불린다. 이 작품은 당시 전라
감사인 정민시가 순시를 나와 적성강 부근 함강정에서 여러 고을
수령을 모아 놓고 호화로운 뱃놀이를 하느라 온갖 민폐를 끼친 일
을 고발한 노래로, 이 가사가 한양 송례문에 걸리고 궁중에까지 알
려지면서 관련자들이 유배당한 일이 『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합강정가」는 전라도 지역의 현실적 모순을 고발함으로써 지방 민심을 대변한 작품이라 할 수 있는데, 제작 연대가 분명하고 실제 사건을 배경으로 한 까닭에 당대 사회상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이 작품은 문제 상황을 직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원인을 모순된 사회 구조에서 파악해 지식인 계층이 가진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명확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 백성을 돌보지 않는 위정자에 대한 비판과 이러한 현실을 바로잡을 의로운 선비가 없음에 대한 한탄

구성 ▶

- 서사: 순시 나온 감사가 백성 걱정은 하지 않고 뱃놀이에 정신이 팔림.
- 본사 1: 감사에게 아부하느라 수령들이 백성을 수탈하여 잔치 준 비를 함.
- 본사 2: 잔치 준비로 고통받는 백성의 처지를 하소연함.
- 결사: 감사의 비행을 간할 의로운 선비가 없음을 개탄함.

❷ 이천, 「응계설」

해제 ▶ 이 글은 사냥용 매를 담당하는 ‘응방’의 폐지에 관한 글쓴이의 생각을 담고 있는 글로,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임금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수많은 사람이 응방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할 때는 듣지 않다가 고작 닭 한 마리의 울음 때문에 응방을 혁파한 임금에 대해, 백성을 자식처럼 대해야 하는 임금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라며 비판하고 있다. 또한 글쓴이는 응방의 폐해가 심각할 때는 임금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여 간언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신하들을 비판하고 있는데, 이러한 글쓴이의 비판은 백성을 위한 위정자의 모습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 ▶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임금에 대한 비판

구성 ▶

- 처음: 매의 먹이로 주었던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임금이 응방의 혁파를 지시함.
- 중간: 응방으로 인한 백성의 고통과 임금이 응방을 폐지한 까닭
- 끝: 백성을 돌보지 않는 임금과 이러한 임금에게 간언을 하지 않은 신하에 대한 비판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는 인간에게 친숙한 ‘개와 닭’이 산골짜기의 비탈에서 서성대는 모습을 제시하며 백성들이 관리들의 횡포를 피해 산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인간에게 친숙한 ‘닭과 개’가 ‘사방 부근 십 리 안’에 멸종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가혹한 수탈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인간에게 친숙한 ‘닭’의 울음소리와 비교하며 지배층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답 ③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다) 모두 범접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인간이 느끼는 경외감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② (가)는 ‘개’와 ‘닭’, ‘무서운 호랑이’와 같은 자연물이 드러나 있지만 인간의 속성과 대비되지 않으며 현실 극복의 가능성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나)는 ‘큰 물고기’, ‘닭’과 ‘개’와 같은 자연물이 드러나 있지만 현실 극복의 가능성은 드러나지 않는다. (다)는 ‘닭’과 ‘매’와 같은 자연물이 드러나 있지만 인간의 속성과 대비되지 않으며 현실 극복의 가능성 역시 드러나지 않는다.
- ④ (나)는 ‘때는 구월 이십삼일’, ‘성절일’에서 시대적 배경을 확인할 수 있고, (다)는 ‘충혜왕 때’라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 후, ‘응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백성들과 임금에 대한 두려움으로 제대로 간언을 하지 못하는 신하들의 모습 등 그 당시를 살아가는 인간들의 다양한 면모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에는 시대적 배경이 드러나 있지 않다.
- ⑤ (나)는 관찰사가 가을 순행을 하기 전에 홍수와 가뭄으로 피해를 입은 백성들의 모습과 관찰사 가을 순행으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받는 백성들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다)는 충혜왕이 유배를 가기 전과 달리 충혜왕이 유배를 간 후 응방이 혁파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현재의 상황을 비교하고 있지만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가)에서는 두메산골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부부의 모습을 시대에 적응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지는 않다.

02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D]의 ‘가고파도 고을 관리 너무 무서워’는 부부가 ‘두메산골’에서 사는 이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A]에는 화자가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 ‘부인’에게 밥상을 대접받는 모습만 제시되어 있을 뿐, 화자가 부부를 찾아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B]의 ‘아침에 쟁기 들고 산에 갔다’와 ‘해가 저물도록 못 오신다’는 ‘부인’의 대답을 통해 [A]에서 ‘바깥어른’ 대신 ‘부인’이 자신의 집을 찾은 화자를 맞이한 이유를 알 수 있다.
- ③ [B]의 ‘아침에 쟁기 들고’와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를 통해 부부가 농사를 지으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C]에서는 ‘뜬은 콩잎 광주리에 반도 안 된다’를 통해 농사를 짓는 대상이 ‘콩’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④ [B]의 ‘산밭은 너무나 갈기 어려워’를 통해 척박한 토양이 부부의 힘겨운 삶의 원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고, [C]의 ‘숲속에는 무서운 호랑이 많아’를 통해 생명을 위협하는 대상인 ‘호랑이’의 존재 역시 부부의 힘겨운 삶의 원인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 ⑤ [B]에서 화자는 ‘부인’에게 ‘바깥어른은 어디 계시오’라고 물으

며 ‘바깥어른’이 집에 없는 것을 궁금해하고 있으며, [D]에서 화자는 ‘부인’에게 ‘이곳이 뭐가 좋다고 / 척박한 두메산골’에서 살고 있는지를 물으며 부부가 ‘두메산골’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아해하고 있다.

03 표현상의 특징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㉔에서는 ‘먹을 복 좋은 우리 감사’와 ‘출세 운 좋은 우리 감사’라는 대구적 표현을 활용하여 백성의 어려움을 돌봐야 하는 관찰사로서의 임무는 등한시하고 하급 관리들로부터 대접받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관찰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을 뿐, 순시를 나온 ‘감사’가 높은 지위에 오른 것의 부당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㉑에서는 ‘구경 가세’라는 구절을 반복하며 ‘감사’를 맞이하는 행사가 ‘합강정’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㉒에서는 ‘무논’과 ‘목화밭’과 같이 농사와 관련된 공간을 언급하며 백성들의 어려움에 관심이 없는 ‘감사’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㉓에서는 ‘많이 주면’과 ‘적게 주면’, ‘무사하고’와 ‘트집 잡네’와 같이 상반된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하여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순령수’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㉕에서는 ‘~게 되면 ~리라’와 같은 가정적 진술을 통해 ‘감사’가 신하로서 임금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유교적 가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의 ‘홍수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 기다림은 / 가을걷이 부족함을 채워 줄까 해서인데’라는 구절을 통해 ㉔는 생활고의 해결 방안으로 백성들이 기다렸던 행사라는 점을, ‘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폐단 있네’라는 구절을 통해 ㉔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가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의 ‘집에서 기르며 먹이고 밭의 곡식이 짓밟혔다.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가 어찌 닭 한 마리의 울음소리 정도에 그쳤겠는가.’라는 구절을 통해 ㉔는 백성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여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관청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의 ‘돌을 깨서 강 막는 데 한 달이나 걸렸구나’와 ‘산을 뚫어 길 낼 때에 민가 무덤 옮겼구나’, ‘음식 거마 장막 온갖 채비 밤낮으로 준비하고’라는 구절을 통해 ㉔는 백성들이 오랫동안 준비하여 진행한 행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㉔는 매의 먹이로 준 닭이 거의 죽어 가는 와중에도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올었다는 말을 듣고, 충혜왕이 측은하게 여겨 조정에서 논의해 혁파되었다.

답 ④

따라서 ㉔가 백성들이 오랫동안 호소하여 혁파된 관청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② (나)의 ‘구경 가세 구경 가세 합강정에 구경 가세’와 ‘홍수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 관찰사 가을 순행 기다림’이라는 구절을 통해 ㉔는 관리들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함께하는 행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의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라는 구절을 통해 당시 백성들이 ㉔의 혁파를 주장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㉔가 관리들의 요청으로 유지되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없다.

④ (나)의 ‘관찰사 부임 뜻밖이나’라는 구절을 통해 백성들은 관찰사가 부임하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가 백성들이 요구했던 행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다)의 ‘매의 폐단을 말하는 사람들의 호소’라는 구절을 통해 백성들이 ㉔의 폐단의 시정을 요구했다는 점을 알 수 있을 뿐, 사람의 본성을 실현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⑤ (나)의 ‘홍수 가뭄에 피해 입은 백성이~지나는 곳마다 죄를 묻는 폐단 있네’라는 구절을 통해 ㉔는 관리들에 대해 백성들이 억울함을 표출하는 계기가 아닌, 백성들의 분노를 더욱 키우는 행사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다)의 ‘임금이 감동하고 나라에서 관청을 폐지했다’라는 구절을 통해 ㉔의 유지와 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관리가 아닌 임금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㉔는 관리가 아닌, 임금에 대해 백성들이 울분을 표출하는 계기가 되는 관청이라고 볼 수 있다.

05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의 글쓴이는 제선왕에게 ‘어진 정사를 펼치라’고 당부했던 맹자의 말과 백성들을 ‘어린아이를 돌보듯 하라’는 『서경』 ‘강고’의 구절을 인용하며 옛사람들이 당부한 정치의 실현을 염원하고 있다. <보기>의 화자는 나라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임금이 백성을 자식처럼 여기면서 잘 먹여 다스려야 한다고 당부하며, 임금다운 태도를 지니기를 염원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사람의 마음은 남이 하는 말에는 어둡지만 자기가 믿는 데는 밝은 법이다.’라는 구절을 통해 자신의 생각만을 고집하는 것은 (다)의 글쓴이가 비판하는 태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보기>의 화자는 임금과 신하, 백성다운 태도를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태도를 당부하고 있지는 않다.

② (다)의 글쓴이는 한 마리의 소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면서도, 어진 정사를 펼치라는 맹자의 말은 살피지 못한 제선왕의 고사를 제시하며 ‘사람의 마음은 남이 하는 말에는 어둡지만 자기가 믿는 데는 밝은 법이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의 화자는 ‘임금답게 신하답게 백성답게 한다면 / 나라 안이 태평할 것이’라 말하며 자신의 신분에 맞게

처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③ (다)의 글쓴이는 맹자의 말과 『서경』 「강고」의 구절을 통해 임금 이 백성을 돌보는 정치의 펼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대의적인 명분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보기>의 화자는 임금이 자식을 대하는 것처럼 백성을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을 뿐, 나라를 돌보는 것처럼 가족을 돌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는 않다.

⑤ (다)의 글쓴이는 부모가 자식을 아끼고 정성을 다해 키우는 것처럼 임금은 자신의 백성을 돌보고 아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경』 「강고」를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의 화자는 부모가 자식을 대하듯이 임금이 백성을 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을 뿐, 백성을 대하는 임금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일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우리 임금님 어진 마음 밝은 촛불 되게’ 해 달라며 ‘하느님’께 기원하는 것은 화자의 발화를 통해 임금과 관리들이 백성들의 어려운 삶을 보살피기를 바라는 작가의 소망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물나라’에 ‘인간 세상에 남은 액운’이 미치는 것은 관찰사의 가을 순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물속에 사는 물고기까지 고통받는 현실을 나타낸 것일 뿐, 작가가 추구하는 사회상을 제시한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부인’이 ‘저 너머 평지’가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지 못하는 것과 (나)에서 백성들이 ‘하릴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것은 각각 ‘고을 관리’와 관찰사의 순행을 준비하는 ‘각 읍 관리’ 때문이다. 이는 (가)와 (나)의 작가가 지배 계층을 비판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② (가)는 화자와 ‘부인’의 대화를 통해 부부가 두메산골에 사는 이유가 무서운 고을 관리 때문이라는 점을 드러내며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다)는 글쓴이의 논평을 통해 백성을 돌보지 않는 충혜왕과 그러한 충혜왕에게 신하로서 간언을 하지 않은 관리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③ (나)에서는 ‘인자한 우리 임금 곡식 한 묶음도 모래 덮일까 염려하는데’라는 구절을 통해 임금이 백성을 돌보는 마음을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나)의 임금은 비판의 대상이라 볼 수 없다. 이와 달리 (다)의 글쓴이는 ‘임금이 한창 매를 좋아할 때는 용방이나 비간과 같은 충신이 조정에서 간쟁했다 하더라도 필시 성을 내며 죽여 버렸을 것’이라고 말하며 충혜왕이 백성을 돌보지 않고 신하들의 간언도 듣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의 충혜왕은 (나)의 임금과 달리 비판의 대상에 해당한다.

⑤ (나)의 화자는 관찰사의 순행으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는 ‘과거장서 재주 겨루는 유생들’을 향해

‘의로운 선비 하나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의 글쓴이는 신하들이 충혜왕에게 용방을 혁파하라고 간언을 하지 않은 이유가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모두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지배 계층의 모습을 비판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02

갈래 복합

본문 250~255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⑤

㉠ 작자 미상, 「계녀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시대에 쓰인 규방 가사로, 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예의범절에 관해 훈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훈서의 내용과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부녀자로서 지켜야 할 도리와 규범을 전하면서 딸이 이를 쉽게 익혀 실천하기를 바라는 친정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다.

주제 > 시집가는 딸에 대한 걱정과 부녀자의 도리에 대한 권계

구성 >

- 서사: 시집가는 딸에 대한 걱정
- 본사: 시집에서 지켜야 할 부녀자의 도리
- 결사: 시집살이에 대한 권계와 당부

㉡ 정약용, 「상론」

해제 > 『여유당전서』에 실려 있는 논변류 글로, 용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태에 대한 경계의 뜻을 담고 있다. 작가는 사람이 무리에 따라 익히는 것이 다르고, 익히는 것에 따라 성품이 달라지며,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 상이 변하게 된다고 하며 상을 보고 익히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비판한다. 작품에는 상을 믿었을 때 야기되는 폐해나 여러 사례를 통해 논지를 강화하는 서술상의 특징이 드러난다.

주제 > 타고난 관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경계

구성 >

- 처음: 익히는 것에 따라 달라지는 상
- 중간: 여러 사례를 통한 통념에 대한 비판
- 끝: 통념에 따른 폐해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에서는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고’와 ‘밟다고 과장 주어 정신없게 하지 말고’, ‘더위에 농사지어’와 ‘추위에 물을 끼려’, ‘꾸짖어도 악언 말고 치나마 과장 말고’ 등 대조적 상황을 제시해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서당의

무리’, ‘시장의 무리’, ‘목동의 무리’, ‘강패나 마조 같은 무리’를 대조하고, ‘학문을 익힌 사람’과 ‘이를 익힌 사람’, ‘힘을 익힌 사람’, ‘악을 익힌 사람’을 대조하여 삶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아해야 들어 봐라’에서 ‘아해야’와 같이 구체적 청자를 호명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를 통해 공간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나)에는 구체적 청자를 호명하는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 ③ (가)와 (나)에는 사물에 의탁하여 경험한 일로부터 받은 감흥을 표현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④ (가)와 (나)에는 대상을 의인화한 부분은 나타나 있지 않다.
- ⑤ (나)에는 ‘세상에는 진실로 재덕을 충분히 간직하고도 앵궁하여 그 재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그 상을 따지지 않고 이 사람을 우대했더라면 이 사람도 재상이 되었을 것’에서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가)에는 가상의 상황을 제시하여 대상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드러낸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다.

02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화자는 노비에 대해 ‘귀천은 다르나마 혈육은 한가지라’라고 하며 ‘꾸짖어도 악언 말’고 ‘명분을 밝게 하여 기수를 잃지 마라’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노비를 대우하되 귀천을 따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화자는 ‘진지를 차릴 적에’는 ‘식성을 물어 가며 반찬을 맞게’해야 한다며 시부모님 봉양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② 화자는 ‘내 방에 돌아 나와 일손을 바빠 들’여야 한다고 하며 여성이 자신의 생활 공간인 규방에서도 부지런히 가사 노동을 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③ 화자는 ‘두세 살 먹은 후’의 자녀를 ‘귀타고 안을 받아 버릇없게 하지 말’라고 하며 어머니로서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 ⑤ 화자는 ‘치산을 하’는 일과 관련해 ‘헌 의복 기워 입고 잡음식 먹’으라고 하며 재산 관리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 지켜야 할 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가)의 ‘남의 집’은 대상이 ‘더욱 조심’해야 하는 곳으로, 화자는 ‘남의 집’에 대해 대상이 ‘웃음을 과이하여 이뿌리 나게 말고’,

‘웃귀를 매게 하여 속웃을 나게 말’아야 하는 장소라고 여기고 있다. (나)에서 글쓴이는 ‘거처’는 ‘기질을 변화시’킨다고 하며 ‘거처’에 대해 대상이 지닌 ‘기질’이 달라지는 원인이라고 여기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우마’는 ‘아해’가 타는 것으로 화자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아니고, (나)의 ‘임금’은 글쓴이가 예시로 든 인물로 글쓴이와 동일시되는 대상이 아니다.
- ② (가)의 ‘상전’은 노비와 대상의 관계에서 대상을 직접적으로 이르는 말이므로 비유적 표현이 아니다. (나)의 ‘백만장자’는 부유해진 대상의 상황을 가리키는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④ (가)의 ‘양반’은 ‘고하 말’아야 할 대상일 뿐 화자는 ‘양반’에 대해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나)의 ‘악을 익힌 사람’은 패망한 경우를 나타낼 뿐 글쓴이는 ‘악을 익힌 사람’에 대해 적대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 ⑤ (가)의 ‘이 책’은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로 만든 것으로 화자가 이를 통해 시련을 극복하였다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나)의 ‘서적’은 ‘눈동자가 빛나’는 아이를 위해 부모가 사들이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자신의 처지를 성찰하고 있지 않다.

04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④ 글쓴이는 [A]에서 ‘우리가 나누어짐으로써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진다고 하면서, [B]에서 ‘서당의 무리’, ‘시장의 무리’, ‘목동의 무리’, ‘강패나 마조 같은 무리’를 예로 들어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 상도 변하게 된 구체적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가 [A]에서 언급한 ‘형세는 상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인식은 앞뒤의 맥락으로 볼 때 [B]에서 사람들이 ‘그 상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익히는 것이 저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므로, 글쓴이의 인식과 사람들의 생각이 상통한다고 볼 수 없다.
- ② 글쓴이가 [A]에서 언급한 ‘설을 하는 사람’은 ‘상’이 ‘익히는 것’으로 인하여 변화’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형국이다 유년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글쓴이가 [B]에서 언급한 ‘그 상의 변한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들은 상을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A]의 ‘설을 하는 사람’과 [B]의 ‘그 상의 변한 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 글쓴이가 비판하는 대상이므로, [A]에서의 사람들에게 대한 글쓴이의 인식과 달리 [B]에서의 사람들에게 대한 글쓴이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
- ③ 글쓴이가 [A]에서 언급한 ‘아주 어린 아이’는 ‘용모를 보면 예’뽕 뿐 아직 익힌 것이 없는 상태를 이르는 것이다. [B]의 ‘상이 아름답’다운 경우는 글을 익혀 상이 아름다워진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글쓴이는 이를 통해 익히는 것에 따라 상이 달라짐을 언급하고 있

을 뿐, ‘아주 어린 아이’와 ‘상이 아름답다’운 경우를 연관 짓고 있지 않으며 ‘상이 아름답다’운 경우에 대해 예찬하고 있지 않다.

⑤ 글쓴이가 [A]에서 언급한 ‘익히는 것이 서로 달라짐으로써 상도 이로 인해 변하게 된다’는 것은 익히는 것에 따라 상이 달라짐을 나타낸 것이다. [B]에서 ‘익히는 것이 오래됨으로써 그 성품이 날로 옮겨 가게 되’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겉으로 나타나서, 상이 이로 인해 변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익히는 것에 따라 상이 달라짐을 나타낸 것이므로 [A]의 주장이 [B]의 상황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가르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와 스승의 평가로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되는 경우를 보여 주며, ㉡은 ‘부자가 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평가와 ‘부릴 만하다’고 생각하는 부인의 평가로 ‘더욱 힘쓰고 날로 부지런하여 사방으로 장사를 다’는 경우를 보여 준다. ㉢은 ‘부모와 사장들은 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위와 반대로’ 하여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하지 않는 경우를 보여 주므로, ㉠, ㉡, ㉢ 모두 성장하는 데 있어 주위 사람들의 평가가 영향을 준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더욱 공부에 힘쓰고 날로 더 부지런하게 된다’는 점에서 근면한 태도로 생활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은 ‘이 아이는 더욱 힘쓰고 날로 부지런하여 사방으로 장사를 다닌다’고 하였으므로 천성으로 인해 게을리 생활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② ㉠은 ‘붓·먹·연보·서판을 더욱더 주’는 스승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은 ‘부모와 사장들이’ ‘양성하고 협조하는 것을 모두 위와 반대로’ 하여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할 수’ 없는 경우를 보여 주므로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고 볼 수 없다.

③ ㉠과 ㉡은 모두 ‘그 상으로 인하여 그 형세를 이루고, 그 형세로 인하여 그 상을 이루게 된’ 경우를 보여 준다.

④ ㉢은 ‘자기 몸을 귀하고 부하게’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스스로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경우를 보여 준다. ㉠은 ‘더욱 힘쓰고 날로 부지런하여 사방으로 장사를 다닌다’고 하였으므로 스스로 노력을 다하여 성공을 이룬 경우를 보여 준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가)의 작가는 ‘옛글에 있는 말과 세정에 담은 일’을 기록하여 ‘책을 매서 경계’한다고 하며 딸이 통념에 따라 부녀자로서의 도리를 지키기를 바라고 있다. (나)의 작가는 ‘재덕을 충분히 간직’

하였지만 ‘액궁’하여 ‘그 재덕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람은 ‘상’에 허물이 있다고 여겨져 ‘우대’받지 못한 이를 가리킬 뿐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작가는 ‘내일이 신행’인 딸을 생각하며 ‘이 심사 갈밭없’다고 함으로써 딸을 걱정하는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부모께 떠’나 시가로 들어가는 딸에게 ‘경계할 말’이 많다고 하며 조언을 하고 있다.

② (가)의 작가는 ‘시가로 들어가는’ 딸에게 ‘문밖에 사관할 제 세수를 일찍’ 한 뒤 ‘문밖에서 절을 하고 가까이 나와 앉아’ ‘방이나 답사온가 잠이나 편하신가’ 물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시집살이를 할 때 머느리로서 해야 할 일로 부녀자로서의 올바른 품행을 드러낸 것이다.

③ (나)의 작가는 ‘그 상이 이러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저와 같은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리석’다고 하며, 운명론적 태도로 상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

④ (가)의 작가는 ‘맹자의 어마임도 맹자를 기르실 제’ ‘이사를 세 번 하여 학교 곁에’ 살았다는 고사를 인용함으로써 자녀를 올바르게 키운 이상적인 여성의 전례를 전하고 있다. (나)의 작가는 ‘용모로써 사람을 취’하지 않은 ‘공자’를 ‘성인’이라고 하며 ‘상’을 토대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03

갈래 복합

본문 256~260쪽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②

01 이항복, 「하균의 문집에 부치는 서문」

해제 > 이 작품은 이항복이 시 짓기의 고됨과 진정성 있는 태도에 대해 진솔하게 서술한 수필이다. 시는 단순히 글재주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사유의 움직임을 통해 형성되는 것임을 강조한다. 글쓴이는 시인이 되어 겉모습을 꾸미려는 이들을 경계하며, 진심과 수고를 바탕으로 한 시 창작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주제 > 시 창작의 어려움과 그에 담긴 진정성의 가치

구성 >

- 처음: 시의 효용성에 대한 회의적 시선을 언급함.
- 중간: 진정성 시 창작의 어려움과 그 가치가 왜곡되고 있음을 안타까워함.
- 끝: 생각이 움직이면 시를 이루고, 시를 읊다 보면 다시 생각을

느끼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며 시를 좋아하고 귀히 여길 만한 것
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함.

04 이창동, 「시」

해제 > 이 작품은 이 시대의 시 쓰기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물으면서 미와 윤리의 문제를 탐구하는 영화 시나리오이다. 중학
생 손자와 살아가는 평범한 할머니인 미자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시를 쓰고 싶어 하는 인물이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가 자살한 여
중생의 죽음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미자의 삶은 부조
리한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시 쓰기라는 모순 가운데 놓인다. 이 작
품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
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구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
게 된다.

주제 >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의 시 쓰기가 지닌 의미

전체 줄거리 > 딸이 말긴 중학생 손자와 살아가는 미자는 손자가
밥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일 행복하다는 평범한 할머니이지만,
아직도 레이스 달린 모자를 즐겨 쓰고 꽃을 좋아하며 시를 쓰고 싶
어 하는 감성적 인물이다. 시 창작 강의의 수강생이 되어 행복한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그녀는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한 여중생의
죽음에 자신의 손자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노인의
간병으로 생활비를 벌며 쓰는 가난한 처지에 합의금을 마련하지
못해 괴로움과 동시에 어린 소녀의 죽음을 안타까워한다. 시 창
작 수업의 마지막 시간에 미자는 그 여학생을 애도하는 추모의 시
를 발표하며 영화는 막을 내린다.

01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생각이 움직여 시가 되고, 이렇게 창작된 시를 읊다
보면 생각을 느끼게 된다고 말하며 생각과 시가 상호 관계를 맺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이 맑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다고 하였을 뿐 다양한 경험을 통해 생각이 깊어진다고 언급
한 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글쓴이는 ‘시란 무엇이 좋고 무엇이 귀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것인가?’라는 회의적인 물음을 시작으로 시에
관한 생각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좋은 시를 보면 문득 기
뻐하였으니 마치 병이 나서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 문득 술 생각이
나는 것 같’다고 하며 시에 대한 애정도 드러내고 있다.
- ② 글쓴이는 시인과 광대를 풀벌레 같은 존재라고 하며 생각을 소
리로 표현하는 존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재주로 사람을 기쁘
게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시인의 생각을 담아낸 시가 사람의 정
서적 반응을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 ③ 글쓴이는 허 군이 불교의 말을 더욱 믿어 시를 창작한다고 하
며 이러한 태도는 좋은 벼를 뽑아 버리고 잡초를 키우는 것과 같
다고 하며 비판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소리 내는 것을 힘들고 편안함으로 나누어 벌레, 광
대, 시인을 비교하고 있다. 때가 되면 자동으로 우는 벌레, 입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안한 광대와 달리 시인은 온 감각과 감정을 부
지런히 힘써 소리 내는 수고로움을 통해 시를 창작한다고 말하며
시 창작 과정에서 시인이 겪는 어려움을 부각하고 있다.

02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속을 태운다는 것은 내면에서 감정이 일어난다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즉 마음속에서 감정이 일어나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마치 내면의 생각이 움직여 시를 읊게 되는 상황으로 드러나는 것
이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할 때 시란 마음의
중심에서 일어난 움직임이 겉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을 의미한
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을 통해 어떤 자극으로 인해 마음이 바깥으로 드러날 수 있
다고 보는 글쓴이의 생각은 알 수 있지만, ㉠이 인간이라면 누구
나 가지고 있는 마음이 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② ㉠을 통해 생각이 움직여 읊게 되는 것이 시라고 보는 글쓴이
의 생각은 알 수 있지만, ㉠이 시가 타인에게 받은 상처를 아물게
하는 언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③ ㉠을 통해 시를 읊는다는 것이 마음의 한가운데가 건드려져 밖
으로 생각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는 글쓴이의 생각은 알 수 있지
만,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함축하는 의미가 다르다는 시
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④ ㉠을 통해 어떠한 자극이 주어져 그것으로 인해 생각이 바깥으
로 드러나는 것이 시를 읊는 것이라는 글쓴이의 생각은 알 수 있
지만, ㉠이 외부의 자극과는 무관하게 내적으로 사유하는 힘이
시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03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김 시인이 미자에게 시상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가 찾아가서 빌어야’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시상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를 시의
내용이 보편적 의미와 아름다움을 갖게 하기 위해 독자를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는 생각을 물에, 시를 얼음에 비유하며 시 창작을 ‘물이
얼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녹으면 도로 물이’ 되는 것과 유사하다
고 보는 글쓴이의 생각이 제시되어 있다. 이는 시란 시인의 생각
이 언어로 형상화되어 보편적인 의미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이라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지을 수 있다.
- ② (나)에서 김 시인이 미자에게 시상은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있다고 말하며 ‘설거지통 속’에도 시상이 있다고 하는데, 이 말은 일상적 경험 속에서도 시상을 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속 개별적 체험이 시의 소재가 되어 독자들에게 심미적 즐거움을 주는 시의 창작과 수용 과정을 설명한 <보기>의 내용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④ (가)에서 글쓰이는 시인이 생각을 짜내어 겨우 한 구를 완성한다고 말하며 시를 창작하는 것은 ‘오장육부를 힘들게 만들어 부지런히 짓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또한 (나)에서 미자는 시상을 찾기 위해 계속해서 질문하며 해답을 찾으려고 애를 쓴다.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시 창작 과정에서 시인의 고뇌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는 <보기>의 설명과 관련지을 수 있다.

⑤ (가)에서 글쓰이는 마음이 맑지 않으면 생각이 깊어질 수 없고, 깊이 않은 생각으로 창작된 시는 독자를 감동시킬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나)에서 김 시인은 시를 쓴다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심미적 즐거움과 정서적 울림을 경험하게 하는 시를 쓰기 위해서는 ‘맑은 마음’을 갖추고,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04 작중 상황의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강의의 주제는 ‘시를 쓴다는 것’에 대한 것이고, 김 시인이 시상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 미자가 이에 대해 궁금해하며 질문을 한 것에 대해 김 시인이 ㉔과 같이 반응한 것으로, 강의의 주제에서 벗어난 질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쓰이는 사물이 똑같지 않은 것, 즉 평등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의문을 지니며 사물이 똑같지 않음을 깨닫고 난 이후에 ‘손가락을 깨물어 맹세하여 시에 대해 말하기를 기피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② 술을 절제하는 사람이 문득 술을 생각하는 것에 빗대어 시를 말하는 것을 기피하던 글쓰이가 문득 시를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시에 대한 애정을 억누를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적절하다.

③ 미자가 시상을 찾는 방법에 대해 김 시인에게 질문을 했고, 김 시인의 답을 들은 후에도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미자가 김 시인의 말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⑤ 미자는 시 창작과 관련하여 김 시인에게 질문을 하고, 김 시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므로 시를 잘 창작하고 싶어 하는 미자의 마음이 드러난 표정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05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S#21에서 김 시인은 시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다고 강의했다. 이후 S#92~S#94에서 오프 사운드로 제시되는 미자의 시를 보면 노을, 숲의 새소리, 장미, 바람 등 일상적 소재를 활용하여 시를 창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92에서 시를 읽는 미자의 목소리가 오프 사운드로 들리고 있으나 미자가 김 시인과 함께 시를 창작하고 낭송하는 기회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는다.

② S#21에서 강의를 들으며 미자는 김 시인에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있고, 계속되는 질문에 김 시인이 약간 짜증 나는 것을 참는다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이로 인한 다른 수강생과 미자의 갈등 상황은 확인할 수 없다.

④ S#92에서 미자의 딸인 수옥은 미자의 집에 와서 미자가 집에 없음을 알고 전화를 건다. 하지만 전화 연결이 되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 미자가 남긴 시를 읽는 부분은 제시되지 않는다.

⑤ S#21에서 김 시인은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는 대상, 즉 살아 있는 생명체에 시를 빗대어 수강생들에게 시 창작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대상에 빗대어 수강생들에게 시 창작 방법을 설명한 것이지, 시와 관련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시 창작 방법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06 극적 형상화 방식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S#92에서 미자의 집에 찾아온 수옥은 현관 입구에 들어서며 미자를 부르는데, 미자의 부재를 확인하고 멍하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뿐 미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애태우며 울부짖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미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난 후 수옥이 미자를 부르는 장면에서 수옥이 애태우며 울부짖는 표정으로 연기하도록 해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S#92에서 미자의 아파트 안 싱크대 위의 창문에서 햇살이 들어오고, 집 안에는 아무도 없는 상황이므로 미자의 아파트 안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 줄 때 텅 빈 집 안을 화면에 비추면서 집 안의 고요함을 부각해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③ S#93에서 누군가의 시점으로 보이는 나무가 화면에 담기고,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리는 상황을 틸트다운하여 보여 주고 있으므로 나뭇잎의 흔들림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위에서 아래로 이동시키며 나무의 모습을 화면에 담아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④ S#93에서 나무 옆의 미자가 앉았던 자리에 동네 할머니가 앉아 나무를 올려다보고,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훌라후프를 하며 놀

고 있으므로, 화면에 나무의 모습에서 나무 옆에 앉아 있는 할머니의 모습과 아이들이 홀라후프를 하는 모습까지 담기도록 카메라의 시선을 이동하며 촬영해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⑤ S#92부터 S#94까지 오프 사운드로 시를 낭송하는 미자의 목소리가 제시되고 있으므로, 화면 밖에서 들리는 음성으로 미자가 낭송하는 시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오디오의 통일성을 잘 유지해야겠다는 계획은 적절하다.

04

갈래 복합

본문 261~266쪽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④

㉠ 허난설헌, 「규원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시대 규방 가사 중 하나로, 집을 떠난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담고 있다. 화자는 남편과 함께 한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노래를 시작하고, 나이가 들어 외로움 속에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그리워하는 복잡한 감정을 드러낸다. 고사성어나 자연물에 빗댄 비유 등을 통해 슬픔과 간절함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문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 여성의 시선으로 쓰인 이 작품은 조선 시대 여성의 정서와 현실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규방 가사로 평가된다.

주제 ▶ 남편을 기다리는 여인의 외로움과 한탄

구성

- 1~12행: 젊었던 시절을 돌아보며 나이 들고 외로운 처지가 된 지금의 상황을 한탄함.
- 13~26행: 돌아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며 외로운 밤을 보내는 심정을 노래함.
- 27~34행: 마음을 달래고자 하지만 외로움이 가시지 않음.
- 35~47행: 돌아오지 않는 임의 소식을 기다리며 자신의 처지를 비관함.

㉡ 작자 미상, 「인현왕후전」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작자 미상의 전기체(傳記體) 소설로 궁중 비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한중록」, 「계축일기」와 같은 궁중 문학으로 분류된다.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인현왕후의 덕행과 장 희빈의 악행을 대비하면서 흥미롭게 사건이 전개되는 가운데 인간의 도덕성과 관련한 주제 의식이 강하게 표출되어 교훈서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주제 ▶ 폐위와 복위를 중심으로 한 인현 왕후의 삶과 덕행

전체 줄거리 ▶ 인현 왕후는 병조 판서를 지낸 민유중의 딸로, 인경왕후 사후 숙종의 외조부 김 공의 천거로 왕후가 된다. 인현 왕후는 덕이 높고 효성이 깊었으나 후사가 없어 왕에게 후궁을 들일 것을 청하는데, 시녀 출신 장 씨가 희빈이 되어 왕자의 생모가 된다.

장 씨는 거짓과 모략으로 왕의 총애를 얻고 인현 왕후를 폐위시킨다. 많은 신하들이 폐위를 반대했지만 왕은 듣지 않는다. 폐위된 인현 왕후는 안국동에서 죄인처럼 조용히 지내게 되고, 장 씨는 왕자의 세자 책봉 이후 기고만장하여 권세를 떨친다. 몇 해가 흐른 뒤 왕은 장 씨의 허물을 알게 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아 인현 왕후를 복위시킨다. 그러나 장 씨가 무속과 음모로 인현 왕후를 해치려 하던 중 인현 왕후는 복위 8년 만에 35세로 세상을 떠난다. 이후 진상을 파악한 왕은 장 씨와 관련된 자들을 처형하고, 장 씨에게는 사약을 내리는 한편, 제문을 지어 인현 왕후의 넋을 위로한다.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천상의 견우직녀 은하수~일년일도 실기치 아니커든’에서 ‘견우직녀’ 설화의 인물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설화 속 인물들은 일 년에 한 번 만남을 이루지만 화자는 임과 못 만나는 상황이다. 따라서 양자는 동일시되지 않고 서로 대비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안유협 경박자를 꿈같이 만나’서 살게 된 상황에 대해 ‘삼생의 원업이오 월하의 연분으로’와 같은 대구적 표현에 의한 운명론적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② ‘봄바람 가을 달이 베을에 북 지나듯’,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어 진고’에서 자연의 변모 과정을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을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③ ‘자취눈’을 통해 겨울을, ‘실솔’을 통해 가을을 나타내는 등 다양한 자연물을 소재로 활용하여 시적 배경의 계절감을 나타내고 있다.

⑤ ‘~소식이야 더욱 알라’, ‘~생각이야 없으소냐’ 등에서 설의적 표현을 활용하여 임이 부재하는 부정적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며, ‘열두 때 김도 길사 서른 날 지리하다’에서 영탄적 표현을 활용하여 그러한 상황의 지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02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화자는 임을 ‘장안유협 경박자’라고 지칭했으며, ‘당시의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하다고 했다. 이로부터 화자는 임의 ‘경박’스러운 성격으로 인해 불안하게 지냈던 자신의 과거 모습을 회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화자는 외양이 ‘면목가증’한 상태로 변화된 이유를 임이 화자 자신을 빗박한 데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연광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하여’, 즉 세월이 빨리 흐르고 조물주의 시기가 많았다는 데에서 찾고 있다.

③ ‘인연을 그쳤은들 생각이야 없을쏘냐’와 ‘얼굴을 못 보거든 그립거나 말으려든’에서 입과 인연이 끊어졌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입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모습이 나타난다. 따라서 화자가 입과 헤어져 있기보다 ‘인연’이 완전히 단절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④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에서 화자는 입을 ‘꿈’에서 보려고 잠을 청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원수’ 같은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화자는 ‘잎’과 ‘짐승’의 소리를 입이 오는 인기적으로 착각한 것이 아니라 화자의 잠을 깨우는 원수로 여긴 것이라 할 수 있다.

⑤ 화자가 입과 자신 사이에 ‘약수’가 놓여 있다고 상상한 것에서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 입과 재회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난간’은 화자가 ‘입 가신 데’를 바라보는 장소에 해당할 뿐, 화자와 입 사이의 장애물로 볼 수는 없다.

03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장 씨는 ‘폐비에게 사약’함으로써 후를 이 세상에서 없애려고 하였다. 그리고 조정 소인들은 ‘후의 삼촌 숙질을~아뢰기를 수년에 이르는 데에서 후의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려고 애썼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에 반하는 상감의 결정으로 ‘민씨 일문이 보존’ 되었으므로 장 씨와 조정 소인들은 후의 반대편에서 정치적인 노선을 같이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후는 폐출되어 ‘신세 구차하고 황락’한 자신의 기구한 운명과 관련하여 ‘일찍이 사람을 탓하고 귀신을 원망하는 바가 없이 천연 자약’하였다.

② 후가 ‘색깔 있는 옷’은 거부하고 무명 치마와 순백 저고리를 입은 이유는 자신의 결백을 밝혀 보여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겨 ‘색깔 있는 옷’을 입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다.

③ 장 씨가 ‘양양자득하여’ 기세를 떨치고 ‘방약무인’으로 궁궐 안 사람들을 함부로 대한 것은 왕세자의 어머니가 된 후 일어난 일이지만, 장희재에게 훈련대장의 벼슬을 제수한 것은 그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다.

⑤ 임금의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궁궐 사람들을 시켜서 후에게 어찰을 보낸 것은 맞지만, 후가 문도 열어 주지 않자 문을 열도록 거듭하여 명을 내리고 사람을 보냈을 뿐 몸소 후를 찾아가서 사죄의 뜻을 전한 것은 아니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궁인들은 거처에 들어온 ‘큰 개’를 거둬서 쫓아내려 했으나 후는 ‘그 개 출처~하는 양을 보라’라고 말하며 집에 들이게 한

다. 이를 통해 ‘큰 개’는 하나의 사안에 대해 색다르게 인식하는 후의 모습을 부각해 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녹기금’은 연주를 통해 화자의 근심을 달래는 수단이자 화자의 고독과 슬픔을 대변하는 매개체로 나타나지만, ‘실술’은 화자의 근심을 달래기보다 외로움과 슬픔을 환기하고 심화시키는 소재이다.

③ ‘녹기금’은 ‘시름조차 섞어’ 탐으로써 화자의 감정 상태를 대변해 준다고 볼 수 있지만, ‘큰 개’는 인물의 감정 상태를 대변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④ ‘큰 개’는 ‘출처 없이 들어와 쫓아내는 상황을 견디며 결국은 ‘새끼를 세 마리 낳’았으므로 시련 속에서 강인한 생명력을 보여주는 자연물로 볼 수 있으나 ‘실술’은 그러한 모습이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

⑤ ‘큰 개’는 ‘짓어 대므로 잡귀가~집안이 편안한지라’를 통해 주인공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술’은 그러한 모습이나 특성은 보이지 않고, 가을의 애상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고독과 슬픔의 정서를 환기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㉔에서 궁중 안 장 씨로 인해 빚어진 일들에 대해 사람들이 ‘서러워하고’, ‘분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사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는 오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어진 사람이 없’어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음을 지적함으로써 사태 해결의 난망함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 ‘~다더라’를 통해, 후가 ‘말씀하시며 따라 눈물을 흘리시니 좌우가 모두 흐느껴’ 우는 모습을 목격했거나 그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 말을 서술자가 듣고 인용하여 소개하는 서술 방식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㉔: ‘대개 무지한 짐승도~하물며 신민이라’에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하는 당연한 도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고, ‘금수만도 못하리로다’에서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인간의 당연한 도리가 지켜지지 않는 세태에 대한 비판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④ ㉔: ‘대개 예로부터~쉬운 법’이라는 서술을 통해 한 사회 공동체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일반적인 인식을 토대로 하여 임금이 저지할 수 있는 과오에 대해 사회가 용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⑤ ㉔: ‘천운이 순환하여~끝나면 즐거움이’ 오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이치라는 서술자의 생각을 언급하여 사건 진행의 형세가 반전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가 '이 태도로 백년기약'한 것은 자신의 '천연여질', 즉 젊고 고운 모습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가운데 한 남자의 아내로 살고자 하는 생각을 보여 준다. 그리고 (나)에서 후가 '민정자의 딸'을 데려다가 '열녀전'을 가르친다는 것은 집안 차원에서 유교적 가부장제 윤리 규범인 '열'을 지켜 나가려는 의지를 나타내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 (나)의 경우 모두 유교적 가부장제 윤리 규범의 잣대가 남성에게는 관대했고 여성에게는 엄격했음을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내 얼굴 내 보거나 어느 임이 날 쫓소냐 / 스스로 참피 하니 누구를 원망하리'와 '소식이야 더욱 알랴'에서 보듯 화자는 '임이 날' 꾀지 않고 남편의 소식이 없는 이유를 남편의 잘못이 아닌 자신의 부족함 탓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책임을 여성인 자신에게 돌리고 있다.

② (나)의 후가 '대내에 있을 때' 송이를 들여와 '두 대비 전에서 즐겨 진어하'며 '위하여 수라에' 쓴 것은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 시어른들을 섬기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후가 시어른에게 효를 행하며 며느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것은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선인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희빈 장씨가 '오라비 희재와 더불어 꾀하여' 나라에 '변이 크게 나'게 만들자 남편인 임금에 '짐짓 그 하는~흥모를 깨'달게 되었다. 이렇게 장 씨가 남편인 임금을 실망시킨 행위는 아내로서 지야비를 섬기는 역할에 충실하지 못한 것에 해당하므로 <보기>의 설명에 따르면 장 씨는 악인으로 규정될 수 있다.

⑤ (가)의 임이 가정을 버리고 '백마금편으로' '정처 없이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 상황과, (나)의 임금이 희빈 장씨에게 '침혹하사 나라의 체면을 손상'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모두 행위의 주체로서 남성인 가장의 무책임이나 실수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05

갈래 복합

문분 267~272쪽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① 06 ⑤

가 임유후, 「목동가」

해제 ▶ 이 작품은 임유후가 지은 문답체 강호 가사로 '목동문답가', '목우가' 등으로도 불린다. 목동은 사대부들이 문학에서 즐겨 다룬 소재 중 하나로, 속세를 벗어나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을 상징한다. 작품은 크게 전반부의 '묻는 노래'와 후반부의 '답하는 노래'로 나뉘며, '묻는 노래'에는 사대부로 추정되는 화자가 등

장해 목동에게 질문을 하고, '답하는 노래'에는 목동이 등장해 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독특한 구성을 보여 준다. '묻는 노래'의 화자는 벼슬길에 나아가 세상을 구하고 백성을 구제하는 경세제민의 삶을 바람직한 삶의 방식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해 '답하는 노래'의 화자는 자연에 묻혀 욕심 없이 사는 삶을 강조한다. 두 화자가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을 주장하지만, 작가는 둘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가를 묻지 않고, 그 둘이 모두 사대부가 지녀야 할 삶의 태도라고 말하고 있다. 때를 만나면 세상에 나아가고 때를 못 만나면 정처 현실에서 물러나 자연을 즐기며 산다는, 사대부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두 화자의 목소리로 진술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세상을 위한 출세의 삶과 자연에서 누리는 안분지족의 삶 사이에서 모색하는 바람직한 삶

구성 ▶

- 문가(問歌: 양반이 목동에게 묻고 말하는 부분): 인생은 유한하므로, 입신양명에 힘써 세상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함으로써 후세에 이름을 남길 것을 권유함.
- 답가(答歌: 목동이 양반에게 대답하는 부분): 부귀공명은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며 수많은 이름난 이들이 벼슬길에서 고초를 당했던 사실을 헤아려, 욕심을 잊고 분수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함.

4 이정, 「풍계육가」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중기의 문인 이정(李淨: 1520~1594)이 쓴 총 6수로 된 연시조이다. 모두 여섯 편으로 구성되는 '육가형 시조'는 사시가, 어부가, 구곡가와 함께 연시조의 하위 유형 가운데 하나이며 '풍계육가'는 '육가형 시조'의 대표작 중 하나이다.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그중 하나는 자연에 대한 강한 긍정이다. 이는 <제1수>의 초장과 중장, <제2수>의 중장에 잘 드러나 있다. 다른 하나는 세속에 대한 강한 거부감이다. 이는 <제2수>의 초장과 중장, <제4수>의 초장, <제6수> 전체에 잘 드러나 있다. 이 작품에서는 자연에 대한 긍정과 세속에 대한 거부감이 두 가지 주제 의식이 시적 긴장을 조성하면서 시상이 전개된다.

주제 ▶ 자연 친화적인 삶의 지향과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

구성 ▶

- 제1수: 자연 친화적인 삶의 태도
- 제2수: 세속에 대한 거부감과 자연에서 누리는 소박한 삶
- 제4수: 세상 사람들의 욕심에 대한 비판과 청빈한 삶의 강조
- 제6수: 세속적 삶에 대한 경계

4 김사습, 「고금군자은현론」

해제 ▶ 이 작품은 조선 전기의 사상가이자 문인인 김사습이 선비의 바람직한 거취를 주제로 하여 쓴 한문 수필로서, 그의 문집 『매월당집』에 수록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글쓰이는 벼슬길에 올라 나라와 백성을 위해 노력하는 '출세의 삶'과 벼슬에서 물러나 도를 지키는 '은거의 삶'에 대해 논의하면서, 두 방식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기준은 그것이 '의리'와 '시의'에 맞는가에 놓여 있다고 주장한다. 글쓰이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

해 공자, 이윤, 부열, 강태공, 도연명, 백이와 숙제 등 다양한 역사적 인물의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주제 ▶ 선비의 바람직한 거취

구성 ▶

- 처음: 군자의 바람직한 거취를 판단하는 기준은 의리와 시의에 맞는가에 놓여 있음.
- 중간: 의리와 시의에 맞게 출세의 삶 또는 은거의 삶을 현명하게 선택했던 역사적 인물의 사례
- 끝: 의리와 시의가 아닌 개인의 이익과 명성을 위해 은거의 삶을 선택하는 간사한 인물의 사례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는 두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데 (중략) 이전의 화자는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니’와 같이 대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삶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바람직한 삶의 가치로서 입신양명을 강조한다. 반면 (중략) 이후의 화자는 송아지와 일하는 소, 희생(제사 때 제물로 바치는 산 짐승)으로 쓰이는 소를 서로 비교하면서, ‘어미 좇아 녹음간에 절로 놓여’, ‘코뚜레 코에 끼고 긴 고삐 굳게 매어’,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흠어지니’와 같이 서로 대조되는 생을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입신양명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욕심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의 가치를 지향한다. (나)의 화자는 ‘청풍’, ‘명월’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홍진’을, ‘작록’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피집’을 사용하여, 세속적 욕망을 경계하고 자연에서 욕심 없이 사는 삶의 가치를 강조한다. (다)의 글쓴이는 ‘은거함’과 ‘벼슬함’, ‘이익’과 ‘의리’, ‘고상하고’와 ‘구차한’과 같이 대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군자가 물러서고 나아감에 있어 소중히 여겨야 하는 가치를 강조한다. 따라서 (가)~(다)는 모두 대조적 의미를 지닌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 또는 글쓴이가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와 (다)에서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 아울러 (다)의 내용은 인생에 대한 무상감과는 관련이 없다. (가)의 경우 ‘인생 백 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라는 표현에서 인생에 대한 무상감이 드러나기는 하지만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무상감을 드러낸 것은 아니다. (나)의 경우 ‘청풍’, ‘명월’로 제시되는 자연과 ‘홍진’으로 표현되는 인간 세상의 대비가 나타나고 있지만, 자연과 인간을 대비하여 드러내려는 바는 세속적 욕망에 대한 경계와 자연에서의 욕심 없는 삶의 긍정이어서 인생에 대한 무상감과는 무관하다.

② (가)는 두 인물 사이의 문답 형식으로 시상이 전개되며,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쓰이지 않았다. (나)와 (다)에도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은 쓰이지 않았다.

④ (가)~(다) 모두에서 과거와 현재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세태에 대한 비판은 (가)~(다) 모두에서 어느 정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지만 ‘변화한’ 세태에 대한 비판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⑤ (가)에서 ‘저더러 물어보면 어느 소 되려 할꼬’라는 구절의 인칭 대명사 ‘저’를 ‘소’를 이르는 말로 본다면,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는 표현이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화자는 세 종류의 ‘소’로 상징되는 세 가지 삶의 방식을 서로 견주어서 바람직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물의 특성에서 유추한 교훈적 의미를 전달한다는 진술은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다. 그러나 (나)의 경우 자연 친화의 태도를 뚜렷이 보여 주고는 있지만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지도, 그로부터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지도 않다.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거나 그로부터 교훈적 의미를 이끌어 내고 있지 않는 것은 (다) 역시 마찬가지이다.

02 사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갑’은 ‘인간 영욕을 아는가 모르는가’라고 말한 다음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 공명을 이루고 입신양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을’은 ‘우리는 어리석어 대도를 몰라’라고 말한 다음 ‘우리는 잘 보아 내 분수만 지키려니’라고 말하며 출세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자유롭게 한가롭게 살 것을 주장한다. ‘갑’의 주장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상대(‘갑’)에게 배우려고 하는 ‘을’의 태도가 드러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생애는 유한하고 사일은 무궁하니 / 유한한 생애로 썩지 않을 이름을 / 영구히 전하여 천지와 함께 무궁하려고’에서 알 수 있듯이 후대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의식은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한다. (가)에는 인생의 유한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인생 백 년이 풀 끝에 이슬이라’는 구절이다. 그러므로 ‘인생 백 년이~이슬이라’에 담겨 있는, 인생의 유한성에 대한 화자의 인식이 후대에 이름을 남겨야 한다는 의식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두 구절에 쓰인 ‘운명’, ‘운수’와 ‘재천’이라는 표현은 모두 인간의 삶에 작용하는 불가피한 운명을 뜻한다. (가)의 두 화자는 지향하는 삶의 방식 면에서 차이가 있지만, 운명에 의해 결정되는 인간 삶의 요소(갑-수명, 을-영락, 부귀)가 있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서로 같다.

④ ‘갑’은 ‘공명도 못 이루고’, ‘그 아니 느껴우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살아생전에 공명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는 생각, 다시 말해 살아 있는 동안 공명을 이루기 위해 힘써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반면 ‘을’은 부귀공명과 같은 세속적 성취는 인간이 의도적으로 얻으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는 생각, 즉 공명을 이루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⑤ ‘형용이 초췌하’고 ‘잔흔이 영락하’며 ‘눈썹을 찡그리니 시름이 많’아 보인다는 말은 모두 부정적인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으로, ‘을’의 눈에 비친 ‘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현은 입신양명을 추구하는 ‘갑’의 모습에 대한 ‘을’의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03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서 화자는 삶의 세 가지 유형을 세 종류의 소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다. ㉠와 ㉡의 소는 좋은 먹이를 넉넉히 먹거나 화려하게 장식된다는 점에서 좋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고되게 일하거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의 소는 먹고 마시는 것은 푸성귀와 시냇물에 불과하지만 자연에서 자유로운 삶을 누린다. 화자는 이 세 유형의 소를 비교한 후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면서, ㉢의 소로 상징되는 자연에서의 검소하고 자유로운 삶을 가장 바람직한 삶으로 긍정한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 관점에 따라 다양할 수 있음을 나타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의 소를 묘사한 내용 중에 ‘녹음간에’는 자연에서의 삶을, ‘푸성귀 뜯어 먹고 시냇물 흘려 마셔’는 검소한 삶을, ‘절로 놓여’와 ‘제 맘대로 다니기와’는 자유로운 삶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에서의 검소하고 자유로운 삶을 ㉢의 소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② [A]에서 ㉠의 소를 묘사한 내용 중에 ‘곤 궁대 삶은 콩을 배까지 찰지라도’는 물질적으로 넉넉한 삶을, ‘불 같은 여름벌에 큰 쟁기 마주 매어’는 고단한 삶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질적으로 넉넉하지만 고단한 삶을 ㉠의 소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A]에서 ㉡의 소를 묘사한 내용 중에 ‘일시에 빛나기야’, ‘비단 거적’, ‘붉은 실’은 화려한 삶을, ‘백정의 큰 도끼에 뼈마디가 흩어 지니’는 위태로운 삶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려하지만 위태로운 삶을 ㉡의 소에 빗대어 표현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④ [A]에서 화자는 ㉢의 소를 ㉠의 소와 비교하면서 ‘어느 것이 한가하고 어느 것이 괴로운고’라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해 ㉠의 소로 상징되는 삶을 강하게 긍정하고, ㉢의 소로 상징되는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 이때 ㉢의 소로 상징되는 삶이 부정

적으로 평가되는 까닭은 그것이 한가함을 잃고 괴로운 것이기 때문이다.

04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제1수>에서 화자가 창(窓)을 닫지 않은 것은, 청풍(맑은 바람)이 주는 즐거움을 계속하여 누리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행동이다. 그러므로 ㉠이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제2수>에서 화자가 손수 닫은 문(門)을 늦게까지 닫아 둔 이유는 <제2수> 초창의 ‘작록을 마음에 둘고(작록에 마음을 두겠다는가)’에 담겨 있는 세속적 가치를 멀리하려는 마음, 세속과 단절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세상과 단절되고자 하는 화자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도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자연을 사랑하여 더 오래 가까이하려는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을 닫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1수>의 종장인 ‘옛사람 이 두 가지 두고 어디 혼자 갔노’는 ‘청풍’과 ‘명월’, 즉 자연이 몹시 좋은 것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강조한 표현일 뿐 옛사람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낸 것은 아니다. <제2수>에서 화자는 ‘작록’으로 상징되는 세속적 목표에는 관심이 없으며 자연 속에 검소한 ‘피집’을 이루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이 목표를 이루지 못한 데에서 오는 실망감을 나타내는 소재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③ ㉠은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를 부각하기 위해 쓰인 소재이다. 그리고 [나]에서 전체적으로 세속적 가치(‘작록’, ‘오두미’)와 자연(‘청풍’, ‘명월’, ‘시내’)이 대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을 닫지 않고 잠도 들지 않을 만큼 자연을 좋아하는 화자의 모습은 세속적 가치에 무관심한 화자의 태도에서 비롯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은 세속적 가치에 무관심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재로도 이해된다. <제2수>에서 화자는 의문형 표현을 사용하여 세속적 가치에 마음을 두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부각한다. 그러므로 ㉡을 통해 이상적 공간을 찾는 데 실패한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④ ㉠과 ㉡은 모두 기대가 좌절된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태도와는 무관하다. 지문에 제시된 「풍계육가」 <제1수>, <제2수>, <제4수>, <제6수>에 기대가 좌절된 현실을 수용하려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⑤ 지문에 제시된 「풍계육가」 <제1수>, <제2수>, <제4수>, <제6수>에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과 ㉡도 모두 현실에 대한 화자의 미련과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과 ㉡이 현실을 부정하면서도 현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화자의 내면을 보여 주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05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가 ‘여관 같은 세상에 하루살이같이 나왔다’라고 말한 것은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말을 한 화자는 생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한 번뿐인 짧은 삶이니 세상에 나아가 공명을 이루어 후대에 이름을 남기는 것이 바람직한 삶이라는 생각을 펼친다. 그러한 생각은 ‘하늘의 뜻을 이어 법칙을 세움은 옛 성인의 사업이요’와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전함은 대장부의 할 일이라’라는 구절에 드러나 있다. 그러므로 화자가 도를 지키는 은거의 삶을 지향한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인생 저렇도다 소 치기에 아느니라’라는 구절에 담긴 의미는 그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제시된다. 해당 구절 다음에는 세 가지 경우의 소에 빗대어 세 가지 유형의 삶에 관해 언급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화자는 화려한 출세의 삶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반면, 자신의 분수에 만족하여 욕심 없이 자유롭게 사는 삶을 강하게 긍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생각을 ‘내 분수만 지키려니’라는 표현으로 요약해 제시한다. 그러므로 ‘인생 저렇도다~아느니라’, ‘내 분수만 지키려니’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출세의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분수에 만족하여 욕심부리지 않는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③ (나)의 화자는 ‘내라서 누구라 하여 작록을 마음에 돌꼬’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벼슬에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자신의 세간이 ‘낙숫대 하나 외에 거칠 것이 전혀 없어라’라고 말하면서 소박한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④ (나)의 화자는 ‘홍진(세속)에 나아가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나아가는 출세의 삶을 경계하고 있다. 한편 ‘명월을 종이 여겨 잠을 아니 들었노라’라고 말하면서 달을 완상하느라 밤을 새울 만큼, 자연의 즐거움을 누리는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⑤ (나)의 ‘바람 비 어지러워 칼과 톱이 무서워라’는 출세의 삶에 수반되는 위험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출세의 삶을 위태로운 것으로 여기는 화자의 생각을 함축하고 있다. ‘조그만 띠집을 시내 위에 이룬바’는 자연에 은거하는 화자의 삶을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바람 비~무서워라’, ‘조그만 띠집을~이룬바’라는 표현에 출세의 삶을 위태롭게 여기면서 자연으로 물러난 은거의 삶을 지향하는 화자의 내면이 드러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의 글쓴이는 벼슬에 나아감에도 옳고 그름이 있고, 물러서 은거함에도 옳고 그름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옳고 그름의 기준

은 벼슬에 나아가거나 물러나 은거할 때 그 선택이 의리에 합당하고 시의에 맞는가의 여부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거취의 결정이 초래한 결과보다 거취를 결정하는 동기나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선비의 거취에 대한 평가가 그 결정이 낳는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다)에서 말하는 ‘군자의 처신’은 ‘벼슬함’과 ‘은거함’ 사이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리고 글쓴이의 주장에 따를 때 ‘벼슬함’과 ‘은거함’의 적절함은 그것이 의리와 시의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러한 내용을 고려할 때, ‘군자의 처신’이 어려운 까닭은 군자의 거취가 ‘의리’와 ‘시의’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기 때문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② (다)에서 글쓴이는 미자, 백이와 숙제가 벼슬에서 물러난 일을 ‘은거함’의 올바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글쓴이의 주장에 따르면 ‘은거함’의 옳고 그름은 그것이 ‘의리에 맞는가’, ‘도를 행함 직한가’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미자, 백이와 숙제의 처신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은, 그들의 거취가 ‘의리에 맞는가’, ‘도를 행함 직한가’를 판단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③, ④ (다)의 글쓴이는 ‘벼슬함’과 ‘은거함’ 사이에서 결정을 할 때 각각의 상황에서 의리와 시의에 맞는지를 헤아려서 결정을 하는 것이 올바른 거취라고 말한다. 반면 사적인 이익과 명성에 대한 욕심 때문에 결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거취라고 말한다. 이윤과 부열, 강태공은 올바른 거취의 사례로 제시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벼슬함’이 구차한 일이 아니라 올바른 거취가 되는 까닭은, 이들에게 ‘각각 그 처한 상황’에 따라 그리하기로 결정해야 할 만한 마땅한 이유(의리와 시의에 부합함)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글쓴이는 ‘간교한 신하’와 ‘위선적인 선비’를 ‘흉내 내는’ 것에 불과하고 ‘거론할 것도 없다’고 말하며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은거함’이 사적인 이익과 명성에 대한 욕심에 따라 내려진 결정이기 때문이다.

06

갈래 복합

본문 273~277쪽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②

06 ④

㉠ 한용운, 「낙원은 가시덤불에서」

해제 ▶ 이 작품은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깨달은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1연과 2연에서는 계절이 바뀔 때 따라 자연물이 사라지지 않고 다음 계절에 새롭게 탄생한다는 ‘자연의 인생’, 곧 자연의 섭리를 형상화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3연에서는 세상의 모든 존

재에는 우주적 진리가 깃들어 있으므로 우리 '인생'이 자연과 다르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고통도 삶의 필연적 과정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환희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는 진리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자연의 순환적 질서를 통해 깨달은 인생의 진리

구성 >

- 1연: 쇠잔한 눈이 가져다주는 봄기운
- 2연: 여름의 녹음이 다한 후 가을 산에 몰든 단풍
- 3연: 고통을 극복하고 환희의 낙원을 건설할 생각에 행복해하는 '나'

ㄹ 신경림, 「산에 대하여」

해제 > 이 작품은 '낮은 산'을 '높은 산'과 대비하여 소박한 삶의 기쁨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있다. 화자는 '낮은 산'이 나지막이 엮드려 있고, 동네까지 내려와 사람 사는 모습을 구경하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편한 길이 되어 주고, 젊은 연인에게 사랑을 주는 은신처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다. 또 '낮은 산'이 힘들고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작고 소박한 일에 기쁨을 느끼며, 서로 다투고 화해하고 다시 웃을 줄 아는 사람 사는 재미를 안다고 밝히고 있다. '낮은 산'은 힘과 권력이 없는 연약한 인간을 상징한 것으로, 화자는 이들이 겸손하고 친근하고 타인을 위해 배려하고, 소박한 삶의 기쁨과 사람 사는 재미를 아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주제 > 낮은 산을 통해 깨달은 인간적인 삶의 모습

구성 >

- 1, 2행: 산과 관련한 일반적 통념에 대한 부정
- 3~11행: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낮은 산의 모습
- 12~21행: 낮은 산만이 아는 여러 긍정적인 것들
- 22~26행: 산과 사람의 다양성에 대한 인식

ㄹ 박지원, 「능양시집 서」

해제 > 이 작품은 글쓴이가 조카인 박종선의 「능양시집」에 쓴 머리말로, 「연암집」에 실려 있다. 조선 후기는 근대적 징후가 일어나는 시기로, 글쓴이는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치관과 인식 태도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보았다. 이 글에는 이러한 글쓴이의 인식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까마귀'와 '미인'을 예로 들어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열린 사고와 새로운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주제 > 세상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과 태도에 대한 성찰

구성 >

- 기: 달사와 속인이 사물을 보는 방식의 차이점
- 승: 까마귀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 관념의 오류 지적
- 전: 미인에 대한 선입견과 고정 관념의 오류 지적
- 결: 사물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이들에 대한 탄식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는 '고통의 가시덤불'과 '환희의 낙원'을 대비하여 고통을 인내해야 낙원에 도달할 수 있음을 전달하였다. (나)는 '크고 높은 산'과 '낮은 산'을 대비하여 낮은 산만이 지니는 긍정적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다)는 어리석은 '속인'과 현명한 '달사'를 대비하여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는 바람직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세 작품 모두 대조적인 특성을 보인 대상을 대비하여 그와 관련한 화자와 글쓴이의 새로운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 (다)의 '아! 저 까마귀를 보라', '아! 연암 노인이 연상각에서 쓴다'에 영탄법이 쓰였다. 그러나 (나)에는 영탄법이 쓰이지 않았다.

③ (가)와 (나)에는 의인화 기법이 쓰였지만 이를 통해 부조리한 현실의 모습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다)에는 의인화 기법이 쓰이지 않았다.

④ (가)와 (다)에는 색채 이미지가 쓰였지만 이를 통해 대상의 역동성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나)에는 대상의 역동성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를 드러내기 위해 색채 이미지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⑤ (가)는 '쇠잔한 눈', '봄기운', '단풍' 등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여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드러내었다. (나)와 (다)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드러내기 위해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활용하지는 않았다.

0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흰 구름을 겨드랑이에 끼'는 존재는 '낮은 산'이 아니라 '높은 산'이다. 따라서 '어깨로 바람 맞받아치며 사는 것'은 '높은 산'의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모두'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모든 존재가 제 나름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낮은 산'과 같은 약한 존재가 '높은 산'과 같은 강한 존재보다 더 영속적인 존재임을 표현한 것이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쇠잔한 눈'이 '구슬 같은 꽃방울을 뿜' 준다는 것은, '눈'이 점차 소멸하는 상황에서도 '꽃방울'과 같은 새로운 자연물이 생성된다는 진리를 나타낸 것이다.

② (가)에서 '노래도 부르고 울음도' 우는 '단풍'을 '지난여름의 무르녹은 녹음'이 준다는 것은, '녹음'이 우겨진 여름이 지나면 '단풍' 지는 가을이 오는 자연의 순환 원리가 대자연의 한 섭리임을 나타낸 것이다.

③ (가)에서 '님을 떠'나면서도 '나는 아아 행복입니다'라고 한 것은, 이별의 고통 뒤에 행복이라는 환희가 오는 것이 생의 본질임

을 나타낸 것이다.

④ (나)에서 ‘어떤 산’은 ‘낮은 산’으로, 누군가에게 ‘순하디순한 길’이나 ‘따뜻한 사랑의 숨을 자리’가 되어 준다는 것은, ‘낮은 산’이 지닌 덕성 중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③ 글쓴이가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라?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 버린다.’라고 한 것은 직접 관찰하지도 않고 까마귀의 색은 이렇 것이라는 고정 관념으로 까마귀의 색을 파악하려는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이는 선입견을 지니고 대상을 판단하려는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따라서 이 말이 마음으로 본 것만 진실로 여기고 눈으로 본 것은 진실로 여기지 않는 태도를 지적한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백로를 기준 삼아 까마귀를 비웃고 물오리를 기준 삼아 학의 긴 다리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는 것은, ‘백로’와 ‘물오리’만으로 다른 대상을 판단하려는 태도, 즉 자신의 좁은 식견으로 한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②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다는 것은, 까마귀가 하나의 색만 지녔다고 여기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나타낸 것으로, 획일화된 관점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대상을 파악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④ ‘한 가지 법에 매이지 않고 온갖 시체를 두루 갖추었으니, 우뚝이 동방의 대가가’ 되었다는 것은, 종선이 무조건 특정한 문체만 따르려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여러 문체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려는 유연한 사고를 지녔음을 칭찬한 것이다.

⑤ ‘세상 사람들은 미인을 재계하는 모습이나 불상처럼 만들고 싶어’ 한다는 것은, 미인은 이런 모습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고정 관념에 얽매어 미인이 다양한 자태를 지니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속인의 태도를 나타낸 것이다.

04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④ [A]에서는 작은 ‘일경초’가 큰 ‘장륙금신’이 되고, 그 반대로 될 수 있다는 역설적 표현이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존재에는 우주적 진리가 깃들어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B]에서는 ‘~지 않은 것이 없다’처럼 이중 부정을 통해 세상의 사물은 빛깔이 있으면 빛이 있고 형체가 있으면 자태가 있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나타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B]에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세상의 사물에 담겨 있는 진리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A]에서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

② [A]에서는 ‘~가 ~이 되고, ~이 ~가 됩니다.’, ‘~는 ~요, ~는 ~입니다.’의 형식이 쓰였지만 이를 통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각자 고유한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B]에서는 ‘~은 ~ 때문에 ~ 수 있’다, ‘~이/가 있는 것엔 ~이/가 있지 않은 것이 없’다의 형식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세상의 모든 것에 개성이 있음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다.

③ [A]에서는 인과의 표현이 활용되지 않고 있다. [B]에서는 인과의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사물이 유한한 존재라는 진리를 나타내고 있지는 않다.

⑤ [A]에는 자연과 인간의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지 않다. [B]에는 모든 존재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인간과 자연의 공통점을 근거로 자신의 긍정적 처지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② ㉠의 뒤에서 글쓴이는 미인들은 다양한 자세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음에도 어떤 사람은 특정 자세만이 진정한 미인의 모습이라고 여긴다며 비판하고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종선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미인을 관찰하면 시를 알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미인의 모습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것처럼 시도 특정 문체가 아니라 다양한 문체로 쓰일 수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의 ‘안다’는 소박하고 사소한 일에 즐거워하는 낮은 산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③ ㉠은 산이 낮아진 이유가 아니라 낮은 산의 속성을 나타낸 것이다. ㉠은 시를 쓰는 바람직한 방법을 알 수 있다는 것으로, 글쓴이가 미인의 처지를 이해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다.

④ ㉠은 낮은 산의 특성을 드러낸 말로, 이를 통해 화자가 낮은 산에 대해 긍정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에서 미인은 글쓴이가 인용한 대상일 뿐, 글쓴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⑤ ㉠은 화자의 특성을 드러낸 것일 뿐, 이를 통해 화자의 인식 변화를 드러내지는 않는다. ㉠ 역시 미인으로 인한 글쓴이의 태도 변화를 드러내지 않는다.

06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옳답인 이유

④ ‘계지의 동산에는 까마귀가 문득 푸르렀다 붉었다 한다.’는 계

지가 까마귀를 고정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열린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의 시가 이러한 열린 관점으로 창작되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계지의 동산에 까마귀가 여러 색깔을 지녔다는 것이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과 사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④는 구름, 시냇물, 단풍 등의 소재를 활용하여 가을을 맞이한 산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② ⑥는 계절의 순환과 관련된 자연의 섭리를 바탕으로 화자가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려 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⑤는 마을 가까이 있는 뒷동산처럼 사람들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는 낮은 산의 특성을 의인화하여 표현하고 있다.
 ⑤ ⑥는 글쓴이가 이 글을 쓰는 것을 주저하는 상황을 밝히고 있다. 글쓴이는 세상의 이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곧 속인들이 많은 현실을 비판하며, 차라리 그 생각을 밝히지 않는 편이 나을지 모른다고 말하고 있다.

07

갈래 복합

본문 278~282쪽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②

㉠ 이학규, 「박꽃이 피어난 집」

해제 > 이 작품은 유배지의 좁고 열악한 집에서 더위에 괴로워하며 살아가던 글쓴이가 한 객객이 들려준 머슴들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서술한 수필이다. 객객이 들려준 이야기를 인용하여 그와의 우연한 대화를 통해 자신이 잊고 지냈던 삶의 교훈을 깨닫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다.

주제 > 고통스러운 삶의 조건을 극복하는 삶의 지혜

구성

- 기: 협소하고 열악한 곳에서 더위와 싸우며 지내는 어려움
- 서: 객객이 객지를 다니며 만난 머슴들의 여유로운 삶의 모습
- 결: 머슴들의 여유를 본받아 현재의 삶의 조건을 새롭게 바라보고 자신을 성찰해야 할 필요성

㉡ 공선옥, 「한데서 올라」

해제 > 이 작품은 삶의 공간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고민하는 한 주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도시 아파트에서의 삶과 시골 마을 땅집에서의 삶을 대조적인 공간으로 놓고 '집'의 의미를 고민하는 주인공과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고 갈등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주제 > 폭력적 도시와 물질만능주의 가치관에 상처 입은 현대인의 방황

전제 줄거리 > 정희네 가족은 어렵게 아파트를 장만하여 살고 있지만 정희는 아파트의 소음, 군중 속에서의 각박한 삶을 '한데'에서의 삶이라고 인식하며 그곳에서 벗어나 자연과 가까이하는 삶을 살고자 시골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 한다.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집을 인식하는 남편과의 갈등 끝에 결국 시골집으로 이사를 하지만, 시골에서의 삶이 기대한 것보다 소란스럽다는 것과 사냥꾼들이 벌인 사건에 놀라 정희는 다시 도시의 집으로의 이사를 원하게 된다. 그러나 시골집으로의 귀갓길에 만난, 그동안 불쾌하게 여겼던 트럭 장수와 직접 대화를 나누는 우연한 경험을 통해 오해하던 것이 해소됨을 느끼며 마음의 방향을 매듭짓게 된다.

01 작품의 맥락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객지에서 만난 여러 사람들에게 대한 외양이 묘사되어 있지만 그 묘사는 상황에 따른 태도의 변화를 드러내는 것과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여관집 머슴들이 편안해 보이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그들이 '여관을 여관'으로 여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여 거기서 얻은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② 여관집 머슴들이 음식을 대하는 태도, 잠자리를 대하는 태도 등을 사례로 들어 본받아야 할 삶의 태도를 제시하고 있다.
 ④ 여관집 머슴들이 남다른 삶의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객객 자신의 태도와 비교하여 듣는 이의 관심을 유발하고 있다.
 ⑤ 객지에서의 잠자리, 타인과 동숙을 했을 때 겪을 수밖에 없었던 다양한 일들을 열거하여 자신이 머물던 곳에서의 어려움을 강조하고 있다.

02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정희는 자신이 불쾌하게 여기는 소리를 틀어 대는 트럭을 만나자 그 불쾌한 마음에 트럭이 어서 지나가기를 바라며 고개를 돌린 채 기다리고 있다. 차가 가까이 올수록 노랫소리가 선명하다고 한 것은 멀리서부터 노랫소리를 들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트럭을 마주친 것에 놀랐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객객은 글쓴이가 도를 지키고자 수양을 하던 선비임을 일깨움으로써 현재의 문제 상황을 극복할 방법은 자신의 내면에 있음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② '속에서 일어나는 불', '질병'은 글쓴이가 겪고 있던 괴로움의 상황을 가리킨다. 객객은 이러한 괴로움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글쓴이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④ 정희는 운전석 옆자리에 아이가 있는 것을 보고 의외라고 생각하며 클랙슨을 울려 트럭을 멈춘다. 그러면서도 아직 '속으로는 뼈죽거리는 심보'라고 스스로의 기겁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시내'는 정희가 시골집을 떠나 새로 살 집을 구하기 위해 나간 곳이지만, 시골집의 불편한 요소 중 하나이던 트럭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고 또 시내 주차장에서 겪은 불편한 일을 떠올리며 이제는 시골집에서의 삶에 정착해야겠다고 생각한다.

03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과객은 글쓴이가 현재 머무는 곳의 조건이 열악함을 말하며 어려움을 토로하자, 삶이란 임시적인 것임을 여관(㉠)에 비유하여 언급하며 그 임시적인 삶 속에서 또 임시적인 곳(㉡)에 머물고 있음을 새겨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쓴이가 지금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과 ㉡은 인간의 삶에 대한 비유로, 처세 방법을 비유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③ 과객은 ㉡에서의 삶이 더 고되고 어려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여관 속의 여관'이라는 표현을 통해 글쓴이의 생활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 점을 생각하며 글쓴이가 자신의 현실을 견딜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과 ㉡은 모두 삶의 유한함과 비영속성을 말하기 위한 비유로, 서로 대조를 이루는 관계라고 볼 수 없다. 또 둘 중 어떤 것을 더 중시하는 태도를 보인 것도 아니다.

⑤ 글쓴이는 현재 자신의 삶의 괴로움에 주목하였지만 과객은 그 삶의 임시성을 강조하고 있다.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로 여길 수 있도록 과객이 설득하고 있는 것이다.

04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정희의 남편이 동네 입구에 사는 여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다니고는 있지만, 남편이 그것을 먼저 제안했는지 알 수 없으며, 친화력에 대한 진술 역시 찾아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남편은 틀림없이 그림 달나라에 가 살라고 하고도 남을 지었다',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에서 정희는 집을 옮기겠다는 생각을 남편에게 설명하는 일에 압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자신을 괴롭혔으면 어디를 얼마나 괴롭혔다고, 자신을 짜증

나게 했으면 어디를 얼마나 짜증 나게 했'냐고 스스로 자문하며 트럭의 카세트 소리 때문에 느끼는 자신의 불쾌감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③ 정희는 도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것 때문인가', '도시로 다시 나오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어떻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까'라며 스스로에게 도시로 다시 가고자 하는 이유를 자문하고 있다.

④ '남편은 그 덕분에 길어진 출퇴근길이 주는 스트레스를 토했더니 그녀에게 쏟아 내곤 했다.', '남편과 '사투'를 벌여 가며 이주를 해 온 시골집'에서 정희의 남편은 원치 않던 이사를 하게 되는 바람에 출퇴근길이 길어졌고, 이로 인한 불편한 반응을 내비쳤음을 알 수 있다.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A]의 '햇볕이 쏟아져 들어와', '벌레에 물린 자리를 긁어 대느라 지치고', [B]의 카세트 트는 소리와 확성기 소리는 모두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인물이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느끼는 불쾌감을 생생하게 형상화한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와 [B] 모두 특정 사건을 순차적으로 서술하거나 그에 따른 반응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② [A]에는 여름이라는 계절적 배경이 나타나 있으나 [B]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서는 '높이가 한 길이 채 되지 않고 너비가 아홉 자가 되지 않는다', '인사하려면 갓이 걸리고, 드러누우려면 무릎을 구부려야 한다' 등에서 유사한 통사 구조를 반복하여 상황 극복의 어려움을 드러낸다. [B]에서는 '~소리'를 열거하여 특정 소리들로 인해 느끼는 심리를 표현하였지만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지 여부는 알기 어렵다.

⑤ (나)의 일부 부분에 스스로 묻고 답하는 표현이 있지만 [A], [B]에서는 스스로 묻고 답하는 표현을 찾을 수 없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글쓴이는 '과객'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을 괴롭히던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을 달리하게 되고,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고 있다. 즉 스스로에 대해 윤리적 성찰을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인식은 드러나 있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과객은 여관집의 머슴, 종과의 만남을 통해 얻은 자신

의 판단이 경험을 일반화한 것임을 말하고 있다.

③ (나)에서 정희는 번개탄 장수와 아이와의 만남을 통해 이제껏 생각하지 못했던 번개탄 장수의 상황을 알게 된다. 정희가 번개탄 장수로 인한 소음을 불쾌하게 여기던 당시에는 아이가 함께 있으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은 그동안 제한된 인식에 갇혀 타인이 생계로 인해 처해 있는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느끼고 윤리적 성찰을 하게 되는 부분이다.

④ (나)에서 번개탄 장수와 아이의 만남을 통해 그의 상황을 헤아리게 된 정희는 트럭 안에 타고 있던 아이의 상황에 마음이 쓰이게 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은 정희가 번개탄 장수에 대해 짐작하던 내용과 번개탄 장수에게 품었던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객객은 자신이 관찰한 여관집의 모습, 종의 태도를 말하기에 앞서 자신이 객사에서 머문 경험이 매우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글쓴이와 다른 경험을 한 것이 외부의 상황을 수용하는 다른 관점을 만들었음을 말하기 위해서이다. (나)에서 정희가 트럭을 만나 번개탄 장수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은 정희의 인식이 바뀌게 된 계기를 제공한다. 정희는 앞서 요즘 누가 연탄을 때는 사람이 있다고 번개탄을 팔고 번개탄을 시끄럽게 광고하는지 불만을 토로하는데, 이 장면에서 '번개탄도 있잖아요.'라는 정희의 말에 '요새도 분명히 연탄 때는 집이 있'다고 번개탄 장수가 건네는 대답은 정희가 특정한 인식에 갇혀 다른 이들의 처지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고, 그 인식이 번개탄 장수와는 달랐던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전체 줄거리 ▶ 남도 바다에서 낚시를 하며 일상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해방감을 느끼는 서울 낚시꾼은 종종 남도 토박이인 김선두의 배를 이용한다. 김선두의 배를 타고 낚시를 하던 서울 낚시꾼은 김선두를 통해 기름 유출 사건을 들으며 노여움을 느낀다. 그러다 바다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김선두의 행동에 반감을 느껴 제재를 가하는 서울 낚시꾼에게, 김선두는 자신의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로 인해 바다가 오염되고 있다는 실상을 전한다.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행태는 환경 오염의 심각성으로만 한정되지 않고 인간에 대한 인간의 폭력적인 상황에서도 드러난다. 김선두는 바다 오염에 대해 분노할 때와 마찬가지로,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은폐되고 왜곡된 상황에 대해 분노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 윤대영, 「한 그루 나무처럼」

해제 ▶ 이 글은 약수터에서 발견한 참나무 한 그루와의 인연을 통해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 주는 수필이다. 글쓴이는 참나무에 박힌 녹슨 대못을 빼낸 것을 계기로 참나무와 인연을 맺고 교감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한결같이 서 있는 참나무를 보며 자신의 삶을 반성함과 동시에, 자신도 한 그루 나무처럼 살고 싶다는 바람을 드러낸다.

주제 ▶ 한 그루 나무처럼 변함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바람

구성

- 처음: 주말마다 산행을 하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
- 중간: 약수터 옆에 서 있는 참나무의 녹슨 대못을 빼낸 것을 계기로 참나무와 인연을 맺고, 마음이 어지럽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마다 참나무를 찾아가 위안을 얻음.
- 끝: 한 그루 나무처럼 다른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사람,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됨.

0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김선두와 서울 낚시꾼의 대화를 통해 작년에 바다에서 벌어진 화물선 사고가 어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건에 대한 정보를 통해 상황의 심각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B]에는 낚시를 하는 동안 예사롭게 쓰레기들을 배 밖으로 던지는 김선두의 모습에 대한 서울 낚시꾼의 반감이 제시되어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대대로 지어 묵던 어장이 하루아침에 지름밭이 되었 뿐졌지라.'를 통해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지만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지는 않다. 한편 [B]에서 김선두의 행동을 관찰한 서울 낚시꾼은 그의 행동을 거슬려 하고 있으므로 인물에게서 받은 인상을 통해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A]에서 외국 화물선이 불이 나 터진 사건에 대해 김선두와 서울 낚시꾼이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B]에는 김선두의 행동에 대한 서울 낚시꾼의 반감만

08

갈래 복합

본문 283~287쪽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③

㉠ 홍성원, 「남도 기행」

해제 ▶ 이 작품은 서울 낚시꾼이 남도 출신의 김선두와 함께 배를 타고 남해 바다 여기저기를 떠도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된, 바다 오염의 실상을 드러내고 있다. 환경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 자연에 폭력을 가하는 인간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으며, 환경 파괴로 인한 삶의 위기를 묘사함으로써 반성을 촉구하고 있다.

주제 ▶ 환경 파괴로 인한 삶의 위기에 대한 비판 및 환경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반성 촉구

드러나 있을 뿐, 인물의 상반된 심리는 나타나 있지 않다.

④ [A]에서 화물선이 터지며 안에 실려 있던 기름이 바다에 쏟아지는 바람에 양식장이 기름받이 되었다는 서술을 바탕으로 인과적 서술을 통해 현실 상황에 대한 문제를 비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B]에는 사건에 대한 요약적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

⑤ [A]에서 김선두나 서울 낚시꾼이 관찰을 바탕으로 객관적 상황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며, [B]에서 서울 낚시꾼은 바다에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는 김선두의 행동을 관찰하고 있는 것이지 내면을 추리하고 있지 않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바다 오염 야그만 나오면 나가 복장이 터져뿌요.’라고 말한 김선두는 서울 낚시꾼에게 바다 오염의 다양한 실태와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김선두가 말했듯이, 바다 오염과 관련된 이야기는 복장이 터질 정도로 마음에 답답함을 안겨 준다. 김선두는 바다 오염의 다양한 실태와 오염의 여러 원인을 속속들이 알고 있을뿐더러, 이야기를 통해 양식장 시설물로 인한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서울 낚시꾼에게 전한다. 따라서 ㉠의 ‘과연’은 김선두가 들려준 이야기가 서울 낚시꾼이 예상했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김선두의 표현처럼 마음에 답답함을 느끼게 하는 현실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느닷없이 욕설을 하는 김선두를 보며 서울 낚시꾼은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고요하게 웃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서 서울 낚시꾼은 과거 말 한마디 잘못 건넸다가 김선두로부터 반격을 당했던 경험을 떠올린다. 이를 통해 ㉡의 ‘오히려’는 서울 낚시꾼이 과거의 유사한 경험을 떠올렸기 때문에 보인 반응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김선두는 서울 낚시꾼이 보거나 말거나 담뱃갑이며 소독제, 심지어 맥주병까지 바다에 버린다. 따라서 ㉢의 ‘홀홀’은 서울 낚시꾼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김선두의 행동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④ 약수터에 서 있는 참나무 한 그루에 박혀 있는 녹슨 대못이 ‘나’의 눈에 하필이면 제일 먼저 들어왔다. 이를 계기로 참나무와 ‘나’의 인연이 시작되었으므로, ‘나’는 인연이 참으로 묘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따라서 ㉤의 ‘하필이면’은 우연한 발견이 ‘나’와 참나무와의 인연의 출발점이 되었음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우리의 옛 신화에는 지상과 천상을 이어 주는 ‘우주나무’가 있다. 이는 사람의 염원을 나무에 빌어 하늘에 전달하는 민간 신앙으로, 지금까지도 이러한 민간 신앙에 대한 믿음이 이어져 사람들

이 시골 느티나무에 오색 천을 감아 우주나무로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의 ‘아직도’는 지금도 시골에서는 사람들이 나무를 통해 자신들의 염원을 하늘에 전달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03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바다로 종이를 비롯한 자잘한 쓰레기를 버리는 김선두를 서울 낚시꾼은 못마땅하게 여기고 질책한다. 그러한 서울 낚시꾼에게 김선두는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는 기막힌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다 오염의 진짜 원인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인간이 설치한 양식장 시설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우리가 아는 바다 오염은~여러 종류의 양식장 시설물들이다.’를 통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생활 하수와 공장 폐수가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이 바다를 망가뜨리는 원인임을 김선두가 주지시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김선두는 자신이 버리는 자잘한 종이 쓰레기가 아닌, 바다를 오염시키는 진짜 원인인 양식장에 대해 알리고 싶어 한다. 사람들이 양식장 설치비를 뽑기 위해 한 종류의 해산물만을 연작하는 것이 문제임을 지적한 김선두는, 이로 인해 각종 해산물의 배설물이 바다 밑에 적체되고 양식장 바닥에 오니가 쌓여 오염된다고 말한다. 따라서 김선두가 자신이 버리는 종이 쓰레기가 양식장 바닥에 오니로 쌓여 바다를 오염시키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③ 김선두는 서울 낚시꾼에게 바다를 오염시키는 진짜 원인이 자신이 버리는 종이 쓰레기가 아니라 양식장 시설물임을 알리고 싶어 하므로, 자신들이 항구에서 떨어진 곳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⑤ 김선두는 자신이 버리는 종이 쓰레기를 건져 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지 않다.

04 구성 및 서사 구조의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녹슨 못을 빼내고 나니 마음이 그렇게 후련할 수가 없었다. 그 나무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를 통해 ‘나’의 마음이 후련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참나무를 보러 산에 오르면서부터, ‘나’는 나무가 무어라 자신에게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된다. 따라서 후련함을 느낀 동시에 나무가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약수터 옆에서 발견한 참나무의 녹슨 대못을 ‘손으로는 빼낼

재간이 없어 그대로 내려왔는데 두고두고 그 대못이 가슴에 남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나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서 있었고 내게 시원한 그늘을 내주며 때로는 미소를 짓거나 무어라 말을 건네 오는 것 같았다.’, ‘혹은 내게 위로의 말을 전해 주기도 했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참나무를 나의 우주나무로 삼게 된 셈이었다.’, ‘그리고 나무를 올라다보며 어머니의 건강을 빌었다. 모든 사물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는 말을 이제 나는 믿는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나’는 참바람 속에 서 있는 참나무를 발견하고 참나무가 침묵하며 고통을 견디고, 자신의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한 참나무를 보며 변함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한 그루 나무처럼 자신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속마음이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는 햇빛은 나무를 보며 사소한 일에도 자주 흔들리고, 상처를 받으면 많은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의 삶을 돌아켜 보고 성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햇빛은 나무를 통해 ‘나’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것이 ‘나’에게 불안한 상황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② ‘나’는 햇빛은 나무를 보며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원망의 시간을 보냈던 자신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나’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

④ ‘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있으므로, 주변 사람들에게 회의를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⑤ 햇빛은 나무를 보며 ‘나’가 말없이 기다림을 실천한 적이 없었던 삶을 성찰하는 것이 ‘나’가 소외감을 느끼는 직접적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없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나)에서 참나무와 오랜 인연을 맺게 된 ‘나’가 자신이 ‘못을 빼냈던 자리’를 찾아보고는 참나무의 ‘상처는 아직도 완전히 아물지 않았’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 입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며,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의 폭력성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부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는 이미 참나무와의 교류를 통해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협동을 지향하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체험하고 실감하였으므로, 참나무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것이 ‘나’에게 이러

한 사실을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고 볼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서울 낚시꾼은 김선두가 ‘바다 덕에 먹고산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김선두가 바다에 자살한 쓰레기들을 예사로 버리는 모습을 목격하자 그를 힐책한다. 낚이 쓰레기를 버리면 말려야 될 처지에 오히려 쓰레기를 버리는 김선두를 서울 낚시꾼이 지적하는 것은, 자연으로 인해 생계를 꾸려 가는 인간은 자연을 돌보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며, 이는 자연을 도구로 인식하고 함부로 대하는 인간 중심적 사고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지녀야 함을 역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인간이 쏟은 기름이 양식장에 흘러들어 ‘대대로 지어 묵던 어장이 하루아침에 지름밭이 되’어 생존에 피해를 입게 된 것은 인간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었으며, 이는 더 이상 인간이 자연에서 생계를 이어 갈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인간과 자연의 상호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 부주의든 고의든 ‘사람들이 바다에 기름을 쏟아붓는’ 행동은 바다를 학살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이는 바다 오염으로 직결된다. 또한 (나)에서 ‘바가지를 걸어 놓기 위해’ 참나무에 ‘대못’을 박은 것은 인간이 편리를 위해 자연을 도구로 삼고 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따라서 이는 인간의 이기적인 면모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가)에서 김선두는 바다에 기름을 쏟아부어 바다를 오염시키는 이들을 ‘바다에 지름 쏟아붓는 작정들’로 지칭하며 ‘시상에서 질로 나쁜 놈들’이라고 강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는 자연을 인간의 도구로 인식하고 무분별하게 이용하는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냄과 동시에, 자연을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로 여기는 생태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나)에서 참나무의 녹슨 못을 빼낸 후 ‘나’가 후련함을 느끼는 것은 참나무가 겪는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참나무가 인간과 동등한 생명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또한 생태 중심적 사고에 기반하여 보인 반응으로 볼 수 있다.

09

갈래 복합

본문 288~292쪽

01 ①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⑤

가 윤동주, 「참회록」

해제 ▶ 이 시는 암울한 시대 상황에 처한 시인의 자세가 잘 드러

난 시로 평가받는다. 과거 자신의 삶을 욕된 것으로 인식하고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와 같은 탄식으로 참회를 갈음하던 화자는 언제이든 반드시 찾아올 '그 어느 즐거운 날'을 전망하면서 그때 자신이 '부끄러운 고백', 즉 현재의 참회를 다시 참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서 화자는 '밤이면 밤마다',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거울을 닦는 행위, 즉 치열하고 철저한 자아 성찰이 요구됨을 인식한다. 이러한 자아 성찰의 결과 자신이 '홀로', '슬픈' 희생의 길을 걷게 될 것임을 깨닫고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화자의 태도에서 숙연함을 느낄 수 있다.

주제 ▶ 자아 성찰을 통한 참회와 희생의 의지

구성 ▶

- 1, 2연: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성찰과 이에 대한 참회
- 3연: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과 새로운 참회의 필요성
- 4, 5연: 치열한 자아 성찰을 통해 확인하는, 희생과 비극적 운명을 감내하겠다는 의지

㉢ 허형만, 「녹을 닦으며 - 공초 14」

해제 ▶ 이 시는 총 65편으로 이루어진 공초(供草) 연작 중 하나로, 회한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지난날에 대한 통렬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부제로 제시된 '공초'의 사전적 의미는 조선 시대 형사 사건에서 죄인을 신문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동학 농민 운동으로 신문을 받은 전봉준의 공초를 의미한다. 작가에게 시는 '진솔한 삶의 역사'를 확인하는 작업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의 화자는 치열한 삶을 통해 역사를 만들어 간 전봉준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통렬하게 성찰하고 있는 것이다.

주제 ▶ 회한으로 가득한 삶에 대한 성찰

구성 ▶

- 1~6행: 대문의 녹을 닦으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봄.
- 7~11행: 회한의 슬픈 생애와 역사
- 12~19행: 치열한 자기반성

㉣ 김용준, 「선부 자화상」

해제 ▶ 이 수필은 자신의 자화상을 그리며 떠오른 생각들을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는 작품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를 유머러스하게 묘사하면서도 자신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자신의 호인 '선부'에 담긴 자신의 가치 지향을 드러내고 있다. 가볍고 유머러스한 문체를 통해 드러나는 글쓴이의 개성과 삶에 대한 성찰이 돋보이는 글이다.

주제 ▶ 자화상과 '선부'라는 호를 바탕으로 한 삶의 성찰

구성 ▶

- 처음: 자화상을 그려 달라는 부탁을 받음.
- 중간: 자신의 외모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선부에 대한 지향
- 끝: 자신의 외모에 대한 수용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가), (나)의 화자는 각각 '파란 녹이 낀 구리거울'과 녹이 슬어 있는 '흑갈빛 대문'을, (다)의 글쓴이는 '자화상'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가)와 (나)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므로 현실에 만족한다고 보기 어렵고,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얼굴과 성격에 만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③ (가)~(다)에서는 그리움의 정서가 나타나지 않는다.

④ (다)의 글쓴이는 자신의 외모를 '톨스토이'나 '몰리에르'와 비교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의 화자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있지 않다.

⑤ (나)와 (다)가 개인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실의 부조리함을 고발하고 있지는 않다.

02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에서 화자는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라는 참회를 하고, [B]에서는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참회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 제기한 의문은 '만 이십사 년 일 개월을 /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인데, [B]에서는 이 의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B]에서 그 의문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A]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있고, [B]는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 즉 현재 이루어진 성찰 행위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④ [A]에서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라고 했으므로, 행동의 변화를 제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B]에서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해 성찰하고 있으므로 행동의 지속을 촉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⑤ [A]와 [B]는 모두 화자 자신의 행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있다.

03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과 ㉡은 현재 녹이 슬어 있는 상태로, 이것의 원래 대상의 모습은 녹이 슬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현재의 모습은 원래 모습이 오염되어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은 화자의 모습을 비취 재현해 나타내 주는 것이지만, ㉡은 화자의 모습을 재현해 나타내 주는 특성이 있지 않다. 또한 두 대상은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매개체일 뿐 화자의 분신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③ ㉠과 ㉡에 녹이 슬어 있다는 점에서 방치된 물건이라고 볼 여지는 있으나, 두 대상을 보며 화자가 과거와 현재를 성찰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대한 화자의 망각을 상징한다고 보기 어렵다.
- ④ ㉠은 화자가 과거부터 소유해 왔던 것인지 확인할 수 없고, ㉡은 새로이 이사를 온 집의 대문이므로 과거부터 소유해 왔던 것이라 할 수 없기에 화자의 생애를 함축하는 존재로 보기 어렵다.
- ⑤ ㉠과 ㉡이 단단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화자는 이를 보며 자신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화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강인한 의지를 상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0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가)의 ‘그 어느 즐거운 날’은 일제로부터 조국이 독립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는 화자가 살아온 날 전부를 의미하는 ‘만 이십사 년 일 개월’ 동안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하는 부끄러운 고백을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가 바라던 ‘기쁨’은 조국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어느 왕조’는 조선 왕조를 지칭하는 것이고, 이를 욕되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선 왕조가 일제에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 대한 부끄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나)의 부제에 제시된 ‘공초’는 전봉준의 ‘공초’를 의미하고, 이를 통해 이 시의 화자가 전봉준의 치열했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생애를 성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화자가 ‘내 지나온 생애’를 ‘부끄럽고 죄스러워’하는 것은 전봉준의 삶에 비추어 얻은 인식임을 알 수 있다.
- ④ (나)의 화자가 전봉준의 삶에 비추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있다는 것은, 성찰의 범위가 개인을 넘어 역사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자 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는 화자의 ‘어두운 생명 저편’을 ‘회한의 슬픈 역사’와 연결 짓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가)에서 거울을 닦는 행위와 (나)에서 녹을 지우는 행위는 자신의 삶을 반성하는 행위이고, 이를 위해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고, ‘손가락이 부르트도록’ 문지른다는 것은 그만큼 치열하게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화자의 의지를 보여 주는 것이다.

05 구절의 의미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아내의 말을 인용한 것은 맞지만 이는 아내의 말일 뿐 글쓴이

의 새로운 인식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혼신의 힘으로 일어서는 빗방울’은 화자를 빗댄 대상이다. ‘빗방울’은 넓은 바다 위에서 일어나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의 의지적 태도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② ‘뽀얀’은 ‘뽀얀’의 시적 허용으로 ‘사랑’의 순수함을 부각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 ③ ‘온몸으로’를 반복하여 화자가 느끼는 절실한 심정을 강조하고 있다.
- ④ ‘양미간이 좁고 찌부러’진 글쓴이의 얼굴 모양을 묘사함으로써 글쓴이의 외형을 내면에 숨은 우울과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다.

06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자신을 ‘불선부’라 부른 것을 ‘섭섭히 생각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잘못이 있다는 전제에서 글쓴이가 그를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글쓴이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선자를 놓을 만한 잣대’가 되는가’ 하는 염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은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얼굴을 ‘괴석’에 빗대어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얼굴을 자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글쓴이는 유쾌한 성격을 지닌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② 남들의 시선과 관계없이 자신의 얼굴을 ‘그저 좋기만 하다’고 말하는 것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선부’는 선한 지아비를 뜻하는 것이므로, 이를 ‘평생에 소원’이라 하고, 또 그와 같은 호를 얻은 것에 기뻐하는 모습에서 글쓴이가 선량한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④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수 있다는 것은 글쓴이가 자신을 성찰할 줄 아는 사람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10

갈래 복합

본문 293~297쪽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④

21 김기택, 「멸치」

해제 > 이 작품은 식탁에 반찬으로 오른 멸치에서 떠올린 상념을 통해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멸치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존재였음을 떠올리고, 그것이 인간에 의해 포획되어 접시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을 상상한다. 그리고 현재 바라보고 있는 멸치에도 과거에 멸치가 지녔던 생명력의 흔적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멸치에 대한 이러한 상념은 자연의 생명력을 파괴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상실되어 버린 생명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화자의 소망을 암시적으로 보여 준다.

주제 ▶ 생명력의 상실과 회복에 대한 소망

구성 ▶

- 1~4행: 바닷속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던 멸치
- 5~13행: 그물에 잡히고 딱딱하게 굳어 접시에 담긴 멸치
- 14~17행: 멸치의 몸통에 남아 있는 물결의 흔적
- 18~21행: 생명력 회복에 대한 소망

㉢ 복효근, 「버팀목에 대하여」

해제 ▶ 이 작품은 버팀목으로부터 연상한 내용을 바탕으로 삶에 대한 성찰과 깨달음을 형상화한 시이다. 화자는 태풍에 쓰러졌던 나무에 각목을 버팀목으로 댔던 일을 떠올리면서, 지금은 모두 삭아 사라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버팀목 덕분에 나무가 더 튼튼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무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 또한 한때 자신을 지탱해 주었던 아버지 and 이웃들에게 빚지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낸다. 나아가서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라는 깨달음을 이끌어 내고 있다.

주제 ▶ 다른 이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삶의 가치

구성 ▶

- 1연: 쓰러진 나무를 세우고 버팀목을 덧댐.
- 2연: 쓰러진 나무가 회생함.
- 3연: 덧대었던 버팀목이 삭아 사라짐.
- 4연: 쓰러졌던 나무가 더 튼튼하게 서게 됨.
- 5연: 죽은 아버지와 이웃들이 '나'의 버팀목임을 떠올림.
- 6연: '나'도 다른 이의 버팀목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함.

㉣ 정호승, 「뿌리가 꽃이다」

해제 ▶ 이 작품은 수선화 화분과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낸 수필이다. 글쓴이는 1년 동안 내버려두었던 수선화가 다시 꽃을 피워 낼 수 있었던 이유가 뿌리가 잘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여, 겉으로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본질'의 가치를 강조한다. 또한 역사적 인물인 다산 정약옹과 함께 보통 사람들이 잘 주목하지 않는 다산 주막 주모의 삶을 조명하면서 그녀가 실천한 본질을 지키는 삶의 결과를 부각하고, 본질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주제 ▶ 본질의 가치와 본질을 지키는 삶의 중요성

구성 ▶

- 처음: 1년 동안 베란다에 내버려두었던 수선화 화분에서 싹이 트고 꽃이 핀 이유를 생각함.

- 중간 1: 구근이 잘 보존되어 수선화꽃이 필 수 있었음을 떠올리며 뿌리와 본질의 가치를 조명함.
- 중간 2: 다산 정약옹 선생과 다산 주막 주모의 삶을 통해 본질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떠올림.
- 끝: 본질을 지키는 삶의 자세에 비추어 '나'를 성찰함.

01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는 음성 상징어 '허위허위'가 사용되었지만, 이는 화자의 움직임이나 나타낼 뿐 화자가 바라보는 대상의 상태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가)에는 음성 상징어가 사용되지 않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는 '바다의 무늬는 빠다귀처럼 남아', '깍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 등에서 직유법을 사용하여 멸치가 주는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는 직유법이 나타나 있지 않다.

② (가)는 '바닷속', '길거리', '건어물집', '접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간들을 제시하여 멸치가 이동해 온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길'을 구체적인 공간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구체적인 공간들을 제시하여 대상이 이동해 온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에는 경어체가 나타나 있지 않다. (나)는 '-습니다', '-하니'와 같은 어미가 결합된 경어체의 문장을 사용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⑤ (가)에는 바다에 살던 멸치가 잡혀 말려지고 튀겨진 뒤 접시에 담기기까지의 시간 경과와, 그에 따른 멸치의 외형적 변모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나)에는 태풍에 쓰러진 나무에 버팀목을 덧댄 뒤 나무가 회생하고 버팀목이 삭아 없어지기까지의 시간 경과와, 그에 따른 나무와 버팀목의 외형적 변모가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다.

02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의 '지금'은 화자가 접시에 담긴 멸치를 바라보고 있는 시간을 나타낸다. 화자는 멸치의 몸통에 남은 흔적을 통해 바다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던 멸치의 과거를 떠올릴 뿐, 딱딱하게 굳어 버린 멸치가 바다에서처럼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햇빛의 꽃꽂한 직선들 틈'은 멸치에 쏘이는 햇빛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은 멸치들이 햇빛을 받게 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③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는 내용을 고려하면, '죽음에 빚진'은 태풍에 의해 쓰러진 나무가 죽은 나무인 버팀목에

의해 지탱받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㉔은 쓰러진 나무가 ‘죽음에 빚진’ 동안의 시간을 환기한다고 볼 수 있다.

④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다는 것은, 나무가 버팀목 덕분에 회생하여 ‘큰바람이 불어’오고 버팀목이 사라졌어도 홀로 서 있을 수 있게 된 상황을 보여 준다. ㉔은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⑤ 수선화의 꽃에 주목했던 글쓴이는 사색을 통해, 수선화의 뿌리가 잘 보존되어 해가 지나서도 꽃이 다시 필 수 있었다는 점을 떠올린다. 그리고 ‘꽃이 뿌리로 보였다’면서 뿌리가 지닌 진가를 깨닫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㉔은 이처럼 꽃과 뿌리의 관계에 대한 사색의 결과 뿌리가 지닌 진가를 깨닫게 된 상황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03 시상 전개 방식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A]에는 삭아서 사라질 ‘죽은 나무’인 ‘각목’이 ‘산 나무’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상황이, [B]에는 ‘죽은 아버지’와 ‘사라진 이웃들’이 화자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상황이 드러난다. 화자는 두 상황 사이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C]에서 자기 자신도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는 쓰러진 나무와 버팀목, [B]에는 ‘나’와 아버지나 이웃들의 관계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화자의 생각에서 상반된 관점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A]~[C]에서 화자는 경험과 성찰의 내용을 담담하게 서술하고 있을 뿐 정서를 직접적으로 표출하고 있지 않다.

③ [A]에는 화자가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은 상황이 드러나며 갈등이 드러나지는 않는다. [A]의 갈등이 해소되어 [C]의 상황으로 변화했다고 볼 수 없다.

④ [A]에 특정한 덕목들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B]와 [C]에 덕목들이 지닌 의의를 보여 주는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에서 화자는 ‘쓰러진 나무’가 회생하는 현상을 기대하면서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다고 볼 수 있으며, 이후 ‘쓰러진 나무’에서 틈 ㉔은 이러한 화자의 기대가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다)에서 글쓴이는 ‘지난해 봄’ ‘수선화 화분을 사서 꽃이 시들 때까지 보다가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두고 까맣게 잊고’ 있다가 1년이 지난 뒤 ‘빈 화분을 버리려고’ 했다. 글쓴이는 이러한 상황에서

㉔을 발견하고는 화분을 버리려던 ‘마음을 고쳐먹었’으므로, ㉔을 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㉔은 화자의 행위로 인해 ‘쓰러진 나무’가 소생했음을 보여 주는 대상일 뿐 화자의 죄책감을 유발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㉔은 글쓴이가 내버려두었던 화분에서 우연히 발견한 대상으로, 글쓴이의 자긍심을 고취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② ㉔은 ‘쓰러진 나무’가 회생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대상일 뿐 화자가 소중하게 간직하려 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㉔은 글쓴이가 수선화 화분을 버리려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는 계기이지, 경계를 드러내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③ ㉔은 ‘버팀목을 세’운 화자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대상이며, 화자의 특정 행동을 재촉하는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㉔은 글쓴이가 의도했던 행동, 즉 화분을 버리려던 것을 가로막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④ ㉔은 ‘쓰러진 나무’의 회생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희망을 환기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화자를 절망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고 볼 수 없다. ㉔은 글쓴이에게 수선화 화분이 살아나 꽃을 피울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해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05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다)의 글쓴이는 『논어』의 ‘회사후소’라는 구절을 인용하고 예술에서의 본질적 가치와 꾸밈의 관계를 각각 뿌리와 꽃에 대응시키면서, 예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먼저 이뤄져야’ 꾸밈에 해당하는 ‘창작의 아름다움이 형성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지난해 봄’ ‘수선화 화분을 사서 꽃이 시들 때까지 보다가 베란다 구석에’ 방치한 일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수선화 화분이 꽃을 피우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② 글쓴이는 ‘베란다 구석에 처박아’ 둔 수선화 화분을 찾고서 구근을 ‘그대로 내버려뒀음에도 불구하고’ 수선화꽃이 피었음을 밝히고 있다. 글쓴이가 수선화 구근을 손질하여 간수했다고 볼 수 없다.

④ 글쓴이는 주모가 ‘사람은 누구나 끼니때가 되면 식사를 함으로써 배고프지 않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본질’을 외면하지 않았고, 이러한 주모의 정성 덕분에 다산 선생이 ‘유배의 꽃을’ 피울 수 있었음을 조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그녀의 삶이 선비의 삶보다 본질에 충실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아버지의 은혜를 더 무겁다고 여긴 데 반해, 주모는 종자와 토양 중 토양에 해당하는 어머니의 공적이 더

크다고 여겼다. 글쓴이는 주모의 말에 주목하여 토양과 연결된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글쓴이가 부모의 은혜에 대한 주모와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의견 사이의 유사성을 드러내어 뿌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06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다)에서 ‘모진 추위와 어둠 속에서도’ 수선화가 꽃을 피운 일과 ‘유배 생활 중에서도’ 다산 선생이 ‘선비로서의 실천적 삶을’ 산 일은, 글쓴이가 추구하는 본질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뒷받침하는 사례들이라고 볼 수 있다. 수선화가 ‘모진 추위와 어둠’으로 인해 꽃을 피운 것은 아니고 다산 선생이 ‘유배 생활’로 인해 선비로서의 실천적 삶을 산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면, 글쓴이는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본질을 지키는 삶의 가치를 역설하고 있을 뿐, 시련과 고통이 가치 추구의 전제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화자는 ‘바다의 무늬’가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 있는 부정적 상황에 주목하여, 바다에서 생명력을 발휘하던 멸치가 그물에 잡힌 후 생명력을 잃게 된 과정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현재 삶의 모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화자의 시선이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에서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구속되지 않은 채 충만한 생명력을 지니고 자유롭게 살아가던 멸치의 모습은 화자가 지향하는 자유롭고 생기 넘치는 삶의 모습을 제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에서 화자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불어와도’ ‘늪지 않’는 나무에 주목하고 있다. 화자는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이타적인 삶의 가치를 떠올리고 있다.

⑤ (다)에서 ‘꽃의 가치만 소중히 여기며 산 결과’ ‘남이 서 있는 자리에 내가 서’서 살아간다는 것은, 글쓴이가 본질의 중요성을 잊고 외부의 잣대에 비추어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면서 살고 있었음을 나타낸다. 글쓴이의 이러한 생각은 본질의 중요성을 잊은 삶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11

갈래 복합

본문 298~302쪽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②

㉠ 김혜순, 「잘 익은 사과」

해제 ➤ 이 작품은 다양한 이미지의 연상 작용을 바탕으로 순환론적 세계관을 통해 삶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치유를 형상화하고 있다. 자전거 바퀴가 회전하는 소리는 일상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변화의 과정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가을의 풍경은 자연의 순환을 드러낸다. 특히 ‘쳐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는 고통과 비애를 내포하고 있는 삶의 다양한 국면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처가 결국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치유의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전개되고 있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는 상실감과 그리움의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그 속에서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다. 마지막 부분에서 ‘구멍가게 노망든 할머니’가 사과를 먹는 장면은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요한 달콤함과 풍요로움의 이미지와 맞닿아 있다.

주제 ➤ 순환론적 세계관을 통한 슬픔의 망각과 상처의 치유

구성

- 1~4행: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자전거 바퀴 소리가 여러 다른 소리로 치환됨.
- 5~10행: 고통과 비애를 내포한 다양한 삶의 국면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치유됨.
- 11~17행: 치유와 망각의 시간 속에 있는 노년의 모습

㉡ 문태준,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

해제 ➤ 이 작품은 삶의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상실과 비애를 바탕으로, 결국 세상에 홀로 남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형상화하고 있다. ‘강을 따라갔다 돌아왔다’는 것은 물리적 여정을 넘어 인생의 시작과 끝, 떠남과 귀환을 상징한다. 특히 강의 흐름을 따라가며 마주하는 다양한 변화의 장면을 대비하여 드러내고, 지향과 전진의 삶의 국면이 회고와 상실이라는 양방향성과 함께하고 있음을 통해 인생의 무상감과 죽음에 대한 성찰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삶의 다양한 국면과 여정에 대한 성찰

구성

- 1~3행: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여정을 통한 삶의 방향성 탐색
- 4~7행: 여정 중에 발견한 삶의 다양한 국면
- 8, 9행: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여러 죽음과 슬픔
- 10~17행: 상실의 필연성 및 삶의 무상함에 대한 깨달음과 귀환의 여운

㉢ 김인숙, 「길의 안내자들」

해제 ➤ 이 작품은 여행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글쓴이의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는 수필이다. 모든 여행은 계획이나 목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얻는 경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 여행에서 만나게 된 길 안내자 ‘향도’를 소재로 하

여, 그들이 길을 안내하는 방식을 소개하며 삶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인생의 다양한 여정에 대한 깨달음

구성 >

- 처음: 여행지에서의 경험
- 중간: '향도'의 길 안내 방식과 그 의미
- 끝: 삶의 여정과 귀로에 대한 인식

01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나)는 '누가 있을까', '강을 따라갔다' 등의 시구를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시의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서 '-네요'의 반복을 통해 타인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가 자신의 삶의 방향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③ (나)에서 '누가 있을까'의 반복적 사용이 설의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가)에서는 설의적 표현을 찾아보기 어렵고, 이를 통해 대상의 처지를 강조한다고 보기 어렵다.

④ (가)의 '아가인 그 사람의 땀새가 나네요'에서 후각적 심상이 드러나고 있지만, (나)에서는 후각적 심상을 찾기 어렵다.

⑤ (가)에서 자전거를 타고 고향 마을의 골목길을 도는 행위가 드러나 있지만 공간의 이동에 따라 화자의 인식이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나)에서는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에 대한 인간의 삶의 여정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화자의 인식이 전환된다고 보기 어렵다.

02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자전거 바퀴가 '길을 깎아 내고' 있는 모습에서 '큰 사과가 소리 없이 깎이고' 있는 장면을 연상하는 과정을 통해, 화자의 고통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깎아 내는 행위의 의미를, <보기>에서 제시한 '과거의 아픈 기억은 세월이 흐르며 슬픔을 망각하게 되고 상처는 포용하는 것'으로 연결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자전거 바퀴의 소리가 여치 소리를 거쳐 나락들이 뿔아지는 소리로 변하는 것은 청각적 이미지를 매개로 하여 화자의 연상 작용이 일어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②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먼 나라로 입양 가는' '아가'의 모습에서 떠오른 애상적 이미지는 '손등을 덮어 주는' 행위로 연결되어 상처를 보듬어 주는 이미지로 형상화되고 있다.

③ <보기>에서 과거의 아픈 기억은 세월이 흐르며 슬픔을 망각하게 되고 상처는 포용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화자가 자전거를 타고 '골목의 모퉁이'를 '둥글게 둥글게' 만든다는 것은 자전거 타는 행위를 통해 삶에서 생긴 상처를 다듬고 다독이는 과정으로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⑤ <보기>에서 마지막 부분의 '할머니'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사과를 '오물오물' 먹는 행위는 과거의 상처를 잊고 평안을 찾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03 반응의 적절성 평가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새의 햇곡식 같은 아침 노래'를 가슴에 간직하다가 '텅 빈 곡식 창고 같은 동지'를 '머리 위에 이게 되었다'는 것은, <보기>에서 제시한 '어떤 것을 지향하더라도 끝내 그것을 이루지 못한 채 세상에 남게' 되었다는 내용과 연결하여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여기서 지향했지만 이루지 못한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모습으로 파악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이 부분은 삶에 대한 공허함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며, 화자가 지향하는 바를 이루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모습에 대한 후회와 한탄을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붉은 '꽃나무'가 나온 '꿈'은 사라지고 '흐물흐물한 식은 허물'이 되었다는 것은 일종의 대비를 드러낸 것으로, 삶의 여정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여러 국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측근의 죽음을 '맨몸에 상복을 입'은 것과 같다고 인식하는 것은, 삶에서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인간의 숙명적인 비애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누가 있을까', '~지 않은 이'의 도치법이 사용된 구조를 반복해서 드러낸 것은, 삶에 대한 통찰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부각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⑤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행위를 통해 '집으로', '무덤으로' 돌아왔다는 화자의 인식은, 결국 모든 인간은 인생의 여정 끝에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는 성찰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04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에서는 '처녀 엄마의 눈물만 받아먹고 살다가 / 유모차에 실려 먼 나라로 입양 가는 / 아가'의 모습을 통해, 여리고 상처 입은 연민의 대상이 되는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는 '가볍고 상쾌한' 유모차의 이미지와 '절룩이고 초라한 거지'를 대비함으로써 밝고 명랑한 어린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나)에서 ‘가볍고 상쾌한 유모차’라는 표현을 통해 대상이 지닌 생명력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생동감 있는 움직임으로 중심으로 묘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가)에서도 생동감 있는 움직임으로 묘사되지 않았다.
- ② (가)와 (나) 모두 ‘유모차’를 통해 친근하고 동화적인 분위기를 형성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화자의 과거 경험과 관련하여 가치 있는 삶의 존재를 암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④ (가)에서 ‘유모차’가 시간의 역행적 구성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보기 어렵고, (나)에서 ‘유모차’가 시간의 흐름을 초월하는 존재로 형상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가)에서는 ‘유모차’가 입양 가는 아가의 이미지와 관련하여 타인에게 슬픔을 자아내는 존재로서의 의미를 형상화한다고 볼 수 있지만, (나)에서 ‘유모차’가 타자를 지향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존재라고 보기 어렵다.

05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의 ‘일생’은 ‘강을 따라갔다 돌아오는 일’이고 ㉡의 ‘귀로’는 길 안내자들이 안내를 마치고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는 길을 의미하므로, 여정을 거쳐 출발한 곳으로 돌아오는 회귀의 구조를 지닌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 ㉡, ㉢ 모두 시간의 변화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지만, 시간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의지가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다.
- ② ‘타인과 동행하는 여로’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관련 있는 것은 ㉢으로 볼 수 있다. ㉠, ㉡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③ ‘삶의 시작과 마무리에 관한 화자의 성찰’을 담고 있는 것은 ㉠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과 ㉢은 관련성을 찾기 어렵다.
- ④ ㉠, ㉡ 모두 타인의 삶을 위한 희생적 가치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06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② 2문단에서 ‘나’는 길을 잃었을 때 서둘러 되돌아가는 편이었으며, ‘그리하여 여행지에서 남는 사진은 황홀한 추억보다 망설임과 초조함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여행지의 경험이 기대와 같지 않았을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황홀한 추억’을 느끼는 경험을 해 왔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1문단에서 ‘모든 여행’은 ‘짧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바깥을 향

해 열려 있다.’는 진술을 통해 ‘나’에게 있어 모든 여행은 세상과 연결되는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③ 3문단의 ‘그들을 처음 발견했을 때 나는 그들이 인력 시장에 나와 있는 구직자들이 아닌가 했다.’와 이어지는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4문단 전체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⑤ 6문단에서 ‘다행히 중국에서 길 안내자들에게 지불하는 대가는 아주 싸다.’, ‘낯선 이가 지시하는 길이 완전히 안전하고 또 세상에서 가장 빠른 길이라고 믿어야 하는, ‘사소한’ 문제점이 있을 뿐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실전 학습 1회

본문 304~321쪽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⑤	08 ②	09 ④	10 ⑤
11 ①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⑤	17 ④			

01~04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황새결승」

해제 > 이 작품은 「삼설기」에 실려 있는 작자 미상의 고전 소설이다. 경상도 땅에 살던 부자가 송사를 진행하고 패소하는 과정이 나타나는 전반부와 부자가 지어낸 ‘황새의 송사’ 이야기가 서술되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재판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람들과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송관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조선 시대 송사의 부패 양상과 씨족 사회의 여러 가지 병폐를 파헤친 풍자 소설로, 우화 소설, 송사 소설로도 분류된다.

주제 > 청탁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리는 부패한 관리들과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 경상도 땅에 대대로 부자로 살아온 이가 있었다. 그의 친척 중 하나가 재산의 절반을 달라며 부자에게 행패를 부리고 괴롭히자, 부자는 형조에 소송을 올려 억울함을 풀려고 한다. 송관은 사건의 진실과 상관없이 자신에게 미리 청탁한 이(부자의 친척)에게 이로운 판결을 내린다. 이에 부자는 이야기 하나를 지어 송관에게 들려준다. 부자의 이야기 속에서 꾀꼬리, 뽕새, 따오기는 서로 자기 목소리가 듣기 좋으며 경쟁하는데, 따오기의 청탁을 들은 황새가 따오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 청탁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내린 황새의 이야기를 듣고, 송관과 그의 무리 또한 부끄러움을 느낀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평소 글자도 읽고, 상시 박람하여 구변도 있고, 주제넘은 문자도 쓰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고, ㉡은 놀기를 즐기고 허랑무도하여 주유사방하는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다. ㉢은 ‘문견이 너르고 겸하여 시속 물정 또한 아는’ 이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 세상 물정을 잘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은 ‘천행으로 가산이 풍족하오매 자연히 친척의 빈곤한 사람도 많이 구제’한 사람으로, 그로 인해 ‘이웃 사람’의 ‘송덕’을 받았다. 반면 ㉡은 그 ‘몹쓸 심사’ 때문에 동리 사람들이 분함을 이기지 못했다.

② ㉦이 ㉣을 데리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동리 사람들’이 ㉣의 거동을 보고 차마 분함을 거두지 못하여 송사할 것을 권유하였기 때문이다.

④ ㉦은 ㉣을 상대로 송사를 진행하면서, ‘이놈을 형추정배하면 다시 꿈쩍 못 하게 하리라’ 하며 자신이 송사에 이길 것이라 기대하고 있었다.

⑤ ㉦은 원정을 올린 후 ‘좌기되기만 기다리’며 ‘한 일을 전혀 믿고 아무 사람도 찾아보지 아니하’였지만, ㉣은 ‘일변 친구도 찾으며 형조에 청길을 뚫어’ 송사와 관련된 이들을 미리 만나 청탁을 하였다.

02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송관은 자신의 판결이 어떠한 법조문을 따른 것인지를 밝히지 않고, 다만 ‘친척 간 서로 의를 상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그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송관이 ‘그놈’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은 ‘그놈’의 청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송관이 법관으로서 명확한 증거에 따라 법규를 해석한 것이 아니고, 법관으로서 자유로운 심증을 따르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송관은 부자의 말을 들은 후, 부자가 어떻게 만석꾼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 부자의 재산 형성과 관련된 과정에 양측에 의견 차이가 없어 사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부자는 ‘그놈’에게 여러 차례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는 말을 송관에게 했지만, 송관은 그 주장을 무시하고 있다. 부자의 주장은 당사자가 다투는 주요 쟁점에 해당하므로 제대로 된 법관이라면 사실 관계를 정확히 따져 보아야 했다.

③ 송관은 부자를 두고 ‘지친을 구제치 아니하고 송사를 하여 물리치려 하’였다면서 ‘무도한 놈’이라 평가하고 있는데, 이는 부자의 말을 전혀 사실로 인정하지 않고 ‘그놈’의 주장만 그대로 받아 들인 결과라 할 수 있다.

④ 송관은 ‘그놈’에게 유리하도록 ‘재물과 전답을 반씩 나누어 가’지라고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제대로 된 민사 재판이라면 그러한 분배 비율이 어떠한 근거로 정해진 것인지 밝혀야 한다.

03 외적 증거에 따른 새로운 가치 발견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이 글의 전체 맥락과 관련지어 볼 때, ‘늑비알자(㉦)’는 ‘송사의 과정에서 이기지 못할 송사가 잘못된 판결로 뒤집히는 상황’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은 사건을 보는 기준이나 관점을 마음대로 바꾸어, 사건의 진실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청탁을 한 ‘그놈’에게 유리한 부당한 판결을 내어놓은 ‘송관’의 행위를 비판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녹비왈자’는 바라보는 기준이나 관점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생기는 상황을 드러내는 말이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 ‘부자’에게 다양한 충고를 들을 것을 권하기 위해 한 말은 아니다.
- ③ ‘녹비왈자’를 두고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는 것을 말할 수는 있지만, 송판에게 다양한 관점으로 갈등을 이해할 것을 요청하기 위해 한 말로 보기는 어렵다.
- ④ ‘녹비왈자’는 부자의 설득 방식을 비판하기 위해 사용한 말이 아니다. 부자는 자신의 판단 기준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자신의 기준에서 타당한 근거도 제시하고 있다.
- ⑤ ‘녹비왈자’는 옳고 그름을 정할 때 뚜렷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송판은 ‘그놈’의 청탁을 받아 ‘그놈’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것이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다.

04 사건의 전개 양상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③ 부자가 자신이 겪은 송사의 진행 과정을 바탕으로 ‘이야기 한 마디’를 만들어 낸다면, 자신의 상황과 [A]의 내용을 비슷하게 구성할 것이다. 따라서 따오기의 청축을 받은 황새가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그로 인해 피꼬리와 삿새는 억울해하며(㉡), 그러한 판결을 지켜본 다른 새들이 황새를 비판하는 사건(㉢)을 제시해야 한다. ‘이야기 한마디’를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그놈’에게 유리한 판결을 한 송판과 그 무리들을 무안하게 만들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②, ④, ⑤ 황새는 ‘송판’과 비슷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송판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이다. 또한 따오기는 ‘그놈’과 비슷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으며 그놈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표현될 것이다. 따라서 [A]의 뒤에는 황새가 피꼬리와 삿새에게 따오기의 청축을 받은 사실을 알리는 사건(㉢)이나 따오기가 일부러 참혹한 소리를 내는 사건(㉣)은 들어갈 수 없다. ⑥와 ㉣은 부자가 겪은 송사 과정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①, ②, ④, ⑤는 적절하지 않다.

05~10 갈래 복합**가 윤선도, 「만흥」**

해제 ▶ 이 작품은 총 6수의 연시조로, 세속과 멀어져 자연 속에서 지내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하고 있다. ‘만흥’은 ‘저절로 일어나는 흥취’라는 뜻으로, 작가가 은거지인 금쇄동의 자연을 접하면서 느낀 흥취를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자연에서 지내는 삶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면서도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해 준 임금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주제 ▶ 자연 속에 묻혀 사는 즐거움**구성** ▶

- 제1수: 안분지족의 삶에 대한 지향
- 제2수: 소박하고 한가로운 삶에 대한 만족감
- 제3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의 즐거움
- 제4수: 자연을 누리는 삶에 대한 자부심
- 제5수: 세속과 멀어져 자연에서 지내는 만족감
- 제6수: 임금의 은혜에 감사함

㉠ 기대승, 「장춘정」

해제 ▶ 이 글은 글쓴이가 ‘장춘정’의 주인인 유충정(유충한)의 부탁을 받고 적은 기문(記文)이다. 유충정은 무과에 급제해서 미관말 직을 전전하다가 마침내 관직을 버리고 고향 나주로 돌아간 후, 영산강이 보이는 곳에 집을 지었는데 그 주위에 기이한 화초를 심어 철따라 온갖 꽃이 만개한다는 점에서 ‘봄을 간직한 집’이라는 뜻을 지닌 ‘장춘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글쓴이는 봄을 간직할 수 있다는 유충정에게 봄뿐만 아니라 부귀영화는 간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본성과 하늘의 성정에 대한 회암 선생의 말씀을 고려해 볼 때 내 마음의 봄은 우리에게 없었던 적은 없었으며, 이 때 마음의 봄은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인(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장춘정’이라는 이름은 소동파의 글을 통해 널리 알려진 송나라 조경순의 ‘장춘오’에서 따온 것이기도 하다.

주제 ▶ 마음의 봄을 간직할 수 있는 이유와 마음의 본성인 ‘인’을 보존하는 일의 중요성

구성 ▶

- 처음: 유충한 군이 나에게 ‘장춘정’의 기문을 부탁함.
- 중간: 봄을 간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충한 군과 봄은 간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나’의 문답
- 끝: 내 마음의 봄은 우리에게 없었던 적이 없다는 ‘나’의 대답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제6수>에서는 ‘강산이 좋다 한들 내 분으로 누웠느냐’라는 물음의 방식으로 자연에서 은거하며 살아가는 화자의 상황을 언급한 후, 화자가 고마워하는 대상인 ‘임금’을 부각하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자연 속에 피집을 짓고자 하는 화자의 모습과 이러한 화자를 비웃는 사람들의 모습을 제시할 뿐, 자연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 않으며 자연물과 화자의 심리적 거리감도 나타나 있지 않다.
- ② 자연에서 사는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심리는 드러나 있지만, 자연물에 감정을 이입하는 방법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 ③ 혼자 앉아 멀리 있는 산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화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을 뿐, 자연물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을 활용하지는 않았다. 또한 도덕적 가치를 언급하고 있지도 않다.

④ 화자는 자신의 천성이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을 뿐, 자연물과 자신의 공통점을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06 작품 간의 공통점, 차이점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A]의 ‘소부 허유가 낙뎃더라’는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허유에 대해 표면적으로 비판하면서도, 실제로는 그의 삶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B]의 ‘영수 맑은 물은 더러운 채 있나니’는 자연에서의 삶을 선택한 허유와 달리 세속적 욕망에 사로잡힌 현실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A]와 [B]에 드러난 허유에 대한 인식이 허유가 타인의 삶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C]의 ‘은사의 마음을 내 아노라’는 화자가 허유가 자연에서 은거한 이유를 이해하고 허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이러한 인식이 허유가 화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A]에서는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허유에 대해 ‘낙뎃더라’라고 말하며 허유가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이와 달리 [B]는 ‘기산에 늙은 사람 귀는 왜 씻었던고’를 통해, [C]는 ‘산 밑 샘에 귀를 씻으니’를 통해 허유가 요임금의 제안을 거절한 후 귀를 씻은 행위에 주목하고 있다.

③ [A]에서는 ‘임천 한홍을 비길 곳이 없어라’를 통해, [C]에서는 ‘은사의 마음을 내 아노라’와 ‘공을 이루는 일은 구름 속에 있도다’를 통해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달리 [B]에서는 ‘지금에 영수 맑은 물은 더러운 채 있나니’를 통해 현재의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④ [A]에서는 ‘이제사 생각하니’와 ‘임천 한홍을 비길 곳이 없어라’를 통해, [C]에서는 ‘물가의 술을 벗 삼으니 은사의 마음을 내 아노라’와 ‘공을 이루는 일은 구름 속에 있도다’를 통해 자신의 삶을 근거로 허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B]에서는 ‘지조가 가장 높다더니’라는 타인의 말을 근거로 허유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⑤ [A]에서는 ‘임천 한홍을 비길 곳이 없어라’와 ‘삼공보다 낫다 하더니 만승이 이만하랴’를 통해, [C]에서는 ‘물가의 술을 벗 삼으니’와 ‘공을 이루는 일은 구름 속에 있도다’를 통해 자연에서의 삶을 바탕으로 속세의 삶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달리 [B]에서는 ‘지금에 영수 맑은 물은 더러운 채 있’는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허유에 대해 ‘지조가 가장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07 작품의 내용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글쓴이는 ‘측은지심’이 사람의 성정에 관통하지 않는 곳이 없는 것처럼, ‘봄’에 생긴 기운 역시 통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점에

서 봄을 감추어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을 뿐, 봄이 만물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 때 돌아오는 계절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이치를 군자는 음미하여 마음을 다 쓰고, 소인은 모른 채 부름을 받는다.’라는 구절을 통해 글쓴이는 만물이 바뀌는 이치를 알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의 여부가 군자와 소인을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② ‘이 때문에 정자에 들어온 사람은 항상 그 사이에서 봄기운을 느낍니다.’라는 구절을 통해 ‘유중한 군’은 ‘장춘정’에서는 계절과 상관없이 봄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③ ‘저는 옛사람에게서 증거를 찾았는데’라는 구절을 통해 ‘유중한 군’은 옛사람이 지은 글인 소동파의 「장춘부」를 근거로 봄을 감추어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④ ‘공명과 부귀, 풍요한 재물과 곡식, 비단처럼 ~바람에 날아가 기란 잠깐이니, 붙잡아 두기에 부족하다.’라는 구절을 통해 글쓴이는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귀공명과 재물 등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08 배경 및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제3수>에서 화자는 먼 뫼를 바라보는 즐거움이 ‘그리던 입’이 오는 반가움보다 더 좋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을 자연을 바라보며 느낀 화자의 흥을 고조하는 인물로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제1수>와 <제2수>에서 화자는 ‘떠집’을 짓고 ‘보리밥 푼나물’을 알맞게 먹은 후 바위 끝의 물가에서 지내는 것 이외에는 부러울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은 소박하게 살아가는 화자의 일상을 보여 주는 사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글쓴이는 ‘천지의 조화’는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움직이며 만물을 감돌고 고금에 흐르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으며, 이에 따라 ‘계절이 흐르고 추위와 더위가 바뀌며 만물’이 피어나고 시드는 것이라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은 글쓴이가 생각하는 만물이 필연적인 이치에 따라 변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유중한 군은 자신이 지은 정자의 이름을 ‘장춘정’이라 지은 후 글쓴이의 글을 걸어 자랑하려고 하였다. 이에 글쓴이는 정자의 이름을 ‘장춘정’이라 지은 이유를 묻고 있다. 따라서 ㉠은 자신의 글을 장춘정에 걸어 두려고 하는 유중한 군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한 글쓴이의 요청이라 볼 수 있다.

⑤ (나)에서 글쓴이는 ‘장춘정’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봄을 감추어 보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한 유중한 군의 대답을 들은 후, ‘장자의 말’을 근거로 유중한 군의 대답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㉔은 글쓴이가 유중한 군의 발언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09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제5수>에서 화자는 자신의 게으른 천성으로 인해 하늘이 인간 만사를 맡기는 대신, 다룰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㉔는 화자가 다룰 이 없는 강산을 지키며 자연에 은거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나)에서 글쓴이는 하늘의 성정에서 봄에 생긴 기운은 통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성정에는 측은지심이 관통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약 하늘이 우리 인간에게 준 것을 가지고 거꾸로 찾아본다면, 간직할 수 없는 봄이 인간에게 없었던 적이 없음을 알게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는 글쓴이를 비롯한 인간들이 하늘의 성정을 찾을 수 있는 이유로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천성’이 ‘자신이 본래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을 일컫는다는 점과 (가)의 화자가 자신의 천성이 게을러 하늘이 자신에게 강산을 맡긴 것이라 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㉔는 화자가 노력하여 바꾸려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또한 ㉔는 인, 의, 예, 지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일 뿐, (나)의 글쓴이가 간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② (가)의 화자는 하늘이 자신의 천성이 게으르다는 것을 알고 인간 만사를 맡기는 대신 ‘다룰 이 없는 강산’을 지키라 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가 하늘로 인해 화자가 깨달은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㉔는 ‘장춘정’만이 봄을 감추어 보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유중한 군을 설득하기 위해 (나)의 글쓴이가 언급한 것일 뿐, 글쓴이로 인해 유중한 군이 깨닫게 된 것이 아니다.

③ (가)의 화자는 자신의 천성이 게으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천성’은 ‘자신이 본래 타고난 성격이나 성품’을 일컫는 말이라는 점에서, ㉔가 속성에 따라 그 명칭이 달라지는 것이라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㉔는 인, 의, 예, 지에 따라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명칭이 달라지는 것일 뿐 부르는 명칭에 따라 그 속성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⑤ (나)에서 유중한 군은 ‘사람의 성정’ 중 ‘측은지심’이 관통하지 않은 곳이 없는 것처럼, 봄이 진실로 나에게 있지 않은 적이 없다는 글쓴이의 말을 듣고 그렇다고 하였다. 따라서 ㉔는 유중한 군이 글쓴이의 견해에 동조하게 된 계기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㉔는 하늘이 자신에게 강산을 맡긴 이유라고 (가)의 화자가 생각하는 것이며, (가)의 화자는 자신을 비판하는 ‘모르는 남들’에 대해 자연 속에서 은거하며 사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 말하고 있다. 따라서 ㉔는 화자가 자신을 비판하는 다른 이들의 견해에 동조하게 된 계기와는 관련이 없다.

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보기>에서는 인간이 공간을 더 잘 알게 되고 가치를 부여하는 등 그 공간과 긴밀한 정서적 끈을 형성하며 살아갈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되며, 공간이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해 특별한 애정인 ‘장소에’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나)의 글쓴이는 ‘장춘정’에 관한 기문을 적어 달라는 유중한 군의 부탁을 듣고 ‘인(仁)’이 모든 마음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된다면 ‘장춘’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라 말하며, 이를 정리하여 기문으로 적는다고 하였다. 따라서 글쓴이가 ‘장춘정’의 가치를 알고 해당 장소에 대한 ‘장소에’를 갖기 위한 노력으로 기문을 적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산수 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는 것이 자신의 분수에 맞는 것이라 말하며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해 만족하고 있고, ‘남들’은 이러한 화자의 모습을 비웃고 있다. <보기>에서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는 곳이라는 의미만 지니고 있지만, 인간이 그 공간과 긴밀한 정서적 끈을 형성하며 살아갈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산수 간 바위 아래 띠집’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화자에게는 ‘장소’가 될 수 있지만, 화자를 비웃는 ‘남들’에게는 단순히 집이 존재하는 ‘공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② (가)의 화자는 ‘보리밥 푼나물’을 먹은 후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니’는 것 이외에는 부러워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 공간이 장소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그 장소에 대한 특별한 애정인 ‘장소에’를 갖게 된다고 하였으므로, ‘바위 끝 물가’에서 ‘실컷 노’는 화자의 행위는 화자가 ‘물가’에 대해 ‘장소에’를 갖게 되는 이유로 볼 수 있다.

③ (가)의 화자는 혼자 앉아 바라보는 ‘먼 뒀’가 말씀도 없고 웃지도 않아도 좋다고 말하고 있다. <보기>에서 인간이 그 공간과 긴밀한 정서적 끈을 형성하며 살아갈 때 그 공간은 ‘장소’가 된다고 하였으므로, ‘먼 뒀를 바라보’며 화자가 ‘혼자 안자’ 있는 곳은 좋아하는 대상을 볼 수 있다는 가치가 부여된 곳이라는 점에서 화자에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닌 하나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④ (나)에서 ‘장춘정’ 주위에 ‘아름다운 꽃을 심’는 것은 유중한 군이 ‘장춘정’과 정서적 끈을 형성하는 행위로, 이는 ‘장춘정’에 대한 유중한 군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글쓴이는 ‘장춘정’에 관한 기문을 적어 달라는 유중한 군의 부탁을 듣고 ‘장춘’의 의미를 전하기 위해 ‘장춘정’에 대한 기문을 적는다고 밝히고 있다. <보기>에서 공간과 맺는 정서적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간이라도 개인에 따라 다른 장소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춘정’이라는 동일한 장소에 대한 글쓴이와 유중한 군의 인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11~14 현대 소설

■ 최일남, 「너무 큰 나무」

해제 ㉠ 이 작품은 식모인 '나'의 눈에 비친 김 박사의 모습을 통해 지식인들의 표리부동한 면모를 비판한 소설이다. 김 박사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유명 인사이지만, '나'가 집 안에서 관찰한 아버지(김 박사)의 실체는 그가 밖에서 한 말이나 쓴 글과는 거리가 먼, 가식적인 속물일 뿐이다. 순박한 식모를 서술자로 삼아 1970년대 우리 사회의 일부 지도층 인사들이 지녔던 이중성을 폭로함으로써 사회 비판적인 주제를 풍자적인 방식으로 구현하였다.

주제 ㉡ 지식인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대한 풍자

전체 줄거리 ㉢ 식모인 '나'가 보기에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바쁘다. 특히 모 연구소의 소장이라는 주인아버씨는 민족과 국가에 관한 강연도 많이 하고, 텔레비전에도 출연하며, 신문에 사진과 글이 자주 실리는 유명 인사이다. '나'는 그런 아버씨가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아버씨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다. 전화 받기 전후의 태도 변화, 잡지에 쓴 글의 내용과 반대되는 가족의 모습, 독서에 관한 주장과 반대되는 평소 태도, 아내나 자식들과의 관계, 술주정을 부리는 모습 등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이다. 또 밖에서는 큰일을 하는 아버씨가 식모인 '나'의 월급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크게 실망하고 혼란을 느낀다.

11 서술상의 특징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상대가 전화로 아버씨를 찾는 이유에 대한 '나'의 추론이 아니라, 전화로 '김 박사 맥'이냐고 묻는 사람에게 '나'가 어떤 의도를 갖고 말투를 선택해 대꾸했는지에 관한 서술이다. 서술자가 다른 인물의 상황에 관심을 지니고 있음을 독자에게 알려 주는 것과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에 앞서 '나'는 전화 상대에게 누구냐고 물었지만, 그 말에 담긴 속마음은 ㉢과 같았다는 부가적 설명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서술자가 자신의 속마음을 직접 제시한 것이므로, 서술자가 한 말에 담긴 진짜 뜻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이해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③ ㉢에서 '나'는 '또 한 가지 털어놓아야겠다'며 새로운 사건에 대해 서술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그것이 자기와 관계된 일이라는 '좀 거북하'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독자는 서술자가 노출하기에 부담스러울 수 있는,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직접 제시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게 된다.

④ ㉣에는 월급 인상을 바라는 '나'의 솔직한 심정과, 월급 인상에 신경 써 주지 않는 아버씨와 아주머니에게 성이 나는 '나'의 심리가 직접 서술되어 있으므로, 서술자 '나'가 '아주머니더러 알아들으라고 대놓고 말'한 이유를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⑤ ㉤은 명절 때만 되면 아버씨 내외가 선물을 잔뜩 차에 싣고 누군가를 찾아가는 이유에 대해 '나'가 궁금증을 느껴 왔다는 서술이다. 따라서 아버씨의 행동에 담긴 의도는 서술자에 의해 직접 설명되지 못한 것이고, 사건의 내밀한 진실을 파악하려는 독자라면 아버씨 내외의 행동에 관해 능동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12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다른 집에서도 우리 같은 애들의 월급은 대개 아주머니들이 정하고 바깥양반들은 재가 얼마를 받고 있는지 우리 같은 애들의 가슴에서 국이 끓고 있는지 밥이 끓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래서 나쁜 것이 없지만'을 보면, '나'는 다른 집 가정들도 식모의 처우나 고민 등에 큰 관심이 없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참아라. 참아라. 나는 아주머니에게 얼마나 많이 이 말을 들어 온지 모른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② '나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놀란 토끼처럼 허리를 칠십 도로 구부리고, 후딱 하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의젓한 자세로 얘기를 하고 걸려 오는 전화마다 받들어 모시듯 하는 우리 아버씨 같은 분을 가까이서 모시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기는 하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집 식구들은 제각기 사업에 바빠서 서로 들고 나는 시간이 엇바뀌는 바람에 일동 집합하는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얘기를 나눈다든가, 유식한 말로 대화를 나눈다든가 하는 시간은 거의 없는 것이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아주머니가 '나'에게 '요구를 할 양이면 정정당당히 얘기를 할 것이지 왜 송물스럽게 심순이는 갖다 붙이니.'라고 말하는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은 아버씨가 '하' 소리 하나에 꼭 일 초는 걸릴 만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높지도 낮지도 않게 웃는' 소리로, '나'는 그 웃음소리가 '극장이나 텔레비전에서 배우들이 꾸며 대서 웃는 소리는 저리 가라 할 만큼 정확한 간격'을 지녔다고 하였다. 따라서 ㉠은 '나'가 어딘지 자연스럽지 않고 작위적이라고, 즉 꾸며서 하는 것이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고 느끼는 웃음소리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③ 아버씨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처럼 정확한 간격으로 웃고, 심지어 새벽녘 잠자리에서 방금 깨어나 전화를 받더라도 '의

것하고 또릿또릿한' 통화를 한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아저씨가 '참 희한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으며 '어쩌면 짜증도 나고 해서 반은 덜 켜 목소리로 더듬더듬 씨불일' '우리 같'은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낀다. 따라서 ㉓는 '나'가 아저씨에게 느끼는 친근감을 더 커지게 한다거나, 아저씨도 '나'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나'가 아저씨를 낙천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여긴다는 내용을 찾을 수 없다.

④ ㉔는 아저씨가 '이 선생'과 통화하면서 낸 웃음소리이지 '나'에게 느낀 불쾌감을 숨기려고 낸 웃음소리가 아니다.

1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김 박사(아저씨)가 월급 문제로 불만이 있는 '나'를 '잘 달래서 따둑거리라'고 아내에게 말한 것은 파스한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다.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김 박사의 면모로 볼 때, 아내로 하여금 월급을 안 올려 주더라도 '나'가 불평 없이 참고 계속 일하도록 만들라는 주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그가 '저 좀 올려 주지 그래'라는 한마디만 했더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서운해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섭섭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전화벨이 울린 직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채신머리없이' 굴다가 전화를 받고 나면 그 즉시 점잖게 돌변하는 김 박사의 가식적인 모습을 묘사한 부분은 '나'가 관찰한 바를 희화화하여 제시한 것으로, 김 박사가 풍자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게 하는 요소이다.
② 잡지에 실린 김 박사의 글을 읽은 '나'는 '아둔한 생각으로도' 알고 있는 바람직한 글의 요점에 그 글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이게 아닌데 하는 스스로의 의문을 풀지 못'하는데, 이는 김 박사의 표리부동한 모습에 의아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는 김 박사의 정체를 도무지 알 수 없을 때가 많다고 느끼며, 어릴 적 멀리 있는 천방산이 무척 아름다워 보였지만 막상 가 보면 그 인상과 달라서 자기네 뒷동산과 큰 차이가 없었다는 기억을 떠올린다. 이는 세상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알고 있는 김 박사의 대단한 모습은 자신이 가까이에서 지켜본 모습과는 크게 다르다는 해석을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⑤ '너무 아저씨의 곁에 가까이 있어서 어떤 때는 무엇이 아저씨의 정체인지 잘 모를 때가 많'다고 느끼는 것을 '나'는 '큰 나무의 바로 밑동에 서서 보면 그 나무의 꼭대기가 안 보이'는 것과 비슷할 수 있다고 어렴풋이 느끼며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라고 한다. 이는 김 박사의 정체를 '나'가 쉽사리 판단할 수 없다는 난감함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15~17 현대시

㉓ 고정희,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

해제 > 이 작품은 어머니의 무덤을 찾은 화자가 세상을 떠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며 영원한 이별 끝에 깨닫게 되는 것들을 읊은 시이다. 화자는 어머니를 추억하며 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가 곧 텅 빈 공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여백이라는 또 다른 의미로서의 존재감으로 남아 결국은 그 소멸을 통해 새로운 탄생이 이어지고 순환한다는 점을 깨닫고 있다.

주제 > 어머니와의 이별로 깨닫는, 죽음과 탄생의 순환

구성 >

- 1연: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여백의 의미를 감지함.
- 2연: 모든 부재 뒤에는 새로운 탄생이 뒤따름.
- 3연: 화자가 떠난 뒤에도 누군가의 여백이 되기를 소망함.

㉔ 나희덕, 「사과밭을 지나며」

해제 > 이 작품은 사과가 다 떨어지고 난 후의 빈 나뭇가지의 모습을 통해 이별한 상대방을 마음속에서 서서히 떠나보내는 과정을 그려 내고 있는 시이다. 나비의 날갯짓, 사과가 떨어진 후에도 휘어 있는 나뭇가지라는 시적 대상을 통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겪은 후 아픔을 겪어 내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상대방과의 결별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이별의 수용과 극복

구성 >

- 1연: 나비의 날갯짓이 무겁다고 느낌.
- 2연: 사과를 떨어뜨린 나뭇가지가 여전히 휘어 있음을 봄.
- 3연: 이별한 대상에 대한 미련을 털고 결별을 수용하며 무겁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과정
- 4, 5연: 이별을 받아들이기까지 오 년이 흐름.

1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가), (나)에 모두 현재형 어미가 드러나 있으나 화자의 의지가 현재형 표현을 통해 드러난 것은 아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뗏새의 발목을 툭, 치며', '쟁쟁쟁 흘러가는', (나)의 '툭, 떨어지는'은 모두 음성 상징어를 사용하여 번잡한 일상과 멀어지고 있음((가))을, 시적 화자가 집착에서 놓여나고 있음((나))을 나타낸 구절들이다.

② (가)에서는 '여백이란 쓸쓸함이구나 / 쓸쓸함 또한 여백이구나', (나)에서는 '내려놓았구나', '가볍겠구나' 등에서 '-구나'라는 어미를 반복하여 상실과 이별에 대한 화자의 깨달음을 강조하고 있다.

④ (가)의 '적송밭 그 여백 아래 앉아 있으면', '잔소리들이 / 방생의 시냇물 따라 / 들 가운데로 흘러 흘러 바다로' 등의 표현에,

(나)의 환해진 ‘사과나무 그늘’, ‘나비의 날개’보다도 가벼워졌다는 표현 등에 화자가 처한 상황이 형상화되어 있다.

⑤ (가)의 ‘오’, (나)의 ‘아’는 모두 화자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된 순간을 강조하는 감탄사로 볼 수 있다.

1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오 년’이라는 기간을 진술하여 ‘사과 한 알을 내려놓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을 뿐, 그 이유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나비조차 낮게 나는가’는 가볍게 날아야 할 나비가 가을이 되자 낮고 무겁게 날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화에 주목한 진술이다. 화자는 이를 언급하며 ‘가을엔’이라고 덧붙여 가을이라는 결실과 수확의 계절을 나비가 나는 모습이 변화한 이유와 연관 지어 표현하고 있다.

② 열매를 다 내려놓았다는, 이전과 달라진 조건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휘어져 있는 나뭇가지의 양상에 주목하며 화자가 느끼는 마음의 무게와 연결 지어 표현하고 있다.

③ 화자의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 ‘나비의 날개보다’도 가벼워진 상태를 ‘사과나무 그늘이 환해’진 변화와 연결 지어 드러내고 있다.

④ ‘툭’이라는 음성 상징어와 심표를 사용하여 가지와 사과가 분리되는 순간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화자가 마음에 남아 있던 미련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순간을 형상화하고 있다.

17 작품의 종합적 이해와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가)의 화자는 어머니를 잃고 그 부재를 느끼고 있고, (나)의 화자는 멀어져 있는 대상을 가슴 속에 이제껏 무겁게 담아 두고 있다가, 그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깨달음을 얻고 있다. 이는 ‘상실의 고통’과 관련이 있는 시구로 볼 수 있으나 탄생과 죽음 사이의 순환에 대한 내용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의 화자는 이별 후에도 이별한 존재와의 새로운 만남 또는 새로운 존재와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겪은 이별에서 얻은 깨달음을 생명의 탄생과 죽음이 순환한다는 보편적 이치와 연결하고 있다.

② (가)에서 사별한 어머니를 떠올려 보던 화자가 ‘나도 너로부터 사라지는’ 때를 말하는 것은, 자신 또한 세상을 떠나거나 사랑하는 이로부터 이별해야 할 때가 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이치임을 깨닫고 앞으로 닥쳐올 이별을 떠올려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나)의 화자는 이별을 수용하고 극복하게 되자 자신이 느끼는 홀가분한 감정을 나비의 날개보다 가볍겠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이별한 상대방과의 관계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인정한 후에 느끼는 감정을 ‘나비의 날개보다’라는 시구로 강조하고 ‘가벼움’이라는 감각으로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다.

⑤ (가)에서 어머니가 떠난 후의 자리를 ‘큰 여백’이라고 표현하고, (나)에서 열매를 다 떨군 빈 가지의 ‘허공’이 ‘열매보다 더 무거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별로 인한 부재감과 상실감이 크다는 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는 모두 시적 대상이 떠나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로 인해 떠나간 이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실전 학습 2회

본문 322~336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①	05 ④
06 ①	07 ③	08 ③	09 ③	10 ⑤
11 ⑤	12 ③	13 ⑤	14 ④	15 ⑤
16 ①	17 ②			

01~04 고전 산문

■ 작자 미상, 「금환기봉」

해제 ㉠ 이 작품은 여성 주인공 장선빙이 남장을 하고 생활하면서 자신이 처한 고난을 극복하고 사회적, 국가적 능력을 인정받는 여성 영웅 소설이다. 남녀 주인공이 처음부터 천상계에서 예정한 운명적 관계로 맺어진 존재로 나타나며, 남녀의 결연담과 여성의 영웅담이 결합되어 있는 서사적 특징을 보인다. 장선빙이 남성 주인공 김희경을 뛰어넘어 당대 최고의 영웅이 된다는 점은 당시 소설의 독자층이었던 여성들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제 ㉡ 장선빙의 고난과 영웅적 활약

전체 줄거리 ㉢ 월궁 선녀와 천상계의 문창성은 적강하여 각각 장자영의 딸 장선빙과 김정의 아들 김희경으로 태어난다. 장선빙은 어머니가 죽은 뒤, 우연히 김희경을 만나고 금지환을 주고받으며 백년가약을 맺는다. 이후 장선빙은 유배된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하고, 흑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남장을 한다. 장선빙은 어렵게 아버지가 있는 곳에 도착하지만, 이미 아버지가 죽었음을 알게 되고 정혼자인 김희경을 찾아가는데 김희경이 이사를 가 찾을 수 없게 되자 물에 몸을 던진다. 이때 근처를 지나가던 이영이 용왕이 보낸 환혼주로 장선빙을 구하고, 장선빙은 이영의 집에서 계속 남자의 신분으로 지내게 된다. 이 무렵 김희경은 장선빙이 죽은 줄 알고 결혼을 하지만 계속 장선빙을 그리워하고, 장선빙은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갔다가 김희경과 함께 장원 급제한다. 장선빙과 김희경은 임금의 총애를 받으며 위왕의 반란군을 토벌하는 공을 세우는데, 이에 임금이 장선빙을 부마로 삼으려 하자 장선빙은

그간의 사정을 밝힌다. 임금은 장선빙과 김희경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고 둘은 행복하게 살다가 승천한다.

01 작품의 내용 이해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장선빙이 배 안에서 눈을 들어 살펴볼 때 ‘어떤 노인이 갈전에 베옷을 입고 앉아 있었’다고 하였고, ‘장선빙이 다시 사례하다가 문득 보니, 설랑과 영춘이 사람들 사이에서 걸어오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이영이 장선빙을 만나고 이후 설랑과 영춘이 장선빙이 있는 장소로 왔음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장선빙은 남해 용왕의 시녀가 준 것을 먹고 정신이 든 뒤 ‘가만히 눈을 들어 살펴보니 집이 아니라 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노인이 자기를 구하여 살렸음을 짐작하고, 설랑과 영춘은 필시 죽었으리라 생각’하였다.

③ ‘두 사람이 함께 어전에 이르자 임금과 여러 신하가 길이 칭찬하였’으며, 임금이 ‘내가 이 두 사람을 모두 쓰려고’ 한다고 하자 신하들이 ‘폐하께서 오늘 주석 같은 두 신하를 얻었으니 국가의 큰 행운입니다. 신들이 어찌 폐하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라고 하였다.

④ ‘임금이 크게 기뻐하며 즉시 김희경을 한림학사에’ 제수하고 이후 김희경과 장수정(장선빙)이 ‘궐문을 나’왔으며, ‘김희경이 돌아오자 김정 부부가’ 기뻐하였다.

⑤ 장선빙이 ‘상소를 올려 장자영의 억울함을 풀어 주기를 청하’자 임금이 ‘그 품은 마음에 감동하여 즉시 애매함을 풀’었다.

02 인물의 심리, 태도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옥’과 ‘진주’는 김희경과 장선빙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 임금이 신하들에게 김희경과 장선빙의 장단점을 서로 비교하여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시녀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귀한 몸을 보충하십시오.’라고 하며 상대에게 바라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환혼주를 얻어 아가씨를 구’했다고 하며 장선빙을 구한 자신의 행위와, 이러한 행위의 이유가 ‘용왕의 명’임을 밝히고 있다.

② ‘세상을 나쁘게 여’겼다는 이영의 말에 장선빙은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액운을 면치 못’했다고 밝히며 자신의 입장을 드러내고 있으며, ‘다시 살려 주신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고 하며 상대의 행동이 자신에게 미친 영향을 제시하고 있다.

③ 김희경은 ‘왜 장 소저는 나에게 혼자라고 했는가?’라고 하며 장선빙이 과거에 했던 말을 떠올리고 있으며, ‘혹시 나를 속인 것

인가?’라고 하며 장선빙이 이전에 했던 말이 사실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⑤ 영춘이 ‘당초의 맹약을 어찌하실’ 것인지 묻자, 장선빙은 ‘머지 않아 나를 찾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그때 내가 자연스럽게 대답할 말이 있다.’라고 하며 자신의 계획을 드러내고 있으며,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며 상대의 걱정을 불식시키려 하고 있다.

0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주인공인 장선빙은 아버지가 ‘만리 먼 곳에서 원통함을 품고 돌아가셨’음을 떠올리며 ‘장원 급제하면 위로는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과거는 주인공이 아버지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활용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주인공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함을 깨닫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② 주인공을 시기하는 세력에 대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④ 주인공은 ‘이영의 권유’로 과거를 보러 왔다고 하였다.

⑤ 주인공은 자신을 ‘수정’이라고 하며 여자임을 숨기고 있지만, 정체가 밝혀지는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다.

04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갈전에 베옷을 입은 노인은 ‘이영’으로, 장선빙은 ‘남해 용왕의 시녀’가 준 ‘환혼주’를 먹고 살아난다. 이영은 초월적인 존재가 아니며, 초월적 존재는 공중에서 내려온 남해 용왕의 시녀라고 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이영은 장선빙을 보고 ‘마치 선계의 단산에 깃든 봉황과 같이 세속에 찌든 모습이 조금도 없’다고 생각하며 감탄하였다. 또한 이영이 장선빙에게 ‘고향은 어디며 성은 무엇인가? 또한 아버님은 누구인가?’라고 묻자 장선빙이 ‘저는 전 이부 상서 장자영의 아들입니다. 이름은 수정이라고 합니다.’라고 답하는 것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스스로 남성의 신분을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③ 장선빙이 ‘4년 동안 납복을 입고 세상을 살았으니, 사람들이 모두 나를 남자로 알고 있다.’라고 하며 ‘장원 급제하면’ ‘아버님의 원통함을 씻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납장을 수단으로 삼아 가문의 누명을 벗고자 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④ 장선빙이 ‘장원의 푸른 옷을 입’었다는 것과 ‘태학사 벼슬의 홀을 잡고 있’었다는 것에 여성 주인공이 임금으로부터 태학사 관직을 받음으로써 사회적 지위를 얻은 사실이 나타나 있다.

⑤ 설랑과 영춘이 ‘한숨’을 쉬고 ‘아가씨께서 이렇게 귀한 몸이 되셨으니 기쁘기 그지없’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어찌시려고 이러십

니까?’라고 하는 것에 기쁨과 우려를 드러내고 있음이 나타나 있고, 이에 장선병이 ‘아버님의 원통함을 풀기 위한 것이니, 만일 이 일만 이룰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에 애정의 성취보다 아버지의 원통함을 풀어 가문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면모가 나타나 있다.

05~10 갈래 복합

㉠ 박목월, 「산이 날 애워싸고」

해제 > 이 작품은 화자를 애워싼 ‘산’이 화자에게 말을 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자세를 노래하고 있다. 다양한 자연물을 활용하고, 동일한 시구의 반복을 통해 순수하고 소박한 삶에 대한 화자의 지향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순수한 삶에 대한 지향

구성 >

- 1연: 욕심 없이 생계를 유지하며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
- 2연: 평범하고 소박하게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
- 3연: 자연의 순리에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삶의 지향

㉡ 문정희, 「호름에 대하여」

해제 > 이 작품은 삶이란 곧 흘러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삶이 화자나 사람들이 소망하는 이상향으로 흘러가지 못한 채 죽음으로 귀결되는 숙명적 한계를 가진 것임을 자각하고 이로 인한 삶의 비애를 노래하고 있다. 삶을 흘러가는 것에 빚낸 표현과 상징적 의미를 지닌 자연물, 의문형 어미의 반복적 사용을 통해 화자가 느끼는 삶의 비애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주제 > 삶의 숙명적 한계와 비애

구성 >

- 1연: 이상향에 도달하고자 하는 소망
- 2연: 가치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
- 3연: 희망과 자유가 주어진 것처럼 보이는 인간의 삶
- 4연: 삶의 이유와 의미에 대한 의문
- 5연: 이상향에 도달하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숙명
- 6연: 삶의 숙명적 한계와 비애

㉢ 허균, 「한정록 서」

해제 >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옛사람들과 같이 자연 속에 귀의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를 밝히고, 시대와 운명에 부합하지 않는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으로 들어가 살고 싶은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글쓴이는 자연에 귀의하여 살았던 옛사람들을 분류하는 한편, 관직을 가진 신하로서 사회적 책무를 도외시키고 자연 속에 살아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옛사람들과 같이 자연 속으로 들어가 살고 싶다는 소망을 피력하고 있다.

주제 > 자연에 귀의하여 살지 못한 이유와 자연 속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

구성 >

- 기: 벼슬을 버리고 자연 속에 숨으려는 태도의 부당함과 의문
- 승: 세속적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성찰과 옛사람들과의 비교
- 전: 관직을 가진 신하로서 자연 속에 숨어들지 못한 이유
- 결: 시대와 운명과 맞지 않은 속세를 떠나 자연에 귀의하고자 하는 소망

05 표현상의 특징 파악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나)에서 화자는 ‘자유를 주었는가’, ‘우리들은 왜 흐르는가’, ‘산으로 가는가’, ‘제 목숨 갖고 가는가’와 같이 물음의 형식을 활용하여 ‘바다’에 도달하여 ‘바다’가 되고자 하는 삶에 도달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가)에 독백적 어조가 사용된 것은 맞지만 이를 통해 체념적 정서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가)의 화자는 독백을 통해 산이 자신에게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고 있다는 형식으로 자신이 소망하는 삶의 방식을 우회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② (가)에는 유사한 속성을 지닌 시어들이 사용되고 있을 뿐 대립적 시어가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

③ (나)에 ‘슬픔처럼’, ‘약속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유적 표현은 화자가 느끼는 안타까움의 정서를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을 뿐, 화자의 희망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⑤ (가)에서는 전반적으로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드러낸 부분은 찾아볼 수 없다. 또 (나)에서는 ‘영롱한’과 같은 시어를 통해 시각적 이미지가 사용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대상이 지닌 역동성을 환기하고 있지는 않다.

06 배경 및 소재의 가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화자에게 욕심 없고 소박하며 순수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을 전하는 대상이므로 화자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은 화자가 동경하는 ‘바다’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을 통해 어쩔 수 없이 도달하게 되는 운명적 공간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② ㉡은 화자가 바라던 이상적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삶과 관련된 것이므로, 화자가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삶과 연관성이 있다. 하지만 ㉠은 화자에게 삶의 지침과 방향을 제시해 주는 대상일 뿐 ㉡를 통해 화자의 삶이 고양되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③ ㉠은 화자에게 삶의 지침을 주는 존재이다. 화자가 이러한 삶의 지침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에 귀의할 필요가 있으며, 화자

는 ㉠에 귀의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는 화자가 바라던 삶의 이상적 흐름으로 나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도달하게 된 결과에 해당하므로, ㉡를 화자가 도피하고자 하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은 화자에게 특정한 삶의 방식을 지시하는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는 화자가 자신이 바라던 삶의 방향으로 흐르지 못하고 도달하게 된 결과일 뿐, 화자에게 삶의 목표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존재는 아니다.

⑤ ㉠을 통해 화자가 바람직한 삶의 지침을 설정하고 이러한 지침에 따라 살아가자 하는 생각이 있다는 점에서 화자가 ㉠을 통해 일부 위안을 얻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는 화자가 바라던 삶의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된 공간이므로, ㉡를 화자가 위안을 얻는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07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은 화자가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공간에 이르지 못한 채 죽음이라는 숙명적 삶의 과정을 경험해야만 하는 안타까움과 탄식을 드러내고 있는 시구이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그믐달은 보름이 지나고 기울어진 모양의 달이므로, ㉠에 삶도 차오르면 언젠가는 기울어지게 된다는 인식이 내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삶을 표현하기 위해, 물처럼 흘러 바다로 가고 싶다는 비유적, 상징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화자의 의문이 제시된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④ ㉠을 통해 글쓴이는 세상에 휩쓸려 살면서 당대의 판단 기준으로 미치광이나 망령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옛날의 현자들은 시원스럽게 혼탁한 속세를 벗어났던 사람들이므로, 글쓴이는 옛날의 현자들과 다른 기준으로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⑤ (다)의 시작 부분에서 글쓴이는 선비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도가 풍속과 어긋나고, 운명이 시대와 맞지 않을 때에만 고상한 생활에 몸을 던져 숲속으로 도피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에서 글쓴이는 현재 자신의 삶이 시대와 운명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하며 과거 선비들이 탄식하며 숲속으로 도피하려고 했던 것과 비슷한 구석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옛사람, 즉 선비들과 자신의 공통점을 이유로 숲속으로 도피하려는 여지를 남겨 두고 있으며, 이러한 의향을 피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08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다)에서 글쓴이는 권세를 좇는 길 위에서 허둥대느라 한 해 내

내 한가로운 때가 없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글쓴이는 세속적 가치를 좇는 생활을 지속하며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글쓴이는 선비가 요순 같은 임금 아래에서 고위 관직을 맡고 있는 자가 소부나 허유와 같이 자연에 귀의하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② 글쓴이는 그동안 이루어 놓은 공훈이나 업적이 없다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④ 글쓴이는 자신의 뜻이 시대와 운명에 부합하지 않다고는 하였으나 다른 사람의 칭찬이나 비방에 동요하여 벼슬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하지는 않았다.

⑤ 글쓴이는 스승으로부터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였으며, 거침없고 도도한 행동 탓에 권세가로부터 미움을 받았다고 하였다.

09 작가의 관점, 주제 의식 파악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다)의 마지막 부분에서 글쓴이는, 훗날 숲 아래에서 세상을 버리고 속세와 인연을 끊은 선비, 즉 소부나 허유와 같은 인물을 만나 이 책을 내어놓고 서로 논평하며 읽고 싶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처음 먹은 마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였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소부와 허유가 살던 시절은 요순이 다스리던 세상으로 군주와 신하가 서로 화합하고 도와서 정치와 교화가 잘 펼쳐졌다. 그러므로 글쓴이가, 도가 풍속과 어긋난 시절에 소부와 허유가 보인 삶의 태도나 처세의 방법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② 글쓴이는 사강락이나 백향산이 벼슬아치들과 텅굴다가 산수에 오만한 기분을 풀었는데, 자신은 이들과 같이 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부와 허유는 벼슬살이를 하지 않고 있었으며 요순시대에 살면서도 정사를 맡는 일을 거부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부와 허유가 숲속에 몸을 던져 생활하는 것을 자신만의 오만한 기분을 풀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소부와 허유는 군주와 신하가 서로 화합하고 도와서 정치와 교화가 잘 펼쳐진 요순시대의 인물로,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도 정사를 맡는 일을 거부하였다. 그러므로 소부와 허유가 세상을 떠난 것을 군자와 신하가 화합하여 정치와 교화가 잘 펼쳐졌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도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받지 못한 것은 소부와 허유가 아니라 글쓴이 자신이다.

10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나)의 화자는 '바다'로 흘러가 '바다'가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

지고 있으며, 그러한 흐름의 과정에서 키워 낸 영롱한 ‘진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나)의 화자는 이처럼 ‘바다’로 흘러가는 것을 소망하지만 이를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진주’와 같이 영롱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현재의 처지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한편 (다)에서 글쓰이는 자신이 시대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속세를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임금을 저버리고 소부와 허유의 삶을 추종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그런데 ‘사강락’과 ‘백향산’은 벼슬아치들과 어울리면서 산수에 오만한 기분을 풀었던 사람들로, 이들은 속세를 버리고 산수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속세에서 생활하던 중 일시적으로 자연을 찾아 즐기는 사람들이다. 하지만 글쓰이는 상황이 허락된다면 벼슬을 그만두고 자연 속에서 귀의하여 살기를 소망하고 있으므로, 현재의 처지에서 ‘사강락’, ‘백향산’과 같이 자연을 즐기는 것이, 글쓰이가 불가피하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에서 ‘산’은 화자에게 바람직한 삶의 방식에 대한 지침을 설정해 주는 존재로, (가)는 이와 같은 설정과 구체적 소재, 표현들을 통해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방식을 우회적인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편 (나)에서 화자는 ‘바다가 되고 싶다’의 ‘~고 싶다’를 통해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실현하고 싶다는 욕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의 ‘들쭉레’, ‘쑈대발’, ‘그믐달’ 등은 모두 화려한 자연의 모습과 대조되는 소박하고 수수한 속성을 지닌 자연물이다. 또 (나)의 ‘바다’는 넓고 자유로운 속성을 지닌 자연물이다. 그러므로 두 작품의 화자는 각 작품에 사용된 자연물을 통해 자신이 지향하는 삶의 방향이나 그러한 삶의 고유한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③ (가)의 ‘산’은 화자가 지향하는 소박하고 수수한 세계로 자신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삶이 실현되는 공간이다. 또 (다)의 ‘숲’이나 ‘산수’는 어지럽고 혼탁한 현실 세계와 분리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글쓰이가 귀의하고자 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가)의 화자와 (다)의 글쓰이는 이러한 자연적 공간을 통해 자신들이 지향하는 바람직한 삶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나)의 화자는 ‘죽음’으로 인해 인간이 지닌 ‘자유와 햇살’을 빼앗기고 ‘산’으로 종착하게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인간이 죽음이라는 한계로 인해 이상적 자연 공간에 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다)의 글쓰이는 신하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벼슬이나 관직, 즉 사회적 책무로 인해 이상적 자연 공간으로 귀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다)의 글쓰이는, 사회적 책무를 이상적 자연 공간에 도달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14 현대 소설

■ 이기영, 「고향」

해제 ② 이 작품은 대표적인 사회주의 소설로, 일제 강점기 농촌 사회의 빈곤과 계급 모순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주인공 김희준이 고향으로 돌아와 마을 사람들의 비참한 삶과 식민지 자본주의의 착취 구조를 마주하며 계급적 자각을 이루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가는 사실적인 묘사를 통해 농민들의 고통, 지주와 자본가의 억압, 그리고 노동자·농민의 연대를 통한 저항 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두레’라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공동체를 통해 현실의 문제를 타개하려고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당대 카프 문학의 이념적 기반과 예술적 성취를 동시에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는다.

주제 ⑤ 일제 강점기 농촌 현실과 이를 극복해 나가는 농민 의식의 성장

전체 줄거리 ② 동경에서 법학을 전공한 김희준은 5년 만에 고향 원터 마을로 돌아온다. 마을은 철도와 제사 공장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빈곤에 시달린다. 자작농이었던 원철이는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덕삼과 춘식은 가난을 피해 떠난다. 희준은 마을의 황폐함에 충격을 받고 농민 계몽을 다짐한다. 그는 소작농으로 일하며 계몽 활동을 펼치고, 교활한 마름 안승학과 갈등을 빚는다. 승학은 지주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작농을 착취한다. 승학의 딸 갑숙은 고향에서 희준과 재회하고, 읍내 상인 권상필의 아들 경호와의 관계로 고민한다. 승학은 갑숙을 이씨 문중으로 시집보내려 하지만, 그녀와 경호의 관계를 알고 협박을 시도한다. 갑숙은 반발하며 가출해 ‘옥희’라는 이름으로 공장에 취직한다. 경호도 집을 나와 공장 직공이 된다. 갑숙은 공장에서 노동자 권리 운동을 벌이고 경호와 약혼한다. 마을은 풍년에도 소작농에게 혜택이 없고 수재로 인해 더욱 곤궁해졌으며, 희준은 소작료 감면을 요구하며 승학과 대립한다. 갑숙은 공장에서 노동 쟁의를 일으키고, 희준은 이를 돕다가 서로 애정을 느끼며 연대한다. 희준은 승학을 압박해 소작농의 요구를 관철 시킨다.

11 대화의 특징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 ⑤ 조 침치가 마름댁에 잘 말해서 소작료를 감해야 한다고 말하자, 김 선달은 ‘감할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탕감한대도 소출이 없을 터인데요.’라고 대응하고 있으며, 주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름에게 제시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동조를 구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애야, 한 푼이 새로운데 왜 그랬니. ~네가 받기 싫으면 내가 받으마.’, ‘그건 그게고 이진 이게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② ‘그만뒹요. 우리는 그 돈 아니라도 집을 고치지 않수.’,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주면 그도 좋은 일 아니겠수.’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③ ‘인제 꼭 죽었으니 이 일을 어쩌야 좋단 말인가?’하고 한숨을 내쉬는 조 침지의 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④ ‘아따, 귀기면 아저씨 한 분만 귀기겠수. 대동지환으로 죄다 죽을 판인데요 뭐.’, ‘감할 게 어디 있어요. 아주 탕감한대도 소출이 없을 터인데요.’, ‘다른 사람들도 여출일구로 김 선달의 말에 동의한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12 인물의 성격 이해

답 ③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③ ‘벼가 익기도 전에 베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을 소작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태도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통해 계산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선악 구도의 중립적인 위치에 놓이는 인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안승학은 오히려 농민을 착취하는 부정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안승학은 일반적인 농민들과는 다르게, 지적도를 위조하고 전 환줄을 대는 동생을 이용하는 등 근대적인 문물을 익숙하게 이용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를 통해 혼란기 속에서 지위와 부를 구축하는 등 현실 감각이 있는 인물로 짐작할 수 있다.

② 동생에게 희준의 감시를 부탁하고, 희준의 영향력이 농민들에게 미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을 통해 희준이 기존의 지배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안승학은 이런 희준을 위협적인 존재로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대결하려는 이기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④ 소작인들의 대응 계획을 ‘불온한 공기’로 인식하며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통해 농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려는 자본가의 부정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다.

⑤ 길동 아버지의 입장에서 ‘그것은 자기도 그전에 안승학이가 구차하게 지낼 때는 오히려 승학이보다도 잘살았다.’고 진술한 부분을 통해, 이전에는 안승학이 지배 계층이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는 소작인들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통해 과도기적 혼란기 속에서 지위가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물의 특징을 바탕으로 독자는 당대 현실을 짐작할 수 있다.

13 소재의 기능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톨이라도 남의 사정을 보려 들었다. 그것은 누구를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었다.’, ‘만일 이웃 간에서 누가 굶는데 양식 있는 집으로 먹이를 꾸러 갔다가 그 집에서 거절을 하는 지경이면 그 집과는 수화를 불통하고 안팎 없이 발을 끊

는다.’ 등을 통해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이기적으로 행동한 사람은 공동체의 유대에서 배제함으로써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의 가치를 인식하게 하는 조직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두레를 통해 서로 도움을 주려는 분위기를 진술한 부분을 통해, 운영의 한계에 직면하게 된 조직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② 이 글에서 홍수의 재난 상황을 진술한 부분을 통해서 천재지변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발동하는 협력체임을 파악할 수 있으나, 마을이 모두 혈연적인 유대 관계를 바탕으로 두레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남을 돕는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 글에서 서술하고 있는 두레의 성격상 여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된 것이다.

④ 마을의 환난이 있을 때 협력하는 방식이지만, ‘관’의 성격이 담긴 것이 아니라 민간의 자발적인 협력체라고 볼 수 있다.

14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④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④ 희준이 소작료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타작관이 내려와서 간평을 할 때’로 계획을 세우며 ‘회심의 웃음’을 짓는 것은, 혼자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므로 민중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장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① 이 글의 앞부분에서 폭우로 인한 마을 사람들의 침수 피해와 농사의 작황이 막막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다. 중략 이후 부분에서는 이러한 소작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안승학의 심리가 드러나 있으므로, 안팎으로 피해한 상황에 처한 농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② ‘작인들의 관심은 차차 소작료를 중심으로 날이 갈수록 물론이 돌기 시작하였다.’에서 ‘물론’은 많은 사람이 이러쿵저러쿵 논평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소작인들이 흉작 상황을 인식하고 이 상황에서 소출을 감행하는 부당한 경제 구조에 대해 함께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이웃의 일을 자기 일처럼 보살펴 주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만큼 길동이네도 자연 그에게로 마음이 쏠리게 된 것이었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⑤ 이 글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 소작인들이 서로 ‘남의 사정을 보려 들었다. 그것은 누구를 무서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에게도 유익이 돌아오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고,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 김희준이 연대의 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5~17 고전 시가

㉠ 작자 미상, 「규수상사곡」

해제 > 남녀 간의 연정을 노래한 가사이다. 제목이 '규수상사곡'으로 되어 있으나 규방의 규수가 지은 것이 아니라 남성이 주체인 상사곡이다. 사랑하는 대상이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이기에 잊으려고 무단히 애썼으나 그리움이 커진다는 내용으로,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을 알면서도 그리움을 호소하는 사랑의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다.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구성 >

- 서사: 임과의 이별의 배경과 슬픔의 시작
- 본사: 상사병에 걸린 화자의 고통과 애절한 심정(수록 부분)
- 결사: 죽어서도 임을 잊지 못할 지극한 사랑

㉡ 박효관, 「임 그린 상사몽이 ~」

해제 > 깊은 가을밤에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심정을 표현한 평시조이다. 임을 그리워하여 꾸는 꿈이 귀뚜라미의 낮이 되어 임을 찾아가고자 하는 간절함이 드러나 있다.

주제 > 임에 대한 그리움

구성 >

- 초장: 임을 그리워하여 꾸는 꿈이 귀뚜라미의 낮이 되길 바람.
- 중장: 귀뚜라미 낮이 되어 임에게 가고 싶음.
- 종장: 임의 잠을 깨우고 싶음.

15 화자의 태도 및 어조, 정서 파악

답 ⑤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⑤ 화자는 '무심하다 저 여자가 가련하다 이내 청춘', '목석이 아니거든 인정조차 없겠는가'라고 하며 임에 대한 섭섭함, 그리움 등의 감정을 느끼고 있으나 임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추측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다시 못 볼 임'을 잊지 못해 '이내 시름 골수에 젖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임을 영원히 못 볼 것만 같다고 생각하며 시름겨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식불감미하고 침불안석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임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해 입맛을 잃고 편안히 자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이내 심정 가련하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랑을 하는 자신의 처지를 가련하게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열녀 정절 본받으면 천만년을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는 사랑하는 임이 열녀의 정절을 본받는 것보다 자신과의 사랑을 택하는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시어, 시구의 의미와 기능 파악

답 ①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① ㉠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리워하다가 황천객, 즉 죽은 사람이 될 지경이라며 사랑의 좌절로 인한 절망감을, ㉡는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커서 임에게 가까이 가 깊이 든 잠을 깨우겠다며 임을 보고 싶어 하는 간절함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② ㉠에는 무심한 임에 대한 원망과 사랑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반영한 대상인 것이지 화자에 대한 임의 변함없는 신뢰를 표상하는 것이 아니다.
- ③ ㉠은 사랑이 성취되지 못한 것에 대한 좌절감이 담긴 표현이고, ㉡는 사랑의 성취를 향한 간절함이 담긴 표현이다.
- ④ ㉠은 임의 처지에 대한 서러움이라기보다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서러움이 담긴 것이고, ㉡는 임과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잠든 임을 깨워 보려고 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 ⑤ ㉠은 자신을 떠난 임이 겪을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이 아니라 보고 싶어도 임을 볼 수 없는 화자의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담긴 것이다. ㉡는 실술의 낮이 되어 자신을 잊고 잠든 임을 깨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자신은 안중에도 없는 임에 대한 섭섭함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17 외적 증거에 따른 작품 감상

답 ②

정답이 정답인 이유

② (가)의 화자가 임을 향해 자신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애원하며 인정을 베풀 것을 호소하는 것은 그만큼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의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임이 해 주기를 기대하는 일에 대해 애원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지만, 현실에 기반한 상상으로 임이 자신의 마음에 화답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태도라고 할 수는 없다.

오답이 오답인 이유

- ① (가)의 화자는 임과의 이별 후에 임을 보지 못해 '홀로 병이' 든 상황에서 자신의 죽음을 상상하고,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고 하며 고통스러운 자신의 현재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의 화자는 임을 떠올리며 눈에 흐릿하게 아픈거리고, 귀에는 또렷하게 들리는 듯하다고 하며 이별로 인해 부재하는 임을 느끼고 있다. 이는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하는 상상을 통해 임의 모습과 소리를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것이다.
- ④ (나)의 화자가 '상사몽'을 통해 실술의 낮이 되어 임의 방에 들어가서 임을 깨우겠다고 하는 것은 변신 모티프를 통해 임에게 다가가고자 하는 비현실적 상상이 드러난 것이다.
- ⑤ (나)의 화자가 임을 '날 잊고 깊이 든 잠'을 자는 존재로 상상한 것은 임을 잊지 못해 꿈속에서라도 만나고자 하는 자신과는 달리 자신을 잊은 것 같은 임에 대한 서운함의 정서를 표현한 것이다.

한눈에 보는 정답

1부 교과서 개념 학습

1강	시의 표현과 형식 01 ④ 02 ② 03 ㉠: 기러기 ㉡: 열 십자
2강	시의 내용 01 ㉠: (가), (다) ㉡: (나) ㉢: (다) 02 ㉠: 가정(家長), (손자의) 할아버지 등 ㉡: 농부 03 ⑤
3강	소설의 서술상 특징 01 (1) × (2) × (3) ○ 02 ④ 03 [A]에서 초점화자는 칠복으로,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칠복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에 주목하게 됩니다. [B]에서 초점화자는 봉구로, 이 대목에서 독자들은 봉구의 칠복에 대한 죄책감(미안함)에 주목하게 됩니다.
4강	소설의 내용 구성 요소 01 • 해당 구절: 응서의 칼이 ~ 추풍낙엽 같으니 / • 평가의 내용: 김응서의 탁월한 무력(武力)에 대한 예찬 02 적의 침입을 미리 알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두고, 자면서도 눈과 귀를 열어 둬. 03 ②
5강	극의 특성과 극 문학의 구성 요소 01 ④ 02 ④ 03 [A]: 헛것 [B]: 갑자기 웃음을 거두며
6강	교술 문학의 특성과 구성 요소 01 ③ 02 ① 03 (자신이) 높아진다,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 (자신에게) 유익하다 등
7강	작품의 작가 및 독자 맥락 01 ① 02 ④ 03 하나씩의 별
8강	작품의 문학사적, 상호 텍스트적 맥락 01 ④ 02 학생 ㄱ, 학생 ㄴ 03 ③
9강	작품의 사회·문화적, 역사적 맥락 01 ㉠, ㉡, ㉢ 02 ③ 03 ④

2부 적용 학습

고전 시가	01	01 ⑤ 02 ③ 03 ①
	02	01 ⑤ 02 ⑤ 03 ③
	03	01 ③ 02 ⑤ 03 ③
	04	01 ③ 02 ③ 03 ④
	05	01 ⑤ 02 ② 03 ④
	06	01 ① 02 ⑤ 03 ⑤ 04 ④
	07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8	01 ② 02 ③ 03 ③ 04 ④
	09	01 ② 02 ② 03 ⑤
	10	01 ② 02 ② 03 ①
	11	01 ④ 02 ① 03 ⑤

현대시	01	01 ⑤ 02 ② 03 ①
	02	01 ④ 02 ③ 03 ④
	03	01 ③ 02 ① 03 ④
	04	01 ④ 02 ① 03 ④
	05	01 ⑤ 02 ⑤ 03 ①
	06	01 ③ 02 ③ 03 ②
	07	01 ② 02 ④ 03 ② 04 ④
	08	01 ① 02 ④ 03 ③
	09	01 ④ 02 ⑤ 03 ④ 04 ③
	10	01 ④ 02 ① 03 ④ 04 ④
	11	01 ① 02 ⑤ 03 ④

고전 산문	01	01 ⑤	02 ④	03 ②	04 ④
	02	01 ①	02 ④	03 ⑤	04 ③
	03	01 ④	02 ④	03 ②	04 ②
	04	01 ④	02 ⑤	03 ④	04 ③
	05	01 ⑤	02 ①	03 ④	04 ⑤
	06	01 ④	02 ④	03 ②	04 ⑤
	07	01 ②	02 ②	03 ④	04 ①
	08	01 ④	02 ④	03 ④	04 ④
	09	01 ①	02 ⑤	03 ②	04 ①
	10	01 ⑤	02 ③	03 ④	04 ②
	11	01 ④	02 ②	03 ③	04 ⑤

현대 소설	01	01 ③	02 ③	03 ④	04 ⑤
	02	01 ④	02 ⑤	03 ①	04 ⑤
	03	01 ①	02 ②	03 ②	04 ④
	04	01 ③	02 ①	03 ④	04 ④
	05	01 ⑤	02 ⑤	03 ⑤	04 ①
	06	01 ②	02 ②	03 ④	04 ⑤
	07	01 ⑤	02 ①	03 ⑤	04 ④
	08	01 ②	02 ②	03 ①	04 ③
	09	01 ②	02 ⑤	03 ④	04 ①
	10	01 ⑤	02 ①	03 ①	04 ②
	11	01 ⑤	02 ③	03 ③	04 ③

극· 수필	01	01 ③	02 ③	03 ②	04 ④
	02	01 ②	02 ③	03 ②	
	03	01 ⑤	02 ③	03 ④	04 ⑤
	04	01 ③	02 ②	03 ③	
	05	01 ⑤	02 ①	03 ③	04 ④
	06	01 ②	02 ③	03 ④	04 ⑤
	07	01 ③	02 ④	03 ③	
	08	01 ④	02 ③	03 ④	

갈래 복합	01	01 ③	02 ②	03 ④	04 ③	05 ④	06 ④
	02	01 ②	02 ④	03 ③	04 ④	05 ⑤	06 ⑤
	03	01 ⑤	02 ⑤	03 ③	04 ④	05 ③	06 ②
	04	01 ④	02 ①	03 ④	04 ②	05 ③	06 ④
	05	01 ③	02 ①	03 ⑤	04 ①	05 ①	06 ⑤
	06	01 ②	02 ⑤	03 ③	04 ④	05 ②	06 ④
	07	01 ③	02 ③	03 ②	04 ⑤	05 ③	06 ②
	08	01 ②	02 ③	03 ④	04 ②	05 ③	06 ③
	09	01 ①	02 ②	03 ①	04 ②	05 ⑤	06 ⑤
	10	01 ④	02 ②	03 ⑤	04 ⑤	05 ③	06 ④
	11	01 ②	02 ④	03 ②	04 ③	05 ⑤	06 ②

3부

실전 학습

1회	01 ③	02 ⑤	03 ②	04 ③	05 ⑤	06 ②	07 ⑤	08 ②	09 ④	10 ⑤	11 ①	12 ⑤	13 ⑤	14 ③	15 ③	16 ⑤	17 ④
2회	01 ②	02 ④	03 ③	04 ①	05 ④	06 ①	07 ③	08 ③	09 ③	10 ⑤	11 ⑤	12 ③	13 ⑤	14 ④	15 ⑤	16 ①	17 ②